

국립국어원 2022-01-3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24-01

##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연구 책임자: 정희창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2년 4월 1일 ~ 2022년 11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연구 책임자: 정희창(성균관대학교)

연구 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희창

공동 연구원: 김지혜, 조남호, 이성우, 오민석, 오규환, 강범일, 한용운, 고대영,  
민지원, 이준환, 이수연, 박지순, 봉미경, 신유리, 이선웅, 김한샘,  
한영규, 이지하, 황호덕, 박용찬, 김선혜

연구 보조원: 김강은, 김종희, 김정원, 손지은, 김지윤, 황지현, 홍상기, 김민지,  
이소미, 조교현

## 【국문 초록】

###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정비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전수 검토하여 제외할 어휘를 선별하고 추가할 어휘를 선정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을 정립한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 보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주요 표제어에 실릴 규범 정보를 선정하고 보완한다. 셋째,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국내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사전 이용자가 사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어사전 활용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7가지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전수 검토하여 기준에 따라 모든 표제어를 ‘일반/유지/보류/삭제’의 등급 중 하나로 등급화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할 어휘 약 99,000개를 선별하였다.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에서 등급 판정은 다음의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중히 판단되었다. 전문어 여부, 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수, 모두의말뭉치 빈도수, 1900년대 신문 자료의 한자 출현 빈도, 인용례 유무, 인용례 개수, 예문 유무, 현대국어사용 빈도조사 결과 빈도수, 우리말샘 등재 여부,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사전 등재 여부, 위키피디아 등재 여부 등.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에 새롭게 추가할 표제어 약 3,000개를 선정하고 사전 원고를 집필하였다. 우리말샘에 실린 어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할 어휘 약 2,500개를 선정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에 따라 용례를 수정·보완하고 사전 원고를 집필하였다. 한편 우리말샘에 실리지 않은 어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할 어휘 약 500개를 발굴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에 따라 사전 원고를 새롭게 집필하였다.

셋째, 규범성과 현실 언어의 조화를 이룬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표제어 등재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언어생활의 준거로 삼을 만한 말을 표제어로 등재한다. ② 자주 사용하는 비표준어와 오폭기는 표제어로 등재할 수 있다. ③ 언어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널리 쓰이는 말을 표제어로 등재한다. ④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등재한다. 한편 특수어(‘~의 전 용어’ 또는 ‘~의 음역어’로 뜻풀이된 표제어 또는 은어), 고유명, 전문어에 대한 제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넷째,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에 구축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항목 약 1,500개를 선정하고, 규범 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구축 규범 정보 목록 약 2만 개에 우선 반영 등급을 표시하였다. 이 중 규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대상으로는 어문 규정에 제시된 어휘 목록으로 삼고 약 1,500개의 규범 정보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다섯째, 국내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국내의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국외의 사전은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일본의 《일본 국어 대사전》,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사전 규모, 개정 주기, 개정 범위, 편찬 기관과 그 성격, 발간 형식, 기타 특징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7가지로 정리하였다.

여섯째,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성격 및 기능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고 사전의 활용법을 안내하는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고 안내서의 요약 PPT도 제작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을 소개하고 사전의 상세한 검색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 활용법 관련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 위원회는 사전 편찬 전문가, 사전학자, 국어학자, 국어교육학자, 언어 정책론 전문가, 한국어 문화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제어의 등재 기준, 전수 표제어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주제로 자문 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변화된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정제된 국어 지식을 전달하는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지속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된 개편 체계를 제시하고 사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소통성 높은 언어생활의 준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표제어 등재 기준, 표제어 제외, 표제어 추가, 규범 정보, 국내외 사전

# 차 례

I. 과업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	2
3.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4
II. 국내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 조사 및 정리 .....	6
1. 국내외 사전 편찬 현황 조사 .....	6
2.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시사점 정리 .....	21
III.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등재 기준 정립 .....	27
1.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 수립 .....	27
2. 제외 어휘 선별 기준 수립 .....	34
2.1. 특수어에 대한 제외 기준 .....	34
2.2. 고유명에 대한 제외 기준 .....	37
2.3. 전문어에 대한 제외 기준 .....	43
IV. 《표준국어대사전》 전수 검토를 통한 제외 어휘 선별 .....	45
1. 전수 표제어 목록 가공 .....	45
2. 전수 표제어 검토 .....	56
2.1.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및 방법 .....	56
2.2. 전수 표제어 검토 지침 .....	62
2.3. 전수 표제어 검토 결과 .....	74

V. 《표준국어대사전》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사전 원고 집필 .....	78
1.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및 원고 보완 .....	78
1.1. 등재 후보 선정 .....	78
1.2. 사전 원고 보완 .....	81
2.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 및 원고 집필 .....	83
2.1. 등재 후보 발굴 .....	83
2.2. 사전 원고 집필 .....	87
VI.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 보완 .....	90
1. 규범 정보 우선 반영 항목 선정 .....	90
2. 규범 정보 보완 .....	95
VII.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 제작 .....	99
1. 책자 내용 구성 .....	99
2.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원고 작성 .....	102
VIII.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104
1.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 설계 .....	104
2. 자문 의견 .....	107
IX. 참고 문헌 .....	128
부 록 .....	131
「부록 1」 전문 분야별 세부 판단 기준 .....	132
「부록 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선정 목록 .....	240
「부록 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 목록 .....	305

「부록 4」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 보완 원고 .....	329
----------------------------------	-----

## 〈표 차례〉

<표 1> 《표준국어대사전》의 발간 형식 .....	8
<표 2>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발간 형식 .....	10
<표 3>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개정 시기 .....	11
<표 4> 《메리엄-웹스터》의 개정 시기 .....	14
<표 5> 국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 비교 .....	19
<표 6> 《표준국어대사전》 초판과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표제어 수 비교 .....	27
<표 7>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변화 내용 .....	28
<표 8> 전문어 전수 검토를 위한 등급 기준 .....	44
<표 9> 기초어휘말뭉치의 세부 구성 .....	50
<표 10> 모두의말뭉치의 세부 구성 .....	51
<표 11> 네이버 백과사전의 세부 구성 .....	51
<표 12> 전수 표제어 파일의 각 항목 설명 .....	53
<표 13> 말뭉치별 ‘저말뭉치’ 조건 .....	57
<표 14> 말뭉치별 ‘고말뭉치’ 조건 .....	57
<표 15> 전수 표제어 분배 내역 .....	61
<표 16>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	63
<표 17> 전문용어의 판단 등급 기준 .....	72
<표 18> 비표준어 등급 판정 결과 .....	75
<표 19> 전문어 분야에 따른 비표준어 처리 방법 .....	76
<표 20> 전문어 분야에서의 비표준어 유지 유형 .....	76
<표 21> 전수 표제어 등급 판정 결과 .....	77
<표 2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원고 집필 일정 .....	85
<표 2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원고 집필 일정 .....	90
<표 24> ‘쫓다’와 ‘좃다’의 의미 차이 .....	94



<표 25> 기구축 규범 정보 현황 .....	95
<표 26> 기구축 규범 정보에 대한 반영 등급 표시 기준 .....	96
<표 27> 기구축 규범 정보에 대한 반영 등급 표시 통계 .....	96
<표 28>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	100
<표 29>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 제작 방법 및 절차 .....	102
<표 30> 책자 제작 내용 .....	103
<표 31> 자문 위원 구성 .....	106

## <그림 차례>

<그림 1> 각종 정보를 기재한 전수 표제어 목록 일부 .....	52
<그림 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	83
<그림 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발굴 .....	88
<그림 4>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 예시 .....	104

## I. 과업 개요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체성 및 가치 확립

(1) 《표준국어대사전》은 웹 사전으로 내용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 사전으로 언어생활의 준거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의 기준으로서 완성도 높은 사전에 대한 언어공동체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고 그동안의 언어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규범성과 현실성을 갖춘 사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의 위상 강화에 따른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 학습자가 공감하는 사전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과의 상호 보완적인 상승 효과가 나도록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국어 연구의 성과와 사전 편찬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전 보완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모두 작용하는 일관되고 발전된 편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의 다양한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국립국어원 사전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식 제고 및 개편 체계 확립

(1)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에 편찬되고, 2008년에 웹 사전으로 개편되면서 부분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분기별 수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개편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전의 내용

이 정제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국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권위가 있는 사전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용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2) 이러한 문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표제어의 추가 및 제외, 뜻풀이 개선, 어문 규범의 내용 반영 등 사전의 핵심 내용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사전에 대한 언어 공동체의 요청에 부응하고 사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 개편 일관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풍요롭고 정확한 언어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의 다른 사전과의 역할과 연계를 강화한 국어사전 플랫폼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이러한 사전 체계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역할 정립은 물론, 국어사전이 한국어의 문화 자산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전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는 새로운 사전의 가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정비

(1) 본 과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등재의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의 언어 공동체의 직관에 부합하며 한국어의 소통성, 언어 문화 자산으로서의 사전의 역할에 충실한 기준을 찾아 《표준국어대사전》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표제어 등재 기준을 마련한다.

- (2) 표제어 등재 기준에는 기존의 표제어를 전수 검토하여 표제어를 제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21)에서 제시한 제외 어휘 선별 기준을 국어사전의 방향성과 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교화할 예정이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의 전수 검토(약 42만 항목)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이 가지고 있는 규범 사전적 특성 및 언어 사전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세우고 말뭉치 등을 활용한 자료 검증을 통해 표제어에서 제외할 어휘를 일관되게 선별한다.
- (3)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 언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언어 공동체에서 공인된 표제어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규범 사전 및 언어 사전으로서 사전의 기능을 확대한다. 표제어 추가 선정을 위해 《우리말샘》을 비롯한 여러 대사전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어 정보학적 연구 성과 및 대규모 언어 자료 분석 등의 새로운 사전 편찬 기법을 폭넓게 활용하는 등 일관된 ‘사전 개편 체계’를 수립한다. 이러한 사전 개편 체계를 통해 《우리말샘》에 실린 어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할 어휘 2,500개를 선정하여 의미를 기술하고 규범성을 판단하며, 《우리말샘》에 실리지 않은 어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새롭게 등재할 어휘 500개를 발굴하여 사전의 외연 확장과 가치 확산을 실천한다.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 보완 및 사전 사용법 홍보

- (1)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는 표제어의 표기부터 발음, 활용, 뜻풀이, 세부 규범 정보까지 여러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범 정보를 구성하는 하위 단계의 정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의 어문 규범에 부합하는 정확한 규범의 해석을 근거로 내용을 정교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규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항목 1,500개를 선정한 뒤,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에 따라 규범 정보를 보완한다. 이 작업은 우

선적으로 규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어휘를 중심으로 규범 정보를 제시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두 사전을 사용자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전 이용법 안내 책자도 제작한다. 이 책자를 통해 사전의 이용법을 홍보하는 한편 사전에 제시된 유용한 정보, 사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검색 방법 등을 알리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체계 정립

- (1)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 개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단순히 국어사전 하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말모이》에서 시작하여 《큰사전》으로 결실을 맺은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국어 정책적인 의미, 새로운 사전 편찬 환경 및 기술의 발전 방향 등 제반 요소와 함께 세계적인 자국어 사전 편찬에 나타난 사전 편찬의 의미와 함의를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사전 개편 체계를 수립한다.
- (2) 이를 위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사전 편찬 전문가, 국어학자, 국어 교육학자, 언어 정책론자, 한국어 문화론자 등의 사전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 3.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된 개편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

»이 규범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사전으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이 상호 보완하는 사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향후 국립국어원 사전 플랫폼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언어생활의 준거인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한층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통성 높은 언어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사전의 내용적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한국어의 사용, 연구, 교육의 중심이 되는 규범사전의 언어 문화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 II. 국내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 조사 및 정리

### 1. 국내외 사전 편찬 현황 조사

국내외 사전 편찬 현황은 각국에서 현재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규범성과 사용성을 두루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전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국내의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우리말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함께 살펴본다. 국외의 사전은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일본의 《일본 국어 대사전》,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을 각국을 대표하는 사전으로 삼아 조사를 수행한다.

#### 가. 국내

##### 1)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내 최초로 국가가 직접 편찬한 사전으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조남호, 2000:5). 어문 규범을 면밀히 적용하여 강한 규범성을 지니며 사전이 완간된 1999년 이후로도 국민의 언어 현실을 반영해 현재까지도 꾸준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략적인 편찬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규모

422,879개 표제어(온라인판, 2022년 3월 현재 기준)

##### (2) 개정 주기 및 범위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008년에 이루어진 1차 개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웹 사전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정보의 수정, 보완이다(정희창,

2016:58).

2008년 개정판 발간을 위한 작업은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2003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정희창·이운영(2008:74-94)을 토대로 정리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표제어 추가: 약 3,600개 표제어(단순 누락 단어, 신조어, 고유 명사 등)
- ② 뜻풀이 전반 검토: 약 58,000 항목 수정·삭제·추가
- ③ 한자 및 한자어 전반 검토: 약 2,800 항목 수정·보완
- ④ 용례 전반 검토: 말뭉치 근거, 약 27,000 항목 수정·추가·교체·삭제
- ⑤ 전문어 감수: 생물, 식물, 동물, 수학, 물리, 화학, 의학, 전기 등
- ⑥ 교과서 비교 검토: 초중고 교과서 자료와의 비교 검토 및 수정
- ⑦ 북한어 검토: 북한어 등재 표제어를 남한어로 수정, 약 9,600 항목
- ⑧ 오폭기 중 방언 검토: 오폭기 표제어를 검토하여 방언으로 수정

2008년 개정판은 웹 사전의 형태로 서비스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에서 분기별로 주요 수정·보완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두드러지는 수정 사항으로는 2019년에 옛말, 방언, 북한어 표제어를 모두 제외하고 《우리말샘》으로 이관한 것이 있다.

### (3) 발행 기관 및 조직

국가 기관인 문화부 소속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2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동 기관에서 두산동아 출판사를 통해 1999년에 발행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이후 2004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4) 발간 형식

초판은 종이책의 형태로 발간되었으나, 2008년 웹 사전 중심의 개정 이후로는 웹 사전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초판 발행 이후 큰 틀에서의 발



간 형식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의 발간 형식

연도	형식	비고
1999	초판 총 3권	10월 9일 상권, 11월 말 중·하권 발간
2001	CD-ROM	
2002	웹 사전(초판)	
2008	웹 사전(개정판)	검색 방식을 개선하여 웹 서비스 개편

2008년 이후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저작권을 개방하고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2) 《우리말샘》

2016년 개통된 《우리말샘》은 국립국어원에서 2009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의 결과물로서, 국민이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국어사전이다(이현주, 2016:65).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더라도 사전 등재 정보의 선별과 추가, 수정 등에 제약이 있어 이를 사전에 실지 못하는 기존 사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방성과 실용성을 큰 특징으로 지닌다. 《우리말샘》의 편찬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규모

1,138,474개 표제어(《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 포함, 2022년 3월 현재 기준)

### (2) 개정 주기 및 범위

사용자 참여형 사전으로서,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필 참여’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그때그때 새 어휘를 집필할 수 있으며, ‘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해 기존 집필 정보에 대한 수정 제안

도 가능하다. 이러한 집필 내용은 전문가 감수 절차를 거쳐 감수가 완료되면 《우리말샘》에 노출된다. 즉 사전 정보가 끊임없이 추가, 보완, 수정된다는 점에서 소위 ‘진화하는 사전’(위진, 2018:9)이라 할 수 있다.

### (3) 발행 기관 및 조직

국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에 《우리말샘》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4) 발간 형식

《우리말샘》은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말샘》 누리집(<https://opendict.korean.go.kr>)을 통해 웹 사전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다음(daum)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3)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2009년에 발간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 이후에 발간된 대사전이다. 약 1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편찬되었으며 언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편찬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규모

386,889개 표제어

### (2) 개정 주기 및 범위

2009년 발간된 이래 개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발행 기관 및 조직

대학 기관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실(現 사전학센터)에서 발행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 말뭉치 외에도 추가적인 말뭉치를 구축하여 표제어를 선정하였으며(도원영·차준경, 2009:7), 총 355명의

인원이 집필, 편찬, 교정, 감수 작업에 참여하였다.

#### (4) 발간 형식

2009년 초판이 종이책으로 발간된 후 포털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누리집 참조).

〈표 2〉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발간 형식

연도	형식	비고
2009	초판 총 3권	
2011	온라인 서비스 1	포털사이트 다음(daum)
20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017	온라인 서비스 2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 나. 국외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사전을 선정해 다음의 정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사전 규모
- 개정 주기
- 개정 범위
- 편찬 기관
- 발간 형식

국가별 조사 대상이 되는 사전은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일본의 《일본 국어 대사전》,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이다.

## 1)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

- 2022년 기준, 전 세계 13.5억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의 대표적인 사전이다.
- 영국 자국 내뿐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사전으로 평가된다.
- 제3판의 길잡이에서 ‘규범적 관점이 아닌 기술적 관점의 사전’임을 밝히고 있으나 ‘잘못된 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1천 년 이상의 영어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어원 정보와 기원 지역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 ○ 사전 규모

- 약 60만 개 표제어, 약 370만 개 용례
- 종이 사전(제2판) 기준 총 20권

### ○ 개정 주기

-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제3판은 3개월에 한 번씩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 한다.
- 초판부터 제3판까지의 개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3〉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개정 시기

1928년	1933년	1989년	1992년	2000년
초판	초판 부록	제2판	제2판 디지털화	제3판

### ○ 개정 범위

- 현재 제3판은 새로운 내용, 정보, 의미를 추가하고 보완할 뿐 아니라 사전의 각 항목을 일일이 다시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판 개정 작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의 내용과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한다.
-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는 학계의 실증적 증거와 최신 이론에 기대어 검토한다.
- 언어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새로운 표제어를 추가한다.
- 사전 편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현대적 문서 자료를 수시로 추가한다.
- 어원 정보는 언어의 명칭에서부터 분석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한다.
- 2000년도 제3판까지의 개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993년 초판 부록에서 새로 생긴 단어, 의미, 참고 문헌 등을 추가하였다.
  - 1989년 제2판에서 20세기 새로 생긴 단어, 북미·호주·뉴질랜드·남아프리카·남아시아·카리비아 지역 등에서 사용하는 영어, 과학 기술 용어 등을 추가하였다.
  - 2000년 제3판부터 단어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재점검 및 재기술이 시작되었다.

#### ○ 편찬 기관

-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현재 제3판 기준, 공립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다.
- 현재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사전 편찬 조직은 각국의 사전학자 70여 명을 비롯한 140여 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전체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이는 18여 명이다.
- 초판은 ‘런던 문헌학회’의 회원들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와 계약을 맺고 집필이 시작되었다.

#### ○ 발간 형식

- 현재 《옥스퍼드 영어 사전》 제3판은 온라인으로 발간하며 정기 유료 구독 형태로 제공된다.
- 구독 서비스 비용은 개인을 기준으로 1년에 100유로이다.

- 온라인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쇄용 사전은 제2판과 추가된 부록 3권이  
다.
- 종이 사전 형태로는 출간하지 않고 있다.

## 2)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 영국 영어가 아닌 미국 영어를 대상으로 편찬된 최초의 사전이다.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무삭제판은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미국의 사전을  
표방한다.
- ‘스타일 가이드’ 항목을 통해 현대 미국 영어의 관습적인 사용 방식을 제시  
하고 있다.
- 노아 웹스터(Noah Webster)가 처음 발간한 《미국 영어 사전(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의 판권을 1841년에  
확보하여 개정판을 내놓고 있는 사전이다.

### ○ 사전 규모

- 약 49만 개 표제어, 유명 저작의 약 12만 개 용례
- 1천여 개의 삽화 자료

### ○ 개정 주기

- 현 온라인판은 신어 등록을 비롯한 정보의 업데이트가 매달 이루어지면  
신어 표제어의 추가는 1년에 1-2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1828년 초판부터 2013년 제3판까지의 개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4〉 《메리엄-웹스터》의 개정 시기

1828년	1841년	1847년	1864년	1890년
초판	제2판	신개정판	제2판 무삭제판	국제판
1900년	1909년	1934년	1961년	2000년
국제판	신국제판	신국제 제2판	신국제 제3판	제3판

부록				온라인판
----	--	--	--	------

## ○ 개정 범위

- 현재 온라인 무삭제판은 표제어, 용례, 어원 정보 등을 추가 및 수정하고 있다.
- 현재 무삭제판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가이드’에는 일반적인 용법, 구두점, 대문자 사용, 축약어 사용, 인용 등과 같은 정보들을 다룬다.
- 현재 신어는 비정기적으로 추가되며, 2019년에는 4월과 9월에 각각 640개, 530개가 추가되었고 2020년 4월에는 535개, 2021년에는 1월과 10월에 520개, 455개가 각각 추가되었다.
- 2000년도 제3판까지의 개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841년 제2판에서 표제어와 어원 정보를 추가하였다.
  - 1864년 제2판 무삭제판에서 새로운 표제어와 유명한 인물의 전기를 추가하여 11만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 1900년 국제판에서 17만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 1909년 신국제판에서 40만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 1934년 신국제판 제2판에서 60만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 1961년 신국제판 제3판에서 고유명사의 배제, 고어의 생략, 백과사전적 부록을 삭제하여 46만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 2000년 온라인판에서 제3판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 편찬 기관

- 노아 웹스터가 처음 발간한 《미국 영어 사전》의 최종 개정판을 기준으로 사기업인 메리엄-웹스터 사(社)에서 판권을 확보해 출간하고 있다.
- 노아 웹스터의 초판본 사전이 저작권의 만료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전이 되었다.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한 파생 사전이 집필되거나 ‘웹스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됨으로써 현재 ‘웹스터 사전’을 발행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 ○ 발간 형식

- 현재 《메리엄-웹스터》은 2000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간하며 정기 유료 구독 형태로 제공된다.
- 구독 서비스 비용은 1개월에 4.95달러, 1년에 49.95달러이다.
- 현 온라인판은 1961년 발간된 《신국제 제3판(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을 계승한 것이다.
- 메리엄-웹스터 사는 종이 사전 형태로는 출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3)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 초판 발행부터 3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칙을 지켜 발간하는 자국어 사전으로, 사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프랑스 학사원의 한 기관인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가 프랑스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 어원이나 역사적 정보보다 어휘와 문법적 요소를 우선시한다.
- 올바른 용법만을 선별하여 기술하는 규범 사전이다.
- 어휘 목록은 공통어에 한정하여 선정한다.
- 용례는 인용이 아닌 직접 만들어 제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 ○ 사전 규모

- 약 6만여 개 표제어 예상(제9판, 개정중)
- 약 3.5만여 개 표제어(제8판)

#### ○ 개정 주기

- 초판이 1694년에 간행된 이후 평균 40여 년 간격으로 개정판이 발행되고 있다.
- 현재 제8판은 70여 년이 넘도록 개정 작업 중이다.



#### ○ 개정 범위

- 제9판 1권부터는 프랑스 자국 내뿐 아니라 프랑스어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등재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언어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과 관련된다.
- 앞 판의 정의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한다. 이는 초판에서 동의어와 짧은 문장의 형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방식을 선호한 것과 관련되며 초판부터 아카데미 회원들은 정의의 불완정성을 인정하였다.
- 기본적으로 고어, 신어, 전문 학술어, 기술 용어, 속된 표현은 등재하지 않으나 다음 항목은 등재의 대상이 되므로 개정 범위에 해당한다.
  - 용법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판단된 신어
  - 일반어가 되었거나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전문어
  - 언어의 중요한 일부로 판단된 속된 표현

#### ○ 편찬 기관

- 프랑스 학사원의 한 기관인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발간한다.

#### ○ 발간 형식

- 온라인판을 발행하고 있다.

### 4) 일본의 《일본 국어 대사전》

-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상세한 사전이다.
- 일본어학과 일본문학을 비롯한 역사학, 불교학, 사회과학 등의 3,0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집필한 사전이다.
- 어원 정보와 처음 사용된 용법의 인용을 제시하고 있다.
- 단어를 쓰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한자, 다양한 정의, 단어가 초기에 사용되었을 때의 예시, 발음 정보 등을 제공한다.

#### ○ 사전 규모

- 약 50만 개 표제어, 약 100만 개 용례, 총 14권(제2판 기준)

#### ○ 개정 주기

- 초판 발행(1972년 12월~197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개정은 2000~2002년에 총 1회 이루어졌다.

#### ○ 개정 범위

- 제2판은 전자 자료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제어를 초판 45만 개에서 50만 개로 증보하였다.
  - 용례를 초판 75만 개에서 100만 개로 증보하였다.
  - 출전에 자료 성립연도 및 간행연도를 표시하였다.
  - 《일본방언대사전(日本放言大辭典)》(1989년 간행, 25만 개 표제어)의 성과를 도입하여 방언을 증보하였다.
  - ‘어지(語誌)’란, ‘표기’란, ‘동훈이자(同訓異字)’란을 신설하였다.
    - 어지란: 어원 정보에서 사물의 기원, 사회·문화적 배경 해설 추가
    - 표기란: 다른 사전에서는 어떤 한자가 쓰이는지 제시
    - 동훈이자인: 복수의 한자로 표기되는 현대 일본 고유어에 대해 각 한자의 자의와 고훈을 표시
  - 발음 및 악센트 전면 재검토
  - 기본어(1,000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뜻풀이 재검토

#### ○ 편찬 기관

- 국가가 아닌 사기업에서 발행하였다.
- 발행처는 소학관(小學館)이며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일본 국어 대사전》의 발행을 구상하였다.
- 1964년에 ‘일본 대사전 간행회’가 조직되어 사전 편찬이 추진되었다.

#### ○ 발간 형식

- 현재 온라인판에서 무삭제판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 2007년부터 온라인판을 제공했으며 2007년에 전자사전을 발매하였다.

## 5)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

- 사전 편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고 사전의 종류도 다양한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전이다.
- 중국 최초의 규범적 사전으로 정부 차원에서 간행되었다.
- 표준어(보통화)의 보급과 문자의 규범화를 목적으로 한다.

### ○ 사전 규모

- 6만 9천 개 표제어, 총 1권(제7판 기준)

### ○ 개정 주기

- 1978년 정식판 간행 이후 평균 6~7년 주기로 6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 개정 범위

- 사회적, 시대적 변화를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 제7판까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철 외, 2016:59-63 참조)
  - 1988년 제2판에서 수록어 및 주석 일부를 수정하고 문화대혁명 영향을 축소하였다.
  - 1997년 제3판에서 신조어 및 어휘 의미 항목을 추가하고 영문자모를 부록에 부가하였다.
  - 2002년 제4판에서 1,200여 개 신조어와 어휘 의미 항목을 추가하였다. 국가 규정에 따른 문자를 수정하고, 연대표 및 계량단위표를 수정하였다.
  - 2005년 제5판에서 7,200여 개 신조어를 추가하고 규범어와 이형어를 구분하였으며 품사를 표기하였다.
  - 2012년 제6판에서 3,400여 개 신조어와 어휘 의미 항목을 추가하고, 오래된 어휘를 삭제하였다. 표제어의 분리 및 통합, 뜻풀이 및 품사 표기 검토 등 대규모 규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 2016년 제7판에서 500여 개 신조어와 어휘 의미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어휘를 삭제하였다. 《통용 규범 한자표》(2013) 목록을 반영하였으며 뜻풀이 및 용례 일부를 수정하였다.

#### ○ 편찬 기관

- 1956년에 중국사회과학원어언연구소 사전편집실, 신화사서실, 중국대사전 편집처가 공동 집필을 시작하였다.
- 1975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어언연구소의 주도로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 ○ 발간 형식

- 1978년 정식판 발행 이후 기본적으로 종이책 1권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 2019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 6) 국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 비교

지금까지 정리한 국외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대표적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외 자국어 사전 편찬 현황 비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사전 이름	옥스퍼드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일본 국어 대사전	현대 한어 사전
사전 규모	표제어 약 60만 개, 용례 약 370만 개	표제어 약 49만 개, 용례 약 12만 개	표제어 약 6만 개	표제어 약 50만 개, 용례 약 100만 개	표제어 약 7만 개
개정 주기	온라인 3개월 (현 제3판)	온라인 1개월 (현 제3판)	약 40여 년 (제9판 개정중)	1회 (초판 발행 후)	6~7년 (현 제7판)

				약 25년)	
개정 범위	표제어, 내용, 의미, 항목 구성, 어원 정보	표제어, 용례, 어원 정보, 용법	표제어, 정의, 자국 외 프랑스어 단어	표제어, 용례, 방언, 어원 정보, 한자 표기 정보	표제어, 의미, 뜻풀이, 용례
편찬 기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메리엄-웹스터 사(社)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학관 사(社)	중국사회과학 원어언연구소
편찬 기관 성격	공립대학 출판부	사기업 출판사	국립 학술원	사기업 출판사	국립 학술원
발간 형식	온라인 (무삭제판 유료 제공)	온라인 (무삭제판 유료 제공)	온라인판	온라인 (무삭제판 유료 제공)	종이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타 특징	‘잘못된 용법’의 정보 제시	관습적인 용법, 축약어 사용 등 제시, 실시간 사전 관련 정보	올바른 용법만 제시	가장 일반적인 한자 표기 방식 제시	문자의 규범 정보 제시, 규범어와 이형어 구분

-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표제어와 용례 수가 가장 많은 사전이며, 온라인판에서 3개월마다 표제어, 내용, 의미, 어원, 항목 구성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제공한다. 기술적 관점의 사전임을 개정판 길잡이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잘못된 용법’의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규범 사전으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 미국의 《메리엄-웹스터》는 표제어, 용례, 어원, 용법 등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며 매달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1년에 1~2회 비정기적으로 새롭게 등재한 신어를 발표한다. ‘사전’보다는 ‘콘텐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이 사전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표제어나 ‘오늘의 단어’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 일반적인 용법, 구두점, 대문자 사용, 축약어 사용, 인용 등과 관련된 현대 미국 영어의 관습적인 사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국립 학술원이 발간하는 사전으로 개정 주기가 평균 약 40여 년이다. 제9판은 70년이 넘도록 개정 중에 있으며 제9판 기준 표제어 약 6~7만 개를 수록할 예정이다. 예문은 인용이 아닌 편찬자가 직접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른 용법만 제시하는 규범 사전이다.
- 일본의 《일본 국어 대사전》은 일본의 가장 크고 상세한 대사전이다. 초판 발행 후 약 25년 만인 2000~2002년에 개정판을 출간했다. 표제어, 용례, 방언, 어원, 한자 표기 정보 등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가장 일반적인 한자 표기 방식 등과 같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범 사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은 정부 주도에 의해 평균 6~7년을 주기로, 표제어, 의미, 뜻풀이, 용례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문자의 규범 정보를 제시하고 규범어와 이형어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이 사전은 표준어(문화어) 보급과 문자의 규범화를 목적으로 한 규범 사전이다.

## 2.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시사점 정리

### ○ 표제어 등재 목록의 정비

앞서 살펴본 각국의 자국어 사전들은 개정 주기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표제어로 등재된 어휘들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메리엄-웹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영어 사전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제3판(1961년)의 개정 작업에서 약 24만 개의 표제어를 삭제하였다. 삭제 대상에는 고유명사, 고어, 백과사전적 정보가 해당된다. 또한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에서도 제6판(2012년)과 제7판(2016)에서 오래된 어휘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표제어의 삭제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언중들의 언어생활

과 언어 사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언어 사전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편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고어, 신어, 전문 학술어, 기술 용어, 속된 표현은 등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법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판단된 신어, 일반어가 되었거나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전문어, 언어의 중요한 일부로 판단되는 속된 표현은 등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내용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과업의 주요 내용이 표제어 정비라는 점에서 언중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제어(고어), 언어 사전으로서의 성격과 거리가 있는 표제어(전문어), 언어 생활의 기준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표제어(속어) 등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과 판별 기준에 근거를 제시한다.

## ○ 새로운 표제어의 등록

온라인판을 기본 형태로 취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미국의 《메리엄-웹스터》는 각각 3개월, 1개월 주기(신어 등재는 1년에 1~2회)로 개정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용례와 어원 정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은 새로운 표제어의 추가이다. 해당 표현이 처음 어디에서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경우 편찬 인력 140여 명 중에서 신어를 담당하는 편찬자가 11명이며, 웹페이지에 보이는 ‘신어 정보’란에 수석 편찬자의 신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새로운 표제어의 선정은 ‘관찰 목록(watch list)’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용례 수집 작업에서부터 일반 언중들에 의해 생산된 언어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한다. ‘관찰 목록’대상 중에서 관찰이 더 필요한 단어는 신문, 포럼, 학술 연구, 잡지, 법률 문서,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실제로 지속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표현인지 추적하고 검토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새로운 표제어를 등록하기 위해 《우리말샘》의 등재어를 후보로 선정하는 방식에 타당성을 제공한다. 개방형 사전이므로 언중들의 현 언어생활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해당 표현이 등장했거나 사용된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리말샘》의 표제어는 ‘관찰 목록’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언어생활 지침으로서 규범성과 언어 현실의 조화

앞서 살펴본 국외의 자국어 사전들은 편찬 기관이 국가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관계없이 정도성의 차이는 보이지만 언어생활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과 중국의 《현대 한어 사전》은 자국어와 표준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규범적 특성이 강한 사전이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문법적 요소를 우선시하고 올바른 용법만을 선별하여 기술하는 규범성이 강한 사전이지만, 자국 외 국가에서 사용하는 프랑스 단어를 표제어를 수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언어 자원을 기록하고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술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려는 변화가 있다. 또한 《현대 한어 사전》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어를 추가함으로써 현실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영어권 내에서 규범 사전으로서 가장 강한 권위가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3차에 걸린 개정 과정을 통해 규범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판의 길잡이에서도 ‘규범적 관점이 아닌 기술적 관점의 사전’임을 밝히고 있다. 격식적인 표현부터 속된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 표현을 다루고 신어와 과학 용어, 다양한 언어(라틴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에서 차용한 단어를 포함하는 점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기술적 관점과 관련된다. 이전 판에서는 영국의 표준 발음 정보만 제시한 데 반해 개정판에서는 미국의 표준 발음도 함께 제공한다는 점, 다른 영어권에서 유래한 단어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음 정보도 제공한다는 점은 규범성과 언어 현실이 절충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언어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전이다. 이 사전은 영국 영어로부터 미국 영어를 분리시킨 최초의 사전으로, 당시 특수한 변이형으로 취급받던 미국 영어를 사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미국의 독립이라는 사상적인 목적이 언어관에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 언어를 사전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기술적 관점이 적용된 것이다. 현실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이 사전의 취지는 제2판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삽화와 함께 다수의 비속어와 구어들을 포함하였다. 이와 동시에, 표제어 등록 차원에서 1년에 1~2번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전의 전반적 구성과 내용 차원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메리엄-웹스터》는 ‘단어의 용법과 문법’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언중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표현에 대한 설명, 단어의 용법과 문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언어생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주의를 표방하는 사전이라 할지라도 정도성과 제시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언어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언중들의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이를 위한 준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근거가 된다.

## ○ 쉬운 뜻풀이

자국어 사전은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는 전문 사전이 아닌 일반 언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이다. 국외 자국어 사전들이 전문어나 학술 용어 등을 표제어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일반 언중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전은 표제어에 있어서도 일반어를 중심으로 다뤄야 할 뿐 아니라 뜻풀이 작성에 있어서도 쉬운 뜻풀이를 지향해야 한다. 《일본 국어 대사전》의 경우 뜻풀이를 기술하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용례에서의 쓰임을 반영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손경호, 2016: 127). 한편 《현대 한국어 사전》의 경우 개정 단계에서 명사를 동사로 풀이하던 것을 명사로 풀이하게끔 수정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뜻풀이를 보다 명시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 있다(김현철 외, 2016: 81). 현재 70년 동안 개정 작업 중에 있는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동의어와 짧은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진 뜻풀이를 수정하고 있다. 이 역시 언중들이 해당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목적과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 국어 대사

전》은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어 반복을 피하고 명확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뜻풀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 ○ 용례의 최신화와 풍부화

사전에 제시된 용례는 해당 어휘의 실제 쓰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하게 참고되는 정보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초판을 발간한 당시에도 일반 언중들에게 사전 집필을 위한 언어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 집필에 반영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사전 편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현대적 문헌 자료를 수시로 추가하고 있다. 특히 ‘의미와 용례’ 항목을 두어 각 정의에 해당하는 용례가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제시되는데 고대 영어 문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자료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양이 많다. 《메리엄-웹스터》의 경우에도 해당 표현이 처음 사용된 시기, 최근 인터넷 자료에서 사용된 용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일본 국어 대사전》 또한 용례를 발췌한 출전의 성립연도와 간행연도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해당 어휘가 어느 시기에 사용되었는지, 새롭게 등장한 어휘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의 개편 방식에 참고할 만하다.

## ○ 변이형 정보 수용

규범성이 강한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제9판부터 프랑스 자국 내뿐 아니라 프랑스어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등재하기 시작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프랑스어권의 용법에까지 수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히 지역어를 수용하여 공통어를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 프랑스어권에서 관찰된 변이들도 규범화된 용법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데 의의가 있다(하영동 2015: 120). 이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좁게는 방언적 차이를 들 수 있으며 넓게는 재외국민, 고려인 등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여기

에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 변화된 언어 사용의 환경과 사용자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의 범위를 폭넓게 인식하고 여러 변이형 정보를 수용하여 언어의 규범성과 언어 현실의 반영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사용자 중심의 웹 사전 구성

앞서 살펴본 사전들 중에서 온라인 형태를 전면적으로 취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메리엄-웹스터》는 지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리엄-웹스터》는 ‘사전’을 온라인 공간에 구현해냈다가보다 사전의 성격을 지닌 ‘콘텐츠’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사전들과 구분된다. 기존 사전이 표제어, 뜻풀이, 용례, 문법 정보 등을 언중들에게 선형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라면 이 사전은 사용자 중심으로 ‘검색창’, ‘오늘의 단어’, ‘실시간 단어 검색어 순위’, ‘단어 게임과 퀴즈’, ‘단어 이야기(칼럼)’, ‘단어의 용법과 문법’ 등의 거시 구조로 구성된다.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제반 지식을 폭넓게 얻을 수 있다. 《메리엄-웹스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자원이 매달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 사용자 친화적인 사전의 구성 및 구현 방식은 한국어 교육의 위상이 증대되고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다.

### Ⅲ.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등재 기준 정립

#### 1.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 수립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현황

2022년 3월 기준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은 422,879개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일반어는 222,356개, 전문어는 200,896개이다.<sup>1)</sup> 속담과 관용구가 일반어 항목으로 각각 7,436개, 3,887개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전체 표제항은 434,202개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총표제어 509,076개, 일반어 292,519개, 전문어 225,779개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사전 통계’에 따르면 옛말 표제어 12,811개가 여전히 등재되어 있는데<sup>3)</sup>,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작업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6〉 《표준국어대사전》 초판과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표제어 수 비교

	《표준국어대사전》 초판(1999)	《표준국어대사전》 웹(2022)
총 표제어	509,076	422,879
일반어	292,519	222,356
전문어	225,779	200,896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 최초 편찬 이후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공개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은 웹상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1999년에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는 그

- 1) 수치는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의 검색 결과 수치이다. 사전 통계에서는 전문어의 총합이 204,466개로 검색 결과와 차이가 난다. 3,570의 차이는 복수의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어 다의어 수로 추정된다. 다만 검색 결과 일반어와 전문어의 합은 423,252개인데, 사전 통계 수치는 422,879개로 373개의 차이를 보인다.
- 2)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일반어와 전문어의 총합은 518,298개로, 총 표제어보다 9,222개가 많은데, 이는 일반어와 전문어 통용 표제어다(이운영, 2002:36).
- 3)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의 ‘사전 통계’ 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이다. (<https://stdict.korean.go.kr/statistic/dicStat.do>)

내용이 다르다.

## 나.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

1999년 종이 사전으로 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9년 만인 2008년에 개정되어 웹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수시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이 공개되었다. 규범성이 강한 언어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우리말샘》은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키 방식의 사전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전이다. 일반인의 표제어 등록과 수정 등의 참여가 가능한 특성을 발판 삼아 《우리말샘》은 외연이 크게 확대되어 표제어가 100만 개를 넘는다. 표준어 외에, 신어, 전문어 등 다양한 실생활어를 즉각적으로 사전에 반영하고, 양적으로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이라는 명칭에서 언명된 것처럼 규범적인 사전으로서 언어 사용의 준거라는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격의 《우리말샘》이 편찬됨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두 사전은 그 성격과 지향 면에서 다소간의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2019년 3월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내용적 변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변화 내용

	《표준국어대사전》 (2019년 3월 이전)	《표준국어대사전》 (2019년 3월 이후)
전문 분야	53개	67개
발음 정보	표제어와 동일한 경우 비제시 예) 손재주[-째-]	모든 발음 정보 온전히 제시 예) 손재주[손째주]
활용 정보	활용 정보의 발음이 표제어와 동일한 경우 비제시 예) 디글이[-그시], 디글만[-근만]	모든 활용 정보의 발음 온전히 제시 예) 디글이[디그시], 디글만[디근만]
원어 정보	고유어인 경우 비제시 예) 나비넥타이(-necktie)	모든 원어 정보 온전히 제시 예) 나비넥타이(나비necktie)

동의어	기본 표제어에서만 뜻풀이하고 나머지 동의어에서는 기본 표제어만 제시 예) <b>느낌-표</b> 「명」『어』 문장 부호의 하나. (후략) =감탄부(感歎符). 감탄 부호(感歎符號). <b>감탄-부</b> (感歎符) 「명」『어』 = 느낌표(--標).	모든 표제어에서 온전한 뜻풀이 제시 예) <b>느낌-표</b> 「명」『어』 문장 부호의 하나. (후략) =감탄부(感歎符). 감탄 부호(感歎符號). <b>감탄-부</b> (感歎符) 「명」『어』 <u>문장 부호의 하나. (후략) = 느낌표(--標).</u>
피동사/사동사	“‘능동사’의 피동사/사동사.”라는 형식으로 뜻풀이 예) 잡-히다02 「동」 ‘잡다’의 피동사.	모든 표제어에서 온전한 뜻풀이 제시 예) 잡-히다02 「동」 「1」 <u>붙들리다. ‘잡다’의 피동사.</u>
옛말, 방언, 북한어	등재	제외 (《우리말샘》으로 이관)

즉 《우리말샘》의 정보를 활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 정보를 개선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옛말, 방언, 북한어’를 제외하고 《우리말샘》으로 옮겨 제시하였다. 전자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종이 사전의 체제를 벗어나 진정한 형태의 온라인 사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언어사전으로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사전 정보를 《우리말샘》의 내용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후자는 규범과 언어 현실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옛말, 방언, 북한말’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들어내어 규범성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언어 현실을 폭넓게 수용하는 《우리말샘》으로 넘겨둔 것이다. 두 사전의 지향과 성격에 맞추어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전의 내용을 넣고 빼는 것만으로는 두 사전의 지향과 성격을 온전히 갖추어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에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의 머리말에는 “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을 제시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는 ‘표준’이라는 사전의 명칭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어문 규정만으로는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에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어문 규정을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된 이후 이 사전은 언론, 출판, 교육, 법률 등

언어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준거이자 규범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개편 이후 정기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사전 속구조 즉 미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성을 강화하는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규범성의 강화는 사실 《표준국어대사전》 자체가 규범적인 사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의 전반적인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표제어를 선정하고 어떻게 뜻풀이하는가 하는 것에서 규범의 판단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작업은 사전의 거시구조에서 시작하여 미시구조로 이행해야 하는 일관된 개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선정 원칙 검토

표제어의 등재 기준을 정립하는 일은 가장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선정 원칙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표제어 선정 원칙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그 원칙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다.

- 1) 현재 쓰거나 썼던 말 중에서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를 수록한다.
- 2)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은 수록한다.

1), 2)는 공통적으로 표제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먼저 1)에서는 표제어를 단어로 한정하였다. 사전이 일반적으로 단어집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원칙이다. 2)에서는 단어보다 작은 언어 형식인 접사, 어근, 어미를 비롯하여 단어보다 큰 언어 형식인 구까지 사전 표제어로 삼고 있다. 단어의 구성요소인 접사, 어근, 어미 및 단어에 준하는 구를 표제어로 삼는 것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표제어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런 양상 역시 언어 사전으로서의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 형식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 삼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를 비롯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범위 중

에서 ‘등재 가치’라는 기준으로 선별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게 된다. 1)에서 표제어의 범위를 ‘단어’로 한정하였으나 2)에서 ‘접사, 어근, 어미, 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등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재 가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의 세부 항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말을 수록한다.

가) 표준어는 모두 수록한다.

나) 비표준어는 널리 쓰는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되, 대응하는 표준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북한의 문화어를 폭넓게 수용한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선별하여 수록한다.

3) 전문 분야의 언어를 영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4) 방언을 지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5) 옛말을 선별하여 수록한다.

2019년 개편을 고려한다면 세부 항목 2), 4), 5)는 무의미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 사전으로서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어(북한어), 방언, 옛말’ 등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 요소가 배제되었다. 현재 표준어는 시대, 지역, 계층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규범어인 문화어와 방언은 지역 기준에, 옛말은 시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범 사전의 표제어로 삼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1), 3)이 ‘등재 가치’를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일상에서 널리 쓰는 말을 수록한다.

– 표준어는 모두 수록한다.

– 비표준어는 널리 쓰는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되, 대응하는 표준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 분야의 언어를 영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첫 번째 기준을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는 기본적으로 일상에



서 널리 쓰이는 표준어이어야 한다. 표준어는 좁게는 ‘표준어 규정’에서, 넓게는 ‘어문 규정(공식 해설서 포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거나 이 규정에 부합하는 단어를 이른다. 다만 비표준어를 선별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는 규범 사전으로서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재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이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전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문어는 일반인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해당 전문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그 개념상 일반어에 비하여 사용 빈도는 낮으나 전문어 안에서 빈도가 높고 개념 수준이 일반성을 띠는 용어는 등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국어사전들에 표제어로 등재된 전문어’, ‘전문 서적에 폭넓게 나타나는 전문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전문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어인 일반어(자주 쓰이는 비표준어 포함)와 그 사용 빈도와 개념 수준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어를 표제어로 삼는다.

## 라.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선정 기준을 고려할 때 표제어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다음의 기준은 국립국어원(2021)을 기저로 삼되 본 사업에서 내용을 추가, 보완한 것이다.

### ① 언어생활의 준거로 삼을 만한 말을 표제어로 등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 기관에서 만든 사전으로, 어문 규범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는 곧 표준어로 인정받는다. 교육 현장은 물론 각종 시험이나 공문서 작성, 방송, 출판 등 그야말로 한국어로 영위하는 모든 언어생활의 준거라 할 수 있다. 이는 표제어, 원어 정보,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문형 정보,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등 사전에서 제공하는 언어 정보의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 공신력을 인정받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은 다양한 언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는 곧 표준어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언어생활의 준거로 삼을 만한 말을 표제어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 학교 문법 용어, KS용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표준화된 각 분야의 전문 용어 등을 표제어로 등재하여 일상생활에서 준거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

## ② 자주 사용하는 비표준어와 오포기는 표제어로 등재할 수 있다.

《우리말샘》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던 북한어, 옛말, 방언은 모두 《우리말샘》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만을 표제어로 등재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비표준어나 오포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이 규범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표준어나 오포기이더라도 널리 쓰이는 것은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여, 대응하는 표준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③ 언어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널리 쓰이는 말을 표제어로 등재한다.

《우리말샘》은 사용자들이 찾은 해당 표제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열린 사전이며, 다양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여 사용자들에게 ‘양적 편의성’을 제공한다. 즉, 실생활에서 쓰이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말샘》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성격은 좀 다르다. ‘이런 말도 쓰인다’를 넘어서, 해당 표제어는 언어공동체 차원에서 쓰임을 공인받은 것으로 표기나 용법 등은 규범성을 갖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제된 국어 지식을 전달하는 사전의 역할을 하므로 이를 ‘질적 편의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규범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이 질적 편의성을 지니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를 등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새발’과 ‘딴지’는 각각 2011년, 2015년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그전에는 각각 ‘괴발개발’, ‘딴죽’의 비표준어 정도로 여겨져 왔으나 언어공동체의 직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규범성과 현실성을 인정받아 별도 표준어로 등재된 것이다.

#### ④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등재한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의 표제어 선정 일반 원칙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인 등재 단위인 ‘단어’의 기준과 관계없이 ‘등재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단어가 아닌’ 것은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 ‘접사, 어근, 어미’와 단어보다 큰 단위인 ‘구’를 뜻한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어 이하의 단위뿐 아니라 고유 명사와 전문어의 경우 구 단위가 등재될 수 있다. 위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예가 대표적이다. 구 단위의 표제어에는 ‘가격^경쟁’, ‘구원^투수’ 등 전문어가 주를 이룬다.

## 2. 제외 어휘 선별 기준 수립

### 2.1. 특수어에 대한 제외 기준

#### ① ‘...의 전 용어’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전 용어’는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던 표제어를 새로운 형태로 대신함으로써, 기존 용어의 뜻풀이 기술에 사용하게 된 표현이다. 해당 전문어의 예전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쓰이지 않는 ‘전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전 용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말뭉치에서(모두의말뭉치, 기초어휘말뭉치) 출현 빈도가 1,000 이상인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등재한다.  
예) 갑상선, 갑오경장
- 말뭉치의 출현 빈도가 1,000 미만인 표제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판단되면 등재한다.  
예) 형무소, 하사관, 간질04, 간호원, 국민학교, 노이로제
- ‘삭제’이지만 다의어의 경우 해당 뜻풀이만 삭제  
예) 간수04(?뜻풀이 [4]만 삭제), 천신01(?뜻풀이 [1]만 삭제), 합판04(?뜻풀이 [2]만 삭제)

## ② ‘...의 음역어’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음역어’는 한자음으로 외국어의 음을 나타낸 것으로 로마자가 익숙하지 않던 시절 한자를 이용하여 외국 고유명을 원음에 가깝게 표시하고자 한 결과로 대부분의 전문 영역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로마자가 익숙해지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국 고유명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음역어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표기가 널리 쓰인다면 해당 음역어는 제외할 수 있다.

- 음역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말뭉치에서(모두의말뭉치, 기초어휘말뭉치) 출현 빈도가 1,000 이상인 표제어 중에서 아직 쓰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만 선별적으로 등재한다.  
예) 구라과, 불란서, 불어...

- 말뭉치의 출현 빈도가 1,000 미만인 표제어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판단되면 등재한다.  
예) 노서아, 서반아, 서반아어, 호열자...
- 다의어인 경우에는 해당 뜻풀이만 제외한다.  
예) 가비라, 갈마02...

### ③ 은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은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 집단의 은어의 경우, 널리 알려진 표제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제외한다.
  - “심마니들의 은어로”: 250개 전체 삭제
  - “맹인(盲人)들의 은어로”, “맹인(盲人)의 은어로”, “맹인들의 은어로”: 28  
개 전체 삭제
  - “남사당패의 은어로”, “남사당패들의 은어로”: 24개 전체 삭제
  - “소 장수들의 은어로”: 26개 전체 삭제
  - “쇠살쥘들의 은어로”, “쇠살쥘의 은어로”: 4개 전체 삭제
  - “무당들의 은어로”, “무당의 은어로”: 13개 전체 삭제
  - “벧사람들의 은어로”: 14개 중 빈도가 있는 ‘마과람, 셋바람’ 제외 12개  
삭제
  - “범죄 집단의 은어로”, “범죄자들의 은어로”, “범죄자의 은어로”: 14개  
중 빈도가 있는 ‘짬새, 깔치’ 제외 12개 삭제
- 기타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고 빈도도 있는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등재한  
다.  
예) 세리, 깡사, 갈참, 딱새02, 뽕03, 범털

## 2.2. 고유명에 대한 제외 기준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가운데 고유명(인명, 지명, 책명 등)은 제외·정비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국어사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명’, ‘지명’, ‘책명’ 외에 63개 전문 분야의 전문어에도 고유 명사(특히, 기구·조직명, 건물명, 그림명 등)적인 성격을 갖는 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또한 같은 차원에서 제외·정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언어공동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고유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지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예) 가가와현, 가고시마, 가나공화국, 가론강, 가슬령, 고덕봉...

- 다만, 비유적인 의미가 있거나, 관용구나 속담에서 쓰이거나, 수록 가치가 높은 표제어는 등재한다.

예) 고유명 일반: 인디언, 핼러윈, 노벨상...

예) 지명: 강경(속담 ‘은진은 강경으로 꾸려 간다’), 대전광역시, 아시아, 에베레스트산...

예) <오대양>과 그에 속하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예) <육대주>와 그에 속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구주), <오세아니아>(대양주), <남아메리카>(남미), <북아메리카>(북미)

예) 4대 문명 발상지인 <황허강>, <나일강>,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 계열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족명(OO+ -인(人)), 민족명(OO+ -족(族)) 등은 제외한다.

예) 버마인, 비하르인, 세르비아인, 썸인, 소그드인, 소러시아인...

예) 다우르족, 다코타족, 동슬라브족, 드라비다족, 문다족, 순다족...

- ‘OO의 날’로 풀이된 기념일은 제외한다. 다만 기념일이면서 공휴일인 것은 등재한다.

예) 강탄절, 경찰의 날, 과학의 날, 국제 적십자의 날, 노동절, 법의 날, 부부의 날...

예) 부처님 오신 날, 석가 탄신일, 석탄일, 어린이날...

- 공원 등 시설물 이름, 각종 단체명, 대회명, 회사명, 기업명 등은 제외한다.

예) 디즈니랜드, 그린피스, 에펠 탑...

- 다른 나라의 상징물의 이름은 제외한다.

예) 라 마르세예즈(프랑스 국가(國歌) 명칭), 유니언 잭(영국 국기 명칭), 오성홍기...

## ②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명과 그 수도명은 원칙적으로 등재하고, 나머지 도시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명칭은 등재한다.

### 1) 공식적인 국가명과 널리 쓰이는 국가명은 등재한다.

예)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브루나이 다루살람/브루나이, 과테말라 공화국/과테말라, 노르웨이 왕국/노르웨이, 모나코 공국/모나코...

예) 미국,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명(공식 명칭이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므로 등재)

### 2) 현재 연방제인 곳의 명칭(예: 아메리카합중국)은 등재한다.

2-1) 이전에 있었으나 없어진 연방의 경우,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쓰임이 많은 것은 등재한다.

예) 소련, 소비에트, 소비에트 동맹,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 소비에

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연방, 소연방, 에이에스에스아르, 유  
에스에스아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동의어 관계인 이들 표제어 중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  
방>만 “유지”로 둬.

3)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통일된 나라의 예전 국명은 제외한다.

예)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 북예멘(예멘 아랍 공화국)

3-1) 단,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독’, ‘동독’ 등은 등재한다.

4) <000>과 <000+ 국>이 같은말일 경우 후자는 제외한다.

예) 일본-일본국, 몽골-몽골국 ☞ 일본국, 몽골국 삭제

5) ‘전 이름’, ‘옛 이름’은 제외한다.

예) 그루지야(‘조지아’의 전 이름) ☞ 그루지야 삭제

5-1) 단, ‘~의 다른 이름’으로 풀이되거나 다른 언어로 이르는 이름 등으로 풀이  
된 경우는 등재한다.

예) 안남(‘베트남’의 다른 이름), 홀란드(‘네덜란드’의 영어 이름)

• 수도명은 원칙적으로 등재하고, 수도가 아닌 도시명은 제외한다.

1)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수도명만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헌법상의 수도와 행정상의 수도가 다른 경우 둘 다 인정하여 등재한다.

예) 수크레(볼리비아의 헌법상 수도), 라파스(볼리비아의 행정상 수도)

2) 없어진 왕조의 수도명 등은 제외한다.

3) 현재 존재하는 수도명의 ‘전 이름’, ‘옛 이름’은 제외한다.

예) 콘스탄티노플, 아스타나...

4) 수도가 바뀐 경우 이전의 수도명은 제외한다.



예) 취리히

- 국내 지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는 등재한다.

1) 행정 구역명은 ‘도’ 단위와 일부 ‘시’ 단위는 등재하고, ‘군’ 이하 단위는 제외한다.

1-1) 십사도에 해당하는 <00+ 도>와, 이와 같은 말로 자주 쓰는 2음절 약어는 등재한다.

예) 강원도1, 강원도2,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예) 강원, 경기, 경상, 경북, 경남, 전라, 전북, 전남, 제주, 충청, 충북, 충남, 평안, 평남, 평북, 함경, 함남, 함북, 황해, 해서

1-2) 두 개 이상의 ‘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제시된 표제어는 등재한다.

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하삼도, 호남, 호서, 영남, 영서, 영동, 삼남, 영호남, 기호

1-3) ‘시’ 단위는 다음의 8개 <00+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만 등재한다.

예)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2) ‘섬’[島]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큰 섬 5개는 등재한다.

예)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3) 주요 산과 강은 다음의 표제어만 등재한다. 산은 이름난 다섯 산(오악)과 높은 산 5개를, 강은 긴 강 5개를 등재한다.

예) 오악(五岳):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

예) 한반도의 높은 산(높이 5위까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예) 한반도의 주요 강(길이 5위까지):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 4) 위에 제시된 부류 이외에도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표제어들은 등재한다.

예) 독도, 마라도, 울릉도, 천지, 백록담...

③ 널리 알려져 있고 국어사전에 등재할 가치가 높은 ‘책명’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책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재 가치가 높은 것은 등재한다.
- 동양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널리 쓰이는 것은 등재한다.

예) ‘사서오경’에 해당하는 책: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역경), 예기, 춘추

예) ‘삼례’에 해당하는 책: 의례, 예기, 주례

예) 기타: 소학

1-1) 동의어가 여러 개인 경우 자주 쓰이는 것만 등재한다.

예) <서경>(=상서, 서), <시경>(= 시), <역경=주역>(= 역), <예기>(=예)

- 서양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널리 쓰이는 것은 등재한다.

예) 기네스북, 아라비안나이트, 탈무드, 동방견문록, 군주론...

- 우리나라 고전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빈도와 <편수자료> 등을 참조하여 중학교 수준에서 알 만한 것들만 등재한다.

예) 균여전, 금오신화, 명심보감, 삼국사기, 삼국유사...

1) ‘조선왕조실록’, ‘이조실록’을 제외한 각 왕의 실록은 제외한다.

예) 효종실록, 현종실록...

2) 개인 문집 등은 제외한다.

예) 사가정집, 매월당집

- 구체적인 책명이 아닌 것은 등재한다.

예) 도경, 만성보, 운서, 앤솔러지, 초<sup>12</sup>, 학안, 훈요십조...

#### ④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별한 수록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인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인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다른 표기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 가이사(←Caesar), 카이사르(Caesar, Julius) → 제외
  -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 제외

##### 1) 단, 일부 인명은 널리 쓰이는 표기만 등재한다.

예) ‘공자’는 등재, ‘공구, 공보, 공부, 공부자, 동가구, 문선왕, 선보, 이보, 중니’는 제외

-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묘호나 시호는 등재한다.

예) 태종, 세종, 숙종, 영조...

##### 1) 시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휘 등 한국사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인정하여 등재한다.

예) 발해: 대이진, 대건황, 대위해, 대인선

##### 2) 묘호나 시호를 추가하는 대신 시조(始祖)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역사상 유명한 인물만 등재할 수도 있다.

예) 등재: 견훤, 광개토왕/광개토대왕, 궁예, 대조영, 동명왕/동명성왕, 박혁거세/혁거세, 세종<sup>02</sup>, 온조왕...

예) 삭제: 이성계, 왕건, 이순신...

- 속담에 등장하는 인명은 등재한다.  
예) 공자, 유비, 장비, 조조, 제갈공명, 제갈량, 엄천득, 맹상군...
- 인명으로 보기 어려운 용어는 유지한다.  
예) 계명구도지웅, 충무공, 이제삼왕, 자충, 차차웅, 의상십철, 양주팔괴, 구철...
- 한글 맞춤법에서 예로 제시된 인명은 등재한다.  
예) 김립, 김입, 최린, 최인, 신립, 신입, 채륜, 채윤
- 등재 가치가 있는 인명은 등재한다.  
예) 예수, 마호메트
- 뜻풀이에 언급된 인명이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예) 십철: 공자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열 사람.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염옹(冉雍),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구(冉求), 자로(子路), 자유(子游), 자하(子夏)를 이른다.  
⇒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염옹(冉雍),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구(冉求), 자로(子路), 자유(子游), 자하(子夏)’ 제외  
예) 비시지(BCG): 프랑스의 칼메트와 게랭이 만든 결핵 예방 백신. 소의 결핵균에서 독성을 없앤 것으로, 미(未)감염자의 몸에 접종하여 결핵에 대한 면역을 얻게 한다.  
⇒ ‘게랭4(Guérin, Camille)’ 제외

## 2.3. 전문어에 대한 제외 기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가운데 전문어는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422,884개 중 178,406개)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제외할 때는 전문어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분야별, 어종별로 전수 검토를 통해 정비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어의 전수 검토는 다음의 등급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각 전문 영역마다 섬세한 처리가 필요한 어휘들은 별도의 처리 기준을 따른다.

〈표 8〉 전문어 전수 검토를 위한 등급 기준

등급	일반	유지	보류	삭제
<b>등급 해설</b>	전문용어 중 일반어 급에 해당하는 어휘	언중들이 비교적 친 숙하게 사용하는 어 휘	거의 사용되지 않거 나 지나치게 전문적 인 어휘여서 삭제가 고려되나, 전문용어 의 특성상 전문가의 판단과 검증이 필요 한 어휘	고유명, 또는 언중들 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라진 어휘
<b>대표 예시</b>	고체(물리) 교향곡(음악) 주택단지(건설) 가설검정(인문일반)	가속도의법칙(물리) 간석기(역사) 고랭지(지리) 삼차원세계(수학)	각찬(역사) 아시아먼로주의(정 치) 해합(경제) 방울수법(화학)	거듭몰기(체육) 베네치아노(인명) 법의날(고유명일반) 꿀벌의생활(책명)

전체 67개의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 1」).

## IV. 《표준국어대사전》 전수 검토를 통한 제외 어휘 선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422,884개를 전수 검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휘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미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표제어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사전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기준과 지침을 세워 접근하였다.

### 1. 전수 표제어 목록 가공

#### 가. 전수 표제어 검토를 위한 자료 가공

- 42만여 개의 전수 표제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표제어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조사하여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각 표제어의 특징과 빈도수, 타 사전의 등재 여부 등은 표제어의 등재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업에서는 가장 먼저 전수 표제어 422,884개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들을 조사한 후 각 표제어마다 정보들을 기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전수 표제어에 대한 각종 자료 조사와 자료 가공은 본 연구진의 자료 분과에서 맡아 처리하였다. 자료 분과에서는 표제어 분과에서 수행할 표제어 검토 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각 표제어마다 기재하였다.

#### 1) 기존 사전 정보

##### ○ 표제어 정보

- 동형어가 많기 때문에 동형어를 구분하기 위해 어깨번호 정보도 함께 기재

\* 하나의 DB로 관리하면서 자료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려면 각 표제어

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함. 어깨번호가 포함된 표제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숫자로 표시된 별도의 ID를 표제어별로 부여

- 구성 단위, 고유어 여부, 원어, 품사, 뜻풀이, 전문 분야
  - ‘구성 단위’에는 ‘관용구, 속담’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 ‘전문 분야’는 하나의 표제어가 여러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 양상이 복잡함. 표제어를 한 번만 검토하면 되므로 일단 ‘전문분야’는 그대로 넣고 ‘조정 전문 분야’ 필드를 추가하여 한 분야에서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일반어 뜻이 같이 있으면 일반어로 처리. 뜻풀이 개수와 전문 분야 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반어가 있는 것임.
    - 여러 전문 분야가 있으면 처음에 등장하는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

## 2) 추가 정보

- 말뭉치 정보
  - 빈도가 확인되는 표제어는 용례도 함께 표제어 분과에 제공
    - 저빈도는 용례를 모두 포함
    - 고빈도의 경우는 표제어와 용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소수 용례. 단, 여러 파일에서 고루 용례를 추출
  - 동형어의 경우 빈도 정보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빈도를 표시할 때 동형어의 경우에는 ‘(동)’과 같은 정보를 추가하여 동형어 전체의 빈도임이 드러나도록 표시
    - 예) ‘사기’의 경우 동형어 27개가 모두 빈도 정보가 같음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수록 여부
  - 고대 사전에 없는 것은 제외 대상 후보
- 전문용어사전 수록 여부

- 전문용어사전에 없는 것은 제외 대상 후보. 전문용어사전의 원어 정보도 함께 고려

○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2>에 수록된 한자 정보

- 동형어인 한자어에 대한 판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조선일보 말뭉치(1920~1999년) 별도 검색

- 동형어 및 위 말뭉치 정보에서 0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한자어만 검색

○ 전수 표제어를 대상으로 조사된 말뭉치 빈도수는 ‘기초어휘말뭉치’와 ‘모두의말뭉치’ 2가지에 기반한다. 두 말뭉치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어휘말뭉치: 균형말뭉치 약 2억 어절

<표 9> 기초어휘말뭉치의 세부 구성

매체	장르	연령대	장르	확보 말뭉치	비율	균형 2억
문어	신문		신문(1920~2010)	1,085,846,133	51.58%	35,000,000
	잡지		잡지	19,802,912	0.94%	8,900,000
	상상		소설 (및 수필-모두의 말뭉치)	231,019,939	10.97%	15,000,000
	비상		수필	7,736,262	0.37%	7,736,262
			학술 및 교양(연세 '산문')	523,850,043	24.88%	14,300,000
			수기 및 전기	1,489,151	0.04%	1,489,151
			교육자료(1900, 1950~1990년대)	1,624,921	0.08%	1,457,300
		발달 단계	교과서(1940~2015)	2,955,113	0.14%	2,955,113
	상상		초등 작문(생성)	643,641	0.00%	643,641
			아동도서	1,497,655	0.07%	1,497,655
준구어			준구어 - 자유 발화(유아, 소아 7~10세)	192,107	0.01%	192,107
			준구어 - 성인	9,875,056	0.47%	9,875,056
웹,			메신저	4,894,866	0.23%	1,000,000



SNS						
			웹	72,470,779	3.44%	
구어	대화		공적 대화	104,413,707	4.96%	88,700,000
			사적 대화	8,711,096	0.41%	8,711,096
	독백		공적 독백	2,303,339	0.11%	2,303,339
			사적 독백	0	0.00%	0
합계				2,105,100,998	100.00%	199,760,720

## 2) 모두의말뭉치: 약 20억 어절

〈표 10〉 모두의말뭉치의 세부 구성

장르	빈도
구어	125,303,198
메신저	4,912,743
문어	682,509,647
신문	1,156,321,881
웹	72,424,758
일상대화	3,042,229
합계	2,044,514,456

- 전수 표제어를 대상으로 조사된 ‘네이버 백과사전 등재 여부’는 네이버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검색되는 어휘를 뜻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네이버 백과사전의 세부 구성

사전	표제어 수
21세기정치학대사전	4,506
Daum백과	117,015
두산백과	361,111
문화원형백과	99,434
문화원형용어사전	17,028
조선향토대백과	217,655



○ 전수 표제어 파일의 각 항목은 다음의 내용을 뜻한다.

〈표 12〉 전수 표제어 파일의 각 항목 설명

항목명	내용
ID	일련번호
표제어(원본)	국어원 제공 자료에서 '어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표제어	'표제어(원본)'에서 구성 정보(^, -, 가운뎃점, 공백) 삭제
동형어번호	'표제어(원본)'에서 동형어 번호만 추출
표제어+ 동형어번호	‘표제어+ 동형어 번호’ 항목
어종	국어원 제공 자료에서 '고유어 여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원어(원본)	국어원 제공 자료에서 '원어'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원어(한자.수정)	‘원어(원본)’ 형식을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2>의 한자어 정보 형식으로 수정
품사통용어	해당 표제어에 O 표시
품사(원본)	국어원 제공 자료에서 '품사'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품사	뜻갈래별 품사 중복 제거, 구분자 '/' 사용해서 join
인용례	인용례 포함 표제어에 O 표시
인용례 개수	출전 정보 포함된 용례 개수
뜻풀이 개수	뜻풀이 개수
예문 없음	해당 표제어에 O 표시
부표제어	부표제어에 O 표시
전문 분야(원본)	국어원 제공 자료에서 '전문 분야'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전문 분야	sense별 전문 분야 중복 제거, 구분자 '/' 사용해서 join
전문용어 여부	해당 표제어에 O 표시
조정 전문 분야	sense 중 하나가 일반어일 경우 '일반어', 전문 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전문 분야' 표시
문형 없음	용언이면서 문형 없는 표제어에 O 표시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_원어(한자)매칭	한자어/혼종어에 대한 한자 매칭. 결괏값은 빈도.
우리말샘	공백/기호(^, -, -, ·) 삭제, 중복 제거. 표제어 수: 940,511
고대사전	공백 삭제, 중복 제거. 표제어 수: 331,874
네이버백과	한글로만 구성된 표제어, 공백 삭제, 중복 제거. 표제어 수: 640,603
위키피디아	한글로만 구성된 표제어, 공백 삭제, 중복 제거. 표제어 수: 729,714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	200,007,031 어절 규모 말뭉치. 어휘 형태만 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2,044,514,456 어절 규모 말뭉치. 어휘 형태만 매칭.
기초어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어휘 형태 및 동형어번호(UTagger(2021 버전)) 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어휘 형태 및 동형어번호(UTagger(2021 버전)) 매칭.
조선일보.출현.한자빈도	조선일보 1920-1999 기사 출현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길이 2이상 5 이하)' 6,138,894개와, 표준 사전의 한자어 '원어(원본)' 정보 비교. 결괏값은 조선일보 출현 빈도.
<b>&lt;표제어 등급 판단 관련 항목&gt;</b>	
판단	인용례 유무, 예문 유무,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 빈도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 등재 여부, 위키피디아 등재 여부, 말뭉치 빈도가 0인 경우, 말뭉치 고빈도 여부, 조선일보 자료의 빈도, 전 용어 여부, 음역어 여부, 어근 여부, 은어 여부, 비표준어(→ 포함) 여부를 한 셀에 모아서 제시
검토정리	각 표제어에 대한 등급 판단 결과 기입
검토의견	등급 판단과 관련한 특기 사항 메모

- 위의 항목 중 ‘판단’ 항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재되었다.

○ ‘인용례’ 열 정보

- ※ 인용례는 용례 출전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 아님
- 쿼리에서 ‘인용례’에 “like ‘\*’” 선택: 54,569개
- ‘판단’ 필드에 “인용례있음”으로 업데이트

○ ‘예문 없음’ 열 정보

- 쿼리에서 ‘인용례’에 “not like \*”, ‘예문 없음’에 “not like \*” 선택: 50,185개
- ‘판단’ 필드에 “작성례있음”으로 업데이트

○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_원어(한자)매칭’ 열 정보

- ※ 빈도 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예를 한자가 동일한 표제어에 표시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 아님. 다만, 동형 한자가 있는 표제어가 있으면 실제 빈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음.
- 쿼리에서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_원어(한자)매칭’에 “Len([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_원어(한자)매칭])>=1”로 선택: 30523개
- ‘판단’ 필드에 “If(Len([판단])>=1,Trim([판단])+"/"+ "빈도있음","빈도없음")”로 업데이트

○ ‘고대사전’ 열 정보

- ※ ‘고대사전’에 없는 표제어로 원칙적으로 삭제 대상. 실제로 고대사전에 없으나 한글 동형 표제어는 모두 있는 것으로 전산 처리되었기 때문에 ‘고대사전’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처리된 표제어도 있을 것임.
- 쿼리에서 ‘고대사전’에 “Not Like ‘\*’” 선택: 80,137개
- ‘판단’ 필드에 “If(Len([판단])>=1,Trim([판단])+"/"+ "고대없음","고대없음")”로 업데이트

○ ‘네이버백과’와 ‘위키피디아’ 열 정보

※ 일반어까지 포함하면 한글 동형 표제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분야에 정보가 있는 것, 즉 전문용어만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했음

- 쿼리에서 ‘전문 분야(원본)’에 “like \*” 설정
- ‘동형어번호’가 없는 것<sup>4)</sup>: ‘동형어번호’에 “not like \*” 설정
  - ‘네이버백과’와 ‘위키피디아’에 모두 정보가 있는 것은 “네위있음”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31,440개
  - ‘네이버백과’에만 정보가 있는 것은 “네이버있음”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29,363개
  - ‘위키피디아’에만 정보가 있는 것은 “위키있음”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14,513개
- ‘동형어번호’가 있는 것: ‘동형어번호’에 “like \*” 설정
  - ‘네이버백과’와 ‘위키피디아’에 모두 정보가 있는 것은 “네위동형”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20,322개
  - ‘네이버백과’에만 정보가 있는 것은 “네이버동형”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4,955개
  - ‘위키피디아’에만 정보가 있는 것은 “위키동형”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2,464개

○ 말뭉치 열 정보

- 기초, 모두 4개의 말뭉치에서 모두 빈도가 0인 것
  - “말뭉치0”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82,633개
- 다음의 조건에 맞는 것은 “저말뭉치”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sup>5)</sup>: 57,083개

---

4) ‘동형어번호’가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어가 일치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번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 처리

5) 말뭉치에서 빈도가 낮은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이를 위해 기초어휘 말뭉치에서는 빈도 3회 미만, 모두의 말뭉치에서는 빈도 5회 미만으로 임의로 제한하여 이 조건에 맞는 단어 검색

〈표 13〉 말뭉치별 ‘저말뭉치’ 조건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기초어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0 And <3	0	>0 And <3	0
0	>0 And <5	0	>0 And <5
>0 And <3	>0 And <5	>0 And <3	>0 And <5

- 다음의 조건에 맞는 것은 “고말뭉치”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116,041개
- ‘동형어번호’가 있는 것은 제외: “not like \*”

〈표 14〉 말뭉치별 ‘고말뭉치’ 조건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기초어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3	>=5	>=3	>=5

○ ‘조선일보’ 열 정보

※ ‘조선일보’는 한자 표기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표제어와 조선일보 출현 단어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조선일보에는 단어로 구분되지 않은 채 한자가 연속된 경우가 많아 표제어와 일치하지 않고 단순히 한자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저빈도와 고빈도를 나누어 처리했음.

- 빈도 5 이하는 “저조선”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sup>6)</sup>: 28,217개
- 빈도 6 이상은 “고조선” 정보를 ‘판단’ 열에 추가: 102,256개

○ 전 용어: 2,070개. “전용어”

6) 숫자로 인식하지 못해 “1 or 2 or 3 or 4 or 5”라는 조건으로 검색

- 음역어: 313개. “음역어”<sup>7)</sup>
  - 어근: 7,305개. “어근”
    - “Like “\*어근.”
  - 은어: 536개. “은어”
    - “Like “\*은어로\*” And Like “\*「1」\*”<sup>8)</sup>: 41개
    - Like “\*은어로\*” And Not Like “\*「1」\*”: 495개
  - →(비표준): “삭제-비표준”: 8,382개
    - Like →\*: 8,266개
    - Not Like “→\*” And Like “\*→\*”: 342개
      - 수작업으로 확인. 최종적으로 116개 남음<sup>9)</sup>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9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지할 표제어로 판단하여 제외
-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422,884개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기재한 자료는 파일의 형식(엑셀)으로 별도로 제출한다.

7) ‘음역어’로 검색하면 318개이나 “not like \*음역어.\* and like \*음역어\*”로 하여 찾은 ‘청산가리, 썩씨, 썩씨온도, 화씨, 화씨온도’는 대상이 아니어서 삭제

8) 생선 ‘은어’가 있어 그것을 제외하기 위해 ‘은어로’로 검색했으며, 은어가 아닌 다른 뜻을 다의로 가진 말들을 제외하기 위해 ‘「1」’도 넣어 검색했음. 은어는 ‘[Ⅱ]’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1」’로만 검색했음. 총 108개 중에서 은어로만 된 다의어들은 “은어”를 수작업으로 추가했음.  
 개짱, 건너(02), 걸-달다, 곰페, 까바리, 꿩이, 꽃(02), 내초(01), 냉가리, 너추리, 넉추리, 넘페, 녀대, 녀대기, 녀대-마니, 달걀-빵, 대추니, 도루발이, 도리-바리, 말-대가리, 명서-풍, 무리미, 물뽕따기, 비-공이(01), 비-공이(02), 산-개(01), 산-주인, 새루쟁이, 새리쟁이, 새리왕이, 셋-바람, 설-보다(02), 썰리, 썰리-간, 안개-시리, 에무, 일-공이, 찌기, 쿼도(01), 코-짤매이, 홀누면  
 다만 ‘꼰대, 다구리, 빵재비’는 실제 쓰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은어”에서 제외했음.

9) 표준어 뜻과 비표준어 뜻을 다의로 올린 것이 훨씬 많음. 또한 전문 분야에서 ‘→’ 표시를 뜻풀이에 사용한 것들도 있음. 아래에 제시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결과는 같음.  
 . Like “\*「1」→\*” And Like “\*「2」→\*”: 84개  
 . Like “\*Ⅰ]→\*” And Like “\*Ⅱ]→\*”: 31개 \*「Ⅰ」로 검색하면 안 나옴. [ ]를 필드명으로 인식해서인 듯함.  
 . Not like “\*삭제-비표준\*”('판단')/Like “\*→\*”('뜻풀이'): 1개('고시례')



## 2. 전수 표제어 검토

### 2.1.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및 방법

#### 가. 작업 방향 및 분배

##### □ 기본 방향

※ 이중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번호 순서대로 먼저 선택한 것은 제외하고 분배

##### 1) 일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먼저 검토

가) 분배-비표준: 8,382개

나) 분배-어근: 7,305개

다) 분배-특수: 2,919개

- 분배-특수-전용어: 2,070개

- 분배-특수-음역어: 313개

- 분배-특수-은어: 536개

라) 분배-조선: 21,260개

- 분배-조선-저조선: 18,934개

※ ‘판단’ 열에 ‘저조선’<sup>10)</sup>이 있는 표제어 중에서 ‘조정 전문 분야’ 열에 ‘인명, 지명, 책명, 고유명 일반’이 있는 표제어와 글자 수가 4 이상인 표제어는 제외한 표제어

- 분배-조선-동형: 2,326개

※ ‘판단’ 열에 ‘저조선’ 또는 ‘고조선’<sup>11)</sup>이 있는 표제어 중에서 위에 이미 분배한 표제어와 ‘조정 전문 분야’ 열에 ‘인명, 지명, 책명, 고유명 일반’이 있는 표제어를 제외하고 한자가 중복되는 표제어

10) 조선일보 자료에 빈도 5 이하로 출현한 어휘를 뜻한다.

11) 조선일보 자료에 빈도 6 이상으로 출현한 어휘를 뜻한다.

2) ‘조정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가 있는 표제어는 전수 검토: 186,910개

가) 분배-전문-( )

※ ( ) 안에 ‘조정 전문 분야’ 열에 있는 분야를 그대로 복사

나) 일반어와 전문용어가 겹쳐서 ‘일반어’로 처리된 8,504개는 ‘분배-전문-일반어’로 처리했음.

다) ‘분배-전문-역사’는 대략 조선시대나 일반적인 용어는 ‘분배-전문-역사1’로, 세계사나 고려시대 이전, 대한제국기 이후는 ‘분배-전문-역사2’로 나누었음. 뜻풀이 용어로 짐작하여 나눔.

3) 말뭉치 빈도가 높은 표제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106,399개

가) 분배-제외-인용례: 46,387개

나) 분배-제외-고말뭉치: 35,433개

다) 분배-제외-고조선: 24,579개

4) 남은 것 중에서 추가로 검토: 15,865개

가) 분배-빈도있음: 732개

나) 분배-고대없음: 15,133개

5) 남은 것 중에서 검토 보류: 73,873개

가) 분배-보류-작성례: 17,184개

나) 분배-보류-말뭉치0: 14,598개

다) 분배-보류-저빈도: 12,577개

※ ‘판단’에 ‘저말뭉치’ 또는 ‘저조선’이 있는 표제어

라) 분배-보류-판단없음: 29,514개

※ ‘분배-보류’는 삭제 대상이 될 표제어가 많이 보이기는 하나 개별 판단을 하면서 계열을 이루는 표제어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어서 작업 부담이 큼. 단, 조사, 어미, 감탄사, 관형사 등 품사 부류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는 있음.

## □ 작업 분배

### 1)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표제어

가) 검토-특수어(2,770개): A 연구원이 담당

나) 검토-어근(7,290개), 검토-빈도있음(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에서 한자  
원어가 있는 것)(10,835개), ‘조정전문분야’ 중 ‘일반어’(8,742개): B,  
C 연구원이 담당

다) 검토-조선(저)(19,474개+ 190개): D 연구원이 담당

### 2) 작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모든 참여진에게 분담

가) 공동연구원 등은 원칙적으로 1인당 10,000개 분량씩 전문 분야 표제  
어 검토

나. 집중 삭제 대상인 고유명사(고유명 일반, 인명, 지명, 책명)는 사전 경  
험이 있는 E, F 연구원에게 분담

다. 남은 것은 연구보조원이 일정량씩 분담: 1인당 82,000여 개 정도로  
예상

※ 연구원부터 순서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 3) 분배 내역

〈표 15〉 전수 표제어 분배 내역

분류	개수	분류	개수
분배-고대없음	15,133	분배-전문-식품	100
분배-보류-말뭉치0	14,598	분배-전문-심리	1,257
분배-보류-작성례	17,184	분배-전문-약학	1,000
분배-보류-저빈도	12,577	분배-전문-언어	3,039
분배-보류-판단없음	29,514	분배-전문-역사1	10,168
분배-비표준	8,382	분배-전문-역사2	7,775
분배-빈도있음	703	분배-전문-연기	337
분배-어근	7,305	분배-전문-영상	845
분배-전문-가톨릭	1,096	분배-전문-예체능 일반	797
분배-전문-건설	4,360	분배-전문-음악	5,096
분배-전문-경영	1,164	분배-전문-의학	6,757
분배-전문-경제	6,478	분배-전문-인명	10,259
분배-전문-고유명 일반	392	분배-전문-인문 일반	32
분배-전문-공업	2,453	분배-전문-일반어	8,504
분배-전문-공예	1,459	분배-전문-임업	201

분배-전문-공학 일반	106	분배-전문-자연 일반	98
분배-전문-광업	2,021	분배-전문-재료	93
분배-전문-교육	1,217	분배-전문-전기·전자	3,206
분배-전문-교통	2,002	분배-전문-정보·통신	1,992
분배-전문-군사	3,970	분배-전문-정치	1,707
분배-전문-기계	1,961	분배-전문-종교 일반	740
분배-전문-기독교	990	분배-전문-지구	3,106
분배-전문-농업	2,686	분배-전문-지리	909
분배-전문-동물	7,585	분배-전문-지명	6,587
분배-전문-매체	1,577	분배-전문-책명	2,077
분배-전문-무용	578	분배-전문-천문	1,835
분배-전문-문학	3,053	분배-전문-천연자원	119
분배-전문-물리	4,963	분배-전문-철학	2,085
분배-전문-미술	1,113	분배-전문-체육	3,648
분배-전문-민속	4,407	분배-전문-한의	3,928
분배-전문-법률	6,856	분배-전문-해양	653
분배-전문-보건 일반	352	분배-전문-행정	1,152
분배-전문-복식	589	분배-전문-화학	7,733
분배-전문-복지	177	분배-전문-환경	106
분배-전문-불교	7,769	분배-제외-고말뭉치	35,433
분배-전문-사회 일반	1,620	분배-제외-고조선	24,579
분배-전문-산업 일반	89	분배-제외-인용례	46,387
분배-전문-생명	4,076	분배-조선-동형	2,326
분배-전문-서비스업	132	분배-조선-저조선	18,934
분배-전문-수산업	402	분배-특수-은어	536
분배-전문-수의	546	분배-특수-음역어	313
분배-전문-수학	2,761	분배-특수-전용어	2,070
분배-전문-식물	7,969		

## □ 전문 분야 검토 방법

- 1) 분담한 표제어 목록을 훑으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 가) 고유명 일반, 인명, 지명, 책명은 예외적으로 남겨 두어야 할 표제어에 ‘유지’ 표시
  - 나) 기타 분야는 국어사전에 수록하기에는 세부적인 정보라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삭제’ 표시
  - 다) 기타 국어사전에 수록하기에는 이상한 표제어는 발견하면 ‘삭제’ 표시
  - 라) 일반어처럼 비전문가들도 널리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일반’ 표시

2) 각 연구원은 검토한 분야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작성

가) 표제어에 대한 판단 결과인 ‘삭제’/‘검토’/‘유지’/‘일반’ 정보 표시는 엑셀 파일의 ‘검토정리’란에 기입

나) 삭제 유형 등 검토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작성

## 나. 작업 절차 및 일정

○ 《표준국어대사전》의 전수 표제어에 대한 검토 작업은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표 16〉 전수 표제어 검토 작업 절차

작업 내용	해당 분과	일정
전수 표제어 목록 자료 가공 및 각종 정보 기재	자료 분과	4~5월
전수 표제어 검토 지침 제작	표제어 분과	4~5월
연구원 대상 검토 작업 교육	표제어 분과	5월
전수 표제어 검토	표제어 분과	5~7월
일부(비표준어) 표제어 검토	규범 분과	9~11월
전수 표제어 2차 검토	표제어 분과	8~9월
일부(비표준어) 표제어 검토 결과의 분과 간 교차 검토	표제어 분과, 규범 분과	11월
전수 표제어 최종 검토 및 최종 제외 어휘 선별	표제어 분과	9~11월

### 1) 전수 표제어 검토 결과의 수정·보완 중점 사항

(1) 작업 파일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오류나 오타가 없었는지(삭제라는 표현 대신 ‘삭’, ‘삭제’)와 같은 오타가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
- ‘유지’ 판단을 한 용어를 다시 검토한 후, 일반어급 용어를 따로 선

정하여, ‘검토정리’ 행에 ‘일반’으로 표시할 것.

(2) 계열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배포된 파일에서 같은 계열어에 대한 재검토

예) 공병참모(삭제), 감찰참모(유지), 경리참모(삭제), 군수참모(유지), 군중참모(삭제) 등

예) 군수장교(유지), 군수참모(유지), 군수참모부(삭제), 군수참모처(삭제) 등

예) 입헌공화정체, 입헌국, 입헌군주국, 입헌구주국, 입헌군주정치 등 입헌 X류에 대한 처리가 일정하지 못함.

→ 모두 일관되게 처리. 이러한 계열어 간의 편차가 없는지 확인.

(3) X, X되다, X하다의 처리

- 원칙: ‘X’가 ‘유지’ 판단되면, ‘X되다’, ‘X하다’는 유지, ‘X’가 삭제 판단되면 ‘X되다’, ‘X하다’는 삭제

- 단, 원칙에 입각한 처리가 아닌 경우, 검토의견에 그 이유를 제시할 것.

(4) 편수자료 검토

- 삭제 처리한 용어 중,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의 경우 검토정리에 ‘유지/보류’로 처리하고, ‘검토의견’에 편수자료에 있음이라고 표시할 것.

2) 전수 표제어 검토 결과의 최종 검토 중점 사항

(1) 등급 부여된 표제어에 대한 일괄 재검토

- 보류 및 삭제 판단된 용어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일반 및 유지 판단된 용어에 대한 재검토

(2) 보고서 및 엑셀 파일 정리

### (3) 배부된 엑셀 파일의 통합

#### (4) 통합 파일에 대한 교차 검토

- 검토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표제어이지만 다른 검토자에게 분배되어 검토하지 못해 보고서에 의견으로 남겨둔 것들을 확인하여 처리
- ‘검토의견’에 “고유명사”와 “고유 명사”가 섞여 있어 “고유명사”로 일괄 변경
- 성씨(姓氏)는 고유명사로서 삭제해야 했으나 ‘판단정리’에 “분배-보류-판단없음”으로 되어 검토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일괄 삭제: 168개
  - ※ 검토를 위한 표제어 분배 작업을 하면서 뜻풀이에서 “성(姓)의 하나.” 등으로 검색하여 성씨인 것들은 ‘판단참조’에 “삭제-성씨”라고 미리 밝혀 두었음.
- 뜻풀이에 “~의 하나.”가 들어간 표제어들만을 뜻풀이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관련되는 단어들로 같게 처리해야 하는데 ‘검토정리’에서 다르게 처리한 것들을 조정하였음.(꼼꼼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워 눈에 띄는 대로)
  - ※ 새 필드 추가 제시 함수: Expr1: If(InStr([뜻풀이], "[")>=1 Or InStr([뜻풀이], " ")>=1, Mid([뜻풀이], 4, InStr([뜻풀이], "하나")+2), Left([뜻풀이], InStr([뜻풀이], "하나")+2))
- 예) ‘칠재(七齋)’ 중에서 ‘여택재’만 ‘삭제’이고 나머지는 ‘보류’여서 ‘여택재’도 ‘보류’로 수정했음
- 예) “한자 부수의 하나.”로 풀이된 한자 부수 표제어 중에서 일부만 ‘검토정리’에 정보가 있음. 향후 일괄 처리하는 것이 나아 ‘검토정리’에 있던 정보들을 삭제했음.

## 2.2. 전수 표제어 검토 지침

### 가. ‘판단’란의 해설

○ 엑셀의 ‘판단’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정보 이름의 ‘가나다순’ 배열)

○ 고대없음: 80,137개

- ‘고대사전’ 열에 ‘O’가 없는 표제어.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한글 표기가 일치하는 표제어가 없다는 뜻이므로 삭제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 ‘고대없음’이라는 정보가 없으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있는 표제어라고 볼 수도 있음. 단, 전산적으로 한글로만 표제어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없는 표제어라도 한글 동형 표제어가 있으면 ‘O’로 표시되었을 수 있음. 즉, ‘고대없음’이라는 정보가 없어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있는 표제어가 아니라 한글 동형 표제어만 있는 표제어일 수도 있음. 그래서 ‘고대있음’이라는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음.

○ 고말뭉치: 116,041개 → 말뭉치0, 저말뭉치

- 2억 어절 규모의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와 ‘기초어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는 3회 이상, 20억 어절 규모의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는 5회 이상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 단, 한글 동형 표제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제외
- 빈도가 있다는 것은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일부 다른 조건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하는 표제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대상에서 빠짐.
- 단, 전산적으로 한글로만 표제어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한글 동형 표제어가 있으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있는 것으로 나왔을 수도 있음. 이런 이유로 빈도가 위 조건에 맞아도 한글 동형 표제어가 있는 표제어들은 모두 ‘고말뭉치’로 보지 않았음. 그래서 실제로는 말뭉치에서 용례가 많이 나오는 표제어인데도 한글 동형 표제어가 있다는 이유로 ‘고말뭉치’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고조선: 102,256개 → 저조선



- ‘조선일보.출현.한자빈도’ 열에서 6회 이상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
-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빈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다른 조건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하는 표제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대상에서 빠짐. 단, 6회 이상의 빈도에서 한자 동형 표제어가 있는 표제어는 별도 검토할 것임.

○ 네위있음 : 31,440개 → 네위동형, 네이버있음, 위키있음

- ‘네이버백과’ 열과 ‘위키피디아’ 열에 ‘O’가 있는 표제어. 단, ‘전문 분야(원본)’ 열에 전문 분야 정보가 제시된 것+‘동형어번호’ 열에 숫자가 없는 것에 한정
- 네이버백과(‘두산백과’ 등)와 위키피디아에 모두 표제어로 실린 것들이기에 실제로 쓰이는 표제어로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 일반어까지 포함하면 다른 표제어인데 한글은 동형일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 분야 정보가 제시된 것, 즉 전문용어로 제한하였음. 또한 동형어 번호가 없는 것, 즉 한글 동형 표제어가 없는 표제어로 제한하였음.

○ 네위동형: 20,322개 → 네위있음

- 다른 조건은 ‘네위있음’과 동일. ‘동형어번호’ 열에 숫자가 있는 것에 한정
- 네이버백과(‘두산백과’ 등)와 위키피디아에 모두 표제어로 실린 것들이기에 실제로 쓰이는 표제어로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다만, 한글 동형 표제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표제어는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네이버있음: 29,363개 → 네위있음, 네이버동형

- ‘네이버백과’ 열에 ‘O’가 있고 ‘위키피디아’ 열은 비어 있는 표제어. 단, ‘전문 분야(원본)’ 열에 전문 분야 정보가 제시된 것+‘동형어번호’ 열에 숫자가 없는 것에 한정.
- ‘네위있음’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쓰이는 표제어로 유지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임.

○ 네이버동형: 4,955개 → 네이버있음

- 다른 조건은 ‘네이버있음’과 동일. ‘동형어번호’ 열에 숫자가 있는 것에 한정.
- ‘네워있음’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쓰이는 표제어로 유지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임. 다만, 한글 동형 표제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표제어는 네이버백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네이버추정: 47,509개

- ‘네이버백과’ 열에 ‘O’가 있지만 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남긴 표제어.
- 네이버백과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제어이므로 삭제, 유지를 판단할 때 이용하려면 네이버백과에서 확인하는 게 좋음.

○ 말뭉치0: 82,633개 → 고말뭉치, 저말뭉치

-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와 ‘기초어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 모두 빈도가 0인 표제어.
- 20억 어절 규모에서도 빈도가 0임은 삭제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단, 실제로 쓰이지만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어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은 표제어일 수도 있음.

○ 말뭉치추정: 167,127개

-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와 ‘기초어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 빈도가 있으나 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남긴 표제어.
- 삭제, 유지를 판단할 때 이용하려면 말뭉치의 용례를 확인하는 게 좋음.

○ 비표준: 8,382개

- 뜻풀이에 ‘→’가 포함된 표제어, 단, 표준어 뜻과 비표준어 뜻이 함께 있는 표제어와 실제로는 ‘→’ 기호가 다른 목적으로 쓰여 비표준어가 아닌 표제어는 제외했음.
- 규범 분과에서 별도 검토 진행함.

○ 빈도있음: 30,523개

-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_원어(한자)매칭’ 열에 빈도가 숫자로 표시된 표제어.
- 말뭉치에 근거한 빈도 조사이므로 빈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에 발간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의 ‘일반어휘통계’에서 ‘풀이’에 한자가 제시된 것(한자어, 혼종어)만 사전의 원어와 비교하여 같은 것은 ‘일반어휘통계’의 ‘빈도’를 옮겨 놓은 것임. 그러므로 고유어나 외래어는 ‘빈도있음’의 대상 자체가 아님.

○ 어근: 7,305개(7,290개+ 15개)

- 뜻풀이에 ‘어근’이 포함된 표제어. 15개는 명사 등 다른 품사가 다의어로 함께 제시된 것임.
- 인터넷 사전에서 필요가 없어 삭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제어로 별도 검토할 것임.

○ 위키있음: 14,513개 → 네위있음, 위키동형

- ‘위키피디아’ 열에 ‘O’가 있고 ‘네이버백과’ 열은 비어 있는 표제어. 단, ‘전문 분야(원본)’ 열에 전문 분야 정보가 제시된 것+ ‘동형어번호’ 열에 숫자가 없는 것에 한정.
- ‘네위있음’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쓰이는 표제어로 유지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임.

○ 위키동형: 2,464개 → 위키있음

- 다른 조건은 ‘위키있음’과 동일. ‘동형어번호’ 열에 숫자가 있는 것에 한정.
- ‘네위있음’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쓰이는 표제어로 유지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임. 다만, 한글 동형 표제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표제어는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위키추정: 44,466개

- ‘위키피디아’ 옆에 ‘O’가 있지만 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남긴 표제어.
- 위키피디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제어이므로 삭제, 유지를 판단할 때 이용하려면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하는 게 좋음.

#### ○ 은어: 536개

- 뜻풀이에 ‘은어로’가 들어간 표제어. ‘은어’가 다른 쓰임이 있어 ‘은어로’로 검색하여 적절하지 않은 일부 표제어를 제외했음.
- 제한된 범위에서 쓰이는 은어의 성격 때문에 삭제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로 별도 검토할 것임.

#### ○ 음역어: 314개

- 뜻풀이에 ‘음역어’가 들어간 표제어. 다른 이유로 뜻풀이에 ‘음역어’라는 말이 들어간 표제어는 제외했음.
- 삭제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로 별도 검토할 것임.

#### ○ 인용레있음: 54,569개 → 작성레있음

- 인용레가 제시된 표제어.
- 인용레는 실제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부 다른 조건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하는 표제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대상에서 빠짐.

#### ○ 작성레있음: 50,185개 → 인용레있음

- 작성레만 있는 표제어. 인용레도 있는 표제어는 제외했음.
- 작성레는 말뭉치에 용례가 있으나 인용하기는 곤란한 경우 말뭉치를 참조하여 작성한 용례이기 때문에 유지 가능성이 높음. 단, 말뭉치에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뜻풀이를 보고 만든 작성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뭉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도 있음. 다른 말뭉치의 빈도를 참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저말뭉치: 57,083개 → 고말뭉치, 말뭉치0

- 2억 어절 규모의 ‘기초어휘말뭉치(형태매칭)’와 ‘기초어휘말뭉치(형태+동형어번호매칭)’ 옆에서는 1~2회, 20억 어절 규모의 ‘모두의말뭉치

(형태매칭)', '모두의말뭉치(형태+ 동형어번호매칭)' 열에서는 1~4회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

- 빈도가 있지만 빈도가 낮아서 삭제, 유지를 판단할 때 이용하려면 말뭉치의 용례를 확인하는 게 좋음.

#### ○ 저조선: 28,217개

- '조선일보.출현.한자빈도' 열에서 5회 이하의 빈도로 나오는 표제어.
-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빈도가 있다는 것은 유지 가능성이 높은 표제어임. 그러나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기사의 특성상 단순히 한자만 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의심이 드는 표제어는 말뭉치의 용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극히 적은, 4글자 이상인 것 중에서 한자 동형어가 아닌 것은 검토 대상에서 빠지며, 다른 기준으로 검토하는 표제어를 제외하고 별도로 검토할 것임.

#### ○ 전용어: 2,070개

- 뜻풀이에 '전 용어'라는 표현이 들어간 표제어.
- '전 용어'이지만 아직 실제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지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임. 다른 정보를 고려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

#### ○ 추정위키: 44,466개

### 나. 전수 표제어 검토 지침

○ 전수 표제어에 대한 어휘 등급화 작업은 각 연구원에게 배분된 엑셀의 '판단'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엑셀의 '검토정리'란에 '삭제'/'검토'/'유지'/'일반' 중 하나로 표시하였다.

○ 전수 표제어에 대한 어휘 등급화 작업은 다음의 작업 지침을 따랐다.

□ 표제어 배분 유형에 따른 검토 방법

- 분배-어근: 종이사전에서 필요했던 것이므로 삭제 처리 중심으로 검토
  - 삭제할 표제어는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용례가 있어 품사를 새로 부여해야 할 것은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왜 유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
- 분배-특수: 사전에 실지 않아도 되는 표제어로 판단되면 삭제 처리
  - 삭제할 표제어는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사전에 계속 실려야 하는 표제어로 판단되면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음.
  - 판단하기 어려운 표제어는 그대로 둬. 검토 의견을 남길 필요가 있는 표제어이면 ‘검토의견’에 기록.
- 분배-조선:
  - 분배-조선-저조선: 빈도가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유지 처리 중심으로 검토
    - 쓰이는 말이라고 판단되거나 용례를 확인해서 쓰임이 확인되면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음.
    - 쓰이지 않는 말로 판단되면 용례를 확인해서 실제 용례가 없다고 확인되면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분배-조선-동형: 한자가 중복되는 표제어들이기 때문에 모두 용례 확인한 후 판단
    - 용례가 있는 것은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음.
    - 용례가 없고 쓰이지 않는 말로 판단되면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용례가 없지만 쓰이는 말로 판단되면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조선 용례 없음”이라고 기록.
- 분배-전문-? ※ 아래 ‘전문용어 검토’ 참조
  - 분배-전문-고유명, 분배-전문-인명, 분배-전문-책명, 분배-전문-지명: 삭제 중심으로 검토
    - 비유적인 의미가 있거나 관용구에서 쓰이거나 수록 가치가 있는 표제어 등 사전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 표제어는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왜 유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기

록.

- 나머지는 모두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분배-빈도있음: 빈도 조사 사업의 결과물이므로 유지 처리 중심으로 검토
  - 빈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표제어는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음.
  - 분석의 차이나 한자 동형으로 인해 잘못 연결되어 빈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표제어 중에서 쓰이지 않는 말로 판단되는 것은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판단하기 어려운 표제어는 그대로 둬. 검토 의견을 남길 필요가 있는 표제어이면 ‘검토의견’에 기록.
- 분배-고대없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없는 표제어로 삭제 처리 중심으로 검토
  - 쓰이지 않는 말로 판단되면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음.
  - 쓰이는 말로 판단되면 ‘검토정리’에 “유지”라고 적음.
  - 판단하기 어려운 표제어는 그대로 둬. 검토 의견을 남길 필요가 있는 표제어이면 ‘검토의견’에 기록.

## □ 전문용어 검토

### ○ 전문용어의 판단 등급

〈표 17〉 전문용어의 판단 등급 기준

등급	일반	유지	보류	삭제
등급 해설	전문용어 중 일반어급에 해당하는 어휘	언중들이 비교적 친숙하게 사용하는 어휘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어휘여서 삭제가 고려되나, 전문용어의 특성상 전문가의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 어휘	고유명, 또는 언중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라진 어휘
대표 예시	고체(물리) 교향곡(음악)	가속도의법칙(물리 )	각찬(역사) 아시아먼로주의(정	거듭물기(체육) 베네치아노(인명)

	주택단지(건설) 가설검정(인문일반 )	간석기(역사) 고령지(지리) 삼차원세계(수학)	치) 해합(경제) 방울수법(화학)	범의날(고유명일반 ) 꿀벌의생활(책명)
--	----------------------------	---------------------------------	--------------------------	-----------------------------

- 배분된 표제어에 대해 ‘판단’을 비롯하여 여러 열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하면서 검토
  - 전체 표제어 중에서 30% 정도를 삭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됨.<sup>12)</sup>
  - 밑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제 처리하거나 유지 처리하되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대로 둠.
- 삭제 처리할 표제어
  - 고유명사: 인명(가공인물, 신 등 포함), 지명, 책명(작품명 포함), 건물명, 기관명, 단체명을 의미하는 표제어
    - 원칙적으로 위에 제시된 것에 한해서 고유명사로 판단함.
    -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삭제-고유명사”라고 기록.
  - 과거용어: 과거에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잊혀진 표제어
    - ※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에 없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도 없고 (‘고대없음’) 말뭉치에도 나오지 않는 표제어일 가능성이 있음.
    -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삭제-과거용어”라고 기록.
  - 세부정보: 국어사전에 수록하기에는 세부적이면서 전문성이 지나치게 강한 표제어
    - 예)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부전나비’가 있음), 기명식소지인출급식증권
    - ※ 글자 수가 많을수록 세부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글자 수도 검토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삭제-세부정보”라고 기록.

12) 비슷한말, 같은 계열 단어 등 관련되는 단어는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음.



- 부족정보: 뜻풀이에 제시된 정보가 부족하여 표제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표제어

예) 관육계바라: “바라춤의 하나.”라는 정보밖에 없음.

-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삭제-부족정보”라고 기록.

- 기타: 같은 계열의 단어 중에서 일부만 표제어로 올렸든지 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검토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전 표제어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표제어

예) ‘십이분교’(불교)에 제시된 것 중에서 ‘우타나, 화가라’ 등 일부만 표제어로 있음. 세부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계열에서 일부만 제시된 것이기도 하므로 일부만 오른 표제어들을 모두 삭제함.

- ‘검토정리’에 “삭제”라고 적고 ‘검토의견’에 삭제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

- 유지 처리할 표제어: 분류 기준 때문에 전문용어로 분류되었으나 비전문가에게도 잘 알려져서 사전에 그대로 남겨둘 만한 표제어

예) 가계약(법률), 가곡(음악), 가자미(동물), 계엄령(군사)

- 검토한 결과에 대해 간략한 보고서 작성

- 검토를 완료한 후에 삭제 유형,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점, 추후 검토가 필요한 내용 등 검토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작성한 후 엑셀 파일과 함께 제출

#### □ 검토 작업에서 주의할 사항

- ‘검토정리’와 ‘검토의견’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수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함.

- 특히 ‘id’ 열은 절대 수정이 되면 안 됨. 나중에 자동으로 검토 결과를 옮길 때 키워드가 되는 열임.
- 칸을 좁히거나 키우거나, 새롭게 정렬하거나 하는 등 형식적인 변경은 자유롭게 해도 됨.

- 중복 검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표제어는 한 사람만 검

토하도록 배분하였음. 다의어인 표제어는 ‘삭제’나 ‘유지’를 결정할 때 다른 뜻풀이의 쓰임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다. 비표준어 검토 지침

### ○ 개요

- “표준국어대사전”의 화살표가 달린 비표준어 목록을 검토하여 유지, 보류, 삭제 목록을 판정함.

〈표 18〉 비표준어 등급 판정 결과

총 목록	유지	보류	삭제
8608	7798	316	494

### ○ 기준

#### 1) 지명 및 인명

- 한자 지명, 인명이 존재하였으나 원음 지명, 인명이 표준어로 선정되면서 이전에 사용하였던 한자 지명, 인명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지명: 한자 지명이 비표준어이고, 원음 지명이 표준어인 경우 한자 지명 ‘삭제’
- 인명: 한자 인명이 비표준어이고, 원음 인명이 표준어인 경우 한자 인명 ‘삭제’

(다만 일본어 인명은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유지함)

#### 2) 전문어

- 전문어의 분야에 따라 기준을 달리함.

〈표 19〉 전문어 분야에 따른 비표준어 처리 방법

일반 전문어	식물, 동물
보류	유지
→ 비표준어와 대응하는 표준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류’로 처리함.	→ 식물, 동물의 경우 빈도수가 많고 방언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지’로 처리함.

- 그 외 전문어이나 유지하는 유형  
(규범과 관련하여 비표준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유지함)

〈표 20〉 전문어 분야에서의 비표준어 유지 유형

두음법칙 관련	맞춤법 관련	표준어 관련	일상어 관련
거성열, 고름뇨, 과랭, 군록사, 기준롤	간여리다, 고마니, 고추, 괴인돌, 끝귀	구글, 구윳집, 껌임	군달, 굿거리, 귀독, 금질, 기니네, 기브스, 까딱수, 까치다리, 껍쇠

### 3) 어미

- ‘-르사록’, ‘-口마’, ‘-니까느루’ 등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일부 어미의 경우 ‘삭제’로 처리함.

## 2.3. 전수 표제어 검토 결과

- 제외 어휘의 선별 과정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계량적 분석,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 수렴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휘를 최종 선별하였다.

- 422,884개의 전수 표제어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되었다. 판정 결과는 엑셀(“표준용역작업-완성.xlsx”) 파일의 형식으로 별도로 제출한다.

〈표 21〉 전수 표제어 등급 판정 결과

작업영역	판단 등급				작업개수
	일반	유지	보류	삭제	
인명	0	294	0	9,965	10,259
서비스업	13	45	44	30	132
역사	245	7,702	3,555	6,441	17,943
지리	29	447	233	200	909
경영	64	904	6	190	1,164
교통	88	1,074	91	749	2,002
농업	502	1,304	138	742	2,686
미술	41	676	66	330	1,113
사회 일반	147	1,158	17	298	1,620
생명	119	3,031	19	907	4,076
예체능	29	497	41	230	797
동물명	573	3,232	376	3,404	7,585
체육	821	1,767	5	1,055	3,648
해양	14	256	13	370	653
행정	89	660	16	387	1,152
건설	92	2,472	295	1,501	4,360
공업	47	1,649	31	726	2,453
군사	117	2,761	351	741	3,970
복식	9	371	81	128	589
철학	26	1,510	57	492	2,085
매체	244	1,150	32	151	1,577
의학	640	4,864	170	1,083	6,757
정보통신	201	897	21	873	1,992
고유명 일반	0	7	29	356	392
수산업	9	261	6	126	402
재료	1	71	0	21	93
지명	0	820	24	5,743	6,587
책명	0	121	0	1,956	2,077
식물	485	5,051	47	2,386	7,969
천문	98	1,282	27	428	1,835

작업영역	판단 등급				작업개수
	일반	유지	보류	삭제	
법률	233	1,548	216	4,859	6,856
산업일반	5	29	3	52	89
언어	161	915	17	1,946	3,039
인문일반	1	11	2	18	32
임업	6	64	18	113	201
가톨릭	15	428	248	405	1,096
기독교	33	275	130	552	990
불교	125	3,844	50	3,750	7,769
물리	155	3,022	212	1,574	4,963
음악	174	2,876	356	1,690	5,096
공예	14	273	357	815	1,459
공학 일반	10	29	25	42	106
광업	54	413	263	1,291	2,021
교육	416	421	63	317	1,217
기계	77	450	136	1,298	1,961
수의	8	151	40	347	546
식품	7	27	14	52	100
약학	74	257	61	608	1,000
자연일반	1	35	5	57	98
전기전자	87	670	70	2,379	3,206
종교일반	64	172	70	434	740
천연자원	11	27	28	53	119
환경	14	22	22	48	106
경제	767	3,852	323	1,536	6,478
수학	151	1,824	140	646	2,761
연기	69	182	21	65	337
한의	173	2,584	693	478	3,928
은어	0	10	0	526	536
음역어	1	25	0	287	313
전 용어	0	142	0	1,928	2,070
복지	5	83	19	70	177
영상	83	303	54	405	845
정치	76	1,080	163	388	1,707
지구	44	2,616	169	277	3,106
화학	124	6,536	301	772	7,733
무용	11	303	92	172	578

작업영역	판단 등급				작업개수
	일반	유지	보류	삭제	
문학	38	1,302	37	1,676	3,053
민속	143	3,062	93	1,109	4,407
보건 일반	25	200	6	121	352
심리	62	825	2	368	1,257
저조선	1,381	1,148	15,016	1,384	18,929
고조선	0	0	2	2	4
조선-동형	460	293	1,215	356	2,324
고말뭉치	0	5	1	2	8
전문-일반어	4,684	3,781	21	18	8,504
어근	50	516	2	6,737	7,305
빈도있음	335	264	5	99	703
판단없음	0	0	1	166	167
고대없음	15	937	0	14,146	15,098
비표준어	0	7,583	312	487	8,382
일반어	180,135	0	0	0	180,135
합계	195,320	101,749	26,885	98,930	422,884

## V. 《표준국어대사전》 추가 표제어 선정 및 사전 원고 집필

### 1.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및 원고 보완

#### 1.1. 등재 후보 선정

2022년 11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어휘는 422,895개이고, 《우리말샘》의 등재 어휘는 1,147,311개로, 등재 어휘 수의 차이는 약 725,000개이다. 두 사전 간의 등재 어휘의 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두 사전 간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샘》은 누구나 표제어를 등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전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추가, 제외 등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양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둘째,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중 북한어, 방언, 옛말을 《우리말샘》으로 옮겨 실으면서 상당량의 표제어가 《우리말샘》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샘》이 개방된 이후 《우리말샘》에 새롭게 등재된 어휘 중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하여 등재할 만한 어휘가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진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말샘》의 등재 어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할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목록을 비교하고 말뭉치 등의 언어 자료를 통해 출현 빈도와 쓰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말샘》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하는 어휘는 《우리말샘》의 어휘 2,500여 항목이다.

#### 가. 표준 미등재 우리말샘 표제어 총목록을 기준으로 각종 기준 명세

- 《우리말샘》 등재어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릴 등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말샘》 어휘 - 《표준국어대사전》 어휘’인 두 사전의 차집합의 목록이 필요하다. 두 사전의 차집합 어휘의 목록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수령받았다. 또한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등재

후보 선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표준 미등재된 생활용어 1등급 2,000개 어휘 활용
- 2017년 사업 결과 중 미등재어 원고 집필본은 제외
- 등재 후보 2,500개는 형태 기준이 아닌 뜻갈래 기준으로 선정

○ 국어원에서 받은 목록(우리말샘 등재 표준 미등재 표제어)에 표준 기등재 표제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 형태 기준으로 표준 등재 표제어를 제거하였다. 등재 후보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음의 항목들을 ‘우리말샘 등재 표준 미등재 표제어’의 목록에 명세하였다.

- 전문용어 여부
- 용례 존재 여부
- 비규범 표기 여부
- 규범 표기 미확정 여부
- 2017년 추가 표제어 여부
- 국립국어원 생활용어 1등급 여부
- 《고려대 대사전》 등재 여부
- 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수
- 모두의말뭉치 빈도수

#### 나.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후보 선정

##### 1) 자료 검토를 통한 등재 후보 1차 선정: 12,372개(뜻갈래 기준)

###### • 선정 기준

- (1) 기초어휘말뭉치 빈도 24 이상
- (2) 우리말샘에 용례가 제시된 표제어
- (3) 국립국어원 생활용어 1등급 2,000개 포함(국립국어원의 요구 사항)

###### • 배제 기준



- (1) 고유명(예: 인명, 지명, 학교명, 단체명 등)
- (2) 규범 표기 미확정 표제어(예: 뜻풀이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포함)
- (3) 2017년 사업에서 선정한 추가 표제어(국립국어원의 요구 사항)

## 2) 등재 후보 2차 선정: 2,510개(뜻갈래 기준)

- 선정 기준
  - (1) 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순으로 2,600개 선별
- 배제 기준
  - (1) 비표준어
  - (2) 고유어, ‘-시키다, -당하다’ 파생어(예: 변화시키다, 박탈당하다)

## 3) 등재 후보 최종 선정: 2,504개

- 2)에서 선정된 등재 후보에 대한 표제어 분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등재에 부적절한 어휘 배제
- 자료상의 오류로 잘못 포함된 어휘 배제

⇒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일부(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순)

학생부1, 학생부2, 학생부3, 학생부4, 앱, 그러니, 본부장, 아름다움1, 아름다움2, 조선인, 웹툰, 네네, 한국군, 실제적, 남자 친구, 갑질, 진정성, 모바일, 자영업자, 시민 단체, 공공 기관, 지역별, 포털, 소속사1, 소속사2, 북한군, 지도도, 인사차, 소상공인, 중고등학교, 빅뱅1, 빅뱅2, 다크, 세프, 전기 차, 합의문1, 합의문2, 지검장, 연구소장, 향산화, 로스쿨, 생중계.....

〈그림 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선정

표제어(우의미 번호)	구성 단위	고유어	원어	품사	뜻풀이	전문 분야	전문 용어	어용례존재	2017추가	생활용어	고대사전	말뭉치어휘	기초어휘	모두의말뭉치	모두의말뭉치	표준 추가	최종선정
학생-부	1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학교에서, 『교육』					○		학생부	9195	60005	0 ○		○
학생-부	2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대학에서, 학생들이 참가하는 부					○		학생부	9195	60005	0 ○		○
학생-부	3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단체나 조직에서, 학생들이 참가					○		학생부	9195	60005	0 ○		○
학생-부	4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학교 생활』 『교육』					○		학생부	9195	60005	0 ○		○
앱	1 단어	외래어	app	명사	스마트폰 따위의 운영 체제에서				○			앱	9027	179398	0 ○		○
그러니	1 단어	고유어		부사	『그러니까』의 준말.			○		○		그러니	8976	83099	0 ○		○
본부-장	1 단어	한자어	本部長	명사	본부의 사무를 맡아 다스리는 직					○		본부장	7886	168697	0 ○		○
아름다움	1 단어	고유어		명사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							아름다움	5757	83062	0 ○		○
아름다움	2 단어	고유어		명사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좋							아름다움	5757	83062	0 ○		○
조선-인	1 단어	한자어	朝鮮人	명사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지배를 보				○		○	조선인	4921	38263	0 ○		○
웹툰	1 단어	외래어	webtoon	명사	인터넷을 통하여 연재되는 만화				○			웹툰	4352	34156	0 ○		○
네-네	2 단어	고유어		감탄사	무엇이든지 시키는 말에 대하여							네네	4026	5852	0 ○		○
한국-군	1 단어	한자어	韓國軍	명사	우리나라의 군대를 외국 군대에				○			한국군	3998	14435	0 ○		○
실제-적	1 단어	한자어	實際的	관-명	사실의 경우나 형편과 같은. 또					○		실제적	3728	30820	0 ○		○
남자 친구	1 구	한자어	男子親友	품사 없음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 친구.				○			남자친구	3634	33683	0 ○		○
갑-질	1 단어	혼종어	甲질	명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갑질	3579	28894	0 ○		○
진정-성	1 단어	한자어	真正性	명사	참되고 올바른 성질이나 특성.					○		진정성	3028	43053	0 ○		○
모바일	1 단어	외래어	mobile	명사	이동성을 『정보-통신』					○		모바일	3024	245007	0 ○		○

○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로 최종 선정된 어휘의 목록과 각종 기준의 명세 파일(엑셀)은 별도로 제출한다.

## 1.2. 사전 원고 보완

### 가. 사전 원고 보완 및 집필

○ 우리말샘 등재 어휘의 사전 원고 보완 작업은 다음의 내용과 절차에 따랐다.

- ‘표준 추가 표제어 후보’ 어휘 목록을 토대로 ‘집필원고’ 양식(엑셀)에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sup>13)</sup>에 따라 사전 원고 내용을 작성한다.
- 『우리말샘』의 미시구조(표제어 표기, 구성단위,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뜻풀이 등)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용례는 우리말샘의 용례를 토대로 1~2개의 예구 또는 예문의 작성례로 수정하여 입력한다.
- 작업자 간의 엑셀을 통합하는 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엑셀의 행열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행열의 ‘숨기기’는 할 수 있으나 제출 시에는 ‘숨기기 취소’를 반드시 한 후 제출한다.

○ ‘집필원고’(엑셀)의 작성

13)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집필 지침」, 「편찬지침\_표준국어대사전(2022년 8월 버전)」을 가리킴.

- ① A열의 ‘일련번호’란에는 ‘표준 추가 표제어 후보’ 목록에서 해당 어휘에 부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입한다.
- ② B열의 ‘어휘(기호없음)’란은 어휘의 검색을 위한 칸이므로 표제어를 기호(-, ^), 어깨번호,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 적는다.
- ③ C열 ‘어휘’부터 AA열 ‘관련 어휘’까지의 작성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에 따른다.
- ④ 해당 칸에 채울 내용이 없다면 빈칸으로 둔다.
- ⑤ U열의 ‘용례’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말샘』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 ⑥ U열의 ‘용례’란은 1~2개의 예구 또는 예문의 작성례를 입력한다. 작성례는 『우리말샘』에 실린 용례나 인터넷 용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 수 있다.

• 용례 작성 지침

- ① 용례는 ‘구 용례’와 ‘문장 용례’를 제시한다. 적당한 구 용례가 없을 경우 문장 용례만 1개 정도를 제시한다.
- ② 문장 용례는 <우리말샘>의 용례를 간략히 수정하여 제시하되, 주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어문 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전 원고 집필의 작업 통일 사항

- M열의 ‘검색용어형태’란은 비워 둘 것
- 구 표제어인 경우: N열의 ‘품사’란에 ‘「품사 없음」’으로 표기할 것
- 고유어인 경우: G열의 ‘원어·어종’란을 빈칸으로 둘 것
- 외래어인 경우: K열의 ‘발음’란을 빈칸으로 둘 것
- O열의 ‘공통 문형’: 뜻갈래 전체의 문형
- P열의 ‘의미 문형’: 개별 뜻갈래의 문형
- Q열의 ‘공통 문법’: 뜻갈래 전체의 문법
- R열의 ‘의미 문법’: 개별 뜻갈래의 문법

○ 원고 집필 일정

〈표 2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원고 집필 일정

	원고 개수	작업 기간
시범 집필 및 피드백	1인당 100개	9월
원고 집필	총 2,504개	9~10월
교차 검토 및 교열	총 2,504개	10~11월

## 나. 원고 교차 검토 및 최종 완성

- 원고의 교차 검토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작업자 간 교차 검토를 통한 작업 내용 편차 조정
  - 오류 및 오기 수정
  - 《우리말샘》의 용례 변환·수정의 적절성 검토
-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어휘에 대하여 집필이 완료된 사전 원고(엑셀 파일)는 별도로 제출한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최종 선정된 어휘 2,504개의 목록을 제시하였다(「부록 2」).

## 2.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 및 원고 집필

### 2.1. 등재 후보 발굴

#### 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모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추가 표제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등재 후보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음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 모두의말뭉치 빈도수
- 기초어휘말뭉치 빈도수
- 2017년 사업의 추가 표제어 여부
- 국립국어원 생활용어 1등급 여부
- 《고려대대사전》 등재 여부

○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등재 후보의 발굴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표준 미등재된 생활용어 1등급 2,000개 어휘 활용
- 2017년 사업 결과 중 미등재어 원고 집필본은 제외

#### 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

##### 1) 자료 검토를 통한 등재 후보 1차 발굴: 3,000개

- 선정 기준
  - (1) 모두의말뭉치 고빈도 어휘
  - (2) 기초어휘말뭉치 고빈도 어휘
  - (3) 『고려대 대사전』의 등재어
  - (4) 국립국어원 생활용어 1등급(국립국어원의 요청 사항)
- 배제 기준
  - (1) 형태소 분석 오류로 보이는 예들(예: 한마리, 받아내다, 라고말, 안 될것 등)
  - (2) 특정 수사(예: 이십삼, 이천십사, 십육 등)
  - (3) 고유명사(예: 와이지, 후루시쵸프, 도오쿄 등)
  - (4)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예: 멧세지, 커어튼, 인폴레 등)
  - (5) 형태소 분석 결과 분석 불능(NA)인 것(예: 아버, 했, 많 등)
  - (6) 2017년 연구 사업에서 선정한 추가 표제어(국립국어원의 요청 사항)

##### 2) 등재 후보 2차 선정: 510개

- 선정 기준

- (1) 『표준』의 등재 양상과 계열성을 고려(예: ‘발레리나’는 등재되어 있으나 ‘발레리노’는 미등재된 상태이므로 ‘발레리노’를 등재 후보로 선정)
- (2) 파생어: 생산적인 접사가 결합하여 생성된 파생어는 선별하여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 단어로 정착된 것들"만 등재(표준 편찬 지침1 -121쪽). (예: 찻술질)
  - ☞ 생산적인 접사의 파생어를 선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작업자 간 판단 차이 발생 우려
  - ☞ 해당 단어를 등재할 시, 함께 등재할 같은 층위의 단어가 많다면 올리지 않음. 해당 접사가 등재어인 것으로 충분.
 예) <음악제>(등재어), <무용제>(미등재), <연극제>(미등재)  
       : <미술제>도 선정하지 않음
- (3) 합성어: 한 단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 합성어는 빈도수와 기존 등재어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정착도에 대한 판단이 작업자마다 다를 수 있음. 단어(합성어)와 구의 경계가 불분명.

• 배제 기준

- (1) 전문어
- (2) 동물명, 식물명
- (3) 문법 형태(어미, 접사, 조사)
- (4) 의미 변화가 없는 약어(예: 금감위)
- (5) 혼종어(예: 센티하다)
- (6) ‘-시키다’형
- (7) 그 외(참조: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1 -121쪽 7.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 유형>
  - 인위적 순화어
  - 용언의 활용형이나 체언의 곡용형(새로운 단어로 파생된 것은 등재), 불규칙 활용의 어간
  - (전문어와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어에서) 구는 등재하지 않음
  - 국어에서 단어 성분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문 문장’
 예) 남녀칠세부동석 ☞ 지침에는 등재하지 않는 예인데, 현재 사

전에 등재되어 있음.

- 외국어

### 3) 등재 후보 최종 선정: 505개

#### • 선정 기준

- (1) 1, 2차 목록에 없는 어휘의 계열어를 고려하여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선정(예: 2차에서 선정된 ‘처방되다’에 기반하여 ‘처방하다’도 추가)
- (2) 소설이나 어휘 사전 등의 출전에서 발견되는 어휘를 추가 선정(예: ‘재판질’(염상섭, 『삼대』), ‘금강송’(강판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 (3)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문의 어휘, 인터넷 용례 어휘 중 등재 가치가 있는 어휘를 추가 선정(예: ‘부동산’(장소의 의미 추가), ‘티격태격거리다’)

#### • 배제 기준

- (1) 2차 선정 어휘의 각 말뭉치 용례를 확인하여 잘못 선정된 것을 제외(예: ‘도로 아미타불’은 표준에 이미 관용구로 등재돼 있으므로 제외, 2차 선정된 ‘내개’는 말뭉치 확인 결과 ‘내게’의 오타이므로 제외)

⇒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 등재 후보 발굴 어휘 일부(모두의말뭉치 빈도순)

낮아지다, 심해지다, 가까워지다, 믿어지다, 익숙해지다, 나누어지다, 공연되다, 깨끗해지다, 국제무대, 하오나, 털이, 범죄율, 물구나무, 부국장, 발의되다, 감싸쥐다, 단과대, 수송되다, 연동되다, 멘트하다, 구상되다, 좋아지다, 아웃되다.....
---

〈그림 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발굴

일련번호	어휘	품사태	모두의말뭉치빈도	기초어휘말뭉치빈도	두의말뭉치(구어)	생활용어1등	고대사전표제
001	낮아지다	VV	93735	3903	2299		○
002	심해지다	VV	36951	2903	1775		○
003	가까워지다	VV	39607	2849	1574		○
004	믿어지다	VV	13672	2559	501		○
005	익숙해지다	VV	31573	2348	1299		○
006	나누어지다	VV	21226	1921	905		○
007	공연되다	VV	14157	756	85		○
008	깨끗해지다	VV	4652	621	471		○
009	국제무대	NNG	6658	524	62		○
010	하오나	MAG	1188	337	249		○
011	털이	NNG	353	303	32		○
012	범직울	NNG	2304	209	156		○
013	물구나무	NNG	1249	209	136		○

-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로 최종 발굴된 어휘의 목록과 각종 기준의 명세 파일(엑셀)은 별도로 제출한다.

## 2.2. 사전 원고 집필

### 가. 사전 원고 보완 및 집필

- 우리말샘 등재 어휘의 사전 원고 보완 작업은 다음의 내용과 절차에 따랐다.
- ‘표준 추가 표제어 후보’ 어휘 목록을 토대로 ‘집필원고’ 양식(엑셀)에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sup>14)</sup>에 따라 사전 원고 내용을 작성한다.
  - 작업자 간의 엑셀을 통합하는 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엑셀의 행열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행열의 ‘숨기기’는 할 수 있으나 제출 시에는 ‘숨기기 취소’를 반드시 한 후 제출한다.
- ‘집필원고’(엑셀)의 작성
- ① A열의 ‘일련번호’란에는 ‘표준 추가 표제어 후보’ 목록에서 해당 어휘에 부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입한다.
  - ② B열의 ‘어휘(기호없음)’란은 어휘의 검색을 위한 칸이므로 표제어를 기호

14)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집필 지침」, 「편찬지침\_표준국어대사전(2022년 8월 버전)」을 가리킴.



(-, ^), 어깨번호,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 적는다.

- ③ C열 ‘어휘’부터 AA열 ‘관련 어휘’까지의 작성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에 따른다.
- ④ 해당 칸에 채울 내용이 없다면 빈칸으로 둔다.
- ⑤ U열의 ‘용례’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말샘』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 ⑥ U열의 ‘용례’란은 1~2개의 예구 또는 예문의 작성례를 입력한다. 작성례는 『우리말샘』에 실린 용례나 인터넷 용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 수 있다.
  - 용례 작성 지침
    - ① 용례는 인용례가 아닌 작성례로 제시한다.
    - ② 용례는 ‘구 용례’ 또는 ‘문장 용례’를 제시한다.
    - ③ 문장 용례는 주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용례 작성 시 ‘어문 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⑦ 원고 집필 과정에서 기존 사전을 참고할 수 있으나, 뜻풀이는 완전히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저작권 문제) 다만 뜻풀이가 매우 짧거나 다른 어휘로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뜻풀이할 수도 있다.

#### ○ 사전 원고 집필의 작업 통일 사항

- M열의 ‘검색용어형태’란은 비워 둘 것
- 구 표제어인 경우: N열의 ‘품사’란에 ‘「품사 없음」’으로 표기할 것
- 고유어인 경우: G열의 ‘원어·어종’란을 빈칸으로 둘 것
- 외래어인 경우: K열의 ‘발음’란을 빈칸으로 둘 것
- O열의 ‘공통 문형’: 뜻갈래 전체의 문형
- P열의 ‘의미 문형’: 개별 뜻갈래의 문형
- Q열의 ‘공통 문법’: 뜻갈래 전체의 문법
- R열의 ‘의미 문법’: 개별 뜻갈래의 문법

#### ○ 원고 집필 일정

〈표 2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 등재 선정 어휘 원고 집필 일정

	원고 개수	작업 기간
시범 집필 및 피드백	각 조당 30개	8월
원고 집필	총 505개	8~9월
교차 검토 및 교열	총 505개	9~10월

#### 나. 원고 교차 검토 및 최종 완성

- 원고의 교차 검토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작업자 간 교차 검토를 통한 작업 내용 편차 조정
  - 오류 및 오기 수정
  - 뜻풀이와 용례의 적절성 검토
-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후보 발굴 어휘에 대하여 집필이 완료된 사전 원고(엑셀 파일)는 별도로 제출한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최종 발굴된 어휘 505개의 목록만 제시하였다(「부록 3」).

## VI.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 보완

### 1. 규범 정보 우선 반영 항목 선정

#### 가.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의 구조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거시적인 규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 거시구조

①맞-히다<sup>1</sup>

②발음 [마치다]

활용 맞히어[마치어 ]/마치어 (맞혀[마쳐 ]), 맞히니[마치니 ]

[편집 이력](#)

③「동사」

④【…을】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맞다'의 자동사.

⑤ ◦ 정답을 맞히다.

◦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 나는 열 문제 중에서 겨우 세 개만 맞히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었다.

⑥ ※ '퀴즈의 답을 맞히다.'가 옳은 표현이고 '퀴즈의 답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맞히다'에는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정답을 골라낸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맞추다'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져서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와 같은 경우에만 쓴다.

- ① 표제어: 표제어가 표준어이며 한글맞춤법에 맞는 표기라는 것을 표시
- ② 발음/활용: 표준 발음과 표준적인 활용형과 그 발음까지 표시
- ③ 품사: 문법적으로 동사로 쓰인다는 문법의 규범을 제시
- ④ 뜻풀이: 목적어를 취하는 것과 규범적인 의미를 제시
- ⑤ 용례: 규범에 맞는 전형적인 예를 제시
- ⑥ 규범 정보 설명: 세부 설명이 필요한 규범 정보를 상세하게 제시

##### ○ 미시구조

- 표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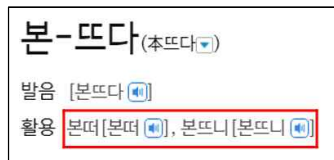
👉 표제어 ‘엷히고설키다’가 ‘엷히고섞히다’, ‘엷히고설키다’는 잘못된 표기임을 보여 준다.

◦ 발음 정보



👉 ‘읽다[익따]’, ‘읽고[일꼬]’, ‘읽어[일거]’가 ‘읽-’의 표준 발음을 보여 준다.

◦ 활용 정보



👉 활용 정보 ‘본떠, 본뜨니’가 올바른 활용형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본따’와 같은 활용은 잘못임을 보여 준다.

◦ 뜻풀이

<p><b>쫓다</b></p> <p>발음 [쫓따 ㄷㄹ]</p> <p>활용 쫓아[쫓차 ㄷㄹ], 쫓으니[쫓츠니 ㄷㄹ], 쫓는[쫓는 ㄷㄹ]</p> <p>「동사」</p> <p>【…을】</p> <p>「1」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다.</li> <li>• 어머니는 아들을 쫓아 방에 들어갔다.</li> <li>• 사냥꾼과 물이꾼들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li> </ul> <p>「2」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를 쫓다.</li> <li>• 귀신을 쫓다.</li> <li>• 함소가 꼬리를 흔들어 등의 파리를 쫓았다.</li> </ul>	<p><b>좃다</b></p> <p>발음 [좃따 ㄷㄹ]</p> <p>활용 좃아[좃차 ㄷㄹ], 좃으니[좃츠니 ㄷㄹ], 좃는[좃는 ㄷㄹ]</p> <p>「동사」</p> <p>【…을】</p> <p>「1」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를 좃는 젊은이.</li> <li>• 태초부터 사람은 살기 편한 것을 좃게 마련이오. 그래 연정이라는 것도 생.</li> </ul> <p>「2」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의 유언을 좃다.</li> <li>• 부모님의 의견을 좃기로 했다.</li> <li>• 장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좃겠습니다. &lt;홍효민, 신라 통일&gt;</li> </ul>
---	--

☞ ‘쫓다’와 ‘좃다’를 의미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24〉 ‘쫓다’와 ‘좃다’의 의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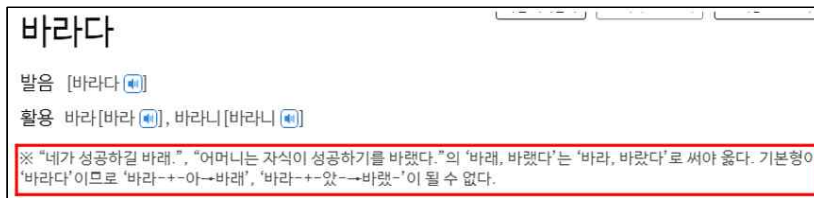
	대상	따르다	물리치다
의미			
구체물		쫓다	쫓다
추상물		좃다	쫓다

## ◦ 용례

<p><b>에게</b></p> <p>「높임말」 께</p> <p>「참고 어휘」 더러, 보고</p> <p>「조사」</p> <p>((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p> <p>「1」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수에게 돈이 많다.</li> <li>•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li> </ul>
---

☞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에게’가 쓰임을 알려 준다.

## ◦ 규범 정보 설명



☞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규범의 세부 정보를 직접 제시하여 쓰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정보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고려하여 어문 규범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언어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나. 2014년 구축 원고(국립국어원)의 규범 정보 반영 등급화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해 놓은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sup>15)</sup> 목록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규범 정보의 반영 등급을 판단하여 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사전에 반영할 순서의 중요도를 등급화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표 25〉 기구축 규범 정보 현황

연도	규범 정보 구축 원고 수	비고
2013	500개	
2014	19,254개	2013년의 원고 수를 포함

규범 정보는 2013년에 시범 구축으로 500개, 2014년에 시범 구축한 500개를 포함하여 19,254개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 규범 정보의 원고와 목록을 검토하여 ‘우선 반영 등급’을 판단하였다.

2014년 구축 목록(엑셀 파일)에 '우선 반영 여부' 칸을 마련하여 각 표제어마다 반영 등급을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하였다. ‘반영 등급’은 '우선 반영, 반영 보

15) 2013년에 구축한 규범 정보는 2014년 규범 정보 구축을 위한 시범 단계의 연구 결과로, 2014년의 규범 정보의 목록과 중복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4년의 구축 원고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류, 반영 불가, 검토 필요'의 4가지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표 26〉 기구축 규범 정보에 대한 반영 등급 표시 기준

반영 등급	등급 해설
우선 반영	맞춤법 정보나 비표준어의 안내, 규범 정보(발음/활용 등) 등 제시 근거가 명료한 정보인 경우
반영 보류	유의어 간의 뉘앙스 차이,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법 정보 등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정보인 경우
반영 불가	사전에 제시되기에 불필요한 정보인 경우, 2022년 현재 표준과 말샘 모두에 미등재 어휘인 경우
검토 필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

2014년 구축된 규범 정보 19,254개에 대한 반영 등급화 작업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2014년 구축 규범 정보에 대하여 반영 등급을 표시한 최종 파일은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제출한다.

〈표 27〉 기구축 규범 정보에 대한 반영 등급 표시 통계

반영 등급	대표 예시 표제어	판정 개수
우선 반영	간짜장, 누진울, 담뱃갑, 팡파르, 톱툼이	6,406
반영 보류	궁금하다01, 그럴싸하다, 수수깡	4,149
반영 불가	가로등, 두견새, 사회계층	3,986
검토 필요	가급률, 유량05, 주로04	4,791
합계		19,332

#### 다.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을 대상으로 규범 정보 집필 대상 선정

사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규범 정보는 어문 규정과 관련한 표제

어들에 대한 것이다. 즉 어문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들을 말한다. 어문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 표제어들은 설명할 수 있는 규범 정보가 명료하며, 그 근거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전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문 규정집의 ‘찾아보기’ 목록에 있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규정 정보 집필 대상을 선정하였다.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을 대상으로 한 규범 정보 집필 대상의 판단과 규범 정보의 집필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상세한 작업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작업 기간: 약 12주
- 작업 대상: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의 어휘 4,089개
- 작업 내용
  - (1)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의 어휘를 대상으로 규범 정보 집필 대상 여부를 판단
  - (2) 규범 정보 집필 대상으로 판정된 어휘에 대하여 2014년 구축된 규범 정보 원고를 토대로 한 규범 정보 원고 작성 및 보완
  - (3) 작업자 간 원고 교차 검토 및 수정·보완

## 2. 규범 정보 보완

### 가. 규범 정보 보완 작업 지침

규범 정보를 집필 및 보완하기 위한 지침은 작업 중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반영하며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다음과 같이 완성되었다.

#### ■ 규범 정보 집필 지침

- 1) 표제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정확히 적는다. 붙임표나 샅갓 표시는 제외하고 앞말에 붙여 적는다. 구 단위인 경우(사전에 한 칸 띄어 있는 어휘)는 띄어 쓴다.  
다만 다음의 문법형태소는 붙임표를 함께 적는다.



- 접사(접두사, 접미사)                      예) 첫-, -산
- 어미(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예) -으시-, -을걸

2) 동형어 번호: 두 자리로 넘어갈 경우 정렬 순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자리 번호라도 '0'를 붙여 두 자리로 적는다. 예) 01, 02, 03...

3) 비규범어 여부: 『표준국어대사전』에 비규범어로 제시된 표제어('→ 규범어'로 뜻풀이)인 경우만 'O' 표시를 한다. 규범어인 경우는 빈칸으로 둔다.

4) 규범 정보 유형: 추후 통계 산출을 위한 것으로, 집필하는 내용이 속하는 규범 정보의 유형을 선택한다.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필 내용의 초점이 되는 한 유형으로 선택한다. 규범 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어감 정보: 뉘앙스의 차이    예) '낮'과 '얼굴'의 차이
- 어원 정보
- 형태소 결합 정보: 규범과 관련 없이 해당 표제어의 형태소 결합 정보만 제시하는 경우    예) '왜+ -ㄴ지'
- 문법 정보: 표제어와 관련된 문법 정보나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제시하는 경우    예) '이다'의 품사는 기사, 지정사, 서술격조사, 형용사 등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 관련어 정보: 유의어, 반의어, 피동형, 사동형, 능동형, 주동형, 준말, 본말 등의 정보
- 언어 예절: 표제어와 관련한 호칭어, 지칭어, 상황에 따라 써서는 안 되는 말 등
- 기타: 위의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5) 규범 정보

① 정해진 틀에 맞추어 규범 정보를 기술한다.

- “~로 적어야 한다.”, “표준 발음은 ~이다.”, “언어 현실에서는 ~로

적는/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② 학교 문법 용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③ 완결된 문장형으로 기술한다.

▪ “~로 적어야 한다.” (O) “~로 적어야 함.” (X)

④ 잘못 쓰이는 말에 대한 기술은 간단한 형식으로 한다.

▪ ‘X’가 올바른 표기이고 ‘%Y%’가 잘못된 표기이다.

⑤ 비표준어의 앞뒤에는 % 기호를 넣어 표기한다.(검색용 기호)

▪ %연리울%

⑥ 규범에 의거해 해설할 수 있고 해설할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기술한다.

▪ 표제어 ‘보트’에 대하여 [b]를 ‘ㅂ’으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은 중모음 [ou]를 ‘오’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보다 해설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기술하지 않는다.

⑦ 같은 규범 내용이라면 표제어마다 중복 기술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에 대한 예시는 쉽고 빈도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표제어 ‘겹겹이’: ~~ 이와 같은 예로는 ‘겹겹이’, ‘곳곳이’, ‘번번이’, ‘살살이’, ‘일일이’, ‘집집이’ 등이 있다.

▪ 표제어 ‘간간이’: ~~ 이와 같은 예로는 ‘겹겹이’, ‘곳곳이’, ‘번번이’, ‘살살이’, ‘일일이’, ‘집집이’ 등이 있다.

⑧ 같은 규범 내용이라면 표제어마다 중복 기술하되, 각 표제어에 맞추어 기술 내용을 조정한다.

▪ 표제어 “예쁘다”: ‘이쁘다’도 옳은 표기로 인정되었다.

표제어 “이쁘다”: ‘예쁘다’만 표준어였으나 ‘이쁘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사이시옷에 대한 규범 내용은 다음의 기술 형식으로 통일한다.

<예시: ‘갯값’>

‘갯값’은 명사 ‘개’와 ‘값’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개 : 값/갯 : 값]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갯값’으로 적는다. 이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값%’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 두음 법칙에 대한 규범 내용은 다음의 기술 형식으로 통일한다.

한자음 ‘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양’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개량’으로 적는다.

한자음 ‘린’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인’으로 적는다. ‘과인산’에서는 ‘인’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과인산’은 ‘인산’에 ‘과-’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과린산%’으로 적지 않는다.

‘을/를’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을’이, 그밖의 경우에는 ‘를’로 적는다. 그러므로 ‘%합격을%’로 적지 않는다.

‘양/량’은 한자어와 결합할 때에는 ‘량’으로,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할 때에는 ‘양’으로 적는다. 그러므로 ‘%허파숨량%’으로 적지 않는다.

- ⑨ 여러 어문 규범과 관련한 표제어인 경우 기술 내용은 ‘맞춤법→표준어→외래어’의 순으로 기술한다.

## 나.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어문 규정의 ‘찾아보기’ 목록 4,089개를 대상으로 규범 정보 집필 대상을 판단한 결과 규범 정보의 집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휘는 총 1,599개였다.

〈표 28〉 규범 정보 보완 작업 결과

규범 유형	집필 원고 개수	비고
한글맞춤법	693	비규범어 표제어 217개 포함
표준어규정	906	
합계	1,599	

2014년 기구축된 규범 정보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원고는 작업자 간 교차 검토 과정을 거쳐 다시 수정·보완되어 최종 완성되었다. 최종 완성된 규범 정보 원고는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 4」).

## VII.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 제작

### 1. 책자 내용 구성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 이용자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사전 활용법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한다. 안내 책자는 사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한다. 안내 책자에 들어갈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요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 및 활용법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성격 및 기능 차이를 쉽고 간명하게 설명하고, 사전을 활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1) 국어사전의 역할과 필요성

예) 일상생활에서 사전이 필요한 경우, 쉽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국어사전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우

##### (2)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

예)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사전, 《우리말샘》은 이용자 참여의 개방형 사전

##### (3) 편찬 과정 및 방법

예)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인) 사전 편찬 과정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를 거친 편찬 과정

##### (4) 사전 활용법

- 사전을 활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들

예) 띄어쓰기 알아보기, 비표준어 정보 찾기, 우리말샘의 어휘 지도, 다중 매체(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등등 일반 이용자가 궁금

해할 만한 내용 위주로 구성

- 사전 이용에 도움이 되는 검색 방법

예) ‘?/\*’ 기호를 사용한 검색, 속담·관용구 검색, 자세히 찾기, 옛 한글 검색 등

- 그 밖에 일반 이용자/특정 분야 전문가 등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보 등

## 나. 책자 제작

-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표 29〉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 제작 방법 및 절차



-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분량으로 제작한다.

### 1)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 총분량: 100쪽 내외

(1) 국어사전의 역할과 필요성: 1쪽 내외

(2)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현황: 2쪽 내외

(3)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 1쪽 내외

(4) 우리말샘의 특징: 1쪽 내외

(5)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비교: 1쪽 내외

(6) 표준국어대사전 활용법: 50쪽 내외

(좌우 배치: 좌측에 '사전 이미지 2개', 우측에 '좌측 면의 이미지에 대한 각각의 설명')

(7) 우리말샘 활용법: 50쪽 내외

(좌우 배치: 좌측에 '사전 이미지 2개', 우측에 '좌측 면의 이미지에 대한 각각의 설명')

- 규격: B5 혹은 4\*6배판, 컬러 인쇄

## 2) 사전 활용 안내서의 요약 PPT

- 총분량: 슬라이드 50매

- 규격: 파워포인트(PPT) 파일

- 내용: 안내 책자의 핵심적 내용 선별 요약

〈표 30〉 책자 제작 내용

구분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안내서의 요약 PPT
제목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요약
분량	100매 내외	50매 내외
규격	B5 혹은 4*6배판	파워포인트(PPT) 파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어사전의 역할과 필요성</li><li>-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현황</li><li>-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li><li>- 우리말샘의 특징</li><li>-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비교</li><li>- 표준국어대사전 활용법</li><li>- 우리말샘 활용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li><li>- 우리말샘의 특징</li><li>-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비교</li><li>- 표준국어대사전 활용법</li><li>- 우리말샘 활용법</li></ul>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전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li><li>- 사전 활용법 관련 교육에 이용</li></ul>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는 100부 인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며, 별도로 파일로도 제출한다. 사전 활용 안내서의 요약 PPT는 파일로 제출한다.

## 2.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원고 작성

### 가.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의 원고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또한 100부 인쇄하여 실물로도 제출한다.

### 나.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디자인 예시

- 책자의 원고는 출판사를 통해 디자인과 편집 과정을 거친 후 100부 인쇄하여 제출한다. 다음은 안내 책자의 일부 예시를 보인 것이다.

〈그림 4〉 국어사전 활용법 안내 책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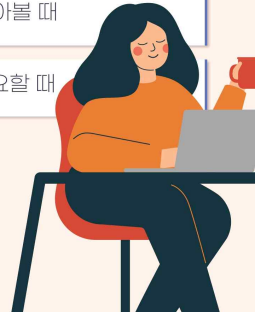
## 표준국어대사전!

어문 규정을 단어마다 적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이에요.  
다시 말해, 단어의 규범적 쓰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사전  
이죠.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 언어생활의 기준**이 돼요.



## 일상적 쓰임에는

- 1 최근 만들어진 신조어, 유행어가 궁금할 때
- 2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단어가 알고 싶을 때
- 3 옛날에 쓰던 단어를 찾아볼 때
- 4 방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 우리말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사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신조어, 유행어뿐만 아니라 은어, 옛말, 방언, 북한말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말의 실제적인 쓰임**을 보여주는 사전이에요.

**삼귀다**(三귀다) [삼귀다] 삼귀여[삼귀여/삼귀여], 삼귀니[삼귀니]

• **삼귀다** 「003」 「동사」 아직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가까이 지낸다. '사귀다'의 '사'를  
숫자 '4'로 바꾸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4)'를 '삼(3)'으로 바꾸어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다.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만[엄지척만]

• **엄지-척** 「001」 「명사」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추가올리는 행위. 상대방을 최고라며 치켜세  
우거나 칭찬할 때 한다.





## VIII.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1. 자문 위원 구성 및 자문 설계

#### 가. 자문 위원 구성

자문 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문 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편찬 전문가, 사전학자, 국어학자, 국어교육학자, 언어 정책론 전문가, 한국어 문화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거시적으로 탐색하고 유의미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 자문 위원 구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 분야
자문 위원 A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국어사전
자문 위원 B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자문 위원 C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통사론, 국어정보학
자문 위원 D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형태론
자문 위원 E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
자문 위원 F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회언어학, 언어정책
자문 위원 G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화론

#### 나. 자문 설계

사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과 자문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자문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표제어 등재 기준, 추가 표제어 선정 결과, 제외 표제어 선정 결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1) 1차 자문

- 자문 주제: 《표준국어대사전》의 42만여 개의 전수 표제어에 대한 검토 방식에 대한 자문
- 자문 의견의 활용
  - (1) 전수 표제어를 검토하는 근거 자료에 대한에 대한 미시적인 수정·보완
  - (2) 전수 표제어의 등급화 작업 기준의 수정·보완
  - (3) 전수 표제어의 등급화 작업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
- 자문 형식: 서면 자문
- 자문 시기: 2022년 9~10월
- 자문 의견서 질문 문항

1. 『표준국어대사전』의 42만여 개 전수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등급화(예: 반드시 등재, 등재, 삭제, 반드시 삭제 등)하는 작업에서 어떤 정보나 자료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함께 보내드린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는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검토하는 작업에서 표제어의 ‘어근 여부, 특수어 여부, 전문용어 여부, 고유명사 여부, 과거 용어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 함께 보내드린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는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검토하는 작업에서 판단 근거 자료로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의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한 자료’,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 함께 보내드린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5. 본 연구의 목적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부 표제어를 삭제(우리말샘으로 이관)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을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함께 보내드린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 지침으로 세운 내용들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6. 『표준국어대사전』의 42만여 개 전수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등급화(예: 반드시 등재, 등재, 삭제, 반드시 삭제 등)하는 작업에서 ‘등재 유지’해야 하는 표제어의 유형이나 요건과 ‘삭제’해야 하는 표제어의 유형이나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7. 『표준국어대사전』은 성격과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며,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8. 그 밖에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 2) 2차 자문

- 자문 주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 정립에 대한 자문
- 자문 의견의 활용
  - (1)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설정
  - (2)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의 수정·보완
- 자문 형식: 온라인 화상 회의
- 자문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16:00
- 참석자: 연구진 3인,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2인, 자문 위원
- 자문 의견서 질문 문항

1.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은 어떤 점을 필수적/선택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2.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 4가지(별첨 자료 4~5쪽)에서 추가·보완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3. 본 연구의 목적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부 표제어를 삭제(우리말샘으

로 이관)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을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제외 어휘 선별 기준’(별첨 자료 6~15쪽)으로 추가·보완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4. 제외 어휘의 선별 기준에서는 ‘~의 전 용어’, ‘~의 음역어’, 은어를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6~7쪽)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5. 제외 어휘의 선별 기준에서는 고유명(인명, 지명, 책명 등)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8~12쪽)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6. 제외 어휘의 선별 기준 중 전문어에 대해서는 전문 영역별로 별도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표제어의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13~15쪽)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7. 그 밖에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 2. 자문 의견

### 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등재 기준 정립’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이번 사업을 통해 삭제하게 되는 고유명과 같이 표준어이기는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사전 이용자가 비표준어로 오해하지 않도록 ‘일러두기’ 등에서 해명해야 할 것임.
- 원칙 ③은 비표준어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표제어로 등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됨. 그러나 특정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문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또는 개편과는 별개의 작업임. 국립국어원의 관련 위원회 등에서 특정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인

정하기로 했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은 자동으로 그것을 표제어로 수록하기만 하면 됨. 원칙 ③은 크게 보아 원칙 ①과 다를 것이 없음.

- 지명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높은 산(높이 5위까지), 즉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은 등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북한 지역에 2000m가 넘는 산들이 많으므로 한라산 이하 네 산이 높이로 5위 밖에 있을 것임.
- “인명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이성계, 왕건, 이순신...’ 등은 삭제하고 ‘예수, 마호메트’는 등재 가치가 있는 인명이므로 등재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삭제하는 인명과 등재하는 인명 간에 형평성이 있는 처리인지 의문임.
-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전문어에 대한 표제어 삭제와 등재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임.

## 2) 자문 위원 B

- 사전 이용자에게 사전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이 각각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용자와 활용자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일러두기’ 등이 필요.
- 2022년부터 새 교과 과정에 대한 교과서 집필 시작 예정 → 전문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삭제하고 <우리말샘>에 등재한다면 교과서 편찬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별첨 자료(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등재 기준 정립) 10쪽의 ‘고유명에 대한 제외 기준’

3) 주요 산과 강은 다음의 표제어만 등재한다. 산은 이름난 다섯 산(오악)과 높은 산 5개를, 강은 긴 강 5개를 등재한다.

예) 오악(五岳):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

예) 한반도의 높은 산(높이 5위까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예) 한반도의 주요 강(길이 5위까지):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 간단하게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편수 자료를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문법 용어의 경우 편수 자료와 현재 교육 과정에서의 간극이 큰 편임.

- 은어, 고유명사 등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은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음으로 은어의 전형적인 사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있어야 하며, 뜻풀이에 등재된 인명과 지명 등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야 함(‘여수순천십일구 사건’ → ‘여수’와 ‘순천’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 자문 위원 C

#### ① 등재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전략들

- 전략1: 표준형만 등재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지 않은 것은 비표준형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전략.
  - 전략1-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준형만 등재하고, 사용자가 비표준형을 검색했을 때에는 <우리말샘>의 해당 항목으로 가 보게 하는 전략.
  - 전략2: 사용자가 검색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요소는 비표준형이더라도 등재하되, 비표준형임을 명시하고 표준형으로 가 보게 하는 전략.
- 연구진이 제시한 원칙/기준에서는 전략2와 전략1이 혼재되어 있음. 두 전략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복잡한 편이며, 각 원칙 내에서도 예외, 단서 조항이 너무 많음. 예외, 단서 같은 것을 가급적 두지 않고 단순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이고 사용자들로서도 더 편할 듯.

#### ② 등재 기준에 대한 제안

##### (1) 기준 단순화

- 사용자가 검색한 어형이 표준형인지 비표준형인지 여부, 해당 어형에 대한 (미시구조) 정보를 잘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들 정보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면 될 듯. 접근 경로의 선택지를 너무 많이 두고 지나치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듯.
-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더라도, 왜 없는지 근거만 명확하면 큰 불만은 없을 듯. 예컨대 옛말, 방언, 북한어, 고유명

사는 등재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세우면, 예외 없이 관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예외, 단서가 많아서 동일 범주 내에 속하는 단어들이 비일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더 큰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듯.

(2) 전문어 처리 방법

- 전문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등재해야 할 것이므로 큰 원칙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나 단서가 불가피하기는 함. 그러나 예외나 단서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단서 조항에 자주 등장하는 ‘등재 가치가 높다’는 말은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동어반복적/순환적 기준임.

(3) 계량적, 객관적 방법의 도입 필요성

- 전문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직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규모 균형 말뭉치(다양한 장르 포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자문 위원 D

- 국어대사전에서 대표로 삼을 만한 사전이 바로 <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봄. 즉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명칭에 따라 국어라면 모두 등재될 자격이 있음. 그런데 현재의 작업 방향은 ‘표준어’ 사전으로 정립되는 것 같음.
- 옛말이나 방언, 북한어를 제외하는 것과 고유명사를 제외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결과인 것 같음 → 두 기준이 모두 존재한다면 작업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음.
- <표준국어대사전>을 어떤 특성을 가진 사전으로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 전문어 중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은 삭제해야 하는가? 잘 안 쓰이는 단어일 뿐 비표준어인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또한 이용자의 사전 활용 방식을 고려한다면, 두루 잘 쓰이는 단어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찾는 데 사전을 사용함.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어떤 사전으로 정립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임.

5) 자문 위원 E

- 국어사전이면 언어 지식과 어휘 지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백과사전적 지식을 국어사전에서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음. 이에 따라 고유명사는 전부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고유명사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을 경우, 백과사전이나 전문 용어 사전에 비해 뜻풀이에서의 정보가 가장 부실한 편이기 때문.
- 무엇이든 다 중요하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무엇을 남기느냐보다는 전부 <우리말샘>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한국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 용어는 중학교 수준까지 싣고, 고유 명사는 굳이 싣지 않아도 됨.
- 방언, 옛말, 북한어는 2019년 사업에서 <우리말샘>으로 이동하였음. 비표준어 계열 단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남아 있는데, <우리말샘>에 옮겨도 된다고 생각함. 전 용어, 음역어, 은어 등은 전부 비표준어 계열이기 때문. → 어떤 용어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준이 없으므로,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고 <우리말샘>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함.
- 의학 용어나 정보 통신 용어 등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대한국어대사전>도 적절한 참고라 하기는 어려움. 정보 통신 용어의 경우 오히려 <TTA정보통신용어사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 6) 자문 위원 F

- 《표준국어대사전》이 《우리말샘》과의 차별성을 두어 규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함.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이 지나치게 규범성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언어 자료적인 규범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등재/제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역사적인 정보나 국어학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규범성의 개념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음.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에 제시된 표제어 선정 원칙

- 1) 현재 쓰거나 썼던 말 중에서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를 수록한다.
- 2)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은 수록한다.



- 위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별첨 자료에서 ‘2.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을 보면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대립하게 하는 서술이 존재함.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만 실는다’라는 원칙을 굳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제어 등재의 일반 원칙을 정립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연구진 내에서도 제외 어휘 선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필요할 것임.

#### 7) 자문 위원 G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초중고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됨.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차 자문에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① 현재성: 현재 쓰이는 말을 중심으로 함.
  - ② 동시성: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을 중심으로 함.
  - ③ 공식성: 행정, 법률 용어 등 공식적으로 필요한 말을 중심으로 함.
-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표준국어대사전 전수 표제어 검토 방식’에 대한 자문 의견

#### 1) 자문 위원 A

- 언어사전에서 고유명사의 수록 범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그러므로 작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세부 기준이 명확해야 함. 예를 들어 국내의 행정구역은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 외국의 국가명이나 도시명은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함.
- 표제어 판단 근거의 자료로 조선일보 외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의 쓰임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른 표제어의 뜻풀이나 용례에 등장하는 항목은 ‘등재 유지’로 판정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표준국어대사전』은 21세기 한국어 어휘의 모범을 보이는 책이어야 함. 그러므로 표제어뿐만 아니라 풀이에서도 과거 사전으로부터 물려받은 풀이가 21세기의 한국어 용법에 맞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자문 위원 B

-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전 이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국어대사전을 찾는지,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찾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됨. 종이사전을 이용할 때에는 원하는 단어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꼭 찾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표제어를 검색하지 않았을 것임.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표제어를 찾고 표제어에 딸린 여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표제어를 삭제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사전 편찬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역사 용어를 삭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특정한 전문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수업에서 활용하는 게 빈번한 일이라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유지나 추가를 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한편 앞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표제어인지 등을 감안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기존의 여러 정보와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 따라 표제어검토샘플에서는 ‘가덕도’를 표제어에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이슈가 있어 이 단어는 표제어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임.
- ‘어근’은 삭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언어표현이 한 단어인지 아니면 어근이어서 다른 접사가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도 있음. 어근을 삭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적절할지 재고가 필요함.
- 사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특수어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인터넷 사전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듯함.
- 전문용어의 경우 각종 수업 장면에서 특정 용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설명으로서 국어사전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삭제할 고유명사를 판단할 때, 지금은 안 쓰이지만 예전의 지명(예: 충무, 이리), 현존하지 않는 예전에 있던 건물,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기관이나 명목은 유지하지만 명칭이 바뀐 기관명(예: 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등은 사전 이용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표제어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을 듯함. 특히 지명의 경우 다른 단어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예: 충무김밥의 ‘충무’)는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과거 용어’의 경우 의미차가 없이 단지 과거에만 쓰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 용어와 현재 용어가 어느 정도 의미차가 있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전 용어인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음.
- 규범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인터넷 사전으로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지, 사전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다른 사전들과 차별화되거나 경쟁력이 높아지는 방향인지를 따져보면 좋겠음.
- 표제어에 대한 삭제, 유지 등을 따지는 것과 함께, 표제어를 더 추가하는 것, 표제어 관련 정보 중 보완될 내용을 살피는 것도 병행되는 게 좋을 듯함.
-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따질 때 교과서에서 많이 다뤄진 단어인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반영하는 것도 사전 이용자(예: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사용자가 꾸준히 검색할 만한 표제어인지 여부를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요소도 등재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함. 예를 들어 예전의 법률 문서 등에 쓰인 용어를 접할 때 그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어사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표제어로 유지하는 게 사용자 쪽에서는 원하는 방향일 수 있음.
- 종이사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수록된 표제어를 삭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새로운 표제어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자료나 정보를 보완하는 쪽을 생각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어떤 표제어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더 원할 수 있다고 생각됨.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표제어를

우리말샘에 수록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신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사전에 표제어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됨.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없는 표제어라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표제어를 발굴하여 추가하는 게, 사전 이용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함.

- 사전 이용자, 국어교육에서 사전의 활용 등을 고려한다면 표제어의 삭제, 유지보다는 표제어의 추가, 각종 정보의 수정, 보완 등의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더우기’라는 표제어를 찾았을 때 “→ 더욱이”라고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 음역어’나 ‘~의 전 용어’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표제어를 삭제하는 게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 외래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우리말샘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앱’, ‘애플리케이션’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제어는 사전으로 표제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사용자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 한편, 우리말샘에 있는 외래어 표제어에 대한 설명 중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라는 내용이 더러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확정을 안 하거나 못하나가 궁금할 수 있으니, 확정된 표기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3) 자문 위원 C

- 사전은 독서/독해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독서를 하다가 만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말은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를 비교 자료로 사용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일 것임. 그래서 등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표준국어대사전』이 독서를 위해 커버하고자 하는 문헌의 시간적 범위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1945년 해방 이후 텍스트

로서 지금도 널리 읽히는 것에 나오는 단어는 수록한다든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식민지시대의 텍스트로서 지금도 널리 읽히는 것(예: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단어는 수록한다든지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어근은 단어는 아니지만 접사처럼 단어 아닌 것도 사전에 등재하는 관습이 있으므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삭제의 충분한 이유는 아닌 듯함. 어근이 독자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하다’, ‘~되다’, ‘~히’, ‘~스럽다’, ‘~거리다’ 등 복합어들을 한데 모아서 등재하기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음. 어근의 삭제 여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하느라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임.
- 특수어, 전문용어 가운데 일반어로서의 쓰임이 있는 것은 유지한다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그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작업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3명 정도의 복수의 작업자가 따로 판단한 뒤 교차 검증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고, 좀 더 객관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임. 어휘 등급화 논의(예: Nation의 이론)에서 거론되는 범위(range)[얼마나 다양한 장르에 출현하는가?], 산포도(dispersion)[여러 장르에 얼마나 고루 출현하는가?] 같은 개념도 참고가 됨.
- ‘부족 정보’도 표제어 삭제를 위한 이유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시 해당 항목 작성자의 조사가 불충분해서 정보가 미흡하게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권위 있는 백과사전에도 해당 항목이 실려 있지 않다는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로 고려하면 어떨까 함.
-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자료들은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으나, 각각의 역할이 좀 다름.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는 특수어, 전문용어의 등재 가치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1920년~199년의 조선일보는 한자어의 등재 가치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물은 표제어가 현재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가늠할 때 참고가 될 것이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는 위의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참고가 될 것임. 작업자에게 그냥 이

러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료를 참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려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정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쓰이지 않는 말로 판단되면 ‘삭제’ 처리”, “쓰이는 말로 판단되면 ‘유지’ 처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장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업자로서는 쓰이는 말인지 쓰이지 않는 말인지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 유지 또는 삭제를 판단할 때 작업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화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회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조작화(operationalize)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컨대 거의 모든 장르를 망라한 대규모 균형 말뭉치에서 빈도가 몇 이상, 범위가 몇 이상, 산포도가 몇 이상이면 쓰이는 말로 판단한다는 식의 지침이 있으면 작업자들이 더 객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임.
-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 제시된 기준은 규범성이라는 개념과 딱 맞지는 않음. 일상적으로는 안 쓰이는 고도의 전문용어나 특수어로 판단되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삭제하고 우리말샘으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규범에 어긋난다거나 비규범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임. 전문용어나 특수어를 많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글을 쓸 때 해당 단어를 사용해도 그 글은 완벽하게 규범적일 수 있을 것임. 현재 전혀 안 쓰이고 일반 국민이 독서를 하면서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어들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우리말샘으로 이관한다는 계획 자체는 좋으나, 그런 작업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성을 강화한다고 포장하는 것은 실제 작업의 성격과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임.
- 얼마나 자주, 널리 쓰이는지, 얼마나 전문적인지 등의 기준은 딱 떨어지는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연속적인 성격의 기준임. 즉 단어를 얼마나 등재할 만한가 하는 성질은 연속적인 성질인데, 사전 편찬자는 여기에 어떻게든 자의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 등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이 기준선을 높게 잡아서 많은 단어를 삭제할 경우, 독서를 폭넓게 하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이런 단어가 왜 빠졌지?’ 하며 불만을 가지기 십상이고, 이 기준선을 낮게 잡아서 많은 단어를 수록할 경

우,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단어가 왜 실렸지?’ 하고 불만을 가질 것임. 우리말샘의 등재 기준에 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잡았다는 것 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등재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기준에 대해 현재 쓰인다고 판단되는 것을 실었다고 하기보다는, 대규모 균형 말뭉치에서 빈도가 몇 이상, 범위가 몇 이상, 산포도가 몇 이상이라는 계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전문가의 질적 검토를 보완했다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임.

- 『표준국어대사전』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소위 관찬(官撰) 사전이라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 민간 출판사는 독자층이나 사용 목적, 사전의 성격 등을 훨씬 더 좁게 정의하여 사전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에 반해 『표준국어대사전』은 민간 출판사에서는 만들기 힘든 사전이라고 자리매김하는 게 좋을 것임. 그럼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과 민간 출판사의 사전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음.
- 표제어에 대한 통계적 지표를 우선 자동적인 방식으로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임.

#### 4) 자문 위원 D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 일부 표제어를 삭제하는 것과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정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음. 첨부 자료의 표제어 검토 방식을 보면 대체로 현재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비경제성을 유발하는 것들은 ‘삭제’ 처리로 가닥이 잡힌 듯한데 이렇게 되면 역시 첨부 자료의 표제어 검토 샘플처럼 적지 않은 표제어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도 가령 ‘~의 옛말’처럼 그 정보를 주면 표제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규범사전으로서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물론 이 과정에서 정량적 검토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정성적 검토가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번 삭제된 것들은 다시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세간의 논란처럼 이에 따른 우리말샘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앞의 답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어근 여부’는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 “종이사전의 형식에서 필요했던 것이므로 ‘삭제’ 처리 중심으로 검토”로 원칙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착하다’의 경우 표제어 ‘착’은 삭제되고 ‘착하다’만 남는 것으로 이해됨.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비경제적 잉여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듯함. 그러나 ‘착하다’의 ‘착’을 “착’하다의 어근’이라고 풀이하고 이를 표제어로 둔 것은 단순히 비경제적 잉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어근’에는 “『언어』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덮개’의 ‘덮-’, ‘어른스럽다’의 ‘어른’ 따위이다.”로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예로 제시된 ‘덮-’이나 ‘어른’은 모두 어근 가운데 단어의 자격을 가진 것임. 그러나 ‘착하다’의 ‘착’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형태소의 자격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착하다’의 어근’이라는 뜻풀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덮’과 ‘어른’은 모두 형태소 하나 짜리에 해당하나 가령 ‘가가(可嘉)하다’의 어근 ‘가가’는 형태소 두 개 짜리이면서 단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근’이라는 표제어만으로는 모두 줄 수 없는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잉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

물론 이와는 결이 다르지만 과연 ‘특수어 여부, 전문용어 여부, 고유명사 여부, 과거 용어 여부’ 등도 비경제적 잉여성만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변별적 정보를 가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 판단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의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한 자료’,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는 ‘쓰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에서 ‘쓰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과연 ‘삭제’의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전문 용어의 하위에 특히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삭제’ 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이 부족해 보임.
- 이에 대해서는 1번 문항에서 충분히 기술하였다고 판단하여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는 일부 표제어의 삭제가 왜 『표준국어대사전』을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사전을 표방하면서 뜻풀이에 ‘→’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도 ‘등재 유지’ 혹은 ‘삭제’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가령 ‘뒷갈무리’는 ‘→뒷갈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뒷갈무리’가 왜 ‘뒷갈망’의 잘못인지 그 정보가 현재는 부족함. 이는 ‘뒷겹’이 ‘→뒤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함. 즉 발주처의 연구 목적이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규범의 성격을 표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다거나 혹은 규범의 성격을 표방하기 위해 또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표준국어대사전』이 국가 기관에서 발간된 것인 만큼 파급력이 매우 크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원래 이름이 『종합국어대사전』에서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바뀐 사정을 염두에 두면 이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이 됨. 따라서 그만큼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으로서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지금까지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특히 일관성의 측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잘생기다’를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꾼 것은 학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

으로 보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정보로는 ‘잘생기다’를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이는 학술 연구의 성과를 『표준국어대사전』이 적절하게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측면에서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수정’ 작업은 사전 전체의 일관성보다는 국지적인 측면의 수정, 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므로 이번에 이루어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사업을 통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전의 일관성을 바로 잡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람.

- 『표준국어대사전』이 앞으로는 종이로는 더 이상 발간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자사전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가운데 하나는 전자사전은 종이사전과는 달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의 유기적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 하이퍼 텍스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도록, 사전 전체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다분히 잉여적인 경우라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전자사전의 경우 지면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고려한 것임.

##### 5) 자문 위원 E

- 전수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등급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사전이나 신문 말뭉치가 21세기 용법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최신 블로그나 기사에서 쓰임이 있는지를 추가로 체크하면 보충이 될 것임.
- 각 부류별로 등재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음.

다만, ‘특수어’의 경우 “사전에 계속 실려야 하는 표제어”로 판단하는 기준이 빈도, 기존 사전 등재 여부 등으로 본다면 부족해 보임. ‘은어’의 경우 무조건 제외하기보다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 ‘은어’가 아닌 다른 유형의 사용역으로 볼 기준을 추가해야 할 것이 적절해 보임. ‘음역어’의 경우 ‘불란서, 월남’류를 등재 유지할 기준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전 용어’의 경우 실제 전 용어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가슴뼈’의 경우 ‘복장뼈’의 전 용어라고 되어 있으나, 『의학용어집』 4판, 5판, 5판개정판, 6판 모두에는 ‘복장뼈’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임. ‘가슴관’의 경우 ‘가슴 림프관’의 전 용어라고 되어 있으나 둘 다 현재 의학 용어입니다. 전자는 ‘chester tube’, 후자는 ‘thoracic duct’로 되어 있어 지시하는 바가 차이가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정보 중에는 과거 근거에 기댄 것들이 많음. ‘전 용어’라 하여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이전말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한 뒤에 등재, 삭제를 결정해야 함.

-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풀이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문 말뭉치로 조선일보 기사만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에 대한 불균형성은 문제로 보임. 1920~1930년대 사용 빈도를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등급 판정에 적용한다면 특히 그러함.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잘 쓰이지 않는 한문투나 궁벽한 한자어가 상당수 존재함. 조선일보 기사에서 용례가 확인된다고 등재 유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됨. 당대 다른 신문 말뭉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적용이 어렵다면 해당 시기 말뭉치 빈도 비중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전문용어 처리 기준 중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음. “과거 용어: 과거에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표제어” 이러한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개정,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됨. 때마다 쓰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임. 중등 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용어 위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우리말샘』으로 보내면 정비 및 수정보완 대상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 계속 등재되어야 하는 표제어는 기초 어휘와 근간어, 이들과 결합하는 주요 복합어, 학습용 전문어, 일상어화한 전문어 등임. 삭제되어야 하는 표제어 부류는 연구진의 주요 기준에 동의함. 몇 가지를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음.

첫째, 고유명 구와 고유 명사

둘째, 중등 교육에서 쓰는 전문어, 일상어로 널리 쓰이는 전문어  
셋째, 특수어에 해당하는 비어와 욕 등

- 『표준국어대사전』이 우리 국민의 모든 언어생활에서 표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우리말의 기초 어휘, 근간어 위주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어문 규정과 관련된 어휘, 우리말 문법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면 함.
-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등재 여부, 띄어쓰기 여부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을 줄여나갔으면 함.

#### 6) 자문 위원 F

- 이 연구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표제어에서 어근, 특수어, 전문용어, 고유명사, 과거 용어 등을 삭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함
- 이 연구에서는 표제어의 등재 가치를 검토하는 작업에서 판단 근거 자료로 ‘1920년~1999년까지의 조선일보 기사의 한자로 구성된 문자열과 사전의 원어 한자를 비교한 자료’,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의 등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각 자료의 참조 순서와 결정 시 고려할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자료의 합산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또한 네이버백과나 위키피디아는 등재 여부만 고려하기보다 뜻풀이 등에서의 사용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함.
- 사전을 편찬할 때 표제어의 선정 기준은 편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그 기준이 바로 해당 사전의 특성이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표제어 검토 작업에서 등재 유지나 삭제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그 기준은 사전의 일러두기 등에 명시되고 사전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될 텐데, 검토 작업에서 그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 정비 결과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임. 그 점에서 현재의 작업 방식을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표제어 배분 유형과 검토 방법’의 동그라미 소제목들에서는 표제어 유형과 자료 유형, 검토 방법 등이 층위가 고려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표제어 유형에 따라 ‘삭제’ 기준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유지’ 기준이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순서가 동일한 것이 작업자에게 좋을 듯함. 마지막으로 모든 고유명사가 전문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유명사 검토 방식을 ‘전문용어 검토’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보내주신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 제시한 지침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부 표제어를 삭제(우리말샘으로 이관)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을 규범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이 연구에서 규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어근, 특수어, 전문용어, 고유명사, 과거 용어 등을 삭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함.
- ‘등재 유지’해야 하는 표제어의 유형이나 요건과 ‘삭제’해야 하는 표제어의 유형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표제어 검토 작업 방식>에서 제시한 지침들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 국가 주도 국어사전으로서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좀 더 엄격한 규범 사전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표제어의 양적 규모보다는 그간의 국어학적, 사전학적 성과를 집대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기술 사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그런데 위의 규범 사전과 기술 사전은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규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등재된 표제어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어학적, 사전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유사한 사례로는 표제어 수는 9만 여개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표제어에 대해 매우 풍부하고 세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20쪽 이상을 할애하기도 하면서 총 16권이라는 대사전으로 편찬된 <프랑스어의 보고(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TLF)>를 참고할 만함.

## 7) 자문 위원 G

-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으로 표기함)이 1999년에 완간되면서 표제

어 등재 원칙을 짐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어문규정을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적용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것’(조남호, 2000)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범성, 표준성을 제안한 표현이라고 판단됨. 『표준』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규범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표제어가 선별되는 것이 필요함. 그러므로 어문규정을 준수한 표제어를 우선하여 선별하는 것이 『표준』이 가진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봄. 다만 최근 『표준』의 기준이 너무 경직되고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재성, 동시성, 공식성을 추가하여 선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듯함. 최근 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의 특성을 실용성, 개방성, 기술성, 현실성으로 잡고 있는데(이현주 2016), 『표준』의 경우 ‘우리말샘’과 달리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국어원에서 운영하는 2가지 유형의 사전이 『표준』은 규범적 사전으로서 우리말샘은 실용적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각의 특성을 살린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초어휘 말뭉치 고빈도 어휘, 고려대사전 등재어, 생활용어 1등급, 2017년도 추가 표제어를 우선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적절함. 다만 문법적 오류나 중의적으로 어절(형태소)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나 절차가 필요함.
- 추가 표제어 선정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 오류로 잘못 선정된 어휘, 특정 수사, 고유명사, 외래어 표기법을 틀린 어휘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됨. 다만 검증하는 단계를 정밀하게 적용하여 혹시 유의미한 대상 어휘를 배제하는 경우를 철저히 선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외래어 신어의 경우 외국어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향간에 유행하는 신어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현재성, 동시성, 공식성의 특성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면 좋겠음.
- 첫째, 문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단어를 표제어로 선정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종결어미 -하다/-되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용언의 경우인데, 수납(受納)하다(물건 따위를 받아서 넣어두다)의 경우는 받아서 넣어두는 주체자는 행위자[+의식]이고 대상[-의식]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응표현으로 ‘수납되다’

는 대상[-행위]을 행위자[+ 행위]가 그런 행동을 가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과연 피(사)동표현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표제어로는 반성되다, 만개되다, 녹취되다, 하사되다, 처방되다, \*옹위되다 등이 있음. 그리고, 다운로드받다의 경우 현재 표준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 오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나 비비에스(BBS)에서 필요한 파일이나 자료를 전송받는다.’로 풀이하고 있고 유사어로 ‘내려받기’를 예를 들고 있음. 이미 다운로드에 내려받다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보조용언 받다를 붙인 것을 표제어로 삼는 것은 문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둘째, 의미해석에서 중의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제어는 선정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즉 중의적인 표현이 내재된 경우를 표제어로 선정할 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면, 문제화(問題化)되다(化->‘되다’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표제어로는 경직화되다. 최소화되다, 관례화되다 등이 있음.

셋째, 외래어나 한자어의 경우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한 다의어이면서 국어 종결어미나 보조용언이 붙어서 사용될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 그런 복합어는 본래 의미를 고려하여 표제어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어셈블리어에서 어셈블리는 외래어로서 ‘의회’란 의미와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 번역어’란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에 ‘-어(語)’가 붙여진 표제어일 경우 구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앞서 말한 한자어 수납(收納, 受納, 袖納, 輸納)도 다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보조용언이나 어미를 붙인 표제어의 경우 구분할 필요가 있음.

넷째, 결합 방식이 유사한 단어의 경우 표제어로 선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학내외를 표제어로 선정하면 유사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원내외, 청내외, 사내외 등과 같은 이런 표현도 사용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표제어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표제어 후보로 보지 않는 경우를 보면 전문어는 되도록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표준』을 학교 교육 혹은 시험

준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특별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 비율이 높은 계층을 보면 초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각종 시험 준비생들임. 그러므로 주 활용 계층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문어는 대부분 표제어(기 등재어는 그대로 둠)로 선정하면 좋겠음. 또한 각종 국가시험이나 일반(국가) 시험 문제에 활용되지만, 『표준』에 등재되지 않은 전문어(혹은 특수 용어)를 선별하여 표제어로 선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음. 특별히 교육적인 차원이나 시험의 차원은 뜻풀이를 명확하게 하여 단어 해석의 불분명으로 인한 오해(분쟁)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내용도 집필되었으면 함.



## V. 참고 문헌

### <사전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국립국어원.(<https://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국립국어원.(<https://stdict.korean.go.kr>)  
메리엄-웹스터 사전 홈페이지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2002), 《연세 한국어사전》, 동아출판.  
운평어문연구소(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옥스퍼드 영어 사전 홈페이지  
이희승 편(199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조선어학회(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논저류>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교육용 규범 정보(사전) 구축, 국립국어원(책임연구원 정희창).  
국립국어원(2014), 2014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규범 정보 구축, 국립국어원(책임연구원 정희창).  
국립국어원(2017),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개정, 국립국어원(책임연구원 정희창).  
국립국어원(2017),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표제어 정비 연구, 국립국어원(책임연구원 김한샘).  
국립국어원(2021),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책임연구원 박용찬).  
국립한글박물관(2017), 한글과 사전의 현황과 전망 분석, 국립한글박물관(책임연구원 강현화).  
김지혜(2022),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 분석, 반교어문연구 61, 반교어문학회, 71-104.

- 김지혜(2022),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4, 국제어문학회, 289-316.
- 김태은·박지영(2019), 《現代漢語詞典(第7版)》 신(新) 표제어에 대한 논의, 중국어문학논집 114, 중국어문학연구회, 153-181.
- 김현권(2003), 프랑스어 사전의 전통과 TLF,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언어학회, 261-270.
- 김현철·이준섭·임수경·장진개(2016), 《현대한어사전》과 《현대한어규범사전》: 중국어의 규범화, 세계의 언어사전, 한국문화사, 50-97.
- 김혜리(2003),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언어학회, 283-299.
- 남기심·김한샘(2017), 말뭉치 활용 한국어사전 편찬의 실제 - 『연세 한국어사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7-36.
- 도원영·차준경(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4.
- 미즈노 슌페이(2005), 小學館 《大日本國語辭典》의 편찬과정과 특징, 한국사전학 5, 한국사전학회, 29-56.
- 손경호(2016), 삼대에 걸친 마쓰이 가문의 열정 《니혼코쿠고다이지텐》, 세계의 언어사전, 한국문화사, 98-135.
- 송경안(2003), 독일의 두텐 사전,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언어학회, 231-259.
- 송영빈(2017), 《언해》에서 《일본국어대사전》까지: 일본어 사전 100년의 발자취,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222-242.
- 신자영(2016), 스페인어 규범 사전의 과거와 현재, 세계의 언어사전, 한국문화사, 271-302.
- 신자영(2017), 스페인어 온라인 사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93-107.
- 시드니 I. 랜도우(2002), 《사전편찬론: 예술성과 장인정신》, 김영안·강신권 공역, 한국문화사.
- 위진(2018),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이용 양상 분석,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7-31.
- 윤주옥(2016),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대한 고찰: 성립, 구성 및 수용을 중심으로, 세계의 언어사전, 한국문화사, 139-177.
- 이해영(2020), 카드뉴스를 활용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구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16), 《우리말샘》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26(4), 국립국어원, 65-85.
- 임지혜(2014), 서울시 현대 한류문화 관광안내 리플렛(Leaflet) 디자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창·이운영(2008),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국립국어원.
- 정희창(2016), 어문 규범의 대중화와 국어사전, 어문학 131, 한국어문학회, 55-73.
- 조남신(2015), 《사전학》, 한국문화사.
- 조남호(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5-24.
- 최경은(2016), 동서독의 언어사전 비교: 《독일현대어사전》과 《독일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세계의 언어사전, 한국문화사, 242-270.
- 허성도(2005), 《現代漢語詞典》의 사전학적 조명, 한국사전학 5, 한국사전학회, 5-27.
- 하영동(2004), 프랑스 언어대사전 TLF의 특징과 사전학적 의의, 한국사전학, 한국사전학회, 31-72.
- 하영동(2015), 300년 전통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새국어생활 25-1.
- Simpson, J. A(2018), 단어 탐정: 옥스퍼드 영어 사전 편집장의 37년 단어 추적기, 지식너머.

#### <누리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https://riks.korea.ac.kr>)

Japanknowledge(<https://japanknowledge.com>)

## 부 록

부록 목차
-------

「부록 1」 전문 분야별 세부 판단 기준 .....	132
「부록 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선정 목록 .....	240
「부록 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 목록 .....	305
「부록 4」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 보완 원고 .....	329

## 「부록 1」 전문 분야별 세부 판단 기준

### 『표준국어대사전』 「인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주요 처리 사항

- 인명은 백과사전 표제어로 기본적으로 삭제한다.
- 표제어 표기가 다른 동일 인물의 ‘검토정리’는 일치시킨다.

예) 가이사(←Caesar), 카이사르(Caesar, Julius)

예)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묘호나 시호는 유지한다.

예) 태종, 세종, 숙종, 영조 등 / 고왕(高王)

- 주요 종교의 창시자는 유지한다.

예) 예수, 공자, 마호메트

- 묘호나 시호를 추가하는 대신 극히 시조(始祖) 등 제한된 범위에서 역사상 유명한 인물만 유지할 수도 있다.

예) 견훤, 광개토왕/광개토대왕, 궁예, 대조영, 동명왕/동명성왕, 박혁거세/혁거세, 세종02, 온조왕(이상, 유지), 이성계, 왕건, 이순신, (이상, 삭제)

- 속담에 등장하는 인명은 유지한다.

예) 공자, 유비, 장비, 조조, 제갈공명, 제갈량, 엄천득, 맹상군.....

- 인명으로 보기 어려운 용어는 유지한다.

예) 계명구도지웅, 충무공, 이제삼왕, 자충, 차차웅, 의상십철, 양주팔괴, 구철

- 한글맞춤법에서 예로 제시한 인명은 유지한다.

예) 김립, 김입, 최린, 최인, 신립, 신입, 채륜, 채운

#### 2. 추가 정비 사항

- 시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휘 등 한국사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인정한다.

예) 발해: 대이진, 대건황, 대위해, 대인선

- 뜻풀이에 언급된 인명이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한다.

예) 십철: 공자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열 사람.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염옹(冉雍),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구(冉求), 자로(子路), 자유(子游), 자하(子夏)를 이른다.

⇒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염옹(冉雍),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구(冉求), 자로(子路), 자유(子游), 자하(子夏)’ 삭제

예) 비시지(BCG): 프랑스의 칼메트와 게랭이 만든 결핵 예방 백신. 소의 결핵균에서 독성을 없앤 것으로, 미(未)감염자의 몸에 접종하여 결핵에 대한 면역을 얻게 한다.

⇒ ‘게랭<sup>4</sup>(Guérin, Camille)’ 삭제

### 3. 추가 제언 및 검토 사항

- 《우리말샘》의 표제어를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이관하거나 집필 작업이 추가될 수 있다.
- 한국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올림말 목록 및 뜻풀이의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 ‘조자룡’도 속담은 있으나 문학 분야로 되어 있는데 삭제 처리되었음. 인명으로 수정하고 유지해야 함
- 강태공’도 속담은 있으나 일반어에 속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 자충, 차차웅: 박혁거세를 칭한 ‘거서간’, 후대 임금 칭호인 ‘이사금’, ‘마립간’은 역사 분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들도 풀이를 수정하고 역사 분야로 수정해야 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서비스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 ‘말뭉치0’이거나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삭제 판정함.

예)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 기선^우체국, 해저^조망선, 우편^선별기, 우편^체송로 등  
예외) 가격^표기^우편물(‘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이므로 유지 판정).

- 단체명의 경우 삭제 처리.

예외) ‘만국 우편 연합’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단체의 경우 유지 판정함.

유지의 예) 국제^우편^연합, 만국^우편^연합

삭제의 예)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국제^관설^관광^기구, 아이유오티오. 유  
피유(만국^우편^연합과 같은 단체이지만 말뭉치 빈도가 0이므로 삭제 판정함.)

- 계열어의 경우 전부 유지 판정함.

예) 제일^종^우편물, 제이^종^우편물, 제오^종^우편물, 제삼차^산업, 제오차^산업

- ‘말뭉치 추정’이나 말뭉치 확인 결과 해당 어휘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것이 없을 경우 삭제.

예) 지엠에스(GMS): 뜻풀이에 따르면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장점을 살려 쾌적한 분위기로 싸게 파는 소매  
점.’이지만 말뭉치 확인 결과 학원명, 병원명으로 활용되고 있음.

예) 세컨드런(second run): 뜻풀이에 따르면 ‘개봉관에 이어 상영하는 이류 극장에서 이루어진 흥행.’이지  
만 말뭉치 확인 결과 백화점명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동음이의어의 경우 말뭉치 확인하여 삭제 판정함.

예) 우세(04): ‘내위동형/고조선/말뭉치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뜻풀이(예전에, ‘우편 요금’을 이르던  
말.)와 일치하는 것이 없으므로 삭제 판정

### 2. 2차 처리 사항

- ‘유지’로 판단한 어휘 중 일반어에 가까운 어휘는 ‘일반’으로 판단 변경함.

예) 편의-점, 전문-점, 우편^번호, 유스^호텔

- 계열어 정비

예) 우체-엽서, 우편-엽서: 보류

예) 카탈로그^판매, 통신^판매: 보류

예) 통용^우표, 항공^우표: 보류

예) 체송-편, 체송-로, 체송-인, 체송-국: 보류

- 기타: ‘삭제’와 ‘유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계열어의 경우 모두 ‘보류’로 수정함.

예) 속달^우편, 국제^우편, 접수^시각^증명^우편, 유치^우편, 국내^우편, 통상^우편, 공중^우편, 비행^우  
편, 항공^우편, 시외^우편, 소포^우편, 요금^별납^우편, 약속^우편, 배달^증명^우편,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 점자^우편, 보통^우편, 특수^우편, 특수^취급^우편 → 보류

예) 특수^우편물, 보통^우편물, 속달^우편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가격^표기^우편물, 통상^소포^우

편물 → 보류

- 옛 용어로 판정되는 경우 '삭제' 처리  
예) 흥신소



## 『표준국어대사전』 「역사 2」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지명에 대한 처리 → 삭제(고유명사)

예) 몰타<sup>^</sup>유적, 수사(27), 경기-우도

- 책명(작품명), 유물명에 대한 처리 → 대부분 삭제(고유명사)

예) 시일야방성대곡, 흥왕사명<sup>^</sup>청동<sup>^</sup>은입사<sup>^</sup>운룡문<sup>^</sup>향완, 청자<sup>^</sup>양인각<sup>^</sup>연당초<sup>^</sup>상감<sup>^</sup>모란문<sup>^</sup>은구<sup>^</sup>대접  
예외) 민무늬<sup>^</sup>토기, 신석기<sup>^</sup>토기 등 특정한 유물이 아닌 경우 유지 판정하였음.

- 건물명에 대한 처리 → 전부 삭제(고유명사)

예) 파르테논<sup>^</sup>신전, 대영<sup>^</sup>박물관, 황허-루

- 기관명에 대한 처리 → 일부 삭제(고유명사)

예) 동양<sup>^</sup>척식<sup>^</sup>주식회사, 조선<sup>^</sup>식산<sup>^</sup>은행

다만 관아명, 관청명은 판단 보류하고, 검토 의견에는 ‘보류-관아명’으로 기입함.

예외) 조의-부, 집현-전, 징세-서

- 단체명에 대한 처리 → 전체 삭제(고유명사)

예) 국가<sup>^</sup>사회주의<sup>^</sup>독일<sup>^</sup>노동당, 국민-당, 국민<sup>^</sup>공회, 대한<sup>^</sup>독립단

예외) 대한민국<sup>^</sup>임시<sup>^</sup>정부(역사적 의의 고려)

### 2. 2차 처리 사항

- 편수자료에 반영된 어휘는 전부 유지 판정하고, 검토 의견에 ‘편수자료’라고 기록하였음.

예외) 서라벌, 권리<sup>^</sup>장전, 사국<sup>^</sup>동맹, 베르사유<sup>^</sup>조약 등

- 우리의 묘호나 연호는 전부 유지 판정하였고, 외국의 것은 삭제 판정

예) 광무(01)’은 유지 판정하였으나 ‘정관(05)’는 삭제 판정함.

- 유물의 경우, 국보, 보물, 사적이라고 뜻풀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유지 판정하였고, 나머지는 보류 판정함. 외국의 것 중에서는 널리 알려져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유지 판정하였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보류 판정하였음.

예) ‘갈항사<sup>^</sup>삼층<sup>^</sup>석탑’은 국보이므로 유지 판정하였으나, ‘황제-총’은 국보가 아니므로 보류 판정함.

예) 사용 빈도가 높은 ‘베르사유<sup>^</sup>궁전’은 유지 판정하였으나, ‘후이현<sup>^</sup>고묘’는 보류 판정함.

- 우리의 역사에서 의미있는 국호/잘 알려진 국호는 일반 처리함.

예) 조선, 고려, 신라, 고조선, 고구려 등

- 우리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은 일반 처리함.

예) 육-이오, 한국-전쟁, 임진-왜란 등

- 우리의 사전에 실어도 큰 의미가 없는 세계사적인 사건/국호는 삭제 처리함.

예) 공력^운동, 구강-자, 귀엔 등

-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유물/유적은 일반 처리함.

예) 경주^불국사, 남한산-성, 다보-탑 등

## 『표준국어대사전』 「지리」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삭제 판정하였으나, 네이버에 있거나 위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말뭉치에서 용례가 확인되는 경우 유지 판정하였다.

예) 북-향사(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 아프리카^대지구대(고대없음/위키있음/말뭉치0), 우점-식생(고대없음/말뭉치0/저조선), 곡중곡(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 영구^동결대(고대없음/말뭉치0/저조선), 내셔널^아틀라스(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 등후선-도(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 등

- ‘네위동형’이나 ‘네위있음’이더라도 네이버, 위키백과, 말뭉치 확인 결과 동음이의어일 경우 삭제 판정하였고, ‘의견’에 ‘삭제-말뭉치 동음이의어’로 기입하였다.

예) 비지-국(네위있음/고말뭉치), 산호(03)(네위동형/말뭉치추정), 지취01(위키동형/말뭉치추정), 샌드^케이(위키있음/말뭉치추정) 등

- 판단 정보에 ‘말뭉치0’으로만 기입되어 있는 경우, 구글과 네이버 검색 결과 해당 뜻의 용례가 확인되면 유지 판정하였다.

예) 침식^평원, 티오^지도, 투사^도법, 원뿔^투영법 등 → 구글 및 네이버 검색 결과 용례가 확인되므로 유지 판정함.

※ 용례 확인시에는 구글/네이버 사이트 중 사전류의 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았음  
(예: <https://wordrow.kr/>)

- 유물명 중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유지 판정하였다.

예) 대동-여지전도, 대동-여지도, 동여-도, 대동방-여전도, 곤여^만국^전도 등

- 한 단어로서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삭제 판정하고, ‘의견’에 ‘삭제-기타’로 기입하였다.

예) 둥근-돌: 돌이 자연적으로 닳거나 깎이어 모서리가 무디어진 돌.

### 2. 2차 처리 사항

- ‘유지’로 판단한 어휘 중 일반어에 가까운 어휘는 ‘일반’으로 판단 변경하였다.

예) 대륙(01), 남-북극, 극-지방, 화산(01), 고원(02), 산맥(01), 섬(03), 모래-언덕, 모래-사막, 내륙, 대륙, 세계-지도 등

- ‘판단’ 필드에 따른 판정 여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1차 작업과 마찬가지로 ‘삭제’ 판정함.

② ‘고대없음’이고 ‘말뭉치0’이지만 네이버나 위키에 올라와 있는 경우 ‘보류’ 판정함.

예) 곡중곡, 내셔널^아틀라스, 뇌석, 등후선-도, 람베르트^도법, 북-향사, 아프리카^대지구대

③ ‘고대없음/말뭉치0/저조선’이거나 ‘고대없음/말뭉치0/고조선’인 경우에도 ‘보류’ 판정함.

예) 두만강^곡지, 영구^동결대, 우점-식생

④ ‘말뭉치0’, ‘말뭉치0/저조선’, ‘말뭉치0/고조선’인 경우에도 ‘보류’ 판정함.

예) 인위적^경계, 자연적^경계, 냉한^지대, 극북^지방

- 고유명사에 대한 판정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명은 1차 작업 때에도 '삭제' 판정하였으나, 검토 의견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삭제-고유명사'라고 기입하였음.

예) 국제^지리학^연합, 세계^지리학^연합, 아이지유

② 유물명의 경우 편수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유지' 판정하였으나, 그 외의 경우 모두 네이버나 위키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보류' 판정하였음.

- '유지' 판정한 예: 대동-여지도, 청구-도

- '보류' 판정한 예: 수선^전도, 청구-선표도, 관북-도, 도성-도, 동여-도, 대동-여지전도, 노직-봉

※ 편수자료에 등재된 어휘는 전부 '유지'로 판정하고, 검토의견에 '편수자료'라고 기입하였음.

-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어휘의 경우 일반 판정하였다.

예) 대동-여지도

## 『표준국어대사전』 「경영」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펴보았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뱀버섯’(끈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의 단어와 네이버지식백과의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지만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자본주 주체설 / 자본주 주체이론(네이버백과등재) - 보류 처리  
제로디팩트 운동 / 제로디팩트 운동(네이버백과등재) - 보류 처리

- 특히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단어의 경우, 영어로 네이버지식백과 혹은 위키백과에 검색했을 때는 나오나 한글로는 검색되지 않는 예가 있었다.

예) 엠 엔드 에이(검색X) / M&A(위키등재) - 보류 처리

- 편수자료에서 ‘일반사회’, ‘지리’, ‘정보’ 분야를 참고하여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였다.

- 전문용어에서 일반어 혹은 일반어급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공동경영, 관리 회계, 기업인, 리콜, 마케팅 등

- 잘 알려진 금융 관련 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예) 계좌, 무-배당

- 잘 알려진 기업 경영 관련 용어 또한 ‘일반’ 처리하였다.

예) 기업-가, 대표-이사, 회계-연도 등

## 『표준국어대사전』 「교통」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피었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땀버섯’(곤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의 단어와 네이버지식백과의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지만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감속 레이더 / 감속 레이더(지식백과수록) - 보류

관통 제동기 / 관통제동, 관통제동장치(지식백과) - 보류

보행자 작동 신호 / 보행자작동신호기(지식백과) - 보류

- 특히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단어의 경우, 영어로 네이버지식백과에 검색했을 때는 나오나 한글로는 검색되지 않는 예가 있었다.

예) 지시에이 / GCA(지식백과수록) - 보류

- 전문용어에서 일반어 혹은 일반어급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고가도로, 고속철도, 나들목, 내비게이션, 방파제, 전철, 중형-차 등

- 잘 알려진 기관명은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인천^공항



## 『표준국어대사전』 「농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펴었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땀버섯’(곤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의 단어와 네이버지식백과 혹은 위키백과의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지만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가계 선발법 / 가계선발(지식백과수록) - 보류 (고대없음/말뭉치0)

가을뿌림하다 / 가을뿌림(지식백과수록) - 보류

더덩잇병 / 더덩이병(지식백과수록) - 보류

보리줄무늬병 / 보리줄무늬병(지식백과수록) - 보류

붉은별무늬병 / 붉은별무늬병(지식백과수록) - 보류

-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와 같지만, 단어 표현이 미세하게 다른 것이 있다.

예) 노동적 집약 농업 / 노동 집약적 농업(편수자료) - 유지 처리

계단식 재배 / 계단 경작(편수자료) - 보류 처리

- 한글동형이 다수 발견되었다. 네이버 백과, 위키백과, 말뭉치 용례 검색을 통해 해당 뜻풀이로 쓰이지 않은 동음이의어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가대기(02), 미래(01), 보내기, 접수(04) 등

- 잘 알려진 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예) 곡-괭이, 농-기계, 반-타작, 벼-농사, 유기-농, 소작(01), 쟁기(01), 제초-기, 제초-제, 천연^비료

## 『표준국어대사전』 「미술」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펴었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땀버섯’(곤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의 단어와 네이버지식백과 혹은 위키백과의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지만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감산혼색 / 감산혼합(지식백과수록) - 판단 보류 (고대없음/말뭉치0)

살롱 데 튀일리 / 살롱 데 툴리(지식백과수록) - 판단 보류

건칠상 / 건칠조, 건칠조상(위키백과) - 유지 처리

리소그래프 / 리소그래피(지식백과수록) - 보류

-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와 비교해보면 엑셀에 있는 용어 두 개가 섞인 것이 있었다.

예) 편수자료에 ‘가산 혼합’이 있으나 엑셀에는 ‘가산 혼색’, ‘가색 혼합’이라는 두 개의 용어가 있었음. 두 단어를 섞으면 편수자료에 있는 ‘가산 혼합’이 되므로 일단 두 단어 모두 ‘보류’ 처리함.

- 혹은 편수자료 용어와 미세하게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칭하는 단어인 경우가 있음.

예) 고유색명(엑셀) / 고유색(편수자료) - ‘유지’ 처리

- 한글동형이 다수 발견되었다. 네이버 백과, 위키백과, 말뭉치 용례 검색을 통해 해당 뜻풀이로 쓰이지 않은 동음이의어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과법(01), 건본(02), 요조(01), 이필(01) 등

- 편수자료에서 ‘미술(5개 분야)’ 분야를 참고하여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고 ‘편수자료에 있음’이라는 검토 의견을 남김.

예) 수류부채, 루브르, 슈퍼리얼리즘, 앵데팡당 등

- 전문용어에서 일반어 혹은 일반어급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그러데이션, 그림물감, 스케치북, 조각, 원근감, 인물화, 크레용, 풍경-화 등

##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펴보았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땀버섯’(곤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의 단어와 네이버지식백과의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지만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유럽노동조합연합 / 유럽노동조합연맹(지식백과수록) - 판단 보류

개방적 계급 / 계방적 계층(지식백과수록) - 판단 보류(고대없음/말뭉치0)

데마고기증 / 데마고기(지식백과수록) - 판단 보류(고대없음/말뭉치0) 등

- 특히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단어의 경우, 영어로 네이버지식백과에 검색했을 때는 나오나 한글로는 검색되지 않는 예가 있었다.

예) 피아르티(검색X) / PERT(검색0) - ‘피아르티’ 보류 처리

비비에스운동(검색X) / BBS운동(검색0) - ‘비비에스운동’ 보류 처리

- 편수자료에서 ‘일반사회’, ‘지리’ 분야를 참고하여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였다.

예) 가족 제도, 관계적 위치, 귀속 지위, 시민 혁명 등

- 전문용어에서 일반어 혹은 일반어급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가부장제, 미스코리아, 여론조사, 카리스마, 대중^사회, 문화-생활 등

## 『표준국어대사전』 「생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펴보았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땀버섯’(곤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에서 네이버, 위키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네이버 백과와 위키백과에 검색했을 때 많이 나왔다. 특히 생물(버섯 등), 미생물의 세부적인 종류가 많아 검색해서 네이버 백과에 있는 경우 ‘유지’ 처리하였지만 ‘고대없음/말뭉치0’, ‘고대없음/말뭉치추정’, ‘고대없음/저말뭉치’의 판단에서 나온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갈고리서실 (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 - 판단 보류

- 한글동형도 다수 발견되었다. 네이버 백과, 위키백과, 말뭉치 용례 검색을 통해 해당 뜻풀이로 쓰이지 않은 동음이의어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게부리 등

- 편수자료에서 ‘생명과학’ 분야를 참고하여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였다.

예) 개체군 생장 곡선, 사이토크로뮴^산화^효소 등

- 전문용어에서 일반어 혹은 일반어급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곰팡이, 근육, 면역력, 난자, 정자 등



## 『표준국어대사전』 「예체능 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고대있음(o)이지만 고대사전에 없는 경우

농업-복고(04)의 경우 엑셀에선 고대사전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동형의 다른 ‘복고’만 있었다. 네이버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말뭉치의 경우 동형의 다른 ‘복고’로 쓰인 예만 있어 ‘삭제’ 처리하였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대있음이지만 고대사전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었다.

#### - 네위동형/네이버동형/위키동형 등의 경우 형태만 같은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

미술-광화(03), 고조(11), 만달(01), 부채(05), 사수(02), 사주(05), 완자(03) 등의 경우 역시 [네위동형-말뭉치추정]인데 한글 동형으로 각각의 뜻이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실려있지 않았다. (삭제 처리-한글동형) 누공(01), 이금(04), 이필(01), 지매(01), 초각(02) 등-위키동형인데 위키백과에 없었다. 농업에서 ‘세종(04)’, ‘소란(03)’의 경우도 네위동형이나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따라서 위키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의 경우 각각 ‘위키백과’와 ‘네이버백과’에 검색하여 실제로 사전에 실려있는지 확인하고 말뭉치의 용례도 살펴보았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와 동음이의어의 용례로만 쓰인 경우가 있어 ‘삭제’로 판단하였다.

#### - 네이버없음인데 네이버o인 경우

네이버백과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네이버백과에 있는 경우도 더러 보였음. 미술-가법혼색, 난색, 동화 효과, 등글기, 박육조, 발뢰르 등이 있었다.

#### - 생명의 경우 생물을 다루는 고유명사가 매우 많았음.

‘고대없음/네이버(또는 위키)있음/말뭉치0’의 경우 네이버나 위키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세부정보(고유명사)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삭제’ 처리함.

예) ‘원추 땀버섯’(곤적 버섯과의 하나.), ‘좀노란-창싸리버섯’(창싸리버섯과의 버섯.) 등과 같은 단어들은 ‘삭제’ 처리함.

#### - 고대에는 있으나 ‘저말뭉치’의 경우 작업자의 자체 판단을 거친 후 이성우 선생님의 기준을 따라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용례는 맞게 쓰이는데 말뭉치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중 고유명사 위주로 삭제(또는 보류) 처리하였으나 ‘수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 이 부분이 작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 - ‘말뭉치0/고조선(혹은 저조선)’의 경우 특히 고조선일 경우 유지와 삭제의 처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 - ‘고대없음/말뭉치추정’의 경우 고대에는 없지만 말뭉치 용례를 확인했을 때 용례가 맞게 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용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 이는 보류로 남기었다.

예) 교통-가속차선, 관제구역, 혼용차로 등

### 2. 2차 처리 사항

- 엑셀의 단어와 네이버지식백과의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지만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화면 밖 소리 / 화면 밖 음향(지식백과수록) - 판단 보류

- 한글동형도 다수 발견되었다. 네이버 백과, 위키백과, 말뭉치 용례 검색을 통해 해당 뜻풀이로 쓰이지 않은 동음이의어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껍껍(03), 군물(02), 동기(07) 등

- 네위동형이지만 실제로 위키백과에는 없는 사례도 있었다.

예) 여기(02) - 네이버에는 있어서 ‘유지’ 처리함

- 편수자료에서 ‘음악(9개 분야)’, ‘체육(2개 분야)’ 분야를 참고하여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고 ‘편수자료에 있음’이라는 검토 의견을 남김.

예) 가면무, 두마치 장단, 동당기 타령, 천국과 지옥 등

- 전문용어에서 일반어 혹은 일반어급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일반’으로 변경하였다.

예) 극본, 내레이션, 제작진, 피디, 뮤지컬, 힙합 등

- 다소 전문적이지만 잘 알려진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였다.

예) 리얼리즘

## 『표준국어대사전』 「동물」, 「체육」, 「해양」, 「행정」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는 빈도가 0인 경우와 빈도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하였다.
- 빈도가 있는 경우는 다시 저빈도(말뭉치 수가 1~2회인 것)와 (상대적) 고빈도(말뭉치 수가 3회 이상인 것)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 우선 빈도가 0인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	네이버	위키	조선	빈도	판정
X	X	X	X	X	삭제
O	X	X	X	X	삭제
O	O	X	X	X	유지
O	X	O	X	X	유지
O	X	X	O	X	유지

- 빈도가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저빈도인 경우

- (1) 어느 사전이든지 사전 하나에만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이며 저빈도(말뭉치 수가 1~2회)인 것은 삭제 처리.
- (2) 두 가지 이상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빈도라 하더라도 유지 처리.

#### 2) (상대적) 고빈도인 경우

- (1) 말뭉치 확인 결과 말뭉치 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어도 유지 처리.
- (2) 두 가지 이상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 처리.

#### 3) 기타

- (1) 아무런 정도 없이 빈도가 0인 경우는 삭제 처리.
- (2) 전문 분야 ‘해양’ 부분에서는 ‘X 해협’ 같은 류의 단어가 많이 보임. 이것도 고유 명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듯하여 우선은 고유 명사로 처리하였음.
- (3) 앞서 기술한 바를 고려한 후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는 삭제 처리함.

### 2. 2차 처리 사항

- 편수 자료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유지 처리를 하고, 삭제 처리한 경우에는 검토 의견을 달아 놓았다.
  - ‘해양’ 부문에서 고유명사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유지 처리로 변경하였다.
  - 보류 처리 확대: ‘고대 없음, 네이버 있음/네위 있음, 말뭉치 0’ 등 어느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어서 유지,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나, 말뭉치 용례가 없어서 현재도 사용되는 용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류 의견으로 처리하였다.
  - 특히 ‘동물’ 부분에서는 ‘~과, ~목’ 등의 표제어가 많은데, 네이버와 위키에는 이들이 맞춤법에 맞지 않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 예) ‘꼬리하루살잇과’, ‘깡충거밋과’, ‘꽃등엿과’ 등은 사이시옷이 있는 ‘꼬리하루살잇과’, ‘깡충거밋과’, ‘꽃등엿과’처럼 표기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네이버에는 ‘꼬리하루살이과’, ‘깡충거미과’로, 위키에는 ‘꽃등예과’로 각각 표기되어 있음.
- 이 외에 다수의 표제어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배포된 작업용 엑셀 파일에도 네이버 있

음, 네위 있음 등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나 위키에 있는 ‘꼬리하루살이과’, ‘깡충거미과’, ‘꽃등애과’ 등이 <표준>의 뜻풀이와 같다고 판단되면 표기는 다를지라도 네이버 있음, 위키 있음, 네위 있음과 같이 생각하고 유지 혹은 삭제 판단을 하였다.

### 3. 의견 사항

- 인용례와 작성례가 있는 경우 유지 의견 쪽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말뭉치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말뭉치가 0인 경우가 다수 있어 이 경우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우선은 보류 처리)
- 제가 맡은 전문 분야의 「동물」에서는 ‘X 동물명’과 같은 구성이 많이 보인다. 가령, ‘멧새’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예) 검은머리 노랑배멧새, 검은 멧새, 긴발톱 멧개, 노랑턱 멧새, 멧새, 붉은뺨 멧새, 쇠 붉은뺨 멧새, 슬푸라타 멧새, 흰머리 멧새, 흰 멧새, 흰배 멧새 등.

- 삭제 처리 표제어 기준 ‘세부 정보’에 따르면 위의 예에서 거의 대부분의 표제어가 삭제 처리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 분야에는 이러한 구성이 매우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삭제 처리하면 삭제되는 비율이 30%를 넘어 50%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X 동물명’ 구성에서 <표준>에 ‘동물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X 동물명’은 우선 ‘세부 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어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말뭉치 여부, 고빈도 저빈도 여부를 따져서 앞서 보인 1과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 2) 다만 ‘X 동물명’ 구성에서 <표준>에 ‘동물명’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부정보’ 처리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X 동물명’의 ‘X’에 하나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경우(관형사, 관형어, 명사 등 품사에 상관없이)에는 우선 잠정적으로 유지 처리 생각을 하고, 이런 예들 중 빈도가 0이거나, 저빈도인 것은 삭제 처리하였다. 반면에 이런 예들 중 고빈도인 경우에는 유지 처리하였다.

예) ‘놀래기’는 유지 처리, ‘어렁-놀래기(고대없음,네이버있음, 저말뭉치)’는 삭제 처리, ‘황-놀래기(네위 있음, 말뭉치 추정)’은 유지 처리

- 물론 이러한 방법도 형태소 분석의 관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우선 삭제하는 비율 3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한 방법인데 그래도 결과는 30%가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비율을 따지지 않고 지침 그대로 모두 삭제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지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건설」, 「공업」, 「군사」, 「복식」, 「철학」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고빈도’(‘고조선’, ‘고말뭉치’) 어휘의 경우에는 일괄 유지 처리하였다.
- ‘작성례있음’과 ‘인용례있음’ 어휘도 유지 처리하였다.
- 이하 ‘말뭉치0’ 혹은 ‘저말뭉치’ 어휘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고려대	네이버	위키	조선	추정 빈도 /저빈도	판정	비고
X	X	X	X	X	삭제	
X	X	X	X	O	보류	용례 확인
O	X	X	X	O	보류	용례 확인
O	O	X	X	O	유지	
O	X	O	X	O	유지	
O	X	X	O	O	유지	

- 계열 어휘일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계열 어휘에 준하여 처리함.

고려대	네이버	위키	조선	말뭉치0	판정	비고
O	X	X	X	O	삭제	

- 보조적인 기준으로 단어의 길이를 참고함. 다수의 어절로 이루어진 단어(ex. 공중^발사^순항^미사일)는 되도록 삭제함.
- 이외, 기준에 불합치하더라도 분류자의 직관을 따른 개별 사례들이 있음.

### 2. 2차 처리 사항

#### 2.1 건설 분야

-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반’, 편수자료에 나오는 용어를 ‘유지’로 분류하였다.
- 말뭉치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포털 검색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유지 처리하였다.
- 또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도구의 경우 쇼핑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다. 쇼핑 사이트의 제목은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위하여 다수의 단어를 한번에 나열하므로 특수한 용례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점을 반영하였다.
- ‘단청’ 분야의 용어들은 다른 분야의 건설 용어에 비해서 포털 노출이 적어 실제로 쓰이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주로 보류 처리하였다.

#### 2.2 복식 분야

-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반’, 편수자료에 나오는 용어를 ‘유지’로 분류하였다.

- 복식 분야에는 지금은 입지 않게 된 옛 의복에 관련한 단어들이 많다. 이 옛 의복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건설 분야에도 전통 건축에 대한 용어가 많지만, 한옥 건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 문화재 복원 및 건축에 대한 포털의 공개 자료가 보다 풍부한 점 등에 힘입어 자료의 접근성이 훨씬 좋다.) 빈도로 판단하자면 모두 제외해야 할 것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옛 의복과 관련된 내용은 보류 처리 후 조건을 명세하였다.

### 2.3 군사 분야

- 군의 편제 및 직책과 관련된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 예) - 00참모, 00장교, 00사령부, 00병, 00사단, 00부대 등 주로 사람과 관련된 것
- 탄약 등 무기, 혹은 무기 운용과 관련된 용어가 빈도가 낮을 경우, 보류 처리한 후 유지 권고
- 예) 00미사일, 00사격, 00탄 등
- 빈도가 발견되는 경우 유지 처리하였고, 말뚝치상 빈도가 0일 경우에는 '보류'처리 후 '군사적 의미가 있음'을 부여하였다.
- 제식훈련, 작전상황 등 군의 활동과 관련된 용어는 가급적 유지 처리
- 예) 받들어총, 기록사격 등

### 2.4 철학 분야

- 철학 분야도 일반어로 판단할 만한 용어가 많지 않다.
- 철학 분야의 전문어들은 길이가 긴, 구 구성의 전문어가 많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때에는 '철학사전' 등의 백과사전을 참고하였다. 백과사전상 표제어로 등록되어 문서가 있거나, 다른 표제어의 설명 문구 속에 일정 빈도 이상의 출현을 보일 경우 유지 처리하였다.

### 2.5 추가 처리 사항

- 일반어로 처리된 것 중 일반어로 보기 어려운 것을 '유지'판정하고 빨간색으로 명시함.
- 예) 갑문, 안전울타리 등
- 유지 처리된 것중 일반어로 볼 수 있는 것을 '일반' 처리하고 빨간색으로 명시함.
- 예) 스케일링하다, 토치
- 옛용어로 분류될 만한 어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삭제 처리함
- 예) 내무반, 내부반장 등
- 정보 부족 어휘를 삭제 처리함
- 예) 곧은-솔기: 곧게 난 솔기
- 지나치게 전문적인 어휘를 삭제 처리함
- 예) 감관표상, 구성-학파, 히포케이메논

## 『표준국어대사전』 「매체」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관명, 단체명, 신문명 등의 고유명사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관훈클럽, 국제방송기구, 국제신문발행인협회, 엔시엔에이, 국민신보’ 등

- 일상에서 사용되는 미디어 용어는 유지 처리하되, 지나치게 전문적인 매스미디어이론 관련 어휘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라인네트워크, 프리셀링, 정시간행물, 정보독점’ 등은 유지 처리

예) ‘커스텀커뮤니케이션, 침묵의 나선, 아이디어 원칙, 문화규범이론’ 등은 삭제 처리

- 인쇄, 조판 어휘는 대부분 유지 처리하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만 삭제 처리하였다.

예) ‘기계교정, 포인트활자, 윤전기, 명조활자’ 등은 유지 처리

예) ‘플록인쇄, 하프토닝, 묘화판’ 등은 삭제 처리

- 「예외 처리」 다음의 고유명사는 다음을 근거로 ‘유지’ 판정하였다.

예) ‘광문화’: 역사적 의의 있음, 고대 사전 등재됨, 네이버백과, 위키피디아 등재됨,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발견됨, 조선일보 한자어 일치 말뭉치에서도 고빈도로 발견됨.

예) ‘조선광문화’: 역사적 의의 있음, 고대 사전 등재됨, 네이버백과, 위키피디아 등재됨,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발견됨, 조선일보 한자어 일치 말뭉치에서도 고빈도로 발견됨.

예) ‘매일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 신문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음. 고대 사전 등재됨, 네이버백과, 위키피디아 등재됨,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발견됨, 조선일보 한자어 일치 말뭉치에서도 고빈도로 발견됨.

### 2. 2차 처리 사항

-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 ‘일반’으로 처리할 때 하나의 어휘가 ‘일반’으로 처리된다고 유사한 모든 어휘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어휘를 모두 ‘일반’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예) ‘각괄호, 고딕체, 개정판, 공익 광고’ 등은 ‘일반’ 처리

예) 일상적으로 널리 쓰인다고 판단되는 ‘공익 광고’는 ‘일반’ 처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공중 광고’는 일반 처리하지 않음.(유지 처리함)

- 쌍을 이루는 어휘들은 짝을 맞추어 삭제/유지/보류 처리하였다.

예) ‘○○윤전기’류는 일관되게 유지 처리함.(‘서적윤전기, 신문윤전기, 활판윤전기’ 등)

예) 인쇄 방식을 나타내는 ‘○○식체계’류는 일관되게 삭제 처리함.(‘고열식체계, 냉열식체계’ 등)

예) ‘흑손, 백손’은 일관되게 유지 처리함.

- 전문성이 높은 용어를 추가로 삭제하였다.

예) 다색^오목판^윤전기, 다색^요판^윤전^인쇄기

- 일관성을 고려하여 용어 퍼리를 조정하였다.

예) 인쇄용지(일반), 인쇄종이(일반), 인쇄지(일반), 편집후기(일반), 편집회의(일반)



## 『표준국어대사전』 「해양」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해양’ 부문에서 고유명사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유지 처리로 변경하였다.
  - 보류 처리 확대: ‘고대 없음, 네이버 있음/네위 있음, 말뚝치 0’ 등 어느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어서 유지,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나, 말뚝치 용례가 없어서 현재도 사용되는 용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류 의견으로 처리하였다.
  - 특히 ‘동물’ 부분에서는 ‘~과, ~목’ 등의 표제어가 많은데, 네이버와 위키에는 이들이 맞춤법에 맞지 않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 예) ‘꼬리하루살잇과’, ‘깡충거밋과’, ‘꽃등엿과’ 등은 사이시옷이 있는 ‘꼬리하루살잇과’, ‘깡충거밋과’, ‘꽃등엿과’처럼 표기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네이버에는 ‘꼬리하루살이과’, ‘깡충거미과’로, 위키에는 ‘꽃등예과’로 각각 표기되어 있음.
- 이 외에 다수의 표제어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배포된 작업용 엑셀 파일에도 네이버 있음, 네위 있음 등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나 위키에 있는 ‘꼬리하루살이과’, ‘깡충거미과’, ‘꽃등예과’ 등이 <표준>의 뜻풀이와 같다고 판단되면 표기는 다를지라도 네이버 있음, 위키 있음, 네위 있음과 같이 생각하고 유지 혹은 삭제 판단을 하였다.

### 3. 의견 사항

- 인용례와 작성례가 있는 경우 유지 의견 쪽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말뚝치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말뚝치가 0인 경우가 다수 있어 이 경우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우선은 보류 처리)
- 제가 맡은 전문 분야의 「동물」에서는 ‘X 동물명’과 같은 구성이 많이 보인다. 가령, ‘멧새’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예) 검은머리 노랑배멧새, 검은 멧새, 긴발톱 멧개, 노랑턱 멧새, 멧새, 붉은뺨 멧새, 쇠 붉은뺨 멧새, 술푸라타 멧새, 흰머리 멧새, 흰 멧새, 흰배 멧새 등.

- 삭제 처리 표제어 기준 ‘세부 정보’에 따르면 위의 예에서 거의 대부분의 표제어가 삭제 처리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 분야에는 이러한 구성이 매우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삭제 처리하면 삭제되는 비율이 30%를 넘어 50%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X 동물명’ 구성에서 <표준>에 ‘동물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X 동물명’은 우선 ‘세부 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어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말뚝치 여부, 고빈도 저빈도 여부를 따져서 앞서 보인 1과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 2) 다만 ‘X 동물명’ 구성에서 <표준>에 ‘동물명’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부정보’ 처리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X 동물명’의 ‘X’에 하나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경우(관형사, 관형어, 명사 등 품사에 상관없이)에는 우선 잠정적으로 유지 처리 생각을 하고, 이런 예들 중 빈도가 0이거나, 저빈도인 것은 삭제 처리하였다. 반면에 이런 예들 중 고빈도인 경우에는 유지 처리하였다.

예) ‘놀래기’는 유지 처리, ‘어랭-놀래기(고대없음,네이버있음, 저말뚝치)’는 삭제 처리, ‘황-놀래기(네위 있음, 말뚝치 추정)’은 유지 처리

- 물론 이러한 방법도 형태소 분석의 관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우선 삭제하는 비율 3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한 방법인데 그래도 결과는 30%가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비율을 따지지 않고 지침 그대로 모두 삭제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지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표준국어대사전』 「의학」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 검색 사이트(<http://term.kma.org/search>)를 참고하였다.
- 하나의 의학용어가 고유어 의학용어와 한자어/혼종어 의학용어 모두 있는 경우, 고대사전 등재 여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 목록 검색 결과와 말뭉치 용례의 유무를 확인하여 ‘일괄 삭제/일괄 유지/한쪽만 유지’를 판단해 처리하였다.
  - 예) ‘가로막’과 ‘횡격막’ 모두 유지 처리,
  - 예) ‘목얹이’와 ‘후두염’ 모두 유지 처리
  - 예) 용례 있고 의학용어사전에 있는 ‘신우염’은 유지하고, 용례가 없고 의학용어사전에도 없는 ‘갈때기염’은 삭제
- 고대사전에 없고, 말뭉치 용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네이버백과, 위키 등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어휘는 유의어가 유지 처리되었더라도 해당 어휘는 삭제 처리하였다.
  - 예) 의학용어사전에서 검색되고 말뭉치 용례가 발견되는 ‘노인치매, 노인성치매’는 유지 처리한 반면, 고대사전에도 없고 말뭉치 용례도 전혀 없으며 위키 등에도 실려 있지 않은 ‘노년성치매’는 삭제 처리함.
  - 예) 의학용어사전에서 검색되고 말뭉치 용례가 발견되는 ‘고산병’은 유지 처리한 반면, 고대사전에도 없고 말뭉치 용례도 전혀 없으며 위키 등에도 실려 있지 않은 ‘등산병’은 삭제 처리함.
- 쌍을 이루는 어휘들은 짝을 맞추어 일괄 삭제/유지/보류 처리하였다.
  - 예) ‘진해되다, 진해하다’ 동일하게 유지 처리
  - 예) ‘화농, 화농되다, 화농하다’ 동일하게 유지 처리
  - 예) ‘눈물샘염, 누선염’ 동일하게 유지 처리
  - 예) ‘○○게실’류 동일하게 유지 처리(‘게실, 식도게실, 심낭게실, 후두게실’)
  - 예) ‘○○헤르니아’류 동일하게 유지 처리(‘헤르니아, 감돈헤르니아, 횡격막헤르니아, 추간연골헤르니아, 추간원판헤르니아, 추간판헤르니아’)
  - 예) ‘○○기흉’류 동일하게 유지 처리(‘기흉, 농기흉, 수기흉, 수성기흉’)
  - 예) ‘○○구역’류 동일하게 유지 처리(‘미각구역, 시각구역, 청각구역, 연합구역, 허파구역’)
  - 예) ‘○○요법’류 동일하게 보류 처리(‘간요법, 개방요법, 겨울잠요법, 고주파요법’ 등)
  - 예) ‘안쪽들린흰발증, 가쪽들린흰발증’ 동일하게 삭제 처리

### 2. 2차 처리 사항

-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 ‘일반’으로 처리할 때 하나의 어휘가 ‘일반’으로 처리된다고 유사한 모든 어휘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어휘를 모두 ‘일반’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 예) ‘간, 각막, 간암, 간 이식, 감기, 건망증, 땀띠’ 등 ‘일반’ 처리
  - 예) 널리 쓰이는 ‘갱년기 우울증’은 ‘일반’ 처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갱년기 우울병’은 ‘일반’ 처리하지 않음(유지 처리함).
- 일반어와 전문용어의 판단을 다소 수정함.
  - 예) 간^생검: 일반어로 처리되어 있으나 전문용어로 보아 ‘유지’ 판정

- 예) 객혈, 객혈하다: 일반어로 처리되어 있으나 전문용어로 보아 ‘유지’ 판정
- 예) 동양의학: 널리 알려진 용어로 보아 ‘일반’ 판정, 서양의학의 처리(일반) 고려
- 예) 맹장염: 널리 알려진 용어로 보아 ‘일반’ 판정
- 예)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와의 계열을 고려하여 ‘유지’ 판정
- 예) 자궁외임신: 다소 전문성이 있다고 보아 ‘유지’ 처리
- 예) 히스테리: 널리 알려진 용어로 보아 ‘일반’ 처리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통신」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지나치게 전문적인 정보·통신 용어는 삭제 처리하였다.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 쌍을 이루는 어휘들은 짝을 맞추어 일괄 삭제 처리하거나 일괄 유지 처리하였다.

예) ‘에이엠방식, 에프엠방식’

예) ‘절대oo, 상대oo’

예) ‘동적oo, 정적oo’

예) ‘직접접근기억장치, 순차적접근기억장치’

예) ‘비시디, 이진화십진코드, 이진화십진표기법’

예) ‘능동소나, 액티브소나’

예) ‘도수제, 통화도수, 전화도수제’(유지), ‘도수계, 통화도수계’(삭제)

예) ‘디지털아날로그변환, 아날로그디지털변환’

- 고대사전에 없고, 말뭉치 용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네이버백과, 위키 등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어휘는 유의어가 유지 처리되었더라도 해당 어휘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유의어 중 ‘아날로그컴퓨터, 계량형컴퓨터, 아날로그계산기’는 유지 처리하고, 고대사전에 없고 말뭉치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위키 등에도 실려 있지 않은 ‘상사형컴퓨터’는 삭제 처리함.

### 2. 2차 처리 사항

-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예) ‘스마트폰, 착신 전환, 국제 요금, 발신 통화, 마우스, 검색창’ 등은 ‘일반’ 처리

- 기계 용어 중 지금 쓰이지 않는 기계의 용어의 경우 삭제하였다.

예) 타전-기, 무선^호출기

### 3. 검토 및 제언 사항

- ‘복조되다’는 ‘정보·통신’ 용어로, ‘복조하다’는 ‘전기·전자’ 용어로 되어 있어 동일한 어근의 두 어휘에 대한 일관된 처리를 위해서 ‘복조하다’의 처리의 확인이 필요함.
- ‘로터리 펌프’는 ‘정보·통신’ 용어가 아니라 ‘물리’ 용어가 아닌가 판단되므로 확인 필요.

## 『표준국어대사전』 「고유명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주요 처리 사항

- ‘고유명 일반’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수록 가치가 높은 표제어는 ‘검토정리’에 “유지”로 두고 ‘검토 의견’에 이유를 남겼다.

예) 인디언, 핼러윈, 노벨상 등

- 종족명, 민족명 등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00+-인(人), 00+-족(族), 00+겨레 등

- ‘00(의) 날’(<바다의 날> 등)로 풀이된 기념일은 “삭제”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토의견’에 ‘기념 일’이라 남겼다.<sup>16)</sup>
- 단, 기념일이면서 공휴일인 것만 “유지”로 두었다.

예) 부처님 오신 날(석가 탄신일, 석탄일), 어린이날

- 공원 등 시설물 이름, 각종 단체명, 대회명, 회사명, 기업명 등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디즈니랜드, 그린피스

- 다른 나라의 상징물의 이름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예) ) 라 마르세예즈(프랑스 국가(國歌) 명칭), 유니언잭(영국 국기 명칭)

### 2. 추가 및 제언 사항

-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홍인종> 등의 표제어는 일반어적 성격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인종’, ‘종족’, ‘민족’의 개념은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 ‘인종’으로 풀이된 표제어는 일단 보류로 보아, ‘검토정리’는 빈칸으로 두고 ‘검토의견’에 ‘인종’이라 남겼다(28개).

- ① ‘인종’으로 풀이된 부류는 모두 “유지”로 둬?
- ② ‘인종’ 중에서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홍인종>, <유색 인종> 등 피부색과 관련하여 이르는 표제어만 “유지”로 둬?
- ③ ‘종족’, ‘민족’과 마찬가지로 모두 삭제?

---

16) 국경일은 ‘고유명 일반’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표준국어대사전』 「재료」, 「수산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주로 <고대없음>, <말뭉치0>을 삭제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고 구 구성으로 보아도 이해에 무리가 없는 경우.

예) 내방사전^재료, 다시마 양식

☞ ‘검토정리’에 “삭제”로 처리하고 ‘검토의견’에 ‘구 구성’ 등으로 이유를 기록하였다.

- 저말뭉치인 경우, 해당 전문 영역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 예가 많았다.

예) 파쇄비

- 부류별로 검토하였을 때, 층위를 고려하여 너무 세부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불필요한 하위 표제어는 삭제하였다.

예) 걸그물, 당김그물 ☞ 유지 / 00걸그물, 00당김그물 ☞ 삭제

### 2. 2차 처리사항

- 전문성이 높은 용어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보상^반도체

- 일반어로 볼 수 있는 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예) 스틸, 문어^납시, 납싯-배, 양식^어업, 어선, 어장

### 3. 추가 및 제언 사항

- 다른 전문어영역 뜻갈래가 있는 표제어

예) <비탁법> ☞ 일단, “재료” 영역은 ‘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지”로 두고 ‘검토의견’을 남겼다.

- 영역 오류 의심되는 표제어

예) <안티코로나(『재료』 관측자가 산 정상에서 태양을 등지고 서 있을 때, 구름이나 안개에 비친 그림자 주위에 생기는 빛의 테.)> ☞ “빈칸”으로 두고 ‘검토의견’을 남겼다.

## 『표준국어대사전』 「지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주요 처리 사항

- ‘지명’은 삭제 원칙으로 하였다.
- 비유적인 의미가 있거나 관용구, 속담에서 쓰이거나 수록 가치가 있는 표제어는 ‘검토정리’에 “유지”로 남기고 ‘검토의견’에 이유를 기록하였다.
- 수록 가치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정리’를 빈칸으로 두고 ‘검토의견’에 이유를 기록하였다.
- ‘국가명’, ‘수도명’은 “유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 계열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서울>, <금강산> 등 일반어 뜻갈래가 더 있거나 <경상도> 등 다른 전문어 뜻갈래가 있는 표제어는 배분받은 목록에 없으나 간혹 남아있는 경우 빈칸으로 두었다.

### 2. 세부 처리 사항

- 공식적인 국가명과 널리 쓰이는 국가명을 ‘유지’로 두었다.

예)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브루나이 다루살람/브루나이, 과테말라 공화국/과테말라<sup>17)</sup>, 노르웨이 왕국/노르웨이, 모나코 공국/모나코

예) 미국,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명

☞ 공식 명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므로 “유지”로 둬.

예외) 상아<sup>△</sup>해안(象牙海岸)

☞ ‘코트디부아르’(영어명 아이보리코스트)의 기원에 해당하는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해 부르는 것인데, 국내에서 ‘코트디부아르’로 널리 사용하므로 삭제함.

- 현재 연방제인 곳의 명칭(예. 아메리카합중국)은 ‘유지’로 두었다.

예) 소련, 소비에트, 소비에트 동맹,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연방, 소연방, 에이에스에스아르, 유에스에스아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통일된 나라의 예전 국명은 삭제하였다. 단,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독>, <동독> 등은 “유지”로 둔다.

예)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 북예멘(예멘 아랍 공화국)

- <000>과 <000+국>이 같은말일 경우 후자는 삭제하였다.

예) 일본-일본국, 몽골-몽골국 ☞ 일본국, 몽골국 삭제

- ‘전 이름’, ‘옛 이름’은 삭제하였다.

17)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1-68쪽에 “○○공화국” 형태의 표제어는 ‘공화국’을 빼고 표제어로 올린다. ‘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등재어들은 “○○’의 공식 국가명”과 같이 풀이되어 있으므로 국명으로서 등재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대로 두었다. 메타언어가 쓰인 풀이 중에 ‘옛이름, 전이름’만 삭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 그루지야(‘조지아’의 전 이름)  그루지야 삭제

- 수도명은 “유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수도가 아닌 도시명은 “삭제” 처리 하였다.
-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수도명만 “유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헌법상의 수도와 행정상의 수도가 다른 경우 둘 다 인정하여 “유지”로 둔다.

예) 수크레(볼리비아의 헌법상 수도), 라파스(볼리비아의 행정상 수도)

- 없어진 왕조의 수도명 등은 삭제하였다.
- 현재 존재하는 수도명의 ‘전 이름’, “옛 이름”은 삭제하였다.
- 외국 지명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부류는 등재 가치가 있다고 보아 “유지”로 두었다.

- <오대양>과 그에 속하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sup>18)</sup>
- <육대주>와 그에 속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구주), <오세아니아>(대양주), <남아메리카>(남미), <북아메리카>(북미)
- 4대 문명 발상지인 <황허강>, <나일강>,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 위에 제시된 부류 이외에도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표제어들은 “유지”로 두고 ‘검토의견’에 이유를 기록하였다.

예) 에베레스트산 등

- 국내 지명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속담이나 관용구의 첫 어절로 쓰인 것은 “유지”로 두었다. 그 외 등재 가치가 있다고 보아 “유지”로 둔 부류는 다음과 같다.
- 행정 구역명은 ‘도’ 단위와 일부 ‘시’ 단위는 “유지”로 두고, ‘군’ 이하 단위는 삭제하였다.

- 1) 십사도에 해당하는 <00+도>와, 이와 같은말로 자주 쓰는 2음절 약어는 “유지”로 두었다.
  - 강원도1, 강원도2,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 강원, 경기, 경상, 경북, 경남, 전라, 전북, 전남, 제주, 충청, 충북, 충남, 평안, 평남, 평북, 함경, 함남, 함북, 황해, 해서

- 2) 두 개 이상의 ‘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제시된 표제어는 “유지”로 두었다.

-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sup>19)</sup>, 함경도, 하삼도, 호남, 호서, 영남, 영서, 영동, 삼남, 영호남, 기호

- 3) ‘시’ 단위는 다음의 8개 <00+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만 “유지”로 두었다.<sup>20)</sup>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18) <대서양>, <인도양>만 ‘지명’ 영역으로 분류되어 목록에 있음. <오대양>, <태평양>, <남빙양>, <북빙양>은 ‘해양’으로 되어있어 배분목록에 없음.

19) <평안>, <평안도>, <전라>, <전라도>, <경상>, <경상도>는 배분목록에 없음(역사 전문어 뜻갈래가 더 있어서인 것으로 보임).

20) <서울>은 수도명으로 “유지”에 해당할 것이나 배분목록에 없음(일반어 뜻갈래가 더 있음).

4) ‘섬’[島]은 삭제 원칙으로 하되 큰 섬 5개는 “유지”로 두었다.

○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5) 주요 산과 강은 다음의 표제어만 “유지”로 두었다. 산은 이름난 다섯 산(오악)과 높은 산 5개를, 강은 긴 강 5개를 일단 “유지”로 두었다.

○ 오악(五岳): 금강산<sup>21)</sup>, 묘향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

○ 한반도의 높은 산 (높이5위까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 한반도의 주요 강 (길이5위까지):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 위에 제시된 부류 이외에도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표제어들은 “유지”로 두고 ‘검토의견’에 이유를 기록하였다.

예) 독도, 마라도, 울릉도, 천지, 백록담 등

- 높은 빈도로 나타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제하였다.

예) 개마고원, 대관령, 태백산맥

### 3. 추가 및 제언 사항

-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괄호 안은 중심도시 혹은 수도)

예) 티베트(라싸), 대만/타이완(타이베이), 스코틀랜드(에든버러), 홍콩 등

☞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삭제 처리하게 됨. 일단 ‘검토정리’를 빈칸으로 두고 ‘검토의견’에 ‘정치적문제’라 기록함.

- 현재 변경 추진 중인 국명, 수도명은 추후 확인하여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 터키, 튀르키예 ☞ ‘튀르키예’는 표대웹에서 확인되나 배분받은 목록에 없음.

방콕, 끄룽텝 마하나콘 ☞ ‘끄룽텝 마하나콘’은 목록에 없음.

‘끄룽텝’은 일단 ‘검토정리’를 빈칸으로 둠.

키예프, 키이우 ☞ 둘 다 “유지”로 둠.

- 일반어나 다른 전문어 뜻갈래가 있어 목록에 없는 <지명> 전문어들은 추후 따로 검토하여 해당 <지명> 뜻갈래의 삭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1) <금강산>은 배분목록에 없음(일반어 뜻갈래가 더 있음).

## 『표준국어대사전』 「책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주요 처리 사항

- 책명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등재가치가 높은 것은 “유지”로 둔다.
- 동양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 단, 널리 쓰이는 것은 예외적으로 “유지”로 둔다.

예) ‘사서오경’에 해당하는 책: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역경), 예기, 춘추  
‘삼례’에 해당하는 책: 의례, 예기, 주례  
기타: 소학

- 동의어가 여러 개인 경우 자주 쓰이는 것만 “유지”로 두었다.

예) <서경> (=상서, 서), <시경> (= 시), <역경=주역> (= 역), <예기> (=예)

- 서양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 단, 널리 쓰이는 것은 예외적으로 “유지”로 둔다.

예) 기네스북, 아라비안나이트, 탈무드, 동방견문록, 군주론 등

- 우리나라 고전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빈도와 <편수자료> 등을 참조하여 중학교 수준에서 알 만한 것들만 “유지”로 둔다.

예) 균여전, 금오신화, 명심보감, 삼국사기, 삼국유사...

- <조선왕조실록>, <이조실록><sup>22)</sup>만 “유지”로 두면 된다고 판단하여 각 왕의 실록은 삭제하였다.

예) 효종실록, 현종실록 등 ㉠ 삭제

- 개인 문집 등은 삭제하였다.

예) 사가정집, 매월당집

- 구체적인 책명이 아닌 것은 ‘유지’

예) 도경, 만성보, 운서, 앤솔러지, 초12, 학안, 훈요십조

### 2. 추가 및 제언 사항

- 등재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편수자료>에 있으나 등재가치가 적어 보이는 표제

---

22) <조선왕조실록>, <이조실록>은 역사 전문어로, 배분받은 목록에 없음.

어들도 많다(<병장도설> 등). 일부만 남길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 처리된 것들도 더 삭제하여 최소한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경04, 이전04’는 다른 계열어들의 처리를 확인해야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식물」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해당 용어를 판정하는 기준은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말뭉치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용어는 모두 삭제 처리하였다.
- 병명, 식물의 기관명, 식물의 부류, 식물의 생장현상, 학문명, 식물 재배 관련 용어는 일괄 유지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식물구’와 ‘식물구계’ 역시 계열어 내 일관성을 위해 일괄 ‘유지’로 처리하였다.

예) 구열대^식물구, 북극^아북극^식물구, 온대^식물구, 지중해^식물구

예) 구열대^식물구계, 동아^식물구계, 북아메리카^동안^식물구계, 북아메리카^서안^식물구계, 중앙아시아^식물구계, 지중해^연안^식물구계, 한 대^식물구계

- 동일한 접사나 어근을 공유하는 어휘족 중 ‘일반’으로 처리할 만한 항목이 있는 경우, 계열어 내 일관성을 위해 다른 항목들도 모두 동일하게 ‘일반’으로 처리하였다.

예) 겨우-살이(02), 겨우살이-나무, 겨우살이-덩굴 -> ‘일반’ (‘겨우살잇-과’는 6의 이유로 ‘유지’로 처리)

여러해-살이, 여러해살이-뿌리, 여러해살이^식물, 여러해살이-풀 -> ‘일반’

두해-살이, 두해살이-뿌리, 두해살이^식물, 두해살이-풀 -> ‘일반’

한해-살이, 한해살이-뿌리, 한해살이^식물, 한해살이-풀 -> ‘일반’

- 일반어로 볼 수 있는 식물의 속명은 ‘일반’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속명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상위 부류명은 전문어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 또는 ‘삭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 국화(05)        ‘일반’

국화-과        ‘유지’

단풍나무        ‘일반’

단풍나뭇-과    ‘유지’

- 편수 자료에 있는 용어는 ‘유지’로 일괄 처리하였다.

예) 지상식물, 응집력설 등

## 『표준국어대사전』 「천문」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고유명사로서 별자리명, 은하계명, 학문명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일부는 고려대 사전에 없고 말뚝치에서도 저빈도 쓰임을 보였지만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예) 은하, 음력(02), 일식, 인공-위성, 별-자리

- 계열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고유명사들도 일단 모두 포함시켰다.
- 위성 종류 역시 현재에도 사용되는 위성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는 유지하였다.

예) 기술 시험 위성, 지구 물리 관측 위성 등

### 2. 2차 처리 사항

- 별자리명은 대부분 ‘유지’로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말뚝치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별자리명은 ‘일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물고기-자리, 물병-자리, 방패-자리, 백조-자리, 사수-자리,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왕관-자리 등

- 계열어 내의 일관성을 위해 일괄 다음과 같이 동일 어근을 공유하면서 의미가 같은 항목들은 모두 함께 처리하였다.

예) 북두(03), 북두-성 -> ‘일반’

사수-궁, 사수-자리, 사수-좌 -> ‘일반’

- 천문대 이름, 위성 이름, 로켓 이름은 고유명사로 ‘삭제’로 처리하였다. 단,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서 특정한 기능이나 특징을 갖는 천문대, 위성, 로켓의 종류를 나타내는 항목은 ‘유지’로 판단하였다.

예) 그리니치^천문대, 마우나케아^천문대, 월슨산^천문대, 켈렌축스카야^천문대, 조드렐^뱅크^천문대, 치첸이트사^천문대, 팔로마산^천문대 → ‘삭제’

우주-천문대 → ‘유지’

(단, ‘릭^천문대’, ‘여키스^천문대’, 의 경우 편수자료에 있어서 ‘유지/보류’로 처리하였다.)

예2) 노아^위성, 폴로트^위성, 프로톤^위성, 갈릴레이^위성 → ‘삭제’

과학^위성, 극^위성, 지구^위성, 기술^시험^위성, 지구^물리^관측^위성 등 → ‘유지’

예3) 아리안^로켓 → ‘삭제’

다단식^로켓, 스핀^로켓, 역추진^로켓, 제어용^로켓 → ‘유지’

- 편수 자료에 있는 용어는 ‘유지’로 일괄 처리하였다.

## 『표준국어대사전』 「산업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 ‘말뭉치0’이거나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삭제 판정하였다

예) 공업용^텔레비전, 노동^집약형^산업(이상 말뭉치0), 고도^조립^산업, 산업^안전^색채

- 고유명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고빈도 고유명은 유지하였다.

예)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유에스에이에스아이’ 등은 삭제, ‘만국^박람회’는 남김.

### 2. 2차 처리 사항

- 잘 안 쓰이는 용어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기제품

## 『표준국어대사전』 「언어」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 ‘말뭉치0’이거나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삭제 판정하였다. 다만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어이면 유지 판정하였다.

예) 가름-씨끝, 가운데^홀소리(이상 말뭉치0), 가림^도움토, 간접^담화(이상 고대없음/말뭉치0) 등은 모두 삭제 판정함.

예) ‘ㄷ^불규칙^활용, ㅅ^불규칙^활용’은 말뭉치0이지만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어이므로 유지 판정함.

- 언어명이나 문자명은 고유명의 성격이 강하므로 삭제 판정하였다. 다만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언어명은 유지 판정하였다.

예) ‘가나안-어, 고지^독일어, 브라흐미^문자’ 등은 삭제하고 ‘고구려-어, 영어, 알파벳’ 등은 유지함.

- 다수의 동의어가 표제어로 실려 있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성이 높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판정하였다.

예) ‘국제^음성^기호, 국제^음성^문자, 국제^음성^자모, 국제^음성학^기호’ 중에 ‘국제^음성^기호’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판정함.

예) ‘굴곡-어, 굴곡^어미, 굴절^접사’ 중에 ‘굴절^접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판정함.

- 일부의 표제어는 저빈도어라고 하더라도 계열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지 판정하였다.

예) ‘복합^관형사, 복합^부사, 복합^형용사’ 등은 저빈도어이지만 계열어인 ‘복합^명사, 복합^동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지 판정함.

### 2. 2차 처리 사항

- 자모는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ㄱ, ㄴ 등

-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는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훈민정음, 훈민정음언해

- 어문규정과 관련된 어휘들도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등



- 우리말과 관련된 어휘들도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한국어, 한국말 등

## 『표준국어대사전』 「임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 ‘말뭉치0’이거나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삭제 판정하였다.

예) 가려-베기, 동갑-숲(이상 말뭉치0), 고목^한계, 논밭^보호림 등

- 유지 판정을 받은 고빈도의 계열어의 짝이 되는 저빈도 계열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고민스럽다.

예) 유지 판정을 받은 고빈도의 계열어의 짝이 되는 저빈도 계열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움.

### 2. 2차 처리 사항

- 잘 알려진 어휘는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피톤치드, 관상목, 관상수, 활엽수림, 침엽수림

- 산림과 관련된 어휘는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산림개발, 산림과학, 산림자원, 산림조합 등

- 판단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보류 표시하였다.

예) 목재화학 등(판단하기 어려움. 'X^화학'류 단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해야함)

## 『표준국어대사전』 「인문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기본적으로 ‘말뭉치0’이거나 ‘고대없음/말뭉치0’인 경우 삭제 판정하였다.

예) 내재-비판, 아이러니의 개념 등

- 고유명은 원칙적으로 삭제하였다.

예) 아이시오엠, 에라스무스-상, 학술원-상

### 2. 2차 처리 사항

- 잘 알려진 어휘는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인문과학

- 잘 알려진 행사명은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독서주간

## 『표준국어대사전』 「가톨릭」, 「기독교」, 「불교」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가톨릭」, 「기독교」, 「불교」의 고유명사인 경우 삭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 ① 인명(가공인물, 신 등 포함)
- ② 지명
- ③ 책명(작품명 포함)
- ④ 건물명
- ⑤ 기관명, 단체명

- 인명의 경우, ‘예수’, ‘부처’의 제자 및 보살 등의 인명은 고유명사로 삭제 처리하였다.

예) ‘염라대왕/염라왕/염마/...’, ‘사탄/사단/루시퍼/...’ 등도 고유명사로 삭제 처리

예) ‘예수/그리스도/...’, ‘부처/석가모니/붓다/...’ 등 종교 개창자의 고유명 처리 문제

(달리 이르는, 높여 이르는, ...)

→ 본 작업에서는 판단 유보

- 책명의 경우, 다수의 ‘종교 경전’은 고유명사로 삭제 처리하였다. ‘경문’, ‘계송’, ‘찬송가’, ‘편지’ 등도 고유명사로 삭제 처리하였다.

예) 마태 수난곡, 미사 솔렘니스, 메시아, 글로리아, 테 데움, 베네딕투스, ...

예) ‘셀라(Selah)’, ‘알렐루야(alleluia)/할렐루야(hallelujah)’, ‘호산나(hosanna)’, ‘옴마니밧메흠(om mani padme hūm)’ 등 특정문구, 특정표현에 대한 처리 문제

→ 본 작업에서는 판단 유보

- 기관명, 단체명의 경우, 종교의 분파 처리 문제가 있었다. 본 작업에서는 하위 기관으로 판단하고 고유명사로 삭제 처리하였다.

예) -교, -종, -파, -산문, -교회, ...

- 기타 고려 사항

#### ① 특정 기념일

예) 석가탄신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 초파일/파일/팔일장/..., 성탄제/기독교 강탄절/기독교 강탄제/..., 고난절/예수 수난 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 외 ‘-재일, -축일, -절, -도량, -법회’ 등의 특정 기념일

→ 본 작업에서는 우선 기념일로 삭제 처리하였다.

#### ② 특정 사건

예) 교회 분열, 대이교, 데보티오 모데르나, 일승홍선, 백자법회, 사십 구 년 설, ...

‘콘스탄츠 종교 회의’와 같은 일시적 행사

‘구교도 자유 법안’과 같은 종교 관련 법률/법안 처리 문제  
→ 본 작업에서는 삭제 처리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계열어의 고유 명사 처리 문제: 계열어 중 고유명사는 계열어의 일괄 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예) X신학(기독교) 계열어: ‘경험신학, 계시신학, 계약신학’ 등등의 연구 영역으로서 일반어로 판정한 계열어들은 유지 대상 계열어로 판단했으나 ‘자유신학, 조정신학’ 등 특정 유파로서의 고유명사로 판단하고 삭제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 기타: 남녀 계열어의 뜻풀이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 근사남

「1」『불교』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우바새.

「2」『불교』 불교를 믿는 남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바새.

근사녀

「1」『불교』 불교를 믿고 삼귀(三歸), 오계(五戒)를 받은 세속의 여자. =우바니.

「2」『불교』 불교를 믿는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바니.

근책남 :

『불교』 십계(十戒)를 받고 구족계(具足戒)를 받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어린 남자 승려. =사미.

근책녀

『불교』 출가하여 머리를 깎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수행이 미숙한 어린 여자 승려.  
=사미니.

- 종교명은 일반어에 가깝다고 보고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가톨릭, 가톨릭교, 가톨릭교도, 가톨릭교회, 천주교, 천주교도, 천주교인, 천주교회 등

- 종교 종사자(직업명)는 일반어에 가깝다고 보고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교황, 수녀, 신부, 스님

- 주요 기념일(예: 크리스마스 등)은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 『표준국어대사전』 「물리」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말뭉치 0’의 경우 대부분 삭제하였다.

- 다만 ‘상품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 가이거 뿔러 계수기: ‘상품명’으로 다수 존재하여 말뭉치 상으로는 ‘0’이었으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지’ 처리하였다.

예) ‘단일지향성마이크’도 상품명으로 다수 존재하여 말뭉치 상으로는 0이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지 처리하였다.

- 조사 ‘의’에 따른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류 처리하였다.

예) 표준의 등재어인 푸아송비는 네이버에 없으나, 푸아송의 비는 네이버에 있음.

예) 표준의 등재어인 오스트발트의점도계는 네이버에 없으나, 오스트발트점도계는 네이버에 있음.

예) 파브리페로간접계

-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류 처리하였다.

예) 표준의 등재어인 판트호프법칙은 네이버에 없으나, 반트호프법칙은 네이버에 있음

- 나무위키에 등재된 용어에 대한 처리: 보류로 처리함.

예) 엠케이에스단위, 진동학 등

- 인용례/작성례가 있으면 유지 처리하였다.

- ‘말뭉치 0’이나 네이버 검색시 네이버 지식백과에 출현하는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 ‘말뭉치 0’이어도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는 모두 유지 처리하였다.

- 삭제 대상 용어라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고빈도 어휘 중 일반어를 골라내어 처리함. 빈도, 친숙성, 직관 등을 고려함.

예) 고주파, 관성, 광속 등 202개

- 계열 관계를 고려하여 어휘를 판단하였다.

예)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고려한 어휘 판단

예) 질량에너지: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참고하여 어휘 판단

- 전문성이 높은 어휘는 ‘보류’ 판단하였다.

예) 가상일의^원리

- 정보가 부족한 어휘 또한 ‘보류’ 판단하였다.

예) 동종^입자

-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 또한 보류 처리하였다.

예) 떨림수: 주파수와 의미가 동일하여 보류 처리함.

## 『표준국어대사전』 「음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말뭉치 0’의 경우 대부분 삭제하였다.

- 다음의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①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채밥’: 선소리꾼을 낮잡아 이르는 말

② 속되게 이르는 말

예) 깡깡이 등

③ ‘다른 이름’, ‘달리 이르는 말?’

예) 가락가리, 낙수조 등

④ 원말, 원래 이름

예) 피아노포르테, 수법고

⑤ 편수자료와 표준이 다른 경우

예) 굴배타령(편수자료에서는 굴베타령)

예) 둥가타령(편수자료에서는 둥개타령)

예) 마르가토(편수자료에서는 마르카토)

예) 엇룽(편수자료에서는 언룽)

예) 흥부가(편수자료에서는 흥보가)

⑥ 네이버와 표준이 다른 경우

예) 시금새(네이버에서는 시김새)

- 음악에서는 고유명사로 볼 만한 것들이 다수 존재함(악곡, 음악가 등). 이들 중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대상(베토벤, 슈베르트의 작품들,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등)에 대해서는 유지 판정하였다.

- 나머지는 ‘보류’ 판정하였다.

예) 그래미상, 기명(06), 눈죽조, 카네기홀 등

- 단 고유 명사 중 빈도수가 ‘0’인 경우는 삭제 처리하였다.

예) 군대 플로네즈

### 2. 2차 처리 사항

- 고빈도 어휘 중 일반어를 골라내어 처리함. 빈도, 친숙성, 직관 등을 고려하였다.

예) 가곡, 가야금, 나팔, 록, 멜로디 등

- 계열관계를 고려하여 어휘를 정비하였다.

예) 겹내림: 겹올림의 결과 판단 참고

예) 여성중창: 남성중창의 결과 판단 참고

예) 팀파니스트: 팀파니 고려

예)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고려한 어휘 판단

예) 질량에너지: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참고하여 어휘 판단



- 현재 전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 보류 처리하였다.

예) 간인(03)

-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음악 작품들에 대해 보류 처리하였다.

예) 딕시랜드 재즈, 모테토, 전람회의 그림, 터키 행진곡

- 잘 알려진 작품명에 대한 다른 이름인 경우에 대해 보류 처리하였다

예) 월광곡(월광소나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표준국어대사전』 「공예」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도자기 관련 표제어

예) 도자기 굽는 과정 관련 표제어: 뜻풀이에 ‘자기’가 포함된 표제어별로 작업

예) 유약 관련 표제어

예) 가마 장소 관련 표제어: 토기의 무늬 관련 표제어(‘-무늬’ 포함 표제어): 네이버에 ‘-무늬토기’로 ‘토기’와 결합하여 검색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

- 바느질: ‘-뜨기’ 포함 표제어/ ‘-매듭’ 포함 표제어: 네이버 검색 결과 또는 유튜브 영상에 5개 이상 노출되면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로 보임’으로 판단하였다.

- ‘-관자’, ‘-옥’ ‘-고리’ 포함 표제어: 네이버 지식백과 e뮤지엄 검색 결과를 참고하였다.

- 삭제 처리 기준: 1차(고말뭉치(저조선 제외)), 2차(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제외)) 3차(말뭉치 추정)

### 2. 2차 처리 사항

####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공학 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1. 1차 처리 사항

- 특이사항

1) ‘공학’ 포함 표제어 삭제 처리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말뭉치/조선	처리	비고
‘공학’ 포함 표제어	공학(01)	고/고	유지	상위표제어
	=메커트로닉스	1/66/0	유지	
	극저온공학	1	삭제	
	냉동공학	1/14/4	■	
	농업시설공학	1	삭제	
	단백질공학	2/12	■	
	석유공학	57/2	■	
	수리공학	35	삭제	
	시스템공학	38/1475/0	유지	
	=시스템엔지니어링	1/458	■	
	=에스이(SE)	86/482	삭제	
	신자기공학	0	■	
	=뉴매그네틱스	0	삭제	
	유층공학	0	삭제	
	의용전자공학	5	■	
	인간공학	21/462/43	■	
	=에이치이(HE)	8/65/0	삭제	
	저온공학	2	삭제	
	조명공학	2	삭제	
	조종공학	0	삭제	
	지식공학	1/17/0	삭제	
	초저온공학	0	삭제	
	펄프공학	0	삭제	
	화상공학	0	삭제	
	화학공학	고/18	유지	
	환경공학	고/고	유지	

2) 기타 -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표제어 수 많지 않음)

- ‘응력’ 포함 표제어

- ‘하중’ 포함 표제어

- ‘투영’ 포함 표제어

- 삭제 처리 기준

1) 1차 삭제 기준 - ‘말뭉치0, ’저말뭉치‘

2) 2차 삭제 기준 - ‘말뭉치추정(고조선 제외)’

3) 3차 삭제 기준: 나머지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광업」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지역명이 붙는 ‘탄광’/‘탄전’ 포함 표제어를 삭제하였다.
- 물리·화학 분야 표제어 다수를 삭제하였다.
- ‘-석’/‘-암’ 표제어: 층위 상관없이 편수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고말뭉치(저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말뭉치0, 저말뭉치
- 3) 3차 삭제 기준: 말뭉치추정

### 2. 2차 처리 사항

####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교육」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일반인에게도 이해되는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가 다수였다.
- 조선일보한자출현빈도 알 수 없는 표제어 표시하지 않았다.
- **계열어로 보이는 표제어 다수였다**(예: 교수법 관련 표제어/학습법 관련 표제어/목적에 따른 학교 관련 표제어/학교 제도 관련 표제어 등).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처리	비고
필기시험 문제 형식 관련 표제어	논문형	유지	고말뭉치
	단답형	유지	
	배합형	유지	
	사지선다	유지	
	사지선다형	유지	
	선다형	유지	저말뭉치
	오엑스문제	유지	
	오지선다	유지	고말뭉치
	오지선다형	유지	
	완결형	유지	
	진위형	유지	
시험 방식 관련 표제어	구두시문	삭제	15/1/323
	구두시험	유지	46/217/228
	구술시험	유지	49/575/165
	다양선택법	삭제	말뭉치0
	다지선택법	■	
	다항선택법	■	
	선택지	유지	고말뭉치
‘교육학’ 포함 표제어	가치교육학	삭제	0
	문화교육학	유지	6/5
	비교교육학	유지	19/323/8
	비판적교육학	삭제	0
	사회적교육학	삭제	0
	생물학적교육학	삭제	0
	실용주의교육학	■	0
	실험교육학	삭제	0/3
	학교교육학	삭제	1/0
‘교재’ 포함 표제어	교육교재	유지	8/326/4
	교재(01)	유지	교/교
	교재영화	삭제	1/3/0
	시청각교재	유지	15/36/16
	실물교재	■	0
	직관교재	삭제	0
‘단원’ 포함 표제어	경험단원	■	13/0
	교과단원	유지	20/0
	교재단원	삭제	8/2
	단원학습	유지	20/22
	대단원(01)	유지	3497/0

	문제단원	■	4/0
	생활단원	■	3/0
	자료단원	■	28/0
	작업단원	삭제	7/4
	중단원	유지	86/0
	학습단원	유지	98/2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고말뭉치(저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말뭉치0(저조선 제외)
- 3) 3차 삭제 기준: 나머지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기계」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물리학의 원론적인 개념 용어가 다수였다.

예) 분자론/분자부피/신입자/원자단위/원자설/원자시 등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처리	비고
비행기 날개 관련 표제어	고정익	유지	
	꼬리날개	유지	
	미익	유지	
	도움날개	삭제	
	보조날개	유지	
	보조익	삭제	
	델타날개	삭제	
	보조회전날개	삭제	
	삼각익	삭제	
	삼차원날개	삭제	
	상익	삭제	
	수직꼬리날개	유지	
	수직미익	삭제	
	수평꼬리날개	유지	
	수평미익	삭제	
	슬롯날개	삭제	
	주익	유지	
	중양익	삭제	
	초음속날개	삭제	
	터빈날개	삭제	
	티형꼬리날개	삭제	
	티형미익	삭제	
	회전날개	유지	
	회전익	유지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고말뭉치(저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제외)
- 3) 3차 삭제 기준: 나머지

###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수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1. 1차 처리 사항

- 분야 특성상 ‘음악 - 가곡’만큼 유명하지 않은 표제어도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로 분류하였다.
- 주요 주제 표제어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말뭉치/조선	처리	비고/검토의견
‘바이러스’ 포함 표제어	곤충바이러스	3/0	■	‘동물바이러스’와 같은 층위
	껍질보유바이러스	0	삭제	
	담바이러스성관절염	0	삭제	
	동물바이러스	7/0	■	‘곤충바이러스’와 같은 층위
	레오바이러스	5/0	삭제	
	로타바이러스	고/고	■	
	아르보바이러스	7/0	삭제	절지동물 관련
	장내바이러스(02)	1/0	삭제	‘로타바이러스’와 관련/상위
	폴리오마바이러스	3/0	삭제	쥐 관련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말뭉치/조선	처리	비고/검토의견
난할 과정 / 발생 과정 관련 표제어	간충직	■		
	간충직세포	삭제		
	난할면	■		
	난황주머니	■		
	낭배	■		
	낭배기	유지		
	내배엽	유지		
	뇌포	삭제		
	미아배기	삭제		
	발안기	삭제		
	상실배	■		
	성적양능성	삭제		
	신경배	■		
	신경판	■		
	안병(02)	삭제		
	오줌주머니	삭제		
	외배엽	유지		
	요낭	삭제		
	원구	■		
	원장(06)	삭제		
	위할	■		
	장체강	삭제		

	조정란	삭제		
	진체강	■		
	팔세포기	■		나머지 과정 관련 표제어가 없음
	포배기	유지		‘포배’ 없음
	플라코드	삭제		
	형성체	■		

- 병 관련 표제어

대상	표제어 예
가금류, 닭	가금콜레라: 가금류 전염병 계두(01): 닭 전염병 금두: 닭 전염병 뉴캐슬병: 닭 전염병 닭바이러스성관절염: 닭 닭백혈병: 닭 닭전염성기관지염: 닭 전염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 전염병 닭티푸스: 닭 전염병 닭페스트: 닭 전염병 마레크병: 닭 전염병 시아르디: 조류 병 신경림프종증: 닭 증후군 조류독감: 닭 전염병 =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말·개·소·양 등)	가성피저: 말 전염병 간질병(01): 가축 병 =간질증 개홍역: 개 전염병 골연증: 가축 병 광우병: 소 병 괴사간균병: 가축 구두충병: 가축 구제역: 가축 전염병 구진: (소·말) 병 균종: 가축 병 기종저: 가축 전염병 말전염성빈혈: 말 전염병 돈단독: 돼지 전염병 돈역: 돼지 전염병

	<p>돈콜레라          =돼지콜레라: 돼지 전염병          돼지돌림병: 돼지 전염병          =돈역          돼지단독: 돼지 전염병          돼지마마: 돼지 전염병          돼지수포성발진: 돼지 전염병          돼지페스트: 돼지 전염병          발란티덤병: 돼지 병          =섬모충병          보르나병: 가축 전염병          비루: 가축 병          세균성농증: 가축 전염병          소악성카타르열: (소) 전염병          스크래피: 양 병          신충증: 돼지 병          심수병: 전염병          아나플라스마병: (소) 전염병          아스페르길루스병: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돈콜레라: 돼지 전염병          악성수종: 가축 전염병          안충증: (주로 소) 병          양두: 양 병          염소마마: (양) 전염병          요마비: 전염병          우역: 소 전염병          =우질          우폐역: 소 전염병          위충증: 가축 병          자귀: 가축 병          자반열: (오직) 말 전염병          전염성개간염: 개 전염병          전염성빈혈: 가축 병          전염성유두종: 토끼 전염병          전염성유산: 가축 병          전염성점액종: 토끼 전염병          전염성회저성간염: 양 병          진주병: (소) 병          =소결핵          창상성심낭염: 가축 병          창상성위염: 가축 병</p>
--	--

	<p>           콕시듐: 가축 전염병            토끼매독: 토끼 전염병            파라결핵: 가축 전염병            =요네병            폐역: 소 전염병            폐충병: 가축 병            피로플라스마병: 가축 병            하선(04): 말 병            흑설병: 개 병         </p> <p>           ※ 관련 용어(병원균)            개구충            개심장사상충            개회충            돈역균            위충            탄저균            페스트균         </p>
반추동물	<p>           추위염: 반추동물 병            고창: 반추동물 병            가스병: 물고기 병            =거품병            =기포병            닳벌레증: 물고기 병            등여임병: 잉어 병            만곡증: 물고기 병            세균성백운병: 물고기 병            솔방울병: 민물고기 병            아가미썩는병: 민물고기 병            =원주균병            적반병: 잉어 병            적점병: 뱀장어 병            점액포자충증: 물고기 병            지느러미부식병: 민물고기 병         </p> <p>           ※ 관련 용어(병원균)            물고기이_관련용어            아가미흡충_관련용어         </p>
어류	
곤충 (누에·벌 등)	<p>           경화병: 곤충 병            꿀벌마비병: 벌            부저병: 벌         </p>

	갈강병: 누에 전염병 =갈색굳음병 공두병: 누에 병 기축병: 누에 병 누름병: 누에 전염병 =누에고름병 =고름병 =농병(02) 누엣병: 누에 병 = 잠병(02) 백강병: 누에 병 연화병: 누에 병 =무름병 오월병: 벌 병 작잠선충병: 누에 병 잔아릿병: 누에 전염병 =잔알병 =미립자병 졸도병: 누에 병 핵다각체병: 누에 병 향저병: 누에 병  ※ 관련 용어(병원균) 뜯뽕 미립자병원충
--	---

- 폐사 포함 뜻풀이를 가진 표제어는 유지하였다.
- 편수자료에 있는 표제어는 유지하였다.
- 고말뭉치 또는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로 보이는 표제어는 유지하였다.

####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나머지

##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

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다른 <전염병> 포함 표제어는 삭제 처리해도 <가축전염병>은 '일반' <가축법정전염병>은 보류하였다.
- 병명 모두 <병> 계열어로 보아야 하는지, 동물에 따른 병명들을 계열어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하였다.
- 최대한 동물에 따른 병명들을 계열어로 보고 처리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식품」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처리	비고
'우유' 포함/관련 표제어	균질우유	■	
	균질유	삭제	
	등질우유	삭제	
	멸균우유	유지	
	멸균유	삭제	
	살균우유	■	
	살균유	삭제	
	엘엘우유	삭제	체계를 고려하여 삭제 또는 유지
	환원우유	■	
'효모' 포함/관련 표제어	발효유	■	
	맥주뜸팡이	삭제	
	맥주효모균	■	
	압착효모	■	
	제빵효모	■	
'건조' · '건조법' 관련 표제어	포도주효모	■	
	감압건조법	삭제	
	고온건조법	■	
	일광건조법	■	
'훈제' 관련 표제어	진공동결건조야채	■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이나, 다른 표제어들과 층위가 다름
	그슬기	삭제	
	냉훈법	삭제	
	액훈법	삭제	
	온훈하다	삭제	다른 표제어들과 층위 및 품사가 다름
	열훈법	삭제	
	전훈법	삭제	

####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말뭉치0
- 2) 2차 삭제 기준: 저말뭉치

### 2. 2차 처리 사항

####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약학」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1. 1차 처리 사항

-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빈도나 내용도 고려하여 작업하였다.
- 주요 주제 표제어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처리	말뭉치	비고
‘백신’ 포함/관련 표제어	경구백신	■	9	
	내복백신	삭제	0	
	다가백신	삭제	9	
	독성약화백신	삭제	0	
	디피티	유지	4/22	디프테리아
	마진백신	삭제	0	
	홍역백신	■	37	
	백신(02)	유지	고	
	비시지	■	2/20	
	비활성화백신	삭제	0	
	사멸백신	■	1	‘생균백신’ ‘생백신’과 체계를 이루는 표제어
	삼중혼합백신	삭제	0	‘디피티’ 유지
	생균백신	삭제	7	
	생백신	■	276	
	세이빈백신	삭제	0	소아마비 관련
	소크백신	삭제	0	소아마비 관련
	약독백신	삭제	0	
	약독생백신	삭제	0	
	자가백신	삭제	2	
	재조합백신	삭제	1	
	풍진백신	■	19	
‘시험’ 관련 표제어	혼합백신	■	247	
	밀봉시험	삭제	1	
	안정성시험	■	4/4	
	용출시험	삭제	1/18	
	장기보존시험	삭제	1	
	전임상시험	유지	128	
‘내성’ 포함 표제어	학대시험	삭제	0	
	교차내성	삭제	10	
	속성내성	삭제	1	
	약물내성	유지	15	
	약제	■	1/73 (조선2)	
	이차	삭제	0	
	전달성약제	삭제	0	

‘탱크’·‘정기’ 포함 표제어	고미정기	삭제	1 ( 조 선 59)	건위제
	고미탱크	삭제	0	건위제
	고추탱크	삭제	0	건위제
	기나정기	삭제	0	강장제
	키나정기	삭제	0	
	산성방향정기	삭제	0	건위제
	산성방향탱크	삭제	0	
	옥도정기	■	고	건위제
	요오드탱크	삭제	2/73	
	육계정기	삭제	0	
	육계탱크	삭제	0	
	캠퍼탱크	삭제	2	
	정기(01)	삭제	고	
	탱크	유지	고	
	탱크처	삭제	7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말뚝치0, 저말뚝치(고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말뚝치0, 저말뚝치(고조선 포함)
- 3) 3차 삭제 기준: 나머지

- 기타 참고사항

- 1) ‘배합’ 포함 표제어: ‘배합금기’와 ‘치료적배합금기’에 대한 이해 → 다른 체계를 이룸
  - 치료적배합금기: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처방에서, 그 조합(調合)이 약리학적·생리학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상태. 상승 작용으로 약물의 작용이 증강하는 것과 길항 작용으로 약효가 감소하는 것이 있다.
    - 배합 결과 금기에 해당하는 상태
  - 배합금기: 두 종류 이상의 약제를 혼합할 때, 서로의 물리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효력을 변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물질을 섞지 않는 일. 이러한 관계의 약품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과 다가(多價) 금속, 비타민 시와 탄산수소 나트륨 따위가 있다.
    - 배합 시 금기 사항
- 2) 간질, 결핵, 고혈압, 말라리아, 암 등 주요 질병 관련 표제어 말뚝치 높음
- 3) '설파닐아마이드' 1번 뜻풀이 오타
  - '설폰아단이드제' → '설폰아만이드제'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

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자연 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특이 사항

예) ‘자극역-절대역’

예) ‘식별역-차이역’ ‘회피학습-회피행동-도피행동’

####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말뭉치0, 저말뭉치, 고대없음/말뭉치0, 고대없음/저말뭉치, 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0, 네이버있음/말뭉치0, 네이버있음/저말뭉치, 위키있음/말뭉치0, 위키있음/저말뭉치
- 2) 2차 삭제 기준: 네이버있음/저말뭉치, 위키있음/저말뭉치, 고대없음/네위있음/말뭉치추정, 고대없음/네이버있음/말뭉치추정, 고대없음/말뭉치추정, 네위동형/말뭉치추정, 네위있음/말뭉치추정, 네이버동형/말뭉치추정, 네이버있음/말뭉치추정, 고대없음/저조선/말뭉치초정, 고대없음/네이버있음/저조선/말뭉치추정, 고말뭉치/저조선, 고대없음/저말뭉치/고조선, 저말뭉치/고조선, 네위동형/고조선/말뭉치추정, 작성례있음/고조선/말뭉치추정

### 2. 2차 처리 사항

####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전기전자」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1. 1차 처리 사항

- 특이 사항

1) 주요 주제 표제어(바탕색 → 편수자료에 있는 경우)

개폐기	구분	단극	대전류	안전	자동	전기	전력	정지			
계전기	거리	과부하	과전류	고전압	궤도	방향	보호	시간	역류	열	완동
	유극	유도형	일차	재폐로	저전류	저전압	전력	전류	전압	전자	중간
	지락	차동	비율자동								
공진기	공동	광	나선								
교류	다상	단상	사인파	삼상							
권선	계자	교번	시동아 모트	여자	연속	일차	자극면	저압	전기자	제어	지
기전기	감을	벨트	유도								
기전력	감응	광	교번	액간	역	열	유도	직류	누설유도	자체유도	
다이오드	가변용량	건	레이저	발광	버랙터	실리콘	임펄스	정전압	제너	크리스털	포토
발전	기력	냉열	댐식	메탄올	생체	소수력	수력	수로식	양수식	엠에이 치디	연료전지
	열병합	열전기	열전	열전자	온도차	원자력	유역변 경식	자기유체	전낙차	전자유체	제방식
	조력	지열	직접	태양광	태양	태양열	파력	폐기물 처리가 스	풍력	해양온 도차	화력
	화산										
발전기	고주파	교류	단극	동기	디젤	속도	수력	수차	용접	유도	자석
	전동	정전류	정전압	제어용	조력	증폭	직권	직류	초전도	터빈	풍력
	내연기관	밴드그래 프정전	영구자석	조차이용							
발전소	계단식	고리원 자력	괴산수 력	군산화 력	급류	기력	내연기 관	당인리	대용량 수력	댐수로 식	댐식
	디젤	마산	보성강	복수식	복식저 수지조 수력	삼척	서울화 력	수력	수로계 단식	수로식	수풍
	양수식	열병합	영일	예비	운암	원자력	유역변 경식	유입식	일간조 절	자류식	자연취 수식
	장진강	전낙차	조력	조정지 식	중낙차	중소규 모	중소용 량수력	중유	지열	지하식 원자력	청평
	칠보	팔당수 력	평택화 력	풍력	허천강	화력					
발전기	소리굽쇠	수정	수정제어	시험	아르시	양자	음차	자려	저주파	전자관	코히런트
	하틀리										
방전	간헐	공중	글로	기체	미광	불꽃	섬화	수지상	암	장	전도
	전호	진공	코로나	타운센드	화화						
방전관	가스	계수	릴레이	삼극	열음극 기체	중공음극					
변성기	계기용	고주파	맞춤	전류	전압	집계형 전류					

변압기	가변	강압	건식	계기용	고주파	공진	기동	내철형	네온	높임	단권
	단상	만능	삼상	선회	소내	승압	시험용	어댑터	외철형	유입	임펄스
	입력	저온	전원	정류기용	정전	주상	직렬	차동	테슬라	부하탭 전환용	선형선회
	수랭유입	자연냉각	전압조정								
변전소	강압	무인	배전	삼차	승압	이동	이차	일차			
변조	델타	밀도	상호	손실	양극	정차	지속파	직각	직각위상	펄스	흡수
변조기	금속	위상	자기	진공관	평형						
변환기	광석	신호	압전기	압전형	유도식	자기	변압기식	전기음향			
부하	기저	반작용	불평형	위치	전기	정격	조명	첨두	평형		
소리급쇠	-발진기	전기	전자기		음차	-발진기	전기	전자			
소자	감온 0	권선 0	내환경 강화 0	능동 7	비선형 0	삼차원 회로 0	수동 高	압전 高	여진 0	열전반 도체 0	열전 高
	이치 0	자기저항 0	적외선 0	전자 高	정류 0/2	회로 24/2					
스위치	근접	나이프	단극	로터리	무접점	삼로	쌍극	이극	전극	컷아웃	터치
	펜던트	풀									
스큐프	메모리	모노	아이코노	오실로	크로노						
안정기	병렬형 철공진 전압	보상형 전압	자기증 폭기식 전압	전류	전압						
안테나	능동	능형	무급전	자기	장선	장파	장하	전방향성	진행파	채찍형	탑
	프레임	헤르츠	흔								
애자	내장	내진	막대	지지	현수						
여파기	고역	능동	저역	고역통과	유도형 주파						
원자로	물감속	산화물 연료	유기물 감속형	유기물 냉각형	유기재 감속	정상상태					
유량계	면적	전기	전자 (2건) +3	전자식 유량계 2	전자기 식유량 계1						
음극	금속	볼프람 토륨	산화물	피복	활성화						
저항	가변	겔보기 / 겔 보 기 비저 항	곡선	기동	대칭	면	물	부성	부	분기	비대칭
	비전기 /전기X	양극내부	여자	역	임계제동	자기성 전기	전구	절연	접지	접촉	정
	정적	직류양 극내부	컬렉터	표준	합성						
저항기	가감	가변	가요	금속권선	금속산 화물	안정	유연	전기	특수	표준	한류
전극	가속	기준	기체	비교	유리	집중	표준	규정수소	노르말 수소	노말수소	
전도도	완전	전기	당량전기								
전동기	감응	개방형	견인	고압	교류	권양	기동	농형	단상	동기	만능

	반발	복권	분권	비동기	삼상	스테핑	유도	직권	직류	축전기	콘덴서
	토크	파일럿	교류직권	교직양용	권선형 비동기	농형유도	단상유도	반발유도	차동복권		
전동력	감응	유도									
전력	걸보기	공급예비	교류	극한	방사	복사	삼상	송전	수전	양극입력	유효방사
	유효복사	유효	자석	정격	피상						
전력계	교류	무효	적산								
전류	가스	감응	감지	고주파	공지간	과도	과부하	교류	교변	국부	국소
	기동	기체	깜빡	누설	단속	돌입	맥동	멤돌이	무효	변위	복사
	삼상	소용돌이	손실	순방향	시동	안전	여자	영전계 방출	유도	음성	이차
	일차	임계	임펄스	자화	잔류	장선로	전극	전도	전속	접지	정격
	정상	지락	직류	진동	코로나	투입	표류	푸코	플레이트	피크음극	필라멘트
	한계	허용	회리	흡수	거꿀	과	부	상	와	저	지
전류계	거울	교류	열선	열전	전압	직류	가동철 편형	가동코일			
전압 (01) (02)	가속	가열	격자	고	교류	교변	극	기준	내부과	내	단자
	마찰	바이어스	배스	배전	보폭	분해	서지	선간	선	섬락	송전
	안전	여기	여자	외부과	외부이상	육	유도	유효	이상	인가	일차
	임계격자	임펄스	임피던스	재기	저	저지	전해조	절연파괴 편수자료 비교란	접촉	정격	정격출력
	직류	충격	파괴	표준	플레이트	필라멘트					
전압계	고주파	교류	샘플링	전자식	전자	정전	직류	진공관	차동	파고	
전위	단극	대지	액간	영	유동	전극	평형	환원	산화환원	파이프 토양간	
전위차	액간	접촉									
전위차 계	보상식										
절연물	고체	기체	액체	에이급	에이치급	에프급	전기				
정류기	건식	산화구리	산화동	수은	수은증기	수은호광	실리콘	아산화 구리	아산화동	전자관	전해
	전해질	진공관	팅거								
제동	단상	동적	반대투입	부족	전기	전기회생					
주파수	가청	교차	기준	미끄럼	상용	슬립	이론차단	임계융합	저역차단	전력	중간
	한계	할당	화상								
증폭기	고주파	고충실도	광대역	귀환	다단	단동조	대역	로그	선로	이극	자기
	재생	저주파	전력	전압	전자관	직류	차동	회전	단일동조	무선주파	중간주파
진공관	교류	금속	꼬마	다극	다양극	사극	삼극	쌍이극	오극	이극	이온화
	전금속	전리	정류용	열음극 이극							
축전기	가감	가변	가속	고정	공기	구면	불박이	수지	자기	전해	정전
	종이	중화	진공	평행판	폴리에 스테르	표준	동조가변	알루미 늄전해			
커패시터	공기	유입	자기	중화	진공	-					



케이블	가공	가스들이	고무절연	다심	매설	삼심	시브이	에이치	오오프	외장	유입
	이심	전력	종이	지중	지하	캡타이어					
코일	가동	감응	단층	발화	배류	유도	이차	일차	전기자	전압	제일
	중계	집속	초크	테슬라	투입	고주파초크	표준유도	표준저항			
콘덴서	가변	공기	구면	마이카	습도	오일	유리	자기	전력용	진공	차동
	고체유전체										
트랜지스터	고주파	삼극	실리콘	쌍극성	오극	정전기유도	정전유도				
필터	능동	단색광	대역	저주파	정케이형	대역소거	저주파통과				

## 2) 표제어 코멘트

추가하면 좋을 표제어	관련 표제어	상관을 이루는 표제어 예 /말뭉치·조선빈도	비고
형광등	형광방전등	수은방전등-수은등	
아크방전	교류용접	0	같은말 -‘전호방전’(말뭉치0)
	교류전호	0	
	섬광아크	0	
	소호(07)	186/4979	
	소호장치	0	
	소호하다	16/143	
	수은정류기	5	
	= 수은증기정류기	0	
	= 수은호광정류기	0	
	아크등	1/110	
	= 아크라이트	4/218	
	= 카본아크램프	0	
	= 탄소아크등	0/3	
	= 탄소호등	0/0/6	
	= 호등	81/191/7	
	= 호상등	0	
	아크열	4	
	= 전호열	7	
	전기슬래그용접	0	

## 3) 기타 특이사항

- ‘회로’ 포함 표제어 중 층위가 다른 표제어 검토가 필요한지
- ‘절연’ 관련 표제어: 해당 분야에서 원래 체계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절연’ → ‘비급절연’ ‘시급절연’ ‘와이급절연’ ‘이급절연’

‘절연물’ → ‘에이급절연물’ ‘에이치급절연물’ ‘에프급절연물’

- 지역명이 붙는 ‘발전소’ 포함 표제어 삭제

## 2. 삭제 처리 기준

- 1차 삭제 기준 -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제외)’
- 2차 삭제 기준 -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포함)’

##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종교」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1. 1차 처리 사항

- 특이사항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처리	비고
‘숭배’ 포함 표제어	링가숭배	삭제	
	물신숭배	유지	
	서물숭배	삭제	
	주물숭배	유지	
	상징숭배	삭제	
	생식기숭배	유지	하위: 링가숭배
	성기숭배	삭제	
	음양숭배	삭제	
	성신숭배	삭제	
	수목숭배	유지	
	수호동물숭배	유지	
	식물숭배	삭제	
	암석숭배	삭제	
	우상숭배	유지	
	위령숭배	삭제	
	유물숭배	삭제	
	유체숭배	삭제	
	인간숭배	삭제	
	자연물숭배	유지	하위: 성신/수목/암석/태양/동물/식물 숭배
	자연숭배	유지	
	천연물숭배	삭제	
	천연숭배	삭제	
	자연숭배사상	유지	
	정령숭배	유지	
	조상숭배	유지	
	조선숭배	삭제	
	천신숭배사상	■	
	축루숭배	삭제	
	태양숭배	유지	
‘신앙’ 포함 표제어	신앙요법	삭제	
	영혼신앙	■	
	왕자신앙	삭제	
	태양신앙	삭제	
	토속신앙	유지	
‘종교학’ ‘신학’ 관련 표제어	비교종교학	유지	
	종교민족학	■	
	종교사회학	■	
	종교윤리학	■	
	교리신학	삭제	
	=교리학	유지	
	기초신학	■	
	물리신학적증명	삭제	

	부정신	■	
	윤리신학	■	
	자연신학 =자연적신학	■ 삭제	대립 개념: 초자연신학
	초자연신학	■	대립 개념: 자연신학
	합리신학	■	

- 종교 발달 과정 관련 표제어
- 증산교 종파 표제어

####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포함)
- 3) 나머지

####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천연자원」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특이사항: '-탄' 포함 표제어: 편수자료에 없는 세부 표제어 대부분 삭제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말뭉치0
  - 2) 나머지

### 2. 2차 처리 사항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환경」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특이사항

표제어 종류	표제어 예	처리	비고
‘공해’ 포함 표제어	개발공해	■	
	납공해	삭제	
	도시공해	유지	
	배기가스공해	유지	
	악취공해	삭제	
	에스에스티공해	삭제	
	원자력공해	■	
	이차공해	■	
	진동공해	삭제	
	축산공해	■	
‘오염’ 포함 표제어	대기오염	유지	
	수질오염	유지	
	열오염	삭제	
	중금속오염	유지	
	토양오염	유지	
	해양오염	유지	
	환경오염	유지	
협약/조약/기구/헌장 관련 표제어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	세 표제어 모두 유지 또는 모두 삭제
	국제연합환경계획	■	
	=유엔이피	삭제	
	국제자연보전연맹	■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옛말
	=국제자연보호연맹	삭제	
	=아이유시엔	삭제	
	=아이유피엔	삭제	
	국제습지조약	유지	
	=람사르협약	유지	

#### - 삭제 처리 기준

- 1) 1차 삭제 기준 - ‘말뭉치0, 저말뭉치(고조선 제외)’
- 2) 2차 삭제 기준 - ‘저말뭉치(고조선 포함), 말뭉치추정’
- 3) 3차 삭제 기준: 나머지

### 2. 2차 처리 사항

#### - '■'와 '보류' 혼용

→ 같은 의미이나, 계열어 처리하면서 눈에 띄 수 있도록 '보류'로 표시하였다.

(특히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표제어인 것 같으나 계열어들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삭제/유지를 보류하는 경우 '■/일반'으로 표시.)

- 'X하다/X되다'에서 어근만 남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 최대한 상하위 표제어 중 상위 표제어는 유지/보류하거나 상하위 표제어 모두 유지/삭제/보류하여 체계

를 이루도록 하였다.

- 추후 작업에서 '■', '보류' 혼용된 것을 '보류'나 '유지' 중 하나로 일원화하였다. 삭제 처리된 것도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역사」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원칙: 교육에서 사용되는 「역사」 분야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그대로 존치하였다.

- ①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 인재 선발용 시험 등에서 지닌 위상을 생각할 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사용 빈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 ② 그러려면 교육용 어휘, 교과서 사용 어휘 등과 비교하여 유지할 것과 삭제할 것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 - 처리 방향

- ① 표제어의 사용 빈도는 동음어인 다른 표제어의 사용을 반영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빈도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역사」 분야 표제어를 유지, 삭제를 결정하는 데에 크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예) 노포(弩砲)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나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면 이것은 거의 다 ‘노포(老鋪)’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노포(老圃)<부산시 금정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 ② 사전에 실린 표제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적 관계의 관점에서 큰 것(범주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유지로 판정하고,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삭제로 판정하였다. 다만, 작은 것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사용 빈도가 높은 작은 것의 경우라면 유지하였다.
- ③ 표제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유의어 관계가 있는 것들 중 어느 하나는 사실상 낯설기는 하지만 말뭉치 빈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들은 모두 유지하였다.
- ④ 다의어는 여러 의미를 고려할 때 어느 하나라도 언중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잘 쓰이는 것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대체로 유지하였다. 이것은 국어원에서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 숙배하다

「1」백성들이 왕이나 왕족에게 절을 하다. 통례원에서 관장하였다.

「2」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가는 관원(官員)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다.

- ⑤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것을 우선하고 다른 나라의 것은 후순위로 두고, 남한의 것을 우선하고 북한 것은 후순위로 두었다.

예 1) 우리의 묘호나 연호는 유지하나, 중국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한 삭제함.

예 2) 관동팔경은 유지하나 관서팔경은 삭제함.

- ⑥ 한자어 외래어 인지명의 경우 독법의 문제로 원지음과 우리 음이 모두 실린 것은 이 둘을 모두 유지하였다.

예) 메이지유신 ~ 명치유신, 텐안면 ~ 천안문

- ⑦ 한자어 중 속음과 본음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둘 다 유지하였다.

예) 斛上 곡상~곡상, 斛上米 곡상미~곡상미

### 2. 2차 처리 사항

- 일반어가 될 만한 후보 추출

- ① 대상 용어: 가족^칼, 깍인-면, 유기장(03), 칼-머리
- ② 근거: 역사 이외에도 일상적인 용어 사용, 뜻풀이가 지시하는 바가 일반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어로 등재하는 것을 논의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계열어 정비: 품계, 벼슬 관련 용어: 표제어 정비 방향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 처리한 것 가운데 다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비하였다.
- 이른바 주표제어, 부표제어 관계에 있는 것들의 일관성 검토: 'X', 'X하다', 'X되다' 등과 같이 공통의 어근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비되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여 잘못을 바로잡았다.
- 보류 처리
  - ① 옛 용어(?): 초급^중학교
  - ② 고유명(?): 국립^고궁^박물관
  - ③ 구 구성(?): 도구^사용^능력, 도구^제작^능력
  - ④ 검토 의견을 고려한 보류 처리: 초식, 총환, 학대, 현가, 형문, 후포 등

## 『표준국어대사전』 「경제」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단어가 세 개 이상 나열되어 단어로 보기 어려운 것들, 나열된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뜻풀이가 되는 단어는 되도록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 보험, 증권, 카르텔, 학파, 법칙 등을 설명하는 단어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단어로 판단하여 삭제 처리하였다.
- 외래어 전문어는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을 제외하고 되도록 삭제 처리하였다.
- 빈도수가 적은 경우라도 ‘고조선, 저조선’으로 분류되어 기사에 사용된 경우는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유지 처리한 경우가 있다.
- 빈도가 1~2인 것들은 빅카인즈를 참고하여 사용한 빈도가 있으면 단어 뜻을 보고 유지 처리한 경우가 있다. 빅카인즈 활용시 기간은 9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 ‘고대없음/말뭉치0’, ‘고대없음/고말뭉치’ 등 판단 유형만 보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직관이 많이 반영하였다.
- 연관되는 단어들인데 어느 것은 빈도가 높고 어느 것은 빈도가 낮을 때 직관에 따라 일괄처리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모든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여 지식백과와 뉴스 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 지식백과에도 없고, 뉴스 기사에도 사용이 없으면 ‘삭제’ 처리하였다.
- 뉴스 기사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단어의 쓰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류(검토)’ 처리하였다.
- 네이버에는 있으나 뉴스 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류(검토)’ 처리하였다.
- 사용 빈도가 없더라고 뉴스 기사에서 해당 단어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유지’ 처리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에 다른 말로 검색되는 경우도 ‘네이버있음’으로 보고 검토의견에 표기하였다.
- 여러 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를 확인하여 ‘일반’ 처리하였습니다.
- ‘X, X하다, X되다’는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 ‘학파’ 이름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단어로 판단하여 ‘삭제’ 처리하였다.

- 네이버에서 확인이 되고, 말뭉치 쓰임이 보이면 '유지' 처리하였다.

예) 메리트재, 언타이트-론, 증권^대위

- 구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자본주의의^일반적^위기

- 유사한 단어의 경우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예) 자본주의의^일반적^위기, 자본주의의^전반적^위기, 자본주의적^생산^방식

## 『표준국어대사전』 「수학」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편수자료에 있는 단어는 표제어 필드에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전부 유지 처리하였다. ‘조건부서식’에 중복값 기능을 이용했고 ‘조건부 서식’에 걸리지 않는 단어는 직접 확인하여 표시했다.
- ‘고대없음/말뭉치0’, ‘고대없음/저말뭉치’, ‘네위동형/말뭉치추정’, ‘네위있음/말뭉치0’, ‘네위있음/말뭉치추정’ 등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보가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지 처리한 경우가 있다.
- ‘~의 정리’와 같이 세부적이고 단어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삭제 처리하였다.
- ‘맞선~, 바른~’과 같이 고유어와 결합한 경우 유지 처리하기도 하였다..
- 검토의견에 ‘네이버있음’으로 적은 것들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위키백과가 아닌 다른 사전에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 ‘~의 옛 용어’로 정의된 단어들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빈칸으로 처리하였다.
- 편수자료에 있는 단어와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유지처리 한 경우가 있다.

### 2. 2차 처리 사항

- 편수자료와 지식백과를 참고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 ① 편수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 1) 편수자료 표제어를 검토 파일 ‘표제어 필드’ 열에 붙여넣어 ‘조건부 서식(중복값)’ 기능을 이용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 2) 이때 편수자료 표제어는 띄어쓰기(경험적 확률, 큰수의 법칙 등), 기호(극한(값) 등), 숫자(제1사분면, 제2사분면 등), 영어 (코사인 등) 등 표기 방식이 검토 파일의 표제어와 다른 것이 있으므로 이는 수작업으로 확인하였다.
  - 3) 검토 파일의 표제어에도 동음이의어(구, 등각삼각형 등)가 있어 중복값으로 표시되므로 제외하였다.
- 빈도수가 적어 ‘삭제’ 처리한 단어들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해 결과가 있을 경우 ‘보류’ 처리하였다.
  - 개인적인 직관과 경험으로 판단했던 단어들을 지식백과와 편수자료를 바탕으로 삭제 처리했던 단어를 다시 판단하였다.
  - ‘부족정보’로 보았던 단어를 재검토하였다.
  - 편수자료에 있는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예) 좌표^변환, 투영^면, 해석학, 쌍대 등
  - 고말뭉치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예) 곱표, 논리^계산, 통계^자료 등

## 『표준국어대사전』 「연기」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극장, 극단, 행사’ 등은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론’도 되도록 삭제 처리하였다.
- 연극 종류는 빈도수가 나타나지 않아도 유지 처리한 경우가 있다.
- ‘말뭉치0’인 단어라도 직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지 처리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모든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여 지식백과, 뉴스 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 ① 빈도가 없는 경우라도 뉴스 기사에서 쓰임을 확인하면 ‘유지’ 처리하였다.
  - ②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그 비슷한 단어가 지식백과에 있으면 ‘보류’ 처리하였다.
  - ③ 뉴스 기사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으면 ‘삭제’ 처리하였다.
- ‘원각사, 광무대’와 같은 단어는 고유명사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유지’ 처리하였다.
- 뜻풀이를 보고 ‘일반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직관에 따라 분류했다.
- 빈도가 적지만 네이버에 있는 경우 등은 재검토하여 ‘보류’ 처리하였다.
- 고빈도 용어의 경우 유지 처리하였다.  
예) 연출-론, 팬터마임, 리뷰, 프롬프트
- 직관에 따라 용어를 유지 처리하였다.  
예) 브로드웨이^연극, 독연, 경희

## 『표준국어대사전』 「한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고대없음/말뭉치0', '고대없음/말뭉치추정', '고대없음/저말뭉치', '말뭉치0', '저말뭉치' 등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단어가 있는지 참고하여 유지/삭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한의' 분야 단어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여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한 결과를 판단에 다소 강하게 반영한 경향이 있다.
- 빈도가 낮거나 동형어번호 매칭이 나타나지 않아도 '한의'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식백과 검색과 의미를 보고 유지 처리한 경우가 있다. 특히, 형태매칭은 나타나는데 동형어번호매칭 빈도가 0인 경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단어가 있는지 참고하여 처리하였다.
- '맥, 탕, 약재,' 이름 등은 일괄적으로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빈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의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맥, 탕, 약재' 등이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워 빈도나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의미를 봐도 해석이 어려운 맥 이름은 삭제 처리하였다. 탕 이름은 그 음절이 다소 길어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 결과가 있으면 자주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유지 처리하였다. 약재 이름은 지나치게 낮은 약재라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모든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여 네이버 지식백과와 뉴스 기사를 참고하였다. 다만, 말뭉치 빈도수가 전반적으로 적은 '한의' 분야의 특성상 뉴스 기사보다는 지식백과의 검색 결과에 중점을 두었다.
  - ① 이전 작업에서 네이버에 있는데 '삭제' 처리한 단어들은 빈도수를 고려하여 '유지', 혹은 '보류' 처리하였다. 네이버에 없는데 '유지' 처리한 단어를 재검토하여 '삭제' 처리한 경우도 있다.
  - ② '고대없음/말뭉치0'은 삭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네이버에 있는 경우는 '보류' 처리하고 없으면 '삭제' 처리하였다.
  - ③ '네이버있음/말뭉치0'은 뉴스 기사에서 쓰임이 보이면 '유지' 처리하였다.
- 'X하다'의 형태인 단어에서 X가 표제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X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고 결과가 있으면 '보류' 처리하였다.
- 원어인 한자가 같은데 다르게 읽은 단어가 네이버에 있는 경우 '보류' 처리하였다.
  - 예) 탄환(02) 癱瘓 → 네이버에서 '탄탄(癱瘓)'으로 검색됨.
  - 기식(01) 倚息 → 네이버에서 '의식(倚息)'으로 검색됨.
- '버짐'이 익숙한 단어이고 말뭉치에 등장하는 횟수도 많아 이 부분을 고려하였다. 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진버짐'이 하나의 검색 결과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단어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여 '유지' 처리했다. 재작업에서 보류로 처리하였다.
- '중만'의 공백은 수정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용어는 유지 처리하였다.

예) 발침, 온경, 완방, 용설하다, 태한, 통체, 통태 등

- X하다, X되다는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예) 거심하다- 거심되다, 거침되다-거침하다 등

## 『표준국어대사전』 「은어」 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은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제’를 원칙으로 함.

- 빈도가 5,000 이상인 표제어에 한해 선별 ‘유지’

예) 빵03

- 빈도가 300 이상이면서, 특정 부류에 한정되지 않고 쓰이는 표제어에 한해 선별 ‘유지’

예) 딱따구리, 딱새

- 빈도수가 5,000 이상이라도 동형어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삭제’

예) 감사01, 곰02, 깡02, 꽃02, 나무02

### 2. 2차 처리 사항

- 특정 집단의 은어의 경우, 널리 알려진 표제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 일반어와의 동음성으로 인해 빈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 빈도로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① “심마니들의 은어로”: 250개 전체 삭제

② “맹인(盲人)들의 은어로”, “맹인(盲人)의 은어로”, “맹인들의 은어로”: 28개 전체 삭제

③ “남사당패의 은어로”, “남사당패들의 은어로”: 24개 전체 삭제

④ “소 장수들의 은어로”: 26개 전체 삭제

⑤ “쇠살쥘들의 은어로”, “쇠살쥘의 은어로”: 4개 전체 삭제

⑥ “무당들의 은어로”, “무당의 은어로”: 13개 전체 삭제

⑦ “뱃사람들의 은어로”: 14개 중 빈도가 있는 ‘마파람, 샛바람’ 제외 12개 삭제

⑧ “범죄 집단의 은어로”, “범죄자들의 은어로”, “범죄자의 은어로”: 14개 중 빈도가 있는 ‘짹새, 깔치’ 제외 12개 삭제

- 기타: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고 빈도도 있는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유지’

예) 썰리, 깡사, 갈참, 딱새02, 빵03, 범털



## 『표준국어대사전』 「음역어」 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음역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제’를 원칙으로 함.

- 빈도가 5,000 이상인 표제어에 한해 선별 ‘유지’

예) 구라파, 노서아

- 빈도수가 5,000 이상이더라도 동형어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삭제’

예) 나마05, 난07

### 2. 2차 처리 사항

- 어느 말뭉치에서든 출현 빈도가 1000 이상인 표제어 중에서 아직 쓰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만 선별적으로 ‘유지’

예) 구라파, 불란서, 불어

- 동음어로 인해 출현 빈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삭제’

예) 나마03, 나마05

- 출현 빈도가 1000 미만인 표제어는 ‘삭제’가 원칙이되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판단되면 극히 일부 선별 ‘유지’

예) 노서아, 서반아, 서반아어, 호열자

- ‘삭제’이지만 다의어의 경우 해당 뜻풀이만 삭제

예) 가비라, 갈마02

## 『표준국어대사전』 「전용어」 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전용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제’를 원칙으로 함.
- 구(句) 전문용어는 빈도가 1,000 이상이 아닐 경우 ‘삭제’  
예) 지루성 피부염(삭제), 지방 재판소(삭제)
- 다의어의 경우, ‘해당 뜻풀이만 삭제’  
예) 간수04(?뜻풀이 [4]만 삭제), 천신01(?뜻풀이 [1]만 삭제), 합판04(?뜻풀이 [2]만 삭제)
- 출현 빈도가 1,000 이하인 표제어는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1000 이상인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유지’  
예) 갑상선(유지), 갑오경장(유지)
- 빈도수가 1000 이상이더라도 동형어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삭제’  
예) 각도03 (삭제), 강직04(삭제), 건초02(삭제), 경06(삭제)
- 전문어로 분류되었지만 일상어로 쓰이면서, 빈도가 300 이상인 표제어는 선별 ‘유지’  
예) 형무소, 하사관, 간질04, 간호원, 국민학교, 노이로제

### 2. 2차 처리 사항

- 어느 말뭉치에서든 출현 빈도가 1000 이상인 표제어는 선별적으로 ‘유지’  
예) 갑상선(유지), 갑오경장(유지)
- 출현 빈도가 1000 미만인 표제어는 ‘삭제’가 원칙이되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판단되면 선별 ‘유지’  
예) 형무소, 하사관, 간질04, 간호원, 국민학교, 노이로제
- ‘유지’의 경우 그 말이 들어간 복합어는 원칙적으로 ‘삭제’  
예) 이중국적(유지), 이중국적자(삭제)
- ‘삭제’이지만 다의어의 경우 해당 뜻풀이만 삭제  
예) 간수04(?뜻풀이 [4]만 삭제), 천신01(?뜻풀이 [1]만 삭제), 합판04(?뜻풀이 [2]만 삭제)

## 「복지」, 「영상」, 「정치」, 「지구」, 「화학」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엑셀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삭제 작업을 하였다.

1) 말뭉치0: 실제로 쓰이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만 사용되어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은 표제어라면 실제로 언중에 의해 쓰이는 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언중이 아닌 전문가 사이에서만 쓰이는 말이라면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닌 전문어만을 다룬 백과사전에 등재될 표제어로 간주하였다. 이 판단에 따라 '사용자 지정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말뭉치0'만 있거나, '고대없음'이 함께 포함된 표제어를 선별한 뒤 일괄적으로 삭제 처리하였다.

- 엑셀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유지 작업을 하였다.

1) 작성레있음, 인용레있음: 작성레나 인용레가 있더라도 말뭉치 확인 작업이 필요한 표제어들이 있음에 유의하였다.

-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1) 말뭉치0'과 '네이버있음', '네위있음', '위키있음', '네이버동형', '위키동형', '네위동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언중에 의해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기계적 처리가 곤란하다고 보았다.

2) 엑셀의 '사용자 지정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말뭉치0'과 '있음', 또는 '말뭉치0', '동형'을 포함하도록 필터를 적용하면, '말뭉치0'과 '네이버있음' 등의 판단 키워드가 포함된 표제어들만 나타났다.

3) 이들은 말뭉치 자료에 없는 표제어들이므로 네이버의 지식백과에서 직접 검색해보거나, 위키백과에서 검색하여 <표준>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표제어가 노출될 경우 '유지' 처리를, 없을 경우 삭제 처리를 하였다.

- 말뭉치에서 '저빈도/말뭉치추정'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1) 표제어 판단 기준에 '말뭉치추정'이 있을 경우 기계적 삭제 처리는 곤란하지만 기계적 유지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엑셀의 '사용자 지정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말뭉치추정'과 '네이버있음', '위키있음'을 선별한 뒤 일괄적으로 유지 처리하였음.

2) 이 처리 방식은 판단에 '고대없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언중에 의해 사용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나 위키백과에 노출된다는 의미는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표제어임을 암시하므로, 실제로 자주 쓰이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3) 단, '네이버동형', '네위동형', '위키동형'일 경우 실제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했으므로, '말뭉치추정'과 '동형'을 키워드로 설정해 필터링된 표제어들은 일괄적으로 네이버와 위키에 검색해보는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4) 네이버와 위키에 '동형'만 있을 경우에는, 말뭉치 확인 작업을 거쳐, 표제어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쓰임이 단 하나라도 확인될 경우 '유지' 처리를, 그렇지 않으면 '삭제' 처리하였다.

5) 또 '작성레있음'이나 '인용레있음'과 '저말뭉치', '말뭉치0', '말뭉치추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역시 모두 말뭉치 확인을 거쳐 뜻풀이와 일치하는 사용례가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유지' 처리를, 그렇지 않을 때는 '삭제' 처리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 고유명사 재작업

- 1) 뜻을풀이를 참조했을 때 ‘기관명’이거나 ‘단체명’으로 보이는 경우 고유명사로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삭제 처리하였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 네이버 지식백과와 위키 백과, 그리고 네이버 일반 검색 결과에서 실제 사용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 작업에서 검토 의견에 ‘삭제 - 고유명사’를 제시한 표제어만 보이도록 필터링하고, 이들을 모두 포털 사이트의 지식백과에 검색하였다.
- 2) 고유명사로 판단해 ‘삭제’ 처리한 표제어 상당수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 있거나 일반 검색 결과에서 사용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용례는 있으나 지식백과에 오르지 않은 경우, 비슷한 ‘단체명’, ‘기관명’일 경우는 포털 사이트 검색 후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어형 하나만을 선택해 ‘유지’ 처리하였다. 단, ‘정치’ 영역에서 ID242265 ‘AA group’과 ID242267 ‘AA회의’ 등은 대표형을 찾기 어려워 ‘보류’ 처리하였다.

### - 계열성 고려

- 1) ‘입헌 X류’의 처리가 일관되지 못하며 지구 영역에서 ‘X구름’ 류의 판단이 일관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입헌 X류’ 표제어를 모두 네이버 지식백과 등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유지’로 일괄 처리하였다. ‘X구름’ 류의 경우 역시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일괄되게 ‘유지’로 처리하였다.

### - 편수 자료, 네이버, 위키 등의 쓰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1) 1차 작업 결과물을 검토해본 결과 ‘지구’, ‘화학’ 영역에서 편수 자료에 올라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나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삭제’ 처리된 표제어를 다수 확인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네이버, 위키백과 현황 파일에 오류가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용어를 직접 검색해보고 쓰임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으므로, ‘삭제’ 처리한 표제어를 우선적으로 재검토 하였다.
- 2) 재검토 작업은 ‘삭제’ 처리한 표제어 모두를 네이버와 위키 백과에 검색하여 직접 사용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네이버나 위키 백과 둘 중 하나라도 ‘지식백과’에 등재된 예가 확인되면 ‘유지’ 처리를, 포털 사이트와 편수 자료에 모두 없는 경우는 ‘삭제’ 처리하였다.

### - ‘X되다’, ‘X하다’류의 처리가 일괄적이지 못한 경우

- 1) 권고 사항을 참조하여 ‘X되다’, ‘X하다’류만 보이도록 필터링해 확인해본 결과 ‘X되다’, ‘X하다’ 류가 일괄되게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차 작업 당시 “일괄되지 않음”의 의미를 ‘어떤 것은 삭제 처리되고 어떤 것은 유지 처리되었음’ 정도로 이해하여 모두 삭제 처리하였다.
- 2) 하지만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시 확인해보니 다소 오해가 있었다. 권고 사항에서 지적하였던 “일괄되지 않음”은 ‘X되다’, ‘X하다’ 류에서 X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삭제’일 때 ‘X되다’, ‘X하다’ 역시 ‘삭제’를, ‘유지’일 때 ‘X되다’, ‘X하다’ 역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X되다’, ‘X하다’ 류의 처리는 재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일반어 처리 조정

- 1) 몇몇 전문용어를 일반어로 조정하였다.

예) 가족-수당, 공공^복지, 사회^보장^제도 등.

예) 네거티브, 대사, 더빙, 뮤직비디오 등

예) 독립국, 민족주의, 민주^정당

예) 태풍,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회오리-바람

예) 가솔린, 가스^폭발, 거름-종이, 건-전지 등

2) 몇몇 전문용어에 대해 보류 판단하였다.

예) 무성^영화,

3) 몇몇 전문용어에 대해 유지 판단하였다.

예) 이사^정치^파동, 아시아^먼로주의

## 『표준국어대사전』 「무용」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 하위 유형 일괄 삭제

- 불교춤의 종류인 ‘나비춤’, ‘바라춤’은 유지하고 이 두 춤의 하위 유형들은 일괄 삭제함.  
(검토의견에 ‘삭제-세부정보’라고 표기)

#### - 민속춤 춤사위 용어 삭제

- 궁중정재와 달리 민속춤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류파별 춤사위 용어에 편차가 크고 통일성이 적음. 사용빈도가 높거나 다른 류파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제.

#### - 무용사에서 중요한 경우 유지

예) 수건춤 (고대없음/위키있음/말뭉치추정) : 한국전통무용사에서 중요함.

예) 뿌림 (고대없음/고말뭉치) : 민속춤의 춤사위 명칭이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파생어들의 근간이 됨.

#### - 향악정재 춤사위 명칭 일괄 보류

예) 만수무, 춘앵전(춘앵무), 정대업지무, 보태평지무, 향령무 등의 궁중무용 춤사위 명칭은 보류. (뜻풀이에 춤의 명칭이 ‘만수무’, ‘춘앵전(춘앵무)’, ‘정대업지무’, ‘보태평지무’, ‘향령무’로 표기되어 있거나 ‘궁중무용’으로 표기된 경우)

- 류파별로 춤사위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 민속춤들과 달리 모두 궁중에서 연희되었고 정확한 춤사위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어의 혼선은 없다. 위에서 언급된 춤들은 대부분 순조대에 창작되었고 관련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 연희되고 있기 때문에 무용사에서 중요한 작품들이지만 세부적인 춤사위 명칭을 표제어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일괄 보류 처리하였다.

### 2. 2차 처리 사항

- 몇몇 잘 알려진 전문용어는 일반어로 처리하였다.

예) 재즈^댄스, 춤^동작

## 『표준국어대사전』 「문학」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검토 작업 방법”파일의 매뉴얼에 적혀 있는 “고유명사 : 인명(가공인물, 신 등 포함), 책명(작품명 포함), 건물명, 기관명, 단체명을 의미하는 표제어”를 삭제 처리했다. 문학 분야이기 때문에 인명과 작품명, 단체명 등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 ‘삭제’ 처리한 표제어 숫자가 많아졌다.

#### - 고유명사 ‘삭제’

인명의 경우 “실존인물, 작품 속 가상 인물, 세계 각국의 신”을 삭제했고 특정 기관명, 문예지, 작품명 또한 용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토 의견란에 ‘삭제-고유명사’라고 써놓았다.

#### - 그 외 ‘삭제’

검토의견에 따로 내용을 쓰지 않고 삭제 처리한 경우는 용례를 참고하여 결정했다.

#### - 예외 사항

- ① 특정 작품을 지칭하는 동시에 작품의 갈래 명으로도 불리는 경우에는 ‘유지’ 처리했다.
- ② 특정 작품명이 아니라 갈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유지’ 처리했다.
- ③ 인명이지만 “단군”은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유지’ 처리했다.

### 2. 2차 처리 사항

#### - 고유명사 처리

- ① 인명의 경우 “실존인물, 작품 속 가상 인물, 세계 각국의 신”을 상당수 삭제했다.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거나 상징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지처리 했다. 삭제는 검토 의견란에 ‘삭제-고유명사’라고 써놓았다.
- ② 특정 기관명, 문예지는 용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삭제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토 의견란에 ‘삭제-고유명사’라고 써놓았다.
- ③ 작품명의 경우 편수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편수자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유지, 편수자료에 직접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방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지(가요, 시 작품명이 편수자료 국악 분야에서 곡명으로 등록된 경우), 편수자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일부 작품명 유지, 그 외에는 삭제 처리했다. 삭제한 경우 검토 의견란에 ‘삭제-고유명사’라고 써놓았다.

- 편수자료에 없지만 유지 처리한 작품명은 아래와 같다. 판단은 문학사적으로 유의미하거나 역사적 가치를 고려했다.

예) 단심가, 하여가 / 사씨남정기, 동명왕편, 금와신화, 금와왕 설화, 연오랑 세오녀, 운영전, 춘향전, 열녀 춘향 수절가, 토끼전, 홍길동전, 흥부전,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 (금오신화의 작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일괄 유지)단, 연계된 인명도 함께 유지 처리했다 (홍길동, 춘향)

- 보류 항목: “한시”의 창작, 평가 방법과 관련된 어휘들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일괄 보류 처리했다.

- 우리의 사전에 실을 가치가 적은 외국 문학의 경우 삭제 처리하였다.
- 예) 베다^문학, 비잔틴^문학, 소비에트^문학, 여문, 졸라이슴 등



## 『표준국어대사전』 「민속」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고유명사 삭제처리 (검토의견에 ‘삭제-고유명사’ 표기)

① 무속의 신격

② 탈춤 등의 등장인물

- 춤사위, 재주 등의 동작/기술명

① 기술명 : 하위 유형을 아우르는 큰 갈래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삭제 처리

(줄타기, 땅재주, 풍물놀이 등의 기술명은 상위 명칭만 남겼습니다.)

- 춤사위 용어 삭제

(‘전문-민속’에 탈춤, 살풀이춤의 춤사위 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류파별로 유사한 동작을 지칭하는 용어가 전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특정 용어를 수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류파별 춤사위 용어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은 관련 사업에 참여할 때 확인했다.)

- 일괄 삭제

① 이사할 때 방위를 보는 구궁 종류

② 육십갑자에 붙이는 ‘납음’ 관련 어휘들 (뜻풀이에 납음에 관련되었음이 적혀 있음)

③ 풍수지리에서 ‘○좌’, ‘○향’, ‘○좌○향’ 관련 어휘들

- 일괄 유지

① 앞과장, 뒷과장

② 수팽과리, 암팽과리

- 대표만 남기고 삭제

① ‘오방토룡제’만 남기고 ‘남방토룡제’, ‘동방토룡제’, ‘북방토룡제’, ‘서방토룡제’, ‘중앙토룡제’ 삭제.

② ‘오방토룡단’만 남기고 ‘남방토룡단’, ‘동방토룡단’, ‘북방토룡단’, ‘서방토룡단’, ‘중앙토룡단’ 삭제.

- 특정 주제 전문용어 문제 : 윷놀이

① 윷놀이 관련 용어 94개 가운데 세트로 처리해야 할 어휘들이 많았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어휘들과 동일하게 ‘판단’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함께 처리할 경우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② ‘○동’ 관련 어휘들

- 유지 : ‘단동’, ‘외동’, ‘두동’, ‘석동’, ‘녁동’을 세트로 묶어서 유지

- 보류 : ‘외동무니’, ‘단동내기’, ‘단동무니’, ‘단동치기’, ‘두동무니’, ‘두동사니’, ‘석동무니’, ‘석동사니’, ‘녁동내기’, ‘녁동무니’, ‘녁동사니’ (일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으나 쌍이 누락된 경우가 있음, 뜻풀이가 중복되지만 용례가 적어 특정 어휘를 선택하기 어려움)

③ ‘앞○’ 관련 어휘들

예) ‘앞도’, ‘앞개’, ‘앞걸’, ‘앞웃’ 일괄 유지

④ ‘첫○’ 관련 어휘들

예) ‘첫개’, ‘첫걸’, ‘첫도’, ‘첫모’, ‘첫웃’ 일괄 삭제

(첫번째 나온 웃이라는 뜻이라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⑤ ‘각ㅇ’ 관련 어휘들

예) ‘각둘’, ‘각막(01)’, ‘각석(01)’, ‘각흔(01)’ 일괄 보류

(대부분 쓰임이 적으나 웃놀이 문화와 관련한 중요 어휘일 수 있어 보류)

⑥ ‘ㅇ발’ 관련 어휘들

예) ‘갯발(02)’, ‘겉발’, ‘꽃은 발’, ‘날발’, ‘돛발’, ‘웃발’, ‘짬발’, ‘풋발’ 일괄 보류

(대부분 쓰임이 적고 말뭉치 용례가 있다고 하나 해당 어휘와는 무관한 것들이었음. 하지만 웃놀이 문화와 관련한 중요 어휘일 수 있어 보류)

⑦ 축약어

예) ‘도캐’, ‘도컬’, ‘개컬간’, ‘개컬뜨기’, ‘도캐간’, ‘도컬간’ 일괄 보류

⑧ 그 외 보류 어휘들: 용례가 적거나 말뭉치 용례가 실제 어휘와 무관하지만 웃놀이 문화와 관련한 중요 어휘일 수 있어 보류함.

- 특정 주제 전문용어 문제 : 화투

① 대부분의 용어를 삭제.

2. 2차 처리 사항

- ‘띠’ 관련 용어를 일반어로 처리함.

예) 개-띠, 돼지-띠, 말-띠 등

- 잘 알려진 민속 놀이는 일반어로 처리함.

예) 그네, 달-맞이

- 잘 알려진 명절 혹은 민속 관련 날은 일반어로 처리함.

예) 복날, 단오, 웃-놀이, 추석-놀이, 화투 등

- 우리의 전통 사상, 민간 신앙과 관련된 용어는 일반어로 처리함.

예) 풍수지리학, 산신령, 주작, 청룡, 현무 등

## 『표준국어대사전』 「보건 일반」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멸균” 삭제 : 가스 멸균, 가열 멸균, 끓임 멸균. 대부분 용례가 적었고 “○○살균”으로 대체 가능해 “○○멸균”은 일괄 삭제처리.

- 용례가 부족하지만 세트를 위해 유지한 경우.

예) 냉엄법, 온엄법

예) 더운 찜질, 찬 찜질

- “○○독소” 삭제 : “○○균”에서 파생된 “○○독소”는 일괄 삭제.

예) 백일해 독소, 콜레라 독소, 파상풍 독소

### 2. 2차 처리 사항

- 보류

예) 보툴리누스(고대없음/고말뭉치) : “보툴리누스”와 “보툴리누스 균”을 둘다 넣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유보했다. 택일할 경우 네이버와 위키백과에 있는 “보툴리누스 균”(고대없음/네워있음/고말뭉치)를 유지하고 “보툴리누스”는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 불 소독, 화염 소독 : “○○소독” 세트를 다 살려놓았지만 의미가 겹치는 불 소독과 화염 소독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기에는 둘다 용례가 부족하다. 불 소독(고대없음/저말뭉치/ 말뭉치 확인 결과 ‘불소소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 소독” 용례는 확인되지 않음), 화염 소독(고대없음, 말뭉치 0)

- 잘 알려진 용어는 일반어 처리함.

예) 물리^치료, 냉-찜질, 냉-찜질하다, 병균, 식곤, 식곤-증 등

## 『표준국어대사전』 「심리」 전문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아래에 “심리학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됨”이라는 판단은 학부에서 심리학 전공했을 당시 교재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어휘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 여러 의학자, 심리학자들의 체형 및 체질에 기반한 성격 분류법 일괄 유지.

- 용례가 적고 뜻풀이에 차별적 어휘들이 많이 사용된 경우.

① “의지 감약”, “의지 결여증” : 말뭉치 용례 0, 뜻풀이에 차별적인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음 --> 삭제

② “의지 부정증”, “의지 상실증” : 고대없음, 말뭉치 0, 뜻풀이에 차별적인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음. 심리학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삭제

③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무의지증”은 유지.

- ‘방위’ (방위기제, 방위성) : 심리학에서 잘 쓰이지 않음. 대신 ‘방어’ (방어기제, 방어성)가 쓰인다.

① 자아 방위성 : 삭제

② 방위적 공세 : 삭제

③ 방위 기제 : 유지 (네워있음/고말뭉치) “방위기제”보다 “방어기제”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네워있음/고말뭉치로 분류되어 있어 유지함.

- 그 외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대체어가 존재하는 전문용어들

① 인간적 심리학 : 삭제 (“인본주의 심리학”이 더 일반적으로 쓰임)

② 경계 퍼스널리티 장애 : 삭제 (“경계선 성격장애”가 더 일반적으로 쓰임)

- 판단보류

① 기하 광학적 착시(말뭉치0) : “기하학적 착시”와 의미 동일한데 “기하 광학적 착시”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류했다.

② 무지도 요법(말뭉치 0), 무지시 요법(말뭉치 0) : 의미 동일, 둘다 용례가 없어 택일하기 어려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비지시적 요법’(유지)이 둘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③ 역학적 심리학(말뭉치 0) : “역동적 심리학”(말뭉치 0)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둘다 말뭉치가 0이지만 “정신역동학” 등의 용례로 볼 때 둘 가운데 “역동적 심리학”을 유지하고 “역학적 심리학”을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④ 제육감(위키있음/고말뭉치/고조선) : “육감”(유지)과 중복된다.

- 작업시 문제가 된 부분.

① “○○검사”, “○○테스트”로 동일한 뜻풀이가 중복 존재.

### 2. 2차 처리 사항

-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대체어가 존재하는 전문용어들

① 인간적 심리학 : 삭제 (“인본주의 심리학”이 더 일반적으로 쓰임)

② 경계 퍼스낼리티 장애 : 삭제 (“경계선 성격장애”가 더 일반적으로 쓰임)

- 지능 관련 어휘들

① “구체적 지능”은 삭제하고 동의어로 “실용적 지능”을 유지.

② “단체 지능 테스트” 삭제하고 동의어로 “단체 지능 검사” 유지.

- 상사병과 유사하지만 과거용어로 판단한 경우

① 화풍병(말뭉치 추정), 연병(네이버동형/말뭉치 추정)은 과거용어로 보아 삭제 처리

- 히스테리 성격

2차 작업시 유의할 점으로 예를 들어주신 “히스테리 성격”은 의미상으로 “히스테리 성격장애” 혹은 “연극성 성격/인격장애”에 가까우며 해당 뜻풀이 내용이 국어사전에 유지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삭제’ 처리했다.

- 잘 알려진 전문용어는 ‘일반’ 처리하였다.

예) 강박^관념, 공간^개념, 대인^공포증, 심리-학, 자아-의식 등

## 『표준국어대사전』 「어근」, 「고대없음」 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고대없음’ 목록 중 모두의 말뭉치에서 일정 용례가 확인되는 단어들은 유지 판정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

① 꿀수박(80), 개구리눈(29), 달팽이걸음(12), 독수리눈(19), 별숲(42) 등 상대적으로 모두의 말뭉치 빈도가 높은 단어

② 어휘 의미 관계 또는 형태적 관련상을 맺는 경우 유지 판정 가능성을 고려

예) 전출생 - 전입생(26) (전출생은 고대 등재어)

지려밧다 - 지르밧다(61) (지려밧다의 바른 표현)

③ 다만 아래와 같이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

계열어 중 ‘고대없음’은 조건을 생각하면 현대국어에서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모두의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경우 유지 판정을 내릴 만하다. 그러나 모두의 말뭉치 등에서도 확인되는 않는 경우 계열어라는 근거를 들어 유지 판정을 내릴 만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 -공(工) 계열어

도색공(塗色工)(15), 화배공(畵坯工)(14), 세관공(洗罐工)(7), 목각공(木刻工)(5) 등에 비하면 온돌공(溫突工)(1), 조형공(造型工)(1), 급유공(給油工)(0), 제염공(製鹽工)(0) 등 용례 확인이 안 되는 계열어의 처리

· -나물 계열어

미나리나물(23), 더덕나물(11) 등에 비하면 등꽃나물(1), 무김치나물(1), 똑갈나물(0) 등 용례 확인이 안 되는 계열어의 처리

· 늦- 계열어

늦달(20), 늦사과(3) 등에 비하면 늦호박(1), 늦곡식(1) 늦과실(0), 늦뿌리다(0), 늦익다(0) 등 용례 확인이 안 되는 계열어의 처리

· 마른- 계열어

마른세수(34)에 비하면 마른재(0), 마른찜질(0) 등 용례 확인이 안 되는 계열어 처리

### 2. 2차 처리 사항

- ‘어근’ 목록 중 명사, 부사 등 단어로서의 쓰임이 확인되는 것들은 유지 판정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

① 소위 ‘관형명사’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처리된 사례를 참고하여, ‘관형명사’적 쓰임을 보이는 ‘어근’ 판정어는 유지 판정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

예) 정밀 기계, 조속 실시

② 서술명사적 쓰임을 보이는 ‘어근’ 판정어는 유지 판정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

예) 소문 파다, 영향 미치, 기초 탄탄, 기세 등등, 만만,

③ ‘-하다’ 결합형의 동일한 의미로 조사와 결합하는 등 명사적 쓰임을 보이는 ‘어근’ 판정어는 명사로의

재규정을 고려할 만하다.

예) 멍하다                      멍을 때리다.  
    팡(烹)하다                팡을 당하다.

##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어」 분야 검토 보고서

### 1. 1차 처리 사항

- ‘일반어’ 목록은 대부분 ‘유지’ 혹은 ‘일반’ 판정이 유지될 만하다.

예) ‘일반’ 판정: ‘가입’, ‘각도’, ‘갈등’, ‘강타’, 등

예) ‘유지’ 판정: ‘가약’, ‘오줌통’, ‘온실’, ‘온열’ 등

- 일반으로 판정된 계열어가 있을 경우 ‘일반’으로 짝을 맞추었다.

예) 검찰-검찰하다-검찰되다, 겨자, 겨자씨, 견제-견제하다-견제되다

- ‘유지’로 판정된 계열어가 있을 경우 ‘유지’로 짝을 맞추었다.

예) 외교-외교하다, 요급-요급하다, 용틀임-용틀임하다

- 잘 알려진 외래어의 경우, ‘일반’ 혹은 ‘유지’ 판정하였다. 다만 ‘일반’과 ‘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작업자의 직관에 의지하였다.

예) ‘일반’ 판정: ‘게임’, ‘바나나’, ‘밴드’, ‘알코올’ 등

예) ‘유지’ 판정: ‘워밍업’, ‘아카데미’, ‘어댑터’ 등

### 2. 2차 처리 사항

- ‘일반어’ 목록 중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 것은 ‘보류’ 처리하였다.

예) 곤륜, 곤마, 골수, 내시, 비자, 서원 등

- ‘일반어’ 목록 중 현재 잘 쓰이지 않는 용어는 ‘보류’ 처리하였다.

예) 가년, 가년하다, 개동군령 등

- ‘일반어’ 목록 중 현재 사라진 개념은 ‘보류’ 처리 하였다.

예) 신분제의 용어들: 천민

예) 옛날 벼슬들: 백작, 남작, 오작, 후작, 공 등

- ‘일반어’ 목록 중 우리 사전에 실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삭제’하였다.

예) 간장-막아

- 성씨의 경우 ‘삭제’하였다.

예) 시, 자



「부록 2」 우리말샘 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선정 목록

일련 번호	어휘(기호없음)	어휘	구성 단위	고유어 여부	원어	품사
001	학생부	학생-부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002	학생부	학생-부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003	학생부	학생-부	단어	한자어	學生部	「명사」
004	학생부	학생-부	단어	한자어	學生簿	「명사」
005	앱	앱	단어	외래어	app	「명사」
006	그러니	그러니	단어	고유어	그러니	「부사」
007	본부장	본부-장	단어	한자어	本部長	「명사」
008	아름다움	아름다움	단어	고유어	아름다움	「명사」
009	아름다움	아름다움	단어	고유어	아름다움	「명사」
010	조선인	조선-인	단어	한자어	朝鮮人	「명사」
011	웹툰	웹툰	단어	외래어	webtoon	「명사」
012	한국군	한국-군	단어	한자어	韓國軍	「명사」
013	실제적	실제-적	단어	한자어	實際的	「관·명」
014	남자 친구	남자 친구	구	한자어	男子親舊	「명사」
015	갑질	갑-질	단어	혼종어	甲질	「명사」
016	진정성	진정-성	단어	한자어	真正性	「명사」
017	모바일	모바일	단어	외래어	mobile	「명사」
018	자영업자	자영업-자	단어	한자어	自營業者	「명사」
019	시민 단체	시민 단체	구	한자어	市民團體	「명사」
020	공공 기관	공공^기관	구	한자어	公共機關	「명사」
021	지역별	지역-별	단어	한자어	地域別	「명사」
022	포털	포털	단어	외래어	portal	「명사」
023	소속사	소속-사	단어	한자어	所屬社	「명사」
024	소속사	소속-사	단어	한자어	所屬社	「명사」
025	북한군	북한-군	단어	한자어	北韓軍	「명사」
026	지지도	지지-도	단어	한자어	支持度	「명사」
027	소상공인	소-상공인	단어	한자어	小商工人	「명사」
028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단어	한자어	中高等學校	「명사」
029	빅뱅	빅뱅	단어	외래어	Big Bang	「명사」
030	빅뱅	빅뱅	단어	외래어	Big Bang	「명사」
031	다큐	다큐	단어	외래어	←documentary	「명사」
032	셰프	셰프	단어	외래어	chef	「명사」
033	전기 차	전기^차	구	한자어	電氣車	「명사」
034	합의문	합의-문	단어	한자어	合意文	「명사」

035	합의문	합의-문	단어	한자어	合意文	「명사」
036	지검장	지검-장	단어	한자어	地檢長	「명사」
037	연구소장	연구소-장	단어	한자어	研究所長	「명사」
038	항산화	항-산화	단어	한자어	抗酸化	「명사」
039	로스쿨	로-스쿨	단어	외래어	law school	「명사」
040	생중계	생-중계	단어	한자어	生中繼	「명사」
041	경찰서장	경찰서-장	단어	한자어	警察署長	「명사」
042	반복적	반복-적	단어	한자어	反復的	「관·명」
043	저출산	저-출산	단어	한자어	低出產	「명사」
044	제조업체	제조-업체	단어	한자어	製造業體	「명사」
045	레시피	레시피	단어	외래어	recipe	「명사」
046	보험사	보험-사	단어	한자어	保險社	「명사」
047	자존감	자존-감	단어	한자어	自尊心	「명사」
048	개혁안	개혁-안	단어	한자어	改革案	「명사」
049	스펙	스펙	단어	외래어	spec	「명사」
050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단어	한자어	自己紹介書	「명사」
051	건물주	건물-주	단어	한자어	建物主	「명사」
052	투명성	투명-성	단어	한자어	透明性	「명사」
053	건설업체	건설-업체	단어	한자어	建設業體	「명사」
054	친인척	친-인척	단어	한자어	親姻戚	「명사」
055	특활비	특활-비	단어	한자어	特活費	「명사」
056	견과류	견과-류	단어	한자어	堅果類	「명사」
057	기획사	기획-사	단어	한자어	企劃社	「명사」
058	재보선	재-보선	단어	한자어	再補選	「명사」
059	협업체	협외-체	단어	한자어	協議體	「명사」
060	일반부	일반-부	단어	한자어	一般部	「명사」
061	분야별	분야-별	단어	한자어	分野別	「명사」
062	개편안	개편-안	단어	한자어	改編案	「명사」
063	연령대	연령-대	단어	한자어	年齡帶	「명사」
064	청양고추	청양-고추	단어	혼종어	靑陽고추	「명사」
065	멘토	멘토	단어	외래어	mentor	「명사」
066	음모론	음모-론	단어	한자어	陰謀論	「명사」
067	유교적	유교-적	단어	한자어	儒敎的	「관·명」
068	리서치	리서치	단어	외래어	research	「명사」
069	개인 정보	개인^정보	구	한자어	個人情報	「명사」
070	의료원	의료-원	단어	한자어	醫療院	「명사」
071	병원비	병원-비	단어	한자어	病院費	「명사」
072	협회장	협회-장	단어	한자어	協會長	「명사」
073	업종별	업종-별	단어	한자어	業種別	「명사」

074	대통합	대-통합	단어	한자어	大統合	「명사」
075	올인	올-인	단어	외래어	all in	「명사」
076	올인	올-인	단어	외래어	all in	「명사」
077	최측근	최-측근	단어	한자어	最側近	「명사」
078	최측근	최-측근	단어	한자어	最側近	「명사」
079	자주성	자주-성	단어	한자어	自主性	「명사」
080	교육원	교육-원	단어	한자어	教育院	「명사」
081	헬스장	헬스-장	단어	혼종어	health場	「명사」
082	연구원장	연구원-장	단어	한자어	研究院長	「명사」
083	주변국	주변-국	단어	한자어	周邊國	「명사」
084	기름값	기름-값	단어	고유어	기름-값	「명사」
085	책임론	책임-론	단어	한자어	責任論	「명사」
086	대화록	대화-록	단어	한자어	對話錄	「명사」
087	수상작	수상-작	단어	한자어	受賞作	「명사」
088	아싸	아싸	단어	고유어	아싸	「감탄사」
089	특성화	특성-화	단어	한자어	特性化	「명사」
090	선제적	선제-적	단어	한자어	先制的	「관·명」
091	다이어트하다	다이어트-하다	단어	혼종어	diet하다	「동사」
092	이데올로기적	이데올로기-적	단어	혼종어	Ideologie的	「관·명」
093	중도층	중도-층	단어	한자어	中道層	「명사」
094	단계별	단계-별	단어	한자어	段階別	「명사」
095	시공사	시공-사	단어	한자어	施工社	「명사」
096	최고치	최고-치	단어	한자어	最高値	「명사」
097	작품전	작품-전	단어	한자어	作品展	「명사」
098	악의적	악의-적	단어	한자어	惡意的	「관·명」
099	공천권	공천-권	단어	한자어	公薦權	「명사」
100	절차적	절차-적	단어	한자어	節次的	「관·명」
101	수평적	수평-적	단어	한자어	水平的	「관·명」
102	보유세	보유-세	단어	한자어	保有稅	「명사」
103	유명인	유명-인	단어	한자어	有名人	「명사」
104	초당적	초당-적	단어	한자어	超黨的	「관·명」
105	가속화되다	가속화-되다	단어	혼종어	加速化되다	「동사」
106	진실되다	진실-되다	단어	혼종어	眞實되다	「형용사」
107	우수상	우수-상	단어	한자어	優秀賞	「명사」
108	전단지	전단-지	단어	한자어	傳單紙	「명사」
109	특기자	특기-자	단어	한자어	特技者	「명사」
110	상담실	상담-실	단어	한자어	相談室	「명사」
111	정무적	정무-적	단어	한자어	政務的	「관·명」
112	납북자	납북-자	단어	한자어	拉北者	「명사」

113	실무진	실무-진	단어	한자어	實務陣	「명사」
114	가성비	가성-비	단어	한자어	價性比	「명사」
115	참여자	참여-자	단어	한자어	參與者	「명사」
116	탈북민	탈북-민	단어	한자어	脫北民	「명사」
117	연예가	연예-가	단어	한자어	演藝街	「명사」
118	공중파	공중-파	단어	한자어	公衆波	「명사」
119	공학적	공학-적	단어	한자어	工學的	「관·명」
120	연구진	연구-진	단어	한자어	研究陣	「명사」
121	봉사단	봉사-단	단어	한자어	奉仕團	「명사」
122	합의안	합의-안	단어	한자어	合意案	「명사」
123	국간장	국-간장	단어	혼종어	국간醬	「명사」
124	연장선상	연장선-상	단어	한자어	延長線上	「명사」
125	입장문	입장-문	단어	한자어	立場文	「명사」
126	전공자	전공-자	단어	한자어	專攻者	「명사」
127	웰빙	웰빙	단어	외래어	well-being	「명사」
128	카드사	카드-사	단어	혼종어	card社	「명사」
129	조사관	조사-관	단어	한자어	調査官	「명사」
130	중위권	중위-권	단어	한자어	中位圈	「명사」
131	무속인	무속-인	단어	한자어	巫俗人	「명사」
132	편의상	편의-상	단어	한자어	便宜上	「명사」
133	추종자	추종-자	단어	한자어	追從者	「명사」
134	추종자	추종-자	단어	한자어	追從者	「명사」
135	관리실	관리-실	단어	한자어	管理室	「명사」
136	관리실	관리-실	단어	한자어	管理室	「명사」
137	신화적	신화-적	단어	한자어	神話的	「관·명」
138	외부인	외부-인	단어	한자어	外部人	「명사」
139	외부인	외부-인	단어	한자어	外部人	「명사」
140	심층적	심층-적	단어	한자어	深層的	「관·명」
141	업무용	업무-용	단어	한자어	業務用	「명사」
142	중장기	중-장기	단어	한자어	中長期	「명사」
143	권력형	권력-형	단어	한자어	權力型	「명사」
144	재신임	재-신임	단어	한자어	再信任	「명사」
145	중고교	중-고교	단어	한자어	中高校	「명사」
146	알람	알람	단어	외래어	alarm	「명사」
147	한마당	한-마당	단어	고유어	한-마당	「명사」
148	민족주의적	민족주의-적	단어	한자어	民族主義的	「관·명」
149	상한제	상한-제	단어	한자어	上限制	「명사」
150	심혈관	심-혈관	단어	한자어	心血管	「명사」
151	거부되다	거부-되다	단어	혼종어	拒否되다	「동사」

152	미드필더	미드필더	단어	외래어	midfielder	「명사」
153	전자 상거래	전자^상거래	구	한자어	電子商去來	「명사」
154	과목별	과목-별	단어	한자어	科目別	「명사」
155	투자금	투자-금	단어	한자어	投資金	「명사」
156	보완책	보완-책	단어	한자어	補完策	「명사」
157	발효액	발효-액	단어	한자어	醱酵液	「명사」
158	지원책	지원-책	단어	한자어	支援策	「명사」
159	상담사	상담-사	단어	한자어	相談士	「명사」
160	열애설	열애-설	단어	한자어	熱愛說	「명사」
161	응답률	응답-률	단어	한자어	應答率	「명사」
162	체력적	체력-적	단어	한자어	體力的	「관·명」
163	단톡방	단톡-방	단어	혼종어	團←talk房	「명사」
164	친화적	친화-적	단어	한자어	親和的	「관·명」
165	반부패	반-부패	단어	한자어	反腐敗	「명사」
166	목표액	목표-액	단어	한자어	目標額	「명사」
167	쓰나미	쓰나미	단어	외래어	tsunami[津波]	「명사」
168	셀카	셀카	단어	외래어	←self camera	「명사」
169	스토킹	스토킹	단어	외래어	stalking	「명사」
170	연령별	연령-별	단어	한자어	年齡別	「명사」
171	외국계	외국-계	단어	한자어	外國系	「명사」
172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단어	외래어	storytelling	「명사」
173	개선안	개선-안	단어	한자어	改善案	「명사」
174	친엄마	친-엄마	단어	혼종어	親엄마	「명사」
175	패티	패티	단어	외래어	patty	「명사」
176	심의관	심의-관	단어	한자어	審議官	「명사」
177	이분법적	이분법-적	단어	한자어	二分法的	「관·명」
178	참가비	참가-비	단어	한자어	參加費	「명사」
179	대가성	대가-성	단어	한자어	代價性	「명사」
180	책임제	책임-제	단어	한자어	責任制	「명사」
181	경유 차	경유 차	구	한자어	輕油車	「명사」
182	고용률	고용-률	단어	한자어	雇傭率	「명사」
183	공산당원	공산당-원	단어	한자어	共產黨員	「명사」
184	문화제	문화-제	단어	한자어	文化祭	「명사」
185	생산업체	생산-업체	단어	한자어	生產業體	「명사」
186	신인상	신인-상	단어	한자어	新人賞	「명사」
187	범국민적	범-국민적	단어	한자어	汎國民的	「관·명」
188	체류자	체류-자	단어	한자어	滯留者	「명사」
189	접근법	접근-법	단어	한자어	接近法	「명사」
190	신군부	신-군부	단어	한자어	新軍部	「명사」

191	인상안	인상-안	단어	한자어	引上案	「명사」
192	관리소	관리-소	단어	한자어	管理所	「명사」
193	생계형	생계-형	단어	한자어	生計型	「명사」
194	무게감	무게-감	단어	혼종어	무게感	「명사」
195	무게감	무게-감	단어	혼종어	무게感	「명사」
196	비혼	비혼	단어	한자어	非婚	「명사」
197	품목별	품목-별	단어	한자어	品目別	「명사」
198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단어	혼종어	尊敬스럽다	「동사」
199	사기범	사기-범	단어	한자어	詐欺犯	「명사」
200	퇴행성	퇴행-성	단어	한자어	退行性	「명사」
201	기획단	기획-단	단어	한자어	企劃團	「명사」
202	총연맹	총-연맹	단어	한자어	總聯盟	「명사」
203	신년도	신년-도	단어	한자어	新年度	「명사」
204	탈북하다	탈북-하다	단어	혼종어	脫北하다	「동사」
205	공천자	공천-자	단어	한자어	公薦者	「명사」
206	자살률	자살-률	단어	한자어	自殺率	「명사」
207	분양권	분양-권	단어	한자어	分讓權	「명사」
208	콜센터	콜-센터	단어	외래어	call center	「명사」
209	침해되다	침해-되다	단어	혼종어	侵害되다	「동사」
210	서구식	서구-식	단어	한자어	西歐式	「명사」
211	투영되다	투영-되다	단어	혼종어	投影되다	「동사」
212	권역별	권역-별	단어	한자어	圈域別	「명사」
213	비호감	비-호감	단어	한자어	非好感	「명사」
214	영향권	영향-권	단어	한자어	影響圈	「명사」
215	인공기	인공-기	단어	한자어	人共旗	「명사」
216	생중계하다	생중계-하다	단어	혼종어	生中繼하다	「동사」
217	연극제	연극-제	단어	한자어	演劇祭	「명사」
218	기획자	기획-자	단어	한자어	企劃者	「명사」
219	비폭력	비-폭력	단어	한자어	非暴力	「명사」
220	최우수상	최우수-상	단어	한자어	最優秀賞	「명사」
221	킥보드	킥-보드	단어	외래어	kick-board	「명사」
222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단어	외래어	hybrid	「명사」
223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단어	외래어	hybrid	「명사」
224	캐시	캐시	단어	외래어	cash	「명사」
225	잡내	잡-내	단어	혼종어	雜內	「명사」
226	참모진	참모-진	단어	한자어	參謀陣	「명사」
227	대목수	대-목수	단어	한자어	大木手	「명사」
228	핑크색	핑크-색	단어	혼종어	pink色	「명사」
229	기획실	기획-실	단어	한자어	企劃室	「명사」

230	목회자	목회-자	단어	한자어	牧會者	「명사」
231	구입비	구입-비	단어	한자어	購入費	「명사」
232	국가별	국가-별	단어	한자어	國家別	「명사」
233	공익적	공익-적	단어	한자어	公益的	「관·명」
234	에이전트	에이전트	단어	외래어	agent	「명사」
235	책임성	책임-성	단어	한자어	責任性	「명사」
236	평가단	평가-단	단어	한자어	評價團	「명사」
237	비준안	비준-안	단어	한자어	批准案	「명사」
238	신고서	신고-서	단어	한자어	申告書	「명사」
239	개헌론	개헌-론	단어	한자어	改憲論	「명사」
240	비급여	비-급여	단어	한자어	非給與	「명사」
241	연도별	연도-별	단어	한자어	年度別	「명사」
242	기여도	기여-도	단어	한자어	寄與度	「명사」
243	주최국	주최-국	단어	한자어	主催國	「명사」
244	효율화	효율-화	단어	한자어	效率化	「명사」
245	학원비	학원-비	단어	한자어	學院費	「명사」
246	비영리	비-영리	단어	한자어	非營利	「명사」
247	신용도	신용-도	단어	한자어	信用度	「명사」
248	시행사	시행-사	단어	한자어	施行社	「명사」
249	출품작	출품-작	단어	한자어	出品作	「명사」
250	잠재되다	잠재-되다	단어	혼종어	潛在되다	「동사」
251	효용성	효용-성	단어	한자어	效用性	「명사」
252	해임안	해임-안	단어	한자어	解任案	「명사」
253	맛간장	맛-간장	단어	혼종어	맛간醬	「명사」
254	반공주의	반공-주의	단어	한자어	反共主義	「명사」
255	일반고	일반-고	단어	한자어	一般高	「명사」
256	테러범	테러-범	단어	혼종어	terror犯	「명사」
257	손해액	손해-액	단어	한자어	損害額	「명사」
258	온라인상	온라인-상	단어	혼종어	on-line上	「명사」
259	색깔론	색깔-론	단어	혼종어	色갈論	「명사」
260	으이구	으이구	단어	고유어	으이구	「감탄사」
261	으이구	으이구	단어	고유어	으이구	「감탄사」
262	으이구	으이구	단어	고유어	으이구	「감탄사」
263	내용상	내용-상	단어	한자어	內容上	「명사」
264	기획안	기획-안	단어	한자어	企劃案	「명사」
265	물건값	물건-값	단어	혼종어	物件값	「명사」
266	총상금	총-상금	단어	한자어	總賞金	「명사」
267	보호소	보호-소	단어	한자어	保護所	「명사」
268	좌석 버스	좌석 버스	구	혼종어	座席bus	「명사」

269	행정상	행정-상	단어	한자어	行政上	「명사」
270	결정전	결정-전	단어	한자어	決定戰	「명사」
271	제도상	제도-상	단어	한자어	制度上	「명사」
272	운영권	운영-권	단어	한자어	運營權	「명사」
273	재창출	재-창출	단어	한자어	再創出	「명사」
274	차별성	차별-성	단어	한자어	差別性	「명사」
275	캠핑장	캠핑-장	단어	혼종어	camping場	「명사」
276	충전소	충전-소	단어	한자어	充填所	「명사」
277	개최국	개최-국	단어	한자어	開催國	「명사」
278	대상국	대상-국	단어	한자어	對象國	「명사」
279	서류상	서류-상	단어	한자어	書類上	「명사」
280	시설비	시설-비	단어	한자어	施設費	「명사」
281	고의성	고의-성	단어	한자어	故意性	「명사」
282	개인주의적	개인주의-적	단어	한자어	個人主義的	「관·명」
283	전방위적	전방위-적	단어	한자어	全方位的	「관·명」
284	지양되다	지양-되다	단어	혼종어	止揚되다	「동사」
285	선출직	선출-직	단어	한자어	選出職	「명사」
286	비화되다	비화-되다	단어	혼종어	飛火되다	「동사」
287	승부욕	승부-욕	단어	한자어	勝負欲	「명사」
288	체험관	체험-관	단어	한자어	體驗館	「명사」
289	최종안	최종-안	단어	한자어	最終案	「명사」
290	활용도	활용-도	단어	한자어	活用度	「명사」
291	개인용	개인-용	단어	한자어	個人用	「명사」
292	임원진	임원-진	단어	한자어	任員陣	「명사」
293	출마자	출마-자	단어	한자어	出馬者	「명사」
294	교육용	교육-용	단어	한자어	教育用	「명사」
295	항목별	항목-별	단어	한자어	項目別	「명사」
296	수임료	수임-료	단어	한자어	授任料	「명사」
297	수임료	수임-료	단어	한자어	受任料	「명사」
298	전체주의적	전체주의-적	단어	한자어	全體主義的	「관·명」
299	신무기	신-무기	단어	한자어	新武器	「명사」
300	사용처	사용-처	단어	한자어	使用處	「명사」
301	수출업체	수출-업체	단어	한자어	輸出業體	「명사」
302	공해상	공해-상	단어	한자어	公海上	「명사」
303	전망치	전망-치	단어	한자어	展望値	「명사」
304	미등록	미-등록	단어	한자어	未登錄	「명사」
305	미등록	미-등록	단어	한자어	未登錄	「명사」
306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단어	한자어	中高等學生	「명사」
307	공포스럽다	공포-스럽다	단어	혼종어	恐怖스럽다	「동사」



308	관여되다	관여-되다	단어	혼종어	關與되다	「동사」
309	추구되다	추구-되다	단어	혼종어	追求되다	「동사」
310	간장게장	간장-게장	단어	혼종어	간醬게醬	「명사」
311	국내외적	국내외-적	단어	한자어	國內外的	「관·명」
312	위기설	위기-설	단어	한자어	危機說	「명사」
313	전문인	전문-인	단어	한자어	專門人	「명사」
314	운동법	운동-법	단어	한자어	運動法	「명사」
315	고민되다	고민-되다	단어	혼종어	苦悶되다	「동사」
316	범여권	범-여권	단어	한자어	汎與圈	「명사」
317	퇴출되다	퇴출-되다	단어	혼종어	退出되다	「동사」
318	인턴십	인턴십	단어	외래어	internship	「명사」
319	중재안	중재-안	단어	한자어	仲裁案	「명사」
320	취업난	취업-난	단어	한자어	就業難	「명사」
321	모색되다	모색-되다	단어	혼종어	摸索되다	「동사」
322	상영관	상영-관	단어	한자어	上映館	「명사」
323	캡처	캡처	단어	외래어	capture	「명사」
324	우선되다	우선-되다	단어	혼종어	優先되다	「동사」
325	지구인	지구-인	단어	한자어	地球人	「명사」
326	현상적	현상-적	단어	한자어	現象的	「관·명」
327	남성성	남성-성	단어	한자어	男性性	「명사」
328	우울감	우울-감	단어	한자어	憂鬱感	「명사」
329	확진자	확진-자	단어	한자어	確診者	「명사」
330	개막전	개막-전	단어	한자어	開幕戰	「명사」
331	상용화	상용-화	단어	한자어	常用化	「명사」
332	강훈	강훈	단어	한자어	強訓	「명사」
333	교통 카드	교통^카드	구	혼종어	交通card	「명사」
334	분기별	분기-별	단어	한자어	分期別	「명사」
335	협상안	협상-안	단어	한자어	協商案	「명사」
336	직무상	직무-상	단어	한자어	職務上	「명사」
337	중후반	중-후반	단어	한자어	中後半	「명사」
338	운영상	운영-상	단어	한자어	運營上	「명사」
339	소득자	소득-자	단어	한자어	所得者	「명사」
340	형사상	형사-상	단어	한자어	刑事上	「명사」
341	매매가	매매-가	단어	한자어	賣買價	「명사」
342	상향식	상향-식	단어	한자어	上向式	「명사」
343	고위험	고-위험	단어	한자어	高危險	「명사」
344	공격용	공격-용	단어	한자어	攻擊用	「명사」
345	국밥집	국밥-집	단어	고유어	국밥-집	「명사」
346	외국군	외국-군	단어	한자어	外國軍	「명사」

347	전산화	전산-화	단어	한자어	電算化	「명사」
348	민법상	민법-상	단어	한자어	民法上	「명사」
349	활용법	활용-법	단어	한자어	活用法	「명사」
350	사육사	사육-사	단어	한자어	飼育士	「명사」
351	신분제	신분-제	단어	한자어	身分制	「명사」
352	시도지사	시-도지사	단어	한자어	市道知事	「명사」
353	극대화되다	극대화-되다	단어	혼종어	極大化되다	「동사」
354	줄임 말	줄임^말	구	고유어	줄임^말	「명사」
355	체질적	체질-적	단어	한자어	體質的	「관·명」
356	극한적	극한-적	단어	한자어	極限的	「관·명」
357	사장단	사장-단	단어	한자어	社長團	「명사」
358	세트장	세트-장	단어	혼종어	set場	「명사」
359	싱크홀	싱크홀	단어	외래어	sinkhole	「명사」
360	공보부	공보-부	단어	한자어	公報部	「명사」
361	진보층	진보-층	단어	한자어	進步層	「명사」
362	랜드마크	랜드마크	단어	외래어	landmark	「명사」
363	방어권	방어-권	단어	한자어	防禦權	「명사」
364	주도형	주도-형	단어	한자어	主導型	「명사」
365	질환자	질환-자	단어	한자어	疾患者	「명사」
366	기고문	기고-문	단어	한자어	寄稿文	「명사」
367	화제작	화제-작	단어	한자어	話題作	「명사」
368	사후적	사후-적	단어	한자어	事後的	「명사」
369	규정상	규정-상	단어	한자어	規定上	「명사」
370	조사실	조사-실	단어	한자어	調査室	「명사」
371	전담반	전담-반	단어	한자어	專擔班	「명사」
372	정규직화	정규직-화	단어	한자어	正規職化	「명사」
373	학년별	학년-별	단어	한자어	學年別	「명사」
374	수련원	수련-원	단어	한자어	修鍊院	「명사」
375	공천제	공천-제	단어	한자어	公薦制	「명사」
376	감싸 안다	감싸 안다	구	고유어	감싸 안다	「동사」
377	감싸 안다	감싸 안다	구	고유어	감싸 안다	「동사」
378	기득권층	기득권-층	단어	한자어	既得權層	「명사」
379	무당파	무-당파	단어	한자어	無黨派	「명사」
380	음악원	음악-원	단어	한자어	音樂院	「명사」
381	인지적	인지-적	단어	한자어	認知的	「관·명」
382	타이틀곡	타이틀-곡	단어	혼종어	title曲	「명사」
383	수준별	수준-별	단어	한자어	水準別	「명사」
384	주제별	주제-별	단어	한자어	主題別	「명사」
385	통수권자	통수권-자	단어	한자어	統帥權者	「명사」

386	파급력	파급-력	단어	한자어	波及力	「명사」
387	피안타	피-안타	단어	한자어	被安打	「명사」
388	학생회장	학생회-장	단어	한자어	學生會長	「명사」
389	공업사	공업-사	단어	한자어	工業社	「명사」
390	고소득자	고소득-자	단어	한자어	高所得者	「명사」
391	공감되다	공감-되다	단어	혼종어	共感되다	「동사」
392	음식값	음식-값	단어	혼종어	飲食값	「명사」
393	회원사	회원-사	단어	한자어	會員社	「명사」
394	원칙론	원칙-론	단어	한자어	原則論	「명사」
395	의도되다	의도-되다	단어	혼종어	意圖되다	「동사」
396	서열화	서열-화	단어	한자어	序列化	「관·명」
397	이율배반적	이율배반-적	단어	한자어	二律背反的	「명사」
398	회장실	회장-실	단어	한자어	會長室	「명사」
399	홍보실	홍보-실	단어	한자어	弘報室	「명사」
400	차단제	차단-제	단어	한자어	遮斷劑	「명사」
401	중불	중-불	단어	혼종어	中불	「명사」
402	국산 차	국산 차	구	한자어	國產車	「명사」
403	민박집	민박-집	단어	혼종어	民泊집	「명사」
404	과학고	과학-고	단어	한자어	科學高	「명사」
405	방폐장	방폐-장	단어	한자어	放廢場	「명사」
406	보장성	보장-성	단어	한자어	保障性	「명사」
407	대이동	대-이동	단어	한자어	大移動	「명사」
408	방송용	방송-용	단어	한자어	放送用	「명사」
409	신산업	신-산업	단어	한자어	新產業	「명사」
410	의장직	의장-직	단어	한자어	議長職	「명사」
411	합격생	합격-생	단어	한자어	合格生	「명사」
412	농업인	농업-인	단어	한자어	農業人	「명사」
413	작전권	작전-권	단어	한자어	作戰權	「명사」
414	구조대원	구조대-원	단어	한자어	救助隊員	「명사」
415	세대별	세대-별	단어	한자어	世代別	「명사」
416	평가제	평가-제	단어	한자어	評價制	「명사」
417	주거용	주거-용	단어	한자어	住居用	「명사」
418	단임제	단임-제	단어	한자어	單任制	「명사」
419	득점왕	득점-왕	단어	한자어	得點王	「명사」
420	반독재	반-독재	단어	한자어	反獨裁	「명사」
421	신청사	신-청사	단어	한자어	新廳舍	「명사」
422	최장수	최-장수	단어	한자어	最長壽	「명사」
423	추천제	추천-제	단어	한자어	推薦制	「명사」
424	만찬장	만찬-장	단어	한자어	晚餐場	「명사」

425	정형화되다	정형화-되다	단어	혼종어	定型化되다	「동사」
426	총규모	총-규모	단어	한자어	總規模	「명사」
427	탈근대	탈-근대	단어	한자어	脫近代	「명사」
428	관례적	관례-적	단어	한자어	慣例的	「관·명」
429	노후되다	노후-되다	단어	혼종어	老朽되다	「동사」
430	고객 센터	고객 센터	구	혼종어	顧客center	「명·명」
431	농성장	농성-장	단어	한자어	籠城場	「명사」
432	모병제	모병-제	단어	한자어	募兵制	「명사」
433	원유가	원유-가	단어	한자어	原油價	「명사」
434	정파적	정파-적	단어	한자어	政派的	「관·명」
435	계좌 번호	계좌^번호	구	한자어	計座番號	품사 없음
436	상업용	상업-용	단어	한자어	商業用	「명사」
437	개봉작	개봉-작	단어	한자어	開封作	「명사」
438	기획전	기획-전	단어	한자어	企劃展	「명사」
439	비문학	비-문학	단어	한자어	非文學	「명사」
440	성장론	성장-론	단어	한자어	成長論	「명사」
441	비판자	비판-자	단어	한자어	批判者	「명사」
442	압축적	압축-적	단어	한자어	壓縮的	「관·명」
443	압축적	압축-적	단어	한자어	壓縮的	「관·명」
444	압축적	압축-적	단어	한자어	壓縮的	「관·명」
445	대사건	대-사건	단어	한자어	大事件	「명사」
446	위기론	위기-론	단어	한자어	危機論	「명사」
447	포용적	포용-적	단어	한자어	包容的	「관·명」
448	농심	농심	단어	한자어	農心	「명사」
449	저항적	저항-적	단어	한자어	抵抗的	「관·명」
450	학습법	학습-법	단어	한자어	學習法	「명사」
451	신재생	신-재생	단어	한자어	新再生	「명사」
452	원칙상	원칙-상	단어	한자어	原則上	「명사」
453	지회장	지회-장	단어	한자어	支會長	「명사」
454	집필자	집필-자	단어	한자어	執筆者	「명사」
455	초국적	초-국적	단어	한자어	超國籍	「명사」
456	고비용	고-비용	단어	한자어	高費用	「명사」
457	왕복선	왕복-선	단어	한자어	往復船	「명사」
458	학과장	학과-장	단어	한자어	學科長	「명사」
459	재사용	재-사용	단어	한자어	再使用	「명사」
460	해고자	해고-자	단어	한자어	解雇者	「명사」
461	교육생	교육-생	단어	한자어	教育生	「명사」
462	귀국길	귀국-길	단어	혼종어	歸國길	「명사」
463	기만적	기만-적	단어	한자어	欺瞞的	「관·명」

464	도서전	도서-전	단어	한자어	圖書展	「명사」
465	실험용	실험-용	단어	한자어	實驗用	「명사」
466	양꼬치	양-꼬치	단어	혼종어	羊꼬치	「명사」
467	관계성	관계-성	단어	한자어	關係性	「명사」
468	신품종	신-품종	단어	한자어	新品種	「명사」
469	외교력	외교-력	단어	한자어	外交力	「명사」
470	무력화하다	무력화-하다	단어	혼종어	無力化하다	「동사」
471	상황극	상황-극	단어	한자어	狀況劇	「명사」
472	고시생	고시-생	단어	한자어	考試生	「명사」
473	반대론자	반대론-자	단어	한자어	反對論者	「명사」
474	선명성	선명-성	단어	한자어	鮮明性	「명사」
475	재탄생하다	재탄생-하다	단어	혼종어	再誕生하다	「동사」
476	기관별	기관-별	단어	한자어	機關別	「명사」
477	세미나실	세미나-실	단어	혼종어	seminar室	「명사」
478	중세적	중세-적	단어	한자어	中世的	「관·명」
479	바우처	바우처	단어	외래어	voucher	「명사」
480	해결안	해결-안	단어	한자어	解決案	「명사」
481	보육료	보육-료	단어	한자어	保育料	「명사」
482	태생적	태생-적	단어	한자어	胎生的	「관·명」
483	무력화되다	무력화-되다	단어	혼종어	無力化되다	「동사」
484	인상분	인상-분	단어	한자어	引上分	「명사」
485	방송 작가	방송^작가	구	한자어	放送作家	품사 없음
486	위반죄	위반-죄	단어	한자어	違反罪	「명사」
487	학원가	학원-가	단어	한자어	學院街	「명사」
488	학원가	학원-가	단어	한자어	學院街	「명사」
489	혼외자	혼외-자	단어	한자어	婚外子	「명사」
490	확률적	확률-적	단어	한자어	確率的	「관·명」
491	언어학적	언어학-적	단어	한자어	言語學的	「관·명」
492	지원비	지원-비	단어	한자어	支援費	「명사」
493	사업부	사업-부	단어	한자어	事業部	「명사」
494	성장 동력	성장 동력	구	한자어	成長動力	품사 없음
495	시대별	시대-별	단어	한자어	時代別	「명사」
496	적절성	적절-성	단어	한자어	適切性	「명사」
497	휴가지	휴가-지	단어	한자어	休暇地	「명사」
498	과로사	과로-사	단어	한자어	過勞死	「명사」
499	오피니언	오피니언	단어	외래어	opinion	「명사」
500	핑크빛	핑크-빛	단어	혼종어	pink빛	「명사」
501	핑크빛	핑크-빛	단어	혼종어	pink빛	「명사」
502	암시적	암시-적	단어	한자어	暗示的	「관·명」

503	자문단	자문-단	단어	한자어	諮問團	「명사」
504	장식용	장식-용	단어	한자어	裝飾用	「명사」
505	영입되다	영입-되다	단어	혼종어	迎入되다	「동사」
506	초등생	초등-생	단어	한자어	初等生	「명사」
507	회원제	회원-제	단어	한자어	會員制	「명사」
508	시리얼	시리얼	단어	외래어	cereal	「명사」
509	의미적	의미-적	단어	한자어	意味的	「관·명」
510	재진입	재-진입	단어	한자어	再進入	「명사」
511	미술전	미술-전	단어	한자어	美術展	「명사」
512	선물용	선물-용	단어	한자어	膳物用	「명사」
513	엠바고	엠바고	단어	외래어	embargo	「명사」
514	고단백	고-단백	단어	한자어	高蛋白	「명사」
515	닭강정	닭-강정	단어	고유어	닭강정	「명사」
516	동점자	동점-자	단어	한자어	同點者	「명사」
517	등기부 등본	등기부 <sup>△</sup> 등본	구	한자어	登記簿謄本	품사 없음
518	최고위급	최고위-급	단어	한자어	最高位級	「명사」
519	급발진	급-발진	단어	한자어	急發進	「명사」
520	유연화	유연-화	단어	한자어	柔軟化	「명사」
521	집합적	집합-적	단어	한자어	集合的	「관·명」
522	차고지	차고-지	단어	한자어	車庫地	「명사」
523	개념화	개념-화	단어	한자어	概念化	「명사」
524	인사상	인사-상	단어	한자어	人事上	「명사」
525	화제성	화제-성	단어	한자어	話題性	「명사」
526	사기단	사기-단	단어	한자어	詐欺團	「명사」
527	사업적	사업-적	단어	한자어	事業的	「관·명」
528	가입국	가입-국	단어	한자어	加入國	「명사」
529	뒷담화	뒷-담화	단어	혼종어	뒷談話	「명사」
530	사정권	사정-권	단어	한자어	射程圈	「명사」
531	사정권	사정-권	단어	한자어	射程圈	「명사」
532	산책길	산책-길	단어	혼종어	散策길	「명사」
533	성인용	성인-용	단어	한자어	成人用	「명사」
534	시장통	시장-통	단어	한자어	市場通	「명사」
535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	단어	한자어	理想主義者	「명사」
536	인재상	인재-상	단어	한자어	人材像	「명사」
537	증가액	증가-액	단어	한자어	增加額	「명사」
538	고령층	고령-층	단어	한자어	高齡層	「명사」
539	나이대	나이-대	단어	혼종어	나이帶	「명사」
540	정유사	정유-사	단어	한자어	精油社	「명사」
541	직업별	직업-별	단어	한자어	職業別	「명사」

542	대칭성	대칭-성	단어	한자어	對稱性	「명사」
543	도시형	도시-형	단어	한자어	都市型	「명사」
544	시행자	시행-자	단어	한자어	施行者	「명사」
545	의학상	의학-상	단어	한자어	醫學賞	「명사」
546	공공적	공공-적	단어	한자어	公共的	「관·명」
547	금수저	금-수저	단어	혼종어	金수저	「명사」
548	금수저	금-수저	단어	혼종어	金수저	「명사」
549	방어용	방어-용	단어	한자어	防禦用	「명사」
550	체험적	체험-적	단어	한자어	體驗的	「관·명」
551	호적상	호적-상	단어	한자어	戶籍上	「명사」
552	대부업	대부-업	단어	한자어	貸付業	「명사」
553	비인기	비-인기	단어	한자어	非人氣	「명사」
554	초연되다	초연-되다	단어	혼종어	初演되다	「동사」
555	탈당계	탈당-계	단어	한자어	脫黨屆	「명사」
556	회고전	회고-전	단어	한자어	回顧展	「명사」
557	다가구	다-가구	단어	한자어	多家口	「명사」
558	담보되다	담보-되다	단어	혼종어	擔保되다	「동사」
559	담보되다	담보-되다	단어	혼종어	擔保되다	「동사」
560	사회주의권	사회주의-권	단어	한자어	社會主義圈	「명사」
561	이게	이게	단어	고유어	이게	품사 없음
562	참고 문헌	참고 문헌	구	한자어	參考文獻	품사 없음
563	계층별	계층-별	단어	한자어	階層別	「명사」
564	연관어	연관-어	단어	한자어	聯關語	「명사」
565	총체성	총체-성	단어	한자어	總體性	「명사」
566	친아빠	친-아빠	단어	혼종어	親아빠	「명사」
567	농민층	농민-층	단어	한자어	農民層	「명사」
568	반토막	반-토막	단어	혼종어	半토막	「명사」
569	부담률	부담-률	단어	한자어	負擔率	「명사」
570	인문학자	인문학-자	단어	한자어	人文學者	「명사」
571	프로 선수	프로^선수	구	혼종어	←professional 選手	N/A
572	괴리감	괴리-감	단어	한자어	乖離感	「명사」
573	모순점	모순-점	단어	한자어	矛盾點	「명사」
574	수입산	수입-산	단어	한자어	輸入産	「명사」
575	등급별	등급-별	단어	한자어	等級別	「명사」
576	발언자	발언-자	단어	한자어	發言者	「명사」
577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단어	한자어	利害關係者	「명사」
578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단어	한자어	利害關係者	「명사」
579	국제고	국제-고	단어	한자어	國際高	「명사」

580	단일안	단일-안	단어	한자어	單一案	「명사」
581	등록자	등록-자	단어	한자어	登錄者	「명사」
582	소견서	소견-서	단어	한자어	所見書	「명사」
583	딩동	딩동	단어	고유어	딩동	「부사」
584	선거용	선거-용	단어	한자어	選舉用	「명사」
585	제조기	제조-기	단어	한자어	製造機	「명사」
586	진미채	진미-채	단어	혼종어	珍味채	「명사」
587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단어	한자어	平和主義者	「명사」
588	협박성	협박-성	단어	한자어	脅迫性	「명사」
589	관리부	관리-부	단어	한자어	管理部	「명사」
590	대책반	대책-반	단어	한자어	對策班	「명사」
591	살처분	살-처분	단어	한자어	殺處分	「명사」
592	용역업체	용역-업체	단어	한자어	用役業體	「명사」
593	유기견	유기-견	단어	한자어	遺棄犬	「명사」
594	이과생	이과-생	단어	한자어	理科生	「명사」
595	공격형	공격-형	단어	한자어	攻擊型	「명사」
596	공격형	공격-형	단어	한자어	攻擊型	「명사」
597	대처법	대처-법	단어	한자어	對處法	「명사」
598	선포식	선포-식	단어	한자어	宣布式	「명사」
599	식재료	식-재료	단어	한자어	食材料	「명사」
600	장래희망	장래-희망	구	한자어	將來希望	품사 없음
601	최종전	최종-전	단어	한자어	最終戰	「명사」
602	발주처	발주-처	단어	한자어	發注處	「명사」
603	상장사	상장-사	단어	한자어	上場社	「명사」
604	이동권	이동-권	단어	한자어	移動權	「명사」
605	입주권	입주-권	단어	한자어	入住權	「명사」
606	정찰제	정찰-제	단어	한자어	正札制	「명사」
607	투표제	투표-제	단어	한자어	投票制	「명사」
608	파파라치	파파라치	단어	외래어	paparazzi	「명사」
609	일등 공신	일등 공신	구	한자어	一等功臣	품사 없음
610	일등 공신	일등 공신	구	한자어	一等功臣	품사 없음
611	전인적	전인-적	단어	한자어	全人的	「관·명」
612	절도단	절도-단	단어	한자어	竊盜團	「명사」
613	계절별	계절-별	단어	한자어	季節別	「명사」
614	반려견	반려-견	단어	한자어	伴侶犬	「명사」
615	임기제	임기-제	단어	한자어	任期制	「명사」
616	제재안	제재-안	단어	한자어	制裁案	「명사」
617	악화일로	악화-일로	단어	한자어	惡化一路	「명사」
618	안보관	안보-관	단어	한자어	安保觀	「명사」



619	영위되다	영위-되다	단어	혼종어	營爲되다	「동사」
620	타락되다	타락-되다	단어	혼종어	墮落되다	「동사」
621	호남권	호남-권	단어	한자어	湖南圈	「명사」
622	흑돼지	흑-돼지	단어	혼종어	黑돼지	「명사」
623	납치자	납치-자	단어	한자어	拉致者	「명사」
624	데뷔전	데뷔-전	단어	혼종어	début戰	「명사」
625	정리정돈	정리-정돈	구	한자어	整理整頓	「명사」
626	최정상	최-정상	단어	한자어	最頂上	「명사」
627	대단지	대-단지	단어	한자어	大團地	「명사」
628	대리 기사	대리 기사	구	한자어	代理技士	품사 없음
629	매수자	매수-자	단어	한자어	買受者	「명사」
630	초월자	초월-자	단어	한자어	超越者	「명사」
631	행정실	행정-실	단어	한자어	行政室	「명사」
632	고급차	고급-차	단어	한자어	高級車	「명사」
633	고유가	고-유가	단어	한자어	高油價	「명사」
634	비상장	비-상장	단어	한자어	非上場	「명사」
635	선승제	선승-제	단어	한자어	先勝制	「명사」
636	적립식	적립-식	단어	한자어	積立式	「명사」
637	쪽방촌	쪽방-촌	단어	혼종어	쪽房村	「명사」
638	찜닭	찜-닭	단어	고유어	찜닭	「명사」
639	홍보용	홍보-용	단어	한자어	弘報用	「명사」
640	가속되다	가속-되다	단어	혼종어	加速되다	「동사」
641	분단국	분단-국	단어	한자어	分斷國	「명사」
642	사업용	사업-용	단어	한자어	事業用	「명사」
643	쇄신안	쇄신-안	단어	한자어	刷新案	「명사」
644	주민 번호	주민^번호	구	한자어	住民番號	품사 없음
645	배려심	배려-심	단어	한자어	配慮心	「명사」
646	샤워실	샤워-실	단어	혼종어	shower室	「명사」
647	사진집	사진-집	단어	한자어	寫真集	「명사」
648	성과물	성과-물	단어	한자어	成果物	「명사」
649	수월성	수월-성	단어	한자어	秀越性	「명사」
650	기업별	기업-별	단어	한자어	企業別	「명사」
651	나라별	나라-별	단어	혼종어	나라別	「명사」
652	노인층	노인-층	단어	한자어	老人層	「명사」
653	자율형	자율-형	단어	한자어	自律型	「명사」
654	쟁점화	쟁점-화	단어	한자어	爭點化	「명사」
655	한인회	한인-회	단어	한자어	韓人會	「명사」
656	획일성	획일-성	단어	한자어	劃一性	「명사」
657	범정부	범-정부	단어	한자어	汎政府	「명사」

658	변천사	변천-사	단어	한자어	變遷史	「명사」
659	병리적	병리-적	단어	한자어	病理的	「관·명」
660	사찰단	사찰-단	단어	한자어	查察團	「명사」
661	사케	사케	단어	외래어	sake[酒]	「명사」
662	홍보관	홍보-관	단어	한자어	弘報館	「명사」
663	기능인	기능-인	단어	한자어	技能人	「명사」
664	박람회장	박람회-장	단어	한자어	博覽會場	「명사」
665	실거래가	실거래-가	단어	한자어	實去來價	「명사」
666	중부권	중부-권	단어	한자어	中部圈	「명사」
667	중부권	중부-권	단어	한자어	中部圈	「명사」
668	중부권	중부-권	단어	한자어	中部圈	「명사」
669	추정치	추정-치	단어	한자어	推定値	「명사」
670	호봉제	호봉-제	단어	한자어	號俸制	「명사」
671	기준 금리	기준^금리	구	한자어	基準金利	품사 없음
672	보충제	보충-제	단어	한자어	補充劑	「명사」
673	사형제	사형-제	단어	한자어	死刑制	「명사」
674	상한액	상한-액	단어	한자어	上限額	「명사」
675	인사권자	인사권-자	단어	한자어	人事權者	「명사」
676	인생사	인생-사	단어	한자어	人生史	「명사」
677	표상되다	표상-되다	단어	혼종어	表象되다	「동사」
678	극장판	극장-판	단어	한자어	劇場版	「명사」
679	생포되다	생포-되다	단어	혼종어	生捕되다	「동사」
680	소비성	소비-성	단어	한자어	消費性	「명사」
681	비판론	비판-론	단어	한자어	批判論	「명사」
682	수령액	수령-액	단어	한자어	受領額	「명사」
683	주체자	주체-자	단어	한자어	主體者	「명사」
684	총동창회	총-동창회	단어	한자어	總同窓會	「명사」
685	공산주의적	공산주의-적	단어	한자어	共產主義的	「관·명」
686	대표급	대표-급	단어	한자어	代表級	「명사」
687	멀치볶음	멀치-볶음	단어	고유어	멀치볶음	「명사」
688	시엄마	시-엄마	단어	혼종어	媳엄마	「명사」
689	매입가	매입-가	단어	한자어	買入價	「명사」
690	시행일	시행-일	단어	한자어	施行日	「명사」
691	시행일	시행-일	단어	한자어	施行日	「명사」
692	앞좌석	앞-좌석	단어	혼종어	앞座席	「명사」
693	여건상	여건-상	단어	한자어	與件上	「명사」
694	완성차	완성-차	단어	한자어	完成車	「명사」
695	전우회	전우-회	단어	한자어	戰友會	「명사」
696	주변적	주변-적	단어	한자어	周邊的	「관·명」

697	평정심	평정-심	단어	한자어	平靜心	「명사」
698	공모제	공모-제	단어	한자어	公募制	「명사」
699	사면권	사면-권	단어	한자어	赦免權	「명사」
700	요일별	요일-별	단어	한자어	曜日別	「명사」
701	좌타자	좌-타자	단어	한자어	左打者	「명사」
702	주도자	주도-자	단어	한자어	主導者	「명사」
703	히트작	히트-작	단어	혼종어	hit作	「명사」
704	교과별	교과-별	단어	한자어	教科別	「명사」
705	노예제	노예-제	단어	한자어	奴隸制	「명사」
706	다수인	다수-인	단어	한자어	多數人	「명사」
707	단위별	단위-별	단어	한자어	單位別	「명사」
708	배석자	배석-자	단어	한자어	陪席者	「명사」
709	인문대	인문-대	단어	한자어	人文大	「명사」
710	초호화	초-호화	단어	한자어	超豪華	「명사」
711	문과생	문과-생	단어	한자어	文科生	「명사」
712	비교육적	비-교육적	단어	한자어	非教育的	「관·명」
713	비대화	비대-화	단어	한자어	肥大化	「명사」
714	선수권자	선수권-자	단어	한자어	選手權者	「명사」
715	승마장	승마-장	단어	한자어	乘馬場	「명사」
716	자기 관리	자기 관리	구	한자어	自己管理	품사 없음
717	조치되다	조치-되다	단어	한자어	措置되다	「동사」
718	학원장	학원-장	단어	한자어	學院長	「명사」
719	건새우	건-새우	단어	혼종어	乾새우	「명사」
720	보상액	보상-액	단어	한자어	補償額	「명사」
721	복구비	복구-비	단어	한자어	復舊費	「명사」
722	음반사	음반-사	단어	한자어	音盤社	「명사」
723	당연직	당연-직	단어	한자어	當然職	「명사」
724	사안별	사안-별	단어	한자어	事案別	「명사」
725	시기별	시기-별	단어	한자어	時期別	「명사」
726	지능형	지능-형	단어	한자어	知能型	「명사」
727	출생아	출생-아	단어	한자어	出生兒	「명사」
728	경제학상	경제학-상	단어	한자어	經濟學賞	「명사」
729	파채	파-채	단어	고유어	파채	「명사」
730	피고소인	피-고소인	단어	한자어	被告訴人	「명사」
731	골절되다	골절-되다	단어	혼종어	骨折되다	「동사」
732	딩동댕	딩동댕	단어	고유어	딩동댕	「부사」
733	베팅	베팅	단어	외래어	betting	「명사」
734	채팅방	채팅-방	단어	혼종어	chatting房	「명사」
735	과외비	과외-비	단어	한자어	課外費	「명사」

736	대참사	대-참사	단어	한자어	大慘事	「명사」
737	발해사	발해-사	단어	한자어	渤海史	「명사」
738	수거함	수거-함	단어	한자어	收去函	「명사」
739	수사적	수사-적	단어	한자어	修辭的	「관·명」
740	역사학계	역사학-계	단어	한자어	歷史學界	「명사」
741	입국자	입국-자	단어	한자어	入國者	「명사」
742	특수층	특수-층	단어	한자어	特殊層	「명사」
743	합리주의적	합리주의-적	단어	한자어	合理主義的	「관·명」
744	합리주의적	합리주의-적	단어	한자어	合理主義的	「관·명」
745	긴급성	긴급-성	단어	한자어	緊急性	「명사」
746	서점가	서점-가	단어	한자어	書店街	「명사」
747	서점가	서점-가	단어	한자어	書店街	「명사」
748	작가상	작가-상	단어	한자어	作家賞	「명사」
749	촬영지	촬영-지	단어	한자어	撮影地	「명사」
750	비상임	비-상임	단어	한자어	非常任	「명사」
751	여자 친구	여자 친구	구	한자어	女子親舊	품사 없음
752	취재반	취재-반	단어	한자어	取材班	「명사」
753	친북	친북	단어	한자어	親北	「명사」
754	폐지론	폐지-론	단어	한자어	廢止論	「명사」
755	공공 주택	공공^주택	구	한자어	公共住宅	품사 없음
756	만점자	만점-자	단어	한자어	滿點者	「명사」
757	비견되다	비견-되다	단어	혼종어	比肩되다	「동사」
758	개입설	개입-설	단어	한자어	介入說	「명사」
759	고농축	고-농축	단어	한자어	高濃縮	「명사」
760	대공연장	대-공연장	단어	한자어	大公演場	「명사」
761	북송되다	북송-되다	단어	혼종어	北送되다	「동사」
762	비대면	비-대면	단어	한자어	非對面	「명사」
763	초중등	초-중등	단어	한자어	初中等	「명사」
764	희귀병	희귀-병	단어	한자어	稀貴病	「명사」
765	반봉건적	반봉건-적	단어	한자어	反封建的	「관·명」
766	시민권자	시민권-자	단어	한자어	市民權者	「명사」
767	어학원	어학-원	단어	한자어	語學院	「명사」
768	유인책	유인-책	단어	한자어	誘引策	「명사」
769	후순위	후-순위	단어	한자어	後順位	「명사」
770	외유성	외유-성	단어	한자어	外遊性	「명사」
771	재지정	재-지정	단어	한자어	再指定	「명사」
772	조림장	조림-장	단어	혼종어	조림醬	「명사」
773	촉구되다	촉구-되다	단어	혼종어	促求되다	「동사」
774	거래액	거래-액	단어	한자어	去來額	「명사」

775	공영제	공영-제	단어	한자어	公營制	「명사」
776	노령화	노령-화	단어	한자어	老齡化	「명사」
777	노령화	노령-화	단어	한자어	老齡化	「명사」
778	부녀회장	부녀회-장	단어	한자어	婦女會長	「명사」
779	선진국형	선진국-형	단어	한자어	先進國型	「명사」
780	업무적	업무-적	단어	한자어	業務的	「관·명」
781	유아용	유아-용	단어	한자어	幼兒用	「명사」
782	의료용	의료-용	단어	한자어	醫療用	「명사」
783	퇴행적	퇴행-적	단어	한자어	退行的	「관·명」
784	난타전	난타-전	단어	한자어	亂打戰	「명사」
785	난타전	난타-전	단어	한자어	亂打戰	「명사」
786	추진체	추진-체	단어	한자어	推進體	「명사」
787	영문판	영문-판	단어	한자어	英文版	「명사」
788	재고되다	재고-되다	단어	혼종어	再考되다	「동사」
789	중식당	중-식당	단어	한자어	中食堂	「명사」
790	협력사	협력-사	단어	한자어	協力社	「명사」
791	개혁성	개혁-성	단어	한자어	改革性	「명사」
792	다둥이	다-둥이	단어	혼종어	多둥이	「명사」
793	부품업체	부품-업체	단어	한자어	部品業體	「명사」
794	수록곡	수록-곡	단어	한자어	收錄曲	「명사」
795	허가권	허가-권	단어	한자어	許可權	「명사」
796	개인화	개인-화	단어	한자어	個人化	「명사」
797	경조사비	경조사-비	단어	한자어	慶弔事費	「명사」
798	시공업체	시공-업체	단어	한자어	施工業體	「명사」
799	호화 주택	호화 주택	구	한자어	豪華住宅	품사 없음
800	금융사	금융-사	단어	한자어	金融社	「명사」
801	본질상	본질-상	단어	한자어	本質上	「명사」
802	시사되다	시사-되다	단어	혼종어	示唆되다	「동사」
803	중대형	중대-형	단어	한자어	中大型	「명사」
804	직영점	직영-점	단어	한자어	直營店	「명사」
805	총량제	총량-제	단어	한자어	總量制	「명사」
806	경축식	경축-식	단어	한자어	慶祝式	「명사」
807	남성용	남성-용	단어	한자어	男性用	「명사」
808	동궁전	동궁-전	단어	한자어	東宮殿	「명사」
809	맨정신	맨-정신	단어	혼종어	맨情神	「명사」
810	체험장	체험-장	단어	한자어	體驗場	「명사」
811	대출액	대출-액	단어	한자어	貸出額	「명사」
812	보도문	보도-문	단어	한자어	報道文	「명사」
813	보도문	보도-문	단어	한자어	報道文	「명사」

814	산업화되다	산업화-되다	단어	한자어	産業化되다	「동사」
815	응시생	응시-생	단어	한자어	應試生	「명사」
816	재도전	재-도전	단어	한자어	再挑戰	「명사」
817	경고성	경고-성	단어	한자어	警告性	「명사」
818	공평성	공평-성	단어	한자어	公平性	「명사」
819	국제중	국제-중	단어	한자어	國際中	「명사」
820	성평등	성-평등	단어	한자어	性平等	「명사」
821	순환적	순환-적	단어	한자어	循環的	「관·명」
822	은둔형	은둔-형	단어	한자어	隱遁型	「명사」
823	태권도장	태권도-장	단어	한자어	跆拳道場	「명사」
824	학부생	학부-생	단어	한자어	學部生	「명사」
825	군사용	군사-용	단어	한자어	軍實用	「명사」
826	사업상	사업-상	단어	한자어	事業上	「명사」
827	자문료	자문-료	단어	한자어	諮問料	「명사」
828	중화권	중화-권	단어	한자어	中華圈	「명사」
829	질의서	질의-서	단어	한자어	質疑書	「명사」
830	파편화되다	파편화-되다	단어	혼종어	破片化되다	「동사」
831	화학상	화학-상	단어	한자어	化學賞	「명사」
832	기업형	기업-형	단어	한자어	企業型	「명사」
833	범시민	범-시민	단어	한자어	汎市民	「명사」
834	서술자	서술-자	단어	한자어	敘述者	「명사」
835	초기작	초기-작	단어	한자어	初期作	「명사」
836	포격전	포격-전	단어	한자어	砲擊戰	「명사」
837	학습권	학습-권	단어	한자어	學習權	「명사」
838	단체별	단체-별	단어	한자어	團體別	「명사」
839	대토론	대-토론	단어	한자어	大討論	「명사」
840	모독죄	모독-죄	단어	한자어	冒瀆罪	「명사」
841	보복성	보복-성	단어	한자어	報復性	「명사」
842	신도회	신도-회	단어	한자어	信徒會	「명사」
843	신항	신항	단어	한자어	新港	「명사」
844	아웃소싱	아웃소싱	단어	외래어	outsourcing	「명사」
845	예탁금	예탁-금	단어	한자어	預託金	「명사」
846	예탁금	예탁-금	단어	한자어	預託金	「명사」
847	완판	완판	단어	한자어	完販	「명사」
848	다원성	다원-성	단어	한자어	多元性	「명사」
849	명분상	명분-상	단어	한자어	名分上	「명사」
850	연근해	연-근해	단어	한자어	沿近海	「명사」
851	옛날식	옛날-식	단어	혼종어	옛날式	「명사」
852	음악상	음악-상	단어	한자어	音樂賞	「명사」

853	주차난	주차-난	단어	한자어	駐車難	「명사」
854	지형적	지형-적	단어	한자어	地形的	「명사」
855	총자산	총-자산	단어	한자어	總資産	「명사」
856	출마설	출마-설	단어	한자어	出馬說	「명사」
857	향신채	향신-채	단어	한자어	香辛菜	「명사」
858	공고일	공고-일	단어	한자어	公告日	「명사」
859	극세사	극-세사	단어	한자어	極細絲	「명사」
860	예상치	예상-치	단어	한자어	豫想値	「명사」
861	최일선	최-일선	단어	한자어	最一線	「명사」
862	취수장	취수-장	단어	한자어	取水場	「명사」
863	학기별	학기-별	단어	한자어	學期別	「명사」
864	간병비	간병-비	단어	한자어	看病費	「명사」
865	문학지	문학-지	단어	한자어	文學誌	「명사」
866	사골국	사골-국	단어	혼종어	四骨국	「명사」
867	외국어고	외국어-고	단어	한자어	外國語高	「명사」
868	출제자	출제-자	단어	한자어	出題者	「명사」
869	비포장	비-포장	단어	한자어	非鋪裝	「명사」
870	융합적	융합-적	단어	한자어	融合的	「관·명」
871	전자식	전자-식	단어	한자어	電子式	「명사」
872	전통성	전통-성	단어	한자어	傳統性	「명사」
873	가족애	가족-애	단어	한자어	家族愛	「명사」
874	관계인	관계-인	단어	한자어	關係人	「명사」
875	대기질	대기-질	단어	한자어	大氣質	「명사」
876	방문지	방문-지	단어	한자어	訪問地	「명사」
877	보완점	보완-점	단어	한자어	補完點	「명사」
878	불닭	불-닭	단어	고유어	불-닭	「명사」
879	수매가	수매-가	단어	한자어	돼지-국밥	「명사」
880	시민군	시민-군	단어	한자어	조개-구이	「명사」
881	영자지	영자-지	단어	한자어	맘-음	「명사」
882	유럽식	유럽-식	단어	혼종어	맘-음	「명사」
883	응자액	응자-액	단어	한자어	빠그덕	「명사」
884	제구력	제구-력	단어	한자어	빠그덕	「명사」
885	경험치	경험-치	단어	한자어	산-낙지	「명사」
886	대책비	대책-비	단어	한자어	널널-하다	「명사」
887	방문국	방문-국	단어	한자어	땡동	「명사」
888	범정부적	범정부-적	단어	한자어	손 글씨	「관·명」
889	상호적	상호-적	단어	한자어	어슷-썰다	「관·명」
890	신개념	신-개념	단어	한자어	新概念	「명사」
891	이원성	이원-성	단어	한자어	二元性	「명사」

892	이원성	이원-성	단어	한자어	二元性	「명사」
893	형편상	형편-상	단어	한자어	形便上	「명사」
894	낭독회	낭독-회	단어	한자어	朗讀會	「명사」
895	농업용	농업-용	단어	한자어	農業用	「명사」
896	돼지국밥	돼지-국밥	단어	고유어	돼지-국밥	「명사」
897	순종적	순종-적	단어	한자어	조개-구이	「관·명」
898	자사주	자사-주	단어	한자어	맡-음	「명사」
899	족발집	족발-집	단어	혼종어	맡-음	「명사」
900	주의점	주의-점	단어	한자어	빼그덕	「명사」
901	참여형	참여-형	단어	한자어	빼그덕	「명사」
902	현상학적	현상학-적	단어	한자어	산-낙지	「관·명」
903	가격차	가격-차	단어	한자어	넌넌-하다	「명사」
904	공대생	공대-생	단어	한자어	땡동	「명사」
905	기본료	기본-료	단어	한자어	손 글씨	「명사」
906	다이버	다이버	단어	외래어	어슷-썰다	「명사」
907	방어 막	방어 막	구	한자어	防禦幕	품사 없음
908	봉인되다	봉인-되다	단어	혼종어	封印되다	「동사」
909	성범죄자	성범죄-자	단어	한자어	性犯罪者	「명사」
910	영업점	영업-점	단어	한자어	營業店	「명사」
911	평가액	평가-액	단어	한자어	評價額	「명사」
912	해부학적	해부학-적	단어	한자어	解剖學的	「관·명」
913	밀면	밀-면	단어	혼종어	밀麵	「명사」
914	보호실	보호-실	단어	한자어	保護室	「명사」
915	부전공	부-전공	단어	한자어	副專攻	「명사」
916	조개구이	조개-구이	단어	고유어	조개-구이	「명사」
917	주제어	주제-어	단어	한자어	主題語	「명사」
918	경고음	경고-음	단어	한자어	警告音	「명사」
919	도소매	도-소매	단어	한자어	都小賣	「명사」
920	멘티	멘티	단어	외래어	mentee	「명사」
921	시리즈물	시리즈-물	단어	혼종어	series物	「명사」
922	재심의	재-심의	단어	한자어	再審議	「명사」
923	통지문	통지-문	단어	한자어	通知文	「명사」
924	퇴임식	퇴임-식	단어	한자어	退任式	「명사」
925	보호대	보호-대	단어	한자어	保護帶	「명사」
926	설치비	설치-비	단어	한자어	設置費	「명사」
927	재검표	재-검표	단어	한자어	再檢票	「명사」
928	추계되다	추계-되다	단어	혼종어	推計되다	「동사」
929	평가자	평가-자	단어	한자어	評價者	「명사」
930	협정서	협정-서	단어	한자어	協定書	「명사」



931	협정서	협정-서	단어	한자어	協定書	「명사」
932	배달료	배달-료	단어	한자어	配達料	「명사」
933	입학처	입학-처	단어	한자어	入學處	「명사」
934	재벌급	재벌-급	단어	한자어	財閥級	「명사」
935	저공해	저-공해	단어	한자어	低公害	「명사」
936	지원액	지원-액	단어	한자어	支援額	「명사」
937	관련국	관련-국	단어	한자어	關聯國	「명사」
938	맑음	맑-음	단어	고유어	맑-음	「명사」
939	맑음	맑-음	단어	고유어	맑-음	「명사」
940	무관용	무-관용	단어	한자어	無寬容	「명사」
941	빠그덕	빠그덕	단어	고유어	빠그덕	「부사」
942	빠그덕	빠그덕	단어	고유어	빠그덕	「부사」
943	신주류	신-주류	단어	한자어	新主流	「명사」
944	이적료	이적-료	단어	한자어	移籍料	「명사」
945	저예산	저-예산	단어	한자어	低豫算	「명사」
946	주차비	주차-비	단어	한자어	駐車費	「명사」
947	추천권	추천-권	단어	한자어	推薦權	「명사」
948	추측성	추측-성	단어	한자어	推測性	「명사」
949	통계학적	통계학-적	단어	한자어	統計學的	「관·명」
950	흑염소	흑-염소	단어	혼종어	黑염소	「명사」
951	개원되다	개원-되다	단어	혼종어	開院되다	「동사」
952	개원되다	개원-되다	단어	혼종어	開院되다	「동사」
953	결사체	결사-체	단어	한자어	結社體	「명사」
954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단어	한자어	公認認證書	「명사」
955	모금액	모금-액	단어	한자어	募金額	「명사」
956	사망설	사망-설	단어	한자어	死亡說	「명사」
957	성폭행범	성폭행-범	단어	한자어	性暴行犯	「명사」
958	수구적	수구-적	단어	한자어	守舊的	「관·명」
959	위원직	위원-직	단어	한자어	委員職	「명사」
960	유예되다	유예-되다	단어	혼종어	猶豫되다	「동사」
961	능률성	능률-성	단어	한자어	能率性	「명사」
962	법의학자	법의학-자	단어	한자어	法醫學者	「명사」
963	사학계	사학-계	단어	한자어	史學界	「명사」
964	서방국	서방-국	단어	한자어	西方國	「명사」
965	역할론	역할-론	단어	한자어	役割論	「명사」
966	연극반	연극-반	단어	한자어	演劇班	「명사」
967	예보관	예보-관	단어	한자어	豫報官	「명사」
968	총정리	총-정리	단어	한자어	總整理	「명사」
969	탈근대적	탈-근대적	단어	한자어	脫近代的	「관·명」

970	한자말	한자^말	단어	혼종어	漢字말	「명사」
971	홍보처	홍보-처	단어	한자어	弘報處	「명사」
972	거래가	거래-가	단어	한자어	去來價	「명사」
973	공급업체	공급-업체	단어	한자어	供給業體	「명사」
974	내수용	내수-용	단어	한자어	內需用	「명사」
975	댄스곡	댄스-곡	단어	혼종어	dance曲	「명사」
976	제청권	제청-권	단어	한자어	提請權	「명사」
977	직종별	직종-별	단어	한자어	職種別	「명사」
978	최정예	최-정예	단어	한자어	最精銳	「명사」
979	최정예	최-정예	단어	한자어	最精銳	「명사」
980	훈련비	훈련-비	단어	한자어	訓練費	「명사」
981	개별화되다	개별화-되다	단어	혼종어	個別化되다	「동사」
982	고졸자	고졸-자	단어	한자어	高卒者	「명사」
983	발족식	발족-식	단어	한자어	發足式	「명사」
984	상용화되다	상용화-되다	단어	혼종어	常用化되다	「동사」
985	안일주의	안일-주의	단어	한자어	安逸主義	「명사」
986	요구안	요구-안	단어	한자어	要求案	「명사」
987	재발급	재-발급	단어	한자어	再發給	「명사」
988	주말극	주말-극	단어	한자어	週末劇	「명사」
989	편백나무	편백-나무	단어	혼종어	扁柏나무	「명사」
990	폭로전	폭로-전	단어	한자어	暴露戰	「명사」
991	해운사	해운-사	단어	한자어	海運社	「명사」
992	경기권	경기-권	단어	한자어	京畿圈	「명사」
993	디자인되다	디자인-되다	단어	혼종어	design되다	「동사」
994	몸치	몸-치	단어	혼종어	몸癡	「명사」
995	사실화	사실-화	단어	한자어	事實化	「명사」
996	사전적	사전-적	단어	한자어	辭典的	「관·명」
997	사전적	사전-적	단어	한자어	事前的	「관·명」
998	사행성	사행-성	단어	한자어	射倖性	「명사」
999	고독사	고독-사	단어	한자어	孤獨死	「명사」
1000	과학실	과학-실	단어	한자어	科學室	「명사」
1001	구입자	구입-자	단어	한자어	購入者	「명사」
1002	기득권자	기득권-자	단어	한자어	既得權者	「명사」
1003	메달권	메달-권	단어	혼종어	medal圈	「명사」
1004	미래학자	미래학-자	단어	한자어	未來學者	「명사」
1005	방북단	방북-단	단어	한자어	訪北團	「명사」
1006	사제지간	사제지간	단어	한자어	師弟之間	「명사」
1007	선임병	선임-병	단어	한자어	先任兵	「명사」
1008	선임병	선임-병	단어	한자어	先任兵	「명사」

1009	수교국	수교-국	단어	한자어	修交國	「명사」
1010	친정부	친-정부	단어	한자어	親政府	「명사」
1011	한라봉	한라-봉	단어	한자어	漢拏▽峰	「명사」
1012	후분양	후-분양	단어	한자어	後分讓	「명사」
1013	매도되다	매도-되다	단어	혼종어	罵倒되다	「동사」
1014	언론학	언론-학	단어	한자어	言論學	「명사」
1015	저비용	저-비용	단어	한자어	低費用	「명사」
1016	최장신	최-장신	단어	한자어	最長身	「명사」
1017	컬러링	컬러링	단어	외래어	▼color ring	「명사」
1018	간편식	간편-식	단어	한자어	簡便食	「명사」
1019	기피증	기피-증	단어	한자어	忌避症	「명사」
1020	낙하물	낙하-물	단어	한자어	落下物	「명사」
1021	단오제	단오-제	단어	한자어	端午祭	「명사」
1022	비수도권	비-수도권	단어	한자어	非首都圈	「명사」
1023	비자발적	비-자발적	단어	한자어	非自發的	「관·명」
1024	세탁비	세탁-비	단어	한자어	洗濯費	「명사」
1025	특성화고	특성화-고	단어	한자어	特性化高	「명사」
1026	후임병	후임-병	단어	한자어	後任兵	「명사」
1027	후임병	후임-병	단어	한자어	後任兵	「명사」
1028	광고계	광고-계	단어	한자어	廣告界	「명사」
1029	수거되다	수거-되다	단어	혼종어	收去되다	「동사」
1030	육해공	육해공	단어	한자어	陸海空	「명사」
1031	허가서	허가-서	단어	한자어	許可書	「명사」
1032	대재앙	대-재앙	단어	한자어	大災殃	「명사」
1033	무비자	무-비자	단어	혼종어	無visa	「명사」
1034	식자층	식자-층	단어	한자어	識者層	「명사」
1035	공약집	공약-집	단어	한자어	公約集	「명사」
1036	발굴단	발굴-단	단어	한자어	發掘團	「명사」
1037	소주제	소-주제	단어	한자어	小主題	「명사」
1038	순방길	순방-길	단어	혼종어	巡訪길	「명사」
1039	의도성	의도-성	단어	한자어	意圖性	「명사」
1040	저평가	저-평가	단어	한자어	低評價	「명사」
1041	주연급	주연-급	단어	한자어	主演級	「명사」
1042	흑마늘	흑-마늘	단어	혼종어	黑마늘	「명사」
1043	무농약	무-농약	단어	한자어	無農藥	「명사」
1044	방학식	방학-식	단어	한자어	放學式	「명사」
1045	비메모리	비-메모리	단어	혼종어	非memory	「명사」
1046	양면적	양면-적	단어	한자어	兩面的	「관·명」
1047	조사자	조사-자	단어	한자어	調查者	「명사」

1048	주방용	주방-용	단어	한자어	廚房用	「명사」
1049	지지세	지지-세	단어	한자어	支持勢	「명사」
1050	협상단	협상-단	단어	한자어	協商團	「명사」
1051	국내용	국내-용	단어	한자어	國內用	「명사」
1052	기념식장	기념식-장	단어	한자어	紀念式場	「명사」
1053	문의처	문의-처	단어	한자어	問議處	「명사」
1054	산낙지	산-낙지	단어	고유어	산-낙지	「명사」
1055	요소수	요소-수	단어	한자어	尿素水	「명사」
1056	운영진	운영-진	단어	한자어	運營陣	「명사」
1057	원형적	원형-적	단어	한자어	原形的	「관·명」
1058	이동형	이동-형	단어	한자어	移動形	「명사」
1059	자립형	자립-형	단어	한자어	自立型	「명사」
1060	정답률	정답-률	단어	한자어	正答率	「명사」
1061	정태적	정태-적	단어	한자어	靜態的	「관·명」
1062	첨단적	첨단-적	단어	한자어	尖端的	「관·명」
1063	강경론자	강경론-자	단어	한자어	強硬論者	「명사」
1064	군국주의자	군국주의-자	단어	한자어	軍國主義者	「명사」
1065	색갈별	색갈-별	단어	혼종어	色갈別	「명사」
1066	생중계되다	생중계-되다	단어	혼종어	生中繼되다	「동사」
1067	선발권	선발-권	단어	한자어	選拔權	「명사」
1068	동정론	동정-론	단어	한자어	同情論	「명사」
1069	라커 룸	라커 룸	구	외래어	locker room	
1070	무제한적	무제한-적	단어	한자어	無制限的	「관·명」
1071	비빔면	비빔-면	단어	혼종어	비빔麵	「명사」
1072	비우호적	비-우호적	단어	한자어	非友好的	「관·명」
1073	서식처	서식-처	단어	한자어	棲息處	「명사」
1074	수중보	수중-보	단어	한자어	水中湊	「명사」
1075	연임제	연임-제	단어	한자어	連任制	「명사」
1076	전달력	전달-력	단어	한자어	傳達力	「명사」
1077	카드값	카드-값	단어	혼종어	card값	「명사」
1078	고난이도	고-난이도	단어	한자어	高難易度	「명사」
1079	공포물	공포-물	단어	한자어	恐怖物	「명사」
1080	문화사적	문화사-적	단어	한자어	文化史的	「관·명」
1081	밀입북	밀-입북	단어	한자어	密入北	「명사」
1082	방송반	방송-반	단어	한자어	放送班	「명사」
1083	사업화	사업-화	단어	한자어	事業化	「명사」
1084	성장성	성장-성	단어	한자어	成長性	「명사」
1085	유료화	유료-화	단어	한자어	有料化	「명사」
1086	정주행	정-주행	단어	한자어	正走行	「명사」

1087	지방직	지방-직	단어	한자어	地方職	「명사」
1088	군국주의적	군국주의-적	단어	한자어	軍國主義的	「관·명」
1089	농성자	농성-자	단어	한자어	籠城者	「명사」
1090	임원급	임원-급	단어	한자어	任員級	「명사」
1091	자본주의화	자본주의-화	단어	한자어	資本主義化	「명사」
1092	주제문	주제-문	단어	한자어	主題文	「명사」
1093	창작곡	창작-곡	단어	한자어	創作曲	「명사」
1094	하드코어	하드-코어	단어	외래어	hard core	「명사」
1095	하드코어	하드-코어	단어	외래어	hard core	「명사」
1096	하드코어	하드-코어	단어	외래어	hard core	「명사」
1097	과세되다	과세-되다	단어	혼종어	課稅되다	「동사」
1098	광역버스	광역^버스	단어	혼종어	廣域bus	「명사」
1099	귀성길	귀성-길	단어	혼종어	歸省길	「명사」
1100	다발적	다발-적	단어	한자어	多發的	「관·명」
1101	디지털화	디지털-화	단어	혼종어	digital化	「명사」
1102	신성장	신-성장	단어	한자어	新成長	「명사」
1103	유골함	유골-함	단어	한자어	遺骨函	「명사」
1104	입찰제	입찰-제	단어	한자어	入札制	「명사」
1105	절대화하다	절대화-하다	단어	혼종어	絕對化하다	「동사」
1106	지리학자	지리학-자	단어	한자어	地理學者	「명사」
1107	편법적	편법-적	단어	한자어	便法的	「관·명」
1108	표현상	표현-상	단어	한자어	表現上	「명사」
1109	계좌이체	계좌^이체	단어	한자어	計座移替	「명사」
1110	널널하다	널널-하다	단어	고유어	널널-하다	「형용사」
1111	농산품	농산-품	단어	한자어	農產品	「명사」
1112	농축액	농축-액	단어	한자어	濃縮液	「명사」
1113	핑동	핑동	단어	고유어	핑동	「부사」
1114	사용액	사용-액	단어	한자어	使用額	「명사」
1115	소공연장	소-공연장	단어	한자어	小公演場	「명사」
1116	신생아실	신생아-실	단어	한자어	新生兒室	「명사」
1117	영하권	영하-권	단어	한자어	零下圈	「명사」
1118	입학자	입학-자	단어	한자어	入學者	「명사」
1119	저강도	저-강도	단어	한자어	低強度	「명사」
1120	체급별	체급-별	단어	한자어	體級別	「명사」
1121	개막일	개막-일	단어	한자어	開幕日	「명사」
1122	경선제	경선-제	단어	한자어	競選制	「명사」
1123	과시욕	과시-욕	단어	한자어	誇示欲	「명사」
1124	암기식	암기-식	단어	한자어	暗記式	「명사」
1125	완성형	완성-형	단어	한자어	完成型	「명사」

1126	완성형	완성-형	단어	한자어	完成型	「명사」
1127	자연주의적	자연주의-적	단어	한자어	自然主義的	「관·명」
1128	전산업	전산-업	단어	한자어	電算業	「명사」
1129	초고령	초-고령	단어	한자어	超高齡	「명사」
1130	대리전	대리-전	단어	한자어	代理戰	「명사」
1131	몰입되다	몰입-되다	단어	혼종어	沒入되다	「동사」
1132	샤부샤부	샤부샤부	단어	외래어	shabushabu	「명사」
1133	숙박권	숙박-권	단어	한자어	宿泊券	「명사」
1134	징계안	징계-안	단어	한자어	懲戒案	「명사」
1135	협약서	협약-서	단어	한자어	協約書	「명사」
1136	개선점	개선-점	단어	한자어	改善點	「명사」
1137	고효율	고-효율	단어	한자어	高效率	「명사」
1138	공수되다	공수-되다	단어	혼종어	空輸되다	「동사」
1139	동양계	동양-계	단어	한자어	東洋系	「명사」
1140	동양권	동양-권	단어	한자어	東洋圈	「명사」
1141	영업직	영업-직	단어	한자어	營業職	「명사」
1142	융합형	융합-형	단어	한자어	融合型	「명사」
1143	잡냄새	잡-냄새	단어	혼종어	雜냄새	「명사」
1144	장단기	장단-기	단어	한자어	長短期	「명사」
1145	재강조하다	재강조-하다	단어	혼종어	再強調하다	「동사」
1146	전자업체	전자-업체	단어	한자어	電子業體	「명사」
1147	전쟁사	전쟁-사	단어	한자어	戰爭史	「명사」
1148	정비업체	정비-업체	단어	한자어	整備業體	「명사」
1149	청약통장	청약^통장	단어	한자어	請約通帳	「명사」
1150	캠핑장	캠핑-장	단어	혼종어	camp場	「명사」
1151	한정식집	한정식-집	단어	혼종어	韓定食집	「명사」
1152	구제 불능	구제 불능	구	한자어	救濟不能	품사 없음
1153	구주류	구-주류	단어	한자어	舊主流	「명사」
1154	동화적	동화-적	단어	한자어	童話的	「관·명」
1155	이원론적	이원론-적	단어	한자어	二元論的	「관·명」
1156	재소환	재-소환	단어	한자어	再召喚	「명사」
1157	중개업소	중개업-소	단어	한자어	仲介業所	「명사」
1158	피부양자	피-부양자	단어	한자어	被扶養者	「명사」
1159	홍보비	홍보-비	단어	한자어	弘報費	「명사」
1160	환풍구	환풍-구	단어	한자어	換風口	「명사」
1161	후원회비	후원회-비	단어	한자어	後援會費	「명사」
1162	관리단	관리-단	단어	한자어	管理團	「명사」
1163	기록지	기록-지	단어	한자어	記錄紙	「명사」
1164	논리상	논리-상	단어	한자어	論理上	「명사」

1165	대변혁	대-변혁	단어	한자어	大變革	「명사」
1166	매도자	매도-자	단어	한자어	賣渡者	「명사」
1167	범야권	범-야권	단어	한자어	汎野圈	「명사」
1168	복수극	복수-극	단어	한자어	復讐劇	「명사」
1169	샤워장	샤워-장	단어	혼종어	shower場	「명사」
1170	지령문	지령-문	단어	한자어	指令文	「명사」
1171	집도의	집도-의	단어	한자어	執刀醫	「명사」
1172	차량용	차량-용	단어	한자어	車輛用	「명사」
1173	클래식하다	클래식-하다	단어	혼종어	classic하다	「형용사」
1174	강연자	강연-자	단어	한자어	講演者	「명사」
1175	보상책	보상-책	단어	한자어	補償策	「명사」
1176	비전향	비-전향	단어	한자어	非轉向	「명사」
1177	송금되다	송금-되다	단어	혼종어	送金되다	「동사」
1178	아파트촌	아파트-촌	단어	혼종어	←apartment村	「명사」
1179	우승국	우승-국	단어	한자어	優勝國	「명사」
1180	원로급	원로-급	단어	한자어	元老級	「명사」
1181	일정상	일정-상	단어	한자어	日程上	「명사」
1182	전입금	전입-금	단어	한자어	轉入金	「명사」
1183	종말론적	종말론-적	단어	한자어	終末論的	「관·명」
1184	메모장	메모-장	단어	혼종어	memo帳	「명사」
1185	북한말	북한^말	단어	혼종어	北韓말	「명사」
1186	신질서	신-질서	단어	한자어	新秩序	「명사」
1187	양도성	양도-성	단어	한자어	讓渡性	「명사」
1188	예약제	예약-제	단어	한자어	豫約制	「명사」
1189	출국장	출국-장	단어	한자어	出國場	「명사」
1190	판매용	판매-용	단어	한자어	販賣用	「명사」
1191	해결점	해결-점	단어	한자어	解決點	「명사」
1192	경제통	경제-통	단어	한자어	經濟通	「명사」
1193	공헌도	공헌-도	단어	한자어	貢獻度	「명사」
1194	방지용	방지-용	단어	한자어	防止用	「명사」
1195	법규상	법규-상	단어	한자어	法規上	「명사」
1196	비인격적	비-인격적	단어	한자어	非人格的	「관·명」
1197	상설화	상설-화	단어	한자어	常設化	「명사」
1198	상설화	상설-화	단어	한자어	常設化	「명사」
1199	선호되다	선호-되다	단어	혼종어	選好되다	「동사」
1200	소명 의식	소명 의식	구	한자어	召命意識	품사 없음
1201	소비층	소비-층	단어	한자어	消費層	「명사」
1202	시술소	시술-소	단어	한자어	施術所	「명사」
1203	중저음	중-저음	단어	한자어	中低音	「명사」

1204	지지되다	지지-되다	단어	혼종어	支持되다	「동사」
1205	지지되다	지지-되다	단어	혼종어	支持되다	「동사」
1206	지지되다	지지-되다	단어	혼종어	支持되다	「동사」
1207	감호소	감호-소	단어	한자어	監護所	「명사」
1208	공감력	공감-력	단어	한자어	共感力	「명사」
1209	근속자	근속-자	단어	한자어	勤續者	「명사」
1210	불완전성	불완전-성	단어	한자어	不完全性	「명사」
1211	신과학	신-과학	단어	한자어	新科學	「명사」
1212	은퇴식	은퇴-식	단어	한자어	隱退式	「명사」
1213	응용력	응용-력	단어	한자어	應用力	「명사」
1214	재탄생	재-탄생	단어	한자어	再誕生	「명사」
1215	전시용	전시-용	단어	한자어	展示用	「명사」
1216	절하되다	절하-되다	단어	혼종어	切下되다	「동사」
1217	팝업	팝-업	단어	외래어	pop-up	「명사」
1218	패권적	패권-적	단어	한자어	霸權的	「관·명」
1219	혁명론	혁명-론	단어	한자어	革命論	「명사」
1220	갈등설	갈등-설	단어	한자어	葛藤說	「명사」
1221	기질적	기질-적	단어	한자어	氣質的	「관·명」
1222	도심권	도심-권	단어	한자어	都心圈	「명사」
1223	믹스커피	믹스-커피	단어	외래어	mix coffee	「명사」
1224	범국가적	범-국가적	단어	한자어	汎國家的	「관·명」
1225	비상령	비상-령	단어	한자어	非常令	「명사」
1226	비행체	비행-체	단어	한자어	飛行體	「명사」
1227	손 글씨	손 글씨	구	고유어	손 글씨	품사 없음
1228	어긋찢다	어긋-찢다	단어	고유어	어긋-찢다	「동사」
1229	일반분양	일반^분양	단어	한자어	一般分讓	「명사」
1230	점검단	점검-단	단어	한자어	點檢團	「명사」
1231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단어	한자어	卒業證明書	「명사」
1232	지질학적	지질학-적	단어	한자어	地質學的	「관·명」
1233	청약자	청약-자	단어	한자어	請約者	「명사」
1234	통신용	통신-용	단어	한자어	通信用	「명사」
1235	혼돈스럽다	혼돈-스럽다	단어	혼종어	混沌스럽다	「형용사」
1236	금욕적	금욕-적	단어	한자어	禁慾的	「관·명」
1237	사주문	사주-문	단어	한자어	四柱門	「명사」
1238	시청각실	시청각-실	단어	한자어	視聽覺室	「명사」
1239	신항만	신-항만	단어	한자어	新港灣	「명사」
1240	여가 생활	여가 생활	구	한자어	餘暇生活	품사 없음
1241	입지적	입지-적	단어	한자어	立地的	「관·명」
1242	주차시설	주차^시설	단어	한자어	駐車施設	「명사」



1243	창단식	창단-식	단어	한자어	創團式	「명사」
1244	통신업체	통신-업체	단어	한자어	通信業體	「명사」
1245	합창단원	합창단-원	단어	한자어	合唱團員	「명사」
1246	후히	후히	단어	혼종어	厚히	「부사」
1247	가입률	가입-률	단어	한자어	加入率	「명사」
1248	각본상	각본-상	단어	한자어	脚本賞	「명사」
1249	기획물	기획-물	단어	한자어	企劃物	「명사」
1250	대국화	대국-화	단어	한자어	大國化	「명사」
1251	대단결	대-단결	단어	한자어	大團結	「명사」
1252	살처분하다	살처분-하다	단어	혼종어	殺處分하다	「동사」
1253	스트레칭하다	스트레칭-하다	단어	혼종어	stretching하다	「동사」
1254	연구직	연구-직	단어	한자어	研究職	「명사」
1255	영양밥	영양-밥	단어	혼종어	營養밥	「명사」
1256	자가 진단	자가 진단	구	한자어	自家診斷	품사 없음
1257	저효율	저-효율	단어	한자어	低效率	「명사」
1258	전수자	전수-자	단어	한자어	專修者	「명사」
1259	제습기	제습-기	단어	한자어	除濕機	「명사」
1260	개별화	개별-화	단어	한자어	個別化	「명사」
1261	공연물	공연-물	단어	한자어	公演物	「명사」
1262	금목걸이	금-목걸이	단어	혼종어	金목걸이	「명사」
1263	등산용	등산-용	단어	한자어	登山用	「명사」
1264	무용제	무용-제	단어	한자어	舞踊祭	「명사」
1265	반외세	반-외세	단어	한자어	反外勢	「명사」
1266	발전용	발전-용	단어	한자어	發電用	「명사」
1267	부실화되다	부실화-되다	단어	혼종어	不實化되다	「동사」
1268	사범계	사범-계	단어	한자어	師範系	「명사」
1269	송부되다	송부-되다	단어	혼종어	送付되다	「동사」
1270	수입업체	수입-업체	단어	한자어	輸入業體	「명사」
1271	연하남	연하-남	단어	한자어	年下男	「명사」
1272	용도별	용도-별	단어	한자어	用途別	「명사」
1273	우화-적	우화-적	단어	한자어	寓話的	「관·명」
1274	일몰-제	일몰-제	단어	한자어	日沒制	「명사」
1275	주취자	주취-자	단어	한자어	酒醉者	「명사」
1276	철학계	철학-계	단어	한자어	哲學界	「명사」
1277	통칭되다	통칭-되다	단어	혼종어	通稱되다	「동사」
1278	통칭되다	통칭-되다	단어	혼종어	通稱되다	「동사」
1279	해답지	해답-지	단어	한자어	解答紙	「명사」
1280	가금류	가금-류	단어	한자어	家禽類	「명사」
1281	공모가	공모-가	단어	한자어	公募價	「명사」

1282	과민 반응	과민 반응	구	한자어	過敏反應	품사 없음
1283	과민 반응	과민^반응	구	한자어	過敏反應	품사 없음
1284	기탁되다	기탁-되다	단어	혼종어	寄託되다	「동사」
1285	내면성	내면-성	단어	한자어	內面性	「명사」
1286	논술형	논술-형	단어	한자어	論述型	「명사」
1287	대사량	대사-량	단어	한자어	代謝量	「명사」
1288	대사량	대사-량	단어	한자어	臺詞量	「명사」
1289	북방형	북방-형	단어	한자어	北方形	「명사」
1290	소비국	소비-국	단어	한자어	消費國	「명사」
1291	식중독균	식중독-균	단어	한자어	食中毒菌	「명사」
1292	청렴성	청렴-성	단어	한자어	清廉性	「명사」
1293	초등부	초등-부	단어	한자어	初等部	「명사」
1294	결별설	결별-설	단어	한자어	訣別說	「명사」
1295	계승권	계승-권	단어	한자어	繼承權	「명사」
1296	과세자	과세-자	단어	한자어	課稅者	「명사」
1297	과세자	과세-자	단어	한자어	課稅者	「명사」
1298	서비스직	서비스-직	단어	혼종어	service職	「명사」
1299	수집품	수집-품	단어	한자어	蒐集品	「명사」
1300	유화책	유화-책	단어	한자어	宥和策	「명사」
1301	주거 공간	주거 공간	구	한자어	住居空間	품사 없음
1302	직급별	직급-별	단어	한자어	職級別	「명사」
1303	진압군	진압-군	단어	한자어	鎮壓軍	「명사」
1304	차기작	차기-작	단어	한자어	次期作	「명사」
1305	청소비	청소-비	단어	한자어	清掃費	「명사」
1306	퇴임사	퇴임-사	단어	한자어	退任辭	「명사」
1307	회식비	회식-비	단어	한자어	會食費	「명사」
1308	내외국인	내-외국인	단어	한자어	內外國人	「명사」
1309	석고대죄하다	석고대죄-하다	단어	혼종어	席藁待罪하다	「동사」
1310	시상식장	시상식-장	단어	한자어	施賞式場	「명사」
1311	쌍화차	쌍화-차	단어	혼종어	雙和차	「명사」
1312	원내외	원내-외	단어	한자어	院內外	「명사」
1313	원리주의	원리-주의	단어	한자어	原理主義	「명사」
1314	의류업체	의류-업체	단어	한자어	衣類業體	「명사」
1315	의외성	의외-성	단어	한자어	意外性	「명사」
1316	잇몸병	잇몸-병	단어	혼종어	잇몸病	「명사」
1317	충원율	충원-율	단어	한자어	充員率	「명사」
1318	헤드셋	헤드셋	단어	외래어	headset	「명사」
1319	개시일	개시-일	단어	한자어	開始日	「명사」
1320	게임장	게임-장	단어	혼종어	game場	「명사」

1321	기획서	기획-서	단어	한자어	企劃書	「명사」
1322	도예전	도예-전	단어	한자어	陶藝展	「명사」
1323	발상법	발상-법	단어	한자어	發想法	「명사」
1324	보유액	보유-액	단어	한자어	保有額	「명사」
1325	주민증	주민-증	단어	한자어	住民證	「명사」
1326	중강당	중-강당	단어	한자어	中講堂	「명사」
1327	진앙지	진앙-지	단어	한자어	震央地	「명사」
1328	진앙지	진앙-지	단어	한자어	震央地	「명사」
1329	체면상	체면-상	단어	한자어	體面上	「명사」
1330	초단기	초-단기	단어	한자어	超短期	「명사」
1331	친누나	친-누나	단어	혼종어	親누나	「명사」
1332	투수전	투수-전	단어	한자어	投手戰	「명사」
1333	공격권	공격-권	단어	한자어	攻擊權	「명사」
1334	랜-선	랜-선	단어	혼종어	LAN線	「명사」
1335	보안성	보안-성	단어	한자어	保安性	「명사」
1336	보안성	보안-성	단어	한자어	保安性	「명사」
1337	성공담	성공-담	단어	한자어	成功談	「명사」
1338	신선감	신선-감	단어	한자어	新鮮感	「명사」
1339	입상작	입상-작	단어	한자어	入賞作	「명사」
1340	쟁점화하다	쟁점화-하다	단어	혼종어	爭點化하다	「동사」
1341	집창촌	집창-촌	단어	한자어	集娼村	「명사」
1342	학술상	학술-상	단어	한자어	學術賞	「명사」
1343	금주령	금주-령	단어	한자어	禁酒令	「명사」
1344	부동산값	부동산-값	단어	혼종어	不動産값	「명사」
1345	비현실	비-현실	단어	한자어	非現實	「명사」
1346	수습안	수습-안	단어	한자어	收拾案	「명사」
1347	초기적	초기-적	단어	한자어	初期的	「관·명」
1348	탐방로	탐방-로	단어	한자어	探訪路	「명사」
1349	개막작	개막-작	단어	한자어	開幕作	「명사」
1350	대북관	대북-관	단어	한자어	對北觀	「명사」
1351	매입자	매입-자	단어	한자어	買入者	「명사」
1352	사대주의적	사대주의-적	단어	한자어	事大主義的	「관·명」
1353	신년회	신년-회	단어	한자어	新年會	「명사」
1354	연속선상	연속선-상	단어	한자어	連屬線上	「명사」
1355	전용 차선	전용^차선	구	한자어	專用車線	품사 없음
1356	제조업자	제조업-자	단어	한자어	製造業者	「명사」
1357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	단어	한자어	中小企業人	「명사」
1358	초밥집	초밥-집	단어	혼종어	醋밥집	「명사」
1359	프러포즈하다	프러포즈-하다	단어	혼종어	propose하다	「동사」

1360	협약식	협약-식	단어	한자어	協約式	「명사」
1361	그룹전	그룹-전	단어	혼종어	group展	「명사」
1362	근저당권	근저당-권	단어	한자어	根抵當權	「명사」
1363	김장용	김장-용	단어	혼종어	김장用	「명사」
1364	대회사	대회-사	단어	한자어	大會辭	「명사」
1365	미취업	미-취업	단어	한자어	未就業	「명사」
1366	범주화	범주-화	단어	한자어	範疇化	「명사」
1367	변경안	변경-안	단어	한자어	變更案	「명사」
1368	봉사원	봉사-원	단어	한자어	奉仕員	「명사」
1369	분석관	분석-관	단어	한자어	分析官	「명사」
1370	사양화	사양-화	단어	한자어	斜陽化	「명사」
1371	수공예품	수공예-품	단어	한자어	手工藝品	「명사」
1372	예능감	예능-감	단어	한자어	藝能感	「명사」
1373	오답률	오답-률	단어	한자어	誤答率	「명사」
1374	유아적	유아-적	단어	한자어	幼兒的	「관·명」
1375	잔혹사	잔혹-사	단어	한자어	殘酷史	「명사」
1376	가전업체	가전-업체	단어	한자어	家電業體	「명사」
1377	단품	단품	단어	한자어	斷品	「명사」
1378	단품	단품	단어	한자어	單品	「명사」
1379	마케팅하다	마케팅-하다	단어	혼종어	marketing하다	「동사」
1380	배송비	배송-비	단어	한자어	配送費	「명사」
1381	중하위권	중하위-권	단어	한자어	中下位圈	「명사」
1382	지하화	지하-화	단어	한자어	地下化	「명사」
1383	초법적	초법-적	단어	한자어	超法的	「관·명」
1384	탈법적	탈법-적	단어	한자어	脫法的	「관·명」
1385	통치력	통치-력	단어	한자어	統治力	「명사」
1386	통학로	통학-로	단어	한자어	通學路	「명사」
1387	후속-작	후속-작	단어	한자어	後續作	「명사」
1388	고열량	고-열량	단어	한자어	高熱量	「명사」
1389	고질화	고질-화	단어	한자어	痼疾化	「명사」
1390	고질화	고질-화	단어	한자어	痼疾化	「명사」
1391	급식실	급식-실	단어	한자어	給食室	「명사」
1392	논술문	논술-문	단어	한자어	論述文	「명사」
1393	대개혁	대-개혁	단어	한자어	大改革	「명사」
1394	대사면	대-사면	단어	한자어	大赦免	「명사」
1395	무국적자	무국적-자	단어	한자어	無國籍者	「명사」
1396	민형사상	민형사-상	단어	한자어	民刑事上	「명사」
1397	법의관	법의-관	단어	한자어	法醫官	「명사」
1398	비관세	비-관세	단어	한자어	非關稅	「명사」

1399	소득 계층	소득^계층	구	한자어	所得階層	품사 없음
1400	수인성	수인-성	단어	한자어	水因性	「명사」
1401	연대기적	연대기-적	단어	한자어	年代記的	「관·명」
1402	요금제	요금-제	단어	한자어	料金制	「명사」
1403	용의점	용의-점	단어	한자어	容疑點	「명사」
1404	재승인	재-승인	단어	한자어	再承認	「명사」
1405	절상되다	절상-되다	단어	혼종어	切上되다	「동사」
1406	정규직화하다	정규직화-하다	단어	혼종어	正規職化하다	「동사」
1407	해양 생물	해양^생물	구	한자어	海洋生物	품사 없음
1408	해직자	해직-자	단어	한자어	解職者	「명사」
1409	감독직	감독-직	단어	한자어	監督職	「명사」
1410	감독직	감독-직	단어	한자어	監督職	「명사」
1411	고득점자	고득점-자	단어	한자어	高得點者	「명사」
1412	고령화되다	고령화-되다	단어	혼종어	高齡化되다	「동사」
1413	공시생	공시-생	단어	한자어	公試生	「명사」
1414	군락지	군락-지	단어	한자어	群落地	「명사」
1415	극단화	극단-화	단어	한자어	極端化	「명사」
1416	극단화	극단-화	단어	한자어	極端化	「명사」
1417	반세계화	반-세계화	단어	한자어	反世界化	「명사」
1418	보수화되다	보수화-되다	단어	혼종어	保守化되다	「동사」
1419	불허되다	불허-되다	단어	혼종어	不許되다	「동사」
1420	사립고	사립-고	단어	한자어	私立高	「명사」
1421	상용화하다	상용화-하다	단어	혼종어	常用化하다	「동사」
1422	생선류	생선-류	단어	한자어	生鮮類	「명사」
1423	소송전	소송-전	단어	한자어	訴訟戰	「명사」
1424	수제화	수제-화	단어	한자어	手製靴	「명사」
1425	위협감	위협-감	단어	한자어	威脅感	「명사」
1426	징용자	징용-자	단어	한자어	徵用者	「명사」
1427	행방불명자	행방불명-자	단어	한자어	行方不明者	「명사」
1428	허위적	허위-적	단어	한자어	虛偽的	「관·명」
1429	확인증	확인-증	단어	한자어	確認證	「명사」
1430	휘리릭	휘리릭	단어	고유어	휘리릭	「부사」
1431	가족-장	가족-장	단어	한자어	家族葬	「명사」
1432	개발업체	개발-업체	단어	한자어	開發業體	「명사」
1433	명품관	명품-관	단어	한자어	名品館	「명사」
1434	목표량	목표-량	단어	한자어	目標量	「명사」
1435	상황별	상황-별	단어	한자어	狀況別	「명사」
1436	수술법	수술-법	단어	한자어	手術法	「명사」
1437	시스템상	시스템-상	단어	혼종어	system上	「명사」

1438	시의성	시의-성	단어	한자어	時宜性	「명사」
1439	실습비	실습-비	단어	한자어	實習費	「명사」
1440	와불	와불	단어	한자어	臥佛	「명사」
1441	찬성론자	찬성론-자	단어	한자어	贊成論者	「명사」
1442	최강자	최강-자	단어	한자어	最強者	「명사」
1443	통합형	통합-형	단어	한자어	統合型	「명사」
1444	해설사	해설-사	단어	한자어	解說士	「명사」
1445	해설지	해설-지	단어	한자어	解說紙	「명사」
1446	감염성	감염-성	단어	한자어	感染性	「명사」
1447	곱셈식	곱셈-식	단어	혼종어	곱셈式	「명사」
1448	귀경길	귀경-길	단어	혼종어	歸京길	「명사」
1449	남녀부	남녀-부	단어	한자어	男女部	「명사」
1450	대책안	대책-안	단어	한자어	對策案	「명사」
1451	마지막 회	마지막 회	구	혼종어	마지막回	품사 없음
1452	면접장	면접-장	단어	한자어	面接場	「명사」
1453	분담률	분담-률	단어	한자어	分擔率	「명사」
1454	불기소하다	불기소-하다	단어	혼종어	不起訴하다	「동사」
1455	산양삼	산양-삼	단어	한자어	山養蔘	「명사」
1456	썰매장	썰매-장	단어	혼종어	썰매場	「명사」
1457	언론관	언론-관	단어	한자어	言論觀	「명사」
1458	운영사	운영-사	단어	한자어	運營社	「명사」
1459	유류비	유류-비	단어	한자어	油類費	「명사」
1460	인용자	인용-자	단어	한자어	引用者	「명사」
1461	자주-화	자주-화	단어	한자어	自主化	「명사」
1462	절대시하다	절대시-하다	단어	혼종어	絕對視하다	「동사」
1463	제약업체	제약-업체	단어	한자어	製藥業體	「명사」
1464	촉진책	촉진-책	단어	한자어	促進策	「명사」
1465	판매업체	판매-업체	단어	한자어	販賣業體	「명사」
1466	핵심어	핵심-어	단어	한자어	核心語	「명사」
1467	관련설	관련-설	단어	한자어	關聯說	「명사」
1468	김밥집	김밥-집	단어	고유어	김밥집	「명사」
1469	반국가적	반국가-적	단어	한자어	反國家的	「관·명」
1470	비인가	비-인가	단어	한자어	非認可	「명사」
1471	수정본	수정-본	단어	한자어	修訂本	「명사」
1472	약초꾼	약초-꾼	단어	혼종어	藥草꾼	「명사」
1473	업무 협약	업무^협약	구	한자어	業務協約	품사 없음
1474	전시적	전시-적	단어	한자어	展示的	「관·명」
1475	최고위직	최고위-직	단어	한자어	最高位職	「명사」
1476	축제장	축제-장	단어	한자어	祝祭場	「명사」

1477	파기름	파-기름	단어	고유어	파기름	「명사」
1478	관계망	관계-망	단어	한자어	關係網	「명사」
1479	매도세	매도-세	단어	한자어	賣渡勢	「명사」
1480	서리태	서리태	단어	한자어	太	「명사」
1481	승계되다	승계-되다	단어	혼종어	承繼되다	「동사」
1482	예능계	예능-계	단어	한자어	藝能系	「명사」
1483	예능계	예능-계	단어	한자어	藝能界	「명사」
1484	우삼겹	우-삼겹	단어	혼종어	牛三겹	「명사」
1485	임관식	임관-식	단어	한자어	任官式	「명사」
1486	임관식	임관-식	단어	한자어	任官式	「명사」
1487	장인 정신	장인^정신	구	한자어	匠人精神	품사 없음
1488	전투용	전투-용	단어	한자어	戰鬥用	「명사」
1489	친양자	친-양자	단어	한자어	親養子	「명사」
1490	한글판	한글-판	단어	혼종어	한글版	「명사」
1491	개명되다	개명-되다	단어	혼종어	改名되다	「동사」
1492	개혁론	개혁-론	단어	한자어	改革論	「명사」
1493	고시촌	고시-촌	단어	한자어	考試村	「명사」
1494	고환율	고-환율	단어	한자어	高換率	「명사」
1495	공급처	공급-처	단어	한자어	供給處	「명사」
1496	교통경찰관	교통-경찰관	단어	한자어	交通警察官	「명사」
1497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	단어	한자어	根本主義者	「명사」
1498	농구계	농구-계	단어	한자어	籠球界	「명사」
1499	대만족	대-만족	단어	한자어	大滿足	「명사」
1500	맨얼굴	맨-얼굴	단어	고유어	맨얼굴	「명사」
1501	맨얼굴	맨-얼굴	단어	고유어	맨얼굴	「명사」
1502	분대원	분대-원	단어	한자어	分隊員	「명사」
1503	비겁자	비겁-자	단어	한자어	卑怯者	「명사」
1504	수송난	수송-난	단어	한자어	輸送難	「명사」
1505	시험용	시험-용	단어	한자어	試驗用	「명사」
1506	외설적	외설-적	단어	한자어	猥褻的	「관·명」
1507	음식업	음식-업	단어	한자어	飲食業	「명사」
1508	재대결	재-대결	단어	한자어	再對決	「명사」
1509	재직자	재직-자	단어	한자어	在職者	「명사」
1510	쟁점화되다	쟁점화-되다	단어	혼종어	爭點化되다	「동사」
1511	정형화	정형-화	단어	한자어	定型化	「명사」
1512	종속성	종속-성	단어	한자어	從屬性	「명사」
1513	후원사	후원-사	단어	한자어	後援社	「명사」
1514	고객층	고객-층	단어	한자어	顧客層	「명사」
1515	논항	논항	단어	한자어	論項	「명사」

1516	단절감	단절-감	단어	한자어	斷絶感	「명사」
1517	대서특필되다	대서특필-되다	단어	혼종어	大書特筆되다	「동사」
1518	동문회장	동문회-장	단어	한자어	同門會長	「명사」
1519	묵밥	묵-밥	단어	고유어	묵밥	「명사」
1520	보건실	보건-실	단어	한자어	保健室	「명사」
1521	신인류	신-인류	단어	한자어	新人類	「명사」
1522	예술상	예술-상	단어	한자어	藝術賞	「명사」
1523	오이고추	오이-고추	단어	고유어	오이고추	「명사」
1524	음역대	음역-대	단어	한자어	音域帶	「명사」
1525	피폭자	피폭-자	단어	한자어	被爆者	「명사」
1526	피폭자	피폭-자	단어	한자어	被爆者	「명사」
1527	결집력	결집-력	단어	한자어	結集力	「명사」
1528	논리력	논리-력	단어	한자어	論理力	「명사」
1529	다득점	다-득점	단어	한자어	多得點	「명사」
1530	면피용	면피-용	단어	한자어	免避用	「명사」
1531	부검의	부검-의	단어	한자어	剖檢醫	「명사」
1532	빙상장	빙상-장	단어	한자어	氷上場	「명사」
1533	상대주의적	상대주의-적	단어	한자어	相對主義的	「관·명」
1534	소장자	소장-자	단어	한자어	所藏者	「명사」
1535	실무상	실무-상	단어	한자어	實務上	「명사」
1536	심의실	심의-실	단어	한자어	審議室	「명사」
1537	역제안	역-제안	단어	한자어	逆提案	「명사」
1538	음악도	음악-도	단어	한자어	音樂徒	「명사」
1539	이념상	이념-상	단어	한자어	理念上	「명사」
1540	창작성	창작-성	단어	한자어	創作性	「명사」
1541	창작성	창작-성	단어	한자어	創作性	「명사」
1542	치료용	치료-용	단어	한자어	治療用	「명사」
1543	통제실	통제-실	단어	한자어	統制室	「명사」
1544	투자사	투자-사	단어	한자어	投資社	「명사」
1545	피고용자	피-고용자	단어	한자어	被雇用者	「명사」
1546	한국-민	한국-민	단어	한자어	韓國民	「명사」
1547	항공망	항공-망	단어	한자어	航空網	「명사」
1548	고문자	고-문자	단어	한자어	古文字	「명사」
1549	고문자	고문-자	단어	한자어	拷問者	「명사」
1550	누아르	누아르	단어	외래어	noir	「명사」
1551	당위론	당위-론	단어	한자어	當爲論	「명사」
1552	백반집	백반-집	단어	혼종어	白飯집	「명사」
1553	법리상	법리-상	단어	한자어	法理上	「명사」
1554	비약되다	비약-되다	단어	혼종어	飛躍되다	「동사」



1555	예술가적	예술가-적	단어	한자어	藝術家的	「관·명」
1556	예언적	예언-적	단어	한자어	豫言的	「관·명」
1557	유치전	유치-전	단어	한자어	誘致戰	「명사」
1558	전공별	전공-별	단어	한자어	專攻別	「명사」
1559	접이식	접이-식	단어	혼종어	접이式	「명사」
1560	접이식	접이-식	단어	혼종어	접이式	「명사」
1561	차별주의	차별-주의	단어	한자어	差別主義	「명사」
1562	채취선	채취-선	단어	한자어	採取船	「명사」
1563	푸하하	푸하하	단어	고유어	푸하하	「부사」
1564	퐁	퐁	단어	고유어	퐁	「부사」
1565	개각설	개각-설	단어	한자어	改閣說	「명사」
1566	개량형	개량-형	단어	한자어	改良型	「명사」
1567	구분법	구분-법	단어	한자어	區分法	「명사」
1568	기업농	기업-농	단어	한자어	企業農	「명사」
1569	김말이	김-말이	단어	고유어	김말이	「명사」
1570	김말이	김-말이	단어	고유어	김말이	「명사」
1571	문명사적	문명사-적	단어	한자어	文明史的	「관·명」
1572	반찬값	반찬-값	단어	혼종어	飯饌값	「명사」
1573	밥차	밥-차	단어	혼종어	밥車	「명사」
1574	배달비	배달-비	단어	한자어	配達費	「명사」
1575	상례적	상례-적	단어	한자어	常例的	「관·명」
1576	시립대	시립-대	단어	한자어	市立大	「명사」
1577	연결망	연결-망	단어	한자어	連結網	「명사」
1578	운명체	운명-체	단어	한자어	運命體	「명사」
1579	위탁모	위탁-모	단어	한자어	委託母	「명사」
1580	재선충병	재선충-병	단어	한자어	材線蟲病	「명사」
1581	조성비	조성-비	단어	한자어	造成費	「명사」
1582	출국자	출국-자	단어	한자어	出國者	「명사」
1583	헛말	헛-말	단어	고유어	헛말	「명사」
1584	겨울용	겨울-용	단어	혼종어	겨울用	「명사」
1585	구시가지	구-시가지	단어	한자어	舊市街地	「명사」
1586	귀국자	귀국-자	단어	한자어	歸國者	「명사」
1587	내실화하다	내실화-하다	단어	혼종어	內實化하다	「동사」
1588	내재화되다	내재화-되다	단어	혼종어	內在化되다	「동사」
1589	라이벌전	라이벌-전	단어	혼종어	rival戰	「명사」
1590	무역업체	무역-업체	단어	한자어	貿易業體	「명사」
1591	상업용지	상업-용지	단어	한자어	商業用地	「명사」
1592	생선구이	생선-구이	단어	혼종어	生鮮구이	「명사」
1593	신사옥	신-사옥	단어	한자어	新社屋	「명사」

1594	실무급	실무-급	단어	한자어	實務級	「명사」
1595	영주권자	영주권-자	단어	한자어	永住權者	「명사」
1596	응찰자	응찰-자	단어	한자어	應札者	「명사」
1597	전형료	전형-료	단어	한자어	銓衡料	「명사」
1598	초중고	초중고	단어	한자어	初中高	「명사」
1599	최고수	최-고수	단어	한자어	最高手	「명사」
1600	통합안	통합-안	단어	한자어	統合案	「명사」
1601	피랍자	피랍-자	단어	한자어	被拉者	「명사」
1602	고지전	고지-전	단어	한자어	高地戰	「명사」
1603	긴박성	긴박-성	단어	한자어	緊迫性	「명사」
1604	다주택자	다주택-자	단어	한자어	多住宅者	「명사」
1605	립밤	립-밤	단어	외래어	lip-balm	「명사」
1606	상남자	상-남자	단어	한자어	上男子	「명사」
1607	실사판	실사-판	단어	한자어	實寫板	「명사」
1608	약탈적	약탈-적	단어	한자어	掠奪的	「관·명」
1609	절대화	절대-화	단어	한자어	絕對化	「명사」
1610	주빈국	주빈-국	단어	한자어	主賓國	「명사」
1611	주식값	주식-값	단어	혼종어	株式값	「명사」
1612	지각생	지각-생	단어	한자어	遲刻生	「명사」
1613	청구액	청구-액	단어	한자어	請求額	「명사」
1614	탈정치화	탈정치-화	단어	한자어	脫政治化	「명사」
1615	특성화하다	특성화-하다	단어	혼종어	特性化하다	「동사」
1616	특혜성	특혜-성	단어	한자어	特惠性	「명사」
1617	폐비닐	폐-비닐	단어	혼종어	廢vinyl	「명사」
1618	폐업률	폐업-률	단어	한자어	廢業率	「명사」
1619	해소법	해소-법	단어	한자어	解消法	「명사」
1620	대의적	대의-적	단어	한자어	大義的	「관·명」
1621	무인가	무-인가	단어	한자어	無認可	「명사」
1622	미혼부	미혼-부	단어	한자어	未婚父	「명사」
1623	병의원	병-의원	단어	한자어	病醫院	「명사」
1624	사무용품	사무-용품	단어	한자어	事務用品	「명사」
1625	성역화	성역-화	단어	한자어	聖域化	「명사」
1626	쇄신책	쇄신-책	단어	한자어	刷新策	「명사」
1627	실사단	실사-단	단어	한자어	實查團	「명사」
1628	영업상	영업-상	단어	한자어	營業上	「명사」
1629	유류가	유류-가	단어	한자어	油類價	「명사」
1630	집하장	집하-장	단어	한자어	集荷場	「명사」
1631	추리극	추리-극	단어	한자어	推理劇	「명사」
1632	평가회	평가-회	단어	한자어	評價會	「명사」

1633	폭로자	폭로-자	단어	한자어	暴露者	「명사」
1634	홍보성	홍보-성	단어	한자어	弘報性	「명사」
1635	강력반	강력-반	단어	한자어	強力班	「명사」
1636	견지되다	견지-되다	단어	혼종어	堅持되다	「동사」
1637	다차원적	다차원-적	단어	한자어	多次元的	「관·명」
1638	마감일	마감-일	단어	혼종어	마감日	「명사」
1639	면제자	면제-자	단어	한자어	免除者	「명사」
1640	반려묘	반려-묘	단어	한자어	伴侶猫	「명사」
1641	불발되다	불발-되다	단어	혼종어	不發되다	「동사」
1642	불발되다	불발-되다	단어	혼종어	不發되다	「동사」
1643	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	단어	혼종어	service業體	「명사」
1644	소수인	소수-인	단어	한자어	少數人	「명사」
1645	존중감	존중-감	단어	한자어	尊重感	「명사」
1646	징수원	징수-원	단어	한자어	徵收員	「명사」
1647	초정밀	초-정밀	단어	한자어	超精密	「명사」
1648	총연합	총-연합	단어	한자어	總聯合	「명사」
1649	출생자	출생-자	단어	한자어	出生者	「명사」
1650	개발실	개발-실	단어	한자어	開發室	「명사」
1651	과시적	과시-적	단어	한자어	誇示的	「관·명」
1652	매입비	매입-비	단어	한자어	買入費	「명사」
1653	법제적	법제-적	단어	한자어	法制的	「관·명」
1654	부적응자	부적응-자	단어	한자어	不適應者	「명사」
1655	순환로	순환-로	단어	한자어	循環路	「명사」
1656	실거래	실-거래	단어	한자어	實去來	「명사」
1657	실기실	실기-실	단어	한자어	實技室	「명사」
1658	정상권	정상-권	단어	한자어	頂上圈	「명사」
1659	추국장	추국-장	단어	한자어	推鞠場	「명사」
1660	추모사	추모-사	단어	한자어	追慕辭	「명사」
1661	관리처	관리-처	단어	한자어	管理處	「명사」
1662	대운동장	대-운동장	단어	한자어	大運動場	「명사」
1663	딱밤	딱-밤	단어	고유어	딱밤	「명사」
1664	배송되다	배송-되다	단어	혼종어	配送되다	「동사」
1665	서포터스	서포터스	단어	외래어	supporters	「명사」
1666	성과주의	성과-주의	단어	한자어	成果主義	「명사」
1667	소명감	소명-감	단어	한자어	召命感	「명사」
1668	식료품점	식료품-점	단어	한자어	食料品店	「명사」
1669	우선시되다	우선시-되다	단어	혼종어	優先視되다	「동사」
1670	전투병	전투-병	단어	한자어	戰鬪兵	「명사」
1671	주거권	주거-권	단어	한자어	住居權	「명사」

1672	차종별	차종-별	단어	한자어	車種別	「명사」
1673	초중반	초-중반	단어	한자어	初中盤	「명사」
1674	초중반	초-중반	단어	한자어	初中盤	「명사」
1675	부양자	부양-자	단어	한자어	扶養者	「명사」
1676	섬유업체	섬유-업체	단어	한자어	纖維業體	「명사」
1677	수리점	수리-점	단어	한자어	修理店	「명사」
1678	이중 잣대	이중 잣대	구	혼종어	二重잣대	품사 없음
1679	일상용품	일상-용품	단어	한자어	日常用品	「명사」
1680	전산화하다	전산화-하다	단어	혼종어	電算化하다	「동사」
1681	타격왕	타격-왕	단어	한자어	打擊王	「명사」
1682	한계치	한계-치	단어	한자어	限界値	「명사」
1683	고향길	고향-길	단어	혼종어	故鄉길	「명사」
1684	녹취록	녹취-록	단어	한자어	錄取錄	「명사」
1685	대폭락	대-폭락	단어	한자어	大暴落	「명사」
1686	잔치국수	잔치-국수	단어	고유어	잔치국수	「명사」
1687	제정안	제정-안	단어	한자어	制定案	「명사」
1688	최저점	최저-점	단어	한자어	最低點	「명사」
1689	추세적	추세-적	단어	한자어	趨勢的	「관·명」
1690	파견직	파견-직	단어	한자어	派遣職	「명사」
1691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	단어	혼종어	正走行하다	「동사」
1692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	단어	혼종어	正走行하다	「동사」
1693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	단어	혼종어	正走行하다	「동사」
1694	정직원	정-직원	단어	한자어	正職員	「명사」
1695	최연장자	최-연장자	단어	한자어	最年長者	「명사」
1696	탈규제	탈-규제	단어	한자어	脫規制	「명사」
1697	트임	트임	단어	고유어	트임	「명사」
1698	트임	트임	단어	고유어	트임	「명사」
1699	능력치	능력-치	단어	한자어	能力値	「명사」
1700	대역전	대-역전	단어	한자어	大逆轉	「명사」
1701	대역죄인	대역죄-인	단어	한자어	大逆罪人	「명사」
1702	요약본	요약-본	단어	한자어	要約本	「명사」
1703	최단시간	최단-시간	단어	한자어	最短時間	「명사」
1704	대반전	대-반전	단어	한자어	大反轉	「명사」
1705	대방출	대-방출	단어	한자어	大放出	「명사」
1706	성인물	성인-물	단어	한자어	成人物	「명사」
1707	업소용	업소-용	단어	한자어	業所用	「명사」
1708	내연녀	내연-녀	단어	한자어	內緣女	「명사」
1709	최정상급	최-정상급	단어	한자어	最頂上級	「명사」
1710	음모설	음모-설	단어	한자어	陰謀說	「명사」

1711	재구축	재-구축	단어	한자어	再構築	「명사」
1712	재구축	재-구축	단어	한자어	再構築	「명사」
1713	재허가	재-허가	단어	한자어	再許可	「명사」
1714	대내용	대내-용	단어	한자어	對內用	「명사」
1715	대여소	대여-소	단어	한자어	貸與所	「명사」
1716	손주며느리	손주-며느리	단어	혼종어	孫주며느리	「명사」
1717	영결식장	영결식-장	단어	한자어	永訣式場	「명사」
1718	왕자병	왕자-병	단어	한자어	王子病	「명사」
1719	재구조화	재-구조화	단어	한자어	再構造化	「명사」
1720	재창조되다	재창조-되다	단어	혼종어	再創造되다	「동사」
1721	직拂	직拂	단어	한자어	直拂	「명사」
1722	채무액	채무-액	단어	한자어	債務額	「명사」
1723	개설서	개설-서	단어	한자어	概說書	「명사」
1724	대담자	대담-자	단어	한자어	對談者	「명사」
1725	무보증	무-보증	단어	한자어	無保證	「명사」
1726	분리수거하다	분리수거-하다	단어	혼종어	分離收去하다	「동사」
1727	성과금	성과-금	단어	한자어	成果金	「명사」
1728	송금액	송금-액	단어	한자어	送金額	「명사」
1729	초현실	초-현실	단어	한자어	超現實	「명사」
1730	최연소자	최연소-자	단어	한자어	最年少者	「명사」
1731	취업문	취업-문	단어	한자어	就業門	「명사」
1732	미행자	미행-자	단어	한자어	尾行者	「명사」
1733	변동률	변동-률	단어	한자어	變動率	「명사」
1734	신중년	신-중년	단어	한자어	新中年	「명사」
1735	이주비	이주-비	단어	한자어	移住費	「명사」
1736	재직 증명서	재직^증명서	구	한자어	在職證明書	품사 없음
1737	재창출하다	재창출-하다	단어	혼종어	再創出하다	「동사」
1738	재해석되다	재해석-되다	단어	혼종어	再解釋되다	「동사」
1739	전몰자	전몰-자	단어	한자어	戰歿者	「명사」
1740	최고령자	최고령-자	단어	한자어	最高齡者	「명사」
1741	되값다	되-값다	단어	고유어	되값다	「동사」
1742	말종	말종	단어	한자어	末種	「명사」
1743	반건조	반-건조	단어	한자어	半乾燥	「명사」
1744	발주되다	발주-되다	단어	혼종어	發注되다	「동사」
1745	비보호	비-보호	단어	한자어	非保護	「명사」
1746	비장감	비장-감	단어	한자어	悲壯感	「명사」
1747	상영작	상영-작	단어	한자어	上映作	「명사」
1748	상이성	상이-성	단어	한자어	相異性	「명사」
1749	생태주의	생태-주의	단어	한자어	生態主義	「명사」

1750	순대국밥	순대-국밥	단어	고유어	순대국밥	「명사」
1751	신봉되다	신봉-되다	단어	혼종어	信奉되다	「동사」
1752	아웃렛	아웃렛	단어	외래어	outlet	「명사」
1753	잔여분	잔여-분	단어	한자어	殘餘分	「명사」
1754	지급률	지급-률	단어	한자어	支給率	「명사」
1755	지성미	지성-미	단어	한자어	知性美	「명사」
1756	직불제	직불-제	단어	한자어	直拂制	「명사」
1757	초박빙	초-박빙	단어	한자어	超薄氷	「명사」
1758	황토방	황토-방	단어	한자어	黃土房	「명사」
1759	후발국	후발-국	단어	한자어	後發國	「명사」
1760	개론서	개론-서	단어	한자어	概論書	「명사」
1761	관행화되다	관행화-되다	단어	혼종어	慣行化되다	「동사」
1762	난방비	난방-비	단어	한자어	暖房費	「명사」
1763	비판론자	비판론-자	단어	한자어	批判論者	「명사」
1764	현대시	현대-시	단어	한자어	現代詩	「명사」
1765	회의론자	회의론-자	단어	한자어	懷疑論者	「명사」
1766	개혁론자	개혁론-자	단어	한자어	改革論者	「명사」
1767	연역되다	연역-되다	단어	혼종어	演繹되다	「동사」
1768	예약률	예약-률	단어	한자어	豫約率	「명사」
1769	으라차차	으라차차	단어	고유어	으라차차	「감탄사」
1770	점검반	점검-반	단어	한자어	點檢班	「명사」
1771	표준안	표준-안	단어	한자어	標準案	「명사」
1772	현지어	현지-어	단어	한자어	現地語	「명사」
1773	흐림	흐림	단어	고유어	흐림	「명사」
1774	흐림	흐림	단어	고유어	흐림	「명사」
1775	간편결제	간편-결제	단어	한자어	簡便決済	「명사」
1776	계급론	계급-론	단어	한자어	階級論	「명사」
1777	국지성	국지-성	단어	한자어	局地性	「명사」
1778	기준가	기준-가	단어	한자어	基準價	「명사」
1779	수입사	수입-사	단어	한자어	輸入社	「명사」
1780	실내외	실내-외	단어	한자어	室內外	「명사」
1781	앞꿈치	앞-꿈치	단어	고유어	앞꿈치	「명사」
1782	유아용품	유아-용품	단어	한자어	幼兒用品	「명사」
1783	하락률	하락-률	단어	한자어	下落率	「명사」
1784	광대역	광-대역	단어	한자어	廣帶域	「명사」
1785	기부되다	기부-되다	단어	혼종어	寄附되다	「동사」
1786	등록일	등록-일	단어	한자어	登録日	「명사」
1787	멸치액젓	멸치-액젓	단어	혼종어	멸치液젓	「명사」
1788	발인식	발인-식	단어	한자어	發靱式	「명사」

1789	비과세되다	비과세-되다	단어	혼종어	非課稅되다	「동사」
1790	재첩국	재첩-국	단어	고유어	재첩국	「명사」
1791	곤혹감	곤혹-감	단어	한자어	困惑感	「명사」
1792	닭꼬치	닭-꼬치	단어	고유어	닭꼬치	「명사」
1793	배후설	배후-설	단어	한자어	背後說	「명사」
1794	최약체	최-약체	단어	한자어	最弱體	「명사」
1795	구직난	구직-난	단어	한자어	求職難	「명사」
1796	완결판	완결-판	단어	한자어	完結版	「명사」
1797	완결판	완결-판	단어	한자어	完結版	「명사」
1798	내부인	내부-인	단어	한자어	內部人	「명사」
1799	내부인	내부-인	단어	한자어	內部人	「명사」
1800	비활동적	비-활동적	단어	한자어	非活動的	「관·명」
1801	비활동적	비-활동적	단어	한자어	非活動的	「관·명」
1802	사분오열되다	사분오열-되다	단어	혼종어	四分五裂되다	「동사」
1803	사분오열되다	사분오열-되다	단어	혼종어	四分五裂되다	「동사」
1804	사분오열되다	사분오열-되다	단어	혼종어	四分五裂되다	「동사」
1805	의뢰자	의뢰-자	단어	한자어	依頼者	「명사」
1806	재단되다	재단-되다	단어	혼종어	裁斷되다	「동사」
1807	재단되다	재단-되다	단어	혼종어	裁斷되다	「동사」
1808	재발률	재발-률	단어	한자어	再發率	「명사」
1809	개성미	개성-미	단어	한자어	個性美	「명사」
1810	급증세	급증-세	단어	한자어	急增勢	「명사」
1811	납부액	납부-액	단어	한자어	納付額	「명사」
1812	수출길	수출-길	단어	혼종어	輸出길	「명사」
1813	지식인층	지식인-층	단어	한자어	知識人層	「명사」
1814	찬반론	찬반-론	단어	한자어	贊反論	「명사」
1815	창립일	창립-일	단어	한자어	創立日	「명사」
1816	청보리	청-보리	단어	혼종어	靑보리	「명사」
1817	청탁자	청탁-자	단어	한자어	請託者	「명사」
1818	초강경	초-강경	단어	한자어	超強硬	「명사」
1819	명연설	명-연설	단어	한자어	名演說	「명사」
1820	발표장	발표-장	단어	한자어	發表場	「명사」
1821	범주화되다	범주화-되다	단어	혼종어	範疇化되다	「동사」
1822	실습용	실습-용	단어	한자어	實習用	「명사」
1823	폐쇄형	폐쇄-형	단어	한자어	閉鎖形	「명사」
1824	폐쇄형	폐쇄-형	단어	한자어	閉鎖形	「명사」
1825	할인가	할인-가	단어	한자어	割引價	「명사」
1826	회무침	회-무침	단어	혼종어	膾무침	「명사」
1827	고순도	고-순도	단어	한자어	高純度	「명사」

1828	본방송	본-방송	단어	한자어	本放送	「명사」
1829	수신료	수신-료	단어	한자어	受信料	「명사」
1830	어묵탕	어묵-탕	단어	혼종어	魚묵湯	「명사」
1831	언약식	언약-식	단어	한자어	言約式	「명사」
1832	자성론	자성-론	단어	한자어	自省論	「명사」
1833	중계석	중계-석	단어	한자어	中繼席	「명사」
1834	학습용	학습-용	단어	한자어	學習用	「명사」
1835	가점제	가점-제	단어	한자어	加點制	「명사」
1836	고전주의적	고전주의-적	단어	한자어	古典主義的	「관·명」
1837	교양지	교양-지	단어	한자어	教養誌	「명사」
1838	미용업	미용-업	단어	한자어	美容業	「명사」
1839	방공망	방공-망	단어	한자어	防空網	「명사」
1840	방지제	방지-제	단어	한자어	防止劑	「명사」
1841	수선집	수선-집	단어	혼종어	修繕집	「명사」
1842	시공비	시공-비	단어	한자어	施工費	「명사」
1843	왕중왕전	왕중왕-전	단어	한자어	王中王戰	「명사」
1844	교내외	교내-외	단어	한자어	校内外	「명사」
1845	궤양성	궤양-성	단어	한자어	潰瘍性	「명사」
1846	성장력	성장-력	단어	한자어	成長力	「명사」
1847	성장력	성장-력	단어	한자어	成長力	「명사」
1848	완성본	완성-본	단어	한자어	完成本	「명사」
1849	외계어	외계-어	단어	한자어	外界語	「명사」
1850	월정액	월정-액	단어	한자어	月定額	「명사」
1851	육고기	육-고기	단어	혼종어	肉고기	「명사」
1852	음서제	음서-제	단어	한자어	蔭敍制	「명사」
1853	응모권	응모-권	단어	한자어	應募券	「명사」
1854	저가형	저가-형	단어	한자어	低價型	「명사」
1855	특별판	특별-판	단어	한자어	特別版	「명사」
1856	대피령	대피-령	단어	한자어	待避令	「명사」
1857	보육비	보육-비	단어	한자어	保育費	「명사」
1858	뷔페식	뷔페-식	단어	혼종어	buffet式	「명사」
1859	고지되다	고지-되다	단어	혼종어	告知되다	「동사」
1860	고지되다	고지-되다	단어	혼종어	告知되다	「동사」
1861	관심법	관심-법	단어	한자어	觀心法	「명사」
1862	기름장	기름-장	단어	혼종어	기름醬	「명사」
1863	대반격	대-반격	단어	한자어	大反擊	「명사」
1864	덧셈식	덧셈-식	단어	혼종어	덧셈式	「명사」
1865	매매업	매매-업	단어	한자어	賣買業	「명사」
1866	면허제	면허-제	단어	한자어	免許制	「명사」



1867	안개등	안개-등	단어	혼종어	안개燈	「명사」
1868	의상비	의상-비	단어	한자어	衣裳費	「명사」
1869	참교육	참-교육	단어	혼종어	참敎育	「명사」
1870	확약서	확약-서	단어	한자어	確約書	「명사」
1871	멜로물	멜로-물	단어	혼종어	←melodrama物	「명사」
1872	무기화하다	무기화-하다	단어	혼종어	武器化하다	「동사」
1873	무기화하다	무기화-하다	단어	혼종어	武器化하다	「동사」
1874	무술인	무술-인	단어	한자어	武術人	「명사」
1875	문구류	문구-류	단어	한자어	文具類	「명사」
1876	보수층	보수-층	단어	한자어	保守層	「명사」
1877	서구형	서구-형	단어	한자어	西歐型	「명사」
1878	이성관	이성-관	단어	한자어	異性觀	「명사」
1879	자원난	자원-난	단어	한자어	資源難	「명사」
1880	잔금일	잔금-일	단어	한자어	殘金日	「명사」
1881	잔류자	잔류-자	단어	한자어	殘留者	「명사」
1882	정보학	정보-학	단어	한자어	情報學	「명사」
1883	종료일	종료-일	단어	한자어	終了日	「명사」
1884	중상모략하다	중상모략-하다	단어	혼종어	中傷謀略하다	「동사」
1885	진행비	진행-비	단어	한자어	進行費	「명사」
1886	집담회	집담-회	단어	한자어	集談會	「명사」
1887	통신료	통신-료	단어	한자어	通信料	「명사」
1888	격년제	격년-제	단어	한자어	隔年制	「명사」
1889	고용직	고용-직	단어	한자어	雇傭職	「명사」
1890	곤충학자	곤충학-자	단어	한자어	昆蟲學者	「명사」
1891	공경심	공경-심	단어	한자어	恭敬心	「명사」
1892	리필하다	리필-하다	단어	혼종어	refill하다	「동사」
1893	불용액	불용-액	단어	한자어	不用額	「명사」
1894	오겹살	오겹-살	단어	혼종어	五겹살	「명사」
1895	재개장	재-개장	단어	한자어	再開場	「명사」
1896	재포장	재-포장	단어	한자어	再包裝	「명사」
1897	전략통	전략-통	단어	한자어	戰略通	「명사」
1898	전쟁광	전쟁-광	단어	한자어	戰爭狂	「명사」
1899	집행률	집행-률	단어	한자어	執行率	「명사」
1900	초우량	초-우량	단어	한자어	超優良	「명사」
1901	초저가	초-저가	단어	한자어	超低價	「명사」
1902	최신곡	최신-곡	단어	한자어	最新曲	「명사」
1903	귀양길	귀양-길	단어	고유어	귀양길	「명사」
1904	규제안	규제-안	단어	한자어	規制案	「명사」
1905	술빵	술-빵	단어	고유어	술빵	「명사」

1906	취약지	취약-지	단어	한자어	脆弱地	「명사」
1907	폐막일	폐막-일	단어	한자어	閉幕日	「명사」
1908	해물짬	해물-짬	단어	혼종어	海物짬	「명사」
1909	생라면	생-라면	단어	혼종어	生←râmen	「명사」
1910	생라면	생-라면	단어	혼종어	生←râmen	「명사」
1911	서구어	서구-어	단어	한자어	西歐語	「명사」
1912	소비자가	소비자-가	단어	한자어	消費者價	「명사」
1913	유료화하다	유료화-하다	단어	혼종어	有料化하다	「동사」
1914	입퇴원	입-퇴원	단어	한자어	入退院	「명사」
1915	절망스럽다	절망-스럽다	단어	혼종어	絶望스럽다	「형용사」
1916	존비속	존-비속	단어	한자어	尊卑屬	「명사」
1917	출산일	출산-일	단어	한자어	出産日	「명사」
1918	학술제	학술-제	단어	한자어	學術祭	「명사」
1919	간판급	간판-급	단어	한자어	看板級	「명사」
1920	보따리상	보따리-상	단어	혼종어	褌따리商	「명사」
1921	산림욕장	산림욕-장	단어	한자어	山林浴場	「명사」
1922	염문설	염문-설	단어	한자어	艶聞說	「명사」
1923	완벽주의	완벽-주의	단어	한자어	完璧主義	「명사」
1924	이분화	이분-화	단어	한자어	二分化	「명사」
1925	입문자	입문-자	단어	한자어	入門者	「명사」
1926	입문자	입문-자	단어	한자어	入門者	「명사」
1927	초경량	초-경량	단어	한자어	超輕量	「명사」
1928	출하액	출하-액	단어	한자어	出荷額	「명사」
1929	경고판	경고-판	단어	한자어	警告板	「명사」
1930	고갈비	고-갈비	단어	고유어	고갈비	「명사」
1931	기초반	기초-반	단어	한자어	基礎班	「명사」
1932	농축산	농-축산	단어	한자어	農畜産	「명사」
1933	도로명	도로-명	단어	한자어	道路名	「명사」
1934	목표가	목표-가	단어	한자어	目標價	「명사」
1935	반기별	반기-별	단어	한자어	半期別	「명사」
1936	분양금	분양-금	단어	한자어	分讓金	「명사」
1937	상투화되다	상투화-되다	단어	혼종어	常套化되다	「동사」
1938	수의적	수의-적	단어	한자어	隨意的	「관·명」
1939	악순환되다	악순환-되다	단어	혼종어	惡循環되다	「동사」
1940	이과대	이과-대	단어	한자어	理科大	「명사」
1941	인지력	인지-력	단어	한자어	認知力	「명사」
1942	재입학	재-입학	단어	한자어	再入學	「명사」
1943	주전급	주전-급	단어	한자어	主戰級	「명사」
1944	창조론	창조-론	단어	한자어	創造論	「명사」

1945	채점자	채점-자	단어	한자어	採點者	「명사」
1946	가서명하다	가서명-하다	단어	혼종어	假署名하다	「동사」
1947	가족관	가족-관	단어	한자어	家族觀	「명사」
1948	결제일	결제-일	단어	한자어	決濟日	「명사」
1949	고평가	고-평가	단어	한자어	高評價	「명사」
1950	반발감	반발-감	단어	한자어	反撥感	「명사」
1951	작동법	작동-법	단어	한자어	作動法	「명사」
1952	재구축하다	재구축-하다	단어	혼종어	再構築하다	「동사」
1953	재구축하다	재구축-하다	단어	혼종어	再構築하다	「동사」
1954	재선임	재-선임	단어	한자어	再選任	「명사」
1955	주차선	주차-선	단어	한자어	駐車線	「명사」
1956	중계실	중계-실	단어	한자어	中繼室	「명사」
1957	추모곡	추모-곡	단어	한자어	追慕曲	「명사」
1958	탈부착	탈-부착	단어	한자어	脫附着	「명사」
1959	표지석	표지-석	단어	한자어	標識石	「명사」
1960	하례식	하례-식	단어	한자어	賀禮式	「명사」
1961	활용성	활용-성	단어	한자어	活用性	「명사」
1962	세발낙지	세발-낙지	단어	혼종어	細발낙지	「명사」
1963	수출업	수출-업	단어	한자어	輸出業	「명사」
1964	실내용	실내-용	단어	한자어	室內用	「명사」
1965	역성장	역-성장	단어	한자어	逆成長	「명사」
1966	영유아	영-유아	단어	한자어	嬰乳兒	「명사」
1967	외벌이	외-벌이	단어	고유어	외벌이	「명사」
1968	자문사	자문-사	단어	한자어	諮問社	「명사」
1969	저열량	저-열량	단어	한자어	低熱量	「명사」
1970	정형화하다	정형화-하다	단어	혼종어	定型化하다	「동사」
1971	구독률	구독-률	단어	한자어	購讀率	「명사」
1972	구별법	구별-법	단어	한자어	區別法	「명사」
1973	나눗셈식	나눗셈-식	단어	혼종어	나눗셈式	「명사」
1974	다국어	다국-어	단어	한자어	多國語	「명사」
1975	디지털화하다	디지털화-하다	단어	혼종어	digital化하다	「동사」
1976	배란일	배란-일	단어	한자어	排卵日	「명사」
1977	부족민	부족-민	단어	한자어	部族民	「명사」
1978	알선책	알선-책	단어	한자어	斡旋責	「명사」
1979	연월차	연-월차	단어	한자어	年月次	「명사」
1980	열람석	열람-석	단어	한자어	閱覽席	「명사」
1981	원칙주의	원칙-주의	단어	한자어	原則主義	「명사」
1982	육가공	육-가공	단어	한자어	肉加工	「명사」
1983	이미지화	이미지-화	단어	혼종어	image化	「명사」

1984	재입사	재-입사	단어	한자어	再入社	「명사」
1985	재작년도	재작년-도	단어	한자어	再昨年度	「명사」
1986	증감률	증감-률	단어	한자어	增減率	「명사」
1987	추출액	추출-액	단어	한자어	抽出液	「명사」
1988	치욕감	치욕-감	단어	한자어	恥辱感	「명사」
1989	한길가	한길-가	단어	고유어	한길가	「명사」
1990	결승행	결승-행	단어	한자어	決勝行	「명사」
1991	금지어	금지-어	단어	한자어	禁止語	「명사」
1992	기계치	기계-치	단어	한자어	機械癡	「명사」
1993	명료화하다	명료화-하다	단어	혼종어	明瞭化하다	「동사」
1994	병역필	병역-필	단어	한자어	兵役畢	「명사」
1995	분권화되다	분권화-되다	단어	혼종어	分權化되다	「동사」
1996	분권화되다	분권화-되다	단어	혼종어	分權化되다	「동사」
1997	성숙성	성숙-성	단어	한자어	成熟性	「명사」
1998	수중전	수중-전	단어	한자어	水中戰	「명사」
1999	순례단	순례-단	단어	한자어	巡禮團	「명사」
2000	식품업	식품-업	단어	한자어	食品業	「명사」
2001	영속화하다	영속화-하다	단어	혼종어	永續化하다	「동사」
2002	음미되다	음미-되다	단어	혼종어	吟味되다	「동사」
2003	응집성	응집-성	단어	한자어	凝集性	「명사」
2004	처방책	처방-책	단어	한자어	處方策	「명사」
2005	통치술	통치-술	단어	한자어	統治術	「명사」
2006	간식용	간식-용	단어	한자어	間食用	「명사」
2007	개봉일	개봉-일	단어	한자어	開封日	「명사」
2008	공략법	공략-법	단어	한자어	攻掠法	「명사」
2009	공략법	공략-법	단어	한자어	攻略法	「명사」
2010	국문판	국문-판	단어	한자어	國文版	「명사」
2011	기획통	기획-통	단어	한자어	企劃通	「명사」
2012	무통장	무-통장	단어	한자어	無通帳	「명사」
2013	벌크선	벌크-선	단어	혼종어	bulk船	「명사」
2014	복수안	복수-안	단어	한자어	複數案	「명사」
2015	수급자	수급-자	단어	한자어	受給子	「명사」
2016	수배범	수배-범	단어	한자어	手配犯	「명사」
2017	수업안	수업-안	단어	한자어	授業案	「명사」
2018	식사대	식사-대	단어	한자어	食事代	「명사」
2019	신도심	신-도심	단어	한자어	新都心	「명사」
2020	신청곡	신청-곡	단어	한자어	申請曲	「명사」
2021	실사화	실사-화	단어	한자어	實寫化	「명사」
2022	야외용	야외-용	단어	한자어	野外用	「명사」

2023	약불	약-불	단어	혼종어	弱불	「명사」
2024	양조업자	양조업-자	단어	한자어	釀造業者	「명사」
2025	열받다	열-받다	단어	혼종어	熱받다	「동사」
2026	우물터	우물-터	단어	고유어	우물터	「명사」
2027	이교대	이-교대	단어	한자어	二交代	「명사」
2028	재무과	재무-과	단어	한자어	財務課	「명사」
2029	재연장	재-연장	단어	한자어	再延長	「명사」
2030	저평가하다	저평가-하다	단어	혼종어	低評價하다	「동사」
2031	전통주의적	전통주의-적	단어	한자어	傳統主義的	「관·명」
2032	준결선	준-결선	단어	한자어	準決選	「명사」
2033	초범자	초범-자	단어	한자어	初犯者	「명사」
2034	총사령탑	총-사령탑	단어	한자어	總司令塔	「명사」
2035	최적임자	최적임-자	단어	한자어	最適任者	「명사」
2036	투항자	투항-자	단어	한자어	投降者	「명사」
2037	편협적	편협-적	단어	한자어	偏狹的	「관·명」
2038	한국산	한국-산	단어	한자어	韓國產	「명사」
2039	현상소	현상-소	단어	한자어	現像所	「명사」
2040	협상권	협상-권	단어	한자어	協商權	「명사」
2041	협회원	협회-원	단어	한자어	協會員	「명사」
2042	간장조림	간장-조림	단어	혼종어	간醬조림	「명사」
2043	감리단	감리-단	단어	한자어	監理團	「명사」
2044	경험론적	경험론-적	단어	한자어	經驗論的	「관·명」
2045	고객용	고객-용	단어	한자어	顧客用	「명사」
2046	고질화되다	고질화-되다	단어	혼종어	痼疾化되다	「동사」
2047	고질화되다	고질화-되다	단어	혼종어	痼疾化되다	「동사」
2048	구조원	구조-원	단어	한자어	救助員	「명사」
2049	국가장	국가-장	단어	한자어	國家葬	「명사」
2050	규제력	규제-력	단어	한자어	規制力	「명사」
2051	근시적	근시-적	단어	한자어	近視的	「관·명」
2052	기원설	기원-설	단어	한자어	起源說	「명사」
2053	노래책	노래-책	단어	혼종어	노래冊	「명사」
2054	논고문	논고-문	단어	한자어	論告文	「명사」
2055	단위명	단위-명	단어	한자어	單位名	「명사」
2056	단위명	단위-명	단어	한자어	單位名	「명사」
2057	목표점	목표-점	단어	한자어	目標點	「명사」
2058	밀입북하다	밀입북-하다	단어	혼종어	密入北하다	「동사」
2059	벌칙금	벌칙-금	단어	한자어	罰則金	「명사」
2060	비평서	비평-서	단어	한자어	批評書	「명사」
2061	서민형	서민-형	단어	한자어	庶民型	「명사」

2062	성도착증	성도착-증	단어	한자어	性倒錯症	「명사」
2063	성인부	성인-부	단어	한자어	成人部	「명사」
2064	수단화하다	수단화-하다	단어	혼종어	手段化하다	「동사」
2065	수뢰액	수뢰-액	단어	한자어	受賂額	「명사」
2066	안정형	안정-형	단어	한자어	安定型	「명사」
2067	옹호론자	옹호론-자	단어	한자어	擁護論者	「명사」
2068	음각되다	음각-되다	단어	혼종어	陰刻되다	「동사」
2069	응시율	응시-율	단어	한자어	應試率	「명사」
2070	의사상자	의-사상자	단어	한자어	義死傷者	「명사」
2071	이념화	이념-화	단어	한자어	理念化	「명사」
2072	이임식	이임-식	단어	한자어	離任式	「명사」
2073	인문주의자	인문주의-자	단어	한자어	人文主義者	「명사」
2074	일인극	일인-극	단어	한자어	一人劇	「명사」
2075	잔재물	잔재-물	단어	한자어	殘滓物	「명사」
2076	재건비	재건-비	단어	한자어	再建費	「명사」
2077	재선출	재-선출	단어	한자어	再選出	「명사」
2078	재확산	재-확산	단어	한자어	再擴散	「명사」
2079	전임지	전임-지	단어	한자어	前任地	「명사」
2080	접합점	접합-점	단어	한자어	接合點	「명사」
2081	죽집	죽-집	단어	혼종어	粥집	「명사」
2082	중세인	중세-인	단어	한자어	中世人	「명사」
2083	지휘력	지휘-력	단어	한자어	指揮力	「명사」
2084	체감도	체감-도	단어	한자어	體感度	「명사」
2085	축약형	축약-형	단어	한자어	縮約形	「명사」
2086	충전식	충전-식	단어	한자어	充電式	「명사」
2087	치유법	치유-법	단어	한자어	治癒法	「명사」
2088	타의적	타의-적	단어	한자어	他意的	「관·명」
2089	파견제	파견-제	단어	한자어	派遣制	「명사」
2090	할증제	할증-제	단어	한자어	割増制	「명사」
2091	회수액	회수-액	단어	한자어	回收額	「명사」
2092	개원의	개원-의	단어	한자어	開院醫	「명사」
2093	건물터	건물-터	단어	혼종어	建物터	「명사」
2094	균질적	균질-적	단어	한자어	均質的	「관·명」
2095	낙방생	낙방-생	단어	한자어	落榜生	「명사」
2096	납입액	납입-액	단어	한자어	納入額	「명사」
2097	대여업	대여-업	단어	한자어	貸與業	「명사」
2098	대중서	대중-서	단어	한자어	大衆書	「명사」
2099	반인권	반-인권	단어	한자어	反人權	「명사」
2100	보습제	보습-제	단어	한자어	補濕劑	「명사」

2101	복제본	복제-본	단어	한자어	複製本	「명사」
2102	봉쇄령	봉쇄-령	단어	한자어	封鎖令	「명사」
2103	사유제	사유-제	단어	한자어	私有制	「명사」
2104	사퇴서	사퇴-서	단어	한자어	辭退書	「명사」
2105	서술식	서술-식	단어	한자어	敘述式	「명사」
2106	아류작	아류-작	단어	한자어	亞流作	「명사」
2107	영속화	영속-화	단어	한자어	永續化	「명사」
2108	영아원	영아-원	단어	한자어	嬰兒園	「명사」
2109	영업일	영업-일	단어	한자어	營業日	「명사」
2110	육상부	육상-부	단어	한자어	陸上部	「명사」
2111	인구층	인구-층	단어	한자어	人口層	「명사」
2112	입출항	입-출항	단어	한자어	入出港	「명사」
2113	자주력	자주-력	단어	한자어	自主力	「명사」
2114	자질론	자질-론	단어	한자어	資質論	「명사」
2115	재가공하다	재가공-하다	단어	혼종어	再加工하다	「동사」
2116	재개장하다	재개장-하다	단어	혼종어	再開場하다	「동사」
2117	재개정	재-개정	단어	한자어	再改定	「명사」
2118	재상영	재상영	단어	한자어	再上映	「명사」
2119	재의결하다	재의결-하다	단어	혼종어	再議決하다	「동사」
2120	재확립	재-확립	단어	한자어	再確立	「명사」
2121	적용력	적용-력	단어	한자어	適用力	「명사」
2122	적정치	적정-치	단어	한자어	適正值	「명사」
2123	전동식	전동-식	단어	한자어	電動式	「명사」
2124	좌석제	좌석-제	단어	한자어	座席制	「명사」
2125	지원생	지원-생	단어	한자어	志願生	「명사」
2126	집행장	집행-장	단어	한자어	執行場	「명사」
2127	창발성	창발-성	단어	한자어	創發性	「명사」
2128	초특가	초-특가	단어	한자어	超特價	「명사」
2129	취약층	취약-층	단어	한자어	脆弱層	「명사」
2130	친화감	친화-감	단어	한자어	親和感	「명사」
2131	피정복자	피-정복자	단어	한자어	被征服者	「명사」
2132	호감형	호감-형	단어	한자어	好感形	「명사」
2133	건조비	건조-비	단어	한자어	建造費	「명사」
2134	경기복	경기-복	단어	한자어	競技服	「명사」
2135	공감도	공감-도	단어	한자어	共感度	「명사」
2136	공구상	공구-상	단어	한자어	工具商	「명사」
2137	공급액	공급-액	단어	한자어	供給額	「명사」
2138	공급책	공급-책	단어	한자어	供給責	「명사」
2139	귀경객	귀경-객	단어	한자어	歸京客	「명사」

2140	내외부	내외부	단어	한자어	内外部	「명사」
2141	노래패	노래-패	단어	혼종어	노래牌	「명사」
2142	능통자	능통-자	단어	한자어	能通者	「명사」
2143	등급화	등급-화	단어	한자어	等級化	「명사」
2144	만차	만차	단어	한자어	滿車	「명사」
2145	만차	만차	단어	한자어	滿車	「명사」
2146	맹금류	맹금-류	단어	한자어	猛禽類	「명사」
2147	면담자	면담-자	단어	한자어	面談者	「명사」
2148	멸실되다	멸실-되다	단어	혼종어	滅失되다	「동사」
2149	명품화	명품-화	단어	한자어	名品化	「명사」
2150	무균실	무균-실	단어	한자어	無菌室	「명사」
2151	무기화	무기-화	단어	한자어	武器化	「명사」
2152	무기화	무기-화	단어	한자어	武器化	「명사」
2153	문구용	문구-용	단어	한자어	文具用	「명사」
2154	문제투성이	문제-투성이	단어	혼종어	問題투성이	「명사」
2155	미전향	미-전향	단어	한자어	未轉向	「명사」
2156	박치	박치	단어	한자어	拍癡	「명사」
2157	발간사	발간-사	단어	한자어	發刊辭	「명사」
2158	방지법	방지-법	단어	한자어	防止法	「명사」
2159	보온용	보온-용	단어	한자어	保溫用	「명사」
2160	본산지	본산-지	단어	한자어	本產地	「명사」
2161	빠해장국	빠-해장국	단어	혼종어	빠解醒▽국	「명사」
2162	생성기	생성-기	단어	한자어	生成期	「명사」
2163	선임료	선임-료	단어	한자어	選任料	「명사」
2164	성악도	성악-도	단어	한자어	聲樂徒	「명사」
2165	소장처	소장-처	단어	한자어	所藏處	「명사」
2166	시장가	시장-가	단어	한자어	市場價	「명사」
2167	신중론자	신중론-자	단어	한자어	慎重論者	「명사」
2168	실족사하다	실족사-하다	단어	혼종어	失足死하다	「동사」
2169	역류되다	역류-되다	단어	혼종어	逆流되다	「동사」
2170	오락기	오락-기	단어	한자어	娛樂器	「명사」
2171	원조국	원조-국	단어	한자어	援助國	「명사」
2172	위계화	위계-화	단어	한자어	位階化	「명사」
2173	입안되다	입안-되다	단어	혼종어	立案되다	「동사」
2174	작품명	작품-명	단어	한자어	作品名	「명사」
2175	재 실시	재-실시	단어	한자어	再實施	「명사」
2176	적자액	적자-액	단어	한자어	赤字額	「명사」
2177	전면화되다	전면화-되다	단어	혼종어	全面化되다	「동사」
2178	접전지	접전-지	단어	한자어	接戰地	「명사」



2179	정찰용	정찰-용	단어	한자어	偵察用	「명사」
2180	조업권	조업-권	단어	한자어	操業權	「명사」
2181	졸업전	졸업-전	단어	한자어	卒業展	「명사」
2182	진학생	진학-생	단어	한자어	進學生	「명사」
2183	추진안	추진-안	단어	한자어	推進案	「명사」
2184	출산용품	출산-용품	단어	한자어	出產用品	「명사」
2185	출토지	출토-지	단어	한자어	出土地	「명사」
2186	취락지	취락-지	단어	한자어	聚落地	「명사」
2187	탈권위주의	탈-권위주의	단어	한자어	脫權威主義	「명사」
2188	학술서	학술-서	단어	한자어	學術書	「명사」
2189	한국어판	한국어-판	단어	한자어	韓國語版	「명사」
2190	한국판	한국-판	단어	한자어	韓國版	「명사」
2191	개념화되다	개념화-되다	단어	혼종어	概念化되다	「동사」
2192	고산증	고산-증	단어	한자어	高山症	「명사」
2193	관제실	관제-실	단어	한자어	管制室	「명사」
2194	극치감	극치-감	단어	한자어	極致感	「명사」
2195	급반전	급-반전	단어	한자어	急反轉	「명사」
2196	낙농가	낙농-가	단어	한자어	酪農家	「명사」
2197	날치기범	날치기-범	단어	혼종어	날치기犯	「명사」
2198	등반객	등반-객	단어	한자어	登攀客	「명사」
2199	매입금	매입-금	단어	한자어	買入金	「명사」
2200	모집군	모집-군	단어	한자어	募集群	「명사」
2201	반수생	반수-생	단어	한자어	半修生	「명사」
2202	방기되다	방기-되다	단어	혼종어	放棄되다	「동사」
2203	벌금제	벌금-제	단어	한자어	罰金制	「명사」
2204	보급물	보급-물	단어	한자어	補給物	「명사」
2205	보상안	보상-안	단어	한자어	補償案	「명사」
2206	보직자	보직-자	단어	한자어	補職者	「명사」
2207	복역자	복역-자	단어	한자어	服役者	「명사」
2208	부족난	부족-난	단어	한자어	不足難	「명사」
2209	비상업적	비-상업적	단어	한자어	非商業的	「관·명」
2210	상당량	상당-량	단어	한자어	相當量	「명사」
2211	서사물	서사-물	단어	한자어	敘事物	「명사」
2212	소급되다	소급-되다	단어	혼종어	遡及되다	「동사」
2213	수업권	수업-권	단어	한자어	受業權	「명사」
2214	수업권	수업-권	단어	한자어	授業權	「명사」
2215	시장주의자	시장주의-자	단어	한자어	市場主義者	「명사」
2216	신청일	신청-일	단어	한자어	申請日	「명사」
2217	쌀막걸리	쌀-막걸리	단어	고유어	쌀-막걸리	「명사」

2218	안전문	안전-문	단어	한자어	安全門	「명사」
2219	안질환	안-질환	단어	한자어	眼疾患	「명사」
2220	알선자	알선-자	단어	한자어	斡旋者	「명사」
2221	예매율	예매-율	단어	한자어	豫買率	「명사」
2222	위험군	위험-군	단어	한자어	危險群	「명사」
2223	인접성	인접-성	단어	한자어	鄰接性	「명사」
2224	인접성	인접-성	단어	한자어	鄰接性	「명사」
2225	일반실	일반-실	단어	한자어	一般室	「명사」
2226	입사자	입사-자	단어	한자어	入社者	「명사」
2227	입체화하다	입체화-하다	단어	혼종어	立體化하다	「동사」
2228	재개정하다	재개정-하다	단어	혼종어	再改定하다	「동사」
2229	재생용지	재생-용지	단어	한자어	再生用紙	「명사」
2230	재설계하다	재설계-하다	단어	혼종어	再設計하다	「동사」
2231	재설계하다	재설계-하다	단어	혼종어	再設計하다	「동사」
2232	재수정	재-수정	단어	한자어	再修正	「명사」
2233	정책통	정책-통	단어	한자어	政策通	「명사」
2234	주행세	주행-세	단어	한자어	走行稅	「명사」
2235	최상류층	최상류-층	단어	한자어	最上類層	「명사」
2236	추정가	추정-가	단어	한자어	推定價	「명사」
2237	추징액	추징-액	단어	한자어	追徵額	「명사」
2238	추징액	추징-액	단어	한자어	追徵額	「명사」
2239	출생일	출생-일	단어	한자어	出生日	「명사」
2240	친자녀	친-자녀	단어	한자어	親子女	「명사」
2241	특별관	특별-관	단어	한자어	特別館	「명사」
2242	파답	파-답	단어	고유어	파-답	「명사」
2243	포상제	포상-제	단어	한자어	褒賞制	「명사」
2244	할증률	할증-률	단어	한자어	割增率	「명사」
2245	횡령액	횡령-액	단어	한자어	橫領額	「명사」
2246	바탕 화면	바탕^화면	구	혼종어	바탕畫面	품사 없음
2247	이등석	이등-석	단어	한자어	二等席	「명사」
2248	중장년	중-장년	단어	한자어	中壯年	「명사」
2249	고칼로리	고-칼로리	단어	혼종어	高calorie	「명사」
2250	고칼로리	고-칼로리	단어	혼종어	高calorie	「명사」
2251	고행길	고행-길	단어	혼종어	苦行길	「명사」
2252	고행길	고행-길	단어	혼종어	苦行길	「명사」
2253	고행길	고행-길	단어	혼종어	苦行길	「명사」
2254	낭심	낭심	단어	한자어	囊心	「명사」
2255	영유아기	영유아-기	단어	한자어	嬰乳兒期	「명사」
2256	입출국	입-출국	단어	한자어	入出國	「명사」

2257	강판되다	강판-되다	단어	혼종어	降板되다	「명사」
2258	딩동딩동	딩동-딩동	단어	고유어	딩동-딩동	「부사」
2259	수목장	수목-장	단어	한자어	樹木葬	「명사」
2260	수입육	수입-육	단어	한자어	輸入肉	「명사」
2261	가수면	가-수면	단어	한자어	假睡眠	「명사」
2262	과일주	과일-주	단어	혼종어	과일酒	「명사」
2263	관념화	관념-화	단어	한자어	觀念化	「명사」
2264	날생선	날-생선	단어	혼종어	날生鮮	「명사」
2265	배송료	배송-료	단어	한자어	配送料	「명사」
2266	분별되다	분별-되다	단어	혼종어	分別되다	「동사」
2267	비포장길	비-포장길	단어	혼종어	非鋪裝길	「명사」
2268	사막화	사막-화	단어	한자어	沙漠化	「명사」
2269	진기록	진-기록	단어	한자어	珍記錄	「명사」
2270	추모전	추모-전	단어	한자어	追慕展	「명사」
2271	건보료	건보-료	단어	한자어	健保料	「명사」
2272	대기석	대기-석	단어	한자어	待機席	「명사」
2273	신사화	신사-화	단어	한자어	紳士靴	「명사」
2274	역술인	역술-인	단어	한자어	曆術人	「명사」
2275	유료화되다	유료화-되다	단어	혼종어	有料化되다	「동사」
2276	협조문	협조-문	단어	한자어	協助文	「명사」
2277	내연남	내연-남	단어	한자어	內緣男	「명사」
2278	배급망	배급-망	단어	한자어	配給網	「명사」
2279	빨랫거리	빨랫-거리	단어	고유어	빨랫-거리	「명사」
2280	영차영차	영차-영차	단어	고유어	영차-영차	「감탄사」
2281	임신복	임신-복	단어	한자어	妊娠服	「명사」
2282	잔근육	잔-근육	단어	혼종어	잔筋肉	「명사」
2283	퇴마사	퇴마-사	단어	한자어	退魔師	「명사」
2284	항균제	항균-제	단어	한자어	抗菌劑	「명사」
2285	그게	그게	단어	고유어	그게	품사 없음
2286	노령화되다	노령화-되다	단어	혼종어	老齡化되다	「동사」
2287	노령화되다	노령화-되다	단어	혼종어	老齡化되다	「동사」
2288	미니시리즈	미니-시리즈	단어	외래어	mini series	「명사」
2289	봉제선	봉제-선	단어	한자어	縫製線	「명사」
2290	부팅하다	부팅-하다	단어	혼종어	booting하다	「동사」
2291	의문사하다	의문사-하다	단어	혼종어	疑問死하다	「동사」
2292	중고책	중고-책	단어	한자어	中古冊	「명사」
2293	충성도	충성-도	단어	한자어	忠誠度	「명사」
2294	충성도	충성-도	단어	한자어	忠誠度	「명사」
2295	한식구	한-식구	단어	혼종어	한食口	「명사」

2296	한식구	한-식구	단어	혼종어	한食口	「명사」
2297	회음부	회음-부	단어	한자어	會陰部	「명사」
2298	간절기	간-절기	단어	한자어	間節氣	「명사」
2299	개보수하다	개보수-하다	단어	혼종어	改補修하다	「동사」
2300	기복 신앙	기복^신앙	구	한자어	祈福信仰	품사 없음
2301	국기함	국기-함	단어	한자어	國旗函	「명사」
2302	규정집	규정-집	단어	한자어	規定集	「명사」
2303	급수대	급수-대	단어	한자어	給水臺	「명사」
2304	남획되다	남획-되다	단어	혼종어	濫獲되다	「동사」
2305	단식원	단식-원	단어	한자어	斷食院	「명사」
2306	무좀균	무좀-균	단어	혼종어	무좀菌	「명사」
2307	문자화	문자-화	단어	한자어	文字化	「명사」
2308	석박사	석-박사	단어	한자어	碩博士	「명사」
2309	의붓동생	의붓-동생	단어	고유어	의붓동생	「명사」
2310	저건	저건	단어	고유어	저건	품사 없음
2311	준설토	준설-토	단어	한자어	浚渫土	「명사」
2312	간편화	간편-화	단어	한자어	簡便化	「명사」
2313	등하교	등-하교	단어	한자어	登下校	「명사」
2314	복개천	복개-천	단어	한자어	覆蓋川	「명사」
2315	송수신하다	송수신-하다	단어	혼종어	送受信하다	「동사」
2316	수미상관	수미-상관	단어	한자어	首尾相關	「명사」
2317	숙녀화	숙녀-화	단어	한자어	淑女靴	「명사」
2318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단어	한자어	原則主義者	「명사」
2319	유축기	유축-기	단어	한자어	乳蓄機	「명사」
2320	초치기	초-치기	단어	혼종어	秒치기	「명사」
2321	통편집되다	통편집-되다	단어	혼종어	通編輯되다	「동사」
2322	호감도	호감-도	단어	한자어	好感度	「명사」
2323	공장도가	공장도-가	단어	한자어	工場渡價	「명사」
2324	국공립대	국공립-대	단어	한자어	國公立大	「명사」
2325	서양권	서양-권	단어	한자어	西洋圈	「명사」
2326	신참내기	신참-내기	단어	혼종어	新參내기	「명사」
2327	저질스럽다	저질-스럽다	단어	혼종어	低質스럽다	「형용사」
2328	큰이모부	큰-이모부	단어	혼종어	큰姨母夫	「명사」
2329	개조식	개조-식	단어	한자어	個條式	「명사」
2330	공급가	공급-가	단어	한자어	供給價	「명사」
2331	반곱슬	반-곱슬	단어	혼종어	半곱슬	「명사」
2332	예체능계	예체능-계	단어	한자어	藝體能系	「명사」
2333	입출금되다	입출금-되다	단어	혼종어	入出金되다	「명사」
2334	주유구	주유-구	단어	한자어	注油口	「명사」

2335	체성분	체-성분	단어	한자어	體成分	「명사」
2336	토론방	토론-방	단어	한자어	討論房	「명사」
2337	공용 주차장	공용^주차장	구	한자어	公用停車場	품사 없음
2338	다관왕	다관-왕	단어	한자어	多冠王	「명사」
2339	당첨권	당첨-권	단어	한자어	當籤券	「명사」
2340	악순환하다	악순환-하다	단어	혼종어	惡循環하다	「동사」
2341	치위생	치-위생	단어	한자어	齒衛生	「명사」
2342	감자칩	감자-칩	단어	혼종어	감자chip	「명사」
2343	관현악곡	관현악-곡	단어	한자어	管絃樂曲	「명사」
2344	독학사	독학-사	단어	한자어	獨學士	「명사」
2345	모색기	모색-기	단어	한자어	摸索期	「명사」
2346	성숙미	성숙-미	단어	한자어	成熟美	「명사」
2347	성숙미	성숙-미	단어	한자어	成熟美	「명사」
2348	소방용수	소방-용수	단어	한자어	消防用水	「명사」
2349	앞접시	앞-접시	단어	고유어	앞-접시	「명사」
2350	양념치킨	양념-치킨	단어	혼종어	양념chicken	「명사」
2351	옷방	옷-방	단어	혼종어	옷房	「명사」
2352	의붓남매	의붓-남매	단어	혼종어	의붓男妹	「명사」
2353	이혼율	이혼-율	단어	한자어	離婚率	「명사」
2354	감속되다	감속-되다	단어	혼종어	減速되다	「동사」
2355	결속감	결속-감	단어	한자어	結束感	「명사」
2356	골동품점	골동품-점	단어	한자어	骨董品店	「명사」
2357	노령화하다	노령화-하다	단어	혼종어	老齡化하다	「동사」
2358	대실하다	대실-하다	단어	혼종어	貸室하다	「동사」
2359	사막화되다	사막화-되다	단어	혼종어	沙漠化되다	「동사」
2360	수정액	수정-액	단어	한자어	修訂液	「명사」
2361	옷발	옷-발	단어	고유어	옷-발	「명사」
2362	유학파	유학-파	단어	한자어	留學派	「명사」
2363	융복합	융복-합	단어	한자어	融複合	「명사」
2364	입시반	입시-반	단어	한자어	入試班	「명사」
2365	장지갑	장-지갑	단어	한자어	長紙匣	「명사」
2366	지로용지	지로-용지	단어	혼종어	giro用紙	「명사」
2367	진혼굿	진혼-굿	단어	혼종어	鎮魂굿	「명사」
2368	탈부착하다	탈부착-하다	단어	혼종어	脫附着하다	「동사」
2369	통편집하다	통편집-하다	단어	혼종어	通編輯하다	「동사」
2370	헛수작	헛-수작	단어	혼종어	헛酬酌	「명사」
2371	현지화하다	현지화-하다	단어	혼종어	現地化하다	「동사」
2372	검색기	검색-기	단어	한자어	檢索機	「명사」
2373	검색기	검색-기	단어	한자어	檢索機	「명사」

2374	내분비계	내분비-계	단어	한자어	內分泌系	「명사」
2375	다과상	다과-상	단어	한자어	茶菓床	「명사」
2376	덮어쓰기	덮어-쓰기	단어	고유어	덮어-쓰기	「명사」
2377	반강제	반-강제	단어	한자어	半強制	「명사」
2378	반지갑	반-지갑	단어	한자어	半紙匣	「명사」
2379	방수되다	방수-되다	단어	혼종어	防水되다	「동사」
2380	불전함	불전-함	단어	한자어	佛錢函	「명사」
2381	야채주스	야채-주스	단어	혼종어	野菜juice	「명사」
2382	역차별하다	역차별-하다	단어	혼종어	逆差別하다	「동사」
2383	예약석	예약-석	단어	한자어	豫約席	「명사」
2384	원무과	원무-과	단어	한자어	院務課	「명사」
2385	절대시	절대-시	단어	한자어	絶對視	「명사」
2386	절밥	절-밥	단어	고유어	절-밥	「명사」
2387	절밥	절-밥	단어	고유어	절-밥	「명사」
2388	접속문	접속-문	단어	한자어	接續文	「명사」
2389	채혈실	채혈-실	단어	한자어	採血室	「명사」
2390	개보수	개-보수	단어	한자어	改補修	「명사」
2391	과립형	과립-형	단어	한자어	顆粒型	「명사」
2392	급발진하다	급발진-하다	단어	혼종어	急發進하다	「동사」
2393	기념패	기념-패	단어	한자어	紀念牌	「명사」
2394	뇌쇄적	뇌쇄-적	단어	한자어	惱殺的	「관·명」
2395	도주범	도주-범	단어	한자어	逃走犯	「명사」
2396	로그아웃하다	로그아웃-하다	단어	혼종어	log-out하다	「동사」
2397	모방범	모방-범	단어	한자어	模倣犯	「명사」
2398	문어발식	문어발-식	단어	혼종어	文魚발式	「명사」
2399	반박자	반-박자	단어	한자어	半拍子	「명사」
2400	반박자	반-박자	단어	한자어	半拍子	「명사」
2401	성취욕	성취-욕	단어	한자어	成就欲	「명사」
2402	순정품	순정-품	단어	한자어	純正品	「명사」
2403	양념통닭	양념-통닭	단어	고유어	양념-통닭	「명사」
2404	의붓형제	의붓-형제	단어	혼종어	의붓兄弟	「명사」
2405	입출항하다	입출항-하다	단어	혼종어	入出港하다	「동사」
2406	정자세	정-자세	단어	한자어	正姿勢	「명사」
2407	중탕기	중탕-기	단어	한자어	重湯機	「명사」
2408	직배송	직-배송	단어	한자어	直配送	「명사」
2409	등하굣길	등하굣-길	단어	혼종어	登下校길	「명사」
2410	상승률	상승-률	단어	한자어	上昇率	「명사」
2411	신고필증	신고필-증	단어	한자어	申告畢證	「명사」
2412	심령술사	심령술-사	단어	한자어	心靈術師	「명사」

2413	큰손주	큰-손주	단어	혼종어	큰孫주	「명사」
2414	포털 사이트	포털^사이트	구	외래어	portal site	품사 없음
2415	호흡계	호흡-계	단어	한자어	呼吸系	「명사」
2416	가판점	가판-점	단어	한자어	街販店	「명사」
2417	검색대	검색-대	단어	한자어	檢索臺	「명사」
2418	검색대	검색-대	단어	한자어	檢索臺	「명사」
2419	급강하다	급강-하다	단어	혼종어	急降하다	「동사」
2420	낙찰금	낙찰-금	단어	한자어	落札金	「명사」
2421	단답	단답	단어	한자어	單答	「명사」
2422	동물 병원	동물 병원	구	한자어	動物病院	품사 없음
2423	분쟁국	분쟁-국	단어	한자어	紛爭國	「명사」
2424	빨래걸이	빨래-걸이	단어	고유어	빨래-걸이	「명사」
2425	사막화하다	사막화-하다	단어	혼종어	沙漠化하다	「동사」
2426	성묘길	성묘-길	단어	혼종어	省墓길	「명사」
2427	일체형	일체-형	단어	한자어	一體形	「명사」
2428	입단속하다	입단속-하다	단어	혼종어	입-團束--하다	「동사」
2429	정년 퇴임	정년 퇴임	구	한자어	停年退任	품사 없음
2430	초성자	초성-자	단어	한자어	初聲字	「명사」
2431	후납	후납	단어	한자어	後納	「명사」
2432	급발진되다	급발진-되다	단어	혼종어	急發進되다	「동사」
2433	급변화	급-변화	단어	한자어	急變化	「명사」
2434	기대작	기대-작	단어	한자어	期待作	「명사」
2435	단체석	단체-석	단어	한자어	團體席	「명사」
2436	반계탕	반계-탕	단어	한자어	半鷄湯	「명사」
2437	반송함	반송-함	단어	한자어	返送函	「명사」
2438	수취함	수취-함	단어	한자어	收聚函	「명사」
2439	실거주하다	실거주-하다	단어	혼종어	實居住하다	「동사」
2440	알감자	알-감자	단어	고유어	알-감자	「명사」
2441	어묵꼬치	어묵-꼬치	단어	혼종어	魚묵꼬치	「명사」
2442	역술원	역술-원	단어	한자어	曆術院	「명사」
2443	오남용하다	오남용-하다	단어	혼종어	誤濫用하다	「동사」
2444	의붓언니	의붓-언니	단어	고유어	의붓-언니	「명사」
2445	조미김	조미-김	단어	혼종어	調味김	「명사」
2446	종성자	종성-자	단어	한자어	終聲字	「명사」
2447	좌욕기	좌욕-기	단어	한자어	坐浴機	「명사」
2448	중고교생	중고교-생	단어	한자어	中高校生	「명사」
2449	푼값	푼-값	단어	혼종어	票값	「명사」
2450	혈당계	혈당-계	단어	한자어	血糖計	「명사」
2451	놀거리	놀-거리	단어	고유어	놀-거리	「명사」

2452	땡동땡동	땡동-땡동	단어	고유어	땡동-땡동	「부사」
2453	머리색	머리-색	단어	혼종어	머리色	「명사」
2454	백일상	백일-상	단어	한자어	百日床	「명사」
2455	양념갈비	양념-갈비	단어	고유어	양념-갈비	「명사」
2456	역발상하다	역발상-하다	단어	혼종어	逆發想하다	「동사」
2457	요리책	요리-책	단어	한자어	料理冊	「명사」
2458	의붓엄마	의붓-엄마	단어	고유어	의붓-엄마	「명사」
2459	찜질복	찜질-복	단어	혼종어	찜질服	「명사」
2460	가임기	가임-기	단어	한자어	可妊期	「명사」
2461	가임기	가임-기	단어	한자어	可妊期	「명사」
2462	개괄식	개괄-식	단어	한자어	概括式	「명사」
2463	개사되다	개사-되다	단어	혼종어	改詞되다	「동사」
2464	고깃값	고깃-값	단어	고유어	고깃-값	「명사」
2465	균형식	균형-식	단어	한자어	均衡食	「명사」
2466	기록표	기록-표	단어	한자어	記錄表	「명사」
2467	내연성	내연-성	단어	한자어	耐燃性	「명사」
2468	당일권	당일-권	단어	한자어	當日券	「명사」
2469	대활약하다	대활약-하다	단어	혼종어	大活躍하다	「동사」
2470	도소매점	도-소매점	단어	한자어	都小賣店	「명사」
2471	배송지	배송-지	단어	한자어	配送地	「명사」
2472	복합기	복합-기	단어	한자어	複合機	「명사」
2473	실坪수	실-坪수	단어	한자어	實坪數	「명사」
2474	애완용품	애완-용품	단어	한자어	愛玩用品	「명사」
2475	여성성	여성-성	단어	한자어	女性性	「명사」
2476	오물조물	오물-조물	단어	고유어	오물-조물	「부사」
2477	오물조물	오물-조물	단어	고유어	오물-조물	「부사」
2478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단어	한자어	完璧主義者	「명사」
2479	완전 동화	완전^동화	구	한자어	完全同化	품사 없음
2480	자음군	자음-군	단어	한자어	子音群	「명사」
2481	지하방	지하-방	단어	한자어	地下房	「명사」
2482	청순미	청순-미	단어	한자어	清純美	「명사」
2483	최고법	최고-법	단어	한자어	最高法	「명사」
2484	치기공	치-기공	단어	한자어	齒技工	「명사」
2485	개다리춤	개다리-춤	단어	고유어	개다리-춤	「명사」
2486	개성파	개성-파	단어	한자어	個性派	「명사」
2487	거리낌 없다	거리낌 없다	구	고유어	거리낌 없다	품사 없음
2488	거리낌 없다	거리낌 없다	구	고유어	거리낌 없다	품사 없음
2489	경음화되다	경음화-되다	단어	혼종어	硬音化되다	「동사」
2490	공정률	공정-률	단어	한자어	工程律	「명사」



2491	도소매업	도-소매업	단어	한자어	都小賣業	「명사」
2492	두문자어	두문자-어	단어	한자어	頭文字語	「명사」
2493	막된장	막-된장	단어	혼종어	막된醬	「명사」
2494	망명국	망명-국	단어	한자어	亡命國	「명사」
2495	배식판	배식-판	단어	한자어	配食板	「명사」
2496	분향실	분향-실	단어	한자어	焚香室	「명사」
2497	실사례	실-사례	단어	한자어	實事例	「명사」
2498	알림 창	알림^창	구	혼종어	알림窓	품사 없음
2499	언해문	언해-문	단어	한자어	諺解文	「명사」
2500	오남용	오-남용	단어	한자어	誤濫用	「명사」
2501	작은이모부	작은-이모부	단어	혼종어	작은姨母夫	「명사」
2502	초중고생	초중고-생	단어	한자어	初中高生	「명사」
2503	피붓걸	피붓-걸	단어	혼종어	皮膚걸	「명사」
2504	해외파	해외-파	단어	한자어	海外派	「명사」

「부록 3」 우리말샘 미등재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발굴 목록

일련 번호	어휘 (기호없음)	어휘	구성 단위	품사	뜻풀이
001	낮아지다	낮아-지다	단어	「동사」	낮게 되다.
002	심해지다	심해-지다	단어	「동사」	정도가 지나치게 되다.
003	가까워지다	가까워-지다	단어	「동사」	「1」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다. 「2」어떤시간이나날짜가점점가까이다가오게되다. 「3」어떤수치에다다른상태가되다. 「4」성질이나특성이기준이되는것과점점비슷하게되다. 「5」서로의사이가점점다정하고친하게되다. 「6」소리가크고분명하게느껴지다.
004	믿어지다	믿어-지다	단어	「동사」	「1」 어떤 사실이나 말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그렇다고 여기게 되다. 「2」어떤사람이나대상이기대를저버리지않을것이라고여기게되다. 「3」절대자나종교적이념따위를받들게되다.
005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단어	「동사」	「1」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가 되다. 「2」어떤대상을자주보거나겪어서처음대하지않는느낌이드는상태가되다. 「3」눈이어둡거나밝은곳에적응해웬만큼볼수있게되다.
006	나누어지다	나누어-지다	단어	「동사」	[1]「1」 하나가 둘 이상으로 갈라지다. [1]「2」여러가지가섞인것이분류되다. [1]「3」나뉘셈이되다. [2]「1」몫이분배되다.
007	공연되다	공연-되다	단어	「동사」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게 하다.
008	깨끗해지다	깨끗해-지다	단어	「동사」	「1」 사물이 더럽지 않게 되다. 「2」빛깔따위가흐리지않고맑아지다. 「3」가치런히잘정돈되다. 「4」맛이개운하게되다. 「5」마음씨나행동따위가허물이없이떳떳하고올바르게되다.
009	국제무대	국제-무대	단어	「명사」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나라에 관계된

					활동 공간.
010	하오나	하-오나	단어	「부사」	‘그러나’를 에스럽게 이르는 말.
011	털이	털-이	단어	「명사」	남몰래 물건을 훔치는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
012	범죄율	범죄-율	단어	「명사」	범죄가 일어나는 비율.
013	물구나무	물구나무	단어	「명사」	두 팔로 바닥을 짚고 두 발을 공중으로 향하게 올려 거꾸로 서는 동작.
014	부국장	부-국장	단어	「명사」	국장에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015	발의되다	발의-되다	단어	「동사」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이 내놓아지다.
016	감싸쥐다	감싸-쥐다	단어	「동사」	손으로 감아서 덮듯이 쥐다.
017	단과대	단과-대	단어	「명사」	단과 대학'을 줄여 이르는 말.
018	수송되다	수송-되다	단어	「동사」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이 실어 옮겨지다.
019	연동되다	연동-되다	단어	「동사」	기계나 장치 따위에서, 한 부분을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잇따라 함께 움직이게 되다.
020	멘트하다	멘트-하다	단어	「동사」	예식이나 방송 등에서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말하다.
021	구상되다	구상-되다	단어	「동사」	「1」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되다. 「2」예술작품을창작할때,작품의골자가될내용이나표현형식따위에대하여생각이정리되다.
022	좋아지다	좋아-지다	단어	「동사」	좋게 되다.
023	아웃되다	아웃-되다	단어	「동사」	「1」테니스·탁구·축구·배구 따위에서, 공이 규정선 밖으로 나가게 되다. 「2」『체육』야구에서,경기중에타자나주자가그자격을잃게되다. 「3」놀이나,게임따위에서탈락되다.
024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구	품사 없음	경기도 하남시와 청주시를 잇는 고속 도로. 경부 고속 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기 위해 1985년 4월에 착공하여 1987년 12월에 개통되었다. 길이는 117.2km.
025	경험되다	경험-되다	단어	「동사」	자신이 실제로 해 보게 되거나 겪게 되다.
026	배겨나다	배겨-나다	단어	「동사」	참기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디어 나다.
027	말씀드리다	말씀-드리다	단어	「동사」	「1」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말로 나타내어 드리다. 「2」어떠한사실을말로알려드리다. 「3」무엇을부탁을드리다.
028	문제되다	문제-되다	단어	「동사」	「1」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다.

					「2」해결하기어렵거나난처한대상이나그런일이되다.
029	거시기하다	거시기-하다	단어	[ I ]「형용사」 [ II ]「동사」	[ I ]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한 상태나 속성을 말할 때 쓰는 말. [ II ]하려는말이얼른생각나지않거나바로말하기가 거북한동작을말할때쓰는말.
030	켜지다	켜-지다	단어	「동사」	「1」등잔이나 양초 따위에 불이 붙여지거나 성냥이나 라이터 따위로 불이 일으켜지다. 「2」전기나동력이통하게하여,전기제품따위가작동하게되다.
031	입장세	입장-세	단어	「명사」	예전에, 간접 소비세의 하나. 극장, 경기장, 경마장 등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세금으로 1976년 12월 시행된 부가 가치세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032	총학장	총-학장	단어	「명사」	총장과 학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033	영인되다	영인-되다	단어	「동사」	인쇄물의 원본이 사진으로 복사되어 인쇄되다.
034	불하되다	불하-되다	단어	「동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이 개인에게 팔려 넘어가다.
035	초등교사	초등^교사	구	품사 없음	초등 교원 자격을 갖추고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036	명춘	명춘	단어	「명사」	내년 봄.
037	붕합되다	붕합-되다	단어	「동사」	「1」붕해져 붙게 되다. 「2」생각이나의견따위가달라서다투는개인이나집단이다툼을그치게되다.
038	탐색대	탐색-대	단어	「동사」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무리.
039	중등교사	중등^교사	구	품사 없음	중등 교원 자격을 갖추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040	기히	기-히	단어	「부사」	기묘하고 이상하게.
041	간이하다	간이-하다	단어	「형용사」	간단하고 편리하다.
042	공제되다	공제-되다	단어	「동사」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이 빼어지다.
043	중서부	중-서부	단어	「명사」	「1」 어떤 지역의 중부에서 서쪽 부분. 「2」어떤지역의중부와서부를아울러이르는말.
044	과외하다	과외-하다	단어	「동사」	「1」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 남에게 따로 배우다. 「2」어떤과목을남에게개별적으로가르치다.
045	쳐죽이다	쳐-죽이다	단어	「동사」	마구 치거나 때려서 죽이다.

046	공유되다	공유-되다	단어	「동사」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다.
047	도심지대	도심^지대	구	품사 없음	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지대.
048	높지	높-지	단어	「명사」	높이 있거나 많은 땅.
049	쌓아올리다	쌓아-올리다	단어	「동사」	「1」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없어서 구조물을 높게 하다. 「2」경험, 기술, 업적, 지식따위를 거듭익혀깊이를 더하다. 「3」재산, 명예또는 불명예, 신뢰또는 불신따위를 크게 높이다.
050	게을러지다	게을러-지다	단어	「동사」	행동이 느려지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게 되다.
051	수교되다	수교-되다	단어	「동사」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제를 맺게 되다.
052	집필되다	집필-되다	단어	「동사」	논문이나 책 따위가 글로 쓰인다.
053	해당액	해당-액	단어	「명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 금액.
054	서커스단	서커스-단	단어	「명사」	마술이나 곡예, 동물의 묘기 따위를 공연하는 흥행 단체.
055	태고종	태고-종	단어	「명사」	한국 불교의 한 파. 해방 이후, 대처승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종파로 태고 보우(太古普愚)의 종풍 선양을 목표로 한다.
056	제지되다	제지-되다	단어	「동사」	말려서 못 하게 되다.
057	몰이하다	몰이-하다	단어	「동사」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목으로 몰아넣다.
058	장난스레	장난-스레	단어	「부사」	장난하는 듯한 태도가 있게.
059	도청되다	도청-되다	단어	「동사」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가 몰래 엿들어지거나 녹음되다.
060	충원되다	충원-되다	단어	「동사」	인원수가 채워지다.
061	돌려보다	돌려-보다	단어	「동사」	글이나 책 따위를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보다.
062	해이되다	해이-되다	단어	「동사」	긴장감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 마음이 느슨해진다.
063	안타까움	안타까움	단어	「명사」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
064	내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단어	「동사」	「1」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 「2」보살피지 않고 혼자 두다.
065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단어	「동사」	들어서 위로 올리다.
066	출력되다	출력-되다	단어	「동사」	「1」엔진, 전동기, 발전기 따위에서 외부에 공급할 기계적·전기적 힘이나 오게되다. 「2」컴퓨터 따위의 기기(機器)나 장치가 입력을 받아

					일을하고외부로결과가나오게되다.
067	절절이	절절-이	단어	「부사」	글이나 말의 한 마디 한 마디마다.
068	전유되다	전유-되다	단어	「동사」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게 되다.
069	터득되다	터득-되다	단어	「동사」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다.
070	기여되다	기여-되다	단어	「동사」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되다.
071	삼급	삼급	단어	「명사」	여러 개의 등급 가운데 셋째의 등급.
072	치복	치복	단어	「명사」	농약대가 입는 옷.
073	대변되다	대변-되다	단어	「동사」	「1」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의견이나 태도가 드러나게 되다. 「2」대표적으로나타나다.
074	향두가	향두-가	단어	「명사」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구슬픈 소리.
075	척결되다	척결-되다	단어	「동사」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이 깨끗이 없어지다.
076	큰고모	큰-고모	단어	「명사」	「1」둘 이상의 아버지의 여자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는 누나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아버지의누나를이르거나부르는말.
077	작은이모	작은-이모	단어	「명사」	둘 이상의 어머니의 여자 형제 가운데 나이가 어린 여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078	큰고모부	큰-고모부	단어	「명사」	큰고모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079	운구되다	운구-되다	단어	「동사」	시신을 넣은 관이 운반되다.
080	중동부	중동-부	단어	「명사」	「1」어떤 지역의 중부에서 동쪽 부분. 「2」어떤지역의중부와동쪽지역을아울러이르는말.
081	위헌론	위헌-론	단어	「명사」	어떤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가를 따지는 논의.
082	우수작	우수-작	단어	「명사」	여럿 가운데 뛰어난 작품.
083	꾸며내다	꾸며-내다	단어	「동사」	「1」부정한 목적으로 거짓이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다. 「2」어떤일을부정한방법으로짜고만들어내다.
084	대접받다	대접-받다	단어	「동사」	「1」마땅한 예의를 갖춘 대우를 받다. 「2」차려준음식을받아먹다.
085	순한글	순-한글	단어	「명사」	다른 문자가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한글로만 적은 글.
086	환송객	환송-객	단어	「명사」	떠나가는 사람을 기쁘게 배웅하러 나온 손님.
087	중개사	중개-사	단어	「명사」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088	사당화	사당-화	단어	「명사」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 모인 무리로 바뀜.
089	신청금	신청-금	단어	「명사」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

					구할 때 내는 돈.
090	등반대원	등반대-원	단어	「명사」	등반대의 구성원.
091	호가되다	호가-되다	단어	「동사」	팔거나 사려고 내놓은 물건의 값이 얼마라고 불리다.
092	골패짝	골패-짝	단어	「명사」	골패의 날장.
093	수납되다	수납-되다	단어	「동사」	받아 넣어 둔 상태로 되다.
094	외로워하다	외로워-하다	단어	「동사」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함을 느끼다.
095	흉내내다	흉내-내다	단어	「동사」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겨 따라 하다.
096	서탁	서탁	단어	「명사」	책을 엮어 두는 데 쓰는 좁고 길쭉하며 낮은 탁자.
097	큰외삼촌	큰-외삼촌	단어	「명사」	「1」둘 이상인 어머니의 남자 형제 가운데 맏이가 되는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어머니의오빠를이르거나부르는말.
098	작은외삼촌	작은-외삼촌	단어	「명사」	「1」둘 이상인 어머니의 남자 형제 가운데 맏이가 아닌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어머니의남동생을이르거나부르는말.
099	발화자	발화-자	단어	「명사」	말을 하는 사람.
100	마조히스트	마조히스트	단어	「명사」	마조히즘의 경향이 있는 사람.
101	조리돌림	조리-돌림	단어	「명사」	「1」예전에, 사회적 규범을 어긴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죄상을 적어 붙이고 끌고 돌아다니며 망신을 주던 일. 「2」온라인상에서다수의사람들이논란이되는화제를공유하며비판하는것을비유적으로이르는말.
102	옥내외	옥내-외	단어	「명사」	집 또는 건물의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103	선전적	선전-적	단어	「명사」	[Ⅰ]「명사」무엇을 잘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것. [Ⅱ]「관형사」무엇을잘설명하여널리알리는.
104	알림	알림	단어	「명사」	알게 하는 일. 또는 그 내용.
105	창교	창교	단어	「명사」	종교를 처음으로 만들.
106	분통하다	분통-하다	단어	「형용사」	몹시 분하여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107	나돌아다니다	나돌아-다니다	단어	「동사」	밖으로 나가 이리저리 여러 곳으로 다니다.
108	소롯이	소롯-이	단어	「부사」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109	도둑하다	도둑-하다	단어	「동사」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다.
110	삼엽	삼엽	단어	「명사」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한 형식인 엽의 하나.
111	심질환	심-질환	단어	「명사」	심장의 각종 질환을 이르는 말.
112	되돌려주다	되돌려-주다	단어	「동사」	돌려주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113	학내외	학내-외	단어	「명사」	학교의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4	타건	타건	단어	「명사」	건반을 두드림.

115	개교되다	개교-되다	단어	「동사」	학교가 새로 세워져 운영이 시작되다.
116	지방식	지방-식	단어	「명사」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 또는 그러한 음식을 위주로 구성된 식사.
117	문제화되다	문제화-되다	단어	「동사」	문젯거리가 되다.
118	오동잎	오동-잎	단어	「명사」	오동나무의 잎.
119	의지가지	의지-가지	단어	「명사」	의지할 만한 대상.
120	옹위되다	옹위-되다	단어	「동사」	좌우에서 부축하여 지켜지고 보호되다.
121	농다리	농-다리	단어	「명사」	벽면에 붙은 짧은 지게 다리 위에 두 개의 긴 통오리나무를 걸쳐 놓은 것. 이불, 요 따위의 침구를 엮는 데 쓰인다.
122	자립도	자립-도	단어	「명사」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정도.
123	지겨움	지겨움	단어	「명사」	넌더리가 날 정도로 지루하고 싫음.
124	은지화	은지-화	단어	「명사」	은가루나 은박 따위의 은빛 나는 재료를 입힌 종이 위에 그린 그림.
125	입법되다	입법-되다	단어	「동사」	법률이 제정되다.
126	관념어	관념-어	단어	「명사」	어떤 일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말.
127	연설장	연설-장	단어	「명사」	연설을 하기 위한 설비와 관람석 따위를 갖춘 곳.
128	독방	독-방	단어	「명사」	보를 만들거나 논밭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언덕.
129	한학과	한학-과	단어	「명사」	한의학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과.
130	집계표	집계-표	단어	「명사」	계산한 것들을 모아 놓은 표.
131	호국신	호국-신	단어	「명사」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신령.
132	부상되다	부상-되다	단어	「동사」	「1」물 위로 떠오르게 되다. 「2」어떤현상이관심의대상이되거나어떤사람이혈썩좋은위치로올라서게되다.
133	경직화되다	경직화-되다	단어	「동사」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한 상태로 되다.
134	반성되다	반성-되다	단어	「동사」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키게 되다.
135	새며느리	새-며느리	단어	「명사」	시부모가 아들과 이제 막 결혼하여 며느리가 된 사람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136	악기장	악기-장	단어	「명사」	악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37	창당되다	창당-되다	단어	「동사」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다.
138	사각이다	사각-이다	단어	「동사」	[1]「1」벼, 보리, 밀 따위를 가볍게 베는 소리가 자꾸 나다. [1]「2」눈이내리거나눈따위를가볍게뺨는소리가자



					<p>꾸나다.</p> <p>[1]「3」종이위에글씨를가볍게쓰는소리가자꾸나 다.</p> <p>[2]「1」연한과자나배,사과따위가가볍게씹히는소 리가잇따라나다.또는그런소리를잇따라내다.</p> <p>[2]「2」갈대나풀먹인천따위의얇고뽀뽀한물체가스 치는소리가자꾸나다.또는그런소리를잇따라내다.</p>
139	기정되다	기정-되다	단어	「동사」	이미 결정되다.
140	훈련사	훈련-사	단어	「명사」	「1」 운동선수를 훈련하고 지도하는 사람. 「2」 동물을 전문적으로 길들이고 조련하는 사람.
141	안장식	안장-식	단어	「명사」	장사를 지내는 의식.
142	남주인공	남-주인공	단어	「명사」	사건이나 소설, 영화, 연극 따위에서 가장 중심 적인 역할을 하는 남자.
143	복망	복망	단어	「명사」	「1」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 중국의 베이망산에 무덤이 많 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2」 '베이망산'을 우리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44	변신되다	변신-되다	단어	「동사」	모양이나 태도, 성격 따위가 바뀌다.
145	내신되다	내신-되다	단어	「동사」	「1」 상급 기관에 인사 문제나 사업 내용 따위 가 공개되지 않고 보고되다. 「2」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 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 행 등이 전달되다.
146	모방되다	모방-되다	단어	「동사」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아 만들어지다.
147	천도제	천도-제	단어	「명사」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불 교 의식.
148	피학	피학	단어	「명사」	못살게 괴롭힘을 당함.
149	최소화되다	최소화-되다	단어	「동사」	가장 작게 되다.
150	웅성이다	웅성-이다	단어	「동사」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자꾸 나다.
151	속아넘어가다	속아-넘어가 다	단어	「동사」	남의 거짓이나 꾀에 단단히 속다.
152	미비되다	미비-되다	단어	「동사」	아직 다 갖추어지지 못하다.
153	씩어나다	씩어-나다	단어	「동사」	너무 많아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
154	도굴품	도굴-품	단어	「명사」	법적 수속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 래 캐낸 물품.
155	헐어지다	헐어-지다	단어	「동사」	집 따위의 축조물이나 쌓아 놓은 물건이 무너 뜨려지다.
156	전삼	전삼	단어	「명사」	도포의 뒤에 길게 달아 뒷자락을 덮는 천.

157	상자갑	상자-갑	단어	「명사」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 대나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든 네모난 작은 상자.
158	중폭기	중폭-기	단어	「명사」	행동반경이 1,609~4,023km로 크기, 폭탄 적재량 따위가 경폭격기와 중(重)폭격기의 중간 정도인 폭격기. 주로 전략 폭격에 사용되며, 비이십구(B29)가 대표적이다.
159	양근	양근	단어	「명사」	귀두, 요도구, 고환 따위로 이루어진 남자의 바깥 생식 기관.
160	시험공부하다	시험공부-하다	단어	「동사」	시험을 치기 위하여 공부를 하다.
161	다운로드받다	다운로드-받다	단어	「동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 내리다.
162	내려보다	내려-보다	단어	「동사」	「1」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보다. 「2」자기보다한층낮추어보다.
163	일푼	일-푼	단어	「명사」	돈 한 푼이라는 뜻으로, 아주 적은 돈을 이르는 말.
164	골관절	골-관절	단어	「명사」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곳. 주로 무릎과 같은 관절을 의미한다.
165	용출되다	용출-되다	단어	「동사」	혼합물 따위가 가열되어 그 성분이 분리되어 나오다.
166	딸기밭	딸기-밭	단어	「명사」	딸기를 심은 밭.
167	신통찮다	신통찮다	단어	「형용사」	「1」효험이 빠르거나 훌륭하지 아니하다. 「2」별다른데가없고마음에들만큼마땅하고좋지아니하다.
168	대여되다	대여-되다	단어	「동사」	물건이나 돈이 나중에 도로 돌려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지다.
169	특수어	특수-어	단어	「명사」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서만 쓰이거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쓰이는 말. 은어나 비속어, 욕설, 유행어, 전문어 따위가 있다.
170	무좀약	무좀-약	단어	「명사」	무좀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
171	강스파이크	강-스파이크	단어	「명사」	배구에서, 네트 가까이 띄운 공을 상대편 코트로 매우 세게 내리치는 공격.
172	중소국	중소-국	단어	「명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힘이 약소국보다 크지만 강대국보다는 작은 국가.
173	기본율	기본-율	단어	「명사」	세금 등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비율.
174	제삿집	제삿-집	단어	「명사」	죽은 사람을 기리고자 제사를 지내는 집.
175	촌읍	촌읍	단어	「명사」	시골에 있는 읍.
176	저화질	저-화질	단어	「명사」	텔레비전 따위의 화면이나 그림의 바탕이 섬세하거나 선명하지 못한 것.
177	하등하다	하등-하다	단어	「형용사」	등급이나 정도, 수준이 낮거나 뒤떨어지다.

178	완충되다	완충-되다	단어	「동사」	대립하는 것 사이에서 불화나 충돌이 누그러지게 되다.
179	관례화되다	관례화-되다	단어	「동사」	관습처럼 되다.
180	명세표	명세-표	단어	「명사」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적은 문서.
181	만개되다	만개-되다	단어	「동사」	「1」꽃이 활짝 다 피게 되다. 「2」문화, 학문, 종교 따위가 융성하게 되다.
182	경구적	경구-적	단어	[Ⅰ] 「명사」 [Ⅱ] 「관형사」	[Ⅰ]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표현한 말에 관한 것. [Ⅱ]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표현한 말에 관한.
183	이의어	이의-어	단어	「명사」	뜻이 다른 말.
184	매립되다	매립-되다	단어	「동사」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이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워지다.
185	녹취되다	녹취-되다	단어	「동사」	방송 따위의 내용이 녹음되다. 또는 녹음한 것이 글로 옮겨 기록되다.
186	경작인	경작-인	단어	「명사」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
187	저명인	저명-인	단어	「명사」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는 사람.
188	한랭기	한랭-기	단어	「명사」	지구의 기온 변화 과정에서 온도가 낮고 유난히 추운 시기.
189	표피층	표피-층	단어	「명사」	「1」동물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진 층. 「2」고등식물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의 층.
190	버거워하다	버거워-하다	단어	「동사」	물건이나 세력 따위를 다루기가 어려워 힘에 겹게 여기다.
191	묵란	묵란	단어	「명사」	먹으로 그린 난초 그림.
192	망진	망진	단어	「명사」	눈으로 환자의 피부, 눈, 코, 입, 혀 따위를 관찰하여 병상을 진단하는 일.
193	주도되다	주도-되다	단어	「동사」	수동적인 처지에서 이끌어지다.
194	다릿살	다릿-살	단어	「명사」	다리 부분에 붙은 살.
195	감방살이	감방-살이	단어	「명사」	감방에 갇히어 지내는 생활.
196	점심하다	점심-하다	단어	「동사」	「1」점심밥을 짓다. 「2」점심밥을 먹다.
197	산곡간	산곡-간	단어	「명사」	산골짜기와 산골짜기의 사이.
198	월납	월납	단어	「명사」	다달이 나누어 돈을 냄.
199	분기납	분기-납	단어	「명사」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나누어 3개월마다 관계 기관에 냄.
200	반기납	반기-납	단어	「명사」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나누어 6개월마다 관계 기관에 냄.
201	연납	연납	단어	「명사」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나누어 1년마다 관계 기관에 냄.
202	탐험대원	탐험대-원	단어	「명사」	탐험대의 구성원.
203	하사되다	하사-되다	단어	「동사」	신하가 임금에게,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건을 받다.
204	온난화하다	온난화-하다	단어	「동사」	「1」 기온을 높아지게 하다. 「2」기온이높아지다.
205	쑤셔넣다	쑤셔-넣다	단어	「동사」	함부로 마구 밀어 넣다.
206	벽돌담	벽돌-담	단어	「명사」	벽돌로 쌓아 만든 담.
207	어셈블리어	어셈블리어	단어	「명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의 하나. 저급 언어로서 기계어에 가까우며, 하드웨어 구성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명령이나 그 대상이 되는 주소를 기호로 쓸 수 있다.
208	즉결처분	즉결^처분	구	품사 없음	「1」 재판과 같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형하는 일. 「2」경찰서장의권한으로경찰범에게즉결하여내리는처분.
209	소아기	소아-기	단어	「명사」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한 시기. 유년기와 청년기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를 이른다.
210	시름하다	시름-하다	단어	「동사」	근심과 걱정이 풀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남아 속을 태우다.
211	여두목	여-두목	단어	「명사」	여자 두목.
212	정조준하다	정조준-하다	단어	「동사」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준하다.
213	홀라춤	홀라-춤	단어	「명사」	영덩이를 내어 두르면서 추는 하와이의 민속춤.
214	비단치마	비단-치마	단어	「명사」	비단으로 지은 치마.
215	보물찾기하다	보물찾기-하다	단어	「동사」	물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여러 군데 감추어 놓고, 그 종이를 찾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물건을 상품으로 주는 놀이를 하다.
216	간결히	간결-히	단어	「부사」	「1」 간단하고 깔끔하게. 「2」간단하면서도짜임새가있게.
217	탐닉되다	탐닉-되다	단어	「동사」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지게 되다.
218	보양탕	보양-탕	단어	「명사」	몸의 건강을 보전해 주는 탕.
219	이두문	이두-문	단어	「명사」	이두로 쓰인 글.
220	경히	경-히	단어	「부사」	「1」 중요하지 아니하게. 「2」방정맞고경박하게.
221	바꿔치다	바꿔-치다	단어	「동사」	원래의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다른 물건이나 사람 따위로 바꾸다.
222	화각함	화각-함	단어	「명사」	화각을 넣어 두는 함.
223	상두가	상두-가	단어	「명사」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구슬픈 소리.
224	쳐가다	쳐-가다	단어	「동사」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을 파내어 가거나 옮기어 가다.
225	변검	변검	단어	「명사」	중국의 독특한 공연 예술 중 하나. 등장인물의 감정에 따라 얼굴에 쓴 가면이 순식간에 바뀌

					는 연출 기법이 특징이다.
226	은덩이	은-덩이	단어	「명사」	은의 덩이.
227	도움되다	도움-되다	단어	「동사」	보탬이 되다.
228	주석본	주석-본	단어	「명사」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 책이나 판본.
229	퍼먹이다	퍼먹-이다	단어	「동사」	욕심 사납게 마구 먹이다. '퍼먹다'의 사동사.
230	부업하다	부업-하다	단어	「동사」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하다.
231	저녁하다	저녁-하다	단어	「동사」	「1」 저녁밥을 짓다. 「2」저녁밥을먹다.
232	황혼길	황혼-길	단어	「명사」	「1」 해가 지고 어스름해진 길. 「2」사람의생애나나라의운명따위가한창인고비를 지나쇠되하여종말에이른때를비유적으로이르는말.
233	물고기잡이	물고기-잡이	단어	「명사」	낚시나 그물 따위로 물고기를 잡음.
234	요행심	요행-심	단어	「명사」	뜻밖의 행운을 바라는 마음.
235	이잣돈	이잣-돈	단어	「명사」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돈.
236	진통	진-통	단어	「명사」	진짜나 진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
237	양말 짝	양말- 짝	단어	「명사」	「1」 양말의 한 짝. 「2」'양말'을속되게이르는말.
238	우편향	우-편향	단어	「명사」	우파 쪽으로 치우침.
239	의약학	의약-학	단어	「명사」	의학과 약학을 아울러 이르는 말.
240	속엿것	속엿-것	단어	「명사」	속에 있는 것.
241	미출	미출	단어	「명사」	여러 겹으로 쌓아올린 기와 중에서 눈썹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
242	내다팔다	내다-팔다	단어	「동사」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팔다.
243	하청업자	하청-업자	단어	「명사」	하청업에 종사하는 사람.
244	관례화하다	관례화-하다	단어	「동사」	관습처럼 되게 하다.
245	추동복	추동-복	단어	「명사」	가을철과 겨울철에 입는 옷.
246	모래찜	모래-찜	단어	「명사」	더운 모래를 이용하는 찜질. 몸에 열이 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어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
247	조성식	조성-식	단어	「명사」	화합물의 조성을 원자 기호와 아래 첨자의 수로 가장 간단하게 표시하는 화학식. 예를 들면, 포도당의 실험식은 CH <sub>2</sub> O이고 분자식은 C <sub>6</sub> H <sub>12</sub> O <sub>6</sub> 이다.
248	출금되다	출금-되다	단어	「동사」	돈이 내이어 쓰이거나 내이어 주어지다.
249	외뿔	외-뿔	단어	「명사」	하나만 달린 뿔.
250	소항목	소-항목	단어	「명사」	대항목 아래에 놓인 작은 항목.
251	문맹인	문맹-인	단어	「명사」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모르는 사람.
252	대항목	대-항목	단어	「명사」	항목을 여러 단계로 나눌 때, 가장 위에 놓인

					항목.
253	집주름	집-주름	단어	「명사」	→집주름.
254	귀족적	귀족-적	단어	[Ⅰ] 「명사」 [Ⅱ] 「관형사」	[Ⅰ]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의 자질이 있는 것. [Ⅱ]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의 자질이 있는.
255	외국풍	외국-풍	단어	「명사」	외국의 생활 풍습을 느끼게 하는 풍모나 방식.
256	가약하다	가약-하다	단어	「동사」	부부가 되자고 약속하다.
257	유인막	유인-막	단어	「명사」	예전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고개를 여럿이 함께 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던 막.
258	권고되다	권고-되다	단어	「동사」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을 받다.
259	자료화하다	자료화-하다	단어	「동사」	정리되지 않은 글이나 사진 따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로 만들다.
260	마애석불	마애-석불	단어	「명사」	자연 암벽에 부조(浮彫) 또는 음각으로 조각한 불상. 인도에서 발생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전하여졌다.
261	취사선택되다	취사선택-되다	단어	「동사」	여럿 가운데서 쓰일 것은 쓰이고 버려질 것은 버려지다.
262	제쳐놓다	제쳐-놓다	단어	「동사」	「1」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하다. 「2」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놓다.
263	날긋이	날-긋이	단어	「명사」	「1」 굵은 날씨에, 쓸데없는 일이나 행동을 함. 「2」 날이 굵기 전에 몸이 아프거나 쑤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3」 굵은 날씨에, 음식을 장만하여 서로 나누어 먹거나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냄.
264	적어넣다	적어-넣다	단어	「동사」	문서나 서류 따위에 글로 쓰다.
265	산그림자	산-그림자	단어	「명사」	산이 빛을 가려서 그 산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266	전세대	전-세대	단어	「명사」	이전의 세대나 시대.
267	산중턱	산-중턱	단어	「명사」	산의 중간쯤 되는 곳.
268	물먹이다	물먹-이다	단어	「동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다.
269	훈련용	훈련-용	단어	「명사」	훈련하는 데 씀. 또는 그런 물건.
270	소액권	소액-권	단어	「명사」	적은 액수의 지폐.
271	합세되다	합세-되다	단어	「동사」	흩어져 있는 세력이 한곳에 모이다.
272	재해민	재해-민	단어	「명사」	재해를 입은 사람.
273	처방하다	처방-하다	단어	「동사」	「1」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짓거나 치료 방법 따위를 제시하다. 「2」 일정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법을 제시하다.
274	처방되다	처방-되다	단어	「동사」	「1」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이 처방되거나 치

					료 방법 따위가 제시되다. 「2」일정한문제를처리하기위하여방법이제시되 다.
275	주먹패	주먹-패	단어	「명사」	폭력이나 주먹질을 일삼는 무리.
276	맞춤복	맞춤-복	단어	「명사」	몸에 맞추어 지은 옷.
277	새겨넣다	새겨-넣다	단어	「동사」	「1」 사물에 글씨나 문양 따위를 파거나 조각하 다. 「2」마음에기억하여간직하다.
278	심판되다	심판-되다	단어	「동사」	「1」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이 내려지다. 「2」인간과세상의죄가제재되다. 「3」심리되거나재판되다.
279	빨발	빨-발	단어	「명사」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미끄럽고 부드러운 검은 개흙이 깔린 곳.
280	공언되다	공언-되다	단어	「동사」	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언급되 다.
281	양철판	양철-판	단어	「명사」	양철로 만든 철판.
282	속여넘기다	속여-넘기다	단어	「동사」	거짓이나 꾀 따위에 속아서 넘어가게 하다.
283	대류하다	대류-하다	단어	「동사」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을 전달하다.
284	사리합	사리-합	단어	「명사」	석가모니나 성자의 유골을 넣은 합.
285	대오다	대-오다	단어	「동사」	정한 시간에 맞추어 목적지에 오다.
286	과장스레	과장스레	단어	「부사」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낸 데가 있게.
287	쌍란	쌍-란	단어	「명사」	노른자가 두 개 있는 달걀.
288	산대추	산-대추	단어	「명사」	멧대추나무의 열매.
289	내리깎다	내리-깎다	단어	「동사」	「1」 남의 체면이나 인격, 능력 따위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낮추어 평하다. 「2」값이나액수를마구낮추어서줄이다.
290	입사되다	입사-되다	단어	「동사」	하나의 매질(媒質) 속을 지나가는 소리나 빛의 파동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이르게 되다.
291	경량화되다	경량화-되다	단어	「동사」	물건 따위의 크기나 규모 등이 줄거나 가벼워 지다.
292	경량화	경량-화	단어	「명사」	물건 따위의 크기나 규모 등이 이전보다 줄거 나 가벼워짐. 또는 그렇게 함.
293	경량화하다	경량화-하다	단어	「동사」	물건 따위의 크기나 규모 등을 줄이거나 가볍 게 하다.
294	거래상	거래-상	단어	「명사」	재화나 상품 따위를 사고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95	극악스럽다	극악-스럽다	단어	「형용사」	마음씨나 행동이 더할 나위 없이 악한 데가 있 다.
296	색채미	색채-미	단어	「명사」	색깔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색깔과 어울리면 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297	곡괭이질	곡괭이-질	단어	「명사」	곡괭이로 땅을 파거나 밭을 가는 일.
298	귀족화되다	귀족화-되다	단어	「동사」	귀족의 신분을 가지게 되거나, 귀족처럼 호화스럽게 되다.
299	비단치마	비단-치마	단어	「명사」	얇은 비단으로 만든 치마.
300	황달기	황달-기	단어	「명사」	황달의 증상이나 기운.
301	지릿하다	지릿-하다	단어	「형용사」	냄새가 오줌과 비슷하다.
302	착신자	착신-자	단어	「명사」	편지, 전보 따위의 통신이나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서 신호를 받는 사람.
303	면회장	면회-장	단어	「명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어떤 기관이나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
304	뿌리잎	뿌리-잎	단어	「명사」	뿌리나 땅속줄기에서 돋아 땅 위로 나온 잎. 고사리, 씨름꽃, 연꽃, 봄맞이꽃 따위에서 볼 수 있다.
305	화평스럽다	화평-스럽다	단어	「형용사」	화목하고 평온한 느낌이 있다.
306	살충약	살충-약	단어	「명사」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해가 되는 벌레를 죽이거나 없애는 약.
307	빼나다	빼-나다	단어	「형용사」	빼어나다'의 준말.
308	완축	완축	단어	「명사」	건물 따위를 완전히 세우거나 쌓아 만들.
309	완축하다	완축-하다	단어	「동사」	건물 따위를 완전히 세우거나 쌓아 만들다.
310	완축되다	완축-되다	단어	「동사」	건물 따위가 완전히 세워지거나 쌓여 만들어지다.
311	한시제	한시-제	단어	「명사」	한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
312	모호히	모호-히	단어	「부사」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게.
313	수리떡	수리-떡	단어	「명사」	단오에 해 먹는 절편. 쌀가루에 수리취를 넣어 둥글게 만든다.
314	산수병풍	산수-병풍	단어	「명사」	산수의 풍경을 그린 병풍.
315	십자길	십자-길	단어	「명사」	한 지점에서 길이 네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곳.
316	제보되다	제보-되다	단어	「동사」	정보가 제공되다.
317	도롯가	도롯-가	단어	「명사」	사람, 차 따위가 다니는 도로의 가장자리.
318	자료화	자료-화	단어	「명사」	정리되지 않은 글이나 사진 따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가 되게 함.
319	접맥되다	접맥-되다	단어	「동사」	맥을 잇게 되다.
320	통과율	통과-율	단어	「명사」	안건이나 서류 따위가 심의나 심사에서 통과되는 비율.
321	옆걸음	옆-걸음	단어	「명사」	발을 옆으로 떼어 놓거나 디디며 걷는 걸음.



322	남령초	남령-초	단어	「명사」	예전에, '담배'를 이르던 말.
323	영모도	영모-도	단어	「명사」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324	민족관	민족-관	단어	「명사」	민족에 대한 견해나 관점.
325	암전되다	암전-되다	단어	「동사」	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 따위가 바뀐다.
326	대집단	대-집단	단어	「명사」	다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나 집단.
327	흉악스럽다	흉악-스럽다	단어	「형용사」	「1」 사람의 성질이나 언행이 악하고 모진 데가 있다. 「2」생김새가험상궁고무서운데가있다.
328	좁씨	좁-씨	단어	「명사」	조의 씨.
329	종맥	종-맥	단어	「명사」	곤충 날개의 세로로 뻗어 있는 맥. 곤충 분류의 기준이 된다.
330	체질화	체질-화	단어	「명사」	어떤 일이 익숙하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331	체질화하다	체질화-하다	단어	「동사」	어떤 일이 익숙하게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332	체질화되다	체질화-되다	단어	「동사」	어떤 일이 익숙하게 되다.
333	항진균제	항진균-제	단어	「명사」	진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물.
334	하락기	하락-기	단어	「명사」	값이나 등급 따위가 떨어지는 시기.
335	최음	최음	단어	「명사」	성욕이 일어나게 함.
336	한몸	한-몸	단어	「명사」	「1」 있는 대로 전부를 이르는 말. 「2」자기자신이나목숨을비유적으로이르는말. 「3」뜻이나마음을같이함을비유적으로이르는말.
337	바위벽	바위-벽	단어	「명사」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벽 모양의 바위.
338	측두	측-두	단어	「명사」	옆머리 「1」'를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339	조개무덤	조개-무덤	단어	「명사」	원시인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가 쌓여 이루어진 무더기. 주로 석기 시대의 것으로 바닷가나 호반 근처에 널리 분포하며, 그 속에 토기나 석기·뼈 따위의 유물이 있어 고고학상의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340	합사	합사	단어	「명사」	따로 기르던 동물들을 함께 기르려고 한데 둠.
341	합사하다	합사-하다	단어	「동사」	따로 기르던 동물들을 함께 기르려고 한데 두다.
342	글소리	글-소리	단어	「명사」	글을 읽는 소리.
343	김장배추	김장-배추	단어	「명사」	김장하는 데 쓰는 배추.
344	수필체	수필-체	단어	「명사」	수필 형식으로 자유롭게 쓴 문체.
345	물자원	물-자원	단어	「명사」	농업, 공업, 발전 따위의 자원이 되는 물.
346	증명원	증명-원	단어	「명사」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47	약숫물	약숫-물	단어	「명사」	먹거나물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샘물.
348	취직률	취직-률	단어	「명사」	일정한 범위의 사람 중에서 취직한 사람의 비

					을.
349	입엿말	입엿-말	단어	「명사」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말.
350	엿눈	엿-눈	단어	「명사」	끝눈이나 곁눈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나는 눈. 식물체에 상처가 나거나 어떤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
351	액귀	액귀	단어	「명사」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몰아오는 귀신.
352	숙제장	숙제-장	단어	「명사」	숙제를 하는 공책.
353	취재단	취재-단	단어	「명사」	방송사나 신문사 따위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기사의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임시로 조직된 단체.
354	수뇌급	수뇌-급	단어	「명사」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해당하는 등급.
355	해저면	해저-면	단어	「명사」	바다의 밑바닥 부분.
356	콧볼	콧-볼	단어	「명사」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
357	난사되다	난사-되다	단어	「동사」	「1」활, 대포, 총 따위가 제대로 겨냥되지 아니하고 아무 곳에나 마구 쏘아지다. 「2」광선같은것이마구어지럽게비춰지다.
358	방증되다	방증-되다	단어	「동사」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이 밝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되다.
359	독실히	독실-히	단어	「부사」	두텁고 성실하게 믿는 태도나 자세로.
360	주해서	주해-서	단어	「명사」	원전이 되는 책의 본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361	충족도	충족-도	단어	「명사」	기대나 욕구, 조건 따위를 모자람이 없게 채우는 정도.
362	자연교배	자연^교배	구	품사 없음	생물의 암수가 자연 본래의 방법으로 수정 또는 수분하는 일을 '인공 교배'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363	지연책	지연-책	단어	「명사」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는 계책.
364	총군	총군	단어	「명사」	총을 갖춘 군사.
365	수녀회	수녀-회	단어	「명사」	특정한 목적이나 수도의 방법을 따르는 수녀들의 단체.
366	밥덩이	밥-덩이	단어	「명사」	밥이 뭉쳐진 덩이.
367	헛품	헛-품	단어	「명사」	아무 보람도 없이 들인 힘이나 수고.
368	정형률	정형-률	단어	「명사」	시에서,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의하여 생기는 운율.
369	안고름	안-고름	단어	「명사」	옷의 안깃을 여미어 매는 옷고름.
370	저작권료	저작권-료	단어	「명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371	걸궁패	걸궁-패	단어	「명사」	동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악을 울려 주고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하여 조직한 무리.

372	양의학	양-의학	단어	「명사」	서양 의학'을 '한의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주로 현대 의학 일반을 이른다.
373	각기증	각기-증	단어	「명사」	비타민 비 원(B1)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영양실조 증상. 말초 신경에 장애가 생겨 다리가 붓고 마비되며 전신 권태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74	다가놓다	다가-놓다	단어	「동사」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겨 놓다.
375	떼부자	떼-부자	단어	「명사」	갑자기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된 부자.
376	운무중	운무-중	단어	「명사」	「1」구름과 안개의 속. 「2」어떤일이실마리나전망이전혀보이지아니하여아주의심스러운상태.
377	접객용	접객-용	단어	「명사」	손님을 접대하는 데 사용함. 또는 그런 물건.
378	강철재	강철-재	단어	「명사」	공업, 건설 따위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壓延) 따위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크게 조강(條鋼), 강판(鋼板), 강관(鋼管)의 세 가지로 나눈다.
379	깃것	깃-것	단어	「명사」	삶거나 바래지 않은 무명이나 광목, 또는 그것으로 지은 상복(喪服).
380	베날기	베-날기	단어	「명사」	직물의 올 수만큼의 날실을 한 필의 길이로 늘여서 끊어 베틀에 거는 일.
381	꾸지뽕	꾸지-뽕	단어	「명사」	「1」꾸지뽕나무의 잎. 「2」뽕나무과의낙엽활엽소교목.또는관목.잎은긴타원형또는거꾸로된달걀모양이며흔히세갈래로갈라진다.초여름에노르스름한꽃이두상(頭狀)화서로피고열매는장과(漿果)로9~10월에붉게익는다.열매는식용하며잎은양잠사료로쓰고나무는목공재,땀감으로쓴다.산기슭양지쪽이나마을근처에서자라는데한국,일본,중국등지에분포한다. 「3」'2」의열매.
382	부속서	부속-서	단어	「명사」	협정문이나 성명서 따위의 상위 문서에 딸려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서.
383	흡착판	흡착-판	단어	「명사」	어떤 것이 달라붙게 만든 판.
384	해배되다	해배-되다	단어	「동사」	귀양에서 풀려나다.
385	고려어	고려-어	단어	「명사」	「1」고려의 언어. 고대 국어를 이어받아 개성에서 형성된 언어로서 중세 국어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2」연해주나중앙아시아따위에거주하는우리민족이쓰는말.
386	교의신학	교의^신학	구	품사 없음	특정한 종교의 교의를 연구하는 학문.

387	중탄산	중-탄산	단어	「명사」	탄산수소'의 전 용어.
388	탄산수소	탄산-수소	단어	「명사」	탄산이 포함한 두 개의 수소 원자 가운데 하나를 잃은 원자단. 알칼리 금속 원소와 화합하여 염을 만든다. 화학식은 $\text{HCO}_3^-$ .
389	비활동성	비-활동성	단어	「명사」	몸을 움직여 활발히 행동하지 않는 성질.
390	유소아	유-소아	단어	「명사」	유아와 소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대략 생후 1년부터 청소년기 이전까지의 어린아이를 이른다.
391	털투성이	털-투성이	단어	「명사」	온통 털로 뒤덮인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나 동물.
392	염색제	염색-제	단어	「명사」	염색을 할 때에 물감과 함께 풀어서 물이 잘 들도록 해 주는 약품.
393	과부하되다	과부하-되다	단어	「동사」	「1」버거울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이 맡겨지다. 또는 일을 너무 많이 맡아 버거운 상태가 되다. 「2」기구나장치가다룰수있는정상치보다많은부담을받는상태가되다.
394	절묘히	절묘-히	단어	「부사」	비할 데가 없을 만큼 아주 묘하게.
395	배식되다	배식-되다	단어	「동사」	「1」군대나 단체 같은 데서 식사가 나뉘어 주어지다. 「2」학덕이있는사람의신주가문묘나사당,서원등에모셔지다.
396	커다래지다	커다래-지다	단어	「동사」	커다랗게 되다.
397	이속되다	이속-되다	단어	「동사」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되다.
398	죽노	죽노	단어	「명사」	대오리로 길고 둥글게 열기설기 엮어 만든 기구. 여름밤에 서늘한 기운이 돌게 하기 위하여 끼고 잔다.
399	상업도시	상업^도시	구	품사 없음	상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여 발달한 도시.
400	좌제	좌제	단어	「명사」	요도, 향문, 질(膣) 따위를 통하여 몸 안에 끼워 넣어 체온이나 분비물로 녹인 후에 약효가 나타나게 만든 약. 수렴제, 방부제, 마취제, 진통제 따위의 의약품에 카카오 기름 따위를 섞어 구형, 원기둥꼴, 원뿔형으로 만든다.
401	극저	극저	단어	「명사」	기온 따위의 기상 요소가 오랜 기간 동안에 나타내는 최저값.
402	분장술	분장-술	단어	「명사」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 따위에 맞게 배우를 꾸미는 기술.
403	희귀품	희귀-품	단어	「명사」	드물어서 특이하거나 매우 귀한 물품.
404	장리빚	장리-빚	단어	「명사」	장리로 진 빚. 돈이나 곡식을 꾸고, 그것을 갚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돈이나 곡식의

					절반 이상을 주기로 하고 지는 빛을 이른다.
405	검열계	검열-계	단어	「명사」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을 맡아보던 부서.
406	방제약	방제-약	단어	「명사」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예방하거나 구제하는데 쓰는 약.
407	양반층	양반-층	단어	「명사」	고려·조선 시대에, 지배층을 이루던 계급. 문반, 무반 및 사대부 등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408	이성혼	이성-혼	단어	「명사」	다른 성(姓)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혼인.
409	집게다리	집게-다리	단어	「명사」	게, 가재 따위의 다리 중에서 집게처럼 생긴 발이 끝에 달린 다리.
410	울울히	울울-히	단어	「부사」	「1」상쾌하지 않고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2」나무가뻘뻘하게들어서매우무성하게.
411	자잘히	자잘-히	단어	「부사」	「1」여럿이 다 가늘거나 작게. 「2」여러가지물건이나일,또는여러생각이나행동 따위가다작고소소하게.
412	내리뻘치다	내리-뻘치다	단어	「동사」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뻘치다.
413	황송히	황송-히	단어	「부사」	분에 넘쳐 고맙고도 송구하게.
414	부강국	부강-국	단어	「명사」	부유하고 강한 나라.
415	철바람	철-바람	단어	「명사」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분다. 바람이 나타나는 위도에 따라 열대 계절풍, 아열대 계절풍, 온대 계절풍 따위로 구분한다.
416	악자히	악자-히	단어	「부사」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떠들썩하게.
417	무서움증	무서움-증	단어	「명사」	무섭증'의 본말.
418	목상자	목-상자	단어	「명사」	나무로 만든 상자.
419	원바탕	원-바탕	단어	「명사」	근본이 되는 본디의 바탕.
420	초부득삼	초부득삼	단어	「명사」	첫 번째에 실패하여도 세 번째에는 성공한다는 뜻으로,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421	공작	공작	단어	「명사」	함께 일을 할 때의 생각, 방법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22	출입항	출입-항	단어	「명사」	출항과 입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
423	여간일	여간-일	단어	「명사」	그 정도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일.
424	무심스레	무심스레	단어	「부사」	보기에 무심한 데가 있게.
425	전파망	전파-망	단어	「명사」	전파가 전송되는 조직이나 체계.
426	먹탕	먹-탕	단어	「명사」	먹을 풀어 놓은 물처럼 검은빛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27	주도체	주도-체	단어	「명사」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이끌거나 지도하는 조직이나 기관.

428	순매수하다	순매수-하다	단어	「동사」	팔지는 않고 사들이기만 하다.
429	소곡주	소곡-주	단어	「명사」	막걸리의 하나. 누룩을 적게 하여 찹쌀로 담근 술로서 맑은 수정 빛깔이 난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韓山)에서 나는 것이 유명하다.
430	미발급	미-발급	단어	「명사」	증명서 따위를 아직 발행하여 주지 아니함.
431	미발급되다	미발급-되다	단어	「동사」	증명서 따위가 아직 발행되어 주어지지 아니하다.
432	미발급하다	미발급-하다	단어	「동사」	증명서 따위를 아직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다.
433	역동성	역동-성	단어	「명사」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
434	광력	광력	단어	「명사」	빛의 세기.
435	건국시조	건국-시조	단어	「명사」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조상.
436	몽혼약	몽혼-약	단어	「명사」	신경 계통에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몸의 일부분의 감각을 잃게 하는 약. 중추 신경 기능을 마취하거나 통각 중추의 감수성을 감퇴시키는 전신 마취제와, 국소의 지각 신경 말초를 마비시키는 국소 마취제가 있다.
437	남주인공	남-주인공	단어	「명사」	사건이나 소설, 영화, 연극 따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남자.
438	인생담	인생-담	단어	「명사」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
439	조리기구	조리^기구	구	품사 없음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쓰는 기구.
440	옥제품	옥-제품	단어	「명사」	옥으로 만든 물품.
441	철다리	철-다리	단어	「명사」	「1」철을 주재료로 하여 놓은 다리. 「2」철도선로가부설되어있어서열차가통과할수있도록만든다리.
442	팔동작	팔-동작	단어	「명사」	팔을 정해진 방식이나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일.
443	구태스럽다	구태-스럽다	단어	「형용사」	생각이나 방법, 상태 따위가 예전 그대로의 모습처럼 뒤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다.
444	자연음	자연-음	단어	「명사」	기계에서 나는 인위적인 소리가 아닌,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대로의 소리.
445	부둣길	부둣-길	단어	「명사」	부두를 따라 나 있는 길.
446	혁명관	혁명-관	단어	「명사」	혁명에 대한 견해나 관점.
447	정예화되다	정예화-되다	단어	「동사」	「1」씩 날래고 용맹스럽게 되다. 「2」능력이우수하고일에기운차게앞질러나서게되다.
448	송배심	송배-심	단어	「명사」	「1」우러러 공경하는 마음. 「2」신이나부처따위의종교적대상을우러러신앙하

					는마음.
449	나무문	나무-문	단어	「명사」	나무로 짠 문.
450	범지구적	범-지구적	단어	[Ⅰ]「명사」 [Ⅱ]「관형사」	[Ⅰ]범위나 규모가 널리 지구 전체에 미치는 것. [Ⅱ]범위나규모가널리지구전체에미치는.
451	빨쭙히	빨쭙-히	단어	「부사」	「1」(속되게) 어색하고 민망하게. 「2」(속되게)사물이이도저도아닌어정쩡한상태로.
452	목조물	목조-물	단어	「명사」	나무로 만든 물건이나 건물.
453	이화되다	이화-되다	단어	「동사」	「1」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서로 다르게 되다. 「2」두개의감각자극을공간적또는시간적으로접근시켜배치할때,양자(兩者)의질적,양적차이가한층크게되다. 「3」서로같거나비슷한소리의하나가다른소리로바뀌게되다.중세국어의‘불’,‘거불’이현대국어의‘복’,‘거복’으로바뀐일따위이다.
454	초조본	초조-본	단어	「명사」	이본이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책.
455	앞벽	앞-벽	단어	「명사」	앞쪽에 있는 벽.
456	여섯모	여섯-모	단어	「명사」	여섯 개의 직선에 싸인 평면.
457	미안스레	미안-스레	단어	「부사」	보기에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데가 있게.
458	고혹되다	고혹-되다	단어	「동사」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다.
459	몽긋이	몽긋-이	단어	「부사」	「1」약간 기울어지거나 굽어서 휘우듬하게. 「2」(비유적으로)행동이나감정따위가약한정도로천천히.
460	과메기	과메기	단어	「명사」	청어나 꽂치를 차게 말린 것.
461	쇠꼬치	쇠-꼬치	단어	「명사」	「1」쇠로 만든 꼬챙이. 「2」꼬장꼬장하고날카로운성격이나성미따위를비유적으로이르는말.
462	와불상	와불-상	단어	「명사」	누워 있는 부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불상.
463	별신당	별신-당	단어	「명사」	유교식으로 제관이 축문을 읽은 뒤, 무당이 나와 굿을 하는 당집.
464	가윗것	가윗-것	단어	「명사」	필요 밖의 일이나 물건.
465	제휴처	제휴-처	단어	「명사」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도와주고 행동을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곳.
466	하서하다	하서-하다	단어	「동사」	「1」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편지를 주다. 「2」임금이신하에게글을내려주다.
467	문답서	문답-서	단어	「명사」	서로 묻고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468	변좌	변좌	단어	「명사」	양변기에서 엉덩이를 대고 걸터앉는 부분.

469	개발품	개발-품	단어	「명사」	새롭게 생각해 내거나 전보다 낮게 만든 물품.
470	타격감	타격-감	단어	「명사」	「1」어떤 것을 때려 치거나 그렇게 한 듯한 감각. 「2」도구로어떤것을잘때려칠수있는감각. 「3」어떤일에서크게기를꺾거나손해·손실을주는 듯한느낌.또는어떤일에서크게기가꺾이거나손해·손실을입은듯한느낌.
471	철합금	철-합금	단어	「명사」	철과 그 밖의 다른 원소를 섞어서 녹여 만든 합금.
472	수식어구	수식어-구	단어	「명사」	「1」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관형구와 부사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표현을아름답고강렬하게또는명확하게하기위하여꾸미는말의마디나구절.
473	상하위	상하-위	단어	「명사」	상위와 하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474	출아하다	출아-하다	단어	「동사」	「1」출아법으로 번식하다. 또는 출아법으로 번식시키다. 「2」식물이싹이터나오다.
475	분통하다	분통-하다	단어	「형용사」	몹시 분하여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476	포설되다	포설-되다	단어	「동사」	어떤 것이 넓은 영역에 걸쳐 퍼지거나 깔려 갓 추어지다.
477	보호복	보호-복	단어	「명사」	추위나 더위 따위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는 옷.
478	적중도	적중-도	단어	「명사」	「1」총알 따위가 목표물에 맞는 정도. 「2」예상이나추측또는목표따위에들어맞는정도.
479	푼내음	푼-내음	단어	「명사」	「1」새로 나온 푸성귀나 푼나물 따위로 만든 음식에서 나는 풀 냄새. 「2」경험이적거나다자라지못한어린티를비유적으로이르는말.
480	영업난	영업-난	단어	「명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 주체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481	후림수	후림-수	단어	「명사」	남을 꺾어 속이는 짓. 또는 그런 술수.
482	생하품	생-하품	단어	「명사」	일부러 하는 하품.
483	되일으키다	되-일으키다	단어	「동사」	「1」무엇을 다시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 「2」생리적이거나심리적인현상이다시생겨나게하다.
484	고집꾼	고집-꾼	단어	「명사」	고집이 센 사람.
485	재판질	재판-질	단어	「명사」	재판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486	자애스럽다	자애-스럽다	단어	「형용사」	자애를 베푸는 사랑과 정이 깊은 데가 있다.
487	한중턱	한-중턱	단어	「명사」	「1」어떤 공간의 가장 중간쯤 되는 곳. 「2」시간이나일의가장중간쯤되는곳.
488	생투정	생-투정	단어	「명사」	아무 까닭이 없이 억지로 부리는 투정.



489	굿쟁이	굿-쟁이	단어	「명사」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490	외상꾼	외상-꾼	단어	「명사」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는 일을 일삼는 사람.
491	늦새벽	늦-새벽	단어	「명사」	늦은 새벽녘.
492	금강송	금강-송	단어	「명사」	금강산에서부터 태백산맥을 따라 강원도 강릉·삼척, 경북의 울진·봉화·영덕 등지에 자라는 소나무. 또는 그 재목. 줄기가 곧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아 최고급 목재로 쓴다.
493	시오	시오	단어	「관형사」	그 수량이 열다섯임을 나타내는 말.
494	밀수배	밀수-배	단어	「명사」	밀수품을 실어 나르는 배.
495	기료	기료	단어	「명사」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와 시설을 이용하고 내는 돈.
496	원훈	원훈	단어	「명사」	‘원(院)’ 자가 붙은 시설이나 기관의 이념이나 목표를 간명하게 나타낸 말.
497	밀소	밀-소	단어	「명사」	주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를 기를 때 그 밀천이 되는 소.
498	모양다리	모양-다리	단어	「명사」	「1」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를 속되게 이르는 말. 「2」체면이나일이되어가는꼴을속되게이르는말.
499	연세	연세	단어	「명사」	「1」 집이나 방을 1년 동안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 보증금 없이 1년 치 월세를 미리 주는 형태이다. 「2」연세를받고빌려주는방.또는연세를주고빌려쓰는방.
500	맨김	맨-김	단어	「명사」	양념하지 아니한 김.
501	부동산	부동-산	단어	「명사」	「2」 토지나 건물 등의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중개인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와 관련 법적 절차 진행을 주선해 주는 곳.
502	티격티격		단어	「부사」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자꾸 이러니저러니 시비를 따지며 가리는 모양.
503	하기	하기	단어	「명사」	비행기에서 내림.
504	티격티격		단어	「부사」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자꾸 이러니저러니 시비를 따지며 가리는 모양.
505	하기	하기	단어	「명사」	비행기에서 내림.

#### 「부록 4」 표준국어대사전 규범 정보 보완 원고

연번	표제어	동형 어 번호	비규범 어 여부	규범 정보 유형	규범 정보
1	가랑니			한글 맞춤법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이[飢]'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가랑'과 '이'의 합성어는 '%가랑이%'로 적지 않고 '가랑니'로 적는다.
2	가랑무			표준어 규정	'가랑무'를 '%가랑무우%'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가랑무'만이 표준어이다.
3	가랑비			표준어 규정	'가랑비'의 의미로 '안개비', '%잔비%'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중 '가랑비', '안개비'만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아 복수 표준어로 삼고, '%잔비%'는 버린다.
4	가래꾼			한글 맞춤법	접미사 '-깔', '-꾼', '-때기', '-빼기', '-쩍다' 등은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가래꾼%'으로 쓰지 않고 '가래꾼'으로 쓴다.
5	가름			한글 맞춤법	'가름'과 '갈음'은 발음이 비슷하나 그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가름'은 '가르다'의 어간에 '-ㅁ'이 붙은 형태이며, '갈음'은 '갈다[代替]'의 어간에 '-음'이 붙은 형태다. '가름'은 나누는 것을, '갈음'은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6	가리어지다			한글 맞춤법	'가리어지다'는 동사 '가리다'에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지다'가 결합한 말로, '%가리워지다%'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틀린 표기이다. '가리어지다' 혹은 '가려지다'로 적어야 한다.
7	가시랭이			표준어 규정	'가시랭이'는 표준어이고 '%가스라기%'는 잘못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이 큰 '가시랭이'는 표준어로 삼고 '%가스라기%'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가영수			한글 맞춤법	한자음 '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영'으로 적는다. '가영수'에서는 '영'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가영수'는 '영수'에 '가-'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가령수%'로 적지 않는다.
9	가윗일			한글 맞춤법	'가윗일'은 명사 '가외(加外)'와 '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가윈닐/가웬닐]로 소리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가윗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

					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외일%’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0	가을갈이			표준어 규정	‘가을갈이’와 ‘%가을카리%’의 경우,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인 ‘가을갈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11	가정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란’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난’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가정란’으로 적고, ‘%가정난%’으로 적지 않는다.
12	각설이			한글 맞춤법	‘각설이’는 명사 ‘각설(却說)’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각서리%’로 적지 않고 ‘각설이’로 적는다.
13	간니			한글 맞춤법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러나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간니’는 ‘%간이%’로 적지 않고 ‘간니’로 적어야 한다.
14	간질이다			한글 맞춤법	‘간질이다’는 어간 ‘간질이-’에 어미 ‘-어’가 결합하게 되면 ‘간질여(간질이어)’로 활용한다. ‘%간질어%’, ‘%간지러%’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15	갈모	01	0	표준어 규정	‘갈모’는 쓰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를 뜻하는 어휘로서 ‘갈모’를 쓰는 예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러한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갈모’가 아닌 ‘갓모’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16	갈음			한글 맞춤법	‘갈음’은 ‘가름’과 소리가 같지만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름’은 ‘가르다’의 어간에 ‘-ㅁ’이 붙은 말이며, ‘갈음’은 ‘갈대[代替]’의 어간에 ‘-음’이 붙은 말이다. ‘가름’은 나누는 것을, ‘갈음’은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17	갑자기			한글 맞춤법	‘-하다’가 붙는 어근이나 부사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만,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이므로 ‘%갑작이%’로 적지 않고 ‘갑자기’로 적는다.
18	값어치			표준어 규정	‘값어치’는 [가버치]로 소리가 나는데, 이는 겹받침의 경우에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	값없다			표준어 규정	‘값없다’는 [가법따]로 소리가 나지만 ‘값없다’로 적는다. 이는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없다’를 밝히어 적는

					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	갓모		표준어 규정		‘갓모’와 ‘갈모’의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갓모’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를 뜻하는 어휘로서 ‘갈모’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21	갓무		표준어 규정		‘갓무’와 ‘%갓무우%’의 경우,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으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갓무’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22	갓장이		표준어 규정		‘-장이’가 붙는 단어들은 기술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갓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갓장이’로 쓴다. 한편 ‘갓쟁이’는 갓을 쓴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23	갓쟁이		표준어 규정		‘-장이’가 붙는 단어들은 기술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갓쟁이’는 갓을 쓴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한편 ‘갓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갓장이’로 쓴다.
24	강낭콩		표준어 규정		‘강낭콩’의 어원을 밝혀 ‘%강남콩%’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 말은 이미 어원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고 ‘강낭콩’만 표준어로 삼는다.
25	강밥		한글 맞춤법		언어 현실에서 ‘강밥’을 ‘%강밥%’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강밥’의 ‘강-’은 일부 명사에 붙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26	강팍하다		한글 맞춤법		‘강팍하다’를 ‘%강팍하다%’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27	갓다		한글 맞춤법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말인 ‘가지다’와 준말인 ‘갓다’는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갓다’의 활용형으로 ‘%갓은%’, ‘%갓았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갓-’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잘못이다. ‘가진’, ‘가지었다(가졌다)’로 적어야 한다.
28	개구리		한글 맞춤법		‘개구리’를 ‘%개굴이%’로 적은 것은 잘못이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이와 같은 예로는 ‘꿀꿀이’, ‘오뎅이’, ‘배불뎅이’, ‘홀쭉이’ 등이 있다. 반면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예로

					는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두드리기’, ‘딱따구리’ 등이 있다.
29	개다	01	한글 맞춤법		‘개이다’를 ‘개다’에 피동접사 ‘-이-’가 붙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날씨가 %개이다%’, ‘맑게 %개인% 하늘’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나, ‘개이다’는 피동 표현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다. 이는 모두 ‘날씨가 개다’, ‘맑게 갠 하늘’로 적어야 한다.
30	개다리소반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개다리밥상%’은 버리고 ‘개다리소반’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1	개량		한글 맞춤법		한자음 ‘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양’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개량’으로 적는다.
32	개수통		한글 맞춤법		개수통을 ‘%개숫통%’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개수’와 ‘통’의 발음이 변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또한 ‘개수통’과 ‘설거지통’의 경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개수통’과 ‘설거지통’ 둘 다 표준어이다.
33	개숫물		한글 맞춤법		‘개숫물’은 명사 ‘개수’와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개순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개숫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수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4	개평꾼		한글 맞춤법		‘개평꾼’의 ‘꾼’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개평꾼’으로 적어야 한다. 간혹 ‘%개평군%’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35	객쩍다		한글 맞춤법		‘객쩍다’의 ‘쩍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객쩍다’로 적는다. 간혹 ‘%객적다%’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36	갯값		한글 맞춤법		‘갯값’은 명사 ‘개’와 ‘값’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개:값/갯:값]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갯값’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값%’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7	갱충쩍다		한글 맞춤법		‘갱충쩍다’의 ‘쩍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갱충쩍다’로 적는다. 간혹 ‘%갱충적다%’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또한 ‘갱충쩍다’와 동일한 의미의 복수 표준어로 ‘갱충맷다’가 있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갱충쩍다’와 ‘갱충맷다’ 모두 표준어이다.
38	거간꾼			한글 맞춤법	‘거간꾼’의 ‘꾼’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거간꾼’으로 적는다. 간혹 ‘%거간군%’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39	거두다	01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우-’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돋우다’처럼 적지만, ‘거두다’의 경우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걸우다%’가 아닌 ‘거두다’로 적는다. 이와 같은 예로는 ‘미루다’, ‘이루다’ 등이 있다.
40	거시기			표준어 규정	‘거시기’를 ‘%거시키%’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 단어는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거시기’로 쓴다.
41	걸잡다			한글 맞춤법	‘걸잡다’와 ‘겉잡다’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단어로 의미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한다. ‘걸잡다’는 “사태가 걸잡을 수 없게 악화되었다.”에서처럼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겉잡다’는 “겉잡아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에서처럼 ‘겉가량하여 먼저 어렵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42	걸히다			한글 맞춤법	걸히다’는 ‘걷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거치다]로 소리나지만 ‘-히-’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걸히다’로 적는다.
43	걸음			한글 맞춤법	‘걸음’은 동사 ‘걷다’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걷다’의 ‘걷-’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끝 ‘ㄷ’이 ‘ㄹ’로 바뀐다.
44	검둥이			표준어 규정	‘검둥이’의 ‘-둥이’는 ‘-동이(童-이)’에서 기원한 말이다. 그러나 ‘-둥이’는 어원 의식이 사라진 데다가 아이의 뜻에서 사람의 뜻으로 의미가 변하였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둥이’를 표준어로 삼고 ‘%검둥이%’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45	겉잡다	01		한글 맞춤법	‘겉잡다’와 ‘걸잡다’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단어로 의미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한다. ‘겉잡다’는 “겉잡아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에서처럼 ‘겉가량하여 먼저 어렵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걸잡다’는 “사태가 걸잡을 수 없게 악화되었다.”에서처럼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46	-게끔			표준어 규정	어미 ‘-게끔’은 표준어이고 ‘%-게시리%’, ‘%-그로%’는 잘못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이 큰 ‘-게끔’은 표

					준어로 삼고 '%-게시리%', '%-그로%'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47	게송			한글 맞춤법	'게송'을 '%게송%'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한자 '偈'의 본음이 '게'이므로 '偈頌'은 '게송'으로 적는다.
48	게시판			한글 맞춤법	'게시판'을 '%게시판%'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한자 '揭'의 본음이 '게'이므로 '揭示板'은 '게시판'으로 적어야 한다.
49	게양			한글 맞춤법	'게양'을 '%게양%'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한자 '揭'의 본음이 '게'이므로 '揭揚'은 '게양'으로 적어야 한다.
50	게재			한글 맞춤법	'게재'를 '%게재%'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한자 '揭'의 본음이 '게'이므로 '掲載'은 '게재'로 적어야 한다.
51	결구	02		한글 맞춤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구'만 표준어로 삼고 '%결귀%'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52	결뉴			한글 맞춤법	한자음 '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유'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결뉴'로 적고, '%결유%'로 적지 않는다.
53	검상			표준어 규정	'검상'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맞상%'이 쓰이는데 이는 잘못이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상'을 표준어로 삼고 '%맞상%'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54	검연쩍다			한글 맞춤법	'검연쩍다'를 '%검연쩍다%'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검연쩍다'의 '쩍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연쩍다'로 적어야 한다.
55	경구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구'만 표준어로 삼고 '%경귀%'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56	경인구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인구'만 표준어로 삼고 '%경인귀%'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57	결꾼			한글 맞춤법	'결꾼'의 '꾼'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결군%'으로 적지 않고 '결꾼'으로 적어야 한다.
58	계시다			표준어 규정	'있다'의 높임말에는 '계시다'와 '있으시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계시다'와 달리 '있으시다'는 '할아버지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처럼 간접 높임의 경우에 사용한다.
59	갯날			한글 맞춤법	‘갯날’은 명사 ‘계’와 ‘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겐:날/젠:날]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갯날’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계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0	고깃간			한글 맞춤법	‘고깃간’은 명사 ‘고기’와 ‘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고기깁/고깁깁]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고깃간’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기간%’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 ‘고깃간’과 의미가 같은 말로 ‘푸줏간’을 들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깃간’과 ‘푸줏간’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61	고두밥			한글 맞춤법	‘고두밥’을 ‘%꼬두밥%’, ‘%꼬들밥%’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62	고들빼기			한글 맞춤법	‘고들빼기’를 ‘%꼬들빼기%’, ‘%고들배기%’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고들빼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63	고랫재			한글 맞춤법	‘고랫재’는 명사 ‘고래’와 ‘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고래째/고래째]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고랫재’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래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4	고랭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랭’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냉’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고랭지’로 적고, ‘%고냉지%’로 적지 않는다.
65	고리눈이			한글 맞춤법	‘고리눈이’는 명사 ‘고리눈’과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고리누니]로 소리 나지만 ‘%고리누니%’가 아닌 ‘고리눈이’로 적는다. 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66	고린내			표준어 규정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



					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린내’와 ‘코린내’는 둘 다 표준어이다. 다만 이를 ‘%꼬린내%’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67	고미	01	표준어 규정		‘고미’는 표준어이고 ‘%고물%’은 잘못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이 큰 ‘고미’는 표준어로 삼고 ‘%고물%’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68	고봉밥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높은밥%’은 버리고 ‘고봉밥’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69	고삐		표준어 규정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와 ‘좁은 골목이나 길’을 다 함께 ‘고삐’로 써 오던 것을 분화시켜 전자를 ‘고삐’로 바꾸었다. 따라서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의 뜻으로는 ‘고삐’, ‘좁은 골목이나 길’의 뜻으로는 ‘고삐’가 표준어이다.
70	고치다		한글 맞춤법		모음 ‘ㅣ’ 뒤에 ‘-어’가 와서 ‘ㅌ’로 줄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고치어’, ‘고치었다’ 등은 ‘고쳐’, ‘고쳤다’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를 ‘%고치%’, ‘%고쳤다%’로 쓰는 경우도 있으나 잘못된 표기이다.
71	곤란		한글 맞춤법		‘곤란’은 [곤란]으로 소리나므로 ‘%곤난%’으로 적지 않고 ‘곤란’으로 적는다. ‘難’의 본음은 ‘난’이고 속음은 ‘란’인데,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72	곧이		한글 맞춤법		‘곧이’는 [고지]로 발음되는데, ‘ㄷ, ㅌ’ 받침 뒤에 ‘-이(-)’나 ‘-히-’가 올 때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나 ‘%고디%’로 적지 않고 ‘곧이’로 적는다.
73	골목쟁이		표준어 규정		기술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유기장이’, ‘소금쟁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골목장이%’가 아닌 ‘골목쟁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74	골탕		한글 맞춤법		‘골탕’을 ‘%골탕%’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75	곰곰이		표준어 규정		‘곰곰이’는 부사 ‘곰곰’에 ‘-이’가 붙은 단어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곰고미%’로 적지 않고 ‘곰곰이’로 적는다.
76	곱빼기		한글 맞춤법		‘곱빼기’는 [곱빼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다. 즉, ‘%곱배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빼기’와 ‘-배

				기'는 혼동될 수 있는 접미사인데 [빠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빠기'로 적고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77	곶슬머리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곶슬머리'와 '고수머리'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이를 '%곶슬머리%'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78	곶간		한글 맞춤법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다만, '곶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등 여섯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또한 '곶간'의 의미로 '%곶간%'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곶간'만 표준어로 정한다.
79	공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란'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난'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공란'으로 적고, '%공란%'으로 적지 않는다.
80	과녁빠기		한글 맞춤법	'과녁빠기'는 [과녁빠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다. '-빠기'와 '-배기'는 혼동될 수 있는 접미사인데 [빠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빠기'로 적고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따라서 '%과녁빠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81	과인산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린'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다음 법칙에 따라 '인'으로 적는다. '과인산'에서는 '인'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다음 법칙이 적용된다. '과인산'은 '인산'에 '과-'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과린산%'으로 적지 않는다.
82	광주리	01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리'는 표준어이고 '%광우리%'는 비표준어이다.
83	괴다	01	한글 맞춤법	'괴다'는 활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괴-' 뒤에 '-어', '-어서', '-었다' 등이 어울리면 '괴어', '괴어서', '괴었다'로 적고, '괘'로 줄어든 형태를 쓸 때에도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괘', '괘서', '괘다'로 쓴다. 이를 '%괴%', '%괴서%', '%괴도%', '%괘다%'로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괴다'는 '고이다'와 복수 표준어이다. 이는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어휘의 쌍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84	괴팍하다			한글 맞춤법	‘괴팍하다’의 원형은 ‘%괴팍하다%’이지만, 이중 모음(‘야’)이 변화를 겪어 단모음(‘아’)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85	구경꾼			한글 맞춤법	‘구경꾼’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구경꾼’으로 적는다. ‘%구경꾼%’으로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86	구들장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을 잃은 한자어인 ‘%방돌%’은 비표준어이고 고유어인 ‘구들장’이 표준어이다.
87	-구려	02		한글 맞춤법	‘-구려’를 ‘%-구료%’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구려’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88	구름양			한글 맞춤법	‘양/량’은 한자어와 결합할 때에는 ‘량’으로,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할 때에는 ‘양’으로 적는다. 그러므로 ‘%구름량%’으로 적지 않는다.
89	구린내			표준어 규정	‘구린내’와 ‘쿠린내’는 복수 표준어이지만, ‘%꾸린내%’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90	-구면			한글 맞춤법	‘-구면’을 ‘%-구만%’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91	구법	03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법’만 표준어로 삼고 ‘%귀법%’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92	구어박다			표준어 규정	‘구어박다’의 의미로 발음이 비슷한 ‘%구워박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구어박다’의 형태가 더 널리 쓰이므로 이것만 표준어로 삼는다.
93	구절	03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절’만 표준어로 삼고 ‘%귀절%’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94	구점	02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절’만 표준어로 삼고 ‘%귀절%’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95	국련			표준어 규정	‘국련’은 ‘국제 연합’의 준말인데, 이를 ‘%국연%’으로 적지 않는다. 한자음 ‘련’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연’으로 적는다. 그러나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국제 연합’의 준말은 ‘국련’으로 적는다.
96	국물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

					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국물’은 표준어이고, ‘%말국%’, ‘%말국%’은 비표준어이다.
97	군표			표준어 규정	‘군표’의 의미로 ‘%군용어음%’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군표’가 널리 쓰이므로 이것만 표준어로 삼고, ‘%군용어음%’은 버린다.
98	굳이			한글 맞춤법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는데, ‘ㄷ, ㅌ’ 받침 뒤에 ‘-이(-)’나 ‘-히-’가 올 때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굳이’로 적는다. ‘%구지%’, ‘%구디%’는 잘못된 표기이다.
99	굳히다			한글 맞춤법	‘굳히다’는 용언 ‘굳다’의 기본형 ‘굳-’에 사동의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므로, [구치다]로 소리 나더라도 그 기본형을 밝히어 ‘%구치다%’가 아닌 ‘굳히다’로 적는다.
100	굳다랗다			한글 맞춤법	‘굳다랗다’는 활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형용사의 어간 말음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으므로 ‘굳다랑--+ㄴ’은 ‘굳다란’으로, ‘굳다랑--+네’는 ‘굳다라네’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어미 ‘-아’와 결합할 때는 ‘-애’로 나타나므로 ‘굳다랑--+아’는 ‘굳다래’로 적어야 한다.
101	굳직하다			한글 맞춤법	‘굳직하다’는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국직하다%’ 또는 ‘%굳직하다%’가 아닌 ‘굳직하다’로 적는다.
102	굽도리			한글 맞춤법	‘굽도리’의 원형은 ‘굽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뜻이 원형에서 멀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굽돌이%’로 적지 않고 ‘굽도리’로 적는다.
103	굽히다			한글 맞춤법	‘굽히다’는 용언 ‘굽다’의 기본형 ‘굽-’에 사동의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므로, 그 기본형을 밝히어 ‘%구피다%’가 아닌 ‘굽히다’로 적는다.
104	궁상떨다			표준어 규정	‘궁상떨다’의 준말인 ‘%궁떨다%’가 쓰이기도 하나, 본말인 ‘궁상떨다’가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이것을 표준어로 삼고 ‘%궁떨다%’는 버린다.
105	귀글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쓰지만, ‘글귀’와 ‘귀글’은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106	귀둥이			표준어 규정	‘귀둥이’는 ‘귀(貴)+-둥이’의 결합으로 형성된 단어이며, 여기서 ‘-둥이’는 ‘동(童)’에 사람의 뜻을 더하는 ‘-이’가 결합한 ‘-둥이’가 바뀐 형태이다. 이처럼 양성 모음 ‘ㄴ’이 음성 모음 ‘ㄷ’로 바뀌어 굳어진 경우는 양성 모음 형태인 ‘%-둥이%’는 버리고, 음성 모음 형태인 ‘-둥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따라서 ‘귀둥이’, ‘귀둥’은

				표준어이고, '%귀통이%'는 비표준어이다.
107	귀때기		한글 맞춤법	'귀때기'를 '%귓때기%'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사이시옷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할 때 쓰이는데, '때기'는 접사이므로 사이시옷이 사용되지 않는다.
108	귀땀		한글 맞춤법	'귀땀'을 '%귀땀%'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귀땀'의 '땀'은 '뜨이다'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이를 '땀'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109	귀머거리		한글 맞춤법	'귀머거리'는 '귀+먹+--어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리'는 '그런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접미사가 붙어 동사인 '귀먹-'이 명사인 '귀머거리'가 되었으므로, 품사가 바뀐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귀먹어리%'가 아닌 '귀머거리'로 적는다.
110	귀밑머리		표준어 규정	'귀밑머리'는 방언이 표준어가 된 예이다.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고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되면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방언이던 '귀밑머리'가 표준어가 되고, 표준어이던 '%귓머리%'는 비표준어가 되었다.
111	귀이개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귀개%'는 버리고 '귀이개'를 표준어로 삼는다.
112	귀지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귀에지%'는 버리고 '귀지'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113	귀찮다		표준어 규정	'귀찮다'는 '%귀치 않다%'의 준말인데, 본말인 '%귀치 않다%'는 거의 쓰이지 않고 준말인 '귀찮다'가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이것을 표준어로 삼고 '%귀치 않다%'는 버린다.
114	귀통배기		한글 맞춤법	'귀통배기'는 [귀통배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는다. '-배기'와 '-빼기'는 혼동될 수 있는 접미사인데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빼기'로 적는다.
115	귀통이		표준어 규정	'귀통이'의 의미로 '%귀통이%', '%귓통%'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귀통이'만 표준어로 삼고 나머지는 버린다. 양성 모음 형태인 '%귀통이%'는 음성 모음 형태인 '귀통이'로 바뀌어 쓰이므로 쓰지 않고, '%귓통%'은 '귀통이'가 더 널리 쓰이므로 쓰지 않는다.
116	귓밥		한글 맞춤법	'귓밥'은 명사 '귀'와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귀뺨/귓뺨]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귓뺨'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귀밥%'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7	긱병			한글 맞춤법	'긱병'은 명사 '귀'와 '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귀뽕/귓뽕]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긱뽕'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귀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8	규율			한글 맞춤법	한자음 '열, 룰'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질 경우에는 '열, 율'로 적으므로 '규율'은 '%규룰%'이 아닌 '규율'로 적는다.
119	균열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열, 룰'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질 경우에는 '열, 율'로 적으므로 '균열'은 '%균렬%'이 아닌 '균열'로 적는다.
120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는 구별하여 써야 한다. '그러므로'는 접속부사로서,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럼으로(써)'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는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와 같이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원인이나 근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쓴다. '그럼으로(써)'는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와 같이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쓴다.
121	그렇다			한글 맞춤법	'그렇다'에 'ㄴ, ㅁ'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 경우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그렇네'가 아니라, '그러네'로 적어야 하고 어미 '-며'와 결합할 때는 '그러며'로, 어미 '-오'와 결합할 때에는 '그러오'로 적어야 한다. '그렇다'와 '그러다'는 모두 맞는 표기나 뜻은 다르다. '그렇다'는 '그와 비슷하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있다.'는 뜻의 '그러하다'의 준말로 형용사이며, '그러다'는 '그리하다, 그렇게 하다'의 준말로 동사이다. 그런데 '그렇다'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로 'ㅎ'이 줄어 '그러니, 그릴, 그러면, 그러니까(그렇습니다)'로 활용하고, '그러다'는 규칙 활용을 하므로 '그러니, 그릴, 그러면, 그러니까.'로 쓰인다. 결국 '그렇다'와 '그러다'는 뜻과 품사가 다르지만 활용형이 같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22	그루뵈기			한글 맞춤법	'그루뵈기'는 [그루뵈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다. 즉, '%그루뵈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뵈기'와 '-배기'는 혼동될 수 있는 접미사인데 [뵈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빠기’로 적고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123	그루콩			표준어 규정	‘그루콩’의 의미로 ‘%머드레콩%’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그루콩’이 널리 쓰이므로 이것만 표준어로 삼고, ‘%머드레콩%’은 버린다.
124	그을음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을음’의 의미로 ‘%끄스름%’, ‘%끄을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을음’을 표준어로 삼는다. ‘%끄시름%’은 방언이다.
125	그토록			한글 맞춤법	‘그토록’은 ‘그’와 조사 ‘토록’의 합성어이다. ‘토록’은 앞말이 나타내는 정도나 수량에 다 차기까지라는 뜻을 나타내며 ‘평생토록, 영원토록’의 ‘토록’도 이와 같다. 따라서 ‘%그도록%’으로 쓰지 않는다.
126	극락			한글 맞춤법	한자음 ‘락’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낙’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극락’으로 적는다.
127	글귀	02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위는 ‘구’로 적지만, ‘글귀’의 경우는 현실적인 쓰임을 고려하여 ‘%글구%’로 적지 않고 ‘글귀’를 표준어로 삼는다.
128	굵적거리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굵다’의 어간 ‘굵-’에 ‘-적’이 붙었으므로 ‘%극적거리다%, %글적거리다%’로 쓰지 않고 ‘굵적거리다’로 적는다.
129	기껏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기껏’의 의미로 ‘%까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껏’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기끈%’, ‘%긴끗%’, ‘%네나%’, ‘%네동%’, ‘%지지리%’는 모두 ‘기껏’의 방언이다.
130	기러기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말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따라서 ‘%기력이%’가 아니라 ‘기러기’로 적는다.
131	기어코			한글 맞춤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기어코’의 의미로 ‘%그여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어코’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여쿠%’, ‘%기연치%’, ‘%기연히%’는 모두 방언이다.
132	깃대	02		한글 맞춤법	‘깃대’는 명사 ‘기’와 ‘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기때/길때]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깃대’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3	깃저고리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깃저고리'의 의미로 '%삼옷%'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깃저고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134	까다롭다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즉 '까다롭다'의 의미로 '%까닭스럽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까다롭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135	까딱하면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딱하면'의 의미로 '%까딱하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까딱하면'을 표준어로 삼는다.
136	까마귀			표준어 규정	'까마귀'의 의미로 '%가냐귀%', '%가마끼%', '%까그매%', '%까마우%', '%까무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방언이며, '노깡이'는 심마니들의 은어이다.
137	까뭇개다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즉 '%까무느다%'를 표준어로 삼지 않고, '까뭇개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138	까치발	02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치다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까치발'을 표준어로 삼는다.
139	깍두기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즉 '깍두기'의 발음은 [깍뚜기]이나 '%깍뚜기%'가 아닌 '깍두기'로 적는다.
140	깍쟁이			표준어 규정	'%깍쟁이%'가 표준어가 아니고 '깍쟁이'만이 표준어인 것은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꼭쟁이%'는 방언이다.
141	깎보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깎보다'의 의미로 '%알보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깎보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깁보다%', '%눌러보다%', '%업시비보다%', '%허스려보다%'는 모두 방언이다.
142	깡총하다			표준어 규정	'깡총하다'의 의미로 '%깁장하다%', '%깡총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깡총하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143	깡충깡충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즉 ‘%깡총깡총%’이라고 적지 않고 ‘깡총깡총’이라고 적는다.
144	깨고물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깨고물’의 의미로 ‘%깨바심%’, ‘%깨보숭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깨고물’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깨보세이%’는 방언이다.
145	깨끗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즉 ‘%깨끗하다%’로 적지 않고 ‘깨끗하다’로 적는다.
146	깨다	01	한글 맞춤법	‘깨다’에 ‘-어’가 붙으면 ‘깨어’가 된다. ‘%깨여%’라고 적는 경우가 있으나 ‘깨여’는 ‘깨이다’에 ‘-어’가 붙어 ‘깨이어>깨여’가 된 것으로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147	깨소금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깨소금’의 의미로 ‘%깨보숭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깨소금’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깨보시%’는 방언이다.
148	깨이다	01	한글 맞춤법	‘깨이다’에 ‘-어’나 ‘-어서’가 붙으면 ‘깨이어, 깨이어서’가 된다. ‘깨이어’, ‘깨이어서’가 줄어들어 ‘깨여’, ‘깨여서’가 되는 것이므로 ‘깨어’, ‘깨어서’와 구별하여 적도록 한다. ‘깨어’, ‘깨어서’는 ‘깨다’에 ‘-어, -어서’가 붙은 것이다.
149	깨묵		한글 맞춤법	‘깨묵’은 명사 ‘깨’와 ‘묵’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깨묵]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깨묵’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깨묵%’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0	깨잎		한글 맞춤법	‘깨잎’은 명사 ‘깨’와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깨닙]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깨잎’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깨잎%’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1	꺼림하다		표준어 규정	‘꺼림하다’의 의미로 ‘%꺼꾸름하다%’, ‘%꺼찍하다%’, ‘%꺼름하다%’, ‘%끼름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꺼림하다’의 방언이고, ‘꺼림하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152	꺼풀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꺼풀’의 의미로 ‘%거풀%’, ‘%꺼풀%’, ‘%까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꺼풀’을 표준어로 삼는다.
153	꺼꺼푸드덕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꺼꺼푸드덕’의 의미로 ‘%꺼꺼푸드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꺼꺼푸드덕’을 표준어로 삼는다.
154	껌꽃이			한글 맞춤법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껌꽃이’는 ‘껌다’의 ‘껌-’과 ‘꽃다’의 ‘꽃-’이 어울려 이루어진 말로 ‘%꺼꽃이%’, ‘%껌꼬지%’로 적지 않고 ‘껌꽃이’로 적는다.
155	깁충깁충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즉 ‘%깁충깁충%’이라고 적지 않고 ‘깁충깁충’이라고 적는다.
156	꼬꼬댁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꼬꼬댁’의 의미로 ‘%꼬끼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꼬꼬댁’을 표준어로 삼는다.
157	꼬락서니			한글 맞춤법	‘꼬락서니’는 과거에 ‘꼴’에 접사 ‘-악서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따라서 ‘%꼴악서니%’로 적지 않고 ‘꼬락서니’로 적는다.
158	꼬창모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즉 ‘%말뚝모%’라고 하지 않고 ‘꼬창모’를 표준어로 삼는다.
159	꼬챙이			표준어 규정	‘꼬챙이’의 의미로 ‘%꼬창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꼬챙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160	꼭대기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꼭대기’의 의미로 ‘%꼭두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꼭대기’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꼭데%’, ‘%꼭두마리%’, ‘%꼭뒤%’, ‘%뽕데기%’, ‘%뽕데기%’는 방언이다.
161	꼭두각시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즉 ‘%꼭독각시%’ 대신 ‘꼭두각시’를 표준어로 삼는다. 또한 ‘꼭두각시’의 의미로 ‘%꼭도%’, ‘%꼭독%’, ‘%꼭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꼭두각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162	꼭두각시놀음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꼭두각시놀음’의 의미로 ‘%꼭두각시놀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꼭두각시놀음’을 표준어로 삼는다.
163	꼭지미역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즉 ‘%총각미역%’ 대신 ‘꼭지미역’을 표준어로 삼는다.
164	꼭하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꼭하다’의 의미로 ‘%꼭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꼭하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165	꿀뚜기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꿀뚜기’의 의미로 ‘%죽거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꿀뚜기’를 표준어로 삼는다. ‘%꼬뜨이기%’, ‘%꿀때기%’, ‘%꿀띠이%’, ‘%꿀무기%’, ‘%흙띠기%’는 방언이다.
166	꼼짝달싹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꼼짝달싹’의 의미로 ‘%옴쭈달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꼼짝달싹’을 표준어로 삼는다.
167	꽂추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꽂추’의 의미로 ‘%꽂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꽂추’를 표준어로 삼는다.
168	꽃끗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꽃끗하다%’로 적지 않고 ‘꽃끗하다’로 적는다.
169	꽃받침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꽃받침’의 의미로 ‘%꽃다대%’, ‘%꽃받기%’, ‘%꽃잔%’, ‘%꽃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꽃받침’을 표준어로 삼는다.
170	팽과리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즉 ‘%팽괘이%’로 적지 않고 ‘팽과리’로 적는다.
171	피다	03		한글 맞춤법	‘피다’는 활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 뒤에 ‘-어’, ‘-어

					서', '-었다' 등이 어울리면 '피어', '피어서', '피었다'로 적고, '꽤'로 줄어든 형태를 쓸 때에도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꽤', '꽤서', '꽤다'로 쓴다. 이를 '%꽤%', '%꽤서%', '%꽤도%', '%꽤다%'로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피다'는 '꼬이다'와 복수 표준어이다. 이는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어휘의 쌍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72	피보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피보'의 의미로 '%피바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보'를 표준어로 삼는다.
173	피쟁이			표준어 규정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피장이%'로 적지 않고 '피쟁이'로 적는다.
174	뀌다	03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뀌다'의 의미로 '%꾸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뀌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끼다%'는 방언이다.
175	끄나풀			표준어 규정	발음 변화에 따라 '%끄나불%' 대신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인 '끄나풀'을 표준어로 삼는다.
176	끄트머리			한글 맞춤법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따라서 '끝'에 접미사 '-으머리'가 붙어서 된 말인 '끄트머리'는 '%끝으머리%'로 적지 않는다.
177	끝장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끝장'의 의미로 '%막장%', '%종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끝장'을 표준어로 삼는다. 또한 '%끝당%'은 방언이다.
178	깁새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깁새'의 준말인 '%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깁새'를 표준어로 삼는다.
179	나날이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나날이'는 '날+날+-이'로 형성된 단어인데, 첫 부분 '날'의 받침 'ㄹ'이 그 다음에 오는 '날'과 어울릴 때 소리 나지 않아 '%날날이%'로 적지 않고 '나날이'로 적는다.
180	나루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나루'의 의미로 '%나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루'를 표준어로 삼는다. 또한 의미가

				<p>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p> <p>‘나루’의 의미로 ‘%물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루’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드리%’, ‘%나들%’, ‘%나리%’, ‘%나릿곳%’, ‘%날구%’, ‘%날%’, ‘%배까%’, ‘%배나드리%’, ‘%배머리%’, ‘%배사이%’, ‘%배소%’, ‘%뱃나들%’, ‘%재비탄%’은 ‘나루’의 방언이다.</p>
181	나룻배		한글 맞춤법	<p>‘나룻배’는 명사 ‘나루’와 ‘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나루뻤/나룬뻤]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나룻배’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루배%’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p>
182	나머지		표준어 규정	<p>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공납%’, ‘%나무지%’, ‘%나토리%’, ‘%남거지%’, ‘%남저지%’, ‘%남조지%’, ‘%남지기%’, ‘%남거지%’, ‘%냉거지%’는 모두 ‘나머지’의 방언이므로 ‘나머지’를 표준어로 삼는다.</p>
183	나무꾼		한글 맞춤법	<p>‘나무꾼’의 표기를 ‘%나뭇꾼%’, ‘%나뭇꾼%’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는 ‘-꾼’으로 통일하였으므로 ‘나무꾼’이라고 적는다. 또한 ‘-꾼’이 된소리이므로 사이시옷을 쓸 필요가 없다. 사이시옷은 뒷말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어 날 때 그것을 표시해주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뒷말이 원래 된소리인 ‘나무+꾼’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무꾼’이라고 써야 한다.</p>
184	나무때기		한글 맞춤법	<p>‘나무때기’를 ‘%나뭇대기%’, ‘%나무대기%’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나무때기’는 명사 ‘나무’에 접미사 ‘-때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때기’가 된소리이므로 사이시옷을 쓸 필요가 없다. 사이시옷은 뒷말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어 날 때 그것을 표시해주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뒷말이 원래 된소리인 ‘나무+때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무때기’라고 써야 한다.</p>
185	나무라다		표준어 규정	<p>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것은 그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무래다%’가 ‘나무라다’로 발음이 바뀌어 굳어졌으므로 ‘나무라다’로 적는다.</p>
186	나뭇가지		한글 맞춤법	<p>‘나뭇가지’는 명사 ‘나무’와 ‘가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나무까지/나뭇까지]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p>

					받쳐 '나뭇가지'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무가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87	나뭇갓			한글 맞춤법	'나뭇갓'은 명사 '나무'와 '갓'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나무깁/나뭇깁]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나뭇갓'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무갓%'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88	나뭇잎			한글 맞춤법	'나뭇잎'은 명사 '나무'와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나뭇닙]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나뭇잎'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무잎%'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89	나부랭이			표준어 규정	'나부랭이'를 '%나부랑이%'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앞에서 '랑'이 '랭'으로 바뀌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부랭이'는 예외이므로 '%나부랑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나부랭이'의 의미로 '%나부라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부랭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나부래기%'는 방언이다.
190	나열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라'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로 적는다. 따라서 '%라열%'이 아닌 '나열'로 적는다.
191	나이배기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나이배기'의 의미로 '%나이박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이배기'를 표준어로 삼는다.
192	나팔꽃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나팔꽃'의 의미로 '%나발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팔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개지꽃%'은 방언이다.
193	나흘날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이 짝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나흘'이 '날'과 어울릴 적에 '%나흘날%'이 아니라 '나흘날'로 소리 나므로 '%나흘날%'로 적지 않고 '나흘날'로 적는다.
194	낙뢰			한글 맞춤법	한자음 '락'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낙’으로 적는다. 따라서 ‘%락뢰%’가 아닌 ‘낙뢰’로 적는다.
195	낙원			한글 맞춤법	한자음 ‘락’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낙’으로 적는다. 따라서 ‘%락원%’이 아닌 ‘낙원’으로 적는다.
196	낙인찍다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낙인찍다’의 의미로 ‘%낙하다%’, ‘%낙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낙인찍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197	낙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락’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낙’으로 적는다. 따라서 ‘%락지%’가 아닌 ‘낙지’로 적는다.
198	낙시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낙시’는 ‘낙다’의 어간 ‘낙-’에 접미사 ‘-시’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므로 ‘%낙시%’로 적지 않고 ‘낙시’로 적는다.
199	낙시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접사는 ‘-꾼’이므로 ‘%낙시꾼%’으로 적지 않고 ‘낙시꾼’으로 적는다.
200	낙싯봉			한글 맞춤법	‘낙싯봉’은 명사 ‘낙시’와 ‘봉’으로 된 합성어로서 [낙씨뽕/낙싯뽕]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낙싯봉’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낙시봉%’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201	낙이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낙다’의 어간 ‘낙-’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나끼다]로 소리 나더라도 ‘%나끼다%’로 적지 않고 ‘낙이다’로 적는다.
202	난	06		표준어 규정	한자음 ‘란’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난’으로 적는다. 따라서 ‘아름다운 난’처럼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란’으로 적으므로 ‘금자란’, ‘문주란’, ‘은란’으로 적는다. ‘%금자난%’, ‘%문주난%’, ‘%은난%’으로 적지 않는다.
203	난구	02		한글 맞춤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 따라서 ‘%난귀%’로 적지 않고 ‘난구’로 적는다.
204	난봉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접사는 ‘-꾼’이므로 ‘%난봉꾼%’으로 적지 않고 ‘난봉꾼’으로 적는다.
205	날가리			한글 맞춤법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날가리’는 곡식의 알 ‘날’과 곡식의 더미 ‘가리’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말로 각각 그 원형

					을 밝혀 ‘날가리’로 적고, ‘%나까리%’로 적지 않는다.
206	날라리	01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날라리’의 ‘날랄-’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날랄이%’로 적지 않고 ‘날라리’로 적는다. 또한 ‘날라리’의 의미로 ‘%날나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날라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207	남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남녀’로 적고 ‘%남여%’로 적지 않는다.
208	남부럽잖다		한글 맞춤법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때에는 준대로 적는다. ‘남부럽지않다’에서 ‘-지않-’이 줄어 ‘-잖-’이 된 것이므로 ‘남부럽잖다’로 적는다. ‘%남부럽잖다%’로 적지 않는다.
209	남존여비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기 때문에 ‘남녀’가 맞는 표기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남존녀비%’로 적지 않고 ‘남존여비’로 적는다.
210	납작하다	02	한글 맞춤법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그러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넓적하다’는 ‘넓다’에 ‘-적’과 ‘-하다’가 붙어서 ‘넓적하다’로 적는 것이나 ‘납작하다’는 ‘넓다’의 본뜻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으므로 ‘납작하다’로 적는다.
211	낭떠러지		한글 맞춤법		‘낭떠러지’를 ‘%낭떨어지%’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표기이다. ‘바가지’의 ‘-아지’처럼 ‘-이’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212	낭랑하다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랑’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낭’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낭랑하다’로 적는다. ‘%낭낭하다%’, ‘%랑랑하다%’, ‘%랑낭하다%’로 적지 않는다.
213	날날이		한글 맞춤법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날날이’가 [난!나치]로 소리 나더라도 ‘%날나치%’로 적지 않고 ‘날날이’로 적는다.
214	내기	05	표준어 규정		‘-내기’의 의미로 ‘%-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표준어이다. 따라서 ‘%서울나기%, %뜻나기%’ 등은 모두 비표준어이다.
215	내내월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래’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내’로 적고,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



					래'로 적는다. 그러나 '%내래월%'로 적지 않는 것은, '유유상종', '누누이'처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기 때문이다. 실제 발음이 같은 음절의 반복이므로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다.
216	내색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내색'의 의미로 '%나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내색'을 표준어로 삼는다.
217	내송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내송'의 의미로 '%내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내송'을 표준어로 삼는다.
218	내왕꾼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내왕꾼'의 의미로 '%냉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내왕꾼'을 표준어로 삼는다.
219	내일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래'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내'로 적는다. 따라서 '%래일%'로 적지 않고, '내일'로 적는다.
220	냄비			표준어 규정	'냄비'의 의미로 '%남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표준어이다.
221	넙뜨다			표준어 규정	'넙뜨다'의 의미로 '%넙더서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넙뜨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222	넷가			한글 맞춤법	'넷가'는 명사 '내'와 '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내:까/넙:까]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넷가'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내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223	넷물			한글 맞춤법	'넷물'은 명사 '내'와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넙: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넷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내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224	냉랭하다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랭'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냉'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랭랭하다%', '%냉랭하다%'로 적지 않고 '냉랭하다'로 적는다.
225	남남거리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남남거리다'의 의미로 '%암남거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남남거리다'를 표준어

					로 삼는다.
226	남남이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남남이’의 의미로 ‘%암남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남남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227	냥			한글 맞춤법	한자음 ‘냥’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양’으로 적지만, ‘냥’의 경우에는 ‘냐’ 음을 인정한다.
228	냥쫙			한글 맞춤법	한자음 ‘냥’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양’으로 적지만, ‘냥쫙’의 경우에는 ‘냐’ 음을 인정한다.
229	너	02		표준어 규정	‘너’가 ‘돈’, ‘말’, ‘밭’, ‘폰’ 등의 단위 명사와 어울려 사용될 때에는 ‘너’로만 적는다. ‘%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너 돈’, ‘너 말’, ‘너 폰’ 등이 더 널리 사용되므로 그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즉 ‘%네 돈%’, ‘%네 말%’, ‘%네 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냥’, ‘되’, ‘섬’, ‘자’와는 ‘%너 냥%’, ‘%너 되%’를 사용하지 않고 ‘넉 돈’, ‘넉 되’를 사용한다.
230	너머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동사 ‘넘다’의 어간 ‘넘-’에 ‘-어’가 붙어서 명사 ‘너머’가 되었으므로 ‘%넘어%’로 적지 않고 ‘너머’로 적는다.
231	너부렁이			표준어 규정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너부렁이’와 ‘나부랭이’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단 ‘%너부렁이%’는 표준어로 삼지 않는다.
232	너비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너비’는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라는 의미로 ‘범위나 크기’를 의미하는 ‘넓이’와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적는다.
233	너새	01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너새’의 의미로 ‘%괘와%’, ‘%동기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너새’를 표준어로 삼는다. ‘%능애%’는 방언이다.
234	넉			표준어 규정	‘넉’이 ‘냥’, ‘되’, ‘섬’, ‘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에는 ‘넉’으로만 적는다. ‘%너 냥%’, ‘%너 되%’, ‘%네 섬%’, ‘%네 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넉 냥’, ‘넉 되’를 사용한다. ‘네’, ‘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넉 냥’, ‘넉 되’, ‘넉 섬’, ‘넉 자’ 등이 더 널리 사용되므로 그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돈’, ‘말’, ‘밭’, ‘폰’ 등의 단

					위 명사와 어울려 사용될 때에는 ‘너’를 적는다. 즉 ‘%넉 돈%', ‘%넉 말%', ‘%넉 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235	넉두리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넉두리’의 의미로 ‘%넉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넉두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넉 사리%', ‘%넉상이%', ‘%서래%', ‘%에누다리%’는 방언이다.
236	넉따랗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어간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즉, ‘넉다’에 접미사 ‘-다랗다’가 붙었을 때, 어간 겹받침 ‘넉’의 끝소리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넉다랗다%’로 적지 않고 ‘넉따랗다’로 적는다.
237	넉찍하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어간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즉, ‘넉다’에 접미사 ‘-직하다’가 붙었을 때, 어간 겹받침 ‘넉’의 끝소리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넉직하다%’로 적지 않고 ‘넉찍하다’로 적는다.
238	넉판때기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넉판때기’의 의미로 ‘%넉판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넉판때기’를 표준어로 삼는다.
239	넉적하다			한글 맞춤법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 ‘넉적-’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단어가 되었으므로 ‘넉적하다’는 ‘%넉적하다%’로 적지 않는다.
240	넉죽하다			한글 맞춤법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 ‘넉죽-’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단어가 되었으므로 ‘넉죽하다’는 ‘%넉죽하다%’로 적지 않는다.
241	넉히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히-’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간을 밝혀 적는다. ‘넉다’에 ‘-히-’가 결합한 ‘넉히다’는 ‘%넉피다%', ‘%넉히다%’로 적지 않는다.
242	넉머지다			한글 맞춤법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넉머지다’는 ‘넉다’와 ‘지다’의 두 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고, 이 둘이 독립된 단어임이 분명하므로 ‘%넉머지다%’로 적지 않고 ‘넉머지다’로 적는다. 넉머지다의 의미로 ‘%구불머지다%', ‘%나려머지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방언이다.
243	넉치			한글 맞춤법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

					로 적는다. '넙치'는 '넙다'의 본뜻과 그 의미가 멀어졌으므로 '%넙치%'로 적지 않고 '넙치'로 적는다.
244	넙쿨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넙쿨'의 의미로 '%넙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넙쿨'만 표준어로 삼는다.
245	네	02		한글 맞춤법	'네'는 '자루', '컵', '마리', '개', '명', '시간'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인다. '돈', '말', '발', '푼', '냥', '되', '섬', '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즉 '%네 돈%', '%네 냥%', '%네 섬%' 등으로 쓰지 않는다. '돈', '말', '발', '푼' 등은 '너'와 어울리고, '냥', '되', '섬', '자'는 '넉'과 함께 쓴다.
246	네눈이			한글 맞춤법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네눈'에 '-이'가 붙어서 '네눈이'가 되었으므로 '%네누니%'로 적지 않고 '네눈이'로 적는다.
247	넷째			표준어 규정	'넷째'를 '%넷째%'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넷째'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248	년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년'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연'으로 적는다. '연'은 '한 해'를 의미하는 명사로 주로 다른 체언 앞에 쓰여 '연 강수량', '연 400%' 등에서처럼 쓰인다. 그러나 한자어 수 뒤에 쓰여 '해를 세는 단위'로 쓰일 때에는 '년'을 써서 '2000년', '팔 년' 등으로 적는다.
249	넉			표준어 규정	발음 변화에 따라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들이 있다. '넉'의 의미로 '%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넉'을 표준어로 삼는다.
250	노노법사			한글 맞춤법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는다. 또한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로로법사%'나 '%노로법사%'로 적지 않고 '노노법사'로 적는다.
251	노랑목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노랑목'의 의미로 '%노란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랑목'을 표준어로 삼는다.
252	노래지다			한글 맞춤법	'노래지다'는 '노랗다'와 '지다'가 어울려 만들어진 단어이다. '노랗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지므로 '노래'로 적는다. 여기에 '지다'가 결합하여 '노래지다'가 된다. '%노래지다%'로 적지 않는다.
253	노름	01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으나,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놀다'에 '-음'이 결합하여 된 명사 '노

					름'은 '도박'이라는 의미이므로 원래 동사의 의미 '놀다'와 그 의미가 멀어졌으므로 '%놀음%'으로 적지 않고 '노름'으로 적는다.
254	노름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접사는 '-꾼'이므로 '%노름꾼%'으로 적지 않고 '노름꾼'으로 적는다.
255	노인			한글 맞춤법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는다. 따라서 '%로인%'으로 적지 않고 '노인'으로 적는다.
256	녹록하다			한글 맞춤법	한자음 '록'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녹'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녹록하다'로 적는다. '%록록하다%', '%녹록하다%', '%록녹하다%'로 적지 않는다.
257	녹슬다			한글 맞춤법	'녹슬다'는 [녹쓸다]로 발음 나지만,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녹쓸다%'로 적지 않고 '녹슬다'로 적는다. 또한 '녹슬다'는 한 단어이므로 '%녹 슬다%'로 적지 않는다.
258	녹이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녹이다'의 의미로 '%녹히다%', '%뇌기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녹이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노쿠다%', '%녹쿠다%', '%뇌키다%'는 방언이다.
259	논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론'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논'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논란'으로 적는다. '%론란%', '%논난%'으로 적지 않는다.
260	놀놀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놀놀하다'의 발음은 [놀롤하다]이지만 '%놀롤하다%'로 적지 않고 '놀놀하다'로 적는다.
261	놀소리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놀소리'의 의미로 '%새살까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놀소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262	놀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으나,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놀다'에 '-음'이 결합하여 된 명사 '노름'은 '도박'이라는 의미이므로 원래 동사의 의미 '놀다'와 그 의미가 멀어졌으므로 '노름'으로 적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을 의미하는 '놀음'은 그 어간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놀음'으로 적는다.

263	농사꾼		한글 맞춤법	‘농사꾼’은 ‘농사’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접사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농사꾼’을 ‘%농삿꾼%’, ‘%농삿꾼%’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시옷은 원래 된소리가 아닌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받쳐 적는 것이므로, ‘농사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뒷말 ‘꾼’이 원래 된소리이기 때문이다.
264	농지거리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농지거리’의 의미로 ‘%기롱지거리%’, ‘%농지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지거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265	높다랗다		한글 맞춤법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높다랗다’는 ‘높다’의 어간 ‘높-’에 ‘-다랗다’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높따랗다%’로 적지 않고 ‘높다랗다’로 적는다.
266	농치다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농치다’의 의미로 ‘%농뜨리다%’, ‘%농아프리다%’, ‘%농트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치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한편 ‘%놔빼리다%’, ‘%놔빼지다%’, ‘%떨치다%’, ‘%떨키다%’, ‘%뜯키다%’, ‘%철리다%’는 ‘농치다’의 방언이다.
267	뇌성		한글 맞춤법	한자음 ‘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뇌’로 적는다. 따라서 ‘%뢰성%’으로 적지 않고 ‘뇌성’으로 적는다.
268	누각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루’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누’로 적는다. 따라서 ‘%루각%’으로 적지 않고 ‘누각’으로 적는다. 단,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대로 적으므로 ‘%경회루%’, ‘%광한루%’ 등으로 적는다.
269	누더기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누더기’는 ‘%누덕하다%’, ‘%누덕거리다%’로 적을 수 없으므로 ‘%누덕이%’로 적지 않고 ‘누더기’로 적는다.
270	누룽지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누룽지’의 의미로 ‘%가매치%’, ‘%누룽밥%’, ‘%누른갱이%’, ‘%물누룽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누룽지’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매끓이%’, ‘%강개%’, ‘%누룽개%’, ‘%누룽갱이%’ 등은 방언이다.
271	눅눅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눅룩하다%’, ‘%눅눅하다%’로 적

					지 않고 ‘눅눅하다’로 적는다.
272	눅이다			한글 맞춤법	용언 어간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간을 밝혀 적는다. ‘눅이다’는 동사 ‘눅다’의 ‘눅-’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누기다%’로 적지 않고 ‘눅이다’로 적는다.
273	눈깜짝이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눈깜짝이’는 ‘깜짝하다’, ‘깜짝거리다’의 어근 ‘깜짝’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눈깜짜기%’로 적지 않고 ‘눈깜짝이’로 적는다.
274	눈눈이			한글 맞춤법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눈눈이’는 ‘눈’, ‘눈’과 ‘-이’가 어울려서 부사가 된 말이므로 [눈누니]로 소리 나더라도 ‘%눈누니%’로 적지 않고 ‘눈눈이’로 적는다.
275	눈대중			한글 맞춤법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눈대중’은 ‘눈’과 ‘대중’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말로 [눈때중]으로 발음 나지만 ‘%눈때중%’으로 적지 않고 ‘눈대중’으로 적는다.
276	느리다			한글 맞춤법	‘느리다’, ‘늘이다’, ‘늘리다’는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느리다’는 ‘시간이 더 걸리다’, ‘늘이다’는 ‘길게 하다’, ‘늘리다’는 ‘수나 분량이 더 많아 지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진도가 느리다’, ‘고무줄을 늘이다’, ‘수출량을 늘리다’로 사용한다.
277	늘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늘’의 의미로 ‘%느루%’, ‘%늘상%’, ‘%늘쌍%’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늘’을 표준어로 삼는다. ‘%느량%’은 방언이다.
278	늘그막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어간 ‘늘-’에 ‘-으막’이 결합한 말이므로 ‘늘그막’처럼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눔으막%’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279	늘리다			한글 맞춤법	‘늘리다’, ‘늘이다’, ‘느리다’는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늘리다’는 ‘수나 분량이 더 많아 지다’, ‘늘이다’는 ‘길게 하다’, ‘느리다’는 ‘시간이 더 걸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출량을 늘리다’, ‘진도가 느리다’, ‘고무줄을 늘이다’로 사용한다.
280	늘이다	01		한글 맞춤법	‘늘리다’, ‘늘이다’, ‘느리다’는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늘리다’는 ‘수나 분량이 더 많아 지다’, ‘늘이다’는 ‘길게 하다’, ‘느리다’는 ‘시간이 더 걸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출량을 늘리다’, ‘진도가 느리다’, ‘고무줄을 늘이다’로 사용한다.

281	늪다리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늪다리’의 의미로 ‘%노닥다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늪다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282	늪수그레하다			한글 맞춤법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늪다’의 어간 ‘늪-’에 ‘-수그레하다’가 붙어서 된 말은 ‘%늪수그레하다%’로 적지 않고 ‘늪수그레하다’로 적는다.
283	늪정어			한글 맞춤법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늪다’의 어간 ‘늪-’에 ‘-정어’가 붙어서 된 말은 ‘%늪정어%’로 적지 않고 ‘늪정어’로 적는다.
284	늪름하다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름’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늪’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늪름하다’로 적는다. ‘%늪늪하다%’, ‘%름름하다%’로 적지 않는다.
285	늪묘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름’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늪’으로 적는다. 따라서 ‘늪묘’는 ‘%름묘%’로 적지 않고 ‘늪묘’로 적는다.
286	닐리리			한글 맞춤법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 따라서 ‘닐리리’는 [닐리리]로 소리 나지만 ‘%닐리리%’, ‘%닐니리%’, ‘%릴리리%’로 적지 않고 ‘닐리리’로 적는다.
287	닝کم			한글 맞춤법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 따라서 ‘닝کم’은 [닝کم]으로 소리 나지만 ‘%닝کم%’로 적지 않고 ‘닝کم’으로 적는다.
288	다달이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달달이%’로 적지 않고 ‘다달이’로 적는다.
289	다리다	01		한글 맞춤법	‘다리다’와 ‘달이다’는 발음이 같아 흔히 혼동해서 쓰기 쉬운 말로 그 뜻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다리다’는 ‘다리로 문지르다’의 뜻을 나타내고, ‘달이다’는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제에 물을 부어 끓게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290	다사스럽다			표준어 규정	‘다사스럽다’는 표준어이고 ‘%다사하다%’는 잘못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이 큰 ‘다사스럽다’를 표준어로 삼고 ‘%다사하다%’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291	단구	05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따라서 ‘단구’가



					올바른 표기이고 ‘%단귀%’는 잘못된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는 ‘문구(文句)’, ‘시구(詩句)’, ‘인용구(引用句)’ 등이 있다.
292	단명구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따라서 ‘단명구’가 올바른 표기이고 ‘%단명귀%’는 잘못된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는 ‘문구(文句)’, ‘시구(詩句)’, ‘인용구(引用句)’ 등이 있다.
293	단별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홀별%’은 버리고 ‘단별’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294	달치다			한글 맞춤법	‘달치다’, ‘다치다’, ‘달히다’는 발음이 비슷하여 흔히 혼동해서 쓰기 쉬운 말로 그 뜻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달치다’는 ‘달다’의 강세어로 ‘문을 달치다’와 같이 쓰인다. ‘다치다’는 ‘부딪쳐서 상하다’, ‘부상을 입다’란 뜻을 나타내며, ‘달히다’는 ‘달다’의 피동사로 ‘달아지다’와 대응하는 말이다.
295	달히다			한글 맞춤법	‘달히다’, ‘다치다’, ‘달치다’는 발음이 비슷하여 흔히 혼동해서 쓰기 쉬운 말로 그 뜻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달히다’는 ‘달다’의 피동사로 ‘달아지다’와 대응하는 말이며 ‘다치다’는 ‘부딪쳐서 상하다’, ‘부상을 입다’란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달치다’는 ‘달다’의 강세어로 ‘문을 달치다’와 같이 쓰인다.
296	달이다			한글 맞춤법	‘달이다’와 ‘다리다’는 발음이 같아 흔히 혼동해서 쓰기 쉬운 말로 그 뜻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달이다’는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제에 물을 부어 끓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다리다’는 ‘다리미로 문지르다’의 뜻을 나타낸다.
297	담뱃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즉 경음화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인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ㄴ, ㄹ, ㄹ, ㄹ,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날 때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담뱃’을 ‘%담복%’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298	담쑥			표준어 규정	‘담쑥’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담쑥’만 표준어로 삼는다. 음성 모음 형태인 ‘%담쑹%’은 잘못된 표기이다.
299	담쟁이덩굴			표준어 규정	기술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유기장이’, ‘소금쟁이’ 등이 각각 그 예이다. 따라서 ‘포도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를 뜻하는 경우에는 ‘%담장이덩굴%’이 아닌 ‘담쟁이덩굴’을 표준어로 삼는다.

300	당뇨			한글 맞춤법	한자음 ‘뇨’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요’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당뇨’로 적는다. ‘%당요%’로 적지 않는다.
301	대갈빼기			한글 맞춤법	‘대갈빼기’는 [대갈빼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된소리 ‘-빼기’로 적는다. 즉, ‘%대갈배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빼기’와 ‘-배기’는 혼동될 수 있는 접미사인데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빼기’로 적고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302	대구	05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따라서 ‘대구’가 올바른 표기이고 ‘%대귀%’는 잘못된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는 ‘문구(文句)’, ‘시구(詩句)’, ‘인용구(引用句)’ 등이 있다.
303	대구법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따라서 ‘대구법’이 올바른 표기이고 ‘%대귀법%’은 잘못된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는 ‘문구(文句)’, ‘시구(詩句)’, ‘인용구(引用句)’ 등이 있다.
304	대뿔이			한글 맞춤법	‘대뿔이’의 ‘뿔이’는 ‘뿔다’의 동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인데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대뿔이’는 ‘%대뿔히%’나 ‘%대뿔리%’가 아니라 ‘대뿔이’로 적는다.
305	대장일			표준어 규정	‘대장일’이 표준어이고 ‘%성냥일%’은 잘못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이 큰 ‘대장일’을 표준어로 삼고 ‘%성냥일%’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306	대접무늬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유어인 ‘대접무늬’를 표준어로 삼는다. 한자어 계열인 ‘%대접문%(--紋)’은 비표준어이다.
307	대짜배기			한글 맞춤법	‘대짜배기’는 [대짜배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대짜배기’로 적는다. ‘%대짜빼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빼기’와 ‘-배기’는 혼동될 수 있는 접미사인데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빼기’로 적고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308	댁내			한글 맞춤법	한자어 ‘宅’의 본음은 ‘택’이고 속음은 ‘댁’인데, ‘자택(自宅)’은 본음대로 발음하고 ‘댁내(宅內)’, ‘본댁(本宅)’, ‘시댁(媳宅)’ 등에서 ‘宅’은 속음 ‘댁’으로 발음한다. 속음은 세속에서 널리 사용되는 익은소리(습관음)인데, 한

					자어에서 본음으로도 소리 나고 속음으로도 소리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309	땡싸리			한글 맞춤법	'땡싸리'를 '%대싸리%'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싸리'는 '좁쌀'의 '쌀'처럼 단어의 첫 머리에 'ㅂ'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땡싸리'로 적는다.
310	땡가지			한글 맞춤법	'땡가지'는 명사 '대'와 '가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대까지/땡까지]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땡가지'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가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11	땡개비			한글 맞춤법	'땡개비'는 명사 '대'와 '개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대깨비/땡깨비]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땡개비'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개비%'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12	땡돌			한글 맞춤법	'땡돌'은 명사 '대'와 '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대뿔/땡뿔]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땡돌'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돌%'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13	땡잎			한글 맞춤법	'땡잎'은 명사 '대'와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땡닙]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땡잎'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잎%'으로 적는 것을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14	더듬이	02		한글 맞춤법	'더듬이'는 '더듬다'의 동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인데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더드미%’가 아니라 ‘더듬이’로 적는다.
315	더부룩하다	02		표준어 규정	'더부룩하다'와 ‘%더뿌룩하다%’, ‘%듬뿌룩하다%’처럼 비슷한 발음의 형태가 몇 가지로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더부룩하다’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16	더욱이			한글 맞춤법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더

					우기%'가 아닌 '더욱이'로 적는다.
317	-던	02	한글 맞춤법		'-던'은 어미 '-더-'에서 나온 것으로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다'의 의미인 '-든'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내가 어제 먹었던 빵',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와 같이 쓴다.
318	-던가		한글 맞춤법		'-던가'는 지난 사실을 돌이켜 서술하여,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이러한 뜻으로 '-든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든가'는 '-던가'와 의미가 다르다. '-던가'는 지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철수가 많이 아프던가?" 등과 같이 쓴다. '-든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주로 '-든가 -든가' 구성으로 쓰여 "떡을 먹든가 빵을 먹든가 내가 알아서 해라." 등과 같이 쓴다.
319	-던걸		한글 맞춤법		'-던걸'은 지난 사실을 돌이켜 서술하여,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어미로 "철수가 많이 아프던걸." 등과 같이 쓴다. 이러한 뜻으로 '-%든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든걸%'은 틀린 표기이다.
320	-던고		한글 맞춤법		'-던고'는 지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철수가 많이 아프던고?" 등과 같이 쓴다. 이러한 뜻으로 '-%든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든고%'는 틀린 표기이다.
321	-던데		한글 맞춤법		'-던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있는 과거 사실을 회상하여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철수가 많이 아프던데 병문안 갔니?" 등과 같이 쓴다. 이러한 뜻으로 '-%든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든데%'는 틀린 표기이다.
322	-던지		한글 맞춤법		'-던지'는 지난 사실을 돌이켜 서술하여, 문장을 이어주거나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이러한 뜻으로 '-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든지'는 '-던지'와 의미가 다르다. '-던지'는 지난 사실을 돌이켜 서술하여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쏙 빠졌다." 등과 같이 쓴다.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주로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여 "남은 건 먹든지 버리든지 내가 알아서 해라." 등과 같이 쓴다.
323	덧니		한글 맞춤법		'이[齒]'가 합성어를 이루거나 다른 단어와 어울릴 때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면 '니'로 표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접두사 '덧-'과 명사 '이'가 결합한 단어는 '%덧

					이%'가 아닌 '덧니'가 올바른 표기이다.
324	덧신			한글 맞춤법	'덧신'이 표준어이고 '%덧구두%'는 잘못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세력이 큰 '덧신'을 표준어로 삼고 '%덧구두%'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325	덧저고리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덧저고리'는 '%덜저고리%'로 적지 않고 '덧저고리'로 적어야 한다.
326	덜치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치-', '-뜨리-/-트리-'의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덜치다'로 적는다. '덜치다'는 '덜다'의 어간 '덜-'에 접미사 '-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327	도르래	01		표준어 규정	'도르래'와 같은 의미로 '%도르래미%'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도르래'와 '%도르래미%'처럼 비슷한 발음의 형태가 몇 가지로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28	도리깨열			한글 맞춤법	'도리깨열'은 명사 '도리깨'와 '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도리깨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도리깨열'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리깨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29	도리깨장부			한글 맞춤법	'도리깨장부'는 명사 '도리깨'와 '장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도리깨장부/도리깨장부]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도리깨장부'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리깨장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30	도리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이-', '-히-', '-우-'의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돌이다%'가 아니라 '도리다'로 적는다.
331	도망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는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따라서 '피하거나 쫓기어 몰래 달아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도망꾼%'이 아닌 '도망꾼'으로 적어야 한다.
332	독자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란'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난'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

					에는 본음에 따라 '독자란'으로 적는다. '%독자난%'으로 적지 않는다.
333	돌구다	01	한글 맞춤법		'돌구다'는 '돌우다'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돌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만 사용되므로 '(입맛을) 돌우다', '(목청을) 돌우다'는 '돌우다'로 써야 한다.
334	돌보기		표준어 규정		'돌보기'는 '돌보기안경'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335	돌보기안경		표준어 규정		'돌보기안경'은 '돌보기'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336	돌보다		한글 맞춤법		'돌보다'는 '도두보다'에서 온 말이므로 '%돛보다%'가 아닌 '돌보다'로 적는다.
337	돌우다		한글 맞춤법		'돌우다'는 동사 '돌다'와 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도두다]로 소리 나지만 '%도두다%'로 적지 않는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우-'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돌우다'는 '돌구다'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돌우다'는 '(입맛을) 돌우다', '(목청을) 돌우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돌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338	돌	01	표준어 규정		'돌'이 표준어이고 '%돛%'은 표준어가 아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39	돌개바람		표준어 규정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통틀어 이룰 때 '돌개바람'은 '구풍'과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이다. 또한 갑자기 생긴 저기압 주변으로 한꺼번에 모여든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선회(旋回) 운동을 가리킬 때 '돌개바람'은 '회오리바람'과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이다.
340	돌림자		표준어 규정		'돌림자'는 '항렬자'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341	돌미륵		표준어 규정		'돌미륵'은 '%돌미력%'으로 쓰기도 하지만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돌미력%'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난다.
342	돌아가다		한글 맞춤법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단어로, [도라가다]로 소리 나지만 '%도라가다%'로 적지 않는다. 이는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

					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43	돌이키다			한글 맞춤법	'돌이키다'는 동사 '돌다'와 접미사 '-이키-'가 결합한 단어로, [도리키다]로 소리 나지만 '%도리키다%'로 적지 않는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으키-'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44	똥		○	표준어 규정	'%똥%'은 비표준어이고 '똥'이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45	똥	02	○	표준어 규정	'%똥%'은 '똥'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똥'이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똥%'은 비표준어이다.
346	똥자리			한글 맞춤법	'똥자리'는 명사 '똥'과 '자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똥자리]로 소리 난다.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똥자리%'가 아닌 '똥자리'로 적어야 한다. '똥자리'의 준말인 '%똥%'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똥자리'가 널리 쓰이므로 '똥자리'만이 표준어이다. 다만 합성의 '똥바늘', '똥틀'과 같은 말에서는 '똥'을 쓴다.
347	동강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이 모두 널리 쓰이면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동강'과 '동강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348	동강이			표준어 규정	동강이'의 준말인 '동강'도 널리 쓰이므로 '동강이'와 '동강'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349	동그라미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따라서 '동그라미'가 올바른 표기이고 '%동글아미%'는 잘못된 표기이다.
350	동냥중			표준어 규정	'동냥중'은 '재미중'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351	동넙			표준어 규정	동넙'은 [동녀키], [동녀케]로 소리 난다.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동넙%'이 아닌 '동넙'이 표준어이다.
352	동당이치다		○	표준어 규정	'%동당이치다%'는 비표준어이고 '동당이치다'가 표준어이다.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동화의 형태가 이미 굳어진 것은 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353	동당이치다			표준어 규정	'동당이치다'만 표준어이고 '%동당이치다%'는 비표준어이다.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동화의 형태가 이미 굳어진 것은 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354	동동걸음			표준어 규정	'동동걸음'과 '종종걸음'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55	-동이	04	O	표준어 규정	'%-동이%'는 '아이'를 뜻하는 '-동이'에서 기원했으나 그 뜻이 '아이'에서 '사람'으로 의미가 변하였고,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동이'가 표준어이고 '%-동이%'는 비표준어이다.
356	동자기둥			표준어 규정	'동자기둥'과 '쪼구미'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57	동자보살			표준어 규정	'동자보살'과 '동자부처'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58	동자부처	01		표준어 규정	'동자부처'와 '동자보살'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59	동파	01	O	표준어 규정	'%동파%'는 비표준어이고 '움파'가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60	뚫대			표준어 규정	'뚫대'가 표준어이고 '%짐대%'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61	돼지감자			표준어 규정	'돼지감자'와 '똥판지'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62	되게			표준어 규정	'되게', '되우', '된통'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셋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63	되우			표준어 규정	'되우', '되게', '된통'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셋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64	되짚어가다			한글 맞춤법	'되짚어가다'는 '되짚다'와 '가다'가 결합한 단어로,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365	된통			표준어 규정	'된통', '되게', '되우'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셋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66	두견새			표준어 규정	'두견새'와 '두견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67	두견이			표준어 규정	'두견이'와 '두견새'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68	두껍달이			표준어 규정	'두껍달이'가 표준어이고 '%거푸집%', '%두껍미달이%', '%두껍창%'은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69	두껍창		O	표준어 규정	'%두껍창%'은 비표준어이고 '두껍달이'가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



					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70	두동무니			표준어 규정	'두동무니'와 '두동사니'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71	두동사니			표준어 규정	'두동사니'와 '두동무니'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72	두드러기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따라서 '두드러기'가 올바른 표기이고 '%두드러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373	두렛일			한글 맞춤법	'두렛일'은 '두레'와 '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두렌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두렛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두레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74	두루마리			한글 맞춤법	'두루마리'는 '두루말-'과 '-이'가 결합한 말이다.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두루마리'는 '둥글게 만 '종이'라는 뜻으로 어간의 본뜻인 '두루말다'의 의미와 멀어졌으므로 '두루마리'로 적는다. 언어 현실에서 '%두루말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375	두벌갈이			표준어 규정	'두벌갈이'와 '앞뒤갈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76	두째		O	표준어 규정	'%두째%'는 비표준어이고 '둘째'가 표준어이다. 다만 십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는 '열두째', '스물두째'와 같이 표기한다.
377	두텁단자		O	표준어 규정	'%두텁단자%'는 비표준어이고 '두텁떡'이 표준어이다. 한자어 계열의 단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78	두텁떡			표준어 규정	'두텁떡'이 표준어이고 '%두텁단자%'는 비표준어이다. 한자어 계열의 단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79	둘러쓰다			표준어 규정	'둘러쓰다'와 '뒤집어쓰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80	둘째			표준어 규정	'둘째'가 표준어이고 '두째'는 비표준어이다. 다만 십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는 '열두째', '스물두째'와 같이 표기한다.
381	둥근파		O	표준어 규정	'양파'가 표준어이고 '%둥근파%'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82	둥이			표준어 규정	'-둥이'는 '-둥이'에서 기원했으나 '-둥이'만 표준어이다. 이는 '-둥이'의 의미가 '아이'에서 '사람'으로 변하였고,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83	뒤뒤			표준어 규정	'뒤뒤'와 '드레드레'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84	뿡박		○	표준어 규정	'%뿡박%'과 '뒤옹박' 가운데 준말 '%뿡박%'은 잘 쓰이지 않고 본말 '뒤옹박'이 널리 쓰이므로 '뒤옹박'만이 표준어이다.
385	뒤꼭지치다		○	표준어 규정	'뒤통수치다'가 표준어이고 '%뒤꼭지치다%'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86	뒤꿈치			한글 맞춤법	'뒤꿈치'는 접미사 '-굵치'와 '-꿈치' 중 '-꿈치'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뒷굵치%'가 아닌 '뒤꿈치'로 적는다.
387	뒤대패			표준어 규정	'뒤대패'와 '흑대패'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88	뒤뜰			표준어 규정	'뒤뜰'이 표준어이고 '%뒷곶%', '%뒤안%'은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89	뒤보다	01		표준어 규정	'뒤보다'와 '대변보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90	뒤어나다		○	표준어 규정	'%뒤어나다%'는 비표준어이고 '뒤져내다'는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91	뒤옹박			표준어 규정	'뒤옹박'과 '%뿡박%' 가운데 본말 '뒤옹박'은 널리 쓰이고 준말 '%뿡박%'은 잘 쓰이지 않으므로 '뒤옹박'만이 표준어이다.
392	뒤적이다			한글 맞춤법	'뒤적이다'는 [뒤저기다]로 소리 나지만 '%뒤저기다%'로 적지 않는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393	뒤져내다			표준어 규정	'뒤져내다'가 표준어이고 '%뒤어나다%'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94	뒤집어쓰다			표준어 규정	'뒤집어쓰다'와 '둘러쓰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95	뒤척이다			한글 맞춤법	'뒤척이다'는 '뒤척'에 '-이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뒤쳐기다]로 소리 나지만 '%뒤쳐기다%'로 적지 않는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396	뒤통수			표준어 규정	'뒤통수'는 명사 '뒤'와 '통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뒤:통수]로 소리 나므로 '%뒷통수%'가 아닌 '뒤통수'로 적는다.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만 적는다. '뒤통수'

					'와 '뒷골'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397	뒤통수치다			표준어 규정	'뒤통수치다'는 명사 '뒤'와 '통수', 동사 '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뒤:통수치다]로 소리 나므로 '뒤통수치다'로 적는다.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만 적는다. 따라서 '%뒷통수치다%'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뒤통수치다'가 표준어이고 '%뒤꼭지치다%'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398	뒷갈망			한글 맞춤법	'뒷갈망'은 명사 '뒤'와 '갈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뒤:갈망/뒤편:갈망]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뒷갈망'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갈망%'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뒷갈망'을 언어 현실에서 '뒷감당', '%뒷갈무리%'로 쓰기도 한다. 의미가 같은 형태 중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므로 '뒷감당'만 표준어로 인정한다.
399	뒷감당			표준어 규정	'뒷감당'과 '뒷갈망'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00	뒷개	02	○	표준어 규정	'설거지'가 표준어이고 '%뒷개%'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01	뒷결박			표준어 규정	'뒷결박'은 명사 '뒤'와 '결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뒤:결박/뒤편:결박]으로 소리 나므로 '뒷결박'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결박%'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뒷결박'과 '뒷짐결박'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02	뒷골			표준어 규정	'뒷골'과 '뒤통수'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03	뒷날			표준어 규정	'뒷날'과 '훗날'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04	뒷대야		○	표준어 규정	'%뒷대야%'는 비표준어이고 '뒷물대야'가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05	뒷마당			표준어 규정	'뒷마당'과 '뒤뜰'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06	뒷말	01		표준어 규정	'뒷말'과 '뒷소리'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07	뒷머리			한글 맞춤법	'뒷머리'는 명사 '뒤'와 '머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로, [된:머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뒷머리'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머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08	뒷물대야			표준어 규정	'뒷물대야'가 표준어이고 '%뒷대야%'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09	뒷발톱		○	표준어 규정	'%뒷발톱%'은 비표준어이고 '머느리발톱'이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10	뒷소리			표준어 규정	뒷소리와 '뒷말'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11	뒷옷			한글 맞춤법	뒷옷'은 명사 '뒤'와 '옷'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된:늬]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뒷옷'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옷%'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12	뒷일		01	한글 맞춤법	뒷일'은 명사 '뒤'와 '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된: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뒷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일%'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뒷일'과 '훗일'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13	뒷입맛			한글 맞춤법	뒷입맛'은 명사 '뒤'와 '입맛'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된:님만]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뒷입맛'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입맛%'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14	뒷전놀다			표준어 규정	뒷전놀다'와 '뒷전보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15	뒷전보다			표준어 규정	뒷전보다'와 '뒷전놀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16	뒷짐결박			표준어 규정	뒷짐결박'과 '뒷결박'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17	드러나다			한글 맞춤법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드러나다'의 의미는 본뜻인 '들다'에서 멀어졌으므로 '드러나다'로 적는다. '%들어나다%'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18	드레드레	02		표준어 규정	드레드레'와 '뒤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19	드문드문			표준어 규정	드문드문'과 '뜨문뜨문'은 복수 표준어이다. 의미는 같고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둘 다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420	-든	03	O	한글 맞춤법	회상'의 의미는 '-던'이 올바른 표기이고 '%-든%'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든'은 '-든지'의 줄임말로,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지닌다.
421	-든가	03	O	한글 맞춤법	지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던가'가 올바른 표기이고 '%-든가%'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든가'는 연결어미로,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우가 모임에 왔던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네가 알아서 해라."와 같이 쓸 수 있다.
422	-든걸		O	한글 맞춤법	화자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던걸'이 올바른 표기이고 '%-든걸%'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던걸'은 '회상'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 '-더-'와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ㄴ걸'이 결합한 단어이다.
423	-든고		O	한글 맞춤법	지난 일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던고'가 올바른 표기이고 '%-든고%'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던고'는 '회상'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 '-더-'와 현재 사실에 대한 물음을 예스럽게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ㄴ고'가 결합한 단어이다.
424	-든데		O	한글 맞춤법	이어질 말을 하기 전에 과거 사실을 회상하여 서술하는 연결 어미는 '-던데'가 올바른 표기이고 '%-든데%'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던데'의 '-더-'는 '회상'의 의미를 가지며 '-ㄴ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언급할 때, 그와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던데'는 과거의 일을 감탄하는 뜻을 나타낼 때 종결 어미로도 사용한다.
425	-든지	03	O	한글 맞춤법	지난 사실을 돌이켜 서술하여 문장을 이어주거나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어미는 '-던지'가 올바른 표기이고 '-든지'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던지'는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든지'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이 다 났다.", "도서관에 가든지 카페

					에 가든지 네가 좋을 대로 하자."와 같이 쓸 수 있다.
426	듣그럽다			표준어 규정	듣그럽다'와 '시끄럽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27	들넉			표준어 규정	거센소리를 가진 '넉'의 의미로 '%넉%'을 쓰는 경우가 있느냐 '넉'만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들넉'이 올바른 표기이고, '%들넉%'은 잘못된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 '동넉', '새벽넉' 등이 있다.
428	들락거리다			표준어 규정	들락거리다'와 '들랑거리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29	들락날락			표준어 규정	들락날락'과 같은 의미로 쓰는 말로 '들랑날랑'이 있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고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들락날락'과 '들랑날랑'은 모두 표준어이다. 하지만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기 때문에 '%날락들락%'은 비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오락가락', '취락퍼락' 등이 있다.
430	들랑거리다			표준어 규정	'들랑거리다'는 '들락거리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31	들랑날랑			표준어 규정	'들랑날랑'은 '들락날락'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32	들먹이다			한글 맞춤법	들먹이다'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성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들머기다%'가 아닌 '들먹이다'로 적는다.
433	들썉이다			한글 맞춤법	들썉이다'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성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들써기다%'가 아닌 '들썉이다'로 적는다.
434	들쭉날쭉			표준어 규정	들쭉날쭉'은 '들쭉날쭉'과 의미가 동일한데,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35	들어가다	01		한글 맞춤법	들어가다'는 동사 '들다'와 '가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드러가다]로 소리 나지만 원형을 밝혀 '들어가다'로 적는다. 이는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드러가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

					다.
436	들이다			한글 맞춤법	'들이다'는 '들다'의 사동사이므로 '%드리다%'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기-, -리-, -이-, -히-, -구-, -우-, -추-' 등의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으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437	들쭉날쭉			표준어 규정	들쭉날쭉'과 '들쭉날쭉'은 복수 표준어이다. 의미는 같고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둘 다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438	들추다			표준어 규정	(잘못을) 들추다'의 의미로는 '들추다'가 표준어이고 '%들치다%'는 비표준어이다. '물건의 한쪽 끝을 쳐들다'의 의미를 가지는 '들치다'와 구분해야 한다.
439	들치다			표준어 규정	(천막을) 들치다'의 의미로는 '들치다'가 표준어이고 '%들추다%'는 비표준어이다. '잘못이나 결점 등 가리고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들추다'와 구분해야 한다.
440	듬뿍룩하다		○	표준어 규정	%듬뿍룩하다%'는 '더부룩하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더부룩하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듬뿍룩하다%'는 비표준어이다.
441	듬뿍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듬북%'이 아닌 '듬뿍'으로 적는다.
442	등경걸이		○	표준어 규정	등잔걸이'가 표준어이고 '%등경걸이%', '%등꽃이%'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43	등나무	01		표준어 규정	등나무'의 의미로 쓰이는 '%등침%'은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44	등때기			한글 맞춤법	등때기'는 '등'과 '비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 '-때기'가 결합한 말이다. 접미사 '-때기'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등때기'가 올바른 표기이고 '%등대기%'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등때기'가 표준어이고 '%등떠리%'는 비표준어이다.
445	등떠리		○	표준어 규정	%등떠리%'는 비표준어이고 '등때기'가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46	등용문			한글 맞춤법	한자음 '룡'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용'으로 적는다. '등용문'에서는 '용'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등용문'은 '용문'에 '등-'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등룡문%'으로 적지 않는다.
447	등잔걸이			표준어 규정	'등잔걸이'는 표준어이고 '%등경걸이%'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48	등침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등나무'의 뜻으로 '%등침%'은 비표준어이다. 그러나 '쥐방울 덩굴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449	등헤엄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함에 따라 '등헤엄'과 '배영'은 복수 표준어이다.
450	등화앉다			표준어 규정	등화앉다'는 '등화지다', '불뚱앉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셋 다 표준어이다.
451	등화지다			표준어 규정	등화지다'는 '등화앉다', '불뚱앉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셋 다 표준어이다.
452	따님			한글 맞춤법	따님'은 '딸'과 '-님'이 결합한 단어로, [따님]으로 소리나므로 '따님'으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ㄴ'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딸님%'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53	따라먹다		○	표준어 규정	%따라먹다%'는 '앞지르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따라먹다%'는 비표준어이고 '앞지르다'는 표준어이다.
454	따로따로따로			표준어 규정	따로따로따로'와 '섬마섬마'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55	딱따구리	01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딱따구리'로 적는다.
456	딱딱	03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딱딱%'이 아니라 '딱딱'으로 적는다.
457	딱지	01		한글 맞춤법	딱지'는 [딱찌]로 소리 나지만 '딱지'로 적는다. 이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딱찌%'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58	딱총			표준어 규정	딱총'의 본말인 '%지딱총%'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딱



					총'이 널리 쓰이므로 '딱총'만이 표준어이다.
459	딱하다			한글 맞춤법	딱하다'는 [따카다]로 소리 나지만 '딱하다'로 적는다. 이는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카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60	판기적다			한글 맞춤법	판기적다'는 [판기적따]로 소리 나므로 '판기적다'로 적는다. 이는 '-적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적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판기적따%'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61	판꾼			표준어 규정	판꾼'이 표준어이고 '%판꾼%'은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62	판전			표준어 규정	판전'과 '판청'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63	판청			표준어 규정	판청'과 '판전'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64	딸각발이		○	표준어 규정	'%딸각발이%'는 '딸각발이'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딸각발이'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딸각발이%'는 비표준어이다.
465	딸각발이			한글 맞춤법	딸각발이'는 합성어 '딸각발'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말로 '딸각발이'로 적는다. 이는 명사에 접미사 '-이'가 더해지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딸각바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딸각발이'는 '%딸각발이%'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딸각발이'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딸각발이%'는 비표준어이다.
466	딸꼭단추		○	표준어 규정	%딸꼭단추%'는 비표준어이고 '뚝딱단추'가 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67	딸꼭			표준어 규정	딸꼭'이 표준어이고 '%갈딱%'은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68	딸꼭거리다			표준어 규정	딸꼭거리다'가 표준어이고 '%갈딱거리다%'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69	딸꼭딸꼭			표준어 규정	딸꼭딸꼭'이 표준어이고 '%갈딱갈딱%'은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70	땀받이			한글 맞춤법	땀받이'는 '땀', 받-',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땀바지]로 소리 나지만 '땀받이'로 적는다. 이는 동

					사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땀바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땀받이'는 표준어이고 '%땀받기%'는 비표준어이다.
471	땅꾼	01		한글 맞춤법	땅꾼'은 명사 '땅'과 접미사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땅꾼'으로 적는다. 이는 명사에 접미사 '-꾼/-꾼'이 결합할 때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땅꾼%'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땅꾼'은 '뱀을 잡아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으로는 표준어이지만 '말이나 하는 짓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운 사람'의 뜻으로는 비표준어이다.
472	땅꾼	02	○	표준어 규정	%땅꾼%'은 '딴꾼'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딴꾼'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땅꾼%'은 비표준어이다.
473	땅덩어리			표준어 규정	'땅덩어리'는 '땅덩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74	땅덩이			표준어 규정	'땅덩이'는 '땅덩어리'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75	땅두릅나무			표준어 규정	땅두릅나무'는 '땃두릅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76	땅콩			표준어 규정	땅콩'은 '호콩'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77	때깎			한글 맞춤법	때깎'은 '때'와 '-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때깎'로 적는다. 이는 '접미사 '-깎'은 된소리로 적는 것만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때깎%'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78	때때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때때', '고까', '꼬까'는 복수 표준어이다.
479	때때신			표준어 규정	때때', '고까', '꼬까'는 의미가 같고 세 형태 모두 널리 쓰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따라서 '때때신', '고까신', '꼬까신'도 모두 표준어이다.

480	때때웃			표준어 규정	때때', '고까', '꼬까'는 의미가 같고 세 형태 모두 널리 쓰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따라서 '때때웃', '고까웃', '꼬까웃'도 모두 표준어이다.
481	떨감			표준어 규정	'떨감'과 '떨거리'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82	떨거리			표준어 규정	'떨거리'와 '떨감'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83	떡갈나무			표준어 규정	'떡갈나무'의 의미로 '%가랑나무%', '갈잎나무'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으며, 둘 다 널리 쓰이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함에 따라 '떡갈나무'와 '갈잎나무'는 표준어이고 '%가랑나무%'는 비표준어이다.
484	떡보	01		표준어 규정	'떡보'는 '%떡충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떡보'는 표준어이고 '%떡충이%'는 비표준어이다.
485	떡암죽			표준어 규정	'떡암죽'은 표준어이고 '%병암죽%'은 비표준어이다. 이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486	떡충이			표준어 규정	'%떡충이%'는 '떡보'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떡충이%'는 비표준어이고 '떡보'는 표준어이다.
487	떨기나무			표준어 규정	'떨기나무'는 '%좀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떨기나무'는 표준어이고 '%좀나무%'는 비표준어이다.
488	떨어뜨리다			표준어 규정	'떨어뜨리다'는 '떨어트리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89	떨어먹다		0	표준어 규정	'%떨어먹다%'는 '떨어먹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떨어먹다%'는 비표준어이고 '떨어먹다'는 표준어이다.
490	떨어지다			한글 맞춤법	'떨어지다'는 '떨다'와 '지다'가 결합한 단어로, [떠러지다]로 소리 나지만 '떨어지다'로 적는다. 이는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떠러지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491	떨어트리다			표준어 규정	'떨어트리다'는 '떨어뜨리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492	또아리		O	표준어 규정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의 의미나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의 의미로 '%또아리%'는 비표준어이고 '파리'가 표준어이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493	똑딱단추			표준어 규정	똑딱단추'는 표준어이고 '%딸꼭단추%'는 비표준어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94	똑딱똑딱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똑딱똑딱%'이 아니라 '똑딱똑딱'으로 적는다.
495	똑똑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똑똑%'이 아닌 '똑똑'으로 적는다.
496	똑하다		O	표준어 규정	%똑하다%는 '꼭하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똑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꼭하다'는 표준어이다.
497	파리			표준어 규정	파리'의 본말은 '%또아리%'인데,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498	뚜껑			표준어 규정	뚜껑'과 '덮개'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499	똑배기			한글 맞춤법	똑배기'는 [똑빠기]로 소리 나지만 '똑배기'로 적는다. 이는 '-배기/-빠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중, 한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빠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똑빠기%'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00	똥리다			한글 맞춤법	똥리다'는 동사 '똥다'와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똥리다]로 소리 나지만 '똥리다'로 적는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기-, -리-, -이-, -히-, -구-, -우-, -추-' 등의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똥리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01	똥단지	02		표준어 규정	똥단지'는 '돼지감자'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02	똥똥보			표준어 규정	똥똥보'는 '똥똥이', '똥보'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셋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03	똥똥이			표준어 규정	똥똥이'는 '똥똥보', '똥보'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셋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04	뜨더귀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따라서 '%뜰어귀%'가 아닌 '뜨더귀'로 적는다.
505	뜨덤뜨덤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부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뜰엄뜰엄%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06	-뜨리다			표준어 규정	-뜨리다'와 '-트리다'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07	뜨문뜨문			표준어 규정	뜨문뜨문'과 '드문드문'은 복수 표준어이다. 의미는 같고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둘 다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508	뜰것	02		표준어 규정	뜰것'과 '뜰귀신'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09	뜰귀신			표준어 규정	뜰귀신'과 '뜰것'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10	뜰게질			한글 맞춤법	뜰게질'은 '뜰-'과 '-게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뜰게질]로 소리 나지만 '뜰게질'로 적는다. 이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뜰게질%'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11	뜰적거리다			한글 맞춤법	뜰적거리다'는 어간 '뜰적-'과 접미사 '-거리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뜰쩍꺼리다]로 소리 나지만 '뜰적거리다'로 적는다. 이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뜰쩍거리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12	뜰적뜰적하다			한글 맞춤법	뜰적뜰적하다'는 '뜰적뜰적-'과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뜰쩍뜰쩍카다]로 소리 나지만 '뜰적뜰적하다'로 적는다. 이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뜰쩍뜰쩍하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13	뜸단지		0	표준어 규정	%뜸단지%'는 '부항단지'와 의미가 같은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부항단지'가 표준어이고 '%뜸단지%'는 비표준어이다.
514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띄여쓰기]로 소리 나지만 '띄어쓰기'로 적는다. 이는 '의'를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 나는 경우라도 'ㄴ'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띄어쓰기%'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15	-르걸			한글 맞춤법	'-르걸'은 [-르꺄]로 소리나지만 이는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므로 '-르꺄'로 적어야 한다. '%-르꺄%'은 잘못된

					표기이다.
516	-르게			한글 맞춤법	'-르게'는 [-르게]로 소리나지만 이는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므로 '-르게'로 적어야 한다. '%-르게%'는 잘못된 표기이다.
517	-르수록			한글 맞춤법	'-르수록'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수'와 혼동하여 '%-르 수록%'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르수록'은 하나의 어미이고, 의존 명사 '수'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518	-르지			한글 맞춤법	'-르지'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지'와 혼동하여 '%-르 지%'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의존 명사 '지'는 기간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19	량	01		한글 맞춤법	한자음 '량/양'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양'으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량'으로 적는다. '량/양'이 한자어와 결합할 경우에는 '역량'과 같이 본음에 따라 표기하고, 고유어와 결합할 경우에는 '구름양', '먹이양' 등과 같이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520	-려고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려고'와 비슷한 발음인 '%-르려고%', '%-르라고%'는 표준어가 아니다.
521	-려야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려야'와 비슷한 발음인 '%-르려야%', '%-르래야%'는 표준어가 아니다.
522	로서			한글 맞춤법	'로서'와 '로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쓰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523	로써			한글 맞춤법	'로서'와 '로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쓰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로써'는 도구, 수단, 방법, 재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하였다."에서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524	리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는다.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본음대로 적는다. 따라서 '삼십 %이%'가 아닌 '삼십 리'로 적는다.
525	리	06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는다.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본음대로 적는다. 따라서 '그릴 %이%'가 없다'

					가 아닌 '그렇 리가 없다'로 적는다.
526	마감	01		한글 맞춤법	마감'은 어원적으로 어간 '막-'과 접미사 '-암'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마감'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어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막암%'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27	마개	01		한글 맞춤법	마개'는 어원적으로 어간 '막-'과 접미사 '-애'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마개'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막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28	마구잡이			한글 맞춤법	마구잡이'는 부사 '마구'와 접미사 '-잡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잡이'는 어간 '잡-'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마구잡이'로 적는다. '%마구자비%'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마구잡이%'로 적지 않는다. '마구잡이'의 준말로 '막잡이'를 쓰기도 하나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마구잡이'가 표준어이고, '%막잡이%'는 비표준어이다.
529	마기	01	○	표준어 규정	마기'와 '막상'은 의미가 동일한데,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마기%'는 비표준어이고 '막상'은 표준어이다.
530	마냥	01		표준어 규정	'마냥'은 '늦모내기'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31	마냥모			표준어 규정	'마냥모'는 '늦모'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32	마되			한글 맞춤법	마되'는 '말'과 '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마되/마뉘]로 소리 나므로 '마되'로 적는다. 이는 'ㄹ' 받침을 가진 말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게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말되%'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33	마룻대			표준어 규정	고유어 '마룻대'는 한자어 '%상량대%', '%상량도리%',

					'%상량보%'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이 가운데 '마룻대'가 널리 쓰이므로 '마룻대'가 표준어이고 다른 단어는 비표준어이다.
534	마룻줄			표준어 규정	마룻줄은 '용총줄'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35	마른빨래			표준어 규정	마른빨래'와 '%건(乾)빨래%'는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인 '마른빨래'가 한자어인 '%건빨래%'보다 더 널리 쓰이므로 '마른빨래'가 표준어이고 '%건빨래%'는 비표준어이다.
536	마바리집		○	표준어 규정	마(馬)바리집'은 '마방(馬房)집'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자어인 '마방집'이 고유어인 '%마바리집%'보다 더 널리 쓰이므로 '마방집'은 표준어이고 '%마바리집%'은 비표준어이다.
537	마방집			표준어 규정	마방(馬房)집'은 '마(馬)바리집'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자어인 '마방집'이 고유어인 '%마바리집%'보다 더 널리 쓰이므로 '마방집'은 표준어이고 '%마바리집%'은 비표준어이다.
538	마상	01		표준어 규정	마상'은 '마상이'의 준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마상'과 '마상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539	마상이			표준어 규정	마상이'는 '마상'의 본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마상이'와 '마상'은 복수 표준어이다.
540	마소			한글 맞춤법	마소'는 '말'과 '소'가 합해진 단어이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적으므로 '%말소%'가 아닌 '마소'로 적는다.
541	마술장이		○	표준어 규정	%마술장이%'와 '마술쟁이' 가운데 '마술사'를 뜻하는 표준어는 '마술쟁이'이다.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인다. 이러한 예로 '유기장이', '멋쟁이' 등이 있다.
542	마술쟁이			표준어 규정	마술쟁이'와 '%마술장이%' 가운데 '마술사'를 뜻하는 표준어는 '마술쟁이'이다. '-쟁이'는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직업을 낮추어 말하는 뜻이며 '-장이'는 기술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로 '멋쟁이', '유기장이' 등이 있다.
543	마음			표준어 규정	마음'의 준말은 '맘'인데,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이 둘은 복수 표준어이다.
544	마음보			표준어 규정	마음보'와 '심보'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



					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45	마주	01	한글 맞춤법		마주'는 '맞-'과 '-우'가 합해진 단어이다.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으므로 '%맞우%'가 아닌 '마주'로 적는다.
546	마중		한글 맞춤법		마중'은 '맞-'과 '-웅'이 합해진 단어이다.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으므로 '%맞웅%'이 아닌 '마중'으로 적는다.
547	마지	03	표준어 규정		마지'와 '마짓밥'은 의미가 동일한데,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준말인 '마지'와 본말인 '마짓밥' 모두 표준어이다.
548	마짓밥		표준어 규정		마짓밥'과 '마지'는 의미가 동일한데, 본말과 준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본말인 '마짓밥'과 준말인 '마지' 모두 표준어이다.
549	마치	01	표준어 규정		마치'는 '못을 박거나 무엇을 두드리는 데 쓰는 망치보다 작은 연장'의 의미로는 표준어이고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의 의미로는 비표준어이다.
550	마치다	02	한글 맞춤법		발음이 동일한 '마치다'와 '맞히다'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마치다'는 '끝내다'의 의미이고 '맞히다'는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무엇을 맞게 하다'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처럼 쓸 수 있고 '맞히다'는 '문제의 답을 맞혔다.'처럼 쓸 수 있다.
551	마파람		표준어 규정		마파람'은 '앞바람'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52	막걸다		표준어 규정		막걸다'와 유사한 의미로 '맞걸다'를 쓰기도 한다. '막걸다'는 '노름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걸고 단판 내기를 하다.'의 의미이고 '맞걸다'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려고 서로 돈을 걸다.'의 의미이다.
553	막걸리다	01	표준어 규정		막걸리다'와 유사한 의미로 '맞걸리다'를 쓰기도 한다. '막걸리다'는 '노름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걸고 단판 내기를 하다.'라는 뜻의 '막걸다'의 피동사이고, '맞걸리다'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려고 서로 돈을 걸다.'라는 뜻의 '맞걸다'의 피동사이다.
554	막대	01	표준어 규정		막대'와 '막대기'는 의미가 동일한데,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준말인 '막대'와 본말인 '막대기' 모두 표준어이다.
555	막대기		표준어 규정		막대기'와 '막대'는 의미가 동일한데, 본말과 준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본말인 '막대기'와 준말인 '막대' 모

					두 표준어이다.
556	막둥이			표준어 규정	막둥이'는 '막-'과 '-둥이'가 결합한 말이다. '막내'의 의미로 '막둥이'는 표준어이고 '%막둥이%'는 비표준어이다. 이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557	막벌이꾼			한글 맞춤법	막벌이꾼'은 '막벌이'와 '-꾼'이 결합한 말로 '막벌이꾼'으로 적는다. 이는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막벌이군%'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58	막상	01		표준어 규정	막상'과 '마기'는 의미가 동일한데,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막상'은 표준어이고 '%마기%'는 비표준어이다.
559	막잡이			표준어 규정	%막잡이%'는 '마구잡이'의 준말이다.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막잡이%'는 비표준어이고 '마구잡이'는 표준어이다.
560	만만찮다			한글 맞춤법	만만찮다'는 '만만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어미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때 준 대로 적는다.
561	만석꾼			한글 맞춤법	만석꾼'은 '만석'과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만석꾼'으로 적는다. 이는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만석군%'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62	만양	01	○	표준어 규정	%만양%'과 '마냥' 가운데 '하지가 지난 뒤 늦게 내는 모내기'라는 뜻으로 '%만양%'은 비표준어이고 '마냥'이 표준어이다.
563	만양모		○	표준어 규정	%만양모%'와 '마냥모' 가운데 '제철보다 늦게 내는 모'라는 뜻으로 '%만양모%'는 비표준어이고 '마냥모'가 표준어이다.
564	만장중			표준어 규정	만장중'은 '만장판'과 의미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565	만장판			표준어 규정	만장판'은 '만장중'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566	만치			표준어 규정	만치'는 '만큼'과 의미가 동일한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67	만큼			표준어 규정	만큼'은 '만치'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68	많이			한글 맞춤법	많이'는 형용사 '많다'와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마니]로 소리 나지만 '많이'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마니%'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69	말물			표준어 규정	말물'과 '%첫물%'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말물'은 표준어이고 '%첫물%'은 비표준어이다.
570	말이			한글 맞춤법	말이'는 '말-'과 '-이'가 결합한 단어로 [마지]로 소리 나지만 '말이'로 적는다. 이는 'ㄷ' 받침 뒤에 '-이'가 올 때에는 'ㄷ'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마지%', '%말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71	말것		○	표준어 규정	%말것%'은 '말결'과 의미가 동일한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말것%'은 비표준어이고 '말결'이 표준어이다.
572	말결			표준어 규정	말결'은 '%말것%'과 의미가 동일한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말결'은 표준어이고 '%말것%'은 비표준어이다.
573	말국	01	○	표준어 규정	%말국%'은 '국물'과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말국%'은 비표준어이고 '국물'이 표준어이다.
574	말그스름하다			표준어 규정	말그스름하다'는 '말스그레하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75	말담		○	표준어 규정	%말담%'은 '입담'과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말담%'은 비표준어이고 '입담'이 표준어이다.
576	말동무			표준어 규정	말동무'와 '말벗'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77	말뚝모		○	표준어 규정	%말뚝모%'는 '꼬창모'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말뚝모%'는 비표준어이고 '꼬창모'가 표준어이다.
578	말매미			표준어 규정	말매미'는 '왕매미'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말매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왕매미'는 일상 영역에

					서 쓰인다.
579	말벌			표준어 규정	말벌', 왕벌', '말벌', '호박벌'은 의미가 동일한데, 모두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이 중 '호박벌'은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다른 것은 일상 영역에서 쓰인다.
580	말뼉			표준어 규정	말뼉'과 '말동무'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충족하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581	말썰꾼			한글 맞춤법	말썰꾼'은 '말썰'과 '-꾼'이 결합한 말로 '말썰꾼'으로 적는다. 이는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말썰꾼%'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82	말약		○	표준어 규정	%말약%'은 '가루약'과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널리 쓰이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유어 '가루약'은 표준어이고 한자어 '%말약%'은 비표준어이다.
583	맑스그레하다			표준어 규정	맑스그레하다'는 '말그스름하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충족하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584	맘			표준어 규정	맘의 본말은 '마음'인데,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이 둘은 복수 표준어이다.
585	맛	01		표준어 규정	맛'과 '%맛대강이%'는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맛'은 표준어이고 '%맛대강이%'는 비표준어이다.
586	맛깔			한글 맞춤법	맛깔'은 '맛'과 '깔'이 결합한 단어로 '맛깔'로 적는다. 이는 '-깔/-갈'은 '깔'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맛깔%'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87	맛대강이		○	표준어 규정	%맛대강이%'는 '맛'과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맛대강이%'는 비표준어이고 '맛'이 표준어이다.
588	맛적다			한글 맞춤법	맛적다'는 '맛'과 '적다'가 결합한 단어로, '맛적다'로 적는다. 이는 '-적다/-쩍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적다[少]'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맛쩍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89	망가뜨리다			표준어 규정	망가뜨리다'는 '%망그뜨리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망가뜨리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망그뜨리다%'는 비표준어이다.

590	망가지다			표준어 규정	망가지다'와 '망그러지다'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91	망그뜨리다		○	표준어 규정	%망그뜨리다%'는 '망가뜨리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망가뜨리다'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망그뜨리다'는 비표준어이다.
592	망그러지다			표준어 규정	망그러지다'와 '망가지다'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93	망령스럽다			표준어 규정	망령스럽다'와 '괘팡스럽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는 경우,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594	망설이다			한글 맞춤법	망설이다'는 [망서리다]로 소리 나지만 '망설이다'로 적는다. 이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성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망서리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595	맞걸다			표준어 규정	맞걸다'와 유사한 의미로 '막걸다'를 쓰기도 한다. '맞걸다'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려고 서로 돈을 걸다.'의 의미이고 '막걸다'는 '노름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걸고 단판 내기를 하다.'의 의미이다.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96	맞걸리다			표준어 규정	맞걸리다'와 유사한 의미로 '막걸리다'를 쓰기도 한다. '맞걸리다'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려고 서로 돈을 걸다.'라는 뜻의 '맞걸다'의 피동사이고 '막걸리다'는 '노름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걸고 단판 내기를 하다.'라는 뜻의 '막걸다'의 피동사이다. '맞걸리다'와 '막걸리다' 모두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597	맞상		○	표준어 규정	%맞상(맞床)%과 '겸상(兼床)'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맞상%'은 비표준어이고 '겸상'이 표준어이다.
598	맞추다			한글 맞춤법	맞추다'는 '맞-'에 '-추-'가 결합한 단어로 [맏추다]로 소리 난다. 용언의 어간에 '-기-, -리-, -이-, -히-, -구-, -우-, -추-' 등의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맞추다'로 표기한다. '맞추다'와 소리가 비슷한 '%마추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문(注文)하다'란 뜻과 '맞게 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마추다%'는 비표준어이다.
599	맞히다	01		한글 맞춤법	발음이 동일한 '맞히다'와 '마치다'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맞히다'는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무엇을 맞게 하다'의 의미이고, '마치다'는 '끝내다'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맞히다'는 '문제의 답을 맞혔다.'처럼 쓸 수 있고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처럼 쓸 수 있다.
600	매갈이			표준어 규정	매갈이'와 '매조미'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01	매년			표준어 규정	매년'과 '매해'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02	매달			표준어 규정	매달'과 '다달이'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03	매련			표준어 규정	매련'은 '%마련%'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매련'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마련%'은 비표준어이다.
604	매만지다			표준어 규정	매만지다'와 '%우미다%'처럼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매만지다'가 표준어이고 '%우미다%'는 비표준어이다.
605	매미	02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멤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06	매양			표준어 규정	매양'과 '번번이'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07	매옥하다			표준어 규정	매옥하다'는 '%마옥하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매옥하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마옥하다%'는 비표준어이다.
608	매조미			표준어 규정	매조미'와 '매갈이'처럼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모두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609	매줏집		0	표준어 규정	%매줏집%'과 '술집'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인 '술집'이 널리 쓰이고 한자어인 '%매줏집%'은 널리 쓰이지 않으므로 '술집'이 표준어이고 '%매줏집%'은 비표준어이다.
610	매통			표준어 규정	매통'과 '목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11	매해			표준어 규정	매해'와 '매년'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12	맥쩍다			한글 맞춤법	맥쩍다'는 '-적다/-쩍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쩍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쩍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맥쩍다'로 적는다. 그러므로 '%맥적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13	맵자다		○	표준어 규정	%맵자다%'는 '맵자하다'의 준말로,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맵자다%'는 비표준어이고 '맵자하다'는 표준어이다.
614	맵자하다			표준어 규정	맵자하다'는 '%맵자다%'의 본말로,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맵자하다'가 표준어이고 '%맵자다%'는 비표준어이다.
615	맷돌			한글 맞춤법	맷돌'은 '매'와 '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매돌/맬돌]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맷돌'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매돌%'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맷돌'의 의미로 '%맷돌%'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발음의 형태가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맷돌'이 표준어이고 '%맷돌%'은 비표준어이다.
616	맹눈		○	표준어 규정	한자어 '%맹눈%'은 고유어 '까막눈'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까막눈'이 널리 쓰이므로 '%맹눈%'은 비표준어이고 '까막눈'이 표준어이다.
617	마련		○	표준어 규정	%마련%'과 '매련'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매련'이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마련%'은 비표준어이다.
618	마옥하다		○	표준어 규정	%마옥하다%'와 '매옥하다'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매옥하다'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마옥하다%'는 비표준어이다.
619	머귀나무	01		표준어 규정	머귀나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므로 구분해야 한다. '운향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의 뜻으로 사용되는 '머귀나무'는 표준어이고 '오동나무'의 뜻으로 사용되는 '%머귀나무%'는 비표준어이다.
620	머귀나무	02	○	표준어 규정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머귀나무%'는 비표준어이고 '오동나무'가 표준어이다.
621	머리말			한글 맞춤법	머리말'은 명사 '머리'와 '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로, [머리말]로 소리 나므로 '머리말'로 적는다. '%머릿말%'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22	머릿기름			한글 맞춤법	머릿기름'은 명사 '머리'와 '기름'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머리기름/머릴기름]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머릿기름'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머리기름%'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23	머릿니			한글 맞춤법	머릿니'는 '머리'와 '이'로 이루어진 단어로, [머린니]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머릿니'로 적는다. 이는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따른 것이다.
624	머릿방			한글 맞춤법	머릿방'은 '머리'와 '방(房)'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머리뺑/머릴뺑]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머릿방'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용실'의 의미로는 '머리방'이 올바른 표기이다.
625	머무르다			표준어 규정	머무르다'의 준말인 '머물다'도 널리 쓰이므로 '머무르다'와 '머물다' 모두 표준어이다.
626	머물다			표준어 규정	준말 '머물다'와 본말 '머무르다'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627	먹새	02		표준어 규정	먹새'와 '먹음새'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28	먹음새			표준어 규정	먹음새'와 '먹새'는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29	먹이			한글 맞춤법	먹이'는 '먹다'의 '먹-'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먹이'로 적는다. 따라서 '%머기%'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30	먼발치			표준어 규정	먼발치'는 '%먼발%', '%먼발치기%', '%먼장%'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이들 가운데 널리 쓰이는 '먼발치'만 표준어이다.
631	먼발치기		O	표준어 규정	%먼발치기%'는 '먼발치'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먼발치'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



				면발치기%'는 비표준어이다.
632	멀국	O	표준어 규정	%멀국%'은 '국물'과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멀국%'은 비표준어이고 '국물'이 표준어이다.
633	멀찌가니		표준어 규정	멀찌가니'는 '멀찌감치', '멀찍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셋 다 표준어이다.
634	멀찌감치		표준어 규정	멀찌감치'는 '멀찌가니', '멀찍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셋 다 표준어이다.
635	멀찍이		표준어 규정	멀찍이'는 '멀찌가니', '멀찌감치'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셋 다 표준어이다.
636	멈추다		표준어 규정	멈추다'는 '멧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37	멧장이	O	표준어 규정	%멧장이%'는 '멧'과 '-장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인다는 규정에 따라 '멧쟁이'가 표준어이고 '%멧장이%'는 비표준어이다.
638	멧쟁이		표준어 규정	멧쟁이'는 '멧'과 '-쟁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인다는 규정에 따라 '멧쟁이'가 표준어이고 '%멧장이%'는 비표준어이다. 이와 같은 예로 '소금쟁이', '욕심쟁이', '점쟁이' 등이 있다.
639	멧쩍다		한글 맞춤법	멧쩍다'는 [멧쩍따]로 소리 난다. '-적다/-쩍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쩍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쩍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멧적다%'가 아닌 '멧쩍다'로 적는다.
640	멍게		표준어 규정	멍게'는 '우렁챙이'와 의미가 동일하다.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고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원칙에 따라 방언이었던 '멍게'와 원래의 표준어인 '우렁챙이' 모두 표준어이다.
641	멧다		표준어 규정	멧다'는 '멈추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42	메뚜기	02		한글 맞춤법	메뚜기'는 한 단어의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메뚜기'로 적는다. 이와 같은 예로 '어깨', '오빠', '어찌' 등이 있다.
643	메리치		○	표준어 규정	%메리치%'는 '멀치'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멀치'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메리치%'는 비표준어이다.
644	메아리			표준어 규정	메아리'는 '산울림'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45	메찰떡	01		표준어 규정	메찰떡'은 '%반(半)찰떡%'과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인 '메찰떡'이 널리 쓰이고 한자어인 '%반찰떡%'은 그 용도를 잃게 되었으므로 '메찰떡'이 표준어이다.
646	메토끼		○	표준어 규정	%메토끼%'는 '산(山)토끼'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산토끼'가 표준어이고 '%메토끼%'는 비표준어이다.
647	멤쌀			한글 맞춤법	멤쌀'은 '메'와 '쌀'이 결합한 단어로 [멤쌀]로 소리 난다.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멤쌀%'이 아닌 '멤쌀'로 적는다. 또한,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메벼를 짠 쌀'의 의미로는 '멤쌀'만 표준어이고 '%멤쌀%'은 비표준어이다.
648	멧나물			한글 맞춤법	멧나물'은 순우리말 '메'와 '나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멧나물]로 소리 나므로 '멧나물'로 적어야 한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메나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49	멧누에		○	표준어 규정	%멧누에%'는 '산(山)누에'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산누에'가 표준어이고 '%멧누에%'는 비표준어이다.
650	멧돼지			표준어 규정	멧돼지'는 '산돼지'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51	멧밭		○	표준어 규정	%멧밭%'은 '산(山)줄기'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산줄기'가 표준어이고 '%

					멧발%'은 비표준어이다.
652	멧줄기		○	표준어 규정	%멧줄기%'는 '산(山)줄기'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산줄기'가 표준어이고 '%멧줄기%'는 비표준어이다.
653	며칠			한글 맞춤법	며칠'은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며칠'로 적는다. '%몇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54	먹통			표준어 규정	먹통'과 '산먹통'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55	면구스럽다			표준어 규정	면(面)구스럽다'는 '%민주스럽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면구스럽다'가 표준어이고 '%민주스럽다%'는 비표준어이다.
656	면화씨			표준어 규정	면화씨'와 '목화씨'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57	멸치			표준어 규정	멸치'는 '%메리치%'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멸치'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메리치%'는 비표준어이다.
658	명자나무			표준어 규정	명자나무'와 '모과나무'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59	명주불이			표준어 규정	명주불이'는 '%주사니%'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명주불이'는 표준어이고 '%주사니%'는 비표준어이다.
660	명중률			한글 맞춤법	을/를'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을'로, 그밖의 경우에는 '를'로 적는다. 그러므로 '%명중을%'로 적지 않는다.
661	모가지			한글 맞춤법	모가지'는 어원적으로 명사 '목'과 접미사 '-아지'가 결합한 말이다. 명사 뒤에 '-이'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적지 않는 원칙에 따라 '%목아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62	모과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이 본음과 속음이 있는 경우, 속음으로 나는 것은 속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과'로 적는다. '%목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63	모과나무			표준어 규정	모과나무'는 '명자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64	모군			표준어 규정	모군'은 '모군꾼'의 준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준말 '모군'과 본말 '모군꾼'은 복수 표준어이다.
665	모군꾼			표준어 규정	모군꾼'은 '모군'의 본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말 '모군꾼'과 준말 '모군'은 복수 표준어이다.
666	모깃불			한글 맞춤법	모깃불'은 순우리말 '모기'와 '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모:기뿔/모:길뿔]로 소리 나므로 '모깃불'로 적어야 한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기불%'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67	모내기			표준어 규정	모내기'와 '모심기'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68	모내다			표준어 규정	모내다'와 '모심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69	모되			한글 맞춤법	모되'와 '목판되'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70	모두	01		표준어 규정	모두'와 '공히'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71	모란	01		한글 맞춤법	모란(牡丹)'은 한자어인데, 한자어의 소리가 본음과 속음이 있는 경우 속음으로 나는 것은 속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음 '%모단%'이 아닌 속음 '모란'으로 적는다.
672	모래사장			표준어 규정	모래사장'과 '모래톱'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73	모래톱			표준어 규정	모래톱'과 '모래사장'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74	모심다			표준어 규정	모심다'와 '모내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75	모이	01		표준어 규정	모이'와 '%모%'가 동일한 의미로 쓰일 때, 준말보다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이'가 표준어이고 '%모%'는 비표준어이다.
676	모지다	02	0	표준어 규정	%모지다%'는 '모질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

					에 따라 '모질다'가 표준어이고 '%모지다%'는 비표준어이다.
677	모질다	01	표준어 규정		모질다'는 '%모지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질다'가 표준어이고 '%모지다%'는 비표준어이다.
678	모질음		한글 맞춤법		모질음'은 '모질다'의 '모질-'과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모질음'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지름%'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79	모쪼록		표준어 규정		모쪼록'은 '아무쪼록'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80	목거리		한글 맞춤법		목거리'와 '목걸이'는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목거리'는 '목', '걸-', '-이'가 결합한 단어로, 접미사 '-이'가 어간에 붙어서 명사가 될 때 어간의 뜻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규정에 따라 '목거리'로 적는다. 이와 같은 예로는 '코끼리', '고름', '노름' 등이 있다.
681	목걸이		한글 맞춤법		목걸이'는 '목거리'와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목걸이'는 '목', '걸-', '-이'가 결합한 단어로,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규정에 따라 '목걸이'로 적는다. '%목거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갈이', '먹이', '살림살이' 등이 있다.
682	목도꾼		한글 맞춤법		목도꾼'은 '목도'와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목도꾼'으로 적는다. 이는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목도군%'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83	목도리		한글 맞춤법		목도리'는 '목', '돌-', '-이'가 결합한 단어로, '목도리'로 표기한다. 이는 어간에 접미사 '-이'가 어간에 붙어서 명사가 될 때 어간의 뜻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목돌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며, '목도리'와 같은 예로는 '코끼리', '고름', '노름' 등이 있다.
684	목매	01	표준어 규정		목매'와 '매통'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85	목맷히다		표준어 규정	○	%목맷히다%'는 '목매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

					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목메다'가 표준어이고 '%목멧히다%'는 비표준어이다.
686	목메다			표준어 규정	목메다'는 %목멧히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목메다'가 표준어이고 '%목멧히다%'는 비표준어이다.
687	목발	02	O	표준어 규정	%목발%은 비표준어이고 '지겟다리'가 표준어이다. 한자어 계열의 단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688	목판되			표준어 규정	목판되'와 '모되'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89	목화씨			표준어 규정	목화씨'와 '면화씨'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90	뭉뭉이			한글 맞춤법	뭉뭉이'는 '뭉뭉'과 '-이'가 붙어서 된 말로 [몽목씨]로 소리 난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뭉뭉이'로 적는다. '%뭉뭉시%'나 '%뭉뭉시%'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91	몰매			표준어 규정	몰매'는 '뭇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이다. '%모뭇매%' 역시 '몰매'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몰매'가 더 널리 쓰이므로 '%모뭇매%'는 비표준어이다.
692	물염치			한글 맞춤법	물염치'는 '물'과 '염치'가 결합한 말로 [모렴치]로 소리 난다. 한자음 '려'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물염치'는 '염치'에 '물'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물렴치%'로 적지 않는다.
693	물이꾼			한글 맞춤법	명사에 접미사 '-꾼/-꾼'이 결합할 때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이꾼%'이 아닌 '물이꾼'으로 적는다.
694	몰이해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는다. '몰이해'에서는 '이'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몰이해'는 '이해'에 '몰-'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몰리해%'로 적지 않는다.
695	몸서리나다			표준어 규정	몸서리나다'와 '몸서리치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96	몸서리치다			표준어 규정	몸서리치다'와 '몸서리나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697	몹시			한글 맞춤법	몹시'는 [몹씨]로 소리 나지만 '몹시'로 적는다. 이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몹씨%'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98	못자리			한글 맞춤법	못자리'는 '모'와 '자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모짜리/물짜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못자리'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자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699	무	02		한글 맞춤법	무'는 '%무우%'와 동일한 의미인데,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함에 따라 '무'가 표준어이고 '%무우%'는 비표준어이다.
700	무녀리			한글 맞춤법	무녀리'는 본래 '문', '열-', '-이'가 결합한 말이다.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만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하는 규정에 따라 '무녀리'로 적는다. '%문열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01	무논			한글 맞춤법	무논'은 '물'과 '논'이 결합한 말로 [무논]으로 소리 나므로 '무논'으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물논%'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02	무늬			한글 맞춤법	무늬'는 [무니]로 소리 나지만 '무늬'로 적는다. 이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무니%'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03	무단히			한글 맞춤법	무단히'는 [무단히]로 소리 난다.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무단히%'가 아닌 '무단히'로 적는다.
704	무당개구리			표준어 규정	무당개구리'는 '비단개구리'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무당개구리'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비단개구리'는 일상에서 쓰인다.
705	무덤			한글 맞춤법	무덤'은 '묻-'과 '-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무덤'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엄%'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06	무명실			표준어 규정	무명실'은 '%목실%'과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무명실'은 표준어이고 '%목실%'은 비표준어이다.
707	무식꾼			표준어 규정	무식꾼'과 '무식쟁이'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08	무식장이		○	표준어 규정	%무식장이%'는 '무식쟁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이는 규정에 따라 '%무식장이%'는 비표준어이고 '무식쟁이'가 표준어이다.
709	무식쟁이			표준어 규정	무식쟁이'는 '%무식장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이는 규정에 따라 '무식쟁이'는 표준어이고 '%무식장이%'는 비표준어이다.
710	무심결			표준어 규정	무심결'과 '무심중'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11	무심중			표준어 규정	무심중'과 '무심결'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12	무싯날			한글 맞춤법	무싯날'은 한자어 '무시'와 고유어 '날'이 결합한 말로 [무싯날]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무싯날'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무시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13	무우	01	○	표준어 규정	%무우%'는 '무'와 동일한 의미인데,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함에 따라 '%무우%'는 비표준어이고 '무'가 표준어이다.
714	무자위			한글 맞춤법	무자위'는 '물'과 '자위'가 결합한 말로 [무자위]로 소리 나므로 '무자위'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물자위%'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15	문구	01		표준어 규정	문구'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준어이다.
716	문귀			표준어 규정	%문귀%'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표준어이고 '문구'가 표준어이다.



717	묻히다			한글 맞춤법	묻히다'는 '묻-'과 '-히-'가 결합한 용언으로 [무치다]로 소리 난다.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히-'가 올 때 'ㄷ'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묻히다'로 적는다. '%무치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18	물렁뼈			표준어 규정	물렁뼈'는 '여린뼈'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물렁뼈'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여린뼈'는 일상에서 쓰인다.
719	물받이			한글 맞춤법	물받이'는 '물'과 '받이'가 결합한 말로 [물받지]로 소리 난다. '받이'는 '받-'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인데, 어간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고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받이'로 적는다. 또한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올 적에는 그 'ㄷ'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받이'로 적는다. '%물받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20	물방개			표준어 규정	물방개'는 '선두리'와 의미가 동일하다.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고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원칙에 따라 방언이었던 '물방개'와 원래의 표준어인 '선두리' 모두 표준어이다.
721	물봉선화			표준어 규정	물봉선화'와 '물봉숭아'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22	물봉숭아			표준어 규정	물봉숭아'와 '물봉선화'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23	물뽀이			한글 맞춤법	물뽀이'는 '물', '뽀-', '-이'가 결합한 말이다.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뽀미%'가 아니라 '물뽀이'로 적는다.
724	물썸			한글 맞춤법	물썸'은 [물썌]으로 소리 나므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썌'으로 적는다. '%물썌%'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25	물오리			표준어 규정	물오리'와 '청둥오리'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26	물타작			표준어 규정	물타작'과 '진타작'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27	물탄피		O	표준어 규정	%물탄피%는 '얇은피'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얇은피'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물탄피%'는 비표준어이다.
728	뭇매			표준어 규정	뭇매'와 '몰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한편 '%모듬매%'도 '뭇매'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뭇매'가 더 널리 쓰이므로 '뭇매'가 표준어이고 '%모듬매%'는 비표준어이다.
729	몽그러지다			표준어 규정	몽그러지다'와 '으그러지다'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30	몽뚱그리다			한글 맞춤법	몽뚱그리다'는 [몽뚱그리다]로 소리 나므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몽뚱그리다%'가 아닌 '몽뚱그리다'로 적는다.
731	뿔하다		O	표준어 규정	%뿔하다%와 '뿔하다'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뿔하다'가 표준어이고 '%뿔하다%'는 비표준어이다.
732	뿔하다			표준어 규정	뿔하다'와 '%뿔하다%'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뿔하다'가 표준어이고 '%뿔하다%'는 비표준어이다.
733	미루나무			표준어 규정	미루나무'는 '%미류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미루나무'가 표준어이고 '%미류나무%'는 비표준어이다.
734	미루다			표준어 규정	미루다'는 '밀-'에 '-우-'가 결합한 단어로 [미루다]로 소리 나며 '미루다'로 적는다. 이는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우-'가 붙어 이루어진 말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밀우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35	미류나무			표준어 규정	%미류나무%'는 '미루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미루나무'가 표준어이고 '%미류나무%'는 비표준어이다.
736	미장이			표준어 규정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이므로 '미장이'가 표준어이고 '%미쟁이%'는 비표준어이다.
737	미쟁이		O	표준어 규정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이므로 '%미쟁이%'는 비표준어이고 '미장이'가 표준어이다.

738	민도리		O	표준어 규정	%민도리%'는 '납도리'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납도리'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민도리%'는 비표준어이다.
739	민동산			표준어 규정	민동산'과 '벌거숭이산'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40	민망스럽다			표준어 규정	민망(憫惻)스럽다'는 '%민주스럽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민망스럽다'가 표준어이고 '%민주스럽다%'는 비표준어이다.
741	민주스럽다		O	표준어 규정	%민주스럽다%'는 '민망(憫惻)스럽다', '면(面)구스럽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임에 따라 '민망스럽다'와 '면구스럽다'만 표준어이고 '%민주스럽다%'는 비표준어이다.
742	밀빼세장			표준어 규정	밀빼세장'과' %밀빼쇠장%'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밀빼세장'이 표준어이고 '%밀빼쇠장%'은 비표준어이다.
743	밀빼쇠장		O	표준어 규정	%밀빼쇠장%'과 '밀빼세장'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밀빼세장'이 표준어이고 '%밀빼쇠장%'은 비표준어이다.
744	밀짚모자			표준어 규정	밀짚모자'는 '%보릿짚모자%'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밀짚모자'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보릿짚모자%'는 비표준어이다.
745	밀거름			한글 맞춤법	밀거름'은 '밀'과 '거름'이 결합한 말이다. '거름'은 '걸음'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거름'은 '비료'의 의미이고 '걸음'은 '걷다'의 명사형이다. 따라서 '%밀걸음%'이 아닌 '밀거름'으로 써야 한다.
746	밀받침			한글 맞춤법	밀받침'은 '밀'과 '받침'이 결합한 말이다. '받침'은 '바침'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받침'은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인 '받치다'의 명사형이고, '바침'은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의미인 '바치다'의 명사형이다. 따라서 '%밀바침%'이 아닌 '밀받침'으로 적어야 한다.
747	밀층			표준어 규정	밀층'과 '아래층'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48	바가지			한글 맞춤법	바가지'는 '박'에 '-아지'가 결합한 단어이다. 명사 뒤에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가지'로 적는다. '%박아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49	바깥벽			표준어 규정	바깥벽'과 '밭벽'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50	바깥양반			표준어 규정	바깥양반'과 '사랑양반'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51	바느질			한글 맞춤법	바느질'은 '바늘'과 '질'이 결합한 단어로 [바느질]로 소리 난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늘질%'이 아닌 '바느질'로 적는다.
752	바닷가			한글 맞춤법	바닷가'는 '바다'와 '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바다까/바달까]로 소리 난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바다가%'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53	바둑이			한글 맞춤법	바둑이'는 '바둑'과 '-이'가 결합한 말로 '바둑이'로 적는다. 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바두기%'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54	바라다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라다'가 표준어이고 '%바래다%'는 비표준어이다. 이에 따라 '소망(所望)'의 의미로 '바람'이 표준어이고, '%바램%'은 비표준어이다.
755	바람고다리			표준어 규정	%바람고다리%'는 '바람꼭지'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바람꼭지'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바람고다리%'는 비표준어이다.
756	바람꼭지			표준어 규정	바람꼭지'는 '%바람고다리%'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바람꼭지'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바람고다리%'는 비표준어이다.
757	바람꾼		O	표준어 규정	%바람꾼%'은 '바람둥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바람둥이'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바람꾼%'은 비표준어이다.
758	바래다	03	O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래다%'는 비표준어이고 '바라다'가 표준어이다.
759	바램		O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램%'은 비표

				준어이고 '바람'이 표준어이다.
760	바른		표준어 규정	바른'과 '오른'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61	바른손		표준어 규정	바른손'과 '오른손'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62	바른쪽		표준어 규정	바른쪽'과 '오른쪽'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63	바른편		표준어 규정	바른편'과 '오른편'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64	바심	02	표준어 규정	바심'과 '타작'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65	바치다	01	한글 맞춤법	바치다'는 소리가 비슷한 '받치다', '받히다', '밭치다'와 구분해야 한다.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뜻으로 '기울어진 책상을 나무토박으로 받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받히다'는 '발다'의 피동사로 '달려오는 차에 받혔다.'처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밭치다'는 '밭다'를 강조하여 이르거나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 등을 올려 물기를 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766	박달나무	01	표준어 규정	박달나무'는 '%배달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널리 쓰이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유어 '박달나무'는 표준어이고 한자어 '%배달나무%'는 비표준어이다.
767	반두	01	표준어 규정	반두'와 '%독대%'는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반두'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독대%'는 비표준어이다.
768	반드시		한글 맞춤법	반드시'는 소리가 같은 '반듯이'와 구분해야 한다. '반듯이'의 뜻은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이므로, '책상에 책을 반듯이 놓았다.'와 같이 쓴다.
769	반듯이		한글 맞춤법	반듯이'는 소리가 같은 '반드시'와 구분해야 한다. '반드시'이 뜻은 '틀림없이 꼭'이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와 같이 쓴다.
770	반질고리		한글 맞춤법	반질고리'는 '바늘'과 '질'이 결합한 '바느질'과 '고리'로 이루어진 말로 '반질고리'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질고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71	반찬		표준어 규정	반찬'과 '건건이'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72	반찰떡		O	표준어 규정	%반(半)찰떡%은 '메찰떡'과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인 '메찰떡'이 널리 쓰이고 한자어인 '%반찰떡%'은 그 용도를 잃게 되었으므로 '%반찰떡%'은 비표준어이고 '메찰떡'이 표준어이다.
773	받내다			한글 맞춤법	받내다'는 동사 '받다'와 '내다'가 결합한 말이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받내다%'가 아닌 '받내다'로 적는다.
774	받치다	02		한글 맞춤법	받치다'는 '받-'에 '-치-'가 더해진 말로, 용언의 어간에 '-치-'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받치다'로 적는다. '받치다'는 소리가 비슷한 '바치다', '받히다', '발치다'와 구분해야 한다. '바치다'는 '무엇을 정중하게 드리다'를 뜻하므로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사로 '달려오는 차에 받혔다.'처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발치다'는 '발다'를 강조하여 이르거나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 등을 올려 물기를 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775	받침			한글 맞춤법	받침'은 '바침'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받침'은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의 '받치다'의 명사형이고, '바침'은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의미의 '바치다'의 명사형이다.
776	받히다	01		한글 맞춤법	받히다'는 소리가 비슷한 '바치다', '받치다', '발치다'와 구분해야 한다. '바치다'는 '무엇을 정중하게 드리다'를 뜻하므로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뜻으로 '기울어진 책상을 나무토박으로 받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치다'는 '발다'를 강조하여 이르거나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 등을 올려 물기를 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777	발꿈치			한글 맞춤법	발꿈치'는 '발'과 '-꿈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발접미사 '-꿈치'와 '-꿈치' 중 '꿈치'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발꿈치%'가 아닌 '발꿈치'로 적는다.
778	발뒤꾸머리			표준어 규정	발뒤꾸머리'와 '발뒤꿈치'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79	발뒤꿈치			한글 맞춤법	발뒤꿈치'는 접미사 '-꿈치'와 '-꿈치' 중 '꿈치'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발뒷꿈치%'가 아닌 '발뒤꿈치'로

					적는다. 또한 '발뒤꿈치'는 '발뒤꾸머리'와 의미가 동일하고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발뒤꿈치'와 '발뒤꾸머리' 모두 표준어이다.
780	밥밀콩			표준어 규정	밥밀콩'은 '%반미(飯米)콩%'과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널리 쓰이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유어 '밥밀콩'이 표준어이고 한자어 '%반미콩%'은 비표준어이다.
781	밥빼기			한글 맞춤법	밥빼기'는 '밥'과 '-빼기'가 결합한 단어로 [밥빼기]로 소리 난다.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밥배기%'가 아닌 '밥빼기'로 적는다.
782	밥소라			표준어 규정	밥소라'는 '%식(食)소라%'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널리 쓰이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고유어 '밥소라'가 표준어이고 한자어 '%식소라%'는 비표준어이다.
783	방고래			표준어 규정	방(房)고래'는 '%구들고래%'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자어 '방고래'는 표준어이고 고유어 '%구들고래%'는 비표준어이다.
784	방나다	02		표준어 규정	방나다'는 '탁방나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준말과 본말이다 같이 널리 쓰이면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준말 '방나다'와 본말 '탁방나다' 모두 표준어이다.
785	발벽			표준어 규정	발벽'은 '바깥벽'이란 뜻으로,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깥'이 '발'으로 되어 '발벽'으로 적는다. '발벽'은 '바깥벽'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86	발부모			한글 맞춤법	발부모'는 '바깥부모'란 뜻으로, 단어의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깥'이 '발'으로 되어 '발부모'로 적는다.
787	발사돈			한글 맞춤법	발사돈'은 '바깥사돈'이란 뜻으로, 단어의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깥'이 '발'으로 되어 '발사돈'으로 적는다.
788	발상제			한글 맞춤법	발상제'는 '바깥상제'란 뜻으로, 단어의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깥'이 '발'으로 되어 '발

					상제'로 적는다.
789	발어버이			한글 맞춤법	발어버이'는 '바깥어버이'란 뜻으로, 단어의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깥'이 '발'으로 되어 '발어버이'로 적는다.
790	발쪽			한글 맞춤법	발쪽'은 '바깥쪽'이란 뜻으로, 단어의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바깥'이 '발'으로 되어 '발쪽'으로 적는다.
791	발치다			한글 맞춤법	발치다'는 '발-'에 '-치-'가 더해진 말로, 용언의 어간에 '-치-'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발치다'로 적는다. '발치다'는 소리가 비슷한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와 구분해야 한다. '바치다'는 '무엇을 정중하게 드리다'를 뜻하므로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뜻으로 '기울어진 책상을 나무토박으로 받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사로 '달려오는 차에 받혔다.'처럼 사용한다.
792	배내옷			표준어 규정	배내옷'과 '배넛저고리'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93	배넛니			표준어 규정	배넛니'와 '젓니'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94	배넛저고리			표준어 규정	배넛저고리'와 '배내옷'처럼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795	배뇨			한글 맞춤법	한자음 '뇨'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요'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배뇨%'로 적지 않는다.
796	배달나무		○	표준어 규정	%배달나무%'는 '박달나무'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널리 쓰이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자어 '%배달나무%'는 비표준어이고 고유어 '박달나무'가 표준어이다.
797	배때기			한글 맞춤법	배때기'는 '배'와 '비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 '-때기'가 결합한 말이다. 접미사 '-때기'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때기'가 올바른 표기이고 '%배때기%'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98	배얹이			한글 맞춤법	배얹이'는 '배'와 '얹-', '-이'가 결합한 말로 '배얹이'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배아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799	배암		O	표준어 규정	%배암%와 '뱀'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이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암%'은 비표준어이고 '뱀'만 표준어이다.
800	배암장어		O	표준어 규정	%배암장어%는 '%배암%'과 '장어'가 결합한 말이다. 본말인 '%배암%'보다 준말인 '뱀'이 더 널리 쓰이므로 '뱀'만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암장어%'도 비표준어이다.
801	백분율			한글 맞춤법	을/를'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을'로, 그밖의 경우에는 '를'로 적는다. 그러므로 %백분률%로 적지 않는다.
802	백하젓			표준어 규정	%백하젓%은 '새우젓'과 의미가 동일하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백하젓%'은 비표준어이고 '새우젓'은 표준어이다.
803	뱀			표준어 규정	뱀'과 '%배암%'은 준말과 본말의 관계이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뱀'은 표준어이고 '%배암%'은 비표준어이다.
804	뱃가죽			한글 맞춤법	뱃가죽'은 '배'와 '가죽'이 결합한 단어로 [배까죽/뱀까죽]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뱃가죽'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배가죽%'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05	뱃길			한글 맞춤법	뱃길'은 '배'와 '길'이 결합한 단어로 [배길/뱀길]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뱃길'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배길%'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06	뱃놀이	01		한글 맞춤법	뱃놀이'는 '배'와 '놀이'가 결합한 단어로 [뱌노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뱃놀이'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배놀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07	뱃병			한글 맞춤법	뱃병'은 '배'와 '병'이 결합한 단어로 [배뽕/뱌뽕]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뱃병'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

					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배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08	번득이다			한글 맞춤법	번득이다'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성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번드기다%'가 아닌 '번득이다'로 적는다.
809	번쩍			한글 맞춤법	번쩍'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번적%'이 아닌 '번쩍'으로 적는다.
810	번쩍이다			한글 맞춤법	번쩍이다'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성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번찌기다%'가 아닌 '번쩍이다'로 적는다.
811	번히			표준어 규정	번히'와 '번연히'는 준말과 본말의 관계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널리 쓰이면 둘 다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번히'와 '번연히' 모두 표준어이다.
812	벌거지		O	표준어 규정	%벌거지%'는 '벌레, '버러지', '%벌러지%'와 의미가 동일하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벌레'와 '버러지'는 표준어이나,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813	벌러지		O	표준어 규정	%벌러지%'는 '벌레, '버러지', '%벌거지%'와 의미가 동일하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벌레'와 '버러지'는 표준어이나,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814	벌레			표준어 규정	벌레'는 '버러지', '%벌거지%', '%벌러지%'와 의미가 동일하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벌레'와 '버러지'는 표준어이나,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815	벌이			한글 맞춤법	벌이'는 '벌다'의 '벌-'과 '-이'가 결합한 말로 '벌이'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버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16	법석	01		한글 맞춤법	법석'은 [법씩]으로 소리 나지만 '법석'으로 적는다. 이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만,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씩%'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

					다.
817	베갯잇			한글 맞춤법	베갯잇'은 '베개'와 '잇'이 결합한 단어로 [베갯닐]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베갯잇'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베갯잇%'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18	벽지다		○	표준어 규정	%벽(僻)지다%'는 '외지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널리 쓰이면 고유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자어 '%벽지다%'는 비표준어이고 고유어 '외지다'가 표준어이다.
819	범씨			한글 맞춤법	범씨'는 '범'과 '씨'가 결합한 단어로, 두 단어 사이에 'ㅂ' 소리가 덧나 [범씨]로 소리 나므로 '범씨'로 적는다. 이는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범씨%'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20	벧가리			한글 맞춤법	벧가리'는 '벼'와 '가리'가 결합한 단어로 [벼까리/벼까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벧가리'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벼가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21	병암죽		○	표준어 규정	%병암죽(餅飮粥)%'은 비표준어이고 '떡암죽(떡飮粥)'은 표준어이다. 한자어 계열의 단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822	보늬			한글 맞춤법	보늬'는 [보니]로 소리 나지만 '보늬'로 적는다. 이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ㄴ'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23	보리쌀			한글 맞춤법	보리쌀'은 '보리'와 '쌀'이 결합한 단어로 [보리쌀]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824	보릿짚모자		○	표준어 규정	%보릿짚모자%'는 '밀짚모자'와 의미가 동일한데,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밀짚모자'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보릿짚모자%'는 비표준어이다.
825	보조개			표준어 규정	보조개'는 '불우물'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보조개'의 의미로 쓰이는 '%조개불%'은 비표준어이다.
826	보통이		○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보통이%'는 비표준어이고 '보통이'가 표준어이다.

827	보통이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보통이'가 표준어이고 '%보통이%'는 비표준어이다.
828	복어	01		표준어 규정	복어'와 '복'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이다. 준말과 본말 모두 널리 쓰이면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복어'와 '복'은 복수 표준어이다.
829	본택			한글 맞춤법	한자음 '택/택'은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속음으로 나는 것은 속음으로 적는다. 그러므로 '%본택%'으로 적지 않는다.
830	본의	02		한글 맞춤법	본의'는 [보니/보니]로 소리 난다. 음절 '의'의 '니'는 'ㅣ'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이%'가 아닌 '본의'로 적는다.
831	볼때기			한글 맞춤법	볼때기'는 '볼'과 '비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 '-때기'가 결합한 말이다. 접미사 '-때기'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볼때기'가 올바른 표기이고 '%볼대기%'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32	봣둑			한글 맞춤법	봣둑'은 '보'와 '둑'이 결합한 단어로 [보둑/봣둑]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봣둑'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33	봣물			한글 맞춤법	봣물'은 '보'와 '물'이 결합한 단어로, [본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봣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34	봣일			한글 맞춤법	봣일'은 '보'와 '일'이 결합한 단어로 [본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봣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35	봉선화			표준어 규정	봉선화'는 '봉숭아'와 복수 표준어이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모두 널리 쓰이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836	봉숭아			표준어 규정	봉숭아'는 '봉선화'와 복수 표준어이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모두 널리 쓰이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837	봉숭화		○	표준어 규정	%봉숭화%'는 '봉선화', '봉숭아'와 의미가 동일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봉선화', '봉숭아'는 표준어이고 '%봉숭화%'는 비표준어이다.
838	부각	01	표준어 규정		부각'은 '%다시마자반%'과 의미가 동일한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부각'은 표준어이고 '%다시마자반%'은 비표준어이다.
839	부나비		한글 맞춤법		부나비'는 '불'과 '나비'가 결합한 말로 [부나비]로 소리난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소리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나비%'가 아닌 '부나비'로 적는다.
840	부딪치다		한글 맞춤법		부딪치다'는 '부딪-'에 '-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부딪치다'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치-'가 붙는 것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디치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부딪치다'는 발음이 비슷한 '부딪히다'와 구별해야 한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이다.
841	부딪히다		한글 맞춤법		부딪히다'는 '부딪-'에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부딪히다'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히-'가 붙는 것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디치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부딪히다'는 발음이 비슷한 '부딪치다'와 구별해야 한다. '부딪히다'는 '부딪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이고, '부딪치다'는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이다.
842	부뚜막		한글 맞춤법		부뚜막'은 [부뚜막]으로 소리 난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봏뚜막%'이 아닌 '부뚜막'으로 적는다.
843	부리나케		한글 맞춤법		부리나케'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하는 규정에 따라 '%불이날게%'나 '%불이나게%'가 아닌 '부리나케'로 적는다.
844	부삽	01	한글 맞춤법		부삽'은 '불'과 '삽'이 결합한 말로 [부삽]으로 소리 나므로 '부삽'으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경우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불삽%'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45	부손		한글 맞춤법		부손'은 '불'과 '손'이 결합한 단어로 [부손]으로 소리 나므로 '부손'으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불손%'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46	부스럼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부스럼'의 의미로 사용하는 '%부럼%'은 비표준어이다.
847	부시다	03	○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부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부시다%'는 비표준어이다.
848	부싧돌			한글 맞춤법	부싧돌'은 '부시'와 '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부싧돌/부싧돌]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부싧돌'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싧돌%'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49	부억		○	표준어 규정	발음 변화에 따라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들이 있다. '부억'의 의미로 '%부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억'만 표준어로 삼는다.
850	부억			표준어 규정	발음 변화에 따라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들이 있다. '부억'의 의미로 '%부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억'만 표준어로 삼는다.
851	부적하다	01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ㅌ'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따라서 '부적하다'는 한자 '불(不)'이 첫소리 'ㅌ' 앞에서 '부'로 읽히므로 '%불적하다%'로 적지 않고 '부적하다'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부주의(不注意)', '부당(不當)' 등이 있다.
852	부정	02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ㅌ'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따라서 '부정'은 한자 '불(不)'이 첫소리 'ㅌ' 앞에서 '부'로 읽히므로 '%불정%'으로 적지 않고 '부정'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부주의(不注意)', '부당(不當)' 등이 있다.
853	부정	03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ㅌ'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따라서 '부정'은 한자 '불(不)'이 첫소리 'ㅌ' 앞에서 '부'로 읽히므로 '%불정%'으로 적지 않고 '부정'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부주의(不注意)', '부당(不當)' 등이 있다.
854	부정	04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따라서 ‘부정’은 한자 ‘불(不)’이 첫소리 ‘ㅈ’ 앞에서 ‘부’로 읽히므로 ‘%불정%’으로 적지 않고 ‘부정’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부주의(不注意)’, ‘부당(不當)’ 등이 있다.
855	부조	03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와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부조’가 표준어이고, ‘%부조%’는 비표준어이다. 부조로 내는 돈도 ‘%부조금%’이 아닌 ‘부조금’이라고 적고 발음해야 한다.
856	부조금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와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부조’가 표준어이고, ‘%부조%’는 비표준어이다. 부조로 내는 돈도 ‘%부조금%’이 아닌 ‘부조금’이 표준어이다. ‘부조금’은 잔치와 같이 기쁜 일에나, 초상과 같이 슬픈 일에 내는 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축의금’은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으로 잔치나 결혼과 같이 기쁜 일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며, ‘조의금’, ‘조위금’, ‘부의금’은 초상과 같이 슬픈 일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857	부조리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따라서 ‘부조리’는 한자 ‘불(不)’이 첫소리 ‘ㅈ’ 앞에서 ‘부’로 읽히므로 ‘%불조리%’로 적지 않고 ‘부조리’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부주의(不注意)’, ‘부당(不當)’ 등이 있다.
858	부죡술		한글 맞춤법	‘부죡술’은 명사 ‘부조(扶助)’와 ‘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부조쑈/부죡쑈]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부죡술’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조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또한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죡술’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부조

					로 보내는 술'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부죤술'로 써야 한다. '부죤술'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잘 먹는 술'의 의미를 가진다.
859	부주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와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부주%'는 비표준어이고, '부조'가 표준어이다. 부조로 내는 돈도 '%부주금%'이 아닌 '부조금'이 표준어이다.
860	부주의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ㅌ'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따라서 '부주의'는 한자 '불(不)'이 첫소리 'ㅌ' 앞에서 '부'로 읽히므로 '%불주의%'로 적지 않고 '부주의'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부정(不正)', '부당(不當)' 등이 있다.
861	부질없다		한글 맞춤법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없다'를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부질없다'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시름없다', '하염없다' 등이 있다.
862	부치다		한글 맞춤법		'붙이다'는 '부치다'와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외에 '힘이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부채를 부치다' 등과 같이 '붙다'의 뜻과 관계가 없거나 '붙다'의 뜻에서 많이 멀어진 경우에 쓴다.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로 '우표를 붙이다, 불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등과 같이 '어떤 것을 붙게 하다'라는 뜻이 살아 있을 경우에 쓴다.
863	부터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조사 '부터'의 어원은 동사 '붙다'와 관련이 있지만, '부터'는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이므로 '붙-'을 밝히지 않고 '부터'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나마', '조차' 등이 있다.
864	분노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노/로'는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분노'는 본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노'로 적는다. 속음 '로'로 나는 것에는 '희로애락'가 있다.
865	불긋불긋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따라서 '불긋불긋'은 '%붉웃붉웃%'으로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거뭇거뭇', '자주' 등이 있다.



866	붙이다			한글 맞춤법	‘붙이다’는 ‘부치다’와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로 ‘우표를 붙이다, 불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등과 같이 ‘어떤 것을 붙게 하다’라는 뜻이 살아 있을 경우에 쓴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외에 ‘힘이 부치다, 논발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부채를 부치다’ 등과 같이 ‘붙다’의 뜻과 관계가 없거나 ‘붙다’의 뜻에서 많이 멀어진 경우에 쓴다.
867	비고란			한글 맞춤법	‘비고란(備考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 ‘란(欄)’이 한자어 ‘비고(備考)’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란(欄)’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아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비고란’으로 적는다.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비고란’과 같은 예로 ‘소식란(消息欄)’, ‘투고란(投稿欄)’ 등이 있다.
868	비구니			한글 맞춤법	한자음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비구니’로 적는다.
869	비뚜로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비뚜로’는 ‘비뚱-’에 ‘-오’가 붙어서 부사로 바뀐 것이므로 ‘비뚱-’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비로소’, ‘너무’ 등이 있다.
870	비로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비로소’는 옛말 ‘비룻-’에 ‘-오’가 붙어서 부사로 바뀌어 변화한 것이므로 ‘비룻-’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도로’, ‘차마’ 등이 있다.
871	비음	01	O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비음%’은 비표준어이고, ‘빔’이 표준어이다.
872	빈대떡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빈자떡%’은 안 쓰이게 되었으므로 ‘빈대떡’만 표준어로 삼는다.
873	빈자떡		O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빈자떡%’은 안 쓰이게 되었으므로 ‘빈대떡’만 표준어로 삼는다.
874	빈털터리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라도 어간

					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빈털터리'는 '%빈털털이%'로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코끼리', '너비' 등이 있다.
875	빌다	03	O	표준어 규정	'빌리다'의 의미로 '빌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빌리다'만 표준어로 삼고 '빌다'는 버린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와 같은 표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로 써야 한다. 다만 '용서를 빌다', '소원을 빌다', '명복을 빌다' 등에서 '빌다'는 표준어이다.
876	빌리다			표준어 규정	'이 자리를 빌어'와 같이 '빌리다'의 의미로 '빌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빌리다'만 표준어로 삼고 '빌다'는 버린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와 같은 표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로 써야 한다. 다만 '용서를 빌다', '소원을 빌다', '명복을 빌다' 등에서 '빌다'는 표준어이다.
877	빔	02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빔'이 표준어이고, '%비음%'은 비표준어이다.
878	빗물			한글 맞춤법	'빗물'은 명사 '비'와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빈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빗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비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879	빗장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빗장%'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빗장'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그까짓', '덧셈', '풋고추' 등이 있다.
880	빗갈			한글 맞춤법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빗갈'은 명사 '빗'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갈'이 결합된 것이므로 명사 '빗'을 밝혀 적는다. 또한 접미사 '-갈/-깔'은 '갈'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빗갈%'로 적지 않고 '빗갈'로 적는다.
881	빠뜨리다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치다%'는 버리고 '빠뜨리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또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빠뜨리다'와 '빠트리다'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882	빠치다	02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

					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치다%'는 비표준어이고, '빠뜨리다'가 표준어이다. 또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빠뜨리다'와 '빠트리다' 모두 표준어이다.
883	빠트리다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치다%'는 비표준어이고, '빠뜨리다'가 표준어이다. 또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빠뜨리다'와 '빠트리다' 모두 표준어이다.
884	빨가숭이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빨가숭이'가 표준어이고, '%빨가숭이%'는 비표준어이다.
885	뺨따귀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뺨따귀%'는 비표준어이고, '뺨따귀'가 표준어이다.
886	뺨따구니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뺨따구니%'는 비표준어이고, '뺨따귀'가 표준어이다.
887	뺨따귀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뺨따귀'가 표준어이고, '%뺨따구니%', '%뺨따귀%'는 비표준어이다.
888	빠개다	02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개다%'는 비표준어이고, '빠기다'가 표준어이다.
889	빠개다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개다'가 표준어이고, '%빠기다%'는 비표준어이다.
890	빠기다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기다'가 표준어이고, '%빠개다%'는 비표준어이다.
891	빠기다	02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

					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빠기다%’는 비표준어이고, ‘빠개다’가 표준어이다.
892	뺨장다리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뺨장다리%’는 비표준어이고, ‘뺨장다리’가 표준어이다.
893	뺨정다리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뺨정다리’가 표준어이고, ‘%뺨장다리%’는 비표준어이다.
894	뺨치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치-, -프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뺨치다’는 어간 ‘뺨-’에 접미사 ‘-치-’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뺨치다’로 적어야 한다.
895	뺨거숭이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뺨거숭이’가 표준어이고, ‘%뺨거숭이%’는 비표준어이다.
896	뽀새		O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뽀새%’는 비표준어이고, ‘뽀새’가 표준어이다.
897	삐죽이	01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삐죽이’가 올바른 표기이고, ‘%삐죽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898	사글세			표준어 규정	‘사글세’의 어원을 밝혀 ‘%삭월세%’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삭월세%’를 버리고 ‘사글세’만 표준어로 삼는다.
899	사돈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돈’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사돈’이 표준어이고, ‘%사둔%’은 비표준어이다.
900	사둔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돈’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사둔%’은 비표준어이고, ‘사돈’이 표준어이다.
901	사라지다			한글 맞춤법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사라지다’는 그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사라지다’로 적는다.
902	사람사람이			한글 맞춤법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

					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사람이’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된 것이므로 ‘사람사람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번번이’, ‘나날이’ 등이 있다.
903	사랑니			한글 맞춤법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따라서 명사 ‘사랑’과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사랑니’가 올바른 표기이고, ‘%사랑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904	사레			한글 맞춤법	‘계, 레, 메, 페, 헤’의 ‘ㄷ’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따라서 ‘사레’가 올바른 표기이고, ‘%사레%’는 잘못된 표기이다.
905	사뭇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사뭇’의 끝음절 받침을 ‘%사뭇%’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사뭇’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그까짓’, ‘뎃셈’, ‘똥고추’ 등이 있다.
906	사사건건이			한글 맞춤법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사건건이’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된 것이므로 ‘사건사건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번번이’, ‘나날이’ 등이 있다.
907	사자밥			한글 맞춤법	‘사자밥’은 명사 ‘사자’와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사:자뺨/사:자뺨]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사자뺨’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자뺨%’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908	사타구니			한글 맞춤법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따라서 ‘사타구니’는 ‘%살아구니%’로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바가지’, ‘이파리’ 등이 있다.
909	사탕	02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당/탕’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사탕’은 속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탕’으로 적는다. 본음 ‘당’으로 나는 것에는 ‘혈당’이 있다.
910	사흘날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사흘날’은 ‘사흘’과 ‘날’이 결합되었는데 ‘사흘’의 끝소리 ‘ㄹ’이 ‘날’과 어울려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므로 ‘%사흘날%’로 적지 않고 ‘사흘날’로 적는다. 이는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이튿날’, ‘술가락’ 등이 있다.
911	삭월세		O	표준어 규정	‘사글세’의 어원을 밝혀 ‘%삭월세%’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삭월세%’를 버리고 ‘사글세’만 표준어로 삼는다.
912	살림살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살림살이’는 ‘살-’에 ‘-이’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살-’을 밝혀 ‘살림살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달맞이’, ‘길이’ 등이 있다.
913	살불이			한글 맞춤법	‘살불이’는 [살부치]로 발음되는데,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살부치%’가 아닌 ‘살불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해돋이’, ‘훤이다’, ‘달히다’ 등이 있다.
914	살얼음판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살얼음판’이 표준어이고, ‘%살판%’은 비표준어이다.
915	살고기			한글 맞춤법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살’과 ‘고기’가 결합할 때 %[살고기]%가 아니라 [살고기]가 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살고기’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머리카락’, ‘햏쌀’ 등이 있다.
916	살팽이			한글 맞춤법	거센소리를 가진 ‘살팽이’의 의미로 ‘%살팽이%’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살팽이’만 표준어로 삼는다. ‘%살팽이%’의 발음 [삭팽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므로 ‘살팽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또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살팽이’와 ‘삶’은 모두 표준어이다.
917	살판	05	O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살판%’은 비표준어이고, ‘살얼음판’이 표준어이다.
918	삶팽이		O	한글 맞춤법	거센소리를 가진 ‘살팽이’의 의미로 ‘%삶팽이%’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살팽이’만 표준어로 삼는다. ‘%삶팽이%’의 발음 [삭팽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므로 ‘살팽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또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살랭이’와 ‘삶’은 모두 표준어이다.
919	삶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삶’은 ‘살-’에 ‘-ㅁ’이 결합한 것이므로 ‘살-’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갈음’, ‘고기볶음’ 등이 있다.
920	삼발이			한글 맞춤법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발이’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로 된 것이므로 ‘삼발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바둑이’, ‘점잔이’ 등이 있다.
921	삼질날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삼질날’은 ‘삼질’과 ‘날’이 결합되었는데 ‘삼질’의 끝소리 ‘ㄹ’이 ‘날’과 어울려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므로 ‘%삼질날%’로 적지 않고 ‘삼질날’로 적는다. 이는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이튿날’, ‘술가락’ 등이 있다.
922	삼촌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삼촌’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삼촌’이 표준어이고, ‘%삼촌%’은 비표준어이다.
923	삼촌		○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삼촌’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삼촌%’은 비표준어이고, ‘삼촌’이 표준어이다.
924	삿대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삿대%’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삿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그까짓’, ‘덧셈’, ‘풋고추’ 등이 있다.
925	상없다			한글 맞춤법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없다’를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상없다’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시름없다’, ‘하염없다’ 등이 있다.
926	상추	01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상추’를 표준어로 삼고, ‘%상치%’는 버린다.
927	상치	01	○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상추’를 표준어로 삼고, ‘%상치%’는 버린다.

928	새까맣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까맣다’가 표준어이고, ‘%새까맣다%’는 비표준어이다.
929	새벽별		○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벽별%’은 비표준어이고, ‘새별’이 표준어이다.
930	새빨갳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빨갳다’가 표준어이고, ‘%새빨갳다%’는 비표준어이다.
931	새암		○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암%’은 비표준어이고, ‘샘’이 표준어이다.
932	새양쥐		○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쥐과의 하나인 동물을 의미할 경우에는 ‘%새양쥐%’는 틀리고, ‘생쥐’가 맞다.
933	새집	01		한글 맞춤법	‘새로 이사하여 든 집’, ‘새로 맺은 사돈의 집’, ‘새색시’의 뜻으로 쓸 경우에는 ‘새집’으로 붙여 쓰지만, ‘새로 지은 집’의 뜻으로 쓸 경우에는 ‘새 집’으로 띄어 쓴다.
934	새치롬하다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치롬하다%’는 비표준어이고, ‘새치름하다’가 표준어이다.
935	새치름하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치름하다’가 표준어이고, ‘%새치롬하다%’는 비표준어이다.
936	새파랗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파랗다’가 표준어이고, ‘%새파랗다%’는 비표준어이다.
937	샘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샘’이 표준어이고, ‘%새암%’은 비표준어이다.
938	샘바르다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샘’이 표준어이므로, ‘샘바르다’가 표준어이고 ‘%새암바르다%’는 비표준어이다.
939	샘바리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샘’이 표준어이므로,



					'샘바리'가 표준어이고 '%새암바리%'는 비표준어이다.
940	샛강			한글 맞춤법	'샛강'은 명사 '새'와 '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새:강/쌔:강]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샛강'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강%'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941	샛길	01		한글 맞춤법	'샛길'은 명사 '새'와 '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새:길/쌔:길]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샛길'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길%'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942	샛까말다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샛까말다%'는 비표준어이고, '새까말다'가 표준어이다.
943	샛별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샛별'이 표준어이고, '%새벽별%'은 비표준어이다.
944	샛빨갈다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샛빨갈다%'는 비표준어이고, '새빨갈다'가 표준어이다.
945	샛파랗다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샛파랗다%'는 비표준어이고, '새파랗다'가 표준어이다.
946	생긋이			한글 맞춤법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렴풋이'는 '어렴풋하다'의 어근 '어렴풋-'에 접미사 '-이'를 더한 형식이다. 이러한 예로 '깨끗이', '꾸준히' 등이 있다.
947	생안손		0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생안손%'은 안 쓰이게 되었으므로 '생인손'만 표준어로 삼는다.
948	생인손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생안손%'은 안 쓰이게 되었으므로 '생인손'만 표준어로 삼는다.

949	생일빔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빔’이 표준어이므로 ‘생일빔’이 표준어이고, ‘%생일빔%’은 비표준어이다.
950	생쥐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쥐과의 하나인 동물을 의미할 경우에는 ‘생쥐’가 맞고, ‘%새앙쥐%’는 틀리다.
951	서	03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따라 ‘냥, 되, 섬, 자’ 앞에서는 ‘석’을 쓰고, ‘돈’, ‘말’, ‘밭’, ‘푼’ 앞에서는 ‘서’를 쓴다.
952	서두르다			표준어 규정	본말 ‘서두르다’와 준말 ‘서둘다’가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므로,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미 ‘-어’가 붙는 경우 ‘%서둘어%’를 인정하지 않고 ‘서둘러’만 인정한다.
953	서둘다			표준어 규정	준말 ‘서둘다’가 본말 ‘서두르다’와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므로,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미 ‘-어’가 붙는 경우 ‘%서둘어%’를 인정하지 않고 ‘서둘러’만 인정한다.
954	서럽다			표준어 규정	‘서럽다’와 ‘썰다’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서럽다’의 명사형은 ‘서러움’이고, ‘썰다’의 명사형은 ‘설움’이다. 또한 ‘%설다%’는 비표준어이다.
955	서령	01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서령%’은 비표준어이고, ‘설령’이 표준어이다.
956	서울깍쟁이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깍쟁이’를 표준어로 삼고 ‘%깍쟁이%’는 버린다. 따라서 ‘서울깍쟁이’가 표준어이다.
957	서울내기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울내기’와 같은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서울내기’가 표준어이고, ‘%서울나기%’는 비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등이 있다.
958	서투르다			표준어 규정	본말 ‘서투르다’와 준말 ‘서툴다’가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므로,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미 ‘-어’가 붙는

					경우 '%서톨어%'를 인정하지 않고 '서톨러'만 인정한다.
959	서톨다			표준어 규정	준말 '서톨다'가 본말 '서투르다'와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므로,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미 '-어'가 붙는 경우 '%서톨어%'를 인정하지 않고 '서톨러'만 인정한다.
960	석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따라 '돈', '말', '발', '푼' 앞에서는 '서'를 쓰고, '냥, 되, 섬, 자' 앞에서는 '석'을 쓴다.
961	선동이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선동이'가 표준어이고, '%선동이%'는 비표준어이다. 또한 '그런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동이'도 '-동이'가 표준어이고, '%-동이%'는 비표준어이다.
962	선짓국			한글 맞춤법	'선짓국'은 명사 '선지'와 '국'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선지국/선질국]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선짓국'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지국%'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963	설텔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설텔'은 '설텔'과 '달'이 결합되었는데 '설텔'의 끝소리 'ㄹ'이 '달'과 어울려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므로 '%설텔%'로 적지 않고 '설텔'로 적는다. 이는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이튿날', '술가락' 등이 있다.
964	설텔르다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설텔르다'는 '설텔'과 '부르다'가 결합되었는데 '설텔'의 끝소리 'ㄹ'이 '부르다'와 어울려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므로 '%설텔르다%'로 적지 않고 '설텔르다'로 적는다. 이는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이튿날', '술가락' 등이 있다.
965	설거지하다			표준어 규정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거지하다'가 표준어이고, '%설겅다%'는 비표준

					어이다.
966	설것다		O	표준어 규정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것다%’는 비표준어이고, ‘설거지하다’가 표준어이다.
967	설것이		O	표준어 규정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것이%’는 비표준어이고, ‘설거지’가 표준어이다.
968	설령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령’이 표준어이고, ‘%서령%’은 비표준어이다.
969	설빔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빔’이 표준어이므로 ‘설빔’이 표준어이고, ‘%설비음%’은 비표준어이다.
970	설움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설움’은 ‘설-’에 ‘-음’이 붙어서 된 것인데, ‘설-’은 우 불규칙 용언이므로 어간 끝의 ‘ㅂ’이 ‘우’로 바뀐 것을 그대로 밝혀 적어 ‘설움’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웃음’ 등이 있다.
971	설탕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당/탕’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설탕’은 본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탕’으로 적는다. 속음 ‘당’으로 나는 것에는 ‘혈당’이 있다.
972	설다			표준어 규정	‘설다’와 ‘서럽다’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서럽다’의 명사형은 ‘서러움’이고, ‘설다’의 명사형은 ‘설움’이다. 또한 ‘%설다%’는 비표준어이다.
973	성구	01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성구’가 표준어이고, ‘%성귀%’는 비표준어이다.
974	성구어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성구어’가 표준어이고, ‘%성귀어%’는 비표준어이다.
975	성귀		O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성귀%’는 비표준어이고, ‘성구’가 표준어이다.
976	-세요	03		한글 맞춤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세요'와 '-셔요'는 모두 표준어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977	셋돈			한글 맞춤법	'셋돈'은 명사 '세'와 '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세:돈/셀:돈]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셋돈'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돈%'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978	셋방			한글 맞춤법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다만, '셋방(貰房)', '곳간(庫間)',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등 여섯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979	셋째			표준어 규정	과거에 '셋째'는 수량을, '%세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한 적이 있었으나, 언어 현실에서 이러한 구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셋째'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980	-셔요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셔요'와 '-세요'는 모두 표준어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981	소-	18		표준어 규정	'소-'와 '쇠-'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982	소가죽			표준어 규정	'소가죽'과 '쇠가죽'은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983	소가지			한글 맞춤법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소가지'는 '속'에 '-아지'가 결합된 것이므로 '속'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바가지', '이파리' 등이 있다.
984	소고기			표준어 규정	'소고기'와 '쇠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985	소금장이		○	표준어 규정	접사 '-장이', '-쟁이'는 구별해서 써야 하는데,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소금쟁이'는 소금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곤충의 이름이므로 '-쟁이'가 붙은 형태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따라서 '%소금장이%'는 비표준어이고, '소금쟁이'가 표준어이다.
986	소금쟁이			표준어 규정	접사 '-장이', '-쟁이'는 구별해서 써야 하는데, 기술자

					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소금쟁이’는 소금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곤충의 이름이므로 ‘-쟁이’가 붙은 형태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소금쟁이’가 표준어이고, ‘%소금장이%’는 비표준어이다.
987	소금적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소금적%’은 비표준어이고, ‘소금쩍’이 표준어이다.
988	소금쩍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소금쩍’이 표준어이고, ‘%소금적%’은 비표준어이다.
989	소기름			표준어 규정	‘소기름’과 ‘쇠기름’은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990	소녀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소녀’로 적는다.
991	소리개		○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소리개%’는 비표준어이고, ‘솔개’가 표준어이다.
992	소머리			표준어 규정	‘소머리’와 ‘쇠머리’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993	소뻘			표준어 규정	‘소뻘’과 ‘쇠뻘’은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994	속껍데기			표준어 규정	‘ ’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속껍데기’와 같은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속껍데기’가 표준어이고, ‘%속껍더기%’는 비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등이 있다.
995	속삭이다			한글 맞춤법	‘속삭이다’의 ‘속삭’은 ‘속닥거리다’의 어근이다. 이와 같은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따라서 ‘속삭이다’가 올바른 표기이고, ‘%속삭기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996	숨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숨음’은 ‘숨-’에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숨-’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고기볶음’ 등이 있다.
997	손구루마		○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

					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손구루마%'는 비표준어이고, '손수레'가 표준어이다.
998	손님맞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손님맞이'는 '맞-'에 '-이'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맞-'을 밝혀 '손님맞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해돋이', '손잡이' 등이 있다.
999	손목시계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손목시계'가 표준어이고, '%팔목시계%', '%팔뚝시계%'는 비표준어이다.
1000	손수레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손수레'가 표준어이고, '%손구루마%'는 비표준어이다.
1001	손잡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손잡이'는 '잡-'에 '-이'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잡-'을 밝혀 '손잡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뱃놀이', '하루살이' 등이 있다. 또한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잡이'가 표준어이고, '%손잡이%'는 비표준어이다.
1002	솔개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솔개'가 표준어이고, '%소리개%'는 비표준어이다.
1003	숫구다	01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숫구다'는 어간 '숫-'에 접미사 '-구-'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숫구다'로 적어야 한다.
1004	송곳니			한글 맞춤법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따라서 명사 '송곳'과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송곳니'가 올바른 표기이고, '%송곳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1005	송이	01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송이'가 표준어이고, '%송이%'는 비표준어이다.
1006	쇠-	05		표준어 규정	'소-'와 '쇠-'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1007	쇠가죽			표준어 규정	'쇠가죽'과 '소가죽'은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1008	쇠고기			표준어 규정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1009	쇠기름			표준어 규정	‘쇠기름’과 ‘소기름’은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1010	쇠꼬창이		O	표준어 규정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쇠꼬챙이’와 같은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쇠꼬창이%’는 비표준어이고, ‘쇠꼬챙이’가 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등이 있다.
1011	쇠꼬챙이			표준어 규정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쇠꼬챙이’와 같은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쇠꼬챙이’가 표준어이고, ‘%쇠꼬창이%’는 비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등이 있다.
1012	쇠머리			표준어 규정	‘쇠머리’와 ‘소머리’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1013	쇠버즘		O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쇠버즘%’은 비표준어이고, ‘쇠버짐’이 표준어이다.
1014	쇠버짐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쇠버짐’이 표준어이고, ‘%쇠버즘%’는 비표준어이다.
1015	쇠뼈			표준어 규정	‘쇠뼈’와 ‘소뼈’는 모두 표준어이다. ‘쇠-’가 전통적인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서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1016	씻조각			한글 맞춤법	‘씻조각’은 명사 ‘씻’과 ‘조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씻조각/썰조각]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씻조각’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씻조각%’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017	수개미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개미%’, ‘%숫개미%’는 비표준어이고, ‘수개미’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



					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18	수거미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커미%', '%숫거미%'는 비표준어이고, '수거미'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19	수평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평%', '%숫평%'은 비표준어이고, '수평'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0	수나비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나비%'는 비표준어이고, '수나비'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1	수나사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나사%'는 비표준어이고, '수나사'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2	수놈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놈%'은 비표준어이고, '수놈'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3	수두룩하다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수두룩하다'가 표준어이고, '%수둑하다%'는 비표준어이다.
1024	수둑하다		○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수둑하다%'는 비표준어이고, '수두룩하다'가 표준어이다.
1025	수락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낙/락'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수락'은 속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락'으로 적는다. 본음 '낙'으로 나는 것에는 '승낙'이 있다.
1026	수사돈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사돈%'은 비표준어이고, '수사돈'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7	수소	01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

					소%'는 비표준어이고, '수소'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캐', '수강아지',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8	수술	01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술%'은 비표준어이고, '수술'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29	수양	01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양'과 같은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따라서 '%수양%'은 비표준어이고, '숫양'이 표준어이다.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숫염소', '숫쥐'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도 인정한다.
1030	수염소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염소'와 같은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따라서 '%수염소%'는 비표준어이고, '숫염소'가 표준어이다.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숫양', '숫쥐'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도 인정한다.
1031	수은행나무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은행나무%'는 비표준어이고, '수은행나무'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32	수줍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수줍음'은 '수줍-'에 '-음'이 결합된 것이므로 '수줍-'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그을음' 등이 있다.
1033	수쥐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쥐'와 같은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따라서 '%수쥐%'는 비표준어이고, '숫쥐'가 표준어이다.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

				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숫양’, ‘숫염소’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도 인정한다.
1034	수강아지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강아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강아지%’, ‘%숫강아지%’는 비표준어이고, ‘수강아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개,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개, 암탉,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개,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개,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35	수캐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캐’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캐%’, ‘%숫캐%’는 비표준어이고, ‘수캐’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36	수캐미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캐미%’, ‘%숫캐미%’는 비표준어이고, ‘수캐미’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37	수커미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커미%’, ‘%숫커미%’는 비표준어이고, ‘수커미’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

				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38	수컷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컷'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컷%', '%숫컷%'은 비표준어이고, '수컷'이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닭,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39	수꿩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수꿩%', '%숫꿩%'은 비표준어이고, '수꿩'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40	수키와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키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키와%', '%숫키와%'는 비표준어이고, '수키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닭,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41	수탉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탉'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닭%', '%숫닭%'은 비표준어이고, '수탉'이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42	수탕나귀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탉’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당나귀%’, ‘%숫당나귀%’는 비표준어이고, ‘수탕나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43	수톨찌귀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톨찌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돌찌귀%’, ‘%숫돌찌귀%’는 비표준어이고, ‘수톨찌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44	수돼지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돼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돼지%’, ‘%숫돼지%’는 비표준

					어이고, '수돼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병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병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개', '수강아지',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45	수평아리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평아리'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병아리%', '%숫병아리%'는 비표준어이고, '수평아리'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닭'이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닭'이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닭'이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탉'이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46	숙덕이다			한글 맞춤법	'숙덕이다'의 '숙덕'은 '숙덕거리다'의 어근이다. 이와 같은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따라서 '숙덕이다'가 올바른 표기이고, '%숙덕기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1047	술가락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술가락'은 '술'과 '가락'이 결합되었는데 '술'의 끝소리 'ㄹ'이 '가락'과 어울려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므로 '%술가락%'로 적지 않고 '술가락'로 적는다. 이는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이튿날', '술가락' 등이 있다.
1048	술고래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술고래'가 표준어이고, '%술꾸러기%', '%술보%', '%술부대%', '%술푸대%'는 비표준어이다.
1049	술꾸러기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

					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술꾸러기%'는 비표준어이고, '술고래'가 표준어이다.
1050	술보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술보%'는 비표준어이고, '술고래'가 표준어이다.
1051	술부대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술부대%'는 비표준어이고, '술고래'가 표준어이다.
1052	술푸대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술푸대%'는 비표준어이고, '술고래'가 표준어이다.
1053	숫강아지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강아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강아지%', '%수강아지%'는 비표준어이고, '수강아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개,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개, 암탉,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개,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개,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54	숫개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개'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개%', '%수개%'는 비표준어이고, '수개'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

					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55	숫것	02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컷’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것%’, ‘%수것%’은 비표준어이고, ‘수컷’이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56	숫기와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키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기와%’, ‘%수기와%’는 비표준어이고, ‘수키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57	숫평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평%’, ‘%수평%’은 비표준어이고, ‘수평’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58	숫나사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나사%’는 비표준어이고, ‘수나사’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59	숫놈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놈%’은 비표준어이고, ‘수놈’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



					정에 따라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60	숫닭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탉’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닭%’, ‘%수닭%’은 비표준어이고, ‘수탉’이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캐,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61	숫당나귀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탉’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당나귀%’, ‘%수당나귀%’는 비표준어이고, ‘수탕나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캐,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62	숫돌쩌귀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톨쩌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돌쩌귀%’, ‘%수돌쩌귀%’는 비표준어이고, ‘수톨쩌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캐,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63	숫돼지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돼지’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돼지%’, ‘%수돼지%’는 비표준어이고, ‘수돼지’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평아리’가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64	숫병아리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수평아리’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숫병아리%’, ‘%수병아리%’는 비표준어이고, ‘수병아리’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암ㅎ’에 ‘강아지, 개, 닭’이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개, 암탉’이 되고, ‘수ㅎ’에 ‘강아지, 개, 닭’이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개, 수탉’이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ㅎ’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숫양’, ‘숫염소’, ‘숫쥐’도 인정한다.
1065	숫사돈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사돈%’은 비표준어이고, ‘수사돈’이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66	숫소		O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소%’는 비표준어이고, ‘수소’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

				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탈’,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태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67	숫양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양’과 같은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따라서 ‘%수양%’은 비표준어이고, ‘숫양’이 표준어이다.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숫염소’, ‘숫쥐’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탈’,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태지’, ‘수평아리’도 인정한다.
1068	숫염소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염소’와 같은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따라서 ‘%수염소%’는 비표준어이고, ‘숫염소’가 표준어이다.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숫양’, ‘숫쥐’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탈’,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태지’, ‘수평아리’도 인정한다.
1069	숫은행나무	○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따라서 ‘%숫은행나무%’는 비표준어이고, ‘숫은행나무’가 표준어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탈’,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태지’, ‘수평아리’, ‘숫양’, ‘숫염소’, ‘숫쥐’는 인정한다.
1070	숫자		한글 맞춤법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다만, ‘숫자(數字)’, ‘곳간(庫間)’, ‘셋방(貰房)’,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등 여섯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1071	숫쥐		표준어 규정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숫쥐’와 같은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따라서 ‘%수쥐%’는 비표준어이고, ‘숫쥐’가 표준어이다.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숫양’, ‘숫염소’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탈’,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태지’, ‘수평아리’도 인정한다.

1072	송이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송이%’는 비표준어이고, ‘송이’가 표준어이다.
1073	숯정이			한글 맞춤법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숯정이’는 명사 ‘숯’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정’이 결합된 것이므로 명사 ‘숯’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빛깔’, ‘값지다’ 등이 있다.
1074	스물두째			표준어 규정	‘제2, 두 개째’의 뜻으로는 ‘둘째’가 표준어이고 ‘%두째%’는 비표준어이지만,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는 ‘두째’로 적는다. 즉 차례를 나타내는 ‘스물두 번째’의 뜻으로는 ‘스물두째’를 쓰고(이 자리는 앞에서부터 스물두째 자리이다), 수량을 나타내는 ‘스물두 개째’의 뜻으로는 ‘스물둘째’를 쓴다(딸기를 벌써 스물둘째 먹었다).
1075	스물둘째			표준어 규정	‘제2, 두 개째’의 뜻으로는 ‘둘째’가 표준어이고 ‘%두째%’는 비표준어이지만,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는 ‘두째’로 적는다. 즉 수량을 나타내는 ‘스물두 개째’의 뜻으로는 ‘스물둘째’를 쓰고(딸기를 벌써 스물둘째 먹었다), 차례를 나타내는 ‘스물두 번째’의 뜻으로는 ‘스물두째’를 쓴다(이 자리는 앞에서부터 스물두째 자리이다).
1076	슬며시			한글 맞춤법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슬며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슬며시’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갑자기, 반드시’ 등이 있다.
1077	승낙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낙/락’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승낙’은 본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낙’으로 적는다. 속음 ‘락’으로 나는 것에는 ‘수락’이 있다.
1078	시골내기			표준어 규정	‘ㄴ’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시골내기’와 같은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시골내기’가 표준어이고, ‘%시골나기%’는 비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서울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등이 있다.
1079	시구	08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시구’가 표준어이고, ‘%시귀%’는 비표준어이다.
1080	시귀	01	O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시귀%’는 비표준어이고, ‘시구’가 표준어이다.
1081	시늬시늬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시늬시늬%’은 비표준어이고, ‘시름시름’이 표준어이다.
1082	시덥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택/덥’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시덥’은 속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덥’으로 적는다. 본음 ‘택’으로 나는 것에는 ‘자택’이 있다.
1083	시름시름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시름시름’이 표준어이고, ‘%시늬시늬%’은 비표준어이다.
1084	시름없다			한글 맞춤법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없다’를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시름없다’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열없다’, ‘하염없다’ 등이 있다.
1085	시삼춘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삼춘’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시삼춘’이 표준어이고, ‘%시삼춘%’은 비표준어이다.
1086	시원찮다			한글 맞춤법	‘시원찮다’는 ‘시원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인데, 어간 끝의 ‘하’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찮다’로 적는다. ‘하’ 앞의 말이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난 경우 이와 같은 축약이 일어나고(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간편하게→간편케), 마찰음이나 파열음으로 끝난 경우 ‘하’가 아주 탈락한다(못하지→못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1087	시월	01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십/시’는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시월’은 속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시’로 적는다. 따라서 ‘%십월%’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본음 ‘십’으로 나는 것에는 ‘십일(十日)’이 있다.
1088	시키다	01		한글 맞춤법	‘시키다’는 ‘식히다’와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시키다’는 ‘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시킨다’와 같이 쓴다. ‘식히다’는 ‘식다’의 사동사로, ‘뜨거운 물을 바람에 식힌다’와 같이 쓴다.
1089	식히다			한글 맞춤법	‘식히다’는 ‘시키다’와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식히다’는 ‘식다’의 사동사로, ‘뜨거운 물을 바람에 식힌다’와 같이 쓴다. ‘시키다’는 ‘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선생

					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시킨다'와 같이 쓴다.
1090	신기롭다	01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신기롭다'가 표준어이고, '%신기스럽다%'는 비표준어이다.
1091	신기롭다	02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신기롭다'가 표준어이고, '%신기스럽다%'는 비표준어이다.
1092	신기스럽다	01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신기스럽다%'는 비표준어이고, '신기롭다'가 표준어이다.
1093	신기스럽다	02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신기스럽다%'는 비표준어이고, '신기롭다'가 표준어이다.
1094	신여성	01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신여성'에서는 '여'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신여성'은 '여성'에 '신-'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신녀성%'으로 적지 않는다.
1095	신출내기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신출내기'와 같은 일부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신출내기'가 표준어이고, '%신출나기%'는 비표준어이다. 이러한 예로 '서울내기', '시골내기', '꽃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등이 있다.
1096	싫증			한글 맞춤법	'싫증'은 '싫다'의 어간 '싫-'에 '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싫증'이 올바른 표기이고, '%싫증%'은 잘못된 표기이다.
1097	심술꾸러기			표준어 규정	'심술꾸러기'와 '심술쟁이'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098	심술쟁이			표준어 규정	'심술쟁이'와 '심술꾸러기'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099	심술통이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심술통이%는 비표준어이고, '심술통이'가 표준어이다.
1100	심술통이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심술통이'

					가 표준어이고, '%심술통이%'는 비표준어이다.
1101	심심찮다			한글 맞춤법	‘심심찮다’는 ‘심심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인데, 어간 끝의 ‘하’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찮다’로 적는다. ‘하’ 앞의 말이 모음이나 올림소리로 끝난 경우 이와 같은 축약이 일어나고(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간편하게→간편케), 마찰음이나 파열음으로 끝난 경우 ‘하’가 아주 탈락한다(못하지→못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1102	싸느랴다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싸느랴다’가 표준어이고, '%싸느랴다%'는 비표준어이다.
1103	싸느랴다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싸느랴다%'는 비표준어이고, ‘싸느랴다’가 표준어이다.
1104	싸라기			한글 맞춤법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따라서 ‘싸라기’는 '%쌀아기%'로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바가지’, ‘이파리’ 등이 있다.
1105	싸전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싸전’은 ‘쌀-전’에서 온 말이지만 ‘쌀’의 끝소리 ‘ㄹ’이 소리 나지 않으므로 '%쌀전%'으로 적지 않고 ‘싸전’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따님’, ‘여달이’ 등이 있다.
1106	씩씩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씩씩하다%'가 아닌 ‘씩씩하다’로 적어야 한다.
1107	쌈쌈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쌈쌈하다%'가 아닌 ‘쌈쌈하다’로 적어야 한다.
1108	쌍둥이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쌍둥이’가 표준어이고, %쌍둥이%는 비표준어이다. 또한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둥이’도 ‘-둥이’가 표준어이고, '%-둥이%'는 비표준어이다.
1109	쌍이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쌍이다’는 어간 ‘쌍-’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

					를 밝혀 ‘쌓이다’로 적어야 한다.
1110	씩씩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씩씩%’이 아닌 ‘씩씩’으로 적어야 한다.
1111	씩이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씩이다’는 어간 ‘씩-’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씩이다’로 적어야 한다.
1112	썸벅썸벅	02	O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썸벅썸벅%’은 비표준어이고, ‘썸벅썸벅’이 표준어이다.
1113	쏟뜨리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치-, -뜨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쏟뜨리다’는 어간 ‘쏟-’에 접미사 ‘-뜨리-’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쏟뜨리다’로 적어야 한다.
1114	쏟트리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치-, -뜨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쏟트리다’는 어간 ‘쏟-’에 접미사 ‘-트리-’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쏟트리다’로 적어야 한다.
1115	쓰러지다			한글 맞춤법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쓰러지다’는 그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쓰러지다’로 적는다.
1116	씩씩씩씩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씩씩씩씩%’이 아닌 ‘씩씩씩씩’으로 적어야 한다.
1117	썸벅썸벅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썸벅썸벅’이 표준어이고, ‘%썸벅썸벅%’은 비표준어이다.
1118	썹썹레하다			표준어 규정	‘썹썹레하다’와 ‘썹썹름하다’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119	썹썹름하다			표준어 규정	‘썹썹름하다’와 ‘썹썹레하다’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120	썹썹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썹썹하다%’가 아닌 ‘썹썹하다’로 적어야 한다.
1121	씨받이			한글 맞춤법	‘씨받이’는 [씨바지]로 발음되는데,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씨바지%’가 아닌 ‘씨받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해돋이’, ‘훤이다’, ‘달히다’ 등이 있다.
1122	씩씩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씩씩%’이 아닌 ‘씩씩’으로 적어야 한다.
1123	아기	01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기’가 표준어이고, ‘%애기%’는 비표준어이다.
1124	아내	01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아내’가 표준어이고, ‘%안해%’는 비표준어이다.
1125	아드님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아드님’은 ‘아들-님’에서 온 말이지만 ‘아들’의 끝소리 ‘ㄹ’이 소리 나지 않으므로 ‘%아들님%’으로 적지 않고 ‘아드님’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따님’, ‘여달이’ 등이 있다.
1126	아래알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아래알’이 표준어이고, ‘%아랫알%’은 비표준어이다.
1127	아랫니			한글 맞춤법	‘아랫니’는 명사 ‘아래’와 ‘이[齒]’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아랜니]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아랫니’로 적는다. ‘이[齒]’는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또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아래니%’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28	아랫마을			한글 맞춤법	‘아랫마을’은 명사 ‘아래’와 ‘마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아랜마을]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아랫마을’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래마을%’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29	아랫목			표준어 규정	아랫목’은 명사 ‘아래’와 ‘목’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아랜목]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아랫목’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

					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래목%'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30	아랫방			한글 맞춤법	'아랫방'은 명사 '아래'와 '방'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아래뽕/아랫뽕]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아랫방'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래방%'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31	아랫알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아랫알%'은 비표준어이고, '아래알'이 표준어이다.
1132	아랫자리			표준어 규정	아랫자리'는 명사 '아래'와 '자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아래짜리/아랫짜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아랫자리'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래자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33	아랫집			한글 맞춤법	'아랫집'은 명사 '아래'와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아래짹/아랫짹]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아랫집'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래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34	아름	01		한글 맞춤법	'아름'은 '알음'과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아름'은 '둘레, 둘레의 길이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세 아름 되는 둘레'와 같이 쓴다. '알음'은 '아는 일이나 지혜가 있음' 등을 나타내므로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와 같이 쓴다.
1135	아무렇다			한글 맞춤법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지만,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아무렇다'의 경우에 그 발음은 [아무러타]이지만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졌다고 보아 '아무렇다'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와 같이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1136	아무튼			한글 맞춤법	'아무튼', '하여튼' 등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현재 부사로 굳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부사 ‘아무튼’은 ‘%아뭇튼%’으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을 ‘%이러튼%’, ‘%저러튼%’, ‘%그러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부사 ‘어떻든’은 형용사 ‘어떻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튼%’으로 적지 않는다.
1137	아비	01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비’가 표준어이고, ‘%에비%’는 비표준어이다.
1138	아서	01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아서’가 표준어이고, %앗아%는 비표준어이다.
1139	아서라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아서라’가 표준어이고, %앗아라%는 비표준어이다.
1140	아지랑이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지랑이’가 표준어이고, ‘%아지랭이%’는 비표준어이다.
1141	아지랭이		O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지랭이%’는 비표준어이고, ‘아지랑이’가 표준어이다.
1142	안녕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녕/령’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안녕’은 본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녕’으로 적는다. 속음 ‘령’으로 나는 것에는 ‘의령’이 있다.
1143	안사돈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으로 변화한 것을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돈’과 같은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안사돈’이 표준어이고, ‘%안사둔%’은 비표준어이다.
1144	안절부절못하다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이고, ‘%안절부절하다%’는 비표준어이다.
1145	안절부절하다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안절부절하다%’는 비표준어이고,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이다.
1146	안치다	02		한글 맞춤법	‘안치다’는 ‘앓히다’와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안치다’는 ‘밥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등을 의미하므로, '밥을 안쳤다'와 같이 쓴다. '얹히다'는 '얹다'의 사동사로, '윗자리에 앉혔다'와 같이 쓴다.
1147	안팎			한글 맞춤법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안'과 '밖'이 결합할 때 %[안밖]%이 아니라 [안팎]이 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안팎'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머리카락', '햏쌀' 등이 있다.
1148	안해	02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안해%'는 비표준어이고, '아내'가 표준어이다.
1149	얹히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얹히다'는 어간 '얹-'에 접미사 '-히-'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얹히다'로 적어야 한다.
1150	얹다			한글 맞춤법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지만,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얹다'의 경우에 그 발음은 [안타]이지만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졌다고 보아 '얹다'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얹고', '얹지', '얹든지'와 같이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1151	알각쟁이			표준어 규정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인 '각쟁이'를 표준어로 삼고 '%각쟁이%'는 버린다. 따라서 '알각쟁이'가 표준어이다.
1152	알사탕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알사탕'이 표준어이고, '%구슬사탕%'은 비표준어이다.
1153	알은척			표준어 규정	'알은척'과 '알은체'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154	알은체			표준어 규정	'알은체'와 '알은척'은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155	알음			한글 맞춤법	'알음'은 '아름'과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알음'은 '아는 일이나 지혜가 있음' 등을 나타내므로 '전부터 알음에 있는 사이'와 같이 쓴다. '아름'은 '둘레, 둘레의 길이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세 아름 되는 둘레'와 같이 쓴다.
1156	알타리무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

				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총각무’가 표준어이고, ‘알무’와 ‘알타리무’는 비표준어이다.
1157	얹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얹’은 ‘알-’에 ‘-ㅁ’이 결합한 것이므로 ‘알-’을 밝혀 적는다. 또한 ‘얹’, ‘알음’, ‘아름’은 각각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얹’은 ‘얹이 힘이다’처럼 일반적인 아는 일을 나타낼 때에 쓰인다. 한편, ‘알음’은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에서처럼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을 뜻하며, ‘아름’은 ‘세 아름 되는 돌레’에서처럼 돌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다.
1158	암내	02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암내’가 표준어이고, ‘%결탐내%’는 비표준어이다.
1159	암개		표준어 규정	암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암-’이다. ‘암개’와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암개%’는 비표준어이고, ‘암개’가 표준어이다. 접두사 ‘수-’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고,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는 언어현실을 존중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암강아지’, ‘암개’,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돼지’, ‘암평아리’가 있다.
1160	암컷		표준어 규정	암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암-’이다. ‘암컷’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암컷%’는 비표준어이고, ‘암컷’이 표준어이다. 접두사 ‘수-’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고,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는 언어현실을 존중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암강아지’, ‘암개’,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돼지’, ‘암평아리’가 있다.
1161	암탉		표준어 규정	암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암-’이다. ‘암탉’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암닭%’는 비표준어이고, ‘암탉’이 표준어이다. 접두사 ‘수-’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가 되고, ‘암ㅎ’에 ‘강아지,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이와 같은 단어는 '암캉아지', '암개',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찌귀', '암돼지', '암평아리'가 있다.
1162	앗아라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앗아라%는 비표준어이고, '아서라'가 표준어이다.
1163	앙갚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앙갚음'은 '앙갚-'에 '-음'이 결합된 것이므로 '앙갚-'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그을음' 등이 있다.
1164	앞니			한글 맞춤법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따라서 명사 '앞'과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앞니'가 올바른 표기이고, '%앞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1165	앞앞이			한글 맞춤법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앞이'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된 것이므로 '앞앞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번번이', '나날이' 등이 있다.
1166	앞장	01		한글 맞춤법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앞장'은 명사 '앞'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장'이 결합된 것이므로 명사 '앞'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빛깔', '값지다' 등이 있다.
1167	애기	01	O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기%'는 비표준어이고, '아기'가 표준어이다.
1168	애달프다			표준어 규정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애달프다'가 표준어이고, '%애닢다%'는 비표준어이다.
1169	애닢다		O	표준어 규정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애닢다%'는 비표준어이고, '애달프다'가 표준어이다.
1170	애벌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따라 '애벌'과 '초벌'은 모두 표준어이다.
1171	애벌레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애벌레'가 표준어이고, '%어린벌레%'는

					비표준어이다.
1172	애순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방언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방언인 ‘애순’이 표준어인 ‘어린순’보다 널리 쓰이게 되었으나 원래의 표준어 ‘어린순’도 표준어로 남겨 두어 둘 다 표준어이다.
1173	야발단지			표준어 규정	‘야발단지’와 함께 ‘야발쟁이’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1174	야발장이		O	표준어 규정	접사 ‘-장이’, ‘-쟁이’는 구별해서 써야 하는데,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야발쟁이’는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이’가 붙은 형태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야발장이%’는 비표준어이고, ‘야발쟁이’가 표준어이다.
1175	야발쟁이			표준어 규정	접사 ‘-장이’, ‘-쟁이’는 구별해서 써야 하는데,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야발쟁이’는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이’가 붙은 형태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야발쟁이’가 표준어이고, ‘%야발장이%’는 비표준어이다.
1176	얹남거리다		O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얹남거리다%’는 비표준어이고, ‘얹남거리다’가 표준어이다.
1177	얹남이		O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얹남이%’는 비표준어이고, ‘얹남이’가 표준어이다.
1178	양념감			표준어 규정	‘양념감’과 ‘양념거리’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서 ‘감’과 ‘거리’는 유사한 의미이다.
1179	양념거리			표준어 규정	‘양념거리’와 ‘양념감’은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서 ‘감’과 ‘거리’는 유사한 의미이다.
1180	양치물			한글 맞춤법	‘양치물’은 명사 ‘양치’와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양친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양치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치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181	어구	07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어구’가 표준어이고, ‘%어귀%’는 비표준어이다.
1182	어귀	02	O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어귀%’는 비표준어이고, ‘어구’가 표준어이다.
1183	어금니			한글 맞춤법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따라서 ‘어금니’가 올바른 표기이고, ‘%어금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1184	어떻다			한글 맞춤법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지만,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어떻다’의 경우에 그 발음은 [어떠타]이지만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졌다고 보아 ‘어떻다’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떻고, 어떻게, 어떻게지’와 같이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1185	어떻든			표준어 규정	‘어떻든’,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은 의미 차이 없이 모두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1186	어렴풋이			한글 맞춤법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렴풋이’는 ‘어렴풋하다’의 어근 ‘어렴풋-’에 접미사 ‘-이’를 더한 형식이다. 이러한 예로 ‘깨끗이’, ‘꾸준히’ 등이 있다.
1187	어름	01		한글 맞춤법	‘어름’은 ‘얼음’과 발음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의미에 따라 각각 구별해서 써야 한다. ‘어름’은 ‘두 사물의 끝이 맞닿은 데’나 ‘구역과 구역의 경계’ 등을 의미하므로,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과 같이 쓴다.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 등을 의미하므로 ‘얼음이 얼었다’와 같이 쓴다.
1188	어린벌레		O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어린벌레%’는 비표준어이고, ‘애벌레’가 표준어이다.
1189	어린순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방언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방언인 ‘애순’이 표준어인 ‘어린순’보다 널리 쓰이게 되었으나 원래의 표준어 ‘어린순’도 표준어로 남겨 두어 둘 다 표준어이다.
1190	어음	01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어음’이 표준어이고, ‘%엄%’은 비표준어이다.
1191	어저께			표준어 규정	‘어저께’와 ‘어제’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192	어제			표준어 규정	‘어제’와 ‘어저께’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193	어중간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어중간’이 표준어이고, ‘%어지중간%’은 비표준어이다.
1194	어지중간		○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어지중간%’은 비표준어이고, ‘어중간’이 표준어이다.
1195	어쨌든			표준어 규정	‘어쨌든’, ‘아무튼’, ‘어떻든’, ‘여하튼’, ‘하여튼’은 의미 차이 없이 모두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1196	언제나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언제나’가 표준어이고, ‘%노다지%’는 비표준어이다.
1197	얼음	01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얼음’은 ‘얼-’에 ‘-음’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얼-’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웃음’, ‘졸음’ 등이 있다.
1198	얼핏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얼핏’의 끝음절 받침을 ‘%얼핀%’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얼핏’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그까짓’, ‘덧셈’, ‘푹고추’ 등이 있다.
1199	엷히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엷히다’는 어간 ‘엷-’에 접미사 ‘-히-’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엷히다’로 적어야 한다.
1200	엄	01	○	표준어 규정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엄%’은 비표준어이고, ‘어음’이 표준어이다.
1201	없애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없애다’는 어간 ‘없-’에 접미사 ‘-애-’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없애다’로 적어야 한다.
1202	엷셈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엷셈%’으로 적을 근

					거가 없으므로 '엿셈'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그까짓', '덧셈', '푹고추' 등이 있다.
1203	엮어지다			한글 맞춤법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엮어지다'는 앞 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어퍼지다%'가 아닌 '엮어지다'로 적는다.
1204	엮치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치-, -뜨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엮치다'는 어간 '엮-'에 접미사 '-치-'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 의 형태를 밝혀 '엮치다'로 적어야 한다.
1205	여달이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는 소리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여달이'는 '열-달이'에서 온 말이지만 '열'의 끝소리 'ㄹ'이 소 리 나지 않으므로 '%열달이%'로 적지 않고 '여달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따님', '다달이' 등이 있다.
1206	여자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따라서 '%녀자%'가 아닌 '여자'로 적는다.
1207	여쭈다			표준어 규정	'여쭈다'와 '여쭙다'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 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208	여쭙다			한글 맞춤법	여쭙다'는 '여쭙위, 여쭙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어간 '여 쭙-'이 활용하여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바뀐 형식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여쭙다'와 '여쭈다'는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209	여하튼			표준어 규정	'여하튼',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은 의미 차이 없이 모두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므로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1210	역겹다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 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 는다. 따라서 '%역스럽다%'는 안 쓰이게 되었으므로 '역겹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1211	역력하다			한글 맞춤법	한자음 '려'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 라 '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력력하다%'가 아닌 '역력하다'로 적어야 한다.
1212	역스럽다		0	표준어 규정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 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 는다. 따라서 '%역스럽다%'는 안 쓰이게 되었으므로 '역겹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1213	연구	08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 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글귀'와 '귀글'만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

					서 ‘연구’가 표준어이고, ‘%연구%’는 비표준어이다.
1214	연년생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년년생%’이 아닌 ‘연년생’으로 적어야 한다.
1215	연도	01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하지만 한자음 음절이 ‘녀’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사 ‘연도’에는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만, 의존 명사 ‘년도’에는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16	연메			한글 맞춤법	‘계, 례, 메, 폐, 헤’의 ‘ㄱ’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따라서 ‘연메’가 올바른 표기이고, ‘%연메%’는 잘못된 표기이다.
1217	연세	02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따라서 ‘%년세%’가 아닌 ‘연세’로 적는다.
1218	연연불망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연련불망%’이 아닌 ‘연연불망’으로 적어야 한다.
1219	연이율			한글 맞춤법	‘연이율(年利率)’은 ‘이율(利率)’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연(年)’이 붙어서 결합한 것으로, 뒷말 ‘이율’의 첫 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다음 법칙에 따라 ‘연이율’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역이용(逆利用)’, ‘해외여행(海外旅行)’ 등이 있다.
1220	열두째			표준어 규정	‘제2, 두 개째’의 뜻으로는 ‘둘째’가 표준어이고 ‘%두째%’는 비표준어이지만,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는 ‘두째’로 적는다. 즉 차례를 나타내는 ‘열두 번째’의 뜻으로는 ‘열두째’를 쓰고(이 자리는 앞에서부터 열두째 자리이다), 수량을 나타내는 ‘열두 개째’의 뜻으로는 ‘열둘째’를 쓴다(딸기를 벌써 열둘째 먹었다).
1221	열둘째			표준어 규정	‘제2, 두 개째’의 뜻으로는 ‘둘째’가 표준어이고 ‘%두째%’는 비표준어이지만,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는 ‘두째’로 적는다. 즉 수량을 나타내는 ‘열두 개째’의 뜻으로는 ‘열둘째’를 쓰고(딸기를 벌써 열둘째 먹었다), 차례를 나타내는 ‘열두 번째’의 뜻으로는 ‘열두째’를 쓴다(이 자리는 앞에서부터 열두째 자리이다).
1222	열반			한글 맞춤법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다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 따라서 ‘%녘반%’이 아닌 ‘열반’으로 적는다.
1223	열심으로		0	표준어 규정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열심으로%’는 비표준어이고, ‘열심히’가 표준어이다.
1224	열없다			한글 맞춤법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없다’를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열었다'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시름없다', '하염없다' 등이 있다.
1225	옆구리			한글 맞춤법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옆구리'는 명사 '옆'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구리'가 결합된 것이므로 명사 '옆'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빛깔', '값지다' 등이 있다.
1226	옆대이			한글 맞춤법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옆대이'는 명사 '옆'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대이'가 결합된 것이므로 명사 '옆'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빛깔', '값지다' 등이 있다.
1227	옆옆이			한글 맞춤법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옆옆이'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된 것이므로 '옆옆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번번이', '나날이' 등이 있다.
1228	옛	01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올%'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옛'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 '그까짓', '덧셈', '푹고추' 등이 있다.
1229	오금탱이		0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오금탱이%'는 비표준어이고, '오금팽이'가 표준어이다.
1230	오금팽이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오금팽이'가 표준어이고, '%오금탱이%'는 비표준어이다.
1231	오누	01		표준어 규정	오누'는 '오누'와 함께 '오누이'의 준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1232	오누이			표준어 규정	'오누이'는 '오누', '오누'의 본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1233	오누			표준어 규정	오누'는 '오누'와 함께 '오누이'의 준말이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1234	오뉴월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륙/유(뉴)'는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오뉴월'은 속음으로 나는 것으로서 '뉴'로 적는다. 본음 '륙'으로 나는 것

					에는 '오륙십(五六十)'이 있다.
1235	오돌오돌	02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돌오돌%'은 비표준어이고, '오돌오돌'이 표준어이다.
1236	오들오들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들오들'이 표준어이고, '%오돌오돌%'은 비표준어이다.
1237	오뚝이	01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뚝이%'는 비표준어이고, '오뚝이'가 표준어이다.
1238	오뚝이	02	O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뚝이%'는 비표준어이고, '오뚝이'가 표준어이다.
1239	오뚝이	01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뚝이'가 표준어이고, '%오뚝이%'는 비표준어이다.
1240	오뚝이	02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뚝이'가 표준어이고, '%오뚝이%'는 비표준어이다.
1241	오라기			한글 맞춤법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오라기'는 '올'에 '-아기'가 결합된 것이므로 '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바가지', '이파리' 등이 있다.
1242	오얏		O	표준어 규정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오얏%'은 비표준어이고, '자두'가 표준어이다.
1243	온가지		O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온가지%'는 비표준어이고, '온갖'이 표준어이다.
1244	온갖			표준어 규정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온갖'이 표준어이고, '%온가지%'는 비표준어이다.
1245	올가미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올가미'는 '올-'에 '-아미'가 결합된 것이므로 '올-'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까마귀', '마개' 등이 있다.

1246	웁기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웁기다’는 어간 ‘웁-’에 접미사 ‘-기-’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형태를 밝혀 ‘웁기다’로 적어야 한다.
1247	옹골차다			한글 맞춤법	‘옹골차다’는 ‘%공골차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옹골차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공골차다%’는 비표준어이다.
1248	웁오르다			표준어 규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오도르다%’로 적지 않고 ‘웁오르다’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값없다’, ‘빛나다’ 등이 있다.
1249	와룡			한글 맞춤법	한자음 ‘룡’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용’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와룡’으로 적는다.
1250	왕개미			표준어 규정	‘왕개미’는 ‘말개미’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왕개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말개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인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왕거미/말거미’, ‘왕매미/말매미’가 있는데 ‘왕거미’, ‘말매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말거미’, ‘왕매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인다.
1251	왕거미			표준어 규정	‘왕거미’는 ‘말거미’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왕거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말거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인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왕개미/말개미’, ‘왕매미/말매미’가 있는데 ‘왕개미’, ‘말매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이고, ‘말개미’, ‘왕매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인다.
1252	왕래			한글 맞춤법	한자음 ‘래’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내’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왕래’로 적는다.
1253	왕릉			한글 맞춤법	한자음 ‘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능’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왕릉’으로 적는다.
1254	왕매미			표준어 규정	‘왕매미’는 ‘말매미’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왕매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말매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왕개미/말개미’, ‘왕거미/말거미’가 있는데 ‘말개미’, ‘말거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왕개미’, ‘왕거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1255	왕벌			표준어 규정	‘왕벌’은 ‘말벌’, ‘호박벌’과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왕벌’과 ‘말벌’은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호박벌’은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왕개미/말

					개미', '왕거미/말거미', '왕매미/말매미'가 있는데 '말개미', '말거미', '왕매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왕개미', '왕거미', '말매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1256	왕파리			표준어 규정	'왕파리'는 '쉬파리'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왕파리'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쉬파리'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왕개미/말개미', '왕거미/말거미', '왕매미/말매미'가 있는데 '말개미', '말거미', '왕매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왕개미', '왕거미', '말매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1257	외눈박이			표준어 규정	'외눈박이'는 '애꾸눈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58	외눈통이		○	표준어 규정	'%외눈통이%'는 '애꾸눈이', '외눈박이'의 비표준어이다.
1259	외다	02		표준어 규정	'외다'는 '외우다'의 준말이다. '외다'는 '외어', '외니'로 활용하고, '외우다'는 '외워', '외우니'로 활용한다. 준말 가운데 '머물다'처럼 모음 어미가 결합한 형태(%머물어%)가 비표준어인 경우가 있지만 '외다'는 그렇지 않다.
1260	외대박이		○	표준어 규정	'%외대박이%'는 '애꾸눈이', '외눈박이'의 비표준어이다.
1261	외면치레			표준어 규정	외면치레'는 '면치레'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62	외손잡이			표준어 규정	외손잡이'는 '한손잡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63	외우다			표준어 규정	외우다'는 준말 '외다'의 본말로 둘 다 표준어이다. 이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외우다'는 '외워', '외우니'로 활용하고, '외다'는 '외어', '외니'로 활용한다.
1264	외지다			표준어 규정	고유어 '외지다'는 한자어 '%벽지다%'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외지다'가 널리 쓰이므로 '외지다'가 표준어이고 '%벽지다%'는 비표준어이다.
1265	외톨이			한글 맞춤법	외톨이'는 명사 '외톨' 뒤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외톨이'로 적는다. '%외토리%'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 '암전이', '억척이', '점잔이' 등이 있다.
1266	외팔이			한글 맞춤법	외팔이'는 명사 '외팔' 뒤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외팔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얌전이', '억척이', '점잔이' 등이 있다.
1267	원	02	O	표준어 규정	%원% 집안', '%원% 식구'처럼 '전부의'의 뜻으로 쓰이는 '%원%'은 비표준어이고 '온'이 표준어이다. 다만, '왼쪽'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원'으로 적는다.
1268	원달		O	표준어 규정	%원달%과 '온달'의 경우처럼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러한 예로, '괴팍하다(%괴팍하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여느(%여니)', '으레(%으레)', '케케묵다(%케케묵다)' 등이 있다.
1269	요술장이		O	표준어 규정	%요술장이%와 '요술쟁이' 가운데 '요술을 부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는 '요술쟁이'이다. '-장이'가 붙는 말은 기술자를 의미하고 '-쟁이'는 그렇지 않다. '양복'에 '-장이'가 붙은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고 '-쟁이'가 붙은 '양복쟁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1270	요술쟁이			표준어 규정	요술쟁이'와 '%요술장이%' 가운데 '요술을 부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는 '요술쟁이'이다. '-장이'가 붙는 말은 기술자를 의미하고 '-쟁이'는 그렇지 않다. '양복'에 '-장이'가 붙은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고 '-쟁이'가 붙은 '양복쟁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1271	요요무문			한글 맞춤법	요요무문(寥寥無聞)'을 한자 '寥'에 이끌려 '%요료무문%'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요요무문'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로서 [요요무문]으로 발음되므로 '요요무문'으로 적는다.
1272	욕심꾸러기			표준어 규정	욕심꾸러기'는 '욕심쟁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73	욕심쟁이			표준어 규정	욕심쟁이'는 '욕심꾸러기'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74	욏읏			한글 맞춤법	욏읏'은 명사 '요'와 '읏'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욏읏]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욏읏'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읏%'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275	용궁			한글 맞춤법	한자음 '룡'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용'으로 적는다. 그러므로 '%룡궁%'으로 적지 않는다.
1276	용솟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용솟음'은 '용솟-'에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어간의 본뜻인 '용솟-'의 형태를 유지하여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얼음', '웃음'이 있다.
1277	우두커니			표준어 규정	우두커니'는 '%우두머니%'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우두커니'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우두머니%'는 비표준어이다.
1278	우렁챙이			표준어 규정	우렁챙이'와 '멍게'는 동의어로, '멍게'가 방언이었으나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우렁챙이'와 함께 표준어가 되었다. 이처럼 방언이었던 말이 널리 쓰이게 되면 원래의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1279	우렁잇속			한글 맞춤법	우렁잇속'은 명사 '우렁이'와 '속'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우렁이썩/우렁인썩]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우렁잇속'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렁이속%'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280	우레	01		표준어 규정	우레'는 '천둥'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81	우뢰	01	0	표준어 규정	우레'의 의미로 '%우뢰%'를 쓰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우레'는 '우르다'의 어간 '우르-'에 접미사 '-에'가 결합하여 된 말이다. '우레'를 한자어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발음상의 혼동으로 보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1282	우지	01		표준어 규정	우지'는 '울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83	우짚다			한글 맞춤법	우짚다'는 '울-짚다'에서 온 말이지만 '울-'의 끝소리 'ㄹ'이 소리나지 않으므로 '%울짚다%'로 적지 않고 '우짚다'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이러한 예로 '따님', '여달이' 등이 있다.
1284	운율			한글 맞춤법	율/률'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율'이, 그 밖의 경우에는 '률'로 적는다. 그러므로 '%운률%'로 적지 않는다.

1285	울력성당			표준어 규정	울력성당'의 어원을 밝혀 '%위력성당(威力成黨)%'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 말은 이미 어원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고 '울력성당'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강남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가 있다.
1286	올보			표준어 규정	올보'는 '우지'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87	올음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올음'은 어간 올-'에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올-'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웃음' 등이 있다.
1288	움짬	01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는 받침 'ㄴ, ㄷ, ㅁ, ㅇ'은 '번개[번개]', '딸기[딸기]'처럼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움짬'은 'ㅁ'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움질%'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289	웃돈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을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없으므로 '웃돈'이 표준어이다. '아래웃'과 대립하는 '윗웃'은 상의를 가리키지만 그렇지 않은 '웃웃'은 외투를 가리킨다.
1290	웃비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아직 우기(雨氣)는 있으나 짹짹 내리다가 그친 비'를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없으므로 '웃비'가 표준어이다. '아래웃'과 대립하는 '윗웃'은 상의를 가리키지만 그렇지 않은 '웃웃'은 외투를 가리킨다.
1291	웃어른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웃어른'으로 적는다. '%웃어른%'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자기보다 높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을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없으므로 '웃어른'이 표준어이다.
1292	웃웃			표준어 규정	웃웃'과 '윗웃'은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웃웃'은 외투를 가리키지만 '아래웃'과 대립하는 '윗웃'은 '상의'를 가리킨다.
1293	위라말		○	표준어 규정	%위라말%은 '얼룩말'과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얼룩말'이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위라말%'은 비표준어이다.
1294	월세			표준어 규정	월세'와 같은 말로 '사글세'가 있다. '사글세'의 어원을 밝혀 '%삭월세(朔月貰)%'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 말은 이미 어원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월세'와 '사글세'만 복수 표준어이다.
1295	위력성당		○	표준어 규정	울력성당'의 어원을 밝혀 '%위력성당(威力成黨)%'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 말은 이미 어원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울력성당'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강남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가 있다.
1296	위아래			표준어 규정	위아래'는 '아래위'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297	위짹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아래가 한 벌을 이루는 물건의 위쪽 짹'을 의미하는 말은 '위짹', '아래짹'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위짹'이 표준어이다.
1298	위쪽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가 되는 쪽'을 의미하는 말은 '위쪽', '아래쪽'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위쪽'이 표준어이다.
1299	위채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여러 채로 된 집에서 위쪽에 있는 채'를 의미하는 말은 '위채', '아래채'와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위채'가 표준어이다.
1300	위층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여러 층 가운데 위쪽의 층'을 의미하는 말은 '위층', '아래층'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위층'이 표준어이다.
1301	위턱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쪽의 턱'을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위턱'이 표준어이다.
1302	위팔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의미하는 말은 '위팔', '아래팔'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위팔'이 표준어이다.
1303	윗간			표준어 규정	윗간'은 '위'와 한자어 '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위간/월간]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윗간'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윗간'이 표준어이고 '%윗칸%'은 비표준어이다. '빈칸', '칸막이'와 같이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낼 때는 '간'의 거센소리 형태인 '칸'을 표준어로 삼지만, '윗간'과 같이 관습적으로 굳은 표현은 '간'을 쓴다.
1304	윗넓이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물체의 윗면의 넓이'를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넓이'가 표준어이다.
1305	윗눈썹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윗눈시울에 있는 속눈썹'을 의미하는 말은 '윗눈썹', '아랫눈썹'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눈썹'이 표준어이다.
1306	윗니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러나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윗이%'가 아닌 '윗니'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덧니', '사랑니' 등이 있다.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윗잇몸에 난 이'를 의미하는 말은 '윗니', '아랫니'와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니'가 표준어이다.
1307	윗머리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아래가 같은 물건의 위쪽 끝부분'을 의미하는 말은 '윗머리', '아랫머리'와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머리'가 표준어이다.
1308	윗목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쪽의 길목이나 물목'을 의미하는 말은 '윗목', '아랫목'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목'이 표준어이다.
1309	윗몸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허리 윗부분의 몸'을 의미하는 말은 '윗몸', '아랫몸'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몸'이 표준어이다.
1310	윗바람	01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물의 상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는 말은 '윗바람', '아랫바람'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바람'이 표준어이다. 다만, '겨울에, 방 안의 천장이나 벽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찬 기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위, 아래'의 대립이 없으므로 '웃바람'으로 적는다.
1311	윗배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가슴 아래 배꼽 위에 있는 부분의 배'를 의미하는 말은 '윗배', '아랫배'와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배'가 표준어이다.
1312	윗벌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한 벌로 된 옷에서 윗도리에 입는 옷'을 의미하는 말은 '윗벌', '아랫벌'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벌'이 표준어이다.
1313	윗변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사다리꼴에서 위의 변'을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변'이 표준어이다.
1314	윗수염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윗입술의 가장자리 위로 난 수염'을 의미하는 말은 '윗수염', '아랫수염'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수염'이 표준어이다.
1315	윗어른		O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자기보다 높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을 의미하는 말은 '위, 아래'의 대립이 없으므로 '웃어른'이 표준어이다.
1316	윗입술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쪽의 입술'을 의미하는 말은 '윗입술', '아랫입술'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입술'이 표준어이다.
1317	윗잇몸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쪽의 잇몸'을 의미하는 말은 '윗잇몸', '아랫잇몸'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잇몸'이 표준어이다.
1318	윗집			표준어 규정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또는 '윗-'이 되고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집'을 의미하는 말은 '윗집', '아랫집'과 같이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집'이 표준어이다.
1319	유기장이			표준어 규정	유기장이'와 '%유기쟁이%' 가운데 '키버들로 고리짝이

					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는 '유기장이'이다. '-장이'가 붙는 말은 기술자를 의미하고 '-쟁이'는 그렇지 않다. '양복'에 '-장이'가 붙은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고 '-쟁이'가 붙은 '양복쟁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1320	유기쟁이		O	표준어 규정	'유기장이'와 '%유기쟁이%' 가운데 '키버들로 고리짜이 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는 '유기장이'이다. '-장이'가 붙는 말은 기술자를 의미하고 '-쟁이'는 그렇지 않다. '양복'에 '-장이'가 붙은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고 '-쟁이'가 붙은 '양복쟁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1321	유월	01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으므로 '六月'을 '유월'로 적는다. '오륙십(五六十)'에서 '六'은 본음으로 나지만, '오뉴월(五六月)', '유월(六月)'에서는 속음으로 나므로 각각 소리대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십일(十日)/시월(十月)', '팔일(八日)/초파일(初八日)'이 있다.
1322	유유상종			한글 맞춤법	유유상종(類類相從)'을 한자 '類'에 이끌려 '%유류상종%'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로서 [유:유상종]으로 발음되므로 '유유상종'으로 적는다.
1323	유희	02		한글 맞춤법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유희'는 [유히]로 소리 나지만 '유희'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무늬[무니]', '하늬바람[하니바람]'이 있다.
1324	육체노동			한글 맞춤법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는다. '육체노동'에서는 '노'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육체노동'은 '노동'에 '육체'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육체노동%'으로 적지 않는다.
1325	윤달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윤달'만 표준어이고 '%군달%'은 비표준어이다.
1326	으레			표준어 규정	으레'만 표준어이고 '%으레%'는 비표준어이다. 이는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괴팍하다(%괴팍하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여느(%여니)', '온달(%원달%)', '케케묵다(%케계묵다%)' 등이 있다.

1327	-으려고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으려고'와 비슷한 발음인 '%-으려고%', '%-으라고%'는 표준어가 아니다.
1328	-으려야			표준어 규정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으려야'와 비슷한 발음인 '%-으려야%', '%-으래야%'는 표준어가 아니다.
1329	으레		○	표준어 규정	'%으레%'는 비표준어이고 '으레'가 표준어이다. 이는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괴팍하다(%괴팍하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여느(%여니)', '온달(%원달%)', '케케묵다(%케케묵다%)' 등이 있다.
1330	으로서			한글 맞춤법	'으로서'와 '으로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쓰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으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1331	으로써			한글 맞춤법	'으로서'와 '으로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쓰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으로써'는 도구, 수단, 방법, 재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법으로써 해결하였다."에서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1332	-으므로			한글 맞춤법	'-으므로'와 '-음으로(써)'는 비슷한 발음이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으므로'는 어미로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와 같이 사용하고 '-음으로(써)'는 어미에 '도구, 수단, 방법'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로(써)'가 결합한 것이므로 "나는 믿음으로(써) 살아왔다."와 같이 쓴다
1333	-으세요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으세요'와 '-으셔요'는 모두 표준어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1334	-으셔요			표준어 규정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으셔요'와 '-으세요'는 모두 표준어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1335	으스대다			표준어 규정	으스대다'는 '%으시대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으스대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으시대다%'는 비표준어이다.
1336	으시대다		○	표준어 규정	'%으시대다%'는 '으스대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으스대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으시대다%'는 비표준어이다.

1337	은닉			한글 맞춤법	한자음 '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익'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은닉'으로 적는다.
1338	-을걸			한글 맞춤법	'-을걸'은 [-을겔]로 소리나지만 이는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므로 '-을걸'로 적어야 한다. '%-을겔%'은 잘못된 표기이다.
1339	-을게			한글 맞춤법	'-을게'는 [-을께]로 소리나지만 이는 경음화가 적용된 것이므로 '-을게'로 적어야 한다. '%-을께%'는 잘못된 표기이다.
1340	-을수록			한글 맞춤법	'-을수록'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수'와 혼동하여 '%-을 수록%'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을수록'은 하나의 어미이고, 의존 명사 '수'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41	-을지			한글 맞춤법	'-을지'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지'와 혼동하여 '%-을 지%'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의존 명사 '지'는 기간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42	-읍니다		○	표준어 규정	%-읍니다%는 '-습니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습니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읍니다%'는 비표준어이다.
1343	의논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議論'을 '의논'으로 적는다. '論'은 본음이 '론'이고 속음이 '논'인데, '討論'은 본음인 '토론'으로, '議論'은 속음인 의논'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승낙(承諾)/수락(受諾)',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344	의의	04		한글 맞춤법	의의'는 [의:의/의:이]로 소리 난다. '의'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의'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본의'가 있다.
1345	의젓잡다			한글 맞춤법	'의젓잡다'는 '의젓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하지 않다'는 '○○잡다'와 '○○잡다'로 줄어들 수 있다. '의젓하다'처럼 어근 말음이 [ㄱ], [ㄷ], [ㅂ]일 경우 '하'가 통째로 줄어들어서 '의젓하지 않다'는 '의젓잡다'가 된다. 이와 달리 '가당하다'처럼 어근의 말음이 다른 소리일 경우에는 'ㅎ'이 남아서 '가당하지 않다'는 '가당잡다'가 된다.
1346	이기죽거리다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말인 '이기죽거리다'와 준말인 '이죽거리다'는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347	이따가			한글 맞춤법	이따가'와 '있다가'는 구별하여 써야 한다.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이따가 만



					나자.”와 같이 쓴다.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로, “여기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와 같이 쓴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 뜻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1348	이따금			한글 맞춤법	이따금’은 한 단어의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따금’으로 적는다.
1349	이렇다			한글 맞춤법	이렇다’는 ‘이러하다’의 준말이다. 준말에 있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붙여 적으므로 ‘이러하다’의 줄어진 형태는 ‘이렇다’로 쓴다. 대체로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진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1350	이울	02		한글 맞춤법	울/룰’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울’이, 그 밖의 경우에는 ‘룰’로 적는다. 그러므로 ‘%이룰%’로 적지 않는다.
1351	이죽거리다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준말인 ‘이죽거리다’와 본말인 ‘이기죽거리다’는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352	이찐쌀		0	표준어 규정	%이찐쌀%’은 ‘찐쌀’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찐쌀’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이찐쌀%’은 비표준어이다.
1353	이튿날			한글 맞춤법	이튿날’은 ‘이튿’과 ‘날’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튿’의 끝소리 ‘ㄹ’은 ‘날’의 ‘ㄴ’과 어울려 ‘ㄷ’ 소리로나 [이튿날]로 발음된다.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려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튿날%’이 아닌 ‘이튿날’로 적는다.
1354	인용구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용구’만 표준어로 삼고 ‘%인용귀%’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1355	일가불이			한글 맞춤법	일가불이’는 ‘ㅌ’이 뒤에 있는 ‘ㅣ’ 모음에 영향을 받아 구개음인 ‘ㅈ’으로 소리가 나 [일가부치]로 발음하지만,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에 따라 ‘일가불이’로 적는다.
1356	일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일꾼%’이 아닌 ‘일꾼’으로 적어야 한다.
1357	일다	04	0	표준어 규정	%일다%’와 ‘일구다’ 가운데 준말 ‘%일다%’는 잘 쓰이지 않고 본말 ‘일구다’가 널리 쓰이므로 ‘일구다’만이 표준어이다.

1358	일일이	02		표준어 규정	일일이'와 '하나하나'는 복수 표준어로 의미가 동일하다. '일일이'와 '하나하나'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충족하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1359	일찌감치			표준어 규정	일찌감치'와 '일찌거니'는 복수 표준어로 의미가 동일하다. '일찌감치'와 '일찌거니'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충족하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1360	일찌거니			표준어 규정	일찌거니'와 '일찌감치'는 복수 표준어로 의미가 동일하다. '일찌거니'와 '일찌감치'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을 충족하므로 둘 다 표준어이다.
1361	입담	01		표준어 규정	'입담'은 '%말담%'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입담'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말담%'은 비표준어이다.
1362	입때			한글 맞춤법	입때'는 '이'와 '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인데 'ㅂ' 소리가 덧나 [입때]로 발음되므로 '입때'로 적는다. 이는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접때'가 있다. '입때'는 '여태'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363	입쌀			한글 맞춤법	입쌀'은 '이'와 '쌀'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인데 'ㅂ' 소리가 덧나 [입:쌀]로 발음되므로 '입쌀'로 적는다. 이는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좁쌀', '햅쌀' 등이 있다.
1364	잇몸			한글 맞춤법	잇몸'은 명사 '이'와 '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인몸]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잇몸'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몸%'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65	잇몸			표준어 규정	잇몸'은 '%잇살%'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잇몸'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잇살%'은 비표준어이다. 다만, '잇몸의 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잇살'로 적는다.
1366	잇솔		0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

					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잇솔%'은 버리고 '칫솔'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1367	잇자국			한글 맞춤법	잇자국'은 명사 '이'와 '자국'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이짜국/인짜국]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잇자국'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국%'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68	잇담배			표준어 규정	고유어 '잇담배'는 한자어 '%잇초%'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잇담배'가 널리 쓰이므로 '잇담배'가 표준어이고 '%잇초%'는 비표준어이다.
1369	잇초		○	표준어 규정	한자어 '%잇초%'는 고유어 '잇담배'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잇담배'가 널리 쓰이므로 '잇담배'가 표준어이고 '%잇초%'는 비표준어이다.
1370	자두			표준어 규정	자두'의 의미로 '%오얏%'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자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1371	자릿세			한글 맞춤법	자릿세'는 명사 '자리'와 '세(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자리췌/자릴췌]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자릿세'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리세%'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72	자물쇠			표준어 규정	자물쇠'는 '자물통'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373	자옥하다			표준어 규정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자옥하다'와 '자옥하다' 둘 다 표준어이다.
1374	자옥하다			표준어 규정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자옥하다'와 '자옥하다' 둘 다 표준어이다.
1375	자울			한글 맞춤법	울/룰'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울'이, 그 밖의 경우에는 '룰'로 적는다. 그러므로 '%자룰%'로 적지 않는다.
1376	자택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

				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自宅'을 '자택'이 아닌 '자택'으로 적는다. '宅'은 본음이 '택'이고 속음이 '택'인데, '自宅', '住宅'은 본음인 '자택', '주택'으로, '本宅', '媳宅', '宅内'은 각각 속음인 '본택', '시택', '택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승낙(承諾)/수락(受諾)',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377	잔돈	01	표준어 규정	고유어 '잔돈'은 한자어 '%잔전%'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잔돈'이 널리 쓰이므로 '잔돈'이 표준어이고 '%잔전%'은 비표준어이다.
1378	잔뜩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는 받침 'ㄴ, ㄹ, ㅁ, ㅇ'은 '번개[번개]', '딸기[딸기]'처럼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잔뜩'은 'ㄴ'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잔득%'이 아닌 '잔뜩'으로 적어야 한다.
1379	잘다듬다		한글 맞춤법	잘다듬다'는 '잘다'의 '잘-'과 '다듬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잘따듬따]로 소리 난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잘다듬다'로 적는다. '%잘다듬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80	잘다랴다		한글 맞춤법	잘다랴다'는 '잘다'의 '잘-'과 '-다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잘따랴타]로 소리 난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잘다랴다'로 적는다. '%잘다랴다%'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 '잘주름', '잘널다' 등이 있다.
1381	잘주름		한글 맞춤법	잘주름'은 '잘다'의 '잘-'과 '주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잘쭈름]으로 소리 난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잘주름'으로 적는다. '%잘주름%'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이러한 예로 '잘갈다', '잘널다' 등이 있다.
1382	잠주정	○	표준어 규정	%잠주정%'은 '잠투정'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잠투정'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잠주정%'은 비표준어이다.
1383	잠투세	○	표준어 규정	%잠투세%'는 '잠투정'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잠투정'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잠투세%'는 비표준어이다.
1384	잠투정		표준어 규정	잠투정'은 '%잠주정%', '%잠투세%'와 발음이 비슷하지

					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가운데 널리 쓰이는 '잡투정'이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잡주정%', '%잡투세%'는 비표준어이다.
1385	장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장군%'이 아닌 '장꾼'으로 적어야 한다.
1386	장난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장난군%'이 아닌 '장난꾼'으로 적어야 한다.
1387	장미과	02		한글 맞춤법	장미과'는 한자어 '장미'와 '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장미과]로 소리 나지만 '장미과'로 적는다. 이는 한자어로서 '곶간, 셋방, 숫자' 등 몇 개의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장미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88	장사치			표준어 규정	장사치'와 '%장사아치%' 가운데 본말 '%장사아치%'는 잘 쓰이지 않고 준말 '장사치'가 널리 쓰이므로 '장사치'만이 표준어이다.
1389	장수벌			표준어 규정	장수벌'은 '여왕벌'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390	재봉틀			표준어 규정	재봉틀'은 '%자봉틀%'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재봉틀'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자봉틀%'은 비표준어이다.
1391	잣더미			한글 맞춤법	잣더미'는 명사 '재'와 '더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재떠미/잣떠미]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잣더미'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더미%'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92	저렇다			한글 맞춤법	저렇다'는 '저러하다'의 준말이다. 준말에 있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붙여 적으므로 '저러하다'의 줄어진 형태는 '저렇다'로 쓴다. 대체로 '이러하다,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진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1393	저리다			한글 맞춤법	저리다'와 '절이다'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저리다'는 몸의 일부가 쭈시듯이 아프거나 감각이 둔하고 아릴 경우에 쓰는 말로, "다친 다리가 저린다."와 같이 쓰고,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김장 배추를 절인다."와 같이 쓴다.

1394	저으기		O	표준어 규정	%저으기%와 '적이'의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적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1395	적이			표준어 규정	'적이'와 '%저으기%'의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적이'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1396	전봇대			표준어 규정	'전봇대'는 '%전선대%'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전봇대'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전선대%'는 비표준어이다.
1397	전선대	01	O	표준어 규정	'%전선대%'는 '전봇대'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전봇대'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전선대%'는 비표준어이다.
1398	전셋집			한글 맞춤법	전셋집'은 명사 '전세'와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전세집/전센집]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전셋집'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세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399	전울	02		한글 맞춤법	울/률'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울'이, 그 밖의 경우에는 '률'로 적는다. 그러므로 '%전률%'로 적지 않는다.
1400	전전달			표준어 규정	'전전달'은 '지지난달'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01	절구	02		표준어 규정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는 규정에 따라 '절구'만 표준어로 삼고 '%절귀%'는 비표준어이다.
1402	절로	02		한글 맞춤법	'절로'는 부사 '저리'에 조사 '-로'가 붙은 '저리로'의 준말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절로'로 적는다.
1403	절이다			한글 맞춤법	'절이다'와 '저리다'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김장 배추를 절인다."와 같이 쓰고, '저리다'는 몸의 일부가 쭈시듯이 아프거나 감각이 둔하고 아릴 경우에 쓰는 말로, "다친 다리가 저린다."와 같이 쓴다.
1404	접때			한글 맞춤법	접때'는 '저'와 '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인데 'ㅂ' 소리가 덧나 [접:때]로 발음되므로 '접때'로 적는다. 이는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입때'가 있

					다.
1405	접시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접시’는 [접씨]로 소리 나지만 ‘%접씨%’가 아닌 ‘접시’로 적는다.
1406	젓니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러나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젓이%’가 아닌 ‘젓니’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덧니’, ‘사랑니’ 등이 있다.
1407	제삿날			한글 맞춤법	제삿날’은 명사 ‘제사’와 ‘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제:산날]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제삿날’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사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08	조갯살			한글 맞춤법	조갯살’은 명사 ‘조개’와 ‘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조개쌀/조갠쌀]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조갯살’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개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09	조리다			한글 맞춤법	‘조리다’와 ‘졸이다’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조리다’는 양념의 맛이 재료에 스미도록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끓이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는 말로, “생선을 조리다.”와 같이 쓰고, ‘졸이다’는 물을 증발시켜 물의 분량을 적어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물을 졸이다.”와 같이 쓴다.
1410	조울	01		한글 맞춤법	울/률’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울’이, 그 밖의 경우에는 ‘률’로 적는다. 그러므로 ‘%조률%’로 적지 않는다.
1411	조이다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어휘의 쌍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이다’와 ‘죄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꾀다-꼬이다’, ‘썩다-쏘이다’ 등이 있다.
1412	졸음	01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졸음’은 어간 졸-’에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졸-’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웃음’ 등이 있다.
1413	졸이다			한글 맞춤법	‘졸이다’와 ‘조리다’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졸이다’는 물을 증발시켜 물의 분량을 적어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물을 졸이다.”와 같이 쓰고, ‘조리다’는 양념의 맛이 재료에 스미도록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끓이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는 말로, “생선을 조리다.”와 같이 쓴다.
1414	좁쌀			한글 맞춤법	좁쌀'은 '조'와 '쌀'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인데 'ㅂ' 소리가 덧나 [좁쌀]로 발음되므로 '좁쌀'로 적는다. 이는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입쌀', '햅쌀' 등이 있다.
1415	좋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좋이'는 '좋다'에 '-이'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어간 '좋-'을 밝혀 '좋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같이', '많이' 등이 있다.
1416	죄다	01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어휘의 쌍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죄다’와 ‘조이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죄다-꼬이다’, ‘죄다-쏘이다’ 등이 있다.
1417	주검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주검'은 '죽-'에 '-엄'이 결합된 것이므로 '죽-'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너머', '무덤' 등이 있다.
1418	주둥아리			표준어 규정	주둥아리'는 '%주두라지%'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주둥아리'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주두라지%'는 비표준어이다. 다만, '말씨'를 속되게 표현할 때는 '주두라지'를 쓴다.
1419	주리다			한글 맞춤법	‘주리다’와 ‘줄이다’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주리다’는 ‘먹을 만큼 먹지 못해 배를 곯았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여러 날을 주렸다.”와 같이 쓰고,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로 “체중을 줄인다.”와 같이 쓴다.
1420	주정배기			한글 맞춤법	-배기'와 '-빼기'는 접미사로,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빼기'로 적는다. '주정배기'는 [주:정배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주정배기'로 적는다. '-배기'로 적는 예로는 '육자배기'가 있고, '-빼기'로 적는 예로는 '악착빼기'가 있다. 다만, 한 형태소 내부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뚝배기'가 있다.
1421	주착	02	0	표준어 규정	'%주착%'은 '주책'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주책'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주착%'은 비표준어이다.
1422	주책	01		표준어 규정	'주책'은 '%주착%'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주책'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주착%'은 비표준어이다.



1423	주추	01		표준어 규정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주초%가 아닌 '주추'를 표준어로 삼는다.
1424	죽음	01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죽음'은 어간 죽-'에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죽-'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예로 '믿음', '웃음' 등이 있다.
1425	죽지뻘			표준어 규정	'죽지뻘'은 '어깨뻘'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26	준보다			표준어 규정	'준보다'는 '교정보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27	줄이다			한글 맞춤법	'줄이다'와 '주리다'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로 “체중을 줄인다.”와 같이 쓰고, '주리다'는 '먹을 만큼 먹지 못해 배를 곯았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여러 날을 주렸다.”와 같이 쓴다.
1428	중노동			한글 맞춤법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는다. '중노동'에서는 '노'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중노동'은 '노동'에 '중-'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중로동%'으로 적지 않는다.
1429	중매	01		표준어 규정	'중매'는 '중신'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30	지뢰	01		한글 맞춤법	한자음 '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뇌'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지뢰'로 적는다.
1431	지루하다			표준어 규정	'지루하다'는 '%지리하다%'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루하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지리하다%'는 비표준어이다.
1432	-지만	05		표준어 규정	'-지만'은 '%-지만서도%'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만'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지만서도%'는 비표준어이다.
1433	-지만서도		○	표준어 규정	'%-지만서도%'는 '-지만'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만'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지만서도%'는 비표준어이다.
1434	지붕			한글 맞춤법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지붕’은 ‘집’에 ‘-웅’이 결합된 것이므로 ‘집’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바가지’, ‘이파리’ 등이 있다.
1435	지지난달			표준어 규정	‘지지난달’은 ‘%저지난달%’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지난달’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저지난달%’은 비표준어이다. 다만, ‘이삼 개월 전의 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저지난달’로 적는다.
1436	지지난밤			표준어 규정	‘지지난밤’은 ‘%저지난밤%’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지난밤’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저지난밤%’은 비표준어이다. 다만, ‘이삼 일 전의 밤, 엿그제 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저지난밤’으로 적는다.
1437	지지난번			표준어 규정	지지난번’은 ‘%저지난번%’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지난번’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저지난번%’은 비표준어이다. 다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저지난번’으로 적는다.
1438	지지난해			표준어 규정	‘지지난해’는 ‘%저지난해%’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지지난해’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저지난해%’는 비표준어이다. 다만, ‘이삼 년 전의 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저지난해’로 적는다.
1439	지팡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지팡이’는 ‘짚’에 ‘-앙이’가 결합된 것이므로 ‘짚-’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너머’, ‘무덤’ 등이 있다.
1440	지푸라기			한글 맞춤법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지푸라기’는 어원이 ‘짚’에 ‘-으라기’가 결합된 것이므로 ‘짚’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바가지’, ‘이파리’ 등이 있다.
1441	진열			한글 맞춤법	열/렬’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열’이, 그 밖의 경우에는 ‘렬’로 적는다. 그러므로 ‘%진렬%’로 적지 않는다.
1442	짐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짐꾼%’이 아닌 ‘짐꾼’으로 적어야 한다.
1443	짓궂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짓궂이’는 ‘짓궂다’에 ‘-이’

					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어간 짓궂-'을 밝혀 '짓궂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같이', '많이' 등이 있다.
1444	짓밟다			한글 맞춤법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짓밟다'로 적는다.
1445	짚단			표준어 규정	'짚단'은 '짚뭇'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46	짚뭇			표준어 규정	'짚뭇'은 '짚단'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47	짚북데기			표준어 규정	'짚북데기'는 '%짚북더기%', '%짚북세기%'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가운데 널리 쓰이는 '짚북데기'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짚북더기%', '%짚북세기%'는 비표준어이다.
1448	짹	02	0	표준어 규정	'%이짹%', '%저짹%'처럼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짹%'은 비표준어이고 '짹'이 표준어이다. 다만, '아무짹'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짹'으로 적는다.
1449	짹따랑다			한글 맞춤법	짹따랑다'는 [짹따라타]로 소리 나므로 '%짹따랑다%'로 적지 않고 '짹따랑다'로 적는다. 이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넉따랑다', '알따랑다', '열따랑다'를 들 수 있다. 한편 '굶다랑다'는 [국:따라타]처럼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므로 '굶다랑다'로 적는다.
1450	짹막하다			한글 맞춤법	짹막하다'는 [짹마카다]로 소리 나므로 '%짹막하다%'로 적지 않고 '짹막하다'로 적는다. 이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넉따랑다', '말끔하다', '알팍하다'를 들 수 있다.
1451	짹짹하다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짹짹하다'는 '%짹짹하다%'가 아니라 된소리로 통일된 '짹짹하다'로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쌈짹하다', '쌈쌈하다' 등이 있다.
1452	쪼이다	01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어휘의 쌍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쪼이다'와 '쪼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쪼다-꼬이다', '쪼다-쏘이다' 등이 있다.
1453	쪼	05		표준어 규정	'이쪼', '저쪼'처럼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쪼'은 표준어이고 '%쪼%'은 비표준어이다. 다만, '아무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 짹 '으로 적는다.
1454	짹다	01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 관계에 있는 어휘의 쌍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 짹다 '와 ' 짹이다 '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 짹다-꼬이다 ', ' 짹다-쏘이다 ' 등이 있다.
1455	찌꺼기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말인 ' 찌꺼기 '와 준말인 ' 찌끼 '는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456	찌끼		표준어 규정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준말인 ' 찌끼 '와 본말인 ' 찌꺼기 '는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1457	찢뜨리다		한글 맞춤법	' 찢뜨리다 '는 ' 찢다 '에 접미사 '-뜨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치, -뜨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어간을 밝혀 ' 찢뜨리다 '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 쏙뜨리다 ', ' 찢뜨리다 ' 등이 있다.
1458	찢트리다		한글 맞춤법	' 찢트리다 '는 ' 찢다 '에 접미사 '-트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치, -뜨리, -트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어간을 밝혀 ' 찢트리다 '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 쏙트리다 ', ' 찢트리다 ' 등이 있다.
1459	차차	01	표준어 규정	' 차차 '는 ' 차츰 '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60	차츰		표준어 규정	' 차츰 '은 ' 차차 '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61	참감자	○	표준어 규정	' %참감자% '는 ' 고구마 '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 고구마 '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 %참감자% '는 비표준어이다.
1462	참으로		표준어 규정	' 참으로 '는 ' 성시 ', ' 실로 ', ' 참 '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표준어이다.
1463	참쌀		표준어 규정	' 참쌀 '은 ' %이참쌀% '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 참쌀 '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 %이참쌀% '은 비표준어이다.
1464	찾간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굿간, 셋방, 숫자, 찾간, 텃간, 횃수 ' 이 여섯 개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1465	찾잔			한글 맞춤법	‘찾잔’은 명사 ‘차’와 ‘잔(盞)’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차잔/참잔]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찾잔’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차잔%’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66	찾집			한글 맞춤법	‘찾집’은 명사 ‘차’와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차집/참집]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찾집’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차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67	책거리	02		표준어 규정	‘책거리’는 ‘책씻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68	척	01		표준어 규정	‘척’은 ‘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69	천둥			표준어 규정	‘천둥’은 ‘우레’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70	천연덕스럽다			표준어 규정	‘천연덕스럽다’는 ‘천연스럽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71	천연스럽다			표준어 규정	‘천연스럽다’는 ‘천연덕스럽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72	천장	02		표준어 규정	‘천장’은 ‘%천정%’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천장’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천정%’은 비표준어이다.
1473	천정	02	○	표준어 규정	‘%천정%’은 ‘천장’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천장’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천정%’은 비표준어이다.
1474	철따구니			표준어 규정	‘철따구니’는 ‘철딱서니’, ‘철딱지’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

					정에 따라 모두 표준어이다.
1475	철딱서니			표준어 규정	'철딱서니'는 '철따구니', '철딱지'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표준어이다.
1476	철딱지			표준어 규정	'철딱지'는 '철따구니', '철딱서니'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표준어이다.
1477	체	02		표준어 규정	'체'는 '척'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78	챗바퀴			한글 맞춤법	챗바퀴'는 명사 '체'와 '바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체빠퀴/챗빠퀴]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챗바퀴'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체바퀴%'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79	초파일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初八日'을 '초파일'로 적는다. '八'은 본음이 '팔'이고 속음이 '파'인데, '八日'은 본음인 '팔일'로, '初八日'은 속음인 '초파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승낙(承諾)/수락(受諾)',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480	총각무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총각무'만 표준어로 삼는다. '%알무%', '%알타리무%'는 비표준어이다.
1481	총무과			한글 맞춤법	총무과'는 한자어 '총무'와 '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총:무과]로 소리 나지만 '총무과'로 적는다. 이는 한자어로서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총무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82	축가다			표준어 규정	'축가다'는 '축나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83	축나다			표준어 규정	'축나다'는 '축가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84	치열	03		한글 맞춤법	열/렬'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열'이, 그 밖의 경우에는 '렬'로 적는다. 그러므로 '%치렬%'로 적지 않는다.
1485	침놓다			표준어 규정	'침놓다'는 '침주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86	침주다			표준어 규정	'침주다'는 '침놓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487	칫솔			표준어 규정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칫솔'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잇솔%'은 비표준어이다.
1488	칸	01		표준어 규정	'칸'은 '간(間)'의 거센소리 형태로, '칸'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칸막이'와 같이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낼 때는 '칸'을 쓰지만, '윗간'과 같이 관습적으로 굳은 표현은 그대로 '간(間)'을 쓴다.
1489	칼날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칼랄%'로 적지 않고 '칼날'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꽃잎', '부엌일' 등이 있다.
1490	케케묵다			표준어 규정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케케묵다'가 표준어이고 '%케케묵다%'는 비표준어이다.
1491	케케묵다		0	표준어 규정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케케묵다%'는 비표준어이고 '케케묵다'가 표준어이다.
1492	코린내			표준어 규정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코린내'와 '고린내' 둘 다 표준어이다.
1493	코맹맹이			표준어 규정	'코맹맹이'는 '%코맹녕이%'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코맹맹이'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코맹녕이%'는 비표준어이다.
1494	코보		0	표준어 규정	%코보%'는 비표준어이고 '코주부'가 표준어이다. 이는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고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되면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귀밑머리(%귓머리%)',

					‘빈대떡(%빈자떡%)’ 등이 있다.
1495	코빼기			한글 맞춤법	-배기'와 '-빼기'는 접미사로,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빼기'로 적는다. '코빼기'는 '-빼기'로 소리 나기 때문에 '코빼기'로 적는다. '-배기'로 적는 예로는 '주정배기'가 있고, '-빼기'로 적는 또 다른 예로는 '악착빼기'가 있다. 다만, 한 형태소 내부에서 'ㄱ, ㄴ'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뚝배기'가 있다.
1496	코주부			표준어 규정	코주부'가 표준어이고 '%코보%'는 비표준어이다. 이는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고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되면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귀밑머리(%귓머리%)', '빈대떡(%빈자떡%)' 등이 있다.
1497	콧날			한글 맞춤법	콧날'은 명사 '코'와 '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콘날]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콧날'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코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98	콧병			한글 맞춤법	콧병'은 명사 '코'와 '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코뽕/콤폹]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콧병'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코병%'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499	쾌락	01		한글 맞춤법	한자음 '락'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낙'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쾌락'으로 적는다.
1500	쾌락	02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快諾'을 '쾌락'으로 적는다. '諾'은 본음이 '낙'이고 속음이 '락'인데, '承諾'은 본음인 '승낙'으로, '快諾', '受諾', '許諾'은 각각 속음인 '쾌락', '수락', '허락'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만난(萬難)/곤란(困難)',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501	쿠린내			표준어 규정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쿠린내'와 '구린내' 둘 다 표준어이다.
1502	탐닉			한글 맞춤법	한자음 '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익'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탐닉'으로 적는다.
1503	탓줄			한글 맞춤법	탓줄'은 명사 '태'와 '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태쫄/탸쫄]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탓줄'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태쫄%'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04	떨어먹다			표준어 규정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의 의미로 %떨어먹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떨어먹다%'가 아닌 '떨어먹다'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1505	틔마당			한글 맞춤법	틔마당'은 명사 '티'와 '마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틔마당]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틔마당'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티마당%'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06	틔세	01		한글 맞춤법	틔세'은 명사 '티'와 '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티쎄/탸쎄]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틔세'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티세%'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07	토론	01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討論'을 '토론'으로 적는다. '論'은 본음이 '론'이고 속음이 '논'인데, '討論'은 본음인 '토론'으로, '議論'은 속음인 '의논'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승낙(承諾)/수락(受諾)',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508	톱니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러나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톱이%'가 아닌 '톱니'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덧니', '사랑니' 등이 있다.
1509	통찰	01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洞察'을 '통찰'로 적는다. '洞'은 본음이 '동'이고 속음이 '통'인데, '洞窟'은 본음인 '동굴'로, '洞察', '洞燭'은 각각 속음인 '통찰', '통촉'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승낙(承諾)/수락(受諾)',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510	통치다		O	표준어 규정	'%통치다%'와 '한통치다' 가운데 준말 '%통치다%'는 잘 쓰이지 않고 본말 '한통치다'가 널리 쓰이므로 '한통치다'만이 표준어이다.
1511	틔간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틔간, 횃수' 이 여섯 개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1512	틔마루			한글 맞춤법	틔마루'는 명사 '퇴'와 '마루'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튀:마루/툼:마루]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틔마루'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퇴마루%'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13	투고란			한글 맞춤법	난/란'은 한자어와 결합할 때에는 '란'으로,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할 때에는 '난'으로 적는다. '투고'는 한자어이므로 '%투고난%'으로 적지 않는다.
1514	-트리다			표준어 규정	'-트리다'는 '-프리다'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15	틀니	01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러나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틀이%'가 아닌 '틀니'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덧니', '사랑니' 등이 있다.
1516	판자때기			한글 맞춤법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때기'는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판자대기%'가 아닌 '판자때기'로 적어야 한다.
1517	팔꿈치			한글 맞춤법	'%팔굣치%'가 아닌 '팔꿈치'로 적는다. 이는 접미사 '-굣치'로 적지 않고 된소리 '-꿈치'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518	팔때기			한글 맞춤법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때기'는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팔대기%'가 아닌 '팔때기'로 적어야 한다.
1519	팻말			한글 맞춤법	팻말'은 명사 '패'와 '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팬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팻말'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패말%'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20	편뜻		O	표준어 규정	'%편뜻%'은 '언뜻'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

				리 쓰이는 '언뜻'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편뜻%'은 비표준어이다.
1521	편	04	표준어 규정	'편'은 '쪽'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22	폐품		한글 맞춤법	폐품'은 [폐:품/페:품]으로 소리 나는데, [페:품]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폐품%'이 아닌 '폐품'으로 적는다. 이는 '계, 례, 메, 페, 헤'의 'ㄷ'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사례', '혜택', '핑계' 등이 있다.
1523	푸석이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푸석이'는 어근 '푸석-'에 '-이'가 붙어서 '푸석이'가 되었으므로 '%푸석기%'로 적지 않고 '푸석이'로 적는다.
1524	푸줏간		표준어 규정	'푸줏간'은 '고깃간'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25	푼돈		표준어 규정	'고유어 '푼돈'은 한자어 '%푼전%'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푼돈'이 널리 쓰이므로 '푼돈'이 표준어이고 '%푼전%'은 비표준어이다.
1526	푼전	0	표준어 규정	'한자어 '%푼전%'은 고유어 '푼돈'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푼돈'이 널리 쓰이므로 '푼돈'이 표준어이고 '%푼전%'은 비표준어이다.
1527	푼소		한글 맞춤법	푼소'는 '푼'과 '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푼'의 끝소리 'ㄹ'은 '소'와 어울려 'ㄷ' 소리로 나 [푼쏘]로 발음된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려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 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푼소%'가 아닌 '%푼소%'로 적는다.
1528	푼내기		표준어 규정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푼내기%가 아닌 '푼내기'로 적는다.
1529	푼머슴	0	표준어 규정	'%푼머슴%'은 '선머슴'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선머슴'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푼머슴%'은 비표준어이다.
1530	피붙이		한글 맞춤법	피붙이'는 'ㅌ'이 뒤에 있는 'ㅣ' 모음에 영향을 받아 구개음인 'ㅍ'으로 소리가 나 [피부치]로 발음하지만,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에 따라 '피붙이'로 적는다.
1531	핀잔먹다		표준어 규정	'핀잔먹다'는 '%핀둥이쑤이다%'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핀잔먹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핀둥이쑈이다%'는 비표준어이다.
1532	핀잔주다			표준어 규정	'핀잔주다'는 '%핀둥이주다%'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핀잔주다'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핀둥이주다%'는 비표준어이다.
1533	핏기			한글 맞춤법	핏기'는 명사 '피'와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피끼/핀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핏기'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기%'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34	핑계			한글 맞춤법	핑계'는 [핑계/핑계]로 소리 나는데, [핑계]로 소리가 나더라도 '%핑계%'가 아닌 '핑계'로 적는다. 이는 '계, 레, 메, 폐, 헤'의 'ㄱ'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사례', '혜택', '폐품' 등이 있다.
1535	하나하나			표준어 규정	'하나하나'는 '일일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36	하늬바람			한글 맞춤법	하늬바람'은 '%하늬바람%'이 아닌 '하늬바람'으로 적는다. 이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무늬[무니]', '유희[유히]'가 있다.
1537	하루살이			한글 맞춤법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루살이'는 '살-'에 '-이'가 붙어서 된 것이므로 '살-'을 밝혀 '하루살이'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살림살이', '먹이' 등이 있다.
1538	하류	01		한글 맞춤법	한자음 '류'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유'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하류'로 적는다.
1539	하여튼			한글 맞춤법	하여튼'은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재 부사로 굳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영든%'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아무튼(%아뭉든%)', '어떻든(%어떠튼%)'이 있다.
1540	한손잡이			표준어 규정	'한손잡이'는 '외손잡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41	한통치다			표준어 규정	'한통치다'와 '%통치다%' 가운데 준말 '%통치다%'는 잘 쓰이지 않고 본말 '한통치다'가 널리 쓰이므로 '한통치

					다'만이 표준어이다.
1542	할짝거리다			한글 맞춤법	할짝거리다'는 [할짝꺼리다]로 소리 나므로 '%할작거리다%'로 적지 않고 '할짝거리다'로 적는다. 이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넌따랴다', '알따랴다'를 들 수 있다. 한편 '굶다랴다'는 [국:따라타]처럼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므로 '굶다랴다'로 적는다.
1543	핥이다			한글 맞춤법	핥이다'는 용언 '핥-'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할치다]로 소리 난다. 'ㅌ'이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 'ㅈ'으로 소리가 나지만 '%할치다%'가 아닌 '핥이다'로 적는다. 이는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올 때에는 그 'ㅌ'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ㅌ'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544	함박			한글 맞춤법	한 단어 안에서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는 받침 'ㄴ, ㄹ, ㅁ, ㅇ'은 '번개[번개]', '딸기[딸기]'처럼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박%'이 아닌 '함박'으로 적는다.
1545	합격률			한글 맞춤법	율/률'은 모음이나 'ㄴ'으로 끝난 말과 결합할 때에는 '을'이, 그 밖의 경우에는 '률'로 적는다. 그러므로 '%합격율%'로 적지 않는다.
1546	항렬자			표준어 규정	'항렬자'는 '돌림자'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47	해	04		표준어 규정	'해'는 '것'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48	해돋이			한글 맞춤법	해돋이'는 'ㄷ'이 뒤에 있는 'ㅣ' 모음에 영향을 받아 'ㅈ'으로 소리가 나 [해도지]로 발음하지만 '%해도지%'로 적지 않는다. 이는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549	해망쩃다			한글 맞춤법	'해망쩃다'는 '%해망적다%'가 아닌 '해망쩃다'로 적는다. 이는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쩃다]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쩃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꽤다리적다', '판기적다'와 같이 [적따]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다.
1550	해쓱하다			한글 맞춤법	해쓱하다'는 한 단어의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해쓱하다'로 적는다.
1551	해웃값			표준어 규정	'해웃값'은 '해웃돈'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다 표준어이다.
1552	해웃돈			표준어 규정	'해웃돈'은 '해웃값'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다 표준어이다.
1553	헵쌀			한글 맞춤법	헵쌀'은 '해'와 '쌀'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인데 'ㅂ' 소리가 덧나 [헵쌀]로 발음되므로 '헵쌀'로 적는다. 이는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좁쌀', '입쌀' 등이 있다.
1554	햇별			한글 맞춤법	햇별'은 명사 '해'와 '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해뻥/햐뻥]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햇별'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별%'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55	햇수			한글 맞춤법	햇수'는 명사 '해'와 '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해쑤/햐쑤]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햇수'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1556	행망쩍다			한글 맞춤법	'행망쩍다'는 '%행망쩍다%'가 아닌 '행망쩍다'로 적는다. 이는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쩍다]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쩍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꽤리적다', '판기적다'와 같이 [적따]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다.
1557	허드래		○	표준어 규정	'%허드래%'는 '허드레'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허드레'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허드래%'는 비표준어이다.
1558	허드레			표준어 규정	'허드레'는 '%허드래%'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허드레'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허드래%'는 비표준어이다.
1559	허락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許諾'을 '허락'으로 적는다. '諾'은 본음이 '낙'이고 속음이 '락'인데, '承諾'은 본음인 '승낙'으로, '快諾', '受諾', '許諾'은 각각 속음인 '쾌락', '수락', '허락'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만난(萬難)/곤란(困難)',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560	허예지다			한글 맞춤법	'허예지다'는 '허영-'에 '-어지다'가 결합한 말로, 용언 어간의 모음에 따라 '%허예지다%'가 아닌 '허예지다'가 된다.
1561	허우대			표준어 규정	허우대'는 표준어이고 '%허위대%'는 비표준어이다. 이는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괴팍하다(%괴팍하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여느(%여늬)', '온달(%원달%)' 등이 있다.
1562	허위대		O	표준어 규정	%허위대%'는 비표준어이고 '허우대'는 표준어이다. 이는 원래의 형태보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가 널리 쓰이는 경우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괴팍하다(%괴팍하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여느(%여늬)', '온달(%원달%)' 등이 있다.
1563	허파숨양			한글 맞춤법	양/량'은 한자어와 결합할 때에는 '량'으로,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할 때에는 '양'으로 적는다. 그러므로 '%허파숨량%'으로 적지 않는다.
1564	힘집		O	표준어 규정	'%힘집%'과 '힘집'의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힘집'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1565	헛기침			표준어 규정	'헛기침'은 '군기침'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66	협력			한글 맞춤법	한자음 '력'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역'으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협력'으로 적는다.
1567	협잡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협잡꾼%'이 아닌 '협잡꾼'으로 적어야 한다.
1568	혜택			한글 맞춤법	혜택'은 [혜:택/혜:택]으로 소리 나는데, [혜:택]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혜택%'이 아닌 '혜택'으로 적는다. 이는 '계, 레, 메, 폐, 헤'의 'ㄱ'은 'ㄱ'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사레', '핑계', '폐품' 등이 있다.
1569	호구	01	O	표준어 규정	'%호구%'는 '괴통'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괴통'은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호구%'는 비표준어이다.
1570	호랑나비			표준어 규정	'호랑나비'는 '범나비'와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범나비'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호랑나비'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왕개미/말개미', '왕거미/말거미'가 있는데 '말개미', '말거미'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고, '왕개미', '왕거미'는 전문 영역에서 쓰인다.
1571	호루라기		표준어 규정	'호루라기'는 '%호루루기%'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호루라기'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호루루기%'는 비표준어이다.
1572	호루루기	○	표준어 규정	'%호루루기%'는 '호루라기'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널리 쓰이는 '호루라기'는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호루루기%'는 비표준어이다.
1573	호콩		표준어 규정	'호콩'은 '땅콩'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둘 다 표준어이다.
1574	흔레		한글 맞춤법	한자음 '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예'로 적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본음에 따라 '흔레'로 적는다.
1575	홀아비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홀라비%'로 적지 않고 '홀아비'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웃웃', '홀몸' 등이 있다.
1576	홀쭉이		한글 맞춤법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홀쭉이'는 어근 '홀쭉-'에 '-이'가 붙어서 '홀쭉이'가 되었으므로 '%홀쭉기%'로 적지 않고 '홀쭉이'로 적는다.
1577	홀몸		한글 맞춤법	자립적인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가 될 때는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혼몸%'으로 적지 않고 '홀몸'으로 적는다. 이와 비슷한 예로 '웃웃', '헛웃음' 등이 있다.
1578	홀벌	○	표준어 규정	%홀벌%은 비표준어이고 '단벌'이 표준어이다. 이는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579	홀실		표준어 규정	'홀실'은 '외겹실', '외올실'과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표준어이다.
1580	화곽	○	표준어 규정	한자어 '%화곽%'은 고유어 '성냥'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둘 가운데 '성냥'이 널리 쓰이므로 '성냥'이 표준어이고 '%화곽%'은 비표준어이다.
1581	화살		한글 맞춤법	화살'은 '활'과 '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활'의



				<p>끝소리 'ㄹ'이 소리나지 않으므로 '%활살%'이 아닌 '화살'로 적는다. 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소리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마소', '싸전' 등이 있다.</p>
1582	왓김		한글 맞춤법	<p>왓김'은 명사 '화'와 '김'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화:김/왓:김]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왓김'으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김%'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p>
1583	훗가루		한글 맞춤법	<p>훗가루'는 명사 '회'와 '가루'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회까루/훗까루]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훗가루'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가루%'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p>
1584	훗수		한글 맞춤법	<p>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훗수' 이 여섯 개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p>
1585	훔이다		한글 맞춤법	<p>훔이다'는 용언 '훔다의 기본형 '훔-'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ㅌ'이 뒤에 있는 'ㅣ' 모음에 영향을 받아 'ㅈ'으로 소리가 나 [훔치다]로 발음하지만, 그 기본형을 밝히어 '%훔치다%'가 아닌 '훔이다'로 적는다.</p>
1586	훗날		한글 맞춤법	<p>훗날'은 명사 '후'와 '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훈:날]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훗날'로 적는다. 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후날%'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p>
1587	훗씬		한글 맞춤법	<p>한 단어 안에서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는 받침 'ㄴ, ㄹ, ㅁ, ㅇ'은 '번개[번개]', '딸기[딸:기]'처럼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훗씬%'으로 적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이다.</p>
1588	훗방꾼		한글 맞춤법	<p>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p>

					하므로 ‘%훼방꾼%’이 아닌 ‘훼방꾼’으로 적어야 한다.
1589	휴게실			한글 맞춤법	한자어 ‘계’의 ‘ヶ’는 ‘ヶ’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ヶ’로 적는다. 하지만 ‘계송, 게시판, 휴게실’은 본음인 ‘ヶ’로만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휴게실%’이 아닌 휴게실’로 적는다.
1590	휴지	02		표준어 규정	‘휴지’와 ‘%수지%’의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휴지’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1591	흥내말			표준어 규정	‘흥내말’은 ‘시늉말’, ‘상징어’와 의미가 동일한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표준어이다.
1592	흙집			표준어 규정	‘흙집’과 ‘%힘집%’의 경우,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흙집’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1593	흥정꾼			한글 맞춤법	어떤 일을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꾼’은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흥정꾼%’이 아닌 ‘흥정꾼’으로 적어야 한다.
1594	희다			한글 맞춤법	‘희다’는 [히다]로 소리 나지만 ‘희다’로 적는다. 이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띄어쓰기[띠어쓰기]’, ‘희망[히망]’이 있다.
1595	희뽀다			한글 맞춤법	‘희뽀다’는 [히뽀따]로 소리 나지만 ‘희뽀다’로 적는다. 이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띄어쓰기[띠어쓰기]’, ‘희망[히망]’이 있다.
1596	희로애락			한글 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喜怒哀樂’을 ‘희로애락’으로 적는다. ‘怒’은 본음이 ‘노’이고 속음이 ‘로’인데, ‘忿怒’는 본음인 ‘분노’로, ‘喜怒哀樂’은 속음인 ‘희로애락’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 ‘승낙(承諾)/수락(受諾)’, ‘십일(十日)/시월(十月)’이 있다.
1597	희망			한글 맞춤법	‘희망’은 [히망]으로 소리 나지만 ‘희망’으로 적는다. 이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띄어쓰기[띠어쓰기]’, ‘희다[히다]’가 있다.
1598	흰둥이			표준어 규정	‘흰둥이’가 표준어이고 ‘%흰둥이%’는 비표준어이다. 이는 접미사 ‘-둥이’는 어원적으로 ‘-둥이’에서 왔지만 양

					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599	흰말			표준어 규정	'흰말'은 '%부루말%'과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가운데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흰말'이 표준어이고 그렇지 않은 '%부루말%'은 비표준어이다.

## 【Abstract】

### 2022 Revis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This study has three main goals. First, all the headwords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re reviewed for removal or selection. Second, a set of normative information for headword is selected and supplemented.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dictionary compilation at home and abroad and produces a user guide for convenient use of dictionari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accomplished the following seven tasks. First, all the headwords have been classified along a 4-level grade 'general/maintain/hold/delete' and about 99,000 vocabulary words were selected for removal. Grading criteria are as follows; technical terms or not, frequency value in Basic Vocabulary Corpus, frequency value in 'Everyone corpus', frequency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1900's newspaper, presence/absence and numbers of cited examples, presence/absence of exemplary sentences, frequency value by The Modern Korean Language Survey, registration in other Korean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 Wikipedia, etc.

Second, about 2,500 vocabulary words were derived from 'Urimalsaem' and entries were written. 500 or so words were discovered and written about for registration in the Dictionary.

Third, four criteria for headword registration have been established; ① words that can be used as the standard of linguistic practice, ② frequently used non-standard words and misrepresentations, ③ words widely used as a tool of communication in language community, ④ expressions not at the level of word but worth registration into the Dictionary.

Fourth, a set of normative informatio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2014 were reviewed, and around 1500 were selected and supplemented in form and contents for prioritization.

Fifth, the current condition of domestic and foreign dictionary compilation was investigated and its implications were summarized. The study looked in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f the United Kingdom, the

Merriam-Webster of the United States, the Academy of France, the Japanese Dictionary of Japan, and the Modern Korean Dictionary of China, for implications for revis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ixth, this study made a user guide to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to easily explain differences in character and function betwee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the Urimal saem and assist with the use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hat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revised to reflect the changing linguistic reality and enhance mutual intelligibility since the Dictionary forms the standard of linguistic practice, Therefore, the current research have established a coherent revision system and suggested specific plans to qualitatively improve the Dictionary.

**Keywords:**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headword, criteria for registering headwords, revis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ddition of headwords, normative information, and criteria for linguistic practice.

연구 책임자:	정희창(성균관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지혜(성균관대학교)	조남호(명지대학교)
	이성우(한림대학교)	이민석(상명대학교)
	오규환(동덕여자대학교)	강범일(연세대학교)
	한용운(동국대학교)	고대영(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성균관대학교)	이준환(전남대학교)
	이수연(국민대학교)	박지순(연세대학교)
	봉미경(연세대학교)	신유리(연세대학교)
	이선웅(경희대학교)	김한샘(연세대학교)
	한영규(성균관대학교)	이지하(성균관대학교)
	황호덕(성균관대학교)	박용찬(대구대학교)
	김선희(연세대학교)	
연구 보조원:	김강은(성균관대학교)	김종희(성균관대학교)
	김정원(성균관대학교)	손지은(고려대학교)
	김지윤(성균관대학교)	황지현(성균관대학교)
	홍상기(성균관대학교)	김민지(성균관대학교)
	이소미(성균관대학교)	조교현(성균관대학교)
담당 연구원:	이대성(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이유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2년 11월 27일

발행일: 2022년 11월 27일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2년 표준국어대사전  
개편’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